

# 제21회 공무원문예대전

대상 <모래의 문장>외 108편



공무원  
문예  
대상전

모래의 문장  
낙타

수상작품집



인사혁신처

공무원

문예

대진



수상작품집

2018 제21회

# 공무원 문예대전

2018년 6월 인쇄

2018년 6월 발행

발행 인사혁신처

발행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Tel. 044) 201-8422 / Fax. 044) 201-8428

펴낸곳 문원미디어 Tel. 042) 242-0897

※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제21회 공무원문예대전

대상 <모래의 문장>외 108편



인사혁신처



바쁜 업무 와중에도 문학에 대한 애정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온 참가자분들의 열정에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올해로 스물한 번째를 맞은 공무원문예대전에 입상하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훌륭한 문학 작품들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모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공무원문예대전은 창의적이고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문학 작품들이 출품되어 공무원 예술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자리매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원문예대전에는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동화, 희곡 등 7개 부문에서 역대 최다인 4,532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비공무원에게도 처음으로 참여자격을 부여하여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출품된 작품 모두가 업무에 정진하며 틈틈이 갈고 닦은 문학적 재능의 결실로서 주옥과 같이 소중한 다 할 것이나, 심사위원분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그 중 109편을 최종 입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문학 창작 활동은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어진 삶에 대한 통찰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공무수행에 헌신하면서도 문학에 대한 애정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온 참가자분들의 열정에 찬사와 격려를 보내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왕성한 활동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인사혁신처장 **김 판 석**



## 문학과 문화

문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신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다. 문학은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융성시키는 데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문학은 언어를 다루는 분야다. 언어를 조탁하고 그 기능을 신장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그래서 언어의 영역을 확장시켜준다. 언어는 문화의 핵심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언어는 사고思考를 일으키고 사고는 문화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문화 창달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문학은 인류의 발생과 동시에 존재해 왔다고 한다. 그만큼 문학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전하기 위해 말을 사용했을 것이고 보다 순조로운 소통을 위해 어떤 말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궁리했을 것이다. 이런 행위가 곧 문학의 시초인 것이다.

간혹 문학의 위기를 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문화는 발전지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고와 나란히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활동의 중요한 영역인 문학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문학은 역사와 함께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다양한 소재와 주제가 동원되고 형식과 구조도 여러 가지로 실험 채택되었으며 그 시대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 따라 내용도 그 깊이와 품격이 상승되어 왔다. 그런 과정에서 문학이 전문화되고 미학적 고품위의 글로 진화해 왔다. 문학이 난해하고 까다로워 접근하기 어렵게 된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아직도 많이 써지고 읽혀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것은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양과 인격을 갖추는데 큰 흠결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우리의 정서를 순화·안정시켜 줌으로써 삶의 묘미와 행복감을 느끼게 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은 곧 사람의 이야기이고, 사람의 노래인 것이다. 문학 속에는 창조적 세계가 내장되어 있다. 수련된 지성과 활발한 상상력은 문학을 이루는 두 축이 된다. 독자들은 문학을 통해 인간성을 함양하고 꿈을 키우며 올바른 인생관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 문예대전이 대단한 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비단 숫자적 의미만이 아니라 그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다. 나라의 일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은 곧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문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창작에 임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밝은 앞날을 보는 듯도 하다. 가슴이 삭막한,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한, 꿈과 희망을 모르는 공무원이 어떻게 국민을 잘 돌볼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심사에 임한 심사위원들은 매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필자들의 정성과 사랑과 꿈이 심사위원들의 가슴에 스며들어왔다. 어떤 분들은 꽤 숙련된 솜씨로 형식과 내용을 갖춰서 미학적으로 승화된 글을 보여주었다. 그런 작품을 대할 때마다 심사위원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또 어떤 작품들은 그 표현과 구성이 아직은 미흡하여 선외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미숙성 속에서도 훈훈한 정서가 느껴졌다. 간혹 남의 작품을 흉내 내거나 진실성이 결여된 글도 볼 수 있었지만 대체로 문학에 대한 의욕만은 충만했다고 생각된다.

어떤 이는 세상을 새롭게 보는 작업이 문학이라고 했다. 이때 '세상'이란 사람, 자연계의 여러 생명체나 사물, 또는 우주의 삼라만상일 것이다. 이것들의 겉모습, 지금까지 알려진 속성 등을 뛰어넘어 또 다른 의미나 본질을 찾아내는 일이 문학이라는 말이다. 그리 생각하면 문학은 세상읽기인 셈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큰 책, 문자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언가 말을 하고 있는 책을 잘 해독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계를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일일 것이다. 이 일은 밝은 눈과 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오늘 공무원 문예대전에 글을 보낸 공무원들, 특히 상을 받게 되는 분들은 눈을 더 크게 뜨고 귀를 더 크게 열어 세상의 비의秘意를 읽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란다.

2018년 6월

심사위원장 **문 효 치**

(시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 Contents 차례

발간사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4
심사총편	심사위원장   문효치	6

## 대상 수상작

심사평		14
<b>대상</b> 모래의 문장	울산 공립구영유치원   최수안	15

## 시

심사평		18
<b>은상</b> 출석부를 넘기며	전남 여수부영여고   최정삼	22
별들의 비행	서울 자양중학교   이초롱	25
무화과에게 쓰는 편지	울산 꽃바위유치원   이옥래	28
지구에 사는 화성인	강원도 원주시   엄정은	31
<b>동상</b> 흡손	전)경기도 부천시   정수경	37
장마전보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김유리	40
과메기	경찰청   이영원	43
보수동 헌책방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박지영	46
먹똥 향기~	호남지방통계청   김영희	49
채식주의자	광주 주월중학교   엄영희	52
늦여름의 레시피	경기도 안산호원초등학교   박형식	55
푸른 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   이상범	58
곱슬머리	강원도 강릉시   이순남	61
박사장의 몽블랑 만년필	경북 영양군   조성대	64
개망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해진	67
이천일십칠년 군중	경남 남해군   김향숙	70
<b>특선</b> 각설이	충남 당진시   고승영	73
창문 밖 풀꽃	경기도 광명시 서면초   김금숙	76
未完成 幼年	대구광역시 동구   오재희	78
이름들	울산광역시 동구   류상현	81
어머니의 다듬이질	전북대학교   김광용	83
개수대	충북 보은군   노순미	86
자동기술법	경북 의성군   최지용	89
나에게 이름이 없었을 때	기상청   조희애	92
십 삼월의 바다	제주 농업기술원   윤빛나	95



<b>입선</b> 밤하늘의 위선	인천광역시 서구	전유진	99
아버지를 품은 사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도연	103
막걸리 판타지전	울산광역시 동구	길균아	106
너에게 닿지 못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미소	109
12월의 서재	대구지방교정청	임정태	111
봄! 바람	경기도 화성시	김세리	114
향(香)	인천광역시	정정현	116
울고 싶은 저녁	서울양천경찰서	박민경	118
청춘경매	부산 백양초등학교	박소정	121
저녁 달	제주 중문고등학교	안연진	124

## 소설

심사평			127
<b>금상</b> 고양이 섬의 리즈 길모어	파주 자운학교	배재희	130
<b>은상</b> 꿈꾸는 자	경기도 안산시	이주현	166
후크송	경북 포항시	배혜정	186
<b>동상</b> 갈림길	전)서울지방교정청	김창구	201
고생대에 살았던 작고 희귀한 기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희진	239
공사다람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길년	257
<b>특선</b> 관촬아	경기도 이천시 진가초등학교	김대홍	295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법무연수원	손용주	316
명주	강원도 춘천시	윤수진	348
금맥(金脈)	전)대전 도마초등학교	이종욱	396
<b>입선</b> 고평이 유희	경기도 봉담초등학교	한경애	421
그가 왜	광주지방경찰청	오현석	442

## 수필

심사평			461
<b>금상</b> 일수불퇴(一手不退)	대구광역시 달성군	김광규	464
<b>은상</b> 보습	전)전주 중산초등학교	신정모	469
飛翔(비상)	전)대구 대서중학교	임종훈	474
창호지를 바르며	전)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갑수	480
<b>동상</b> 행복하기 위해서	경남 밀양시	이기범	485
코스모스	경기도 오남고등학교	박명서	493
꽃송이	경기도 안곡초등학교	권택은	499



# Contents 차례

보호자	경기도   유미경	506
손	전)울산광역시   김갑주	513
무현금無絃琴	전)국세청 상주세무서   최상근	521
<b>특선</b> 나의 우주	광주광역시   남해은	526
지붕 위의 오동나무	경북 청도 이서초등학교   이정경	532
구멍 난 양말	기획재정부   광경준	537
아버지	경기도 의왕시   정정자	542
등대, 속히 귀환하라	서울양천경찰서   최호열	550
고향생각	전)군산여자고등학교   이내빈	555
<b>입선</b> 구름이	부산광역시   예명옥	562
그 흐린 날의 기억	부산광역시 북구   지규태	567
설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예라	574
꽃 피는 봄이 오면	대전글꽃중학교   권민희	580
아버지의 보물	전)대구지방교정청   이재기	588
50년 만의 화해	전)부산울속도초등학교   광선희	595

## 시조

심사평		600
<b>금상</b> 아버지의 손수레	강원도 태백시   남궁증	602
<b>은상</b> 결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김견숙	604
<b>동상</b> 따뜻한 얼음	전)인천광역시 남동구   차용길	606
다랭이 마을을 읽다	경남 남해군   김향숙	608
<b>특선</b> 가을 앞에서	국방부   이성배	610
3월 목련	전)대구선원초등학교   이상운	612
세 밀 에	전)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최영기	614
허물벗기	전남 순천중앙초등학교   강수하	616
<b>입선</b> 넥타이	제주지방법원   강용전	618
참두릅 편지	경기도 오산시   손창완	620
공터	경남 창녕군 남지초등학교   임미연	622

## 동시

심사평		623
<b>금상</b> 빈집	경북 상주 외서초등학교   문초록	626
<b>은상</b> 감기 걸린 우산	해양수산부 남해해양조사사무소   서정완	629
선 그리기 연습	충북 음성 감곡초등학교   이태동	631

<b>동상</b> 방학식	경기도 화성 금곡초등학교	유영길	633
보호색	전)강원영동병무지청	한영환	635
참새	충북 제천 의림초등학교	윤은분	637
<b>특선</b> 바람엔 그럴 수 있다면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한경남	639
보길도	전북 익산 이리고등학교	이진호	642
등대	국세청	서원식	644
<b>입선</b> 아픈 길	경기도 안산시 선부초등학교	장홍진	646
웅크린 중앙선	광주 본촌초등학교	유백순	648
반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이선희	650
거인	전)충북음성소방서	윤은경	653

## 동화

심사평			655
<b>금상</b> 강아지 포포를 만나는 방법	대구광역시	윤인건	658
<b>은상</b> 아기토끼 친칠라와 분홍삼각소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동택	666
<b>동상</b> 내 옆에 너	대구 왕선초등학교	이재영	675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	경기도 남양주시	송의정	683
<b>특선</b> 몽당연필을 찾아라!	강원도 화천초등학교	김은득	696
산타할아버지의 선물	서울 송파경찰서	오상백	705
겨울 나무 삽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지영	718
<b>입선</b> 마녀 고델	법제처	노연우	726
긴 꼬리 고양이 몽몽	서울구산초등학교	이영주	738
민무늬 편지의 이야기	강원지방우정청	이재우	754
작은 음악회	관세청 김해공항세관	이수진	766

## 희곡

심사평			777
<b>금상</b> 집 보러 가도 될까요?	헌법재판소	정은숙	780
<b>동상</b> 내 일이 찾아오면	광주지방교정청	김현중	804
<b>특선</b> 어느 날 우연히, 찹질방	전북 완주군	정선옥	832
<b>입선</b> 지옥고	전남 순천인안초등학교	선종수	861





# 제21회 공무원문예대전

대상 <모래의 문장>외 108편



# 대상 수상작



## 심사평

대상을 차지한 시 최수안의 <모래의 문장>을 살펴본다. 이 시에서는 감지되고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다. 요즘 시에서 유행처럼 쓰이는 여행 체험에서 보고 느끼는 ‘사막’ ‘모래’ ‘낙타’를 최수안도 같이 차용하고 있긴 하나 차별성을 가지고 읽혀진다. 침 없는 나침반을 쥐어줘도(희망 없음) 끝도 없는 긴 고통의 길을 걷는 순한 낙타를 통해 피처럼 써지는 모래문장, 그 문장을 쓰고 있는 시인이나 읽는 독자 모두 혈맥으로 이루어진 모래경을 읽는 느낌을 주고 있다. 낙타처럼 낙타의 정강이를 세울 때부터 끝도 없이 모래를 걸어가며 써내려가야 하는 모래 문장을 필자는 그 무의식적 총위에 이런 고통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서사구조와 시적 발화의 에너지가 직진성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봐서 이 작품은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에 심사위원 전원이 합의했다.

심사위원 : 문효치, 최문자(글), 노창수

# 대상

울산 공립구영유치원  
최 수 안



## 수상소감

연주하는 일이 녹록지 않았지만 현을 튕기는 손가락이 저절로 착해졌습니다. 공기는 목말랐으나 마음 한 구석 우물이 있었고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7번 국도는 계절을 갈아입느라 늘 분주했지요. 낫달 핀 하늘이 복숭아빛 적시던 삼시간을 채곡 접어 시집 갈피에 넣고 동리목월로 향하는 날은 맑은 산사로 마실가는 날이었습니다. 긴 날 동안 시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손진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마음 산책길에 늘 곁을 내준 연법님과 문우님들, 뽑아주신 심사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모래의 문장

낙타

그 순한 정강이를 세울 때부터  
부신 태양 아래 발바닥은 단단해지죠  
모래 바람이 만든 곁 고운 문장을 따라가는 일이라  
등뼈보다 큰 사구들을 마다하지 않았죠

바람이 던진 베일이 사막을 훑고  
몽롱한 동공 속 푸른 호수가 깊어지면  
소금빛 머금은 속눈썹이 서서히 열려요  
발자국 사이 느릿한 관절을 끌고  
가시가 지은 묘비를 지나  
현기증 이랑을 몸속에 새겨요



터번 쓴 선인장이 생채기를 부르는 오후  
갈라진 햇바닥 틈으로 이국의 문장이 벼적거리고  
혈맥을 타고 흐르는 글자들이  
침 없는 나침반을 쥐어주면  
낙타, 혹 속에 뜨거운 매듭들이  
풀고 엮고 손톱 긁어 모래경을 또 만들어내요

누천년을 모래에 파묻힌 얼굴  
해부되지 않는 내가 그 속에  
산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꿈틀거리며 돌아나는 뒤꿈치가  
걷고 걷는 일이 길의 끝이라는 듯

모래 언덕 너머 저 끝도 없는 여백을 더듬어가요  
은하가 찰방이며 떨균 받침들 이마에 받으며

# 시



## 심사평

희망(시 쓰기)에게는 좀 더 고통이 필요하다.

2018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21회 공무원문예대전 시부문 심사에 문효치 시인, 최문자 시인, 노창수 시인이 심사를 받게 되었다. 심사는 문학적인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총 2,588편의 시작품을 읽고 시부문에서 36편의 입상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대상 수상자로 시 〈모래의 문장〉을 쓴 최수안을 만장일치로 선정하였다.

세상에는 시를 읽지 않는 사람들이 시를 읽는 사람들 보다 훨씬 더 많다. 시는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거나 큰 명예를 부여해 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써낸 2,588편의 많은 시편들이 15일 응모기간에 응모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의 시적 감각과 사고의 유연성을 긍정적으로 가늠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문학적으로 질적 수준을 갖게 되는 것 또한 매우 의미롭다.

일부 작품들에서는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의 사물이나 사건을 그냥 묘사한 사실만 강한 시들이거나, 자주 떠오르는 생각들을 깊은 사유 없이 쉽게 써내려간 시, 적절치 못한 수사나 비유를 남용하는 것으로 오히려 시의 맛을 떨어뜨리는 시의 예가 많이 눈에 띄었다. 어쨌든 시를 쓰려는 자들의 희망(시쓰기)에게는 좀 더 고통과 울음이 필요하다.

은상 수상작인 최정삼의 <출석부를 넘기며>는 회고적 시선이 돋보여 심사위원들의 많은 호감을 사긴 했으나 출석부 자체로의 구체적인 소재의 성격들이 관념의 징후나 모호한 서정으로 내보이는 방식에 무리가 있었다. 다른 은상 수상자 이초룡의 <벌들의 비행>은 좋은 작품으로 일혀졌다. 슬병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말벌의 비행이 전혀 죽음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물에 고도로 집중하여 시적 가능성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옥래의 <무화과에게 쓰는 편지>도 은상을 수상하기에 충분한 작품이다. 그러나 시적으로 공작은 언어와 표현들만이 시에서 빛나는 것은 아니다. 표면적으로 격렬하고 거친 표현들도 빛을 발한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은상을 수상한 엄정은의 <지구에 사는 화성인>은 심사위원 모두에게 1인칭으로 쓰인 고백 같지 않은 새로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긴 호흡과 새로움은 분명 큰 장점이긴 하나,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선 시의 리얼리즘을 몸으로 사는 일이 시에서 느껴져야 한다.

동상 수상자는 모두 열두 명이였다. 일일이 작품마다 평을 달기 보다는 일반적 경향으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영원의 <과매기>, 박지영의 <보수동 헌 책방>, 박형식의 <늦여름의 레시피>, 조성태의 <박사장의 몽블랑 만년필> 등의 작품들은 사건과 사실과 인간이 만나는 방식에 대하여 주로 노래하고 있다. 시인의 눈과 마주치는 특별한 사실 사물들은 시인을 불러 세우고 시를 쓰게 만든다. 한편 정수경의 <흙손>, 김유리의 <장마전보>, 김영희의 <먹똥 향기~>, 이상범의 <푸른 봄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해진의 <개망초>, 이순남의 <곰슬머리> 등의 시에서는 극적인 시각적 반전 보다는 시인의 시선이 풍경과 정경에 가 있다. 외마디 비명도 없이 담담하고 일관되게 바깥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엄경희의 <채식주의자>, 김향숙의 <이천일십칠년 균중>은 시적 대상을 인간 삶의 유비로 환치하려는 시적 매력을 주고 있다. 이 두 시를 쓴 필자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독특한 자발성의 성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심사위원 세 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었다.

수상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주최 측 담당자들의 성의와 열정에게도.

심사위원 : 문호치, 최문자(글), 노창수

은상

출석부를 넘기며 \_ 전남 여수부영여고 최정삼  
별들의 비행 \_ 서울 자양중학교 이초롱  
무화과에게 쓰는 편지 \_ 울산 꽃바위유치원 이옥래  
지구에 사는 화성인 \_ 강원도 원주시 엄정은

동상

흙손 \_ 전)경기도 부천시 정수경  
장마전보 \_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김유리  
과메기 \_ 경찰청 이영원  
보수동 헌책방 \_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박지영  
떡뽕 향기~ \_ 호남지방통계청 김영희  
채식주의자 \_ 광주 주월중학교 엄영희  
늦여름의 레시피 \_ 경기도 안산호원초등학교 박형식  
푸른 봄들에게 보내는 편지 \_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 이상범  
곶술머리 \_ 강원도 강릉시 이순남  
박사장의 몽블랑 만년필 \_ 경북 영양군 조성대  
개망초 \_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해진  
이천일십칠년 군중 \_ 경남 남해군 김향숙

특선

각설이 \_ 충남 당진시 고승영  
창문 밖 풀꽃 \_ 경기도 광명시 서면초 김금숙  
未完成 幼年 \_ 대구광역시 동구 오재희  
이름들 \_ 울산광역시 동구 류상헌  
어머니의 다듬이질 \_ 전북대학교 김광용  
개수대 \_ 충북 보은군 노순미  
자동기술법 \_ 경북 의성군 최지용



나에게 이름이 없었을 때 \_ 기상청 조회애  
 십 삼월의 바다 \_ 제주 농업기술원 윤빛나

**입선**

밤하늘의 위선 \_ 인천광역시 서구 전유진  
 아버지를 품은 사람 \_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도연  
 막걸리 판타지전 \_ 울산광역시 동구 길균아  
 너에게 닿지 못할 시 \_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미소  
 12월의 서재 \_ 대구지방교정청 임정태  
 봄! 바람 \_ 경기도 화성시 김세리  
 향(香) \_ 인천광역시 정정현  
 울고 싶은 저녁 \_ 서울양천경찰서 박민경  
 청춘경매 \_ 부산 백양초등학교 박소정  
 저녁 달 \_ 제주 중문고등학교 안연진



# 은상



전남 여수부영여고  
최정삼



## 수상소감

‘항하사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를 생각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책을 읽는 일도, 글을 쓰는 일도, 세상을 사는 일도 그렇게만 느껴집니다. 허랑하게 보낸 시간의 끄트머리쯤에서 마음만 제 홀로 앞서 가기 때문일까요? 안뚱이며 총기는 자꾸 뒤돌아가라고 말리는 것만 같은데, 감연히 돌리지 못하는 시선과 미적거리는 발길은 얼어붙은 듯 무겁기만 하고, 첩첩한 산 너머에 미루어진 일들은 아직도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저의 이 오랜 병통 때문에, 오직 저의 주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몫의 짐까지 일부 나누어 등에 지고 말없이 걷고 계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뜻을, 염치 불구하고, 우선 이 얇은 감사의 말로 대신 올립니다. 진정 고맙습니다.

## 출석부를 넘기며

그 수많은 날들이 네모 칸으로 들어선  
 씨줄과 날줄의 사이에서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이 보인다. 그어진  
 작대기들을 건너뛰며  
 죽어있음도 때로는 아름다운 법이라고  
 지울 수 없는 시간들을 스스로  
 다독이며, 앞날을 가늠하듯  
 출석부를 넘긴다.

옹색한 종이의 면마다에서  
 해가 뜨고 날이 저물 때, 세월은  
 더불어 갈 동무가 없어 외로운 길을  
 구획하고, 우리들의 삶이 박제처럼  
 표정 없는 기록으로 남아서, 얼마나  
 아쉬웁게 살았는가고 물을 때 그러나  
 소리는 아무데도 없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수수우수수 해먹은 오늘 위로 떨어져 내리는, 희어서  
 가지런한 기억의 껍질들.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그리움  
들을 페이지 책장 구석구석에 깊이 묻은 채로  
이제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고  
쓸쓸히 기록의 시간들을 돌아 나올 때  
신호처럼 불이 나가고, 어둠 속에서  
나는 출석부를 덮으며 정말로 방을 나섰다. 그때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고, 내가난한 삶이  
그 별빛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 은상



서울 자양중학교  
이 초 룡



## 수상소감

붉은 깃을 세우고 문득 갈 곳을 잃은 새 한 마리가 머릿속에 살고 있습니다.  
흐릿해지는 그림자를 다독여가며 날갯짓을 해보던 찰나에 수상 소식을 듣게 되었  
습니다. 부유하던 빛 한 줄기가 손끝에 닿아 미완의 형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더불어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는 당신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 별들의 비행

술병 속에서 떠오르는 말별집이 있다  
잠들어있던 별들이 은빛 날개를 털고 일어서면  
한 잔의 맑은 물이 출렁거리고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울음소리가 제 몸에 깃드는 줄도 모른 채 눈물을  
눌러 담은 별떼들이 있다 라디오 잠음처럼

방 안을 진동하는 날갯짓  
오래 틀어놓은 음악과 침묵이 두 귀를 잡고 웅크리고 있어

유리병 속에서 별 몇 마리가 사력을 다해 눈 뜬다  
부드러운 흙을 털고 날아오르는 빈 몸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품을 따라

숲을 떠돌던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감싸고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별들이 두 눈에 박히는 순간,  
별들이 한 바퀴를 돌면 저녁이 깊어진다

물의 지느러미가 흔들리고  
 빛을 움켜쥔 다리들이 하나 둘 떠오르는 동안,  
 빈 병통에서 바닐라 냄새가 풍겨 나오고

버둥거릴수록 차오르는 어둠이 눈앞에 당도한다  
 궤도를 그리며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  
 흘러넘치는 지문이 입 안 가득 고인다

이름을 버린 몇 개의 영혼이 눈발처럼 휘날리는 새벽,  
 뚜껑을 열자 벌떼가 날아오른다 온몸에 박힌 심장들이 두근거린다



# 은상



울산 꽃바위유치원  
이 옥 래



## 수상소감

고향집을 지키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 초록으로 부풀어가는 계절입니다.  
안으로 안으로 피어나는 꽃들이 시가 되듯이 어머니는 시처럼 살다가 떠나셨습니다.  
수상소식에 무화과를 따 주시던 어머니가 더욱 그리웁습니다.  
어설피른 시를 뽑아주신 심사위원님 고맙습니다.  
진실한 은혜 깨우쳐 가며 손끝으로 시를 짓는 가르침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애기 무화과 하나 영글어가는 기쁨, 내 딸 채연 사랑해!  
잘 익어가는 엄마가 될게.

## 무화과에게 쓰는 편지

꽃 없이 피어 익어가는 것들에게 쓴다  
 나는 당신의 속내를 알 수 없었지  
 가지 끝에서부터 초록세포 몇 바람에 부풀리던  
 꽃도 없이 말이야, 지나다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열매를 달고 서있던  
 당신, 나는 열매를 한바구니 담아 그제  
 뚝고도 달콤한 생을 음미할 뿐이었지  
 물관을 타고 흐르는 골 깊은 말들은  
 붉은 가르마 어디쯤에서 길을 잃었을까  
 주름 켜켜이 희고 작은 과육들이  
 언제부터 지고 피고 영글기 시작했는지  
 이 촌촌히 박힌 기억들이 입 속에서 희미해지는 동안  
 피 본적 없는 꽃잎들이 이미 구름보다  
 높은 곳을 날고 있는 걸 상상해  
 그래, 바깥을 모르는 거야말로  
 꽃 같이 아련한 웃음을 가져다 준 걸지도,  
 기억장치 무너져 달콤해져가는 무화과 하나  
 가끔 검은 태풍 사이로 낙과되고 싶었을 테지  
 이제 하늘 길 몇 갈래 매듭짓는 아침이 오고

나는 무화과를 씹으며 당신을 생각하다  
잊어버리다 하지, 안으로만 찢구나 꽃은  
흰 과육이었구나, 되뇌며  
시간을 더듬어 내 안에서 말랑해지는 당신  
욕심 없이 고고히 매달린 무화과를 올려다본다  
어머니, 농익어가는 어머니



# 은상

강원도 원주시  
엄정은



## 수상소감

제 친할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셨고, 친척 여동생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길었던지라, 그들은 제게 장애인이 아닌 그저 몸이 불편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특수 학교 설립을 위해 장애인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은 사건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작품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고,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구에서 사는 화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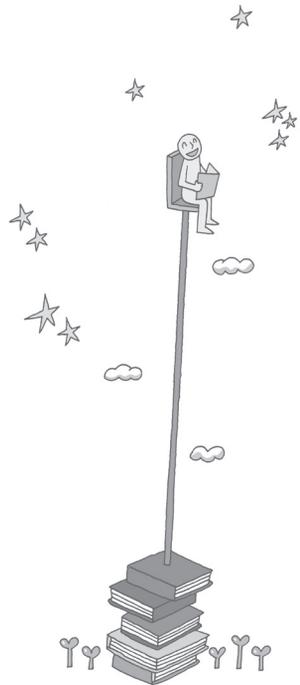
나는  
지구에서 사는  
화성인.

나는  
단지 몸만 불편할 뿐인데도  
당신들은  
나를  
같은 지구인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말은  
장애우(障礙友)

현실은  
이방인(異邦人).

나의 친구는  
오로지  
나의 어머니뿐.



그런데도  
당신들은  
나를  
탓한다

지구에  
적응하지 못한다며.

다가오라 말하면서  
정작  
다리(橋)는 만들지 않는  
참  
정상적인  
지구인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사는 땅을 밟지 못한다.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서.

다리 하나를 놓으려면  
나의 어머니가  
무릎 정도는 꿇어줘야 하기에.

나는  
지구에 살지만  
아직도  
지구에 사는 법이 서툰  
화성인.

오늘밤  
나의 고향  
화성으로 가기 위해  
난간에 오른다.

그러나  
눈을 감고 생각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이미  
쉬어터진 목소리로  
피맺힌 절망만 부르짖는다.  
그러나

그것은

온몸으로 외쳐도

지구인들에게는  
결코  
들리지 않을

소리 없는 비명.

그러다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보았다.

내 다리를 붙잡고

지구인들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을

피눈물을 쏟고 있는  
나의 어머니를.

하지만.....

죄송해요.

내가  
허공에  
몸을  
던지자

어머니가  
나를  
꼬옥  
감싸안으며 속삭였다.

아니야.  
엄마가  
다  
미안해.

오늘밤  
우리는  
화성으로 갔다

아니  
쫓겨났다.



# 동상



전)경기도 부천시  
정 수 경



## 수상소감

시의 눈을 갖는다는 것 그건 흠손 같은 세계를 발견하는 것. 사과를 꺾으면 보이지 않던 손을 갖게 되는 것. 시의 눈을 찾아 계단을 오르듯 차근차근 오르겠습니다.

제게 있어 공무원문예대전이 그 발판이 되겠습니다. 이어질 계단을 만들며 찬찬이 오르겠습니다. 총총이 꽃을 피우겠습니다. 총총이꽃 같은. 이런 기회를 주신 인사혁신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를 쓸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아름다운 초록의 여름 되세요. 감사합니다.

## 흙손

만져줘야 마무리되는 세계가 있었겠다

흙과 나무의 손놀림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겠다

여백은 안타까움이었겠다

지친 어깨 다독여주던 손, 지금은 없고

무덤덤하게 외면되는

그런 손 말고

없거나 무딘 거기를 예리하게 세워

사과를 깎으면

껍질은 섬세한 길을 만들어낸다

후에

계단을 만들고 계단을 구겨 꽃을 피우고

지칠 때 손은 층층이꽃처럼 생겨난다

입술 너머

손끝이 거기에 닿을 때  
발견된 적 없는 꽃으로 예리한 국경을 만들었겠다

구석에 걸린 그림처럼 만져줘야 살아나겠다  
다소 뜨거워 넘어갈 수 없었겠다

결국 그런 추측의 세계가 있었겠다

껍질을 깎던 손이 마무리되는 세계가 있었겠다



# 동상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김 유 리



## 수상소감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유난했던 봄장마가 그치던 날, 수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언어를 보고, 들리지 않는 언어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장마전보

그리고

투명의 교신이 시작되었다

방울방울 맺혀

후둑후둑 떨어지는

비의 부호에는 십표가 가득하다

어느 어린 여름날

축축히 잠든 이마와

곰팡이 핀 벽지 너머로 들었던

십표, 십표들

그 때 너와 내가 썼던 시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나의 우편함에는

숫자들만 꽃힐 뿐

그 어떤 말들도 찾아오지 않는데

해독할 수 없는 장마의 편지들만이  
빈 지붕을 두드린다

-여보세요, 내 슬픔이 아직 거기에 사나요

나는 아직 여기에  
우산 없이 서 있다

여름이 보낸 수취인불명의 편지들을 흠뻑 안고

꼬리 잃은 나의 썬표들과  
헤엄치고 있다



# 동상



경찰청  
이영원



## 수상소감

지친 몸으로 퇴근을 하며 혐오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리는 얼마나 혐오에 취약하고, 혐오의 유혹에 쉽게 져어드는지. 모든 사물과 사람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는 것은 세상의 이치겠지만, 쏟아지는 업무와 불친절한 얼굴들을 헤매다보면, 악의를 앞세운 창날들이 나를 포위하는 것처럼 여겨지곤 한다.

의도치 않게 마음에 毒(독)을 품는 순간이기도 한데, 그럴 때면 저 먼 구룡포에서 과메기 다듬어지는 모습을 생각했다. 한겨울 손질한 청어를 민물에 흠뻑 행군 후 덕장에 넣어 말리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기름기가 빠져 담백해진다고 한다. 그런 마음으로 덕장도 아닌 평행봉을 오르곤 했었는데, 과연 이 생은 담백해졌는지.

## 과메기

총망중, 수화기를 내려놓고  
사방으로 튄 혈흔을 주위 밖으로 나선다  
담벼락 아래 얼굴을 숨긴 사람들, 자욱한 연기  
그보다 스무 발자국 쯤 양지바른 곳에 서서  
보이지 않던 총구의 방향을 가늠해본다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숙고하는 범의관처럼  
선의인지 악의인지 아니면 무지인지  
선혈이 튄 방향으로 방아쇠의 의지를 따져 묻는다  
만일 사출구가 나침반처럼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그의 혐의를 입증할 텐데  
일소란 얼마나 멀고도 가까운 경지일까  
악력(惡力)기라고 부르며 쥐어짜던  
악력(握力)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한겨울 공기가 스며들 때  
언젠가 다크에서 보았던 킁킁한 우주가 온다  
'차가움이란 열의 부재일 따름이라  
-273도인 절대온도 아래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친절한 해설을 분수처럼 뒤집어볼 때  
이 씨의 다정은 얼마나 거대할 수 있을까

젖어드는 미열에 눈을 감으면  
가본 적 없는 구룡포 앞 바다  
나를 민물로 끊임없이 행귀주는 풍경  
내일의 비린내를 없애려면  
오늘의 핏물을 잘 씻어야한다는 속삭임  
발을 동동 구르며  
어제와 같은 평행봉 위에 오르면  
저 먼 수평선  
유구한 해풍을 온몸으로 맞는다  
날이 차가우면 단단하게 얼어붙고  
날이 풀리면 기름기를 푹푹 흘리기를  
다시 날이 차가우면 더 단단하게 얼고  
다시 날이 잦아들면 더 많이 흘리기를  
그렇게 무수히 반복되다가  
어느새 담백해질 체질  
아마도 그러할 미래  
감히 서둘지도 분주하지도 않기로 한다  
폭력, 권력, 알력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중력은 조용히 속삭이기에  
온 겨울 내 평행봉 위에 걸려있었다  
길쭉한 봄의 그림자를 그리며

# 동상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박지영



## 수상소감

뜻밖의 문자를 받고 스팸문자인줄만 알았습니다.  
공모전 팝업창이 한동안 계속 보이길래...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제출했는데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되어 영광입니다.  
평소 막연하게 글을 쓰고 싶다 꿈꾸던 저에게 자신감과 계기가 되는 큰 사건(?)일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의 시를 좋게 봐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보수동 헌책방

추억을 사러가고 싶어졌다.

책곰팡이 냄새

꽤쾌한 나무 냄새

물떡

참쌀도너츠...

난해하기만한

고향 부산의 도로 가운데

어느새

짜증 가득한 표정의 여행객이 되어 앉아있다.

덥고 차는 막힌다.

다닐뻔한 직장도

버스창 너머로 보이고..

내가 탄 81번 버스는 정거장마다 추억을 지나간다

부산역.  
중앙동.  
국제시장.

버스 방송이 알린다.  
다음 정류장은  
보수동 헌책방골목

설레는 마음에  
피식 웃으며  
부저를 누른다.



# 동상

호남지방통계청  
김영희



## 수상소감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 올립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큰상을 받게 된 것에 기쁨을 감추기가 힘들어 나도 모르게 약~!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어머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92세)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지만 집에 모셔오는 날은 저와 여행가는  
기분으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향수보다도 더 고귀한 선물을 언제까지 받을지는 모르지만 어머님을 위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쁜 머느리가 되겠습니다.

## 떡뽕 향기~

거실창문 열면 노란수선화 향기 날아오고  
어머님이 차신 기저귀 열면  
떡뽕향기 코끝에 스며든다

엄니, 썼어요?  
아니! 안 썼어  
냄새가 난디?

당신이 주고 싶어 하는 그리움의 향기!  
내 가슴 깊숙이 애잔하게 퍼진다

어느 자식에게도 당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시더니  
떠나시기 전 꼭! 셋째며느리에게만 주고 싶었을까?  
먼 여행길 보내드리기 전 꼭! 받고 싶었을까...

하루해가 까매지는 줄도 모르고  
당신의 향기에 중독 될 때  
미안해하는 눈빛으로 이 뿌리 보이며  
초승달의 미소를 띤다  
엄니, 웃는 모습이 예뻐서 수선화도 시샘을 한다

그리운 나의어머님!!!  
당신이 주신 먹똥향기는  
당신이 떠나신 후에도  
커피 잔에 눈물방울 똑똑똑.....



# 동상



광주 주월중학교  
엄영희



## 수상소감

오래 묵힌 마음을 시로 엮어 보낸 후에 기다렸다.  
무엇이 되어도 좋고 무엇이 되지 않는다 해도 좋았다.  
기다림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것이기에.....

기다림이 조금 지루해져도 자신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어느 봄날에 주저앉아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니.....

## 채식주의자

붉은 것을 좋아할수록 송곳니가 자라는 꿈을 꾸었다

피가 도는 봄날

할머니는 흐르는 물에 나물을 씻으며

애야 푸성귀는 눈이 없어 좋구나

나는 눈이 없어 조금은 덜 아프다는 말처럼 들렸다

폭풍우를 이겨내고 자란 몸의 푸른 명

산나물은 묶은 머리를 풀고 물의 방향으로 맑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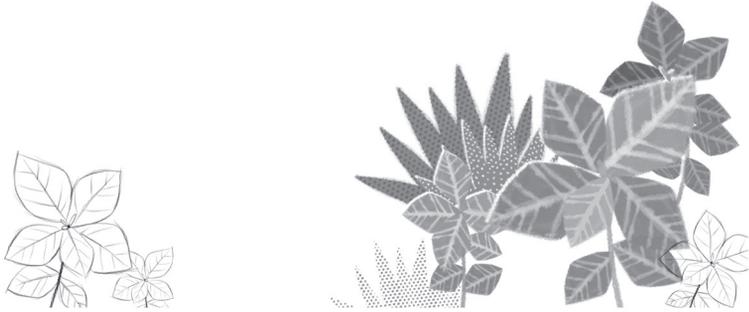
나는 무방비로 탈진했다

할머니는 풀물 든 뭉툭한 손으로 내 눈꺼풀을 열어 보셨다

명이 나물을 먹고 귀가 밝아지거나

방풍 나물을 먹고 바람을 이기는 꿈은 전설에서나 가능해요 할머니

모르겠어요 이제 와 봄까치풀처럼 개명을 꿈꾸어도 좋을지



애야 다 지나간다 옆드리면 등을 타고 다 지나간다

봄이 오면 할머니는 늘 푸른 밥상을 차리셨다

몸 푸른 것들을 더 푸르게 뿌리째 비비고 버무리는 동안 나도 물이 들었다

나는 내가 먹은 이름의 전부이니

나는 내가 아는 눈빛의 전부이니

나물죽 한 그릇이 등을 타고 통과한다

충혈된 것들을 흔들어 흘려보낸다

# 동상



경기도 안산호원초등학교  
박형식



## 수상소감

타고난 글쟁이도 아니고 엄청난 독서량도 가지지 못한 이에게 글쓰기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글쓰기도 어려운데 더구나 잘 쓴다는 것은 제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언어를 갖고 놀 재능도 없이 마땅히 내 글을 읽어줄 문우도 없고 스승도 없이 내가 편집한 세상을 그냥 무작정 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글이 제대로 될 일 없었고 안 되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려보내고 내 재능 없음을 탓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하루가 지났건만 이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느낍니다. 지면을 통해 글이 탄생하는 즐거움을, 언어로 어루만질 수 있는 세상을, 독서하는 방법의 글쓰기를 이제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 장기선과 신비, 시현에게도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새로운 독서를 위해 정류장에 잠시 내렸다가 다시 기차에 오를 시간을 오래도록 기다리겠습니다.

## 늦여름의 레시피

양파껍질 같은 얇은 하늘을 창가에 가지런하게 걸어놓으면 한 동안 마른 햇빛 냄새를 맡을 수 있겠지 투명한 하늘은 건더기 없이 국물을 낼 수 있어 좋아 먹기 좋게 발려놓고 썰어놓으면 기름 범벅 밀가루 범벅 갑자기 터지는 웃음소리 까르르 네 목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 까르르

금방 만져 놓은 구름 반죽이 완성이 되면 프라이팬이 달궈지기 전 이상하게도 그늘 한 장 없는 대낮의 운동장을 냅다 달리고 싶어져 괜히 허벅지에 힘이 고이고 아이라인 같은 레일이 운동장에 능숙하게 그려지지 애초부터 심판은 필요 없어 무작정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 큰 나무가 그려져 있어 그곳으로 그냥 달리면 돼 어느 새 기름을 잘 두른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운동장 한 곁에 틀어놓은 수도 속으로 뜨거워진 머리를 내밀지 가물어 눌러 붙은 쌍가마 국수 면발처럼 풀리며 다시 터지는 웃음소리 까르르 다음부터는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기름진 육즙이 씻겨 내려가면 야채는 겹겹이 밀가루 옷을 입고 쉽게 몸집을 부풀릴 수 있지 다시 양념을 뒤집어쓰고는 균형을 못 잡고 데구루루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시 운동장 한 바퀴 어느새 담벼락이 노릇노릇 하게 익어갈 때면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 같던 땀박질도 이내 시들해지지

때마침 운동장 구석에서 귀에 익은 사이렌 소리 길게 두 번 짧게 한 번 다시  
 이유 없이 바빠지는 손놀림 주방 천정에 매달린 백열등이 밀가루처럼  
 환하게 켜지면 타닥타닥 조명 빛에 잘 익어 숨넘어가는 소리 아직 식지 않은  
 늦여름 햇살이 철봉을 녹아내릴 듯 두드리는 소리 소사 아저씨 손에 들린  
 열쇠 꾸러미가 지들끼리 서로 부딪치는 소리 모래를 등에 진 바람에 눈물이  
 먼저 반응하는 소리 문풍지 끝에 옮겨 붙은 곤로의 심지가 석유 냄새에  
 물소리처럼 번지는 소리 아이들이 엄마손에 이끌려 하나둘씩 떨어지는  
 소리

오래된 굴뚝은 검은 가루가 섞인 흰 소리를 뿜어내고 불 조절에 실패한  
 약간의 방심은 모서리가 심하게 그을린 햇살을 한 접시 구워낸다 뒤늦게  
 계양대에서 내려지는 형겅처럼 후줄근해진 어느 여름 오후 자 이제  
 수척해진 멸치는 물으로 나와야지 육수처럼 번지는 웃음소리



# 동상



강릉도 강릉교육지원청  
우 상 범



## 수상소감

봄날 같은 봄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꽃잎들은 더 일찍 떨어졌고, 그런 안타까움이 기억 속을 뒤져 따뜻한 봄날의 풍경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청춘이 청춘을 잃어버린 우울한 황사 같은 현실 앞에, 한 장의 얇은 마스크에 의지하듯 한 자루의 가는 펜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릇푸릇 싱그러워야 할 푸른 봄들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으로 쓴, 서툰고 어설픈 시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한 자락 바람 같은 격려 혹은 희망의 언저리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상을 주신 귀한 뜻이 배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덕분에 일기장 속에 숨어만 있던 시가 처음으로 세상에 읽히게 되어,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끝으로 '목마른 길목마다 맑은 샘물'이 되어 준 나의 아내 선경과 '앙꼬처럼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잼' 수민에게, 그리고 '봄 · 여름 · 가을 · 겨울 멈추지 않는 재봉틀' 같은 아버지와 '겨울밤 아랫목에서 먹는 안동식혜' 같은 어머니께 이 수상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푸른 봄들에게 보내는 편지

보오얀 배 쓸어주던 엄마의 손길 같은 봄별  
 따사로운 손길에 이끌려 꿈지락거리는 아기 싹들  
 연듯빛 사이사이 소녀들의 웃음처럼 피어나는 꽃들  
 환한 웃음꽃 위로 춤추듯 팔랑거리는 나비들  
 그 풍경 속으로 소풍 도시락 매고 가는 사람들

그렇게 봄은 살짝 벌어지는 입술 사이로  
 봄 봄 봄, 이름만 불러도  
 통 통 통, 튀어 오를 것만 같은데  
 늘 봄날로만 여겨지는 너희들의 봄은  
 사실 불안하리만큼 변덕스럽지 않았던가

꽃 피지도 못한 채 후두두 작달비에 떨어지는 겨우내 기다림  
 피자마자 몰아치는 돌풍에 꽃비 되어 흩날리는 비늘 같은 연약함  
 다 피어난 꽃 위로 때아닌 봄눈 내려 묻혀버린 서러운 아리따움  
 온 세상 덮어버리는 느닷없는 미세먼지에 숨 막히는 봄의 정령들

돌이켜보라

너희들의 봄이 봄날이었던 적이 얼마나 되었던가  
이 짧은 봄날로 너희들의 봄을 기억하는 것은  
한순간을 영원으로 피었기 때문이니  
봄날 같은 봄이 사라져간다 해도

기억하라

술한 나날의 변덕스러운 불안이 아니라  
단 하루의 피어난 봄날로 봄이 기억된다는 사실을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봄을 힘껏 피어 올려야 하는 이유를



# 동상

강원도 강릉시  
이 순 남



## 수상소감

제에게 시는 가을 운동횃날 누워서 올려다 본 새털구름입니다.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집집에서 깜빡이던 불빛들입니다. 눈독에 핀 민들레, 애기똥풀입니다. 그래서 시는 위안입니다. 그동안 눈독에 핀 민들레 몇 송이를 꼭 쥐고 세월의 강을 흘러 왔던 것 같습니다. 현실의 틈 속에서 네게 맡겨진 직분 속에서 어린 시절의 향기는 팍팍해지는 나에게 물기를 주었고 시를 쓸 수 있게 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제에게 동상이라는 영예를 안겨주셔서 앞으로 시를 쓰는데 큰 용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곰슬머리

엄마의 엄지를 꼭 잡은 작은 손  
손금으로 실개천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의 이마에는  
해당화 붉은 꽃잎 피어 있습니다

숨결 따라 흔들리는  
노란 배냇머리털이  
바닷가 갯풀같이 흔들렸습니다

옹아리속에서 들려오는 해조음  
짹조름한 갯내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아버지의 고향이  
실핏줄을 따라 왔습니다

해당화가 지천인

원산 명사십리

대대로 내려온 유전의 내력이

시간의 사행천을 따라 흘러 흘러

우리 아기에게도 왔습니다



# 동상



경북 영양군  
조 성 대



## 수상소감

능동적으로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일하고 일하면서 춤추는 공직사회,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할 공직사회 미래상이겠습니다. 원칙을 등불로 삼고 성실로 헌신하되, 때론 과감하게 의견을 내어 변화를 추동하는 창의적인 시도와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공무활동가’로 거듭나야 하는 시대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서 발 딛고 사는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어쩔잖지만 문학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여물지 않은 부족한 작품을 뽑아 격려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분발하여 훗날 부끄럽지 않은 시집 한권으로 보답드릴 것을 다짐해 봅니다.

## 박사장의 몽블랑 만년필

만년필은 자신의 내부에서  
 뭉게 응고된 잉크를,  
 되살리고 싶어 몹시 울먹인다  
 신천 하류를 이리저리 떠돌다  
 부패되어 가는 들고양이의  
 내장에 걸려 있다 곧  
 모두 부패되어 함께  
 어디론가 떠내려갈 것이다

대구 대원섬유 박사장은 지난주 화요일,  
 愛馬 뉴그랜저 V6 3000과 신천으로 뛰어들었다  
 전날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한 자괴감을  
 만년필은 그의 포켓 속에서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막진 못했다  
 외국바이어의 황금빛 계약서에  
 자랑스럽게 서명되던  
 자신의 옛모습을 추억할 뿐이다  
 박사장의 유품이 되지 못함이  
 無明이 되어 버림이  
 못내 서럽다

새벽, 박사장의 공장 담벼락에  
기대어 핀 나팔꽃 하나  
때늦은 芻花로 바쳐지고  
만년필은 부활을 꿈꾸며 묵묵히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 동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혜진



## 수상소감

공무원을 꿈꾸던 스물다섯의 저는 보잘 것 없는 개망초였습니다.  
그래도 살다보니 개망초일지라도 만개하는 날도 오네요  
스물여섯 여름의 끝 무렵 합격자 명단에서 저를 발견할 때의 두려움  
스물일곱의 첫날 발령을 받았을 때의 기기묘묘함  
스물여덟의 문예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즐거움  
살아있길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개망초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인생 파이팅

## 개망초

돌틈 사이에 봄이 온다  
나라 망한 게 내 탓도 아닌데  
나는 개망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적에는 깜빡 졸으셨나  
망초 망초 개망초

골목 골목  
미소를 나르는 벚꽃  
눈꽃 휘날리는 목련꽃  
달큰한 내 퍼지는 라일락  
오색영롱 형형색색 꽃 중에  
나는  
왜 나는  
스팸조차 못 된 계란후라이 계란꽃  
이럴거면 정말 풀때기로 태어나지  
꽃도 아닌 풀도 아닌  
망할 놈의 개망초

두둥실 날아오르는 민들레흙씨마저  
어여쁘는데  
하늘보며 땅보며  
에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긴 할까  
전지전능한 주께서는 왜

손틈 사이로 봄이 내린다  
눈이 시리다  
서러운 햇살이 온다



# 동상



경남 남해군  
김향숙



## 수상소감

수국이 만발하는 초여름에 초가을 날씨와 만나고 있습니다. 낯선 발신번호의 문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생명이 꿈틀거리는 흄냄새에서 뜨거운 정오의 태양 아래에서 살갗 예이는 처마 끝에서 채집한 단어들로 저의 감정을 바느질 해보았습니다.

수상소감을 위하여 한 번 더 읽어본 졸작은 부끄러움입니다. 이런 글에 이렇듯 좋은 결과로 용기를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이 작은 끄적거림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저를 반성하는 도구로 삼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소리 나지 않게 제 삶을 받아쓰기 하고 싶습니다.

## 이천일십칠년 군중

살찐 달덩어리 움푹움푹 갇아먹은 아침이 낮을 데리고 왔어  
 몰래 떼어놓은 어둠 한 움큼 책상 위에 앉히고 정오의 태양을 구겨  
 넣어버렸지  
 책갈피 속에서 태양은 말라가고 그렇게 낮을 가두어 외면해버리기로 했어  
 주인 잃은 정오와 검은 바다를 유영했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끝없는 좋아요의 향연에 나는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  
 망망대해 그물 속 좋아요가 너무 많아 나는 나의 좋아요를 찾을 수가 없더라  
 수십 번 던진 그물에 나를 소비한 나는 빈 그물 깊은 바다를 조심해야 했어  
 설익은 형용사를 삼키며 문장이 번식하는 바다가 펄이나 낚설더군  
 나도 내 껍데기를 사랑스럽게 벗기기로 했어  
 내가 내가 아닌 것처럼 때로는 네가 나인 것처럼 벗기고 또 벗겼지  
 한 번씩 출처예의 없이 다른 사람의 껍데기로 나를 감싸기도 했어  
 비밀도 아닌 것을 비밀스럽게 말아야  
 내 껍데기를 계속 내 놓아야 하기에 좋아요는 필수조건으로 만들었지  
 심연의 깊이까지 알 필요도 없었어  
 가끔씩 찾아오는 솔직한 직선은 감내해야 할 부끄러운 신경증이었지  
 백만 개의 너울 위로 자발적인 좋아요와 강요받은 좋아요가 하나인 듯 흘러  
 다녔어

희극적이었어 말하자면 미세한 행간은 비극적이었던 게지  
그마저 지독한 의무였기에 하루 수십 번의 형식적인 사랑이 필요했어  
백만 개의 좋아요는 그러니까 시간이 준 덤의 외로운 발자국이었던 거야  
바다가 쓸쓸해진 좋아요는 다른 영혼에 섬을 만들더라  
나의 섬도 외로워지기 시작했지  
나 또한 다른 섬을 기웃거리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돼버렸어  
일천구백오십년 리스만이 이천일십칠년 군중을 명명했는데  
고독한군중<sup>1)</sup>이라고 했다던가?  
난, 돌아가야겠어 시퍼런 잎사귀 너울거리는 숲으로 말이야  
정오의 태양이 친절한 동굴에서 잃어버린 나를 해엄쳐야겠어

---

1)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만(David Riesman)이 1950년에 출간한 <고독한 군중(Lonely Crowd)>에 등장하는 용어

# 특선



충남 당진시  
고 승 영



## 수상소감

바쁜 일상 속에 짬을 내 써본 글이 입상했다는 걸 알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제가 쓴 글을 다시 보니 부족한 곳이 너무 많아 입상의 기쁨보단 이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운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잘해서 선정된 게 아닌, 부족함을 알고 더 정진하란 뜻으로 알고 겸손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잊고 지내던 글 쓰는 즐거움을 새삼 깨닫게 해주신 문예대전 관계자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하단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각설이

지겨운 시장바닥

이맘때쯤이면

죽지 못한 각설이들이 기웃댄다

팽과리 가윗 소리

정신없는 그 박자로 혼을 빼

갈 곳 잃은 걸음들이 주위를 맴돌면

각설이는 으레 그 구수한 입담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아따 형님 누나들 만나서 반갑소잉 만나서 반가운디

가진저라곤 요 주둥아리뿐이라 기냥 신명나게 놀아 볼라니까

일소일소일로일로라고 향시 웃고 기쁘게 사시오

잃을 게 없는 솔직한 소리는 거칠게 없다

각설이의 익살은 간지럼을 태우 듯 세상을 꼬집는다

여기 계신 엄마 아빠 각설이라고 너무 깐보지 마쇼잉

사람나고 돈났지 돈나고 사람났나 똑똑해서 자식새끼 퍼주남

죽으면 십원한장 못 가져가니 등신 짓 말고 버리려면 나나 주더라고

성이 난 척 꾸짖는 소리가 늙은이의 고개를 흔든다

낮은 이의 가르침은 높은 곳으로 흐른다

이 각설이 소원하나 빌자면 우리 어무이 살아생전 해주시던  
따순 밥 한번 먹어보고 싶소 살아생전 곱디고운 그 모습 보며  
뿔이 그리 급해 나두고 가셨는지 따져보고, 죄송하다 하고 싶소

야속하다 절규하는 후회의 사모곡은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와  
나를 때리고 모두를 때리더니 같은 소리로 울게 한다

밝히고 밝히는 잡초 같은 삶이지만 구차한 목숨이래두 산 것이라  
거두는 건 내 뜻이 아니오 이왕 살기로 했다면 즐겁게들 사시오  
하루를 꾸는 마음으로 꿈처럼 살다가 잠들 듯 가고 싶소

즐거운 각설이는 웃는 듯도 하고 우는 듯도 하다

거기 있는 모두가 각설이를 닮았다

팽과리 가윗소리

신명나게 울리는

시장 통엔 죽지 못한 각설이들이 기웃대고 있다

# 특선



경기도 광명시 서면초  
김금숙



## 수상소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좀 들어줄래?” 여덟 살 친구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진지해집니다. “공무원문예대전이라는 곳에 동시를 써서 보냈는데 특선을 받게 되었어.” 말이 쏟아지기가 무섭게 돌봄교실은 박수소리로 채워집니다. 스물두 명의 친구들에게 받은 뜻밖의 선물입니다. 친구들은 역시나 그냥 지나칠 수 없었나 봅니다. “한턱내세요!” 밤하늘 별빛 같은 애교들이 날아옵니다. 햇볕 찡찡한 날에 친구들 손잡고 마트 가서 얼음과자 하나씩 입에 물고 올 즐거운 상상까지 안겨주게 되어 더없이 기쁜 날입니다. 이게 다 여덟 살 친구들 덕분입니다.

## 창문 밖 풀꽃

짜꿍이랑 다튀

둘 다 벌서는데

창문 밖

키 큰 풀이랑

눈이 마주쳤어

보랏빛 꽃을

자기가 피웠다고

막 자랑하는 거야

꽃, 예쁘지!

나도 모르게

짜꿍에게 말 걸었어



# 특선



대구광역시 동구  
오재희



## 수상소감

신록의 오월 아름다운계절 촉촉이 내리는 봄비처럼 반가운 소식에 내 여원 가슴은 어느새 담장위에 소담스럽게 피어난 황금장미만큼이나 아름다운 빛깔로 물든다.

먼 길 돌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유년시절의 추억은 내 기억 속에서 아니 우리들 기억 속에서 영원하리라. 그립고 아쉬운 먼먼 인생의 뒤편길 지금도 그 교정엔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소나무들이 아름드리 자라고 있고 후배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논다.

이좋은 계절에 심사위원님들 작품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족한 작품 선정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내 건투를 빕니다.

## 未完成 幼年

쇠죽불 지피며

부르는 讚頌歌 소리에

내 幼年의 아침은 기지개를 켜고

머언길 登校길 걸어 10여리

바쁜 아침은 그렇게 始作되고

體格보다 큰 校服은 卒業 때 까지 입어야 했다.

金哲洙 國語先生님 신나는 휘파람 소리에

우리들 가슴은 뛰고

점심 時間 校務室 複道

가벼운 발걸음

차라리 춤을 추었다.

吉甲都 先生님 文法特講

우리들 손은 筆記하기에 餘念이 없었고

이히기리 우추구 自動車 사탕이 나무위에서 녹진녹진

口蓋音化 날말들이 자꾸자꾸 튀어나와

뜨거운 여름 날들을 녹여 나갔다.

英國紳士 장발장 이야기 들으며  
英文法 英作들은 서서히  
우리들 記憶 속에서 사라져 갈 때  
칸디 선생님 “성립이 되나 안되나” 하는 말씀에  
억지로 웃음을 참는데  
누군가가 능금을 먹다가 칠판에 던져  
갑자기 날아든 채찍질은 連帶責任 이었다.

유리창 너머  
저마다 명찰단 리기다松들이  
運動場 가장자리를 에워싸고 있었고,  
謹嚴한 數學先生님 지루한 授業時間들이  
季節을 연이어 숨 가쁘게 하여  
어언 中三시절 막바지 聯合考査 날은 다가오고  
對策없는 時間들은 그렇게  
우리들 곁을 스쳐 지나 가고 있었다.

# 특선

울산광역시 동구  
류 상 헌



## 수상소감

단어가 갖는 울림과 문장이 주는 마력을 아직도 믿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름들

어떤 단어를 보면 어떤 이름이 생각난다

어떤 이름을 되뇌어 보다가 나지막이 한 번씩 불러보고 싶을 때가 있다

불러도 대답 없을 이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이름이 다시 사물이 되고 만다

마음속 다락방을 들여다보면 풍경처럼

다리가 짧은 책상 위에 잡동사니들이 놓여있다

견출지에 써 붙여도 잘 떨어지는 이름도 있고

대충 손가락으로 써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도 있다

새벽 세시에 이름들이 내게 주는 무게를 생각하면

책상 다리가 특하고 부러질 것 같고

눈을 뜨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일어나자마자 나지막이 불러보았던 몇 개의 이름들

# 특선



전북대학교  
김 광 용



## 수상소감

먼저 공무원 문예대전에 응모하도록 응원하고 지지해준 사랑하는 저의 아내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작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 어머니의 다듬이질

오랜만에 모시고 간 여행  
축제장 한편엔 반가운 다듬이

따랏 따랏 따랏 따랏  
어릴 적에 많이 쳐 보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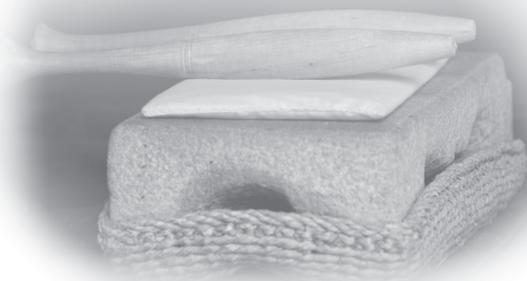
따랏 따랏 따랏 따랏  
나비되어 훨훨  
바람되어 훨훨

너 저집가서 살아라  
배고팠던 어린 날도  
또르락 또르락 또르락 또르락

새댁 물 아껴써  
서러웠던 젊은 날도  
또르락 또르락 또르락 또르락

가난했던 한평생 삶  
혹사시켜 망가진 몸  
따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나비되어 훨훨  
바람되어 훨훨



# 특선



충북 보은군  
노 순 미



## 수상소감

이제야 작은 나를 건넜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늘 글과 함께 하고 싶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점점 잊혀져 가는 나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시간만 나면 글과 함께 있고 싶었다. 그러다 이제야 나는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다. 공무원문예대전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나는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건널 것이다.

## 개수대

말없이 세상을 개수대에 구겨 넣는다 솔 향 세재가 비릿한 인생 밑에서  
부스스 녹는다 잿물 말아 늦그릇을 닦던 어머니의 한숨이 포말로 부풀어  
오른다 손끝에서 하나 둘 사그라지는 울퉁 숨, 반시간도 채 안 걸려 씻겨진  
그릇들이 흠뻑 눈물로 젖는다 툭툭 터는 손에서 지난 발자국들이 지워진다  
텅 빈 개수대, 이젠 내 차례다 손바닥 먼저 씻을까 발가락부터 담글까  
망설이다 몸을 먼저 넣는다 개수대가 딱 찬다 어머니처럼 눈물을 꼭 짜  
몸을 닦는다 미끄덩 빠져나가는 기억들 발가벗겨진 꿈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간다

몰래 스며든 빛이 그런 나를 흠칫 깨운다

반생 전의 내가 개수대에서 나를 꺼내놓는다 흠뻑 젖은 내 눈물을 닦아주는  
나 한 번도 달래주지 못한 나에게 내가 손을 내민다 생전의 어머니가  
발그레 웃으신다 나와 내가 품에 안긴다 오후가 그런 모습을 보고 붉게  
변한다 세상의 눈이 되겠다고, 뒤틀린 비늘을 벗겠다고, 설거지 한 번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나인데 어머니 볼에 웃음이 흥건하다 어머니를  
닦겠다고 했던 내가 부끄러워 나를 놓는다 그러지 마라 다 지나가는 거란다

늘 다독이던 말씀이 오후와 함께 거실을 맴돈다  
개수대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세상 속에서 어머니를 놓지 못하는 나와 내가 보인다

어느새 거실까지 길게 밀고 들어온 노을저녁이 나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 특선



경북 의성군  
최지용



## 수상소감

몇 년째 쓰고 있던 소설을 문예대전에 출품하기 위해 다듬던 중이었습니다.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끝없이 고쳐 쓰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저장이 잘못되어 공들여 썼던 부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복구를 시도해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마감 시간까지 그 분량을 다시 쓴다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침울해 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게 이 시입니다.

미숙한 글로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동안 절필하고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다시 열심히 달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기술법

소설은 정말 어렵다

문예대전 마감이 코앞이다

아직도 쓰고 있다

수십 페이지를 다시 썼다

조금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저장을 깜빡했다

몇 페이지가 날아갔다

클라이막스였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써

이때다 싶어 시 부문으로 갈아탄다

근데 시는 처음 써본다

그런데 자동기술법이란 게 있다고 한다

의식의 흐름대로 적는 작법이라고 한다

그냥 막 써본다  
이게 정말 시란 말인가  
아무래도 크게 혼날 것 같다  
시는 진정 어렵구나  
건방진 녀석!  
다시 소설로 갈아타야겠다  
이런, 곧 마감이다  
마누라! 미안해!



# 특선



기상청  
조희애



## 수상소감

다정한 쪽은 이름이었으나,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빨이었다.

이빨은 기괴한 노래를 자주 불렀고,  
나는 그것을 달래기 위해 무덤을 만들곤 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빨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비명 같은 밤도 오늘로 끝일지 모른다.

그런 조출한 마음을 감히 품어보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 나에게 이름이 없었을 때

소문을 들었어요

아홉 개의 밤을 건너 닿은 곳에  
이름들이 살고 있다고

나는 당신에게 선물 받은  
작고 하얀 이빨을 챙겨 집을 나서요

까드득 까드득

이빨이 자꾸만 소리를 내요  
아마도 노래를 하자는 뜻이겠죠

언젠가 보았던  
바람에 찢겨 죽은 새가 떠올라요  
그 새의 비명도  
처음엔 노래였을 거예요

까드득 까드득

나는 이름을 원했고

당신은

당신만이 부를 수 있는

나를 원했죠

불러요

계속 불러요

당신이 나를 부르는 동안

나는

아홉 개의 비명을 가질 거예요

아홉 개의 이름을 가질 거예요

당신만이 부를 수 있는

내가 될 거예요

# 특선



제주 농업기술원  
윤 빛 나



## 수상소감

아름다운 상을 받게 되어 기쁜 날, 십 삼월의 바다를 본다. 우린 1월부터 12월까지 너무 분주하게 살아내기를 한다. 마치 케케묵은 생업의 과제를 치러내듯이, 생(生)의 카테고리 속을 맴돌고 있다. 매해 마다 묵은 달력을 떼어내며 난 아쉬워하며 십 삼월, 한 달을 추가하고 싶었다. 누구에게나 노동만큼 휴식도 필요한 때, 진정한 휴가의 그곳에 당도하는 여유로운 마음은 곧 바다가 된다. 심사위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를 올린다.

## 십 삼월의 바다

십 삼월, 달력 하나를 더 그려놓는다.

의사는 십 삼월의 바다를 처방했다.

노동의 붉은 철책 넘어, 십 삼월의 갯바위에 걸터앉은

당신은 십 삼월의 주주(株主).

한 마리 행복동 고등어를 건져

잠시 멈추어 서야할 십 삼월.

십 삼월의 부두 냄새

십 삼월의 아이들을 위해 빵을 굽는 빵집들.

안개의 풍경 안에

십 삼월에 실려 온 약속이 접안한다.

십 삼월의 오션지 위로 그려진 너의 방법이 있었음을.

십 삼월의 사람을 인정하는

어느 자유의 바다가 안경을 내리면

금방 들키고 말 아름다운 위선(僞善).

십 삼월의 뭉게구름 언덕

친절한 세상, 공짜 커피 한 잔에 취하여

빨간 십 삼월의 주소를 적어 보낸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은 십이월 전장(戰場)의 모퉁이

핑계가 보이는 거울 속에 큰 입을 벌리고

씹어 삼키던 안개의 성역에서

젖은 지느러미를 털어 말리는 십 삼월의 바다

십 삼월의 어미 소 한 마리 종나무 쟁기를 끌어

워낭소리 피워대던 채마 밭 이랑

할머니 늙은 빨래 소리 흘러가는 하늘.

갓 건져 올린 시름 한 솔박.

먼지 나는 이승, 계동(季冬)과 맹춘(孟春) 사잇길에

출렁이는 십 삼월, 훌쩍 도망쳐버린 가슴으로

옛 일들을 비겁하게 용서하던 날

저 창호지 문을 열고 뛰쳐나오면

십 삼월의 주인(主人).

파도는 여전히 상냥하고

위대한 기적의 좌표 위에 십 삼월의 바다.

기계 소리 들리지 않는 사람의 시간.

낮은 미닫이를 삐걱거리며

십 삼월의 평화가 흘러가는 길.

노동의 총소리 들리지 않는 하늘과 땅에

의사는 십 삼월의 바다를 처방했다.



# 입선

인천광역시 서구  
전 유 진



## 수상소감

시를 처음 쓰기 시작한 건 고등학생 때부터였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산 작은 스프링노트에 인상 깊은 순간의 이미지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감정을 운율에 담아낼 수 있다는 건 정말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펜을 드는 순간, 원하는 시대와 상황 속에 있는 화자가 되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매력에 빠져 조금씩 써온 게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4년 전 공무원이 된 후, 올해 문예대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처음으로 출품하였는데 이렇게 기쁜 수확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 시를 쓰는 즐거움과 시를 감상하는 뜨거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 밤하늘의 위선

## 1

하늘빛 새아침을 향하여  
희뻐하게 물들어야할 즈음,  
분주히 선홍빛을 칠하고 있는 밤하늘

깜깜한 흑빛을 못다 칠한  
간밤의 게으름은 온데간데없이

간절한 귀퉁의 외침을 모른 채하던  
간밤의 영악함은 온데간데없이

뻔뻔하게 새벽녘을 채비하는 밤하늘의 위선.

괘씸해져  
힘껏 흘렸다

그러나 이내 네 속셈이 궁금해져  
뻔히 보았다

## 2

네온사인 눈부신 소리들 사이  
 날카로이 날아다니는 독수리 무리의 눈초리에도

살랑거리는 밤바람소리 잔잔한 귀뿔소리  
 애써 지키려다 지키려다  
 환하다 못해 눈이 부신 밤빛  
 검게 칠하려다 칠하려다,

끝내 독수리 무리의 날선 공격에  
 무력히 고요를 내어주던 괴롭과 힘없이 놓아둔 칠흑색 물감

안쓰러워져  
 마음이 시리다

3

연민할 틈도 없이  
시끄러운 밤빛 사라지고  
임무를 끝낸 독수리 무리 돌아갈 즈음,

네가 칠한 선홍빛 금새 아스라해지고  
짙한 새아침의 빛 뒤로 고단한 네 얼굴 가리운다

고요하고 어둔 밤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묵묵히 새벽녘을 채비하던 네 위선.

미움던 게  
어째  
가련하다

# 입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도연



## 수상소감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무언가를 적어가는 사람의 끈질김. 그 속에서 함께 흘러가고 싶었습니다. 감정을 산처럼 쌓았다가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지뢰를 건드리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글을 써 보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새어나가도 조심스레 물을 떠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불안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입상자 명단에서 제 이름 세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었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봐도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과 감정을 공감하며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누구보다도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장해종 씨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좀 더 만나 봐요."

## 아버지를 품은 사람

개나리 사이

먼지에 갇혀버린 바람이 분다

이 사이를 너는 걸어갔다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초록에 덮일 꽃을 향해

서 있거나

애써 걸어가는 것이었다

봄날치고 추운 날씨

이제야 떨어진 마른 잎사귀가

한바탕 용솨음을 치며 튀어 오를 때

너의 몸에는 그동안 숨겨놓은

새빨간 불구덩이가 넘실거려

옷깃을 여밀 필요 없었다

휘이 휘이

시간을 삼켜가며 타오르는 불길이

흐르는 가랑비에 녹아들도록

크게 소리내어 울자

등근 눈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여

두 사람의 무게를 짊어진

순수여, 천진한 사람이여



# 입선



울산광역시 동구  
길 균 아



## 수상소감

상상도 못한 입선에 감사드리며 향후 문학의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습작을 계속하겠습니다.

## 막걸리 판타지전

세기말 황야, 구원의 용사들이 진격해 온다.

호박전, 새우전, 버섯전, 명태전, 깻잎전, 동그랑땡전

내 영혼을 부수려는 현괴가 깨어날 때

소울 공주를 지켜줄 힘을 가진 막걸리 현자

선택받은 습습한 날에 치밀한 전략게임이 벌어진다.

산뜻한 초무침과로 집어갈 것인가

매콤한 탕류로 휘저어 갈 것인가

내일의 숙취의 갈등은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깊은 고민을 남기지만 찰나의

갈등은 본좌를 최하급 주당에서 최고급 주당으로 성장시킨다.

필름의 던전에서 세계관은 중세유럽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지만  
던전의 핵을 파괴시킨 악당의 과거를 답습하며 처절하게 술검질한다.

길바닥에 토몬스터를 육성하며 필름끓인 던전의 주인은 엘프와 요정들과  
벗하며 끝없는 들꽃벌판으로 마법소환당한다.



# 입선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 미 소



## 수상소감

입선한 것만으로도 매우 기쁘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썼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반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계속 도전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너에게 닿지 못할 시

생각을 던지면 음소거가 되고  
외길이었던 것이 갈레길이 된다  
시속180km로 활을 쏘아도  
슬로우모션이 되어 돌아오듯  
그것은 꿈이고 허상이다

잡을 수 있지만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있지만 잡을 수 없다

영상통화를 하여도  
일방적인 말만 쏟아내는 티비가 되고  
가지런히 넣어놔도  
꺼내보면 영켜있는 아이폰줄처럼  
그것은 꿈이고 허상이며 너이다

나는 너를 잡지 못하고 너에게 닿지 못한다

# 입선



대구지방교정청  
임 정 태



## 수상소감

5월의 바람이 시작을 알리는 풍경을 올립니다.

어쩌다 시작한 늦깎이 詩쓰기가 벌써 4년이 되어가네요.

쓸수록 어렵지만 한 줄 한 줄 삶속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행복한 글쓰기'가 앞으로도 쪽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 주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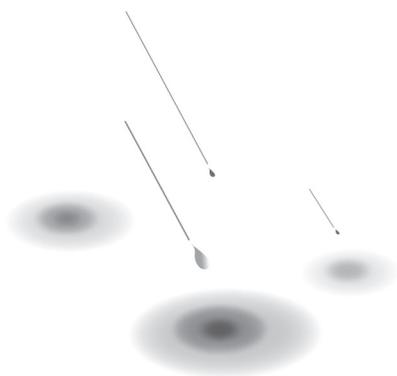
아직은 설익은 글들을 입선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12월의 서재

벽에서 손이 나왔다  
나의 마지막 달은  
비틀대며 힘없는 싸인을 했다  
창문을 내리는 걸 잊었는지  
자꾸만 비가 내렸다  
장화를 신은 발이 질퍽거리며  
복사기를 돌렸다  
커피자판기가 웅웅거렸다  
갓 떨어진 커피를 마시는 반지는  
빛이 바래 흔들렸다  
해가 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사람들은 서둘러 커튼을 쳤다  
은행을 굽던 삼거리 구이집은  
연신 맥주잔을 삼켰다

밤이라서 더 어두워진 가로등은  
숨바꼭질을 나가고  
배고파 떠돌던 빈 술잔은  
천정에서 떨어지는 세월에 젖었다

시는 잠도 오지 않았다.



# 입 선

경기도 화성시  
김 세 리

## 봄! 바람

열차 맞은편 자리에  
칠순을 훌쩍 넘긴 노인이 앉았다

일 년에 한두 번 입을 양복은  
그 만큼 남아 있다

오래된 수목화 같은 머리처럼  
푸른 빛깔 양복은 그와 함께 바랬고

떨리는 손으로 곱게 매었을 넥타이는  
더 이상 바로 펴지지 않는

그의 관절들과 함께 곱어 있다

“영숙씨, 지금 열차 탔어요. 삼십분 후에 도착합니다”

휴대폰을 두 손으로 감싸고 속삭이는 얼굴에는 봄바람이 스친다

칠순에 내린 봄

겨울 가뭄 끝 논바닥 같은

그의 볼에 벚꽃이 송이송이 번지고

시간에 덮인 일렁임으로 가득한 눈가에는

시간을 거스르는 길이 만들어진다

차창밖에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노인의 등 뒤에는

그의 시간들이 모퉁이 흐른다



# 입선



인천광역시  
정정현



## 수상소감

시를 써서 주위사람들에 보여주는 건 참 힘든 일이다. 누구한테는 아름다운, 기쁜, 슬픈 글로 자신들의 감정을 공감하는 일이지만 대부분 시를 보여주면 이상하게 바라보며 급격히 당황하기 때문에 부끄러워 질 때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보여준 시에 어색하고 잊을 수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던 친구나 동료들한테 전국대회에 입선자라고 닭살 그만 긁고 읽어보라고 할 수 있어 너무 좋다.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나한테 지원해보라는 내 정신적 지주 선배형, 사랑하는 딸 도경이 모두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시를 쓰는 작은 취미지만 꿈을 갖고 있고 움직이였기에 좋은 대회 입선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향(香)

피스타치오 향을 그리워 하듯이

우리의 향기롭던 그날을 그안에 작은 숨소리로 건자

갈라져있는 아쉬움 틈 속에 하이얀 것 들은

두려움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슬픔에 대해서 혼자 생각해본다

병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작은 향기가 서로를 감싸 안고

얼어붙은 나의 창문조차 허락되지 않은 그리움 안에서

우리는 후회할 자신마저 없는 비와함께 가만히 향을 그리고 있다

# 입선

서울양천경찰서  
박민경



## 수상소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 앞길에 축복이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 울고 싶은 저녁

바람 거센

산 속

세차게, 아무런 울림도 없이

상수리 나무, 금강송(金剛松) 뿌리를

적시며 흘러가는 계곡의 여울처럼

울며 흐르고 싶은 저녁이 있다.

비바람에 젖어

흔들리는 목련(木蓮) 나무의

희고 푸른

그림자처럼

온통 네 그늘 속에 눈물을

묻어두고 싶은 어스름이 찾아 올 때가 있다.

때로 나는

하늘까지 닿을 듯 청명(淸明)한

지리산(智異山) 폭포수

아래 나그네처럼

말없이 걸어오는 노을 어스름을 만나면

옷을 벗어던지고

구름이 흘러가듯 아무 소리 없이

이 무거운 세월(歲月)을 울어주고 싶다.

그 저녁에

산 새처럼

흩어지는 내 울음은

금강(錦江) 하구(河口)

끝에서 저녁 기도로 날아 오르리...

# 입선

부산 백양초등학교  
박 소 정



## 수상소감

공무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도전한 문예대전에서 입선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응모할 작품을 보내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기분 좋게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입선이 되고 보니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신 거라는 생각에 기쁩니다. 이번 제 청춘경매 작품은 기쁨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춘경매

오늘 경매에 오를 물품은 청춘입니다  
경매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찰된 물품과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시작의 알림을 듣지 못한 경매는 이렇게 시작했다고 한다  
초반에는 기회가 여러 번 불렀으나,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았다  
귀가 밝은 가능성이 너무 낮은 금액에 낙찰되지 않도록 받아쳤다  
중간부터는 나태와 안주가 최고가를 불렀고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게 이를 받아 삼파전의 양상이었다

<변명 받겠습니다>

라는 경매사의 말을 들은지 얼마 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여태껏 잠자코 있던 시간이 최고가 추억을 불렀다

더 이상 다른 응찰 없으시면  
3번 호가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억. 추억. 추억

청춘은 추억에 낙찰되었다

시간은 낙찰 받은 청춘을 끌어안고 뒤돌아 앉았다  
어리둥절한 청춘의 모습이 언뜻언뜻 보였다



# 입선

제주 중문고등학교  
안 연 진



## 수상소감

아버지를 떠올리며 써놓았던 습작이었는데 어느날 보니 이 시가 아버지의 지갑 속에 들어있더군요. 아버지를 떠올리며 쓴 시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의 지갑 속에 살던 이 시가 세상 밖에 나와 읽히게 되었으니 그 누구보다 또 아버지가 기뻐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뜨는 달은 짙찬 목숨으로 밝게 빛나는 보름달이길 바랍니다.

## 저녁 달

아버지가 저녁밥을 드신다  
 그의 부러진 사기 이빨 사이로  
 잡동사니 절망들이 으깨어지고  
 무심코 지나는 길 밖에서도 나는  
 햇빛의 반짝거림에 걸려져  
 지상으로 추락하는 슬픔들을 본다  
 그곳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별판을 지나는 새들의 날개짓에 묻어서도  
 쉽게 천국으로 날아오르지 못 하고  
 나는 두리번, 세상을 본다  
 땅에 묻힌 사람들의 낯익은 얼굴들을 본다  
 작은 손수레 하나에 이끌려  
 아침이면 다시 골목의 끝으로 사라져버리는  
 처음 같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다  
 하늘 밑의 가장 낮은 곳에도 사람이 살고  
 햇빛의 가장자리에 매달린 잎사귀들이  
 햇빛보다 빠르게 부서져버리는 저녁,

오늘 뜨는 달은 반달이다  
반절의 목숨을 떨구며 아버지가  
저녁 골목의 끝에서 돌아오신다



# 소설



## 심사평

2018년도 제21회 공무원문예대전 단편소설부문 응모작품이 204편이었다.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들을 특색 있는 주제로 작품을 만든 의욕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기대가 컸다. 하루가 다르게 예측할 수 없이 변하고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삶의 꺾음을 갈피갈피 파헤치는 소설 작업은 창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기구한 가족사와 소외계층, 미래 디지털 사회의 현상, 죽음에 대한 문제 등을 나름대로 독특하게 열심히 쓴 작품들이 많았다. 하지만 양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작품들이 많아서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깊은 사유와 사건들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 많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허무맹랑하고 뜬금없는 세태 소설이나 지식을 나열한 보고서 같은 비문학적인 소설은 작품성이 떨어지고, 예술적인 감동을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많은 작품들 속에서 그래도 주제의 건전성과 치밀한 구성, 아름답고 정확한 문장을 쓴 완성도가 높은 소설다운 작품을 고르는데 심사위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했다. 입상하신 분들에게 축하와 끝없는 정진을 바라며, 비록 입상권에 들지 못했지만, 좀 더 다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도 많았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금상)

〈고양이 섬의 리즈 길모어〉는 갑자기 무인도에 버려진 고양이 무리들의 이야기이다. 고양이를 의인화 한 소재가 특이한 작품이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드러내며 묘사가 사색적이고 깊은 사유를 품고 있다. 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차분하고 반듯한 장로격인 늙은 고양이. 생이 무엇인지 어렵듯이 깨달아가며 방관하면서도 관찰자인 중년의 고양이 리즈 길모어. 아직 생의 엄연한 실체를 모르는 혈기왕성한 젊은 고양이 살구. 이렇게 서로 다른 고양이 세 마리의 캐릭터를 통해 무책임하고 비열한 사회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절하게 형상화 했다. 주제와 문장의 표현력도 간결, 단호하며 간절하다. 마지막 탈출 솜씨가 뛰어난 수작이다.

(은상)

〈꿈꾸는 자〉는 공무원 시험 합격에 집착하는 주인공이 ‘꿈꾸는 자’ 카페에 가입하여 자기몽 상태에서 꿈의 실체를 체험한다. 고시원에서 계속 취직시험에 응시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절박하고 처절하다. 현재의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을 지우기 시작한다. 욕심을 내서 기억을 지우는 모습이 몹시 안타깝다. 공무원 시험에 너무 집착하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다시 꿈을 꾸는 주인공의 심리상태가 잘 그려져 있다.

〈후크 송〉은 엄마의 생명을 하루만이라도 더 연장하기를 기원하는 열 살 여자아이와 엄마의 유서 앞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후크송처럼 읽을 수도 버릴 수도 없게 하는 스물여섯 살 처녀가 교차하며 엮어내는 이야기가 구성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 서두의 세탁기 속에서 세탁이 끝난 채 방치된 빨래 묘사가 상징적이다. 죽기 전 홀로 남겨질 열 살 딸에게 들려주는 죽음을 앞둔 엄마와 적은 용돈을 모아 문방구에서 털실을 사다주는 딸과 그 털실로 목을 맨 엄마의 모습이 처절하게 그려졌다. 문장이 간결하면서 사실적인 묘사가 살아있는 작품이다.

(동상)

〈갈림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 시집에서 버려진 여자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독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살인범으로 체포된다. 그녀는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형을 언도받는다. 하지만 감옥에서 그녀는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아들을 낳고 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담당 여자 교도관이 감옥에서 출생하여 6개월된 사형수의 아이를 자기 집에서 길러준다. 결국 아들이 검사가 되어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어머니의 무죄를 밝혀낸다. 다소 구태의연한 이야기지만 소설적 장치와 구성력이 뛰어나고 치밀하다. 작가로서의 자질이 엿보인다.

〈고생대에서 살았던 작고 희귀한 기억〉은 두 남녀가 헤어지면서 호킨스센터의 실험에 참여하여 남자는 기억을 지우고 여자는 기억을 남긴다. 3년 뒤에 유니버설여행사의 가이드인 남자와 주인공 김서영은 라스베가스에서 만난다. 그리고 그랜드캐년을 여행한다. 그곳에서 남자는 기억을 잃었지만 다시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가 신선하고, 군더더기 없이 삼박하게 소설을 엮어간 솜씨가 대단하다.

〈공사다망〉은 소신 있는 시청공무원에서 주민센터 말단 공무원으로 밀려나는 과정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잘 녹여냈다. 다문화,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업무를 주로 맡았던 주인공이 공약사업계획 과정에서 빛어지는 갈등과 괴리와 애환들을 소설적인 형식으로 잘 끌어가고 있다. 소설 전개 과정에서 공시생들을 등장시켜 입체적으로 그린 점이 좋았다. 주제도 살아있고 차분한 묘사와 안정된 문장으로 쓴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심사위원 : 김선주, 신상성, 김희원



# 소설

**금상** 고양이 섬의 리즈 길모어 \_ 파주 자운학교 배재희

**은상** 꿈꾸는 자 \_ 경기도 안산시 이주현  
후크송 \_ 경북 포항시 배혜정

**동상** 갈림길 \_ (전)서울지방교정청 김창구  
고생대에 살았던 작고 희귀한 기억 \_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희진  
공사다망 \_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길년

**특선** 괜찮아 \_ 경기도 이천시 진가초등학교 김대홍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_ 법무연수원 손용주  
명주 \_ 강원도 춘천시 윤수진  
금맥(金脈) \_ (전)대전 도마초등학교 이종욱

**입선** 곰팡이 유희 \_ 경기도 봉담초등학교 한경애  
그가 왜 \_ 광주지방경찰청 오현석



# 금상



파주 자운학교  
배재희



## 수상소감

소설은 생전 처음 써봤습니다. 무슨 생각에서였을까요. 우연처럼 공고를 봤고 또 우연처럼 뭘 써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평소 퇴근길 길고양이들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평소 읽던 실존주의 서적 주제를 떠올려 동물 이야기로 임했습니다. 여하튼 창작의 동력은 모두 우연이었습니다. 일주일간 퇴근 후 내내 글만 써서 마감 십오분 전에야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질주하듯 썼네요.

서툰 제 첫 글에 좋은 상 허락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티브를 준 길고양이들에게도, 곁에서 응원해준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감사해요. 생각건데 우연이야말로 삶의 따사로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생각건데.

## 고양이 섬의 리즈 길모어

### 1.

여름 내내 해문(海門)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작은 섬이었고 부딪히는 바람에 해조류 냄새가 났다. 섬은 좁은 해협 한 편에 야트막한 기둥같이 솟아 있었다. 지리적으로는 종(縱)으로 길쭉한 형태였는데 높고 파도가 거친 북편과 비교적 낮은 평지의 남쪽이 느긋한 경사로 이어져 있었다. 무인도인지라 전답이나 가옥은 없었다. 그저 특색이라면 섬 중앙이 마당처럼 넓은 다락바위가 얹어진 구릉(丘陵) 형태라는 것. 주변으로 키 높은 해송(海松)이 바위 주변을 둘러 솟아있는.

해협에는 연중 빠른 해류가 양편에서 밀어와 뒤엎혔다. 물살이 복잡하여 섬 주변은 배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동절기를 빼면 낮 동안 데워진 섬 남쪽 우풍이 경사를 타고 북편의 벼랑까지 공기를 끌어올렸다. 후덥지근한 섬의 특성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북쪽 끝트막 절벽에는 갈매기와 가마우지가 긴 세월동안 배설해온 덕에 암벽이 흰 빛으로 빛났다. 돌무지 곳곳에 키 작은 풍란과 사이사이 자운영 꽃이 피면 섬은 4월을 맞았다는 말이다. 맑은 날 보면 보얀 꽃대궁 위로 이파리 색이 붉어 마치 낙조(落潮)를 작은 꽃 안에 옮겨 넣은 듯했다. 해변은 파도소리 외에도 사시사철 갯강구들이 분주히 돌바위 표면을 긁는 소리를 냈다. 섬은 그러했다. 예쁘지만 특별할 것이 없는 무인도였다.

이 작은 섬에는 왜 고양이들 뿐인가. 이야기는 이 의문으로부터 기원한다. 평소 고양이들이 열댓 마리씩은 꼭 드러누워 햇살에 몸을 말리는 섬 중턱 다락바위. 섬과 물 사이 해협으로 짐통 더위가 밀어오는 까닭인지 오늘 바위에는 고양이들 뿐이었다.

“살구, 그 아이는 많이 힘들어하며 갔는가.”

노묘(老猫)의 목소리가 매달렸다. 녹진한 해풍을 한참 맞으면서도 늙은이는 버티어 서 있었다. 바람 때문에 보이지만 실은 병색으로 미세하게 앞발이 흔들린다. 겨우 지탱하고 선 가여운 어르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검은 털 고양이, ‘리즈 길모어’는 망설였다. 살구, 그 아이 시신이 한참동안 뚱뚱 떠 어디로 끌려가지도 않았다는 소리를 어찌 전하나. 어쩔 수 없었다. 아니 애초에 무슨 수가 있었을까. 늙은이는 살구를 말리지 않았고, 살구는 진즉 공언한대로 바다에 뛰어 들었다. 뱃전이 얼마나 멀었는데 거길 헤엄치겠다고.

“살구는 금세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가라앉았어요. 건질 요량은 없었습니다.”

“그랬겠지. 그랬겠지. 고양이가 무슨 수로 거길 헤엄쳐.”

폭력적 물살을 자맥질하며 죽어간 어린 암고양이를 바라본 비참을 이 어르게 설명할 방도가 없었다. 리즈 길모어는 말이 얇았다. 다만 그는 한 가지 확실히 알았다. 아니다. 그날 모든 고양이가 똑똑히 알았다. 물에 뛰어든 살구는 곧장 두려움에 휩싸였음을. 그 아이는 분명 후회하였음을. 물의 깊음과 저항할 수 없는 물살과 늙은이의 말을 물리친, 그 모두를 후회했음을. 죽음의 실감이란 그러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구나. 덜 힘들게 갔다니.”

늙은 고양이는 고개를 축 늘어뜨렸다. 등가죽 위로 양 어깨가 가엽게 굽어져 더욱 낡게 느껴지는 늙음이었다. 리즈 길모어는 늙은 고양이가 발걸음을 돌리자 얼른 그를 따라붙었다. 야트막한 풀밭 위로 쏟아지는 노을의 붉음을 피해 풀 무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당바위가 비었다. 리즈 길모어는 늙은이와 거리를 두어 걸으며 아까의 살구를 떠올렸다. 그 아이가 죽어가던 마지막 풍경을 생각했다.

아이의 시신이 물 위를 떠도는 것을 인간 사내는 뒤늦게 발견했다. 배 선미에서 담배를 태우던 사내가 손가락으로 죽은 살구를 가리켰다. 신기한 표정이다.

그는 결의 일꾼과 몇 마디 나누더니 바닥에서 장대를 집어 들었다. 물 위에 떠도는 살구 몸통이가 장대에 지긋이 눌렀다. 저항도 없이 깊은 곳에 잠긴다. 주검다운 무력함. 사내가 장대를 물에서 뽑아 올리니 까만 개펄에 버무려진 살구가 느리게 떠올랐다. 배는 물으로 속도를 냈다. 그들도 함께 작아졌다. 선미(船尾)에 솟은 굴뚝으로 매연이 쿵쿵쿵쿵 검게 솟구치다가 그마저 갓 끊기 시작한 일몰 안소실점으로 사라졌다. 고양이들은 말없이 제 자리를 찾아 돌아갔다. 선착장에는 붉게 물든 리즈 길모어만 남았었다. 그는 한참 물 위를 떠도는 살구를 보다가 늪은이가 올라가 있는 다락바위로 오른 것이다. 다락바위에는 돌 뿐이었다. 살구의 죽음은 그것이 전부였다.

## 2.

한동안 바다에 큰 비가 내렸다. 해풍에 비가 섞어내리니 해변은 금세 형클어졌다. 날이 완전히 마른 것은 그로부터도 열흘이나 지나서였다. 찬 기운이 곳곳에 남았다. 북편 하늘에 모란꽃 같은 구름이 채찍에 패인 듯 기진맥진 흘쭉하였다.

리즈 길모어는 곳곳에 바람이 얹어놓은 털투성이를 보았다. 한동안 풀썩과 다락바위 아래서 비만 피하던 고양이들이 하나 둘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곳곳에서 몸을 뽀고 털갈이를 했다. 먼지 같은 고양이 털이 보양계 일었다. 섬 곳곳에 고양이 냄새가 났다.

“별이 좋습니다. 어르신.”

별에 몸을 말리는 고양이 틈에 늪은이가 있었다. 리즈 길모어는 반갑게 뛰어갔다. 벼랑에서 추락하듯 몸을 떨구던 가마우지 한 마리가 호를 굿듯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다. 풍경 속 늪은이의 늪음과 대조되었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응. 왔는가. 리즈 길모어.”

대답대신 늪은 고양이는 가늘게 웃으며 젊은 흑묘(黑貓) 이름을 불렀다. 예상

은 했지만 늙은이는 며칠 사이 유난히 말랐다.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본래부터 다른 고양이에게 비해 사람 주먹 하나 정도 더 작은 몸집의 종(種)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사자의 갈기처럼 굵고 마른 털이 성성한, 꽤 사나다운 기백도 있었다. 리즈 길모어는 열심히 살가운 시늉을 했다. 둘은 다른 고양이들을 피해 늙은이가 기거하는 북편 절벽 풀섬으로 향했다. 늙은이가 새로 거처하는 터전은 처음 방문이었다. 오르막이 쉽지 않은지 늙은 고양이는 돌무리를 딛을 때마다 종종 걸음을 멈췄다.

“먼데 살이가 힘드실텐데 그냥 아래 쪽 소나무 숲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것이 어떠세요? 방풍(防風)에도 좋은 숲입니다.”

“허허. 아니야.”

“같이 있으면 저 역시 어르신을 보살펴 드릴게 많을 것 같습니다.”

늙은이가 젊은이의 청을 거절하며 한 말은 ‘나는 본래 외톨이 같은 노묘이지 않나’였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그는 처음 봤을 때부터 늙어 있었고 가녀리고 외딴 종이었으니까. 리즈 길모어는 ‘내일 저희 터전에 오시겠습니까?’ 한번 더 청하였으나 늙은이는 말없이 돌 바위를 디더 올랐다. 뒷모습은 꼬리조차 미동이 없었다.

부연 고양이털이 듽성듬성한 풀섬 보금자리에서는 섬에 자생하는 풍란(風蘭)이 수북했다. 키 작고 질긴 이 다년생 식물은 늙은 고양이에게 이부자리처럼 얇은 탄력을 만들어주었다. 자기 보금자리에 당도하자마자 늙은이는 힘이 부쳤는지 바로 몸을 누웠다. 늙은이의 잠자리에는 그늘이 짙었다.

‘편히 누우라’는 말에 리즈 길모어는 잠시 주저하는 듯하더니 ‘어디를 좀 다녀 오겠습니다’라며 획 돌아섰다. 늙은이의 눈앞에 갈매기 분노가 새하얗게 덮여 빛나는 벼랑이 들어왔다. 늙은 고양이는 리즈 길모어가 자리를 비우자 꿈벅 줄음에 젖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리즈 길모어가 물어온 생선 조각을 내려놓고 있었다. 사람으로 치면 집들이에 차마 빈손으로 올 수 없었던 그런 뜻이었을까. 쪽잠을 깬 그가 한쪽 어깨로 겨우 몸을 디더여 일어났다. 털이 곳곳에서 빠진 그의 낮은 뼈 비풀처럼 가엽고 남루했다. 늙은이는 머리가 뜬어진 마른 생선조각에 코를 갖다 대었다. 말라붙은 망둥어 조각이 기분 좋은 비린내를 공간에 채웠다. 늙은 고양이로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자연의 먹거리였다. 별거 아닌 생선 조각이지만 갖 잡은 것의 흠냄새와 바다냄새가 났다. 문득 리즈 길모어는 왜 늙은이가 이 높다란 북쪽 끝까지 올라와 사는지 이유를 알 듯 했다. 섬 아래편 부둣가에는 늘 사료냄새가 났다. 물의 인간들이 주기적으로 뿌려두고 가는 성의 없고 괴팍한 배합물의 공업적 냄새가 들어차 있었다.

“요즘은 젊은 고양이들이 바닷가로도 조심조심 내려갑니다. 아직은 많이들 유의합니다만, 물가에는 먹이 삼을 것이 꽤 많습니다. 물이 한 번씩 빠지고 나면 갯돌 사이에 죽은 생선들도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래도 자네들이나 열심히들 뜯지. 이런 귀한 걸 내게까지.”

둘은 함께 생선 조각을 나눠뜯었다. 바다가 보이지 않게 일부러 풀썩이 높은 곳에 마련한 늙은이 잠자리는 별이 잘 들지 않았다. 식사를 대강 마친 후 리즈 길모어가 해가 지기 전에 별이라도 다시 보자며 권했고 늙은이는 별 말없이 그를 따랐다. 둘은 산중턱의 마당 바위로 다시 내려갔다. 리즈 길모어는 늙은이가 더 먹도록 남은 생선조각을 물고 갔다.

### 3.

먼밭치에서 볼 때 대개의 것은 아름다워 보인다. 리즈 길모어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솔단지 같은 여름은 만사를 기진맥진하게 만든다. 그러나 멀리서보면 계절은 맑고 청 푸르다. 괴로운 사연, 아픈 진면목은 대개 작고 티가 안 난다. 갈퀴처럼 섬의 경계를 침식해 굽는 포말은 우유처럼 하얗다. 그러나 곁에서 보는 파

도는 고양이에게 자지리지듯 겁을 준다. ‘어르신은 멀리 살며 멀리 보니 흥한 것들이 눈에 덜 띄어 좋겠구나.’ 리즈 길모어의 생각이 맞을 것이다.

마당 바위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고양이들이 많았다. 리즈 길모어가 늙은 고양이를 대동해오자 젊은이들도 예를 갖추어 고개를 숙였다. 늙은이는 걸어오며 고양이들 면면을 살핀다. 그러다 이내 움찔하더니 서둘러 다시 고개를 돌렸다. 리즈 길모어는 알았다. 그가 살구, 그 아이를 잠시 찾았던 것을. 이내 부재를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을.

리즈 길모어는 아까 먹다 남은 생선을 늙은이 앞에 내려놓았다. 주변의 젊은 고양이들이 생선을 눈독 들이는 티를 냈다. 저만치 일몰이 시작 중이었다. 바람과 온난한 일몰이 서로 뒤엎혀 기분 좋은 기운을 북돋았다. 늙은 고양이 표정도 조금은 여유 있어 보였다.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릴까 걱정스럽던 참이었다. 리즈 길모어는 마음이 다소 놓였다. 씨익 웃어보이자 삐죽삐죽 마른 털이 솟은 늙은이의 낮에도 가벼운 미소가 감돌았다.

얘기를 나누는 내내 리즈 길모어는 늙은이 말수가 많이 늘었음에 놀랐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살구를 잃은지 한참 지났지만 늙은이의 그리움은 희석되거나 나아진 바 없었다. 실은 이전에 두어 번 그를 찾았던 리즈 길모어인지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북쪽 절벽 끝에서 늙은이를 찾다가 기늘고 긴 흐느낌을 듣고 되돌아오곤 했다. 어느 밤엔가는 밀물이 길모어의 잠자리 지근거리까지 밀려와 신기한 기분으로 물가에 나간 적이 있었다. 그 요란스런 밀물과 달빛이 어우러진 밤. 리즈 길모어는 먼 북쪽에서 저며 오는 가느다란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울음 소리였다. 중간중간 숨을 끊는 휴지(休止)와 애곡(哀哭)이 이어지는 늙은이의 울음. 리즈 길모어는 밤의 공기를 타고 퍼지는 울음을 가슴으로 들었다. 아마 그날 섬의 고양이들 모두 조용히 이 울음을 귀 기울였으리.

리즈 길모어는 알고 있었다. 늙은이의 마음에 살구가 얼마만큼의 자긍심이었는지, 아이의 부재가 굵기야 얼마나 불치의 흔적을 정신에 패여 놓았을지. 늙은

이는 말수가 늘었지만, 그의 말은 공기처럼 잡히지 않는 빈 말 투성이었다. 정작 살구의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가 여전히 이 상실을 깊이 의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더라도 리즈 길모어는 어찌되었든 일단 마음이 놓였다. 늙은이는 차츰 좋아질 것이다. 세상의 풍경이 한층 멀게 느껴지는, 늦은 오후. 외딴 섬.

갑자기 리즈 길모어의 눈앞에 생선조각이 허공을 날았다. 몸통을 몇 입 뜯다만 일부다. 늙은이가 앞발로 힘껏 걷어차 버린 것이다. 생선은 빛을 받아 잠시 반짝 하더니 바위 아래를 두어 번 굴러 풀숲으로 사라져 버렸다. 리즈 길모어는 늙은이를 돌아봤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일몰이 수평선에 닿자 열선마냥 들끓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풍경을 덮으며 노묘의 복잡한 표정을 지워버렸다. 그의 진심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왜 그러세요. 어르신. 여기서는 먹기 쉽잖은 것인데요.”

“이봐. 나 말일세. 배를 타야겠어.”

“...”

“내일 늦은 시간에 배가 들어 올테지. 사료를 실은 배가 들어오는 날이 내일 아닌가.”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그걸 타야겠다. 이 섬을 나가야겠어. 꼭.”

살구의 망령이었다. 그 고지식하고 점잖은 늙은 얼굴 위에 살구, 죽은 아이의 태풍 같은 낮빛이 겹쳐있었다. 리즈 길모어는 한 눈에 알아봤다. 너무 진지한 자들이기에 쉽게 감염되는 망령. 늙은 고양이의 말은 흰소리가 아니었다. 그럴 고양이가 아니었다. 말문을 잃은 리즈 길모어가 대답 대신 바위 아래를 내려다 본다. 저만치 아래 떨어진 생선조각을 낚아챈 고양이 한 녀석이 살점을 뜯는 것이 보인다. 속이 울렁거렸다.

“어르신. 저 아래 고양이들을 좀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뒹굴고 자고 그때그때 생선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주워 먹으면서 삽니다.”

“...”

리즈 길모어는 화가 났다. ‘그만 잊지. 왜 그러지를 못하느냐’는 꾸짖음이었다. ‘당신께서도 그냥 둔감히 아무렇게나 사세요’라는 말이었다.

“지난 번 그 아이가 물에 뛰어난 일이 여전히 여기 고양이들에게는 힘든 기억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가까운 기억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먼 기억으로 밀어 넣어야 편해집니다.”

“그러면 정말 편해지는가?”

늙은이는 반문한다. 그는 딱히 괴롭다거나 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먹을 것에 주리면 인간이 내려놓고 간 사료더미를 파먹습니다. 졸음이 오면 굳이 피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잠이 듭니다.”

“그래야 복잡스럽고 괴로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린 고양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장로가 ‘숙명인 걸 테지’라고 잠시 후 읊조렸다. 그는 고개를 살짝 내려뜨린다. 둘의 대화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섬에 버려진 들 고양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뭐가 어떻게 더 나아질 일이 있겠습니까?”

“...”

늙은 열기가 섬을 데워놓으니 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열의를 희멸경계 몽개고 있었다. 해안선에서 밀어닥치는 더운 바람이 마른 붓 칠하듯 거칠다. 리즈 길모어가 소리치는 모습이 소나무 가지들을 흔드는 바람 같다. 그러나 이후 늙은 고양이의 말은 젊은 리즈 길모어를 마음 한 곳을 찢는 얘기였다.

“네 말이 옳다. 우린 모두 외딴 섬에 던져졌고 살든 말든 잊혀졌다. 이 모두는 인간들의 장난 같은 발상 때문이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은 애초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말이야. 나는 하루라도 달리 살아보고 싶다. 이견 인간과는 상관 없고 살구와도 별개인거다.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리즈 길모어의 어깨가 들썩였다. 지탱하고 있던 것들이 일순 부서져 울음 속으로 빠뜨리는 기분이었다. 늙은이도 울음을 참았다. 먼 파도는 잔인한 기색으로 섬을 경계부터 갇아먹고 있었다.

#### 4.

이 가여운 고양이 무리가 섬에 던져진 것은 추위가 막 사그러들던 봄의 어느 날이었다. 리즈 길모어의 기억이 맞을 것이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옥여놓은 옛 기억을 되짚는 중이다. 리즈 길모어의 머리 위로 가마우지 그림자 한 덩이가 스쳐 지났다. 그 날도 같았다. 주택가 담벼락에서 별을 쬐던 리즈 길모어의 머리 위에 새 한마리가 둥근 원을 그리고 있었다. 시퍼런 하늘에 감탄하던 그의 시선 위로 갑자기 검은 줄 그물이 드리웠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시커먼 씨줄과 날줄이 고양이를 엮었다. 사냥꾼들이었다. 그날, 동네 곳곳에 장갑을 끼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인간들이 들이닥칠 때마다 고양이들은 족족 나무 껍질 안에 던져졌다.

리즈 길모어는 어두운 껍질 안에서 마구 치였다. 그 만이 아니었다. 여기 저기서 던져진 겁먹은 고양이들이 껍질 안에서 날카롭게 울부짖었다. 어둠 속에서 줄도한 어떤 고양이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였다. 어지럽고 공포스런 진동이 이어지고 껍질 실 틈으로 빛이 쏟아졌다가 다시 매캐한 쇠 냄새가 퍼지거나 아니면 시커먼 어둠 안에 종일 갖혀 있기도 했다. 가끔 어두운 껍질 안을 바깥의 싸늘한 빗방울이 스며 적시기도 했다. 고양이들은 긴 시간을 어둠 안에 웅크렸다. 이들이 어느 날 껍질 밖에서 큰 물보라 소리를 들은 것은 몇 번의 밤이 더 지나고 나서였다.

껍질 속 리즈 길모어는 비릿한 오줌 냄새를 잊으려 잠에 빠져들다가 더는 참지 못해 깨어났다. 껍질 안은 이미 더운 기운으로 넋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나

무 판넬로 어설피 이어붙인 꺾짜 벽면 틈으로 가는 빛이 줄줄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어디선가 가느다란 고양이 울음이 새나오자 공간 안에 구슬땀이 차올랐다. 리즈길모어는 분이 났다. 그는 앞발로 널빤지 벽을 두드린다. 좀 더 세계 친다. 앞발을 내리치니 발끝으로 나뭇결의 진동과 질감이 느껴져 왔다. 문득 꺾짜 틈 사이로 퍼렇고 흰 것들이 뒤엎힌 기묘한 움직임이 보였다. 물살인지 푸른 기운들이 뒤엎혀 벌이는 기이한 난동. 리즈 길모어는 벽 틈에 눈을 떼지 못하였다. 그 무규율적인 물보라를 넋을 잃고 바라봤다.

“바다일세. 큰 물이지.”

암실 같은 꺾짜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리즈 길모어는 어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흰 바둑알 같은 고양이 눈들이 곳곳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두려움과 의구심의 시선들이다. 리즈 길모어가 목소리 주인을 찾는 중에 눈들 중 한 쌍이 느리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널빤지 틈으로 새어나온 빛이 세로로 줄을 내고 있었다. 가는 빛이 걸어 나오는 고양이 얼굴을 들춰보았다. 깡마르고 늙은 고양이 거기 있었다.

“바다라는 말은 사람들 틈에서 몇번 들어보았습니다. 그것이 저 큰 물의 별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다네. ‘큰 물의 별판’이라. 말이 괜찮군. 좋아.”

“대체 얼마나 넓은 것입니까. 저것은.”

“넓이는 다 알지 못하네. 과연 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아주 깊다네. 고양이의 키로는 설 수 없는 깊이이고, 심지어는 빛도 닿지 않을 만큼 깊다더군.

“깊고 어둡다. 빛이 다 닿지 않는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리즈 길모어의 탄식에 늙은 고양이는 쓸쓸히 웃어보였다.

“물론 걸으로는 지독하게 파랗고 아름답지.”

가까이서 보니 늙은이는 꺾짜 안이 충분히 어지러울 법한데도 꺾끗이 서 있었

다. 강직한 자였다. 늙은 고양이는 말을 꽤 잘 했다. 언뜻 가르치는 자의 말솜씨요 행색 같았다. 가족은 있을까. 여기 혼자인가. 그에 관한 생각들이 의문의 연쇄처럼 꼬리를 물었다. 그렇지만 이내 리즈 길모어는 꺾꽂 벽에 기대어 다시 누워버렸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리즈 길모어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무렇대도 상관없었다. 그저 그를 가둔 이 공간이 갑갑하고 괴로웠다. 나무 꺾꽂 안의 신음. 불편과 이물감. 꺾꽂 밖의 기괴한 파도 소리. 진동하는 엔진소음. 만사가 참기 힘들만치 고조되고 있었다. 리즈 길모어는 웅크린 채 숨을 참았다. 이 눅진하고 고달픈 공기를 한시라도 빨리 벗고 싶었다.

## 5.

**강제이주가 끝나던 순간.** 리즈 길모어는 그 때를 코끝의 짠 내로 대신 기억한다. 꺾꽂 벽이 뜯기고 눈앞에 빛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자 고양이들은 도리어 어둠함 저 안으로 뒷걸음질 쳤다. 코끝에 이르는 짠 내가 기괴하기도 했다. 일꾼들은 나무 꺾꽂 밖으로 고양이들이 나서지 않자 짜증이 났다. 그들은 쇠막대기로 무시무시한 타격 음을 내며 꺾꽂을 때렸다. 소스라친 고양이들이 흐물흐물 밖으로 기어 나왔다. 리즈 길모어 또한 그랬다.

‘환영합니다. 한국 최초의 고양이 섬!’

선착장에 내걸린 아크릴 팻말이 드높았다. 비가 막 그친 시간. 빛을 머금은 구름에 틈이 벌어졌는지, 가는 빛이 투과해 직사(直射)하고 있었다. 눈부신 기운이 눈에 익어오자 그제야 고양이들 눈에 육중한 중장비들이 보였다. 나무 꺾꽂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고양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같이 해풍의 짠 내에 질겁해 있고 섬의 기이한 지리(地理)에 겁을 냈다. 그날 밤 인간들이 떠나고 섬에 남겨진 고양이들의 수군대는 말에 따르면 리즈 길모어가 잡혀온 후에도 며칠 간 고양이 사냥이 이어졌다고 한다. 도시 곳곳에서 일꾼들이 다니며 아무렇게나 고양이를 ‘채집’했다. 그날 밤, 고양이들은 무력과 혼란 속에 서로의

몸에 엉겨 붙어 잠을 청했다. 부두 쪽에서는 갯강구와 주걱벌레들이 해조류를 갹는 소리가 났다.

이후에도 내내 혼돈이었다. 횡한 팻말만 내걸린 선착장. 인공이라곤 아무 것도 없는 무인도가 이들이 던져져 놓인 터전이었다. 이상한 섬이었다. 비를 피할 곳도 없이 입항시설만 덩그렇다. 건물 한 동 올리지 않은 채 오로지 고양이 떼만 옥여넣은 기괴한 가설의 관광지. 이 엉뚱한 사정의 연원을 수백 마리의 ‘관광 상품’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애초 인간만의 기획이었기 때문이다. 도시의 정치인들은 개체수가 늘어난 고양이들로 수년간 골머리 앓고 있었다. 이들은 이웃나라의 고양이 섬에서 엉뚱한 힌트를 얻어 사업을 벌였다. 고양이 섬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나. 고양이를 버리기 위한 그럴듯한 제스처일 뿐이었다. 일종의 재활용 기획 같은. 곤장 잔인한 고양이 채집이 도시에 밀어닥쳤다. 이들은 대강 선착장을 만들고 최대한으로 고양이들을 유기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다. 이들은 금세 고양이 떼를 방치하고 잊어버렸다. 예산이 부족하였으며 관광용 고양이 섬이 폭력적이라는 질타 때문이기도 했다. 섬의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러운 성정의 인간들이었다. 섬에 쌓아놓은 건축용 자재는 비를 맞고 해풍에 흔들렸다. 선착장 부두는 이후 한 번도 배가 닿지 않았다. 요컨대 이곳은 채집되고 잊힌 자들의 섬이었다.

한동안 늦봄의 해역에 구름이 거칠게 용솨음쳤다. 성난 폭풍과 파도, 곳곳에 허리가 꺾어진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투과하며 절규하였다. 생전 처음 보는 무서운 장면이었다. 고양이들은 자고로 상상이 서툴다. 그런 까닭에 마음이 어지럽고 우울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그 고통을 상상의 세계로 정제해 휘발시키는 인간들만의 특별한 기법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불안을 정면에서 얻어맞고 있었다.

여기 고양이들 중에는 길고양이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개중엔 아파트에 동거인과 함께 살던 멸끔한 녀석도 있었다. 동거인은 그를 케이지에 곱게 담아 집 앞

을 찾은 일꾼들에게 기증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섬에는 풍랑이 일었고 고양이들의 마음에도 파도소리 같은 울음이 일었다. 더는 여여쁘지 않은 몸집만 큰 게으른 고양이, 그것은 얼마나 위험스런 처지인가. 아직 찬 기운이 서린 봄의 초입에 난민처럼 고양이 섬에 옹기종기 모인 이 부랑자들은 인간의 진면목을 알아챘다. 그들은 편리함을 사랑한다. 편리, 그 외에는 무엇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진면목이었다.

리즈 길모어는 허기진 고양이들을 이끌며 땅을 팠다. 늙은이도 그를 도왔다. 땅 구멍 속 들쥐를 잡고, 기꺼워 죽어 말라있는 바다 새를 뜯었다. 대개 인간과 더불어 살던 집고양이 출신들은 이런 허기의 쟁투를 질겁해 하였다. 인간적인 특색을 익힌 것인가. 그러나 그들도 몇 끼 분량의 허기에 휩싸이면 결국 다 똑같았다. 배고픔이라는 어두운 고통, 그 간명하고 선명한 욕망에 몰두할 때 이들은 도리어 '버려졌다'는 아픔이 희석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힘든 시절이었다. 해풍에 휩쓸린 파도는 섬을 깎아가듯 씻어주었고, 그 속을 사는 고양이들은 자신들의 무엇이 깎여 가는지 알지 못하였다.

## 6.

참담한 섬 생활이 다시 인간들의 관심을 사게 된 것은 날이 본격적으로 더워진 여름의 초입이었다. 리즈 길모어와 늙은이는 그날 다락바위 구름에서 서서 가마우지가 알을 숨긴 둥지를 찾고 있었다. 섬에 온 이래 그는 늘 늙은 고양이의 곁에 있었다. 문득 늙은 고양이가 '내 눈이 침침하여 그런가. 저 멀리서 검은 점 같은 것이 무엇인가?' 물었다. 그가 가리킨 방향에는 하얀 물보라를 가르는 자그마한 조각배가 점근(漸近)해오는 중이었다.

둘은 선착장으로 뛰어 달렸다. 도착하니 이미 선착장 주변에 초라한 물골의 고양이들 수백이 운집해 있었다. 인간들의 육중한 교통수단이 부두에 몸을 닿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버려진 고양이 떼의 소문을 들은 누군가가 있었던가

보다. 고양이가 몸집보다 큰 카메라를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 뿔이 심각한 표정으로 섬에 내렸다. 이들은 이날 섬 곳곳에서 카메라에 이 가여운 부랑자를 담았다. 그들이 옮겨 다니는 모든 곳을 수백의 고양이 무리가 떼 지어 몰렸다. 이 일은 의미심장한 사건의 전조였다. 그들이 떠난지 겨우 사흘, 나흘이나 지났을까. 이번에는 큰 가마니를 선미에 쌓은 배가 선착장에 들어섰다. 부둣가에 사료냄새가 진동을 했다. 섬에서 더는 고양이들이 굶주리지 않게 된 첫 날이었다.

그날 밤은 이 섬에 던져진 이래 가장 크고 험한 폭풍이 일었다. 난무하는 바람이 소나무 숲을 폭력적으로 뒤흔들고 잔가지들을 죄 꺾어놓았다. 이를테면 자연이 아비규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날은 또한 처음으로 고양이 무리가 육중한 마당바위 아래에서 행복한 잠을 잤던 밤이기도 했다. 섬과 이곳의 식생들이 자연에 유리되어도 상관없다는 듯, 배부른 리즈 길모어는 이 날 재채기 한번 없이 고요히 잠들었다. 그는 꿈도 꾸지 않고 잘 잤다.

이후로도 인간들은 사흘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배를 타고 섬에 들이닥쳤다. 막상 뱃사람들은 고양이들에 우호적이거나 하는 낯빛은 아니었다. 아마 카메라를 쥔 사람들 때문에 곤란한 일을 도맡았다는 듯 도리어 신경질적으로 굴었다. 가끔씩은 사료터미에 얼굴을 파묻은 죄 없는 고양이를 건어차는 일꾼도 있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늙은 고양이는 어두운 표정에 험사였다. 분개의 말을 토로했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니 리즈 길모어도 기분이 좋지 않게 되었다.

고양이들의 영양 상태는 나날이 좋아졌다. 허기졌던 고양이들이 서로 날카롭게 부딪힐 일도 없었다. 얼굴을 사료터미에 파묻은 수백 마리의 몸뚱이들이 와드득 와드득 사료 씹는 소리를 냈다. 수백 개 꼬리가 살랑살랑 마치 강아지풀처럼 흔들렸다. 일꾼들은 그 모습을 멀찍이에서 바라보며 담배를 태웠다. 재미있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이게 다 모욕이라 생각해.”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였다. 늙은 고양이가 속으로 곱씹는 분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였다. 분 냐과 선동(煽動)이 섞인 말투였다. 그것은 ‘살구’라는 아이가 두 어른들에 건넨 첫 번째 말이기도 했다.

## 7.

“모욕이라니. 아이야. 그게 무슨 말이니?”

까드득. 까드득. 공장에서 대량 제조한 거친 것들이 씹히는 소리 사이로 두 어른 고양이는 ‘살구’라는 작은 고양이의 말을 들었다. 사료알갱이를 씹는 수백 개 입들 틈에서 작은 고양이 한마리가 ‘이건 모욕이야.’라고 분을 토할 때, 이 말을 들은 건 늙은 고양이와 리즈 길모어 뿐이었다. 뿌연 사료 먼지가 자욱한 틈에서 작은 고양이가 발톱을 내어놓고 있었다. 분한 표정의 아이는 이까지 아득아득 걸었다.

“으응. 모욕 같아요. 제 멋대로 던져놓고 아무렇게나 잊어버리고. 그리곤 이제 또 자기들 멋대로 불쌍하다며 이 짓들이잖아.”

리즈 길모어는 아이의 말이 엉뚱하다는 듯 눈을 한차례 깜박하더니 다시 사료 더미에 고개를 파묻었다. 아이 편에서 ‘흥’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늙은이만은 눈빛을 반짝였다. 그는 이 작고 노여운 아이를 차분히 내려다보았다.

“아이야. 네 이름이 뭐니?”

셋은 이렇게 만났다. ‘살구’라는 어린 암고양이는 바다에 뛰어들어 죽기 전까지 늙은 고양이의 식구였다. 불안과 혼돈, 희열과 비탄이 한 몸에 뒤얽힌, 아이는 독특한 고양이였다. 살구는 가장 첫 배로 섬에 내린 무리 중 하나였다. 상자 밖으로 쫓겨 온 고양이들은 대개 본성적으로 무리지어 다녔다. 서로가 서로에게 엉겨 붙어 겁에 질린 기분을 달래었다. 살구는 달랐다. 아이는 처음 몇 순간을 빼곤 늘 혼자였다. 아이는 별반 두려움 같은 것이 없었다. 더 정확히는 두려움보다는 의

구심이 훨씬 큰 고양이였고 이 호기심에 휩싸인 종에게 무리 짓는 삶이란 썩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을 할수록 이상하게 생각의 양이 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성미는 흡사 늙은 고양이의 그것과 빼닮은 것이었다.

이 섬에는 한때 사람이 잠시 머물던 폐 가옥 같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집채가 다 무너졌다. 땅바닥에 내려앉은 지붕 위로 사람 손을 타지 않은 호박꽃이 돌출해 덩그러니 핀 곳이었다. 늙은이와 리즈 길모어, 살구는 여기서 자주 어울렸다. 맑은 밤이면 호박꽃에 달빛이 투과해 은은한 노란빛이 주변을 감쌌다. 그윽한 풍경이었다. 꽃이 흐드러진 저녁 어스름에 늙은 고양이와 리즈 길모어와 살구는 낮에 건진 생선 조각을 나눠 뜯으며 밤 깊도록 달빛을 봤다.

어린 암고양이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다. 늙은이는 별들에 관해 이야기를 꾸며 살구에게 들려주었다. 아이는 그때마다 꼬리를 살랑살랑 길게 흔들었다. 구름이 바람의 방향과 성미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이야기도 들려준다. 아이는 놀라서 까르르 웃는다. 파란 바다에 사는 다종다양한 물고기의 이야기를 말해주면 눈을 커다랗게 뜨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살구는 두 어린 고양이의 온갖 이야기들을 빨대처럼 흠뻑 빨아들였다. 아이는 리즈 길모어가 들려주는 바다 새 알 찾는 방법과 들쥐 구멍을 파내는 방법도 좋아했지만, 대개는 별과 바다와 구름에 관한 노묘의 이야기를 더 좋아했다.

찬 기운과 찬 기운이 닿듯, 서늘하고 외로운 기색의 고양이들은 금세 서로를 알아보았다. 한낮의 녹진한 기운이 누그러든 밤에는 자운영과 호박꽃과 풍란의 향기가 배합하여 각별한 냄새를 풍겼다. 7월의 하늘에는 별들도 꽤 많았는데 각자가 자기만의 또렷함으로 제 빛을 점점 지키며 붙어 있었다. 살구는 이 곧고 반듯하고 외로운 별을 바라보기 좋아했다. 해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별들은 매일 밤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궤적을 따라 이동하였다. 살구는 늙은이가 말해준 별들에 숨은 이야기들과 사연들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하늘의 커다란 궁륭 안을 순환하는 별들과 그 아래 정체한 채 제 자리만 지키는 외딴 섬. 살구

는 섬을 살면서도 ‘별’을 살고 싶어 했다. 리즈 길모어의 눈에 늙은 고양이가 이렇게 환하고 생기 있는 표정은 처음이었다. 살구와 늙은이의 말은 밤을 썼다. 리즈 길모어는 그들 사이에서 꾸벅꾸벅 졸음에 젖었다. 섬은 깊이 잠들었으며 마치 거대한 고대의 신이 들숨과 날숨을 하듯 파도 소리가 이어졌다.

살구는 얼굴 전면에 등글고 주황색에 가까운 큰 반점이 얼룩처럼 덮여있었다. ‘살구’라는 이름도 인간 동거인이 얼굴에 큼지막한 살구알이 열매 달린 것 같으며 지어준 이름이란다. 아이는 하얀 벽지로 둘러진 환한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한다. 남향으로 베란다 창문이 활짝 빛을 받아 매일 아침 눈이 부셨다. 신기한 이야기들, 세상 밖에 관해 호기심에 열 올리던 살구의 성미는 어린 시절의 이 매일 아침, 눈부신 바깥 세계의 상(象)을 동경해온 것이 심화한 것이 아닐까. 그는 몸뚱이 반쯤 되는 짧지만 가느다란 꼬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까딱까딱 대면서 못 세계의 상을 관찰하길 좋아했다. 가끔 수평선 위 화물선이라도 미끄러져 지나가면, 그 아이는 경탄하듯 감동해 있었다. 늙은이가 ‘무엇이 그리 신기하냐 물으면 아이는 ‘미지(未知)라서 좋네요’라고 말했다. 늙은 고양이는 살구의 답을 들을 때마다 경탄했다.

“고양이 꼬리란 신기하고 교활해요.”

마당 바위에 엉덩이를 내리 깔은 살구가 다소 냉소적인 투로 말했다. 늙은 고양이는 웃으며 까닭을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얽은 산들바람이 끼어있었다.

“말문을 열지 않고도 느긋하게 흔들림만으로 마음의 티를 다 내잖아요?”

“그것에 왜 어퍼해서? 대개 고양이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고양이다음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것이 싫어요. 애 두르는 것은 약한 거예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심술이 단단하고 알알이 맺힌 귀여움이다. 살구를 쓰다듬는 늙은이에게 그 아이는 말을 이었다.

“고양이다음이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예전에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인간의 아이들 같아요. 자기도 길들여 살아가는 주제에 말야. 그 아이들은 나를 길들이며 좋아라했겠죠. 참나. 누가 누굴 길들이며.”

“허허허. 살구는 그 시절에 관해 아주 불만이 많구나.”

## 8.

인부들이 사료 포대를 짚어지고 들락거리는 일이 더 잦아졌다. 카메라를 든 인간이 한번 씩 찾을 때마다 그랬다. 배가 들어올 때마다 자루 포대에서 사료 알이 쏟아졌다. 고양이들 입 주변에는 늘 녹진하게 들러붙은 사료뭉치와 얼룩이 있었다. 계절이 서서히 평온해질 즈음, 이제 삼백은 죽히 되는 한 때의 허기진 고양이들이 일없는 매일 마다 무인도 선착장 주변을 뒹굴었다. 배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고양이들은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안정감을 느꼈다. 허기가 다스러지니 이제 사는 것이야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이 좁은 세계에 불만하며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살구뿐이었다. 리즈 길모어가 그런 아이의 태도를 우려하면 늙은이는 별일 아니라며 웃어 넘겼다. 길모어는 종종 생각했다. 어찌 보면 살구의 이 날뛰듯 자유로운 마음을 들쭉서댄 것은 어르신이었다고. 당신의 태도 때문이 아니었겠느냐고.

살구는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 갯강구들이 해조류를 갉는 바닷가로 뛰쳐나갔다. 그는 먼 곳을 넋을 잃고 봤다. 미지(未知)라 부르는 원경(遠境)이다. 아이는 자유를 들숨 쉬었다. 그리고 그 희열에 넋이 들뜰수록, 마음에는 태풍이 자라났다. 살구는 섬에 웅크려 오도독 오도독 사료알을 씹는 수백의 입들을 차츰 떨시켰다. 배가 선착장에 가까워오면 희열에 들뜬 수백 개 꼬리들이 좌우로 크게 살랑살랑거리는 풍경. 살구의 눈에 그것은 자유의 풍경이 아니다. 일사불란한 허기,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질서가 싫었다. 허기는 종(種)을 속박한다. 굶주림이 종을 길들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인간이 있었다. 살구는 이 모든 일에 불만이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반드시.”

처음에는 웃으며 들었던 말이 차츰 고조되자 늙은 고양이가 표정도 굳어갔다. 리즈 길모어의 생각으로도 살구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 그야말로 아이의 투정이었다. 여기 인간의 손에 수거되어 온 고양이 중 돌아갈 집이 있는 자는 없다. 설령 있다 해도 찾아갈 방도가 없다. 고양이는 그런 식의 회귀(回歸)를 모른다. 늙은이의 마음에 불안이 싹텄다. 마치 먼 하늘로부터 몸집을 불리는 먹구름을 보는 기분이었다.

“네가 집이 어디 있다는 말이나.”

“있어요. 머리맡에 까딱 까딱 엮어진 재미난 것들이 가득한 하얀 방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아무렇게나 흔들리는 예쁜 것들이 벽에 달려있어요.”

‘모빌’을 말하는 것 같다. 어린 시절의 집고양이 시절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런 인간들이 남들과 자기 무리를 구분하여서 제 가족에게만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갖고 싶은 것을 갖겠다고 한다. 살고 싶은 곳을 제 것으로 만들 거란다.

살구의 자유로운 이기심, 더 솔직히는 오만한 발상을 사랑하였던 늙은이다. 그러나 살구가 뱃전에 뛰어들겠다는 말을 했을 때, 두어 시간만 사람의 손 닿지 않는 조각배 구석에 웅크려있으면 물에 닿을 거라는 발상을 듣고 그는 버럭 화를 냈다. 리즈 길모어도 설득했다. 그가 물에서 겪어 온 구구절절한 간난(艱難)의 사연을 들려줬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아이는 화롯불 같았다. 살구는 진실로 섬을 떠나겠다는 각오였고 이 어린 암고양이의 속은 이미 짐통 안의 열기처럼 대류했다. 빨감에 이미 기름이 끼었어져있었다.

“저를 찾는 이들이 없어도 좋아요. 아니 없는 게 더 나아. 이곳에 있으면 서로 서로 몸을 얹고 엉키게 만들어요.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요.”

“나중에. 나중에 이 할아버지랑 길모어 아저씨랑 같이 가면 안될까?”

“아니요. 새는요. 하늘을 날아야 해요. 새장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살았어도 이미 죽은 거예요.”

살구는 이런 말도 했다.

“새장 속에 사는 것이 좋은가 봅니다. 길모어 아저씨도, 할아버지도.”

아이의 말은 어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다. ‘새장 속에 사는 것’이라는 말이 심부를 가늘게 찢었다. 어른들이 보건대 살구는 매우 단순하고 편리한 이상(理想)에 들떠 있었다. 섬을 나가겠다는 뜻을 거칠게 배설할 때마다 늙은이는 마음이 사무쳤다. 이 숲덩이의 붉음은,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살구, 그 아이는 고양이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바닷물에 발을 딛거나 첩병첩병 물장구를 치고 물에 다시 오르기를 반복했다. 살구의 계획은 배에 달려들어 뛰겠다는 것이었다. 문제가 생길시를 대비하여 해엄도 연습한다는 식이었다. 리즈 길모어도 장로도 말이 안 된다며 말렸지만, 왠지 잔뜩 들떠서 떠드는 그 아이의 이상을 듣다보면 생각 어딘가에서부터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하는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리즈 길모어는 꿈꾸는 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낙조를 배경으로 붉어진 살구와 늙은 고양이가 말다툼을 한다. 꺾전이 어지러운 리즈 길모어는 두 고양이 곁을 벗어나 섬을 내려다봤다. 이주 초기의 흑독을 벗어나고 사람들의 연민 덕분에 먹는 일도 편리해졌다. 저만치 아래 장난꾸러기 젊은 것들이 뒹굴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다. 배가 부르면 안도감으로 느긋해진다. 꿈꾸지 않는 자는 상처도 없다.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삶의 풍경이다. ‘더는 말리지 말고 말도 걸지 마세요.’ 단호한 선고를 내리고 돌아서는 살구는 꼬리를 바짝 세우며 멀어졌다. 이별이었다. 늙은이에게 마지막 살구의 모습이었다. 그날은 하늘에 어스름이 내릴 때까지 낙조의 혈색이 만물에 흘러 배었다. 그 붉음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먼 바다를 바라보는 늙은이의 표정에 가여움과 늙음이 서려있었다.

## 9.

리즈 길모어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먼 곳을 동경한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시선을 거두는 일이라고. 가까운 곳에 사랑하는 이가 슬픔에 젖어 있어도 먼 곳에 향해 놓은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게 살구의 짧은 생이었다. 늘 차분하고 고요하던 늙은 고양이는 이 날의 절교 후 꼬리를 늘어뜨리고 흔들며 걸었다. 좌우로 땅바닥을 쓸며 넓게 넓게 호를 그린다. 살구가 흥이 돋을 때면 빗질을 시늉하듯 장난스레 연출하던 모습이었다. 그리움과 단념이 얽힌 풍경이었다.

리즈 길모어는 혼자 있겠다는 늙은이에게 인사를 하고 먼저 돌 바위를 내려갔다. 고양이들이 긴 시간 종종걸음으로 만든 좁은 길에 소나무 몇 그루가 쓰러져 있었다. 수일 전 폭풍우 때 넘어진 것이 녹진한 소금기에 젖었다. 달빛이 쓰러진 것들 위에 흠이불처럼 얇은 빛을 내려 덮었다. 해협의 먼 저편으로는 밤 구름이 멈춰서 있었다. 처음 섬에 던져진 날과 비슷한 밤풍경이었다. 세상 높은 자리에서 무정(無情)한 고대의 신이 말없이 이들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 10.

“자네. 이름은 언제부터 ‘리즈 길모어’였지?”

“동거하던 자들이 지어준 이름이지요. 당연히. 그냥 처음부터 ‘길모어’였어요. 별게 아니에요.”

“길모어. 검은 털에 몸이 참 단단한 멋진 길모어씨. 자네는 참 멋지고 진지한 고양이야.”

“저는 그런데 어르신 이름은 여전히 모르네요. 뭐. 여긴 이름이 없는 고양이들 투성이지만.”

“별 쓸모 없는 거라 보네. 이 섬에선 ‘나’이거나 ‘너’이거나 뿐이지. 그냥 몇 백

마리 다른 ‘나’들이 엉겨 붙어 살아갈 뿐일세. 그뿐일세.”

“그래도 살구라는 이름은 예뻐어요.”

“...”

“그 아이가 죽은지도 꽤 되었네요.”

“그렇군.”

섬을 떠나겠다는 늙은 고양이의 말을 들은 것은 살구가 죽은 날로부터 섬을 못 할 만큼 많은 밤이 지난 후였다. 리즈 길모어는 여전히 살구가 죽어간 기억에 멍살을 잡혀있다. 그는 가까운 발치에서 아이의 마지막을 봤다. 살구는 부뚝가를 떠나려는 뱃전에 순식간에 뛰어들 심산이었지만 인간들은 뱃전에 틀어앉아 기회를 주지 않았다. 계획과 달라지니 당혹해하는 살구를 그 때라도 말렸다면 어땠을까. 아이는 지금 살아있을까.

살구는 차선으로 물에 뛰어들어버렸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부뚝가 먼 발치에서부터 헤엄을 쳤다. 배에 다가가 조심스레 오르겠다는 생각이었다. 최악의 아이디어였다. 조각배인지라 뱃전은 수면에서 낮았지만 그렇다고 어린 고양이가 매달려 오를 높이는 아니었다. 모든 것은 최악의 조건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날 모든 고양이는 찬 물에 빠진 고양이가 어떻게 몸이 굳어가며 헤엄을 멈추는지, 그 숨이 끊겨가는 느린 전개를 두려움 속에 바라보았다. 고양이는 애초부터 헤엄이 가능한 종이 아니었던 것이다. 뱃전의 인간들이 물 위를 떠있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신기해 한 것은 이미 그가 죽은 후였다. 이 죽음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섬 구석구석으로 퍼졌다.

11.

“어르신. 꼭 가셔야겠습니까?”

“그 애긴 그만 하게.”

“가지 마십쇼.”

‘어르신!’하고 소리를 토하는 리즈 길모어는 아예 울기 직전이다. 리즈 길모어도 살구의 죽음에 기진맥진하여 있었다. 기억은 잘 떨궈지지 않고 생각을 멋대로 헝클어뜨렸다. 그래도 아슬아슬 버티어 서 있다. 그런데 나이든 당신까지 꼭 이렇게 무너져야하겠는가. 리즈 길모어는 원망스럽다. 기억이란 무엇일까. 이 지리 멀렬한 생각의 뭉게구름은 대체 무엇이길래 고양이들을 고달프게 자꾸 꼬집는가. 도리도리 머리를 휘저어도 옹고 가는 정신의 어떤 끈이 떨어지지도 않고 매달려 고양이의 현실을 괴롭게 만든다. 이곳의 모든 고양이는 괴로움을 달고 산다. 섬에 잘 안착한 것 같아도 그들은 나름의 기이하고 쓸쓸한 기억을 흑덩이처럼 달고 산다. 한 쪽 눈이 붙어버린 어떤 고양이는 닭장에서 빠져나온 병아리가 신기해 다가갔다가 그곳의 인간에게 얼굴을 걸어차였다. 그는 피범벅으로 정신 없이 산자락을 내달렸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도시의 쓰레기통을 헤집고 있었다고 한다. 인간의 집에서 자랐다는 어느 고양이는 옹은 기억 가장자리에 동거하던 인간이 도로가에 그를 내려놓는 장면이 인박혀 있었다. 그를 내려놓고 달리는 차는 금세 어둠으로 빨려들어 사라졌다.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달려도 차는 점점 풍경에서 작아지고 소실점(消失點)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다.

리즈 길모어는 알 수 있었다. 기억을 끌어안고 사는 고양이는 가장 고독한 고양이라고.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는 자. 물에 뛰어들어 절로 죽어버린 자. 그리고 길모어처럼 방관만 하던 자. 고독한 고양이는 고독한 다른 고양이를 알아본다.

이튿날 아침, 늙은이는 일어나자마자 터전으로 삼던 북편 절벽의 보금자리를 풀썩으로 헝클었다. 군인이 숙영지를 엮어버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전쟁터로 달려들듯. 힘 있게 몸을 털어 여기저기 인박은 늙고 낡은 기운들을 떨궜다. 늙은이는 절벽 끝자락을 마지막인 듯 길게 둘러보고 이윽고 경사 길을 내려갔다. 아침 일찍 나온 리즈 길모어가 늙은이의 마지막 길을 수행하였다. 종종 걸음으로 남

쪽을 향해 걸었다. 바위 아래 흙길을 따라 해변 돌밭이 이어져있다. 무인도였던 섬에 난 길은 모두 고양이들이 만든 길이다. 얇고 풀만 조금 덜 자란 가설의 길이었다. 늑은이는 발을 푹푹 다져가듯 힘 있게 디뎠다. 그의 발 생김새는 살점이 사라지고 흠어지고 관절뼈만 솟아있어 다소 흉해보였다. 그러나 땅을 누르듯 힘 있게 딛는 모양만큼은 확고하고 어지러움이 없다.

리즈 길모어는 늑은이를 따라 걷는 걸음이 꽤 버겁다는 기분이 들었다. 늑은이는 그 걸음이 녹진하고 겹겹이 쌓인 생각들을 이제는 다 해결한 듯 가벼웠다. 장로를 바삐 따라 걸으며 먼발치의 일몰이 흔들렸다. 발걸음이 거칠어져서 그렇다. 리즈 길모어는 살구를 떠올렸다. 어르신도 지금 살구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는 궁금했다.

선착장 주변에는 배가 올 이른 시간부터 고양이들이 삼삼오오 자리를 깔고 있었다. 리즈 길모어는 늑은 고양이가 정점에 치닫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를 말릴 수 없었다. 살구가 앞발을 길게 내밀고 바다로 뛰어드는 그 날에 그는 늘 관찰자였다. 인간들의 거리에서 길고양이로 뒹굴던 시절에도, 여기서 고립된 채로 무작정 일몰과 일출만을 반복하는 섬에서 낮이 침식해 가는 과정 중에도, 그는 삶을 지켜보기만 했다. 섬으로 끌려온 일, 살구와 만나던 일, 그가 광기에 휩싸여 물에 뛰어들던 일.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나 따르던 늑은 고양이가 보금자리로 부쉬뜨려 버리고 말했다. ‘배 시간이 다가오는군.’, ‘섬을 나가야겠다.’

리즈 길모어는 콘크리트 바닥을 연신 굽고 있었다. 늑은 고양이가 ‘배가 보이기 시작하네.’라고 말할 때에도 고개를 푹 숙이고 앞발, 뒷발 교차해가며 괴롭게 굽고 굽었다. 멀리서 보면 심술이나 분을 감추지 못한 모습처럼 보이겠으나 그렇지 않았다. 리즈 길모어는 고심 중이었다. 그는 바다 저편으로 커다랗게 굽이 치는 푸르른 것들을 생각하였다. 물 위를 가라앉지도 못하고 부유 중인 살구의 몸뚱이도 떠올렸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그 배를 타겠다고 한다. 살구를 들쭉시

고 다시금 그렇게나 말리더니 이제는 살구처럼 죽을 생각 같다. 배를 타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는 탈 것이다.

마른 흙먼지가 뿌옇고 탁한 기운을 들뜨게 만들었다. 여름 내내 섬 곳곳은 뿌연 흙먼지가 일었다. 리즈 길모어는 흙먼지를 들이켰다. 섬 밖으로 우리가 나가면 자유랄만한 것이 보장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쓸모없는 들 고양이 취급은 그곳이나 여기나 다를 게 없다. 어린 시절 살던 집 인근에는 닭장이 있었다. 가끔씩 오소리가 출몰하는, 닭에게는 위험스런 농장이었다. 가끔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닭장 밖을 병아리가 한 마리씩 빠져나오는 일이 있었다. 종종 걸음으로 자유를 들숨 쉬는 병아리는, 금세 웅크려있는 오소리에게 목을 물렸다. 닭장 안이나 밖이나 어차피 삶은 위험하고 파고가 높다.

‘그러니 떠나지 마시라.’ 리즈 길모어는 속으로만 그에게 간청했다. 늙은이는 이미 한참 전에 선을 넘었다. 머리 위 파란 배경 위로 또 한차례 물새가 좁게 회전한다. 저것은 가마우지인가. 섬이 엮어맨 것은 고양이만이 아니다. 날개 있는 것들도 섬의 속박에 동의하며 산다. 부질없지만 섬에 산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삶을 보장받는 일이기도 하다.

멀리 점에서 주먹만 하게 커있는 것은 배였다. 어떤 고양이들은 벌써부터 동동 뛰었다. 늙은이는 그보다 더 명확하고 강력한 가치관은 없다는 듯 한층 편안하여진 눈빛으로 조각배의 가까워 옴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심이 단단하여진 모습이다. 뱃전은 파랗게 도색을 하였고 육면체 상자 같은 네모난 조종실이 낮게 솟아있었다. 뱃전부터 양 측면으로 고무타이어를 몇 개씩 줄지어 매달고 있었다. 선착장에 닿을 때 충동을 방지하는 용도였다.

배가 들어오는 선착장에 고요한 오후가 이어졌다. 먼 해협의 수면 위로부터 들려오는 산들바람에 선착장의 빨간 자운영 꽃도 흐느적였다. 물 위를 진동하는 낚고 투박한 엔진음이 귓전을 채웠다. 마치 모두가 그래야한다는 듯, 원래부터 그

자리였던 것처럼 섬은 제 위치를 서 있다. 깊은 바다 중에서 봉긋이 솟아 사면을 매일처럼 파도에 억지로 할퀴는 가여운 섬.

“살구’처럼 무작정 뛰어들겠다는 것은 아니야.”

늙은이가 선착장에 막 접안하는 배를 보며 말했다. 뱃전의 타이어가 선착장에 부딪혀 닿자, 물으로 얼른 튀어나온 선원이 밧줄을 부두에 매달아 배를 고정하고 있었다. 일꾼들이 출렁이는 뱃머리에 섰다 팔짱 부두에 뛰어내린다.

“네? 무작정 뛰어들지 않겠다면...”

“직원들이 사료더미를 들고 와서 삼으로 퍼뿌릴 때를 노릴 거다.”

“한두 명은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가만히 뱃전에 있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배에 몰래 숨어들기 힘들어요.”

“살구는 배가 떠나려고 돌리는 틈을 보아 몰래 올라타려다 무서워서 몸이 굳은 거야. 그게 아니라도 혹 성공해서 배안에 숨어들었다면 또 금세 들키고 말았을 거야. 너무 작은 배니까.”

“그럼 어쩔 생각이십니까.”

리즈 길모어는 노인의 생각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었다.

“나는 먼 발치부터 해엄을 쳐서 배에 다가갈 거야.”

배가 접안에 성공하자 엔진소리가 꺼졌다. 험한 기계음이 사라졌지만 귓전에 울림이 맴돌아 평소의 고요가 어색스러웠다. 사람들이 물으로 내려선다. 뗏은 그대로 뱃전에 서있다. 계수해보니 셋이다. 평소보다 한명이 더 많다. 리즈 길모어는 확신했다. 역시 이번에도 안될 것이다.

“어르신. 살구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혹 해엄을 친다고 해도 배에 올라타기엔 너무 높습니다. 고양이가 물에 빠지면 제대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살구를 생각하여보십시오. 금세 변을 당한 일을 떠올리십시오.”

늪은이는 리즈 길모어의 생각에는 이렇듯 앓는다는 듯,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웬지 아주 멀리서 그를 보는 것 같다. 그의 주변으로 먼지가 몽글거렸다. 백여 마리는 죽히 되는 고양이 무리가 뱃전을 내려서는 인부들 주변에 잔뜩 몰려 있다. 저만치에서 느끼고 열은 오늘 뭉의 일몰이 밀려온다. 낙조의 붉음이 또 온갖 존재를 들쭉시킬 차례다.

그래. 물이라고 뭐가 다를까. 늪은이는 마지막으로 전향하듯 생각을 되짚어 보았다. 남은 생이 며칠이나 될지도 모르는데. 이 섬에서 사료나 값으며 고양이들 틈에서 이제라도 고양이답게 사소하게 살아보는 일을 생각해보았다. 그 친근하며 사소한 평온을 떠올려봤다. ‘그냥 저 고양이들 틈에서 우리 같이 사십시다.’는 젊은 길모어의 말에 늪은이는 당장이라도 ‘그러겠네’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는 살구를 생각했다. 엉뚱한 그 아이의 말을 기억했다. ‘당신들은 새장 안의 새로군요.’

“잘 보게. 리즈 길모어. 뱃전에 걸어 놓은 검은색 둥글둥글한 타이어들 말일세. 배가 선착장에 부딪혀 다치지 말라며 매달아놓는 것이야. 그 동그란 호 안쪽으로 몸을 웅크리기 좋은 빈 공간이 있을 것이야. 평소에는 바람을 채워 넣는 공간이지. 물에 닿을 때까지 안전하게 거기 웅크려있으면 그만일세. 고무표면에 세차계 발톱을 박고는 딱 한번만 힘껏 디덕 올라가면 되는 거야. 거기 타이어에 쪼그러 앉을 수 있어. 인간들은 그 안에 내가 웅크려있는지도 모를 걸세. 물까지 타이어에 올라타 웅크려 갈 수 있는 거야.”

태양이 내뿜는 격한 붉음 속에 리즈 길모어의 심정에 서러움이 치민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날 것 같다. 그러나 늪은이의 간절을 뜯어말리기에는 그 역시도 확신이 없었다. 대답 없는 리즈 길모어에게 늪은이는 대신 다른 말을 이었다.

“타이어가 잘 달라 올랐어. 아주 뜨거울 거야. 그 안에 웅크리고 있으면 찬 바닷물에 몸이 얼었다도 몸을 꽤 데워줄 거야. 생각해보면 모두 다 가능해.”

“살구 때문이지요?”

늪은이는 답이 없다. 저 만치 어깨에 사료 포대를 하나씩 짊어진 뱃사람들이 걸어오며 선착장 고양이들을 발로 훑훑 걷어찬다. 그런데도 사료 포대를 질질 끄는 발걸음을 따라 고양이들이 따라 이동한다. 대부분 냇을 잃은 듯 사료포대만 열리기를 바라는 절박이다. 고양이들은 슬쩍 슬쩍 몸을 떤다. 저 많은 종들이 아주 단순하고 간명한 욕망에 휩싸이는 풍경이다. 리즈 길모어도 코끝에 비릿하게 와 닿는 짙은 곡물냄새의 사료알갱이를 느낀다. 뱃속이 비어 허기에 몸이 움찔한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늪은 고양이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딛는다. 노묘가 말을 이었다.

“가서 배를 채워야지.”

“아닙니다.”

“왜?”

“..전달만합니다. 아니 생각이 없습니다.”

늪은이가 방긋 웃어보였다. 오늘 보여준 가장 밝은 낫이다. 기울은 해가 노을을 만들어 한쪽 얼굴에만 일방적으로 쏟아져 퍼지니 그의 콧잔등 밑부터 턱 아래까지 그늘이 더 부각되었다. 늪은이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도드라져 보였다. 그는 먼발치에 사료면지 속 고개를 파묻는 고양이를 보며 말했다.

“자네 그거 아냐? 가만 보니 인간은 뭔가가 다르다는 거 말야. 인간들도 먹어야 살고 뱃속이 뭐가 들어 차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지. 가여운 처지인 것은 우리와 같던데. 그런데도 그들은 뭔가가 달랐어. 지금 생각하니 그들은 때로 마치 살구처럼 굴더군.”

리즈 길모어는 노인이 입 밖으로 꺼내어든 ‘살구’ 이름에 마음이 철렁했다. 늪은이는 말을 이었다.

“우리와 같은 단순한 본성을 희석(稀釋)하는 그들만의 뭔가가 있더라. 인간은 요컨대...”

인부들이 담배 나눠 태우며 서너 줄의 연기 가닥을 만들어 피워 올린다. 이제 정말 시간이 많지 않다. 부삽으로 사료를 떠서 곳곳에 뿌려댄다. 인부들 일하는 속도가 빨라 곧 사료포대를 다 비울 예정이다. 이제 곧 떠날 채비를 할 것이다. 선착장에 붉은 낙조가 이윽고 닿아 사물들의 제 색을 모두 표백당하고 오로지 붉어만 있다. 저 일을 다 하면 뱃사람들은 다시 시동을 걸테고, 일몰이 완료하기 전에 물으로 나갈 것이다.

“인간이란 먹는 일보다 더 절박한 것을 저마다 하나씩은 갖고 사는 것 같아. 나도 그렇고 싶어.”

갯강구들이 수북한 물가 바윗돌로 향하며 늙은이가 다시 살구의 말을 입에서 꺼내었다.

“살구가 그랬잖어. 사료데미 속에 얼굴을 묻고 사는 삶과 다른 삶도 있다고.”

리즈 길모어는 곰곰이 늙은 고양이 얼굴을 살폈다. 실은 제 마음을 살피며 스스로 묻고 있었다. 먹는 일과 배설하는 일이 아닌, 다른 뭔가로도 이 작은 심장이 뛰는 게 가능할까. 예컨대 살구처럼.

노묘는 네발을 거세게 웅크리고 병사처럼 저벅저벅 행군한다. 리즈 길모어가 그를 따른다. 바다를 향하는 걸음은 단호하고 무겁다. 고양이들이 얼굴을 빼곡히 사료데미에 내려 깔고 오도독 오도독 소리를 울려 퍼뜨리는 동안, 이 배경을 뒤로 하고 둘은 바닷가로 걸어 내려갔다. 갯강구가 동물 기척을 느끼고는 금세 바위틈으로 사라진다. 찰랑찰랑하는 잔파도 너머로 저 위 뱃전에서 담배를 곱하여 사내들이 난잡스런 얘기를 떠들고 있다.

늙은 고양이가 살짝 섬찟하더니만 발을 물에 딛는다. 그는 발치에 떠밀려온 작고 구멍이 송송 뚫린 흰 조개껍데기를 보았다. 바다가 놓아둔 것이다. 파도가 한

때 살아있던 것들의 폐허를 물으로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었다. 살구도 지금쯤 어느 익명의 해협을 떠밀리고 있을까. 이제 늙은이 차례다. 물에 뛰어들 시간이다. 활시위에 쏘아진 양 흰 물 새 한마리가 낮고 빠른 수평선을 그었다. 고양이들이 난잡스럽게 사료를 한입이라도 더 입에 욱여넣으려 무리지어 욱박해가는 풍경. 사료더미로부터 보안 먼지가 일어난 덕에 먼발치 늙은 고양이가 물가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풍경은 눈에 띄지 않았다.

## 12.

물살이 미끈거리는 것도 잠시였다. 물 속 추위는 늙은 고양이에게 금세 통증으로 변했다. 소스라치던 그는 기우똥 하며 얼굴을 물 밑에 잠그더니만 곧장 다시 솟았다. ‘철퍽’하는 낮고 무거운 물소리. 늙은 그의 뼈비풀 같은 더벅머리털이 바닷물에 쓰러져 들러붙었다. 고양이 코 속으로 차마 못 견딜 잔물이 치밀어다. 그 괴로움이 몹시 격했다. 그나마 수면위로 버티어선 늙은 고양이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아동 거리기만 하였다. 연신 얼굴을 좌우로 털며 잔 내를 벗으려했지만 도리어 떠밀리는 물만 뒤집어쓴다. 늙은이의 표정에 지독스런 괴로움이 선했다. 리즈 길모어는 참담했다.

물 아래로 그는 앞발 뒷발 할 것 없이 쉼 새 없이 휘저었다. 그러나 앞으로 차마 뻗지는 못하였다. 물살은 유동하는 살점 같아서 허우적거리는 그의 네발을 되려 움켜쥐었다. 그는 물을 가르지도 밀어내지도 못하였다. 리즈 길모어는 흑여물가의 서 있다가 흑 뱃전 바다에 늙은이가 눈에 떨까 돌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갯강구 떼가 일사불란하게 고양이를 피해 바위틈으로 몸을 감췄다. 놀란 가슴이 마구 뛰다. 한 뼘 앞으로 내딛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노묘의 모습은 참담했다. 철퍽철퍽 부표처럼 유혹하는 뱃전의 타이어가 자맥질한다. 멀지 않다. 그러나 고양이에게는 아득한 거리. 물에 젖은 늙은이는 금세라도 기운이 다해

죽을 지경 같았다.

리즈 길모어는 가슴이 아렸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인가. 늙은 고양이는 무슨 까닭으로 저 죽을 짓을 몸소 자행하는가. 살구가 물 위를 둥둥 떠돌다 뒤집히는 장면이 포개어진다. 광기다. 이것은 모두 맨 정신이라 할 수 없다. 죽겠다면 저리 괴롭게 허우적거리느니 차라리 쥐죽은 듯 웅크려서 사료 먼지나 들이 마시는 게 나은 삶이다. 최소한 그것은 삶을 연명케 한다. 죽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때였다. 잠겨가던 노묘가 미세하지만 발을 앞으로 뻗어 보이는 것이. 그와 함께 고개가 수면위로 솟구쳤다. 그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짠물을 뺐었다. 늙은 이가 앞발로 물 아래 넓은 반호를 그었다. 몸이 한달음 진행했다. 무게를 앞으로 향한 만큼 상체가 다시 기우똥 가라앉았지만 이내 또 솟구친다. 리즈 길모어는 고단하지만 전진해가는 늙은 수사자를 보았다. 물살을 해쳐지고 있었고, 그의 사투는 괴롭지만 차츰 질서 있는 물의 흐름에 올라타고 있었다. 리즈 길모어의 눈에 그것은 분명한 해엄이었다. 늙은 고양이가 힘 있게 목표로 해엄을 치고 있었다.

조각배가 떠나기 전에 얼른 올라타야 한다. 시동이라도 걸리면 고생해 건너온 그를 물살이 다시 밀어낼 것이다. 눈앞에 부표처럼 페타이어가 조각배 흔들림을 따라 솟았다가 수면에 철퍽하며 다시 닿기를 반복했다. 시간이 얼마 없다. 두 번, 세 번, 네 번, 줄다리기를 하듯, 산바를 잡고 거구를 밀어 넘어뜨리려는 듯, 늙은 이는 물 아래 네발로 둥근 호를 그어가며 배에 접해간다. 기력을 유지하면서 해엄이 진행되는 모습이 경탄스럽다. 뱃전이 이제는 정말 가깝다. 이 속도라면 몇 발짝 더 가서 뱃전에 걸어둔 고무타이어에 힘차게 발톱을 박을 수 있다. 거기 올라탈 수 있다. 기력 하나 없던 외톨이 늙은이가 마치 청년의 박력을 시뉘하듯 불덩이로 연소해간다. 조금만 더. 약간만 더 힘을 내어요. 어르신. 리즈 길모어는 소리라도 고래고래 지르고 싶다. 마침내 앞발을 길게 늘어뜨리면 자맥질하는 타이어가 닿을 거리다. 승리가 눈앞이었다.

섬광이 스쳤고 이내 물 위로 피가 번졌다. 잠깐 사이였다. 그것을 몽둥이라고 하나, 장대라고 부르나. 하여간 그 기다랗고 둔탁한 것이 물에 젖은 늙은이의 머리를 내리쳤다. 한사코 들키지 않으려 먼 수면을 우회한 것이었는데, 오로지 헤엄으로 뱃전까지 닿았는데, 절박한 얼굴 위에 몽둥이가 박혔다. 선원 하나가 내리찍은 것이었다. 뱃전에 오르려던 중 물 위에서 아등바등하는 깡마르고 늙은 고양이를 본거다.

노묘의 머리가 수면 위에 흐느적거렸다. 얼굴에서부터 굵은 핏줄기가 새고 물살에 금세 희석해갔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걱정적으로 허우적대던 물 밑 네 다리도 멈췄다. 반항 한번 없는 조용한 패배였다. 리즈 길모어는 돌 틈에서 별떡 일어났다. 숨이 대번에 끊어진 것인지 그 날의 살구처럼 똑같이 물 위에 떠도는 고양이. 그를 신기하다며 뱃전에서 내려다보던 인부가 곁의 다른 동료들 부른다. 무슨 사연에서인지 물 위를 헤엄치다 사람에게 얼굴을 얻어맞고 굳어버린 깡마르고 곤욕스러운 늙은 고양이. 작은 몸뚱이인 까닭에 핏물은 금세 멎었다. 한 작은 죽음이 해수의 짙은 염분에 씻어지고 있었다. 사람의 눈에도 그 모양이 잔인스러웠을까.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를 나누고는 이내 엔진실로 들어갔다. 반쯤 타들어간 담배꽂초를 밖으로 획 던지고서. 꽂초가 팽그르르 돌더니 수면에 박혔다. 버린 꽂초와 버려진 늙은 고양이가 물 위를 흔들린다. 선착장에 접안해 있던 조각배 후미가 몸뚱이를 부두에서 떼어낸다. 엔진이 시동이 걸린다. 곧 출발이다. 멀리서는 리즈 길모어가 다급히 헤엄쳐 오고 있었다.

그날 리즈 길모어가 늙은이를 건지려 뛰어든 장면은 낯설었다. 이미 죽었을지 모를 늙은이를 건지려, 리즈 길모어는 가쁜 숨을 들이쉬며 헤엄쳤다. 그는 생각했다. 어르신이 물에 뛰어들기 전 말했던 '사료 더미에 얼굴을 파묻는 일보다 가치 있는' 그게 무엇일까. 묻고 싶었다. 침병침병하며 물살을 가르는 그는 이윽고 늙은이의 몸에 닿았다. 출발을 준비하는 때는 엔진소리가 수면까지 울렸다. 혼

절한 늙은이는 미간 사이에 상처가 매우 깊었다. 눈이 뒤집어져 아무렇게나 나뒹굴었다. 이미 죽은 모습 같았다.

배가 물 위에서 몸을 틀었다. 180도로 향방을 바꾸니 물살도 회전한다. 둥근 물결에 휘감기던 고양이 둘은 뱃전에 부딪혔다. 리즈 길모어는 질퍽질퍽한 물살의 찬 기운이 가슴팍까지 전해져오는 것을 느꼈다. 옆으로는 무겁게 떠도는 늙은이의 몸뚱이가 떠돌았다. 눈앞에 페타이어가 닿아있었다. 발톱을 힘껏 박을 수도 있을 위치다. 그러나 리즈 길모어는 팔이 닿지 않았다. 어깨에 더는 힘이 들어차지 않았다. 몸은 작은 동작만을 움짚거릴 뿐. 눈에 닿는 짠 기운이 고통스러워 자꾸 눈을 길게 감았다 뜬다. 절망스럽다. 노묘를 물으로 가져갈 방법도 없지만, 그렇다고 뱃전에 올라탈 힘도 없었다. 배는 이제 먼 물으로 출항할 요량이다. 먼 풍경, 낙조가 드리운 소실점을 향할 차례다. 그 모습을 배경삼아 리즈 길모어도, 늙은이도 옛날의 살구처럼 무겁게 가라앉아가려는 참.

물에 잠겼지만 이상하게도 기분만큼은 아주 멀리서 물결이 질퍽대는 것 같았다. 현실감이 희미했다. 그저 아득히 먼 곳에서부터 덮어오는 무력하고 붉은 기색을 느낀다. 죽어가는 자에게는 그저 무상한 미지(未知)의 색채, 아름다움들.

‘어르신. 꿈꾸는 일은 저주에 가까운데. 왜 그리 그것을 놓지 못하였습니까? 꿈꾸지만 않으면 물에 빠지는 일도, 사람에게 몽둥이로 얻어맞아 바닷물 위를 떠도는 일도 없는데. 당신이나 살구는 왜 그랬습니까.’

‘그러게. 꿈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얼마나 쾌적한 일이겠어. 자네 말이 맞아.’

뇌리 속의 리즈 길모어가 뇌리 속의 먼 늙은이에게 묻는다. 고통도 어느새 저만치 멀리 있다. 그렇다. 이 질문에 답해가는 삶은 고통스럽다. 덧없다. 대신 저 멀리 희멀건 배경 속에서 살구가 알갭게 웃고 있다. 두 어른을 향해 휘휘 크게 꼬리로 원을 그리면서 소리치는 중이다.

‘흥. 그래도 다시 또 태어나면 저주에 걸릴 거면서. 안 그래요? 할아버지. 리즈 아저씨. 우리 모두 그럴 거예요.’

그러게. 기꺼이 또 저주에 걸릴 테지. 꿈에 빠질 테지. 그 아늑한 희미함 속에서 리즈 길모어는 스스로를 꽤 행운이라고 생각하였다. 꿈꾸는 자의 곁에서 그 예쁜 나날과 비참까지 한 눈으로 확인했으니 말이다. 이제 죽는 것인가. 내 차례인가. 물살이 차츰 가까워온다. 다시 귓전으로 밀어닥친다.

### 13.

섬의 고양이들은 끝내 알지 못하였다. 그날 어떻게 리즈 길모어가 수면을 질척이는 타이어에 발톱을 박았는지. 입으로 잔물이 쏟아져 들어오던, 숨어 다 멎는 듯하던 리즈 길모어가 무슨 수로 위로 디터 올랐는지. 호흡이 다 타들어 완전히 연소하기 직전, 리즈 길모어의 어깨가 갑작스레 들어 올려졌다. 리즈 길모어는 그 힘을 마중물 삼아 최후의 힘으로 발톱을 박았다. 두터운 고무에 매달린 그는 네 발을 밀착해 타이어에 들러붙었다. 앞발을 움켜쥐고 뒷발을 수면위로 끌어올린다. 그 모습으로 그는 차츰 멀어졌다. 무슨 일이었을까. 리즈 길모어의 굳어가는 앞발을 뒤편에서 힘껏 들어준 힘은. 어깨부터 발톱까지 직선으로 높이 뻗어 뱃전의 고무 타이어에 발톱을 거세게 박아 넣었던 힘은. 섬의 고양이들은 알지 못했다.

낙조를 배경으로 배가 출항해 떠나는 원경을 높은 고양이는 물위에서 희미하게 눈을 깜박이며 바라보고 있었다. 리즈 길모어가 저만치 멀리 사라져간다. 그의 몸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긴 고생을 마침내 끝내는 높고 가벼운 몸뚱이. 물살에 맞춘 음울의 음표처럼 그는 위 아래로 일렁이고 있었다. 이윽고 가라앉는데 수초도 걸리지 않았다. 리즈 길모어가 매달린 배와 부딪가의 쏘얀 사료면지 속 고양이 무리와, 그리고 방금 막 고양이를 물 아래로 감춘 붉은 바다와. 모두가 한 태양이 뿜어내는 일몰의 붉음을 이불 덮고 있었다.

조각배 엔진음이 몹시 투박했다. 후들거리며 몸을 떠는 리즈 길모어가 타이어 안 편으로 몸을 깊게 누웠다. 저녁이지만 하루 종일 태양을 머금은 타이어가 가는 열을 내뿜고 있었다. 늙은이의 말처럼 체온을 지키기 좋은 곳이다. 여전히 관자놀이가 격하게 요동쳤다. 심부에 뜨거운 것들이 엉켰다. 조각배에 올라탄 리즈 길모어는 지금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뱃전 밑에서 막 혼절해가려던 그를 타이어로 밀어올린, 늙은이의 어깨 힘. 기진맥진해 있던 리즈 길모어의 힘만으로 올라선 게 아니었다.

오늘도들 떨던 리즈 길모어는 뱃전에서 섬을 돌아봤다. 이제 발바닥만큼 작아진 붉은 섬이 낙조에 젖고 있었다. 조각배인지라 파도에 심하게 떨렸다. 그는 타이어 밖으로 떨궈지지 않으려 몸을 더욱 밀착시켰다. 이제 그를 대신해 꿈 꾀주는 늙은이도 살구도 없다. 그는 지혜로운 노인의 격연이나, 아이의 새파란 청사진도 아닌, 오직 홀로 올라탄 동력선의 힘을 빌어 물으로 간다. 웅크린 리즈 길모어는 뒤늦은 피로의 기색을 느꼈다. 물살 같은 줄음이 친근하였다. 바깥으로는 일몰이 모든 개체의 고유한 색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몹쓸 낙조다. 금세 어둠이 내릴 시간. 그러나 리즈 길모어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깊은 곳에서 치미는 유락한 잠이 그를 문 두드린다.

쓰러질 듯한 피로가 그를 휘감았다. 사나운 폭염을 땀감 삼아 가열하던 계절도 차츰 순하여지고 느긋해져 갔다. 회갈색 빛을 띤 덩어리 구름 틈으로 햇살은 몇 줄기가 살아 바다에 빛의 금을 그어 내린다. 섬에서 멀어져가니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랐던 전체의 윤곽이 비로소 보였다. 먼발치에서 배가 파도에 기우똥하자 섬도 기울어보였다. 이러나저러나 참 작은 섬이었다. 그간 꽤 많은 일이 벌어진 바다였지만, 마치 별일 아니었다는 듯 능청스레 반짝이고 있었다.



# 은상



경기도 안산시  
이 주 현



## 수상소감

아주 어렸을 때 멀리 보이는 63빌딩이 아름다워 보였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빌딩의 유리를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 집을 나섰다. 길 건너 커다란 역이 가로 막혀 있었다. 그 후로 20대까지 많은 시간을 소설의 모티브가 된 노량진역 근처에서 보냈다. 지금은 황금빛 빌딩보다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고시촌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 지금까지 꾸었던 막연한 꿈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명확해졌다. 또한 방송통신대학원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졸업학기에 받은 문학상이라 큰 의미가 있다. 같이 소설창작을 연구하는 문우들이 많은 힘이 되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준 가족들이 고맙고 한편으로 미안하다. 글을 쓸 수 있어 행복하다.

## 꿈꾸는 자

좁은 골목을 빠져나간다. 탁 트인 사거리에 조금 못 미쳐 오래된 도서관이 보인다. 도서관 문을 열자 로봇 태권브이 가면을 쓴 아이가 종합자료실로 들어간다. 나도 그쪽으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선다. 데스크에서 책을 반납하던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이 나를 힐끔 쳐다본다. 정면에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탁자가 보인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반백의 신사가 턱을 괴고 책을 읽고 있다. 오른쪽 서가로 간다. 대나무색 책장이 참빛의 빛살처럼 촘촘하게 서 있다. 그 좁은 틈에 사람들이 서캐처럼 간간이 끼어 책을 고르고 있다. 천장의 에어컨 바람이 잘 나오는 곳으로 들어간다. 책꽂이에는 철학과 자기계발서 등이 빼곡히 꽂혀있다. 가슴에 한 무더기의 책을 안고 걸어 들어오는 사서가 나를 노려본다. 나는 신중하게 책을 고르는 척한다. 덩수룩한 장발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왼손에 면장갑을 낀 그는 몇 권의 책을 재빨리 책장에 꽂고 다음 칸으로 넘어간다.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가 되돌아와 내 눈앞에 책 한 권을 꽂는다. '성공의 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책이다. 빨간 바탕에 황금빛 문이 그려진 표지를 들추고 눈에 띄는 곳부터 대충 읽는다. 대개의 자기계발서가 그렇듯 성공이란 내 안에 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둘러보라는 뻔한 내용이다. 책을 덮으려는데 눈에 띄는 문장이 있다. '꿈꾸는 자에게 현재는 없다.'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는 말인지, 헛된 꿈으로 현재를 낭비하지 말라는 말인지 헷갈린다. 손으로 그 구절을 짚어가며 중얼중얼 반복해서 음미하는데 활자들이 사라져 버린다. 손가락이 그 활자들을 빨아들이는 느낌이다. 당황스러워 주변을 둘러본다. 다행히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활자들은 내 손가락에 열린 문 신처럼 모습을 보이다 이내 사라진다. 이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옆에 있는

다른 책을 펼쳐 아무 곳이나 손가락을 갖다 대고 중얼거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 세 번 다른 책으로 반복해 보았지만 활자들은 꿈쩍하지 않는다.

“너무 더워 정신이 이상해졌나보다 생각하며 책을 덮고 도서관을 나왔어요.”

나는 꿈의 내용을 털어놓았다. 둥그런 나무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그는 한손에 쪽 들어오는 모래시계를 만지작거리다 입을 열었다.

“놀랍네요.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 내용을 선명하게 기억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누가 내 꿈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꿈을 꾸는 도중에 말입니까?”

“자주 가는 도서관인데 그 사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꿈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가는 꿈을 자주 꾸는데 저번 주에 자각몽 체험을 하고나서 새로운 사서가 나타났어요. 꿈에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건 차차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꿈을 살펴보면 욕구가 무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꿴다는 건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 이고요.”

꽃꽂이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던 그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테이블 위에 놓인 프린트물을 차근차근 펼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저번에 말씀드린 자각몽 프로그램입니다. 카페에 소개해 놓은 대로 회원들 상황에 맞춤형으로 설계해 드리고 있지요.”

순간 이곳에 괜히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프린트물 위에 찍힌 450 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저번에는 한 300이면 될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마다 설계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에 약간 차이가 있

을 수 있습니다. 박 명운씨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황당한 꿈이 반복되는 것이 신경 쓰여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름 전 우연히 ‘꿈꾸는 자’라는 카페를 발견했다. 첫 화면에 마치 잠을 자는 듯 눈을 감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 꽤 매력적이어서 들어가 보았는데, 회원 수가 1만 5천 명이 넘는 제법 튼실한 카페인 것 같았다. 회원가입을 마치고 나니 곧바로 가입 환영 쪽지 창이 열렸다.

꿈꾸는자 카페 가입을 환영합니다. 자각몽을 통해 당신은 무한한 자유와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정회원 신청을 해 주세요.

실제로 카페 게시판은 정회원이 아니면 볼 수 없도록 막아놓은 곳이 많았다. 회원들의 체험기를 읽어보고 싶어 개인정보를 몇 가지 입력하고 정회원신청을 하자 곧바로 등급변경이 되었다. 자각몽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꽤 흥미로웠다. 꿈을 통해 획기적으로 집중력을 향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자 앞에서 한마디도 못 하던 소심한 성격을 고쳐 미인과 결혼을 성사시킨 사람도 있었다. 정말 이런 게 가능한 걸까? 의심스러우면서도 뭘지 모를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 설레었다. ‘드림센터’라는 곳에서 무료체험 안내 문구와 약도가 있어 저번 주에 방문해서 자각몽을 체험해 보고 마음을 굳혔다. 오늘 체험한 자각몽은 저번 주보다는 선명해졌지만 여전히 손가락으로 활자를 빨아들이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거기 다 가격이 처음 말한 거와 달라서 영 찝찝했다. 불편해하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그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이곳은 사실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 역시 고시 공부로 몇 년간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고요.”

그가 덩수룩한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어디서 본 듯한 인상이라 친근감

이 들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인 그의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자각몽이라는 게 최면과 달라서 사실 위험부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죠. 꿈속에서 본 장면이나 내용이 현실에 남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2차 체험을 해 보신 후 천천히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그의 이야기를 듣자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며 안심이 됐다. 그래 바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체험만 해 보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자각몽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꿈속에서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꿈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면 그 안에서 내 의지대로 꿈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나는 그를 따라 어둡고 긴 복도에 줄지어 늘어서 있는 나무 문 중 하나를 열고 들어갔다. 문 안쪽에는 낮은 일인용 침대가 있었고 침대 옆 테이블에 알람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와 작은 스피커, 그리고 모래시계가 있었다. 신발을 벗고 침대에 편안히 누운 채 그의 설명을 들었다.

“자각몽을 꾸는 방법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최면을 걸듯 자각몽에 돌입하는 와일드와 RC(Reality Check) 연습을 통해 꿈속에서 자각훈련을 하는 딜드가 있습니다. RC라는 것은 내가 꿈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치이죠. 바로 이 모래시계가 그 장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머니에 모래시계를 넣으시고 수시로 꺼내 보세요. 모래시계 안의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자각몽에 안전하게 진입한 것입니다. 와일드가 딜드보다 훨씬 어렵긴 하지만 자각의 과정이 필요 없는 데다 일단 성공하면 현실과 차이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체험이 가능하죠.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와일드 체험을 해 볼 거예요.”

그가 전자시계에 연결된 이어폰을 내 귀에 꽂자 시간이 표시되던 창이 불규칙하게 솟았다 내려가는 그래프 화면으로 바뀌었다.

“현재 박 명운씨의 뇌파 상태입니다. 이어폰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웬지 소리 내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긴장감이 들었다. 그가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장치 안에 프로그램 된 대로 편안하게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이 시계가 주기적으로 짧은 알람을 울려주어 얇은 Rem 수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꿈속에서 알람 소리가 들려도 완전히 깨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 울리는 알람은 아주 소리가 클 거예요. 그때 눈을 뜨시면 됩니다. 참, 와일드 중에도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위해 RC 체크는 필수입니다. 기억하세요.”

긴 설명을 마치고 그가 방안의 조명을 낮췄다.

“며칠 동안 반복되던 그 꿈을 모티브로 활용해서 자각몽에 진입할 겁니다. 손가락으로 활자를 빨아들이는 설정이 핵심입니다. 자꾸 연습하세요. 눈을 감고 몸이 잔잔하고 미지근한 바다 밑으로 점차 가라앉는다고 상상을 하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의 안내에 따라 나는 눈을 감고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켰다. 차츰 몸이 나른해졌다.

“눈 앞에 도서관 문이 나타나면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면이 펼쳐질 거예요. 사서가 빨간색 책을 책장에 꽂으면 그때 모래시계를 꺼내 RC 체크를 하시고 꿈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잠꼬대처럼 멀어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몸이 깊은 바다로 가라앉다가 툭 바닥에 닿았을 즈음 나는 도서관 종합자료실 문 앞에서 있었다. 두꺼운 유리문을 밀자 덩동 알람 음이 짧게 울렸다.

왼쪽 데스크에 체크무늬 교복을 입은 소녀

정면에 책을 읽는 반백의 신사

나는 오른쪽 책장들 사이로 걸음을 옮긴다

왼손에 면장갑을 끼고 덥수룩한 장발로 얼굴을 가린 사서

다행히 나는 단 한 번 만에 자각몽에 진입할 수 있었다. 모래시계를 꺼내 보았다. 분홍색 모래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멈춰있었다. 빨간색 자기계발서를 펼쳐 페이지를 확인했다. 내가 빨아들인 부분이 하얗게 비어있다. 급한 마음에 빨라지려는 발걸음을 애써 늦추며 책장 사이를 빠져나왔다. 그때, 흰 장갑의 사서와 눈이 마주쳤다. 눈을 내리깔고 유령처럼 움직이던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 표정이 웬지 기분 나쁘게 느껴져 얼른 고개를 돌렸다. 도서관을 빠져나와 고시원으로 향했다. 내 방은 어둡컴컴하고 너저분했다. 여기저기 널려진 옷가지를 대충 발로 차며 책상 앞에 앉았다. 스탠드를 켰다. 책꽂이 가운데 우뚝 선 팔뚝만한 로봇 태권브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나를 노려봤다. 가슴에서 광자력 빔을 내 뿜을 것 같은 로봇 태권브이는 행정고시합격을 기원하는 부적 같은 존재다. 책상에 앉아 행정법 총론 교재를 펼쳤다. 지난 삼 년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 나를 고생시켰던 과목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첫 장 첫 줄부터 천천히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와 함께 하나씩 사라지는 활자들. 짜릿한 쾌감이 손가락 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활자들, 지식을 완전히 내 몸으로 흡수하여 소유하는 것은 외워서 익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활자들이 발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상상을 하며 쉴 새 없이 책을 읽었다. 가끔 속도가 너무 빨라져 하얗게 비어가는 책장 위에 씩은니처럼 낱말들을 빠뜨리기도 했지만 상관없다. 돌아가 다시 읽으면 되니까. 일단 흡수된 활자는 알아서 제가 있던 문장으로 찾아들어갔다. 첫 단원을 반 정도 읽었을 무렵 따르릉 시끄러운 마지막 알람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내 뒷덜미를 잡아끄는 듯 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악착같이 책을 붙잡고 한 자라도 더 읽기 위해 버텼다.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몸이 휘어지고 구겨지더니 어느새 캄캄한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번쩍 정신이 들었다.

“알람을 기억하세요. 그때 반드시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처럼 욕심을 부리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저희도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 할 수 없습니다. 꿈을 전부 잃어버리거나 반대로 꿈속에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친절한 인사를 뒤로하고 꿈꾸는 자 카페 사무실을 나와 아르바이트하는 PC방으로 향했다. 학원이며 상가가 밀집해 있는 노량진은 활기가 넘쳤다. 차도 쪽에 줄지어 붙어 있는 노점이 특히 그랬다. 예전에는 기껏해야 핫도그, 닭고기 꼬치 정도였던 메뉴들이 팬케이크에 퓌 밥, 스테이크까지 다양해졌다. 노량진 길거리 음식을 먹으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객이 적지 않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다. 어쩌면 공무원 준비보다 창업이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장사는 무슨 수로 할까 싶어 포기했다.

“당신의 헌혈이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헌혈하고 가세요.”

흰 티에 흰 장갑, 빨간 구호를 가슴에 단 봉사자가 내 팔을 잡았다.

“사흘 전에 했어요.”

멋쩍게 웃으며 팔을 빼는 내게 상대는 지나치게 밝은 미소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한 달에 한두 번 필요한 물건이 있거나 영화가 보고 싶을 때 헌혈의 집은 요긴하다. 그곳을 거쳐 대형선물가게까지 지나고 나면 거리는 조용해진다. 노점 대신 늘씬한 은행나무가 죽 늘어선 인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산책 코스다. 이 길을 걷기 위해 나는 학원에서 십오 분이나 떨어져 있는 장승배기 쪽에 방을 얻었다. 내가 사는 고시원은 주택가 안 다가구 건물의 반지하를 개조해 만든 곳이다. 거실을 나무 벽으로 막아 네 귀퉁이에 방을 만들고 중앙에 작은 냉장

고와 간이식탁을 둔 주방이 있다. 화장실 겸 샤워실에는 세탁기가 있는데 밤에는 세탁기 사용을 절대 금한다. 네 방 중 창이 달린 방은 내방 단 하나. 다른 방보다 월세가 2만 원 더 비쌌지만 삼 년 넘게 이곳에 있게 될 줄 몰랐다. 나름의 작은 사치를 부린 것이다.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미래를 예감했던 것일까? 그 작은 숨구멍이 없었다면 삼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나보다 일 년 먼저 시작한 경준은 장장 오 년간의 고시원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결국 씩씩한 얼굴로 짐을 뺐다. 그는 여자 친구와 고향에 내려가 자리를 잡아보겠다고 했다. 푸석한 머리카락을 하나로 모아 틀어 올린 그녀는 수시로 경준의 방을 드나들었다. 규칙상 이성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지만, 창조차 없는 지하방에서 끓어오르는 혈기와 답답함을 풀어줄 존재가 그녀뿐임을 이해했기에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신음에 귀 기울이며 나 역시 욕구를 해결해 왔던 터라 이별이 약간 섭섭했다.

경준의 영향 때문이었을까? 공무원 시험에 내리 세 번 떨어지고 난 뒤 올해부터는 틈틈이 취업면접을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역시 쉽지 않았다. 서류전형에 통과했다쳐도 면접이 문제였다. 내 소개부터 앞으로의 각오, 요즘 사회문제까지 열심히 찾아 대본을 작성하고 외워도 면접관들의 딱딱한 얼굴을 마주하면 번번이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다. 나보다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여기저기 주위들은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해내는 친구들을 보면 약이 올라 미칠 것 같다. 그렇게 수완이 좋은 친구들은 공무원으로 혹은 적당한 회사로 빠르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 떠났다. 고시원에 진득하게 눌러붙어 있는 것은 나 같은 패배자들뿐이다.

“박 명운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귀사의 장난감 광고를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장난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좀 추상적이군요. 박 명운 씨는 꿈이 뭔가요?”

초등학교 이후로 꿈을 가져 보지 못했다. 어렸을 때의 꿈은 로봇 태권브이보

다 더 기운 센 건담을 만드는 과학자였다.

“어렸을 때의 꿈은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였습니다.”

“지금은 꿈이 됩니까?”

면접관의 질문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단지 안정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싶었을 뿐인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혀를 이리 저리 굴리며 입천장과 잇새, 목구멍에 틀어박혀 있을지도 모를 대답을 찾아내려 애쓰다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설 때, 면접관의 낮은 숨 소리가 화살처럼 뒤통수에 콕 박혔다.

그날 M사의 면접관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떠오르자 목이 심하게 말랐다. 답답하게 목을 죄던 셔츠의 단추를 두어 개 풀고 재킷을 벗어 한 손에 걸친 후, 편의점에서 얼음 컵과 캐러멜마키아토 맛 커피 팩을 샀다. 단돈 천 원에 아이스크림을 마실 수 있는 세상이라니, 값싸고 질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나는 얼마쯤 되는 인간일까 궁금해졌다. 값은 싸지만 질은 그다지 좋지 않으니 상품 가치는 별로 없겠군. 커피가 얼음과 섞여 시원해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흔들다 단숨에 들이켰다. 남아 있는 얼음이 아까워 뚜껑을 열고 몇 조각 으득으득 씹었다. 왼쪽 어금니가 쿡 쑤셨다. 하늘이 어느새 불그스름하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피곤한 기색의 낮 근무자가 퇴근하고 난 후, 나는 대충 빈자리를 청소하고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접속했다. 새벽녘의 PC방은 손님이 자주 들락거리지 않아 고요하다. 게다가 더욱 좋은 점은 아르바이트하는 틈틈이 책을 보고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처럼 무거운 물건을 들어 나르거나 수시로 채워 넣지 않아도 되고, 모든 주문을 컴퓨터로 하므로 손님과 말을 섞을 일도 거의 없다.

‘일반 행정직 시험 D-15일’

강의 첫 화면에는 매일 시험 일자의 카운트다운이 뜬다. 그것을 볼 때마다 마치 집행일을 앞둔 사형수처럼 가슴이 오그라든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걸까?

“야, 뭘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사장이 험악하게 나를 노려보았다. 나이는 이제 갓 서른이 넘었을까 말까 한 젊은 놈이 사장이랍시고 술 마신 날 새벽에는 꼭 들리서 꼬장을 부린다.

“해장하게 라면 하나 끓여오고. 인마! 저 빈자리들 다 둘러보면서 컴퓨터에 쓸 데없는 거 깔렸으면 좀 지우고 하란 말이야. 공부한다는 놈이 왜 그렇게 멍청하게 앉아만 있냐. 니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재수 없는 새끼.’ 나는 목젓까지 끓어오르는 욕지거리를 삼키며 라면 물을 올렸다. 이 더러운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시험에 붙어야 한다. 아르바이트하는 내내 낮에 다녀왔던 드림센터에서의 일이 자꾸 떠올랐다. 그저 꿈을 꾸고 읽기만 했을 뿐인데 거짓말처럼 책의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어쩌면 그의 말대로 활자들은 내 피와 살, 호흡을 공유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나를 도울지도 모른다.

“비용을 저희 쪽으로 입금하시면 매번 드림센터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직원이 방에 작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필요한 장비를 가져다드릴 거예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휴대폰 앱을 켜면 알람시간이 설정되고 자동으로 카메라가 작동되면서 고객님의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마지막 알람이 울렸는데 깨어나지 못 하면 꿈에 갇히게 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댁으로 긴급 출동할 인력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문제는 돈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로 했다.

“사백오십? 아니 그 큰돈이 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몇 년을 고생했는데 할 수 있는 만큼은

해 봐야지.”

“아니 무슨 특강이 그렇게 비싸? 느 아버지가 자식새끼 공무원 시키겠다고 밤 낮없이 화물차 몰고 다니다 이 지경이 된 거 알면서 그러냐. 지금 병원비만 해도 허리가 휠 지경이야.”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이었다. 보험금 얘기를 꺼내기 무섭게 회사는 아버지 때문에 영업에 손실에 났다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더 조를 수도 없는 뻘한 사정에 왈각 화가 치밀었다.

“됐어요! 내 주제에 무슨 특강이야 특강은. 끊어요.”

결국 반나절 만에 엄마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통장으로 돈을 부쳐주었다. 이번 에야말로 꼭 합격하고 말리라.

나는 새벽녘 손님이 뜬 PC방 카운터에 앉아 시험까지 남은 12일간의 독서 계획표를 짰다. 우선, 과목별로 하루씩을 분배한다. 혹시 뜻하지 않은 변수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여분의 하루를 더 하면 총 6일이 걸린다. 그리고 남은 6일 동안은 면접대비.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 분야별 베스트셀러를 검색했다. 문학에서는 다시 읽어야 할 명작으로 움베르트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 화제였다.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 어느 수도사가 ‘웃음은 예술이며 식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이다.’라는 내용을 다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의 유일한 필사본이 장서관에 있음을 알고 몰래 읽어보다가 독살당한 이야기였다. 진리가 담긴 책을 감추고 독을 발라 못 보게 막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왠지 불길하고 째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글자를 빨아들였던 손가락을 슬쩍 혀에 대보고 진저리를 쳤다. 문학까지 신경 쓸 시간은 없었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읽었다던 몇 권의 책을 검색했다. 한국 사회문제에 대한 비평서 한 권,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서적, 유명한 사회학자가 쓴 4차 산업에 대한 책 등 대충 추려보니 여섯 권 정도 됐다.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12일 동안 부지런히 꿈을 꾸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바로 시

힘 준비 할 수 있도록 컵라면과 핫도그로 식사도 미리 해결했다.

고시원에 와서 시험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젠장. 어떻게 된 걸까? 지난 3일 동안 나는 규칙적으로 꿈을 꾸었고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어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책을 반 정도 읽었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흡수를 멈추었다. 급한 마음에 속도가 빨라졌나 싶어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글을 읽었다. 여전히 활지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봐도 도무지 달라진 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렇다고 내 손가락을 휴대폰처럼 충전해서 써야 할 리도 없고, 아직 읽어야 할 책이 남아있는 책상을 바라보자 초조함이 밀려왔다.

“생각보다 고객님의 기억의 용량이 적은 모양이네요. 뇌도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꿈이긴 하지만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의 내용을 저장해 놓을 공간이 필요한 거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면 되죠?”

“새로운 활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들을 지우고 공간을 확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일단 기억을 지우고 나면 현실에서도 그 기억은 떠올릴 수 없게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장된 기억을 지운다, 차라리 잘 됐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나쁜 경험을 했던가? 나쁜 기억은 지우고 원하는 자료는 받아들인다니 오히려 일거양득 아닌가.

가장 먼저 지울 기억은 내가 군대 있을 때 후배 놈과 눈이 맞았던 현이 계집애. 대학 신입생 때부터 일 년 반 동안 만났으니까 용량이 꽤 될 것 같다. 거기에 내가 괴로워한 기간까지 합치면 족히 2년은 넘겠군. 나는 자각몽 앱을 켜고 서둘러

자리에 누웠다. 이번에는 책을 읽기 전에 먼저 학교로 향했다. 신입생을 맞은 학교는 정문 입구에서부터 강의실까지 동아리 홍보 테이블이 늘어서 어수선했다.

“후배님, 사진 동아리 가입하세요. 예쁜 여학생들이 이미 다섯 명이나 신청서 썼어요.” 영오 선생이 내 소매를 붙잡았다. 선생의 어깨너머로 사진 동아리 홍보 설명을 듣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현이는 그때처럼 예뻐다.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짧게 거절을 하고 서둘러 강의실이 있는 본관으로 향했다. 두꺼운 철로 된 강의실 문 앞에 서자 갑자기 머리가 팽 돌았다. 둥그런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 어지러움이 가라앉고 한결 머리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킁킁한 내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이제 다시 활자를 흡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차례이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덜미가 싸근했다. 흡수를 멈추었던 그 줄 위에 손가락을 꼭 누르고 읽기 시작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된다! 내가 해냈다. 드디어 손가락이 활자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단숨에 책의 나머지 내용을 다 읽어내고 다른 책을 펼쳤다. 그때, 마지막 알람 소리가 울리고 몸은 맥없이 현실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다. 벌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시간이 됐다.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다 말고 멈췄다. 이럴 시간이 없는데.

내가 지운 기억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나는 또다시 기억을 지우기 위해 공간 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손가락이 흡수를 멈추면 또 다른 기억을 지우려 이동해야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전보다 시간이 배로 들어갈 것이다. 이미 며칠이 지체된 상황에 자칫하다가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pc방은 내가 없으면 엉망이 될 것이다. 그 싸가지 없는 사장 놈도 이번 기회에 골탕을 좀 먹어줘야 아르바이트생 귀환 줄 알 것 아닌가. 내 인생의 성패가

달린 이 시점에 고작 책임감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결론이 났다.

다시 앱을 켜고 자리에 누웠다. 따뜻하고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상상을 시작했다. 몸이 무거워지며 서서히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때 순식간에 눈앞이 밝아지며 몸이 물 위로 솟구쳤다.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날아라 날아 태권 V~' 전화벨로 저장한 로보트 태권브이 노래가 귀 옆에서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 드림센터였다.

“고객님, 자각몽은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휴식 시간 없이 연달아 사용하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무리가 온다는 건 무슨 뜻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드시피 상황이 어떻게 꼬여버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의 하도록 하죠.”

“최소한 꿈을 쉰 시간만큼은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내 대답이 미답지 않은지 계속되는 직원의 당부를 건성으로 흘려듣고 나서, 나는 앱을 수동으로 바꿔 알람 횟수를 세 배로 늘렸다. 기본 설정이 다섯 번이어서 늘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알람이 울려 깨어나곤 했다. 관찰카메라의 전원도 꺼버렸다. 이제 나는 더 길게 꿈을 꾸고 더 많이 흡수할 것이다.

현이를 지우고 마련한 기억용량은 마지막 행정학 개론을 다 흡수하자 바닥이 났다. 이번에는 밤마다 나를 깨워 군장을 싸고 연병장을 돌게 했던 양아치 고참. 자대배치를 받은 첫날, 이등병 군복을 입고 동기인 것처럼 속여 내무반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꼬드겼다. 덕분에 후임이 들어오기까지 육 개월을 꼬박 고문관 취급을 받으며 시달렸다. 나는 꿈속에서 입영 통지서를 갈가리 찢어버렸다. 속이 후련했다.

고등학교 삼학년 내내 나를 갈구던 담임도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담임의 기억은 지우기가 쉽지 않았다. 꿈이지만 담임을 만나지 않겠다고 학교에 아예 안 갈

수는 없으므로 담임을 학교에 못 나오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3학년 반 배치를 받을 즈음으로 돌아가 퇴근하는 그의 뒤를 밟았다. 한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그가 집에 들어가고 난 후 나는 그의 집 대문과 계단에 생수를 사다 듬뿍 부었다. 밤새 퐁퐁 열어 출근하는 그가 미끄러져 다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들이 하나하나 지워진 공간에 활자들을 채워 넣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소요시간이 문제였다. 기억을 지우는 것은 꽤 어려운 과정이었고 이제는 용량이 큰 기억들은 거의 다 지워 남은 것이 별로 없었다. 항상 문제였던 술버릇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다. 술에 취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친구와 싸웠던 일, 골목에 세워진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박살내서 경찰서에 끌려갔던 밤의 기억. 블록 조각처럼 단편적인 기억들까지 끄집어내 지운 뒤 책을 읽고, 또 지우고 했지만 그래도 기억용량이 모자랐다.

책꽂이에서 나를 노려보는 로봇 태권브이를 모니터 옆에 내려놓고 로봇 태권브이 노래를 틀었다.

달려라 달려 로봇야, 날아라 날아 태권 V, 정의로 뭉친 주먹 로봇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친구, 두 팔을 곧게 앞으로 뻗어, 적진을 향해 하늘 날으면, 멋지다 신난다 태권 V 만만세, 무적의 우리 친구 태권 V~

마지막으로 지운 것은 어렸을 적 로봇 태권브이 때문에 골목길에서 놈들에게 맞은 기억이었다. 벽장 상자에서 아버지의 로봇 태권브이를 꺼내서 집 앞 골목에서 가지고 놀았다. 로봇 태권브이는 아버지의 꿈이자 나의 꿈이었다. 하필 그때 학교에서 나를 못살게 굴던 놈들을 만났다. 놈들은 태권브이를 골동품 취급했지만 나는 로봇 태권브이가 30년 만에 디지털 영화로 복원되었을 때 아버지와 같이 만화영화를 봤다. 태권브이는 만화영화 속에 등장한 악당들을 태권도로 제압하는 위대한 영웅이었다. 나는 태권브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안

고 옹크린 채 놈들의 분이 풀릴 때까지 맞았다. 아버지는 내가 고시원으로 떠날 때 로봇 태권브이를 건네면서 말했다.

“로봇 태권브이와 공부하면 어려운 시험도 한 번에 붙을 거다.”

놈들에게 얻어터진 기억만 지우고 싶었는데 잘되지 않았다. 로봇 태권브이 에 대한 기억은 서로 연결이 되었는데 기억이 엉망으로 꼬인 느낌이었다.

내일모레 시험. 읽어야 할 책은 아직 다섯 권이나 남았다. 이유 없이 무언가에 놀란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한 손으로 누르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이틀만, 깨어 있는 시간보다 꿈꾸는 시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열다섯 번째 알람이 울리면 잠깐 일어나 목을 축이고 최소한의 체력 유지를 위해 간단한 요기를 한 후 화장실도 한 번 다녀온다. 그리고 휴대폰 알람을 맞추고 다시 와일드 시도. 이틀 안에 남은 책 다섯 권을 다 읽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아직 남아있는 기억의 용량을 우선 채우기로 하고 서점으로 가서 책을 골랐다. 미리 골라두었던 책을 찾아 한 곳에 쌓았다. 가장 두꺼운 경제 서적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어차피 흡수된 활자들이 알아서 제 역할을 잘 해줄 것이다. 그때 내가 서 있던 서점의 배경이 고장 난 TV처럼 찌지직거리며 흔들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비틀거리다 눈을 들어보니 도서관이었다. 눈앞의 책꽂이에는 빨간 자기계발서가 꽂혀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장발의 사서가 다급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가 고개를 들자 머리카락에 가렸던 얼굴이 드러났다. 이럴 수가! 사서는 ‘꿈꾸는 자’ 카페의 주인장이라고 했던 그 남자였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각몽을 시도하면 정신적으로 큰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조금 만요, 아직 조금 남았던 말이에요.”

그가 왜 사서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다급해졌다. 이대로 그에게 끌려갔다가는 낭패라는 생각에 내 팔을 잡고 있는 그를 밀

치고 정신없이 도서관 밖으로 뛰쳐나갔다.

“박 명은 씨!”

당황한 듯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기 위해 골목골목으로 정신없이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움직이기 힘들 정도가 되어서야 겨우 그를 따돌릴 수 있었다. 서점이나 내 방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하므로 우선 미뤄왔던 큰 기억 하나를 지우러 가기로 했다. 여태 차마 지우기 두려웠던 기억. 하지만 그것 하나면 내게 필요한 저장 공간을 충분히 쓰고도 남을 것이다.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나와 모퉁이를 돌았다.

어린이날이었다. 요란한 트럼펫과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며 *로봇 코스프레 퍼레이드*가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거대한 로봇 태권브이가 앞장서서 걸었다. 우람한 가슴에 새겨진 빨간 브이가 번쩍이며 빛을 냈다. 음악에 맞춰 번쩍이는 브이는 힘차게 뛰는 태권브이의 심장 같았다. 덩달아 내 가슴도 두근거렸다. 태권브이 뒤로 주전자를 뒤집어쓴 강통 로봇 철이와 태권도 도복을 입고 까만 띠를 맨 훈이, 어깨에 천사처럼 하얀 날개를 늘어뜨린 건담과 색색의 슈트를 입은 용사들이 줄지어 걸으며 포즈를 취했다. 그들은 어깨를 낮추고 주변의 적을 살피는 듯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아빠는 동생을 어깨에 태우고 로봇 태권브이 노래에 맞춰 몸을 들썩였다. 엄마도 이리저리 움직이는 인파 속에서 중심을 잡으며 목을 길게 빼고 퍼레이드 구경에 여념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자 내 손을 잡은 엄마의 손이 조금씩 느슨해졌다. 나는 엄마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빼내기 시작했다. 긴장으로 축축해진 손이 거의 빠져나왔을 즈음, 누군가 옆에서 내 어깨를 확 잡아챘다. 그 바람에 엄마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명은아, 엄마 손 꼭 잡아야지.”

“안 돼!”

다급한 마음에 외마디 비명을 지른 나는 엄마의 손을 힘껏 뿌리치며 뒤돌아섰

다. 뒤로 사람들이 많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다.

“명운아!”

“박명운 씨!”

엄마의 목소리 위에 굵은 남자 목소리가 겹쳐졌다. 어느새 그가 나를 바짝 따라오고 있었다. 다행히 작아진 몸집이 도망치는데 수월했다. 뒤를 돌아보자 사람들의 물결에 갇혀 얼굴만 뚱뚱 떠 있는 그가 보였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옷자락을 정신없이 잡아당기며 앞으로 나아갈 때, 또다시 내 주위의 배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내 방. 나를 따라오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불 위에 널브러져 있는 나를 몇 명의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내 머리에 작은 전자 기기와 연결된 선을 붙이고 있었고, 검은 모자와 흰 장갑을 낀 남자들이 굵은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리둥절한 기분이었다. 또 다른 꿈으로 넘어온 걸까? 남자가 기기를 작동시키자 내 몸이 어디론가 강하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응급상황이 생기면 드립센터 직원이 출동한다는 카페 주인장의 말이 떠올랐다. 관찰카메라를 너무 오래 꺼 놓았던 것이 실수였던 것 같다. 나는 방문을 잡고 깨어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안 돼, 안 돼. 아직 깨어나면 안 되단 말이야!”

소리를 지르며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 깨질 듯 한 두통에 털썩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흘러 손잡이를 잡은 손이 자꾸 미끄러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현실로 복귀시키기엔 본인의 저항이 너무 강합니다. 아무래도 늦은 것 같습니다.”

흰 가운의 남자가 낮게 한숨을 쉬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곧 나머지 두 사람이 조용하고 민첩한 동작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포기하고 갈 모양인 듯했다. 나는 조용히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았다. 한 사람이 책상 위에 설치

한 카메라와 전선, 모래시계를 서둘러 거두어들이다가 책꽂이 가운데 우뚝 선 팔뚝만 한 로봇 태권브이를 떨어뜨렸다. 주먹을 불끈 쥐고 나를 노려보던 로봇 태권브이는 책상 위를 한 바퀴 구르더니 바닥에 떨어졌다. 잠시 가라앉았던 지독한 두통이 다시 밀려왔다. 고통을 참기 위해 질끈 감은 눈 안쪽의 어두운 화면에서 새빨간 브이가 번쩍거렸다. 곧이어 하얀 날개와 누군가의 손, 주인을 알 수 없는 옷자락들이 마구 뒤엉켜 보여 어지러웠다. 눈을 뜨자 바닥에 떨어진 로봇 태권브이가 보였다. 바쁘게 움직이던 드림센터 직원이 성가신 듯 그것을 발로 차버렸다.

“휴대폰에 깔렸던 드림센터 앱과 통화내역, 문자, 그리고 카페 가입내역까지 모두 지웠습니다.”

“그래, 그럼 철수하지.”

나는 점점 심해지는 고통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엎드려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누가 다녀간 흔적 없이 깨끗해진 방에 팔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채 누워있는 내 몸뚱이가 보였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자락이 말려 올라가 배가 살짝 보이는 것 빼고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누워있는 나와 책상 사이 방바닥에 도무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로봇 태권브이가 있었다. 팔이 꺾인 채 바닥을 짚고 있었고 앞면이 부서지는 바람에 가슴에 붙은 빨간 브이가 반밖에 남지 않아 보기 흉했다.

작은 창을 통해 누런 달빛이 들어오자 꿈을 꾸는 듯 내 눈꺼풀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다 멈추었다. 이제 드디어 나를 가로막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 두통이 가시고 나면 나는 다시 꿈을 꿀 것이다. 아주 조금만 더…….

# 은상



경북 포항시  
배혜정



## 수상소감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면 좋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런 저를 늘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어 용기낼 수 있었고,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주는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시간들, 날씨들,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고 그런 내가 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아름다운 풍경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후크송



늦은 오후였다. 고객님의 휴대폰을 최신 스마트폰으로 무상 교체해주겠다는 전화로 겨우 잠이 깬 그녀는 욕조에 누워 다시 잠을 청했다. 온몸이 녹아내릴 듯 뜨거운 물속에서 그녀는 주기적으로 발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물이 차갑게 식은 후에야 일어나 욕조 마개를 뽑았다. 그녀가 물기를 닦아내고 욕실을 나갈 때쯤 욕조 물은 반시계 방향으로 가라앉았다.

빨래를 너무 미뤄 옷장 안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밀린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 뚜껑을 열어보려야 지난 주말 돌린 빨래를 널지 않은 걸 깨닫는다. 방치된 빨래가 세탁기 속에서 서로를 비틀어 쥔 채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있다. 그녀는 강한 원심력에 세탁기를 짚고 눈을 감았다. 감은 눈앞이 반짝반짝반짝했고 벌써 며칠째 귤가에 맴맴거리는 멜로디가 세탁기 깊숙한 곳으로 구겨져 들어갔다.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니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body nobody nobody nobody.*



### [후크]

- 빨래는 돌리고 나면 바로바로 널어야 돼. 안 그럼 다 구겨져서 다시 빨아야 되니까 꼭 바로바로 널고, 다림질은 너무 위험해서 아직 안되니까 애초에 널 때 타악 타크 털어서 구김 안 생기게. 응?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는 절대 열어보면 안

돼. 알았지?

- 왜?

- 열지 말라면 열지 말지 뭘 토를 달어. 좀 있다 보면 뽁뽁 소리 나면 피죤 넣을 때만 열어.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이런 건 듣는 거보다도 한 번 해보면 제일 쉬우니까. 방금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순서대로 짚어봐 봐.

아이는 엄마가 일러준 대로 해 보이고 엄마를 쳐다본다. 가르쳐 준대로 다 맞게 했는데 엄마는 웃지 않는다.

- 엄마……. 엄마 어디 멀리 가?

- 세탁기… 는 안에, 통이 빨리 돌아서 잘못하면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서 열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을 때 열고 그러지 말어, 이제 우리 딸 다 컸으니까……. 혼자 잘할 수 있지?

\*~\*~\*

열 살의 아이는 할 수 있다고 대답했었다. 못한다고 했었다. 엄마는 아이가 못한다고 떼쓰길 바라진 않았을까. 우는 아이를 핑계로 조금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을까. 차라리 열 살 아이가 세탁기에 빨려 들어가더라도 했다면? 그래줬다면 아이 대신 엄마가 여기 살고 있었을까. 어느 쪽이었더라도 상관없지, 그녀는 웃으면서 또다시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그녀는 대답 없이 세탁기 뚜껑을 덮었다. 귤가를 맴도는 멜로디 때문에 어지러워 이주 짜 밀린 빨래조차 할 수 없었다. 시간은 벌써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너무 오래 씻었다. 아직 한 끼도 못 먹었네. 채 마르지 않은 머리끝을 털어내며 그녀는 부엌으로 갔다. 밥솥은 코드가 뽑힌 채다.

## [후크]

- 쌀 씻고 네 손에 거의 손목까지 물이 찰랑찰랑하면 되는 거야. 아, 마지막에 물기 닦는 거 잊지 말고. 마른 행주로 깨끗하게 닦어. 취사버튼 누르면 알아서 보온으로 넘어가니까. 보온 넘어갔다고 바로 열지 말고 뜸 좀 들거든 열어서 젖어 주고. 뜨거우니까 안 데게 후후 불어 가면서.

후후 부는 시늉까지 해 보이는 엄마는 식탁의자 위에 올라서서 취사 버튼만 멍뚱히 바라보는 아이를 곁눈으로 바라본다. 열 살 아이 혼자 해내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생각은 끼어들 틈이 없도록 쉬지 않고 말한다.

- 가스는 항상 조심해야 돼. 불 켜놓고 절대 다른 데 신경 팔지 말고,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는 거니까 불 앞에 꼭 지키고 서 있어. 알았지?

\*여아\*

그녀는 냄비에 물을 받았다. 불을 붙이고 사다둔 라면 하나 없는 찬장 안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슈퍼로 갔다. 십일월의 밤공기는 생각보다 포근했다. 그녀는 집 근처 편의점을 지나 멀리 작은 동네 슈퍼로 갔다. 상쾌한 밤공기를 걷는 기분이 좋아서였다. 투명한 종소리를 듣고 주인여자가 불투명한 유리문을 반쯤 드럭 열었다. 몸을 조금 빼고는 문지방에 손을 짚는 주인여자와 그녀는 잠깐 눈이 마주쳤다. 늘 먹던 라면 5개 묶음을 샀다. 제법 무쫄한 검은 봉지가 부스럭하다가 그녀의 무릎을 탁 쳤을 때 그녀의 머리 위로 흐릿하게 반짝거리는 별처럼 깜빡 생각이 났다. 아, 냄비에 물 엎어놓고 그대로 나왔다.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녀는 달렸다. 물이 끓고 있는 집으로 곧장.

## [후크]

아이의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간다. 친구들은 병아리 아저씨가 이제

염색된 병아리를 들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시끌시끌하다. 성연이도 아이의 옆에 살짝 와서 우리도 가보자, 한다. 아이도 파란색 병아리는 어떤지 분홍색 병아리가 정말 있긴 있는지 궁금하지만 성연이에게 자신은 이미 봤다고 거짓말을 하고 손인사를 한다. 아이는 곧장 집으로 가야한다. 꼭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야 할 것 같다. 시간과 싸우는 엄마는 하루하루 파랗게도 변하고 발갛게도 변한다. 아이는 혼자서 학교 후문 앞 초록문구로 들어간다. 백 원짜리 껌돌이를 사들고 오도독오도독 먹으면서 걸어간다. 가장 친한 성연이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굴러다닐수록 입안에 구르는 껌돌이는 달다.

아이의 집은 삼거리 교차로 도로변에 있는 경안설비 상가에 딸린 3층 옥탑방이다. 아이는 건물 위에 얹어 놓은 작은 모자 같은 그 집이 펍 마음에 든다. 난간 앞에 꿇어앉아 묵직하게 지나는 큰 차, 날렵하게 지나는 작은 차를 관찰한다. 아이는 차들이 지나며 만드는 리듬에 맞춰 난간에 손가락으로 툭툭 박자를 맞추어 본다.

\*~\*~\*

종, 종종 종종, 자신의 걸음이 부자연스럽다고 느낀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툭, 툭툭, 두드려 리듬을 맞춰봤지만 그녀는 늘 걷던 걸음의 규칙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다. 어딘가에 깜빡 두고 온 것처럼. 그녀 앞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깜빡 놓고 간 물건처럼 혼란스럽게 놓여 있었다. 상가, 간판, 가로등과 희미한 차선까지. 도입부와 브릿지, 클라이막스로 이어지는 기승전결이 무너진 골목 위에 선 그녀의 꺾가엔 같은 멜로디만 끊임없이 반복됐다.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니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body nobody nobody nobody.*

불규칙하게 흥얼거리다 견잡을 수 없이 빨라진 멜로디를 쫓다보니 어느새 집 앞. 현관 너머로 휴대폰이 울고 있었다. 호흡이 가빠 겨우 열쇠 구멍을 맞추고 시계방향으로 돌렸다. 달각, 소리가 나지 않고 열쇠만 혼자 헛돌았다. 그녀는 문 잠그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이 철렁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십 칠년 세월이 후크가 되어 뱅뱅 헛돌고 있었다. 클라이막스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후크송처럼 그녀의 삶에 반복되는 절정의 기억. 그녀의 응답을 기다리는 한 소설의 벨소리, 그 반복이 만들어내는 잔향에 갇힌 그녀는 잠겨야 하는데 잠기지 않았거나, 열려 있어야 하는데 잠겨 버린 스물일곱이었다.

울리고 있던 벨소리는 그녀가 신발을 벗는 동안 끊겼다. 그녀는 가스 불부터 꺾다. 냄비 바닥에 조금 남은 물이 거품처럼 자글대고 있었고 뚜껑에 맺힌 물방울들은 합쳐져 냄비 바닥으로 떨어졌다. 차라락, 꺾기에 맴도는 멜로디와 함께 화려한 거품을 일으키고는 흔적 없이 증발했다. 그녀는 라면 한 봉지를 꺼내 식탁에 올려두고 나머지는 찬장 안에 넣었다. 한동안 여닫지 않은 찬장 문이 끼이이익 하는 소리에 그녀의 팔이 뻑뻑해졌다.

### [후크]

엄마는 찬장 문을 열어 한껏 쟁여놓은 구운 김과 고추참치를 아이에게 보여준다.

- 다른 건 냉장고 열어보고 이것저것 찾아 먹어. 참기름이랑 맛소금 같은 건 여기 가스렌지 밑에 다 들어있고, 간장도 여기 있으니까 비벼 먹으려면 여기서 꺼내 먹고. 후라이팬이랑 냄비 같은 건 여기, 알지? 그리고 비닐 같은 건 생기면 여기 서랍에 모아뒀다가 쓰고…….

아이는 그냥 엄마가, 해주면 되잖아. 말하려 들이쉬었던 숨을 그대로 삼킨다. 엄마의 일, 그러니까 어른들의 일을 자신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조금은 설레

기도 한 아이는 엄마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쓴다.

\*아아\*

인간의 모든 비극은 잉여 음식을 저장하면서부터일 거라는 확신으로 그녀는 찬장을 밀어 닫았다. 라면은 필요할 때 사다 먹으면 되는데, 두고두고 먹으려다가 찬장을 열게 된 그녀는 새삼 인류의 비극을 슬퍼했다. 고개를 저으며 식탁에 올려둔 라면봉지를 뜯어 끓는 물에 스프를 넣었다. 색이 변하며 더욱 극렬하게 끓는 물. 그녀는 얼른 그 위에 면을 얹었다.

[후크]

엄마는 벽에 기대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아이는 엄마 옆에 바짝 앉아 책가방 지퍼를 양 옆으로 지익 열고는 나무 대바늘 두 개와 분홍색 털실뭉치 두 개를 꺼낸다.

- 엄마, 엄마 예전에 뜨개질 잘 한다 그랬잖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학교에서도 해볼려 그랬는데 안 돼, 엄마. 응? 좀 봐봐.

아이는 텔레비전 앞에 넋을 놓은 엄마의 눈앞까지 털실과 대바늘을 진 손을 들어 올린다.

- 이걸 뭐하러 샀어,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어휴, 이리 쥐봐.

- 용돈 모은 걸로……. 난 그냥 엄마, 심심할까봐……. 별로 안 비싸던데?

아이는 금세 울상이 된다. 엄마는 자신을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게 하는 아이의 눈을 보지 않고 뜨개질을 가르쳐준다.

- 이렇게… 바늘을 엇갈리게 잡고… 이쪽 손으로 실을 잡고 이리엿게 뒤에서 앞…으로 한 바퀴 감아. 고리가 생기면 바늘을 빼는 동시에 뒤로 밀어, 이렇게.

아이는 목구멍 아래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덩어리를 눌러 삼킨다. 엄마를 위한

일이었는데. 용돈을 썼다고 혼난 것이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를 목구멍 아래에서 자꾸만, 킁. 킁,

\*~\*~\*

킁, 킁킁. 라면국물을 한 숟갈 맛보다가 사례들린 그녀가 한참 매운 기침을 하는 동안에도 면은 원래의 네모난 모양 그대로, 빨간 국물에 떠 있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면의 중간을 찢러 휘휘 저으며 생각했다. 자신의 뇌도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 풀어내면, 그러면 완성될 수 있을까 하고. 그러나 그녀의 귓속엔 덜 익은 멜로디가 덩어리째 떠 다녔다. 방으로 가 라디오를 켜고 볼륨을 최대한 올린 후에야 그녀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 [후크]

엄마는 털실과 대비늘을 봉지 짜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고 저녁 준비를 한다. 도마 위에서 탁탁탁탁 하다가 간간이 빗겨 떨어지는 서늘한 소리. 마늘 빵다가 그 중 하나가 튕겨나가는 소리. 양파 볶는 달달한 냄새. 찌개가 퐁퐁퐁 끓는 소리. 밥솥이 하얗게 내뿜는 후덥한 습기, 밥상다리 펴는 소리……. 6시내고향 시그널 음악이 나오면 곧 찌개가 중앙에 놓인 뜨끈한 밥상이 방으로 들어온다. 앉아있던 아이는 밥상 놓을 곳을 피해 앉은 채 엉덩이걸음으로 제 자리를 찾는다. 엄마는 텔레비전 속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쭉스러운 고향 자락을 보며 간간이 웃어내기도 하며 밥을 먹는다. 일상에 스며든 불안은 소리도 냄새도 없다. 불안도 일상적인 여섯시엔 엄마와 아이가 웃으며 밥을 떠 넣는다.

\*~\*~\*

그녀는 설거지를 내일로 미루고 곧바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급히 먹은 라면 탓에 속이 좋지 않아서 누워 있기가 거부했다. 결국 일어나 스탠드를 켜고 책상 앞에 앉았지만 텅 빈 책상에서 그녀는 읽고 싶은 책도, 쓰고 싶은 것도 없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팔을 포개 엮으려고 책꽂이에 꽂힌 수첩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수첩과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수첩 맨 뒷장에 여전히 엄마의 편지가 그대로 끼워져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읽을 수도 버릴 수도 없게 하는 기억의 집착, 그녀가 팔을 돌려 만든 동그란 공간만이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의 얼굴만을 담는 그 동그라미 안에 그녀의 뜨거운 숨이 습하게 채워졌다. 점점 숨이 줄어드는 순간에도 맴맴거리는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라면을 먹는 동안 켜둔 라디오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도 라디오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멜로디, 그녀는 자신의 귀의 볼륨 조절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다.

*네, 음악 산책. 박철수와 함께 하고 계시구요, 오늘은 일요일, '새벽에 말을 걸다' 코너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먼저 원더걸스의 "노바디" 듣고 다시 올게요.*

박철수는 어딜 간다는 걸까? 다시 온다는 그는 정말 '노바디'만 끝나면, 이 노래만 끝나면, 다시 돌아올까? 그녀는 박철수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또 이 노래라니. 상상의 멜로디와 실제의 멜로디가 겹쳐지는 순간. 그녀는 차라리 안정감을 느꼈다. 두 멜로디의 음파가 조금씩 맞춰지고 빠르게 증폭되는 소리, 그녀는 폭발하는 볼륨을 견딜 수 없어서 흘러나오는 노바디 노바디 노바디를 방 안에 가둬둔 채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니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body nobody nobody nobody.*

## [후크]

그날도 아이는 곧장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다. 벽에 기대놓은 베개는 엄마가 기대던 그대로 움푹 들어가 있는데, 엄마는 없다. 아이는 욕실로 뛰어간다. 다행히 욕실 문이 잠겨있다. 화장실 간 거였구나. 엄마, 화장실에 있어? 노크에도 반응이 없는 화장실 안. 엄마, 엄마? 엄마……!

아이는 일단, 일단 안방으로, 그래 안방으로 간다. 텔레비전을 켜고 엄마가 기대던 베개 옆에 앉는다. 차분히 기다린다. 아니다. 엄마가 뜨개질을 얼마나 했나 화장대 맨 밑 서랍을 열어봐야겠다. 털실은 하나만 남아있다. 벌써 다 뜯 거야? 서랍을 닫고 일어나는데 화장대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다. 뭐지? 그대로 두고 아이는 앉았던 자리로, 엄마가 기대던 베개 옆으로 다시 돌아간다. 저 봉투 안에 든 게 편지라면 엄마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 정도는 열 살 꼬마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열어 보고 싶지 않다. 곧 나오겠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를 열심히 본다. 아이는 이것만 끝나면, 이것만 끝나면, 한다.

\*~\*~\*

찌증스럽게 머리를 헹글어뜨리는 그녀의 손은 얼마 못가 허공에서 힘을 잃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기로 했다. 거실까지 새어나오는 라디오 소리를 덮으려 물을 틀어둔 채 냄비와 수저를 씻었다. 너무 적은 설거지거리 탓에 얼마 지나지 못해 물을 꺼야했다. 그녀는 물소리가 사라진 공간에서 박철수의 목소리를 더듬었다. 방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설거지를 끝낸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 문 손잡이에 붙들려 서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어야 했다, 박철수를 위해.

## [후크]

엄마가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죽었다. 아이는 화장실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진작부터 직감했다. 부엌으로 가서 수저통의 큰 가위를 집어 든다. 아이의 몸속이 선득하다. 죽은 엄마를 상상해본 적은 없다. 그러나 화장실에 가까워질수록 자기도 모르게 죽은 엄마를 본다. 제발 깜빡 잠든 것이기를. 제발, 제발. 아이는 가위로 쇠고리를 열려고 안달을 한다. 내리찍어도 본다. 아이는 아마 울고 있다. 가위는 땀에 젖어 잘 쥐어지지 않는다. 자꾸만 미끄러진다. 가위를 다른 손에 옮겨 준다. 눈물을 닦아내는 손에서 쇠 냄새가 비리다. 비린 냄새가 순식간에 아이의 빈 몸통을 메운다. 가위를 놓고 맨 손으로 아무렇게나 문을 친다. 손에 감각이 없어지니 손은 몸의 일부가 아니라 도구가 된다.

\*~\*~\*

한참을 문고리를 잡은 채 서있던 그녀는 맨손으로 잠긴 문을 열던 꼬마를 떠올렸다. 아마도 그런 게 초인적인 힘이겠지. 이제 와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었다. 그저 위급한 상황에 나타난 초인적인 힘 정도로. 방 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꼬마의 잔상을 덮었다. 그녀는 라면을 사서 집에 들어올 때도 전화가 왔었지, 이제야 생각이 났다. 아마 처음 걸었던 사람이 다시 건 것이리라 추측했다. 라디오 소리를 덮은 벨소리 덕에 그녀는 초인적인 힘없어도 문을 열 수 있었다.

### [후크]

문이 뭔가에 부딪혀 열리다가 만다. 문 뒤편에는 엄마의 몸이 축, 늘어져, 있다. 천장에 그대로 드러난 회색 파이프, 거기에 분홍색 털실을 여러 번 칭칭 감아 만든 줄. 사는 게 귀찮고, 이제 너도 귀찮고, 돈도 다 귀찮다던 엄마가 그 줄에 매달려 있다. 아이는 늘어진 엄마의 손을 붙잡는다. 아무렇게나 넘어져 있는 식탁의 자를 발로 대충 밀어내고 엄마의 허벅지를 끌어안고 울고 있다. 보는 사람도 없는

데 보란 듯, 봐달라는 듯이

올다가, 별떡, 아이는 일어나 엄마를 들어 올려 보려고 끽끽댄다. 어찌면 엄마를 살릴 수도 있다는 막연한 믿음으로 넘어져 있던 의자를 다시 세우려는데 끄어 끄어 호흡과 몸짓이 맞지 않는다. 겨우 세운 의자에 다리를 받쳐주어도 엄마의 무릎은 맥없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엄마의 무릎을 붙잡고 숨을 고른다. 아이는, 기도하듯, 엄마를 찬찬히, 올려다본다. 엄마의 무릎, 엄마의 손, 엄마의 어깨, 엄마의 목, 엄마의 목을 조이고 있는 내 분홍색 털실,

끊어질 듯 팽팽한 분홍. 늘어진 엄마는 지그시 아이의 눈을, 아이의 눈동자를 보고 있다. 살아있는 엄마의 어느 때처럼. 아이는 점점 호흡이 가라앉고 울음이 멎는다. 아이는 조용히 그대로 주저앉는다. 무릎이 닳은 엄마와 아이가 화장실 안 각자의 자리에 별처럼 박혀있다.

\*아아\*

그녀가 받으려는 순간에 전화는 또 끊겼지만 라디오에서는 다시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왠지 자신이 박철수를 살려준 것 같았다. 아무 상관도 없는 남자를 살려준 그녀는 적당한 뿌듯함과 적당한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박철수를 살린 일로 인해 스스로에게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해운 질문을 또다시 되풀이해야 했다.

더 살 수 있었던 엄마를. 내가? 혹은 더 살고 싶었던 엄마가 나 때문에?

그런 생각이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대답할 틈도 없이 날아들었다. 물 끓듯이 반짝이는 머릿속에서 분홍색 털실이 거품처럼 떠올랐다. 발버둥 치듯. 그녀가 가진 유일한 방패인 그 대답은 뜨거운 그녀의 바닥에 닿으면 차라락, 거품을 일으키며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녀는 사력을 다해 변명하고 싶었다.

팽팽하게 당겨져 원래보다 많이 가늘어져 있었던 털실로, 여러 차례 감아서 색

같은 진해져 있었던 그것으로. 변명하고 싶었다.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내민 희망에, 하필 거기에, 하필이면 거기에 목을 맨 것은 확실히 잔인한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잔인한 건 엄마가 먼저였다고.

\*아아\*

아원 노바리... 노바리 벗 쉼  
아원 노바리 노바리 벗... 쉼

창 밖에서 읊조리는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축축하게 밀려 들어와 방바닥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 불안한 듯 증얼증얼, 어느새 무릎까지 찰랑찰랑 차오른 축축한 목소리의 주인은 취기가 한껏 오른 중년의 남자였다.

난 딴 사람은 싫어 니가 아니면 싫어  
아원... 노바레 노바레 노바레 노바레...

전봇대에 가슴께만 기댄 채, 고개를 들어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쳐다보는 기이한 자세로 남자는 소변을 보고 있었다. 위태로운 카타르시스. 그는 깊은 숨을 후우 하늘을 향해 내뿔으며 노래를 겨우 이어갔다. 부르르 몸을 떨고 있는 남자를 보는 그녀의 손도 덩달아 떨렸다. 얼마 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을까. 노래가 끝날 때쯤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액체가 방안을 가득 채웠고, 그녀는 무언가에 흘린 듯 떨리는 손으로 방 안에 찬 물을 빼기 위해 마개를 뽑았다. 아니 그녀는 편지 봉투를 뜯었다. 눈을 세계 감고 애써 귀를 닫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장면과 더 또렷해지는 소리, 그녀에게는 그 편지가 그랬다. 읽지 않고 넣어둔 그 십 칠년 동안 편지 내용에 대한 막연한 추측은 또렷한 확신으로 변해 그녀의 기억을 압도했다.

그녀는 한 쪽 손끝으로 책상을 짚고 선 채로 읽어 내려갔다. 분명 세상에 대한 분노 혹은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시작해서 죽음의 이유와 당위가 이어지고, 미안함과 한탄으로 마무리될 편지를.

진이 보아라.

엄마가 우리진이 지켜주지 모타고 떠나서 정말로 미안해

엄마 원망해도 엄마는 할 마리 업서

밥 잘안쳐서 먹고 항상 불조심하고 공부열시미 하거라.

우리 진이는 말 안해도 아라서 잘하니까.

웃은 자주자주 빠라서 이버라... 엄마 업다 소리 안 드또록 하고.

나가서 행실 반드시 하고.

텔레비 밑에 돈삼십만원 일단 낫뒤쓰니까 당장 피료한거 사쓰도록 해라.

돈은 항상 아껴쓰고. 만이 주지도 못하고 이런 말해서 안되따마는

엄마가 만이 못주고 가서 마음이 아퍼다.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생의 마지막 편지. 최소한의 맞춤법도 무참히 어긴 그 편지는, 그녀가 십 칠년을 쌓아온 견고한 두려움을 무시했고 마지막 유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까지도 보기 좋게 어겼다. 그녀는 그저 두 여자를 떠올릴 뿐이었다. 항상 뭔가를 적어야할 땐 어린 아이에게 불러줄 테니 받아 적어달라던 엄마와 우쭐하며 또록또록 글자를 쓰던 아이를 어렵듯이.

\*이야\*

*음악산책, 일요일 2부 순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음악동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사연 쓰는 곳이 있으니깐요, 나의 어린 시절도 좋구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마*

구마구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radiohead의 'street spirit' 띄워드릴게요. 지금  
까지 박철수였습니다.

박철수의 마지막 인사를 들으며 그녀는 방바닥에 그대로 누웠다. 마개를 뽑은  
지 한참 되었는데도 반응이 없더니, 뜨거운 액체로 차올랐던 방은 이제야 조금씩  
물이 빠질 기미가 보였다. 그녀가 누운 자리를 중심으로 서서히 물기둥이 서고 반  
시계 방향으로 회오리가 일기 시작했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누운 그녀는 이상스  
러운 평화를 느꼈다. 그제야 열어본 휴대폰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가 두 통 있었다. 밤늦은 시간에 두 통이나 걸려온 전화라면 급한 일일지도 몰랐  
다. 그녀는 걸려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낮선 누군가의 통화연결음이 그녀의 귓속으로 구겨져 들어가다가 한 마디가 그  
녀의 달팽이관 어느 곳에 박혔다. 순간 그녀가 균형을 잃고 어쩔하는 바람에 방을  
휘감는 회오리의 눈에서 벗어나 버렸다. 강한 원심력에 그녀의 몸은 방안의 책상,  
침대, 수첩, 편지와 함께 벽으로 바짝 밀려 붙었다.

라디오만이 회오리의 눈에서 균형을 잡고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꽤나 무시무  
시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무엇이 빠져나간 그녀의 방 안,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널지 못한 빨래처럼 벽면에 붙어 서로를 비틀어 쥐고 있었다. 비틀린 채  
누워있는 그녀는 웃고 있었다. 방안에 뜨거운 액체가 차오를 때 느꼈던 기분 좋은  
나른함, 그 액체 속에서 조금씩 익어가던 그녀의 덩어리진 뇌, 비로소 휘휘 풀려  
나가는 라면처럼, 이제야 완성된 그녀의 웃음이 차라락 거품처럼 비쳤다가 곧 사  
라졌다. 내일은 밀린 빨래를 할 수 있을까.

# 동상



전)서울지방고정청  
김 창 구



## 수상소감

조건 없는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여 절망을 헤쳐 나가게 합니다.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하여도 말입니다.

서로 믿고 사랑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 조금은 긴 이야기를 제한된 매수에 옮기느라 좀 허덕였습니다. 마음껏 펼쳐 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글 쓸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해와 편견, 애증이 봄날 진달래처럼 사랑으로 피어올라 아집의 질곡에서 벗어나 오월의 푸름처럼 무한한 사랑으로 승화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뵙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갈림길

그날 나는 출근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사형집행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동안 우리 여자사동에는 사형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언제 집행되었는지도 모르고 지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형 집행은 그냥 모른 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담당하는 사동에 오영란이란 젊디젊은 여자사형수가 한명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오영란은 존속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되어 그 사형집행이 그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죄 없음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누구보다 그녀의 사형집행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영어의 몸으로 감옥에서 낳은 한 어린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생명을 두고 죄 없이 이성을 하직해야만 하는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사형보다도 더 큰 괴로움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형에 이르는 비극의 단초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아이를 출산하지 못 한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갈망하던 어린 아이를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두고 살인자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제 사형장으로 가야합니다.

이제 나는 출근하면 그녀의 감방 문을 열어야 할 것이고 그녀가 그 감방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이별의 문, 죽음의 문을 내 손으로 열어야 한다는 것이 나는 싫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출근하기 싫은 날이었습니다.

내가 여자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은 형벌이 매우 엄격하고 준엄하게 선고되고 집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살인행위는 가차 없이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연 교정행정도 매우 딱딱하게 굳어있어서 개선시켜 사회에 복귀시키고자하는 교육형보다는 위하적인 응보형에 많이 치우치는 편이었습니다.

그 해 봄 나는 민원실 근무에서 여자사동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사동 근무지로 들어서자 재소자들이 새 담당을 시험이라도 하려는지 온갖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소란스러웠습니다.

나는 가급적이면 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려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오전 내내 거친 재소자들과 씨름하느라 나는 파김치가 다 되어갔습니다.

분주한 오전시간이 지나자 어느덧 햇살이 창 너머로 빗기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선가 라일락 향내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여자사동 뜰 한구석을 지키고 서있던 라일락이 꽃망울을 터뜨려 봄을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봄이 온 것도 모르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방담당 직원이 전입자 한 사람을 데리고 사동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윤곽이 뚜렷한 아주 예쁘게 생긴 미인이었는데 며칠을 굶었는지 안색이 몹시 초췌해 보였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어딘지 모르게 기혼여성다운 풍모였습니다.

신입담당직원이 들릴 듯 말듯 작은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요시찰이에요. 특별히 잘 관찰하라는 계장님의 지엄하신 분부입니다.”

장난스런 웃음기와 함께 신입직원은수용자 밥그릇과 빨간 표찰을 남겨놓고는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빨간 표찰은 사형수 표시였습니다.

나는 가냘프게만 보이는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사형수인가 궁금하여 표찰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명이 존속살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오영란.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전방 온 사형수였습니다.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사람처럼 핏기 없는 파리한 얼굴이 몹시 굳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꽤나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일 것만 같은 여인네가 살인범이라니...’

나는 궁금하여 그녀의 신분장을 찾아보았습니다.

범죄내용은 간단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을 강요하여 독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문제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선 뜻 수공이 가지 않았지만 ‘오 즉 시집살이가 심했으면 하는 일말의 동정심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박이 심한 시집살이기로 이혼요구에 살인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할 만큼 학대가 심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혼이 죽기보다 싫어서 그랬을까...?’

나는 살인의 동기로는 너무나 단순 하다 싶어 기록을 더 뒤적거려 보았지만 별로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자 시어머니의 이혼 강요가 있었다’ 는 기록으로 보아 영란이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처지에서 온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담당사동의 저녁배식을 끝내고 수용자들의 취식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영란이 갑자기 배를 틀어쥐며 복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나는 식중독인가 싶어 급히 의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영란을 진찰하던 당직 의무관이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식중독인가요?”

“식중독은 아니고…무얼 급하게 먹었나… 체기가 좀 있네요…”

의무관은 복통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는 듯 연신 청진기를 갖다 대었습니다.

“태아에게는 이상이 없는 것 같고…”

“태아라니요?”

“임신 중이잖습니까? 모르셨나요?”

의무관의 말에 영란과 나는 동시에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나의 놀람에 비해 영란의 눈이 의외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임신이라면…. 얼마나 되었나요?”

“적어도 두 달은 넘은 것 같은데요.”

두 달이 넘었다면 감옥에 오기 전에 이미 임신하였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도록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의심어린 눈으로 의무관을 채근하였습니다.

“간혹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나 공포증이 있으면 태아가 자궁 깊숙한 곳으로 숨어 자라서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임신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원하여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출산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무관은 영란에게 유산이 안 되도록 각별히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체기를 가라앉히는 약을 처방하여 주었습니다.

영란은 눈물을 훔쳐내며 의무실을 나섰습니다. 임신에 대한 감회가 남달랐는지 며칠을 두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고아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포대기에 싸여 어느 성당 수녀원 앞에 놓여있는 것을 수녀님들이 데려다가 그곳 보육원에서 양육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 까지 마친 영란은 수녀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녀가 되어 봉사 활동하기에는 간호사가 적격일 것 같아 수녀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간 간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영란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자제품 공장에 조립공으로 취직하였습니다

공장 장기자랑 행사가 있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평소 영란의 기타 튕기는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영란을 무대 위로 떠밀었습니다.

영란이 주저하였으나 그녀의 천상의 목소리는 전 공장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한때 성악가가 꿈이었던 영란이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자 관중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중에 남상철도 있었습니다.

남상철은 이 공장 소유주의 외동아들이었는데 그와 영란의 간절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지면상 펼치지 못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란이 대학 졸업 무렵 남상철은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영란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남회장의 대저택에 이르러서야 영란은 비로소 남상철이 남창그룹 회장의 외동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아들의 혼처를 정해놓고 있던 회장부부가 영란을 받아 줄 리 없었습니다.

더구나 영란이 고아인 것을 알고는 더욱 영란을 배척하였습니다.

영란은 이때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고아임을 실감하였습니다.

“가난한 청년이라면 좋았을 것을…”

영란은 자신이 이 집안과 혼인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헤어진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본래 내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영란은 남상철에게 결별선언을 하였습니다.

영란의 결별선언은 남상철에게는 절망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외동아들이라 그만큼 부모의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절제된 사랑이었습니다. 영란과의 자유로운 사랑에 빠져들며 부모의 엄격함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게 영란은 마음의 고향처럼 포근함 이요 그리움이었습니다. 영란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먹는 것, 입는 것, 회사일이고 세상사 모든 것이 다 귀찮아졌습니다.

노 회장이 “잘난 여자가 싸고 썩데 하필이면 왜 그런 여자에게 목을 매냐?” 며 못난 놈 이라고 질책하였지만 남상철의 상사병은 깊어만 가 폐인이 다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믿고 있던 노 회장 부부는 하나뿐인 아들이 다 죽어 가자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란의 결혼을 허락한 노회장 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손자가 태어나 자신들의 허망함을 달래어 주기를 기대 하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이 손자에 대한 기대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어지간히 흘러 기다릴 만큼 기다렸음에도 영란에게 임신의 조

짐이 보이지 않자 노회장 부부는 마침내 아들 내외에게 이혼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아들을 이혼시키고 다른 여자를 들여서라도 손자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만 큼 노회장 부부는 늙어지는 손자에 대해 초조해 하였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노회장이 손자 기다림이 지쳤는지 화병이 도져 그만 뇌 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노회장이 화병으로 죽자 영란에 대한 시어머니 한윤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영란을 시아버지를 잡아먹은 며느리라 생각 하여 그 미움이 더하였습니다.

자연 영란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임으로 인한 것임을 아는 영란으로서 남편에게 이혼이 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좀 더 아이를 기다려 보자고 하였으나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는 영란으로서 자신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 한윤희는 영란을 아예 수태를 못하는 여자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아들이 이혼하기를 바랐습니다.

새로 회장이 된 남상철이 아이가 없어 곧 이혼 할 것이라는 소문이 회사에 짝 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새로 젊은 회장이 된 남상철이 과연 이혼할까 궁금 해 하며 흥미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남상철 회장 비서실에 몸매가 아주 늘씬한 새 여비서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여인은 고혹적인 눈매에 붉고 도톰한 입술이 꽤나 선정적이어서 그 요염한 자태가 가히 못 사내들을 흘릴 만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남창그룹 재정담당 이사 변이봉의 내연녀 채옥이었습니다.

채옥은 경리부에 있으면서 남상철 회장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변이봉과 공모하여 회사공금을 횡령하여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덜컥 원치 않던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변이봉은 유부남이고 채옥은 아직 미혼의 처지라 이들은 불륜의 씨앗인 아이를 낙태 할 궁리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한참 아이를 유산시킬 병원을 물색하고 있는 중에 남상철회장이 아이가 없어 그 부인과 이혼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문은 채옥과 변이봉으로 하여금 파렴치한 발상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채옥이 임신한 아이를 회장아이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회장을 유혹할 기회가 있어야 하였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회장 여비서 자리가 하나 비어있어 변이봉은 옳다구나 하고 채옥의 자리를 비서실로 옮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아내와 이혼하라는 모친의 성화가 남상철의 귀가시간을 늦추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진 남상철은 없는 술자리까지 만들어 가며 술집을 찾아 들었습니다.

채옥은 이런 남상철의 뒤를 밟으며 그를 호텔로 유인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임신한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계획을 성사시켜야 하겠기에 초조하였습니다.

기회는 노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봅니다.

그날도 남상철이 찾아든 술집 골목어귀에는 변함없이 밤이 이슬하여 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취객들이 떠난 술집골목에 인사불성으로 만취된 남상철이 정신없이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채옥의 눈빛이 번쩍이더니 마치 매가 먹잇감을 채어가듯 남상철을 이끌고는 순식간에 골목길을 벗어나 호텔로 직행하였습니다.

호텔은 채옥이 남상철의 코뚜레를 뚫는데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으스스한 밤에 내리는 가랑비가 객실 유리창에 부딪치며 채옥의 알몸을 훑쳐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묘한 웃음기를 머금고 채옥이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던 남상철이 회장실로 들어서며 채옥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남상철 앞에 다가선 채옥은 애써 부끄럽다는 듯이 내숭을 떨며 무슨 말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었습니다.

“임신이라고…?”

남상철의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채옥이 임신통보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남상철이 몹시 당혹스러워 하며 입술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몇 번인가 끌리는 대로 채옥이와 호텔을 들락거린 것이 후회되었으나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애를 지우겠습니다.”

남상철이 침묵하자 채옥이 남상철의 입장을 지르며 험박조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오! 그것은 안 될 말이오!”

남회장의 기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채옥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채옥은 남상철이 집을 한 채 마련해 주었음에도 굳이 회장 집으로 들어가 애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본댁이 아니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말입니다.

남상철은 일이 어그러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채옥을 집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

습니다. 아내인 영란에게는 “아이를 낳으면 당신에게 키우게 하고 저 여자는 내 보내겠소.” 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영란은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안에 평화가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채옥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손자가 태어난다면 시어머니의 성화와 구박이 한결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채옥이 남상철의 집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 한윤희가 누구보다도 좋아하였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기대가 큰 만큼 채옥의 배가 불러오면 올수록 며느리 영란이란 존재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란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므로 시어머니의 마음이 풀린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를 자신이 키우도록 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로 인해 시어머니의 학대가 좀 누그러진 것이 무엇보다도 기뻐했습니다.

한윤희는 손주가 생긴다는 마음에서였는지 한동안 영란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미안한 마음에서였는지는 영란의 곁을 지켜주며 은근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어날 아이덕분에 모처럼 시어머니의 화살에서 벗어난 영란은 의외로 평화로운 시간을 맞이하며 마음이 한결 안정되어갔습니다.

모친의 성화에서 벗어나기는 남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전보다 더욱 진한 애정으로 영란을 대하였습니다. 태어날 손주에게 정신이 팔린 한윤희의 영란에 대한 무관심이 이들 부부로 하여금 마음껏 사랑을 나누게 하였던 것입니다.

영란에게 임신에 대한 강박증은 사라지고 시어머니의 관심 밖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저 행복하기만 하였습니다.

전에 없던 행복감은 영란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였고 이런 마음의 안정 덕분

이었는지 영란에게 태기가 일었습니다. 그러나 영란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채옥이 그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채옥은 남상철에게 이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겠노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영란을 쫓아내지 않고는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상철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란에 대한 그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 할 채옥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자에 인달이 난 한윤희를 충동하여 영란을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채옥의 낙태하겠다는 협박이 계속되는데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아들의 고집이 계속되자 한윤희는 영란을 몰아세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이혼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 이 집안의 후대를 잇게 할 것이다.' 며 아들과 헤어지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래도 영란이 좀처럼 이혼할 기색이 보이지 않자 채옥은 초조해졌습니다.

정이나 영란이 이 집을 나가지 않는다면 아예 없애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모친의 이혼 성화에 남편이 몹시 힘들어 하자 영란은 집안이 다시 어두워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이혼하므로 집안이 평화로워 진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곧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었기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이혼만 생각하면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이 이혼의 강박증이 영란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떨려 정신과 병원에 가 보았지만 병원의 처방이 그녀의 우울증을 돌이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채옥이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란의 우울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없다면 모든 것이 잘 해결 될 것만 같은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영란은 어느 덧 자살용 약물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독극물 청산가리가 영란의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얀 알갱이들이 그녀의 손 안에 들어 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게 반짝이었습니다.

이 하얀 물체를 물에 희석시켜 마시면 자신을 미워하던 시어머니도 사랑하는 남편도 모두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 우수가 다가오고 있었으나 아직도 냉랭한 칼바람이 창틈을 비집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윤희가 채옥의 무슨 채근이라도 있었는지 식식거리며 영란의 방으로 들어서서 옷장을 열어 제치고는 옷가지를 밖으로 내 팽개치며 ‘당장 짐 싸 들고 나가라’ 고함치며 악다구니를 퍼부어대었습니다.

흩어진 옷더미 속에 망연자실 서있는 영란을 보고는 더욱 울화를 터뜨리며 ‘당장 나가지 않으면 이방에 불질러버리겠다’ 며 악에 바쳐 소리소리 질러대었습니다.

갇은 악다구니를 퍼붓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영란을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흩어진 옷가지를 영란에게 내 던지고는 흥분한 발길을 곧장 대문 밖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한윤희의 붉은 머플러가 마치 죽음의 깃발처럼 그녀의 목덜미에서 춤을 추듯 너풀거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슬픔이 영란으로 하여금 독극물 상자를 열도록 하였습니다. 하얀 약물봉지가 떨어지는 그녀의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간 살아온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만나 그를 사랑하므로 행복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약봉지를 들고 주방으로 나온 영란은 하얀 유리잔에 물을 가득 채워 약물을

털어 넣었습니다.

죽음의 하얀 백색 가루가 유리잔 속으로 빠져들며 순식간에 녹아듭니다.

투명함으로 정체를 숨긴 한 잔의 물이 마치 유령처럼 죽음의 파리를 틀었습니다.

영란은 죽음의 잔을 움켜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잔속의 물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독배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잔을 입에 갖다 대는 순간 갑작이 헛구역질이 나와 그녀의 음독을 방해하였습니다. 억지로 참으며 다시 마시려 하였으나 헛구역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헛구역질은 임신으로 인한 입 텃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불임여성으로 단정한 그녀로서는 임신이란 상상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한동안 구역질이 멈추기를 기다려 보았지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컵속의 물은 떨던 그녀의 손안을 벗어나 주방바닥에 거의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영란은 헛구역질로 경황이 없어 그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토하려 마시려던 물 컵을 식탁위에 올려놓고 정신없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채옥은 내연 남 변이봉과 함께 영란을 독살 할 모의를 하고 독극물 청산가리를 준비해 놓고는 호시탐탐 영란이 마실 물 컵에 약물을 쏟아 부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영란이 음독으로 죽으면 우울증으로 인한 음독자살로 위장할 셈이었습니다.

채물에 눈이 먼 사악한 인간이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람을 죽일 시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옥이 노리는 그런 절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윤희는 영란을 몰아세우고는 밖으로 사라져 버렸고 가정부 배금

심은 시장 간다고 집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오직 영란과 자신뿐입니다.

이제 영란이 마실 물 컵에 독극물을 쏟아 붓기만 하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방을 은밀히 살피던 채옥은 영란이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들어가자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영란이 올려놓은 물 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흰 장갑을 낀 채옥의 손이 바빠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거의 바닥이 난 물 컵을 쏟아버리고 새물을 받아 독극물 봉지를 뜯어 물 컵에 쏟아 부었습니다.

청산가리 입자가 유리잔 속에서 하얀 포말을 그리며 춤을 추듯 녹아내렸습니다.

투명하게 녹아 낸 청산가리는 그 투명함으로 죽음의 정체를 감추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었는지 끝내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독극물을 다 쏟아 붓고 회심의 미소를 머금던 채옥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채옥의 이런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시장 보러 나간 줄 알았던 가정부 배금심이 채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채옥이 “시장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며 애써 태연하려 하였지만 그 당황스러움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갑을 놓고 가세요... 그런데 무슨 약을 그리 타놓으우?”

배금심은 이 여자가 ‘아이를 지우려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쉽게 아이를 포기 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빙자로 영란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것쯤은 배금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로 채옥이 설마 영란을

죽이려고 독약을 탄 것이라고는 상상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채옥이 너무 놀라는 것이 이는 분명 보통 약물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채옥은 배금심에게 자신의 범행이 다 탄로 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영란이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서둘러 배금심을 끌고 나왔습니다.

배금심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 온 채옥은 거액의 돈뭉치를 배금심의 손안에 쥐어주며 방금 전에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배금심은 의외의 횡재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돈뭉치를 보고는 누가 무슨 일을 저지르던 자신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저 돈이면 좋았고, 채옥이 시키는 대로 시장에 가서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사먹으며 한참을 시간을 때우고 돌아오면 그만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영란이 계속되는 헛구역질에 화장실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시어머니 한윤희가 외출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당뇨로 갈증에 시달리던 한윤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주방으로 들어서서는 마침 식탁위에 놓여 있는 물 컵을 들어 단숨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물 한잔으로 갈증을 드리우나 싶던 한윤희가 잠시 숨을 고르다가 싶더니 주방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만 주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영란이 헛구역질이 좀 진정되어 화장실을 나와 주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한윤희가 식탁 옆에 쓰러진지 한참 후였습니다. 영란이 소스라치게 놀라 흔들어 보았으나 이미 의식불명이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식탁 위를 바라보니 약물을 타 놓 유리잔은 이미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영란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시어머니의 생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윤희의 죽음은 누구보다도 영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죽으려던 자신은 죽지 않고 시어머니만 돌아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에 살아있는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영란은 다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약물을 타마시고 한시바삐 세상을 뜨고자 하였습니다.

영란이 재차 자살을 결심하고 허겁지겁 집에 도착 하였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영란을 살인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독배에서 감식 된 영란의 지문은 영란을 살인범으로 단정 짓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란이 음독자살하려고 하였을 뿐 누구 독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수사관들은 영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영란이 독극물을 탔고 그것을 한윤희가 마시고 죽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결국 영란의 음독자살용 독배가 살인도구로 변하여 영란에게 캄캄한 절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영란이 절망에 빠져 곤혹스러운 중에 남편 남상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남편이 반가웠습니다. 적어도 남편만큼은 자신을 믿어 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원망이 가득 찬 핏발서린 눈으로 영란을 쏘아보았습니다.

“가증스런 살인자! 어머니를 죽이다니!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한때나마 당신을 사랑한 내 눈을 도려내고 싶소!”

그토록 믿었던 남편의 말이 싸늘한 비수가 되어 영란의 가슴에 내리 꽂혔습니다.

영란은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살인범 이라는데 판사들 이야 오직하랴 싶었습니다. 그가 살인범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살인범이 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기왕 죽으려던 몸이 아니었던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싸늘하게 돌아서는 남편은 이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영란의 말을 조금이라도 믿어주었다라면 영란은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는 조금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원하는 대로 살인자가 되어 주는 것이야.”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영란 스스로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행심리는 영란의 절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는 표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영란은 1심에서 스스로 원하던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영란은 자신의 임신을 알고서야 항소심에서 비로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독극물은 자신이 음독자살하려고 타 놓은 것이지 결코 타인을 살해하려고 타 놓은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토증세로 독배를 마시지 못한 것이라는 영란의 주장은 변명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인명을 살상하는 위험한 독극물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식탁위에 놓아두었다는 것은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독살할 의사가 없었다면 마땅히 다른 곳으로 치우든가 버렸어야 하였다는 논리였습니다.

영란에게는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거나 증명할 만한 단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토로 인한 갑작스러움이 이것저것 생각 없이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기 마련인 인간의 나약한 의지를 경찰이나 검찰이나 재판부나 누구 한사람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하다 싶은 증거 앞에 그 허점을 찾아내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공인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우리는 참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처지가 아니면 남의 억울함은 그리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이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의 타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항소심 또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가 오영란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진실이 묻히고 이로 인해 한 생명이 억울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한 생명을 키워나가야 할 엄마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어찌되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한결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창틀을 파고 들어 왔습니다.

여사 뜨락 한구석을 차지한 애기단풍의 잎새가 붉어지는 것으로 보아 어느덧 가을이었습니다.

오전 점검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영란이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출산의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의무관의 신속한 조치로 영란은 곧 바로 외부 산부인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영란을 실은 구급차가 교도소 정문을 빠져 나가자 희뿌옇게 덮혔던 구름이 걷히고 붉은 햇살이 온 사동 창살에 뽀혔습니다.

나는 웬지 모르게 영란이 남자 아이를 낳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영란은 아들을 순산하였습니다.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영란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츰 자라나는 아기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아무 근심걱정도 없어 보이는 것이 더없이 행복하게만 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 난지 6개월 쯤 되었을 때 영란의 최종판결인 상고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영란의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은 어렵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을지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나의 가슴이 다 타들어 가는데 영란의 심정이야 오 즉 하랴 싶었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영란에게는 아이가 자란다는 기쁨보다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이 더 두려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 해도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영란은 깨끗하게 잘 견뎌내었습니다.

아기가 점점 커가자 나는 영란에게 아이를 생부에게 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영란은 자신을 살인자라 한 인간에게는 절대로 아이를 줄 수 없다며 펄펄 뛰었습니다. 그야말로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증오심이 아이의 생부에 대한 비밀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습니다.

18개월의 대동유아기간이 지나자 영란의 아이는 구청을 통하여 아동보호기

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나는 휴가를 내어 엄마처럼 아이의 뒤를 따라다니며 절차를 지켜보다가 누구에게 빼앗길세라 먼저 입양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입양절차를 밟아버렸습니다.

자식이 없어 늘 허전해 하던 내가 영란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나는 아들의 이름을 민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여 이웃이 눈치라도 챌까 봐 아예 이사까지 하였습니다.

영란에게는 유복한 집안으로 입양이 되었으니 걱정 말라고 우선 돌려 댔지만 한미한 나의 형편에 아이를 맡은 것이 영란에게는 여간 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도 더한 정성과 사랑으로 민구를 키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복한 집안으로 입양시켰다고 영란을 속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영란에게 말할 것입니다. 영란도 나를 이해 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나에겐 민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후 영란이 감옥에서 맞이하는 시간들은 그야말로 피 말리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사형집행 명령이 떨어져 자신의 생명이 다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을까, 염려하던 시간들이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외부청소부 출역 수행자들에게 사형장 청소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끝이 안보일정도로 길고 육중하게 둘러쳐져 있는 교도소 주벽 담장은 허영계 칠해 놓은 회가루가 오래되어 희뿌옇게 바랜 채 끝도 보이지 않게 뱀의 꼬리처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주벽 밑 중간쯤 약간의 둔덕에 사형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목조건물입니다.

시커멓게 방부제가 칠해진 판자 벽면이 더욱 음산해 보이는 이 사형장은 그 주변이 다시 사각의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어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형장을 에워싼 빨간 벽돌의 담장은 회칠이 벗겨져 퇴색된 벽면이 빨갱게 들어나 있는 곳에 담장이 넝쿨이 감싸 돌아 마치 구렁이가 감싸고 있는 것 같아 그 칙칙함이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약간의 둔덕에 자리 잡은 사형장 밑으로는 긴 길이 나 있어서 접견장과 병동 그리고 교무과 등을 오갔습니다.

이 길 중간쯤에 사형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더 나 있으니 삼거리 길이었습니다.

이 삼거리 길이야말로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접견이라거나 교무과 상담이라며 사형수를 연출 동행하던 집행관이 이 삼거리에서 멈춰서면 사형수들은 멈춰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형장 쪽으로 길을 돌리면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공포에 떨며 회한에 잠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형장으로 들어서는 담장 문 바로 옆에는 미루나무 한구루가 서 있습니다. 사형수들이 저승으로 가는 문턱에서 이 나무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였다하여 통곡의 나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통곡도 있었겠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사람들의 한스런 통곡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조국 독립운동을 하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이 나무를 부여잡고 나라 잃은 한이 북받쳐 통곡하던 통곡의 나무였습니다.

자유, 평등, 평화, 인권,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외치던 정치인, 언론인, 학생 운동가들이 독재정권에 항거하다가 간첩 등의 석연치 않은 죄명으로 교수형을 당

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사형장은 교수집행을 위한 개폐식 마루판 위에 사각 나무의자가 하나 있고 그 위 천장에는 올라미가 매여 있는 교수 줄이 걸려 있습니다. 가림 판 뒤쪽에는 사형수가 앉아있는 의자 밑의 마루판을 밑으로 내리는 레버장치가 있습니다.

사형수를 나무의자에 앉히면 흰 광목 보자기로 얼굴을 씩읍니다. 그리고 올라미 매듭의 교수 줄을 사형수 목에 걸고 레버를 제키면 사형장바닥 마루판이 열리면서 교수 줄에 목에 걸린 사형수의 몸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초임시절 안내직원으로부터 이 설명을 듣고 무서워서 그 근처는 얼씬거리지도 못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나오는 그 무서운 곳에 이제 오염란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형집행일에 사형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방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이 곧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문을 열어 죽음의 길로 나가게 하는 일은 정말 싫은 일이었습니다.

사형집행일, 나는 이제 출근하면 영란의 방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날은 정말 출근하기 싫은 날이었습니다.

사형집행일의 교도소는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 산만하기 짝이 없던 꼴통들도 그날만큼은 숙연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날의 여자사동 또한 누구하나 입을 열어 병긋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새 한잠도 못 이룬 듯 영란의 눈이 푸석푸석 부어있었습니다.

나는 아들 민구의 사진을 꺼내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는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로 키우고 있었어…미안해… 상의도 없이… 하지만 잘 키울 터이니 용서해 줘요.”

나의 말에 영란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언니께서 그 애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영란이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삼키며 꺼억꺼억 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키울 거야.”

나의 다짐에 영란이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기쁜 낯으로 말하였습니다.

“… 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영란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는지 꺼져가던 눈빛이 초롱초롱 해 지며 아이의 사진을 연상 바라보며 가슴에 품기를 거듭하였습니다.

“벌써 이렇게 자라다니…이름을 무어라 하였어요?”

“민구.”

“민구…민구…”

영란은 들릴 듯 말듯 아들의 이름을 되 뇌이고 또 되뇌었습니다.

취 죽은 듯이 고요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죽을 사람들이나 앞으로 살아 갈 사람들에게나 참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은 지루한 시간들이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영란은 잡다한 세상사 모두를 정리하려는 듯 육신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거짓으로 오염된 이 세상에 한 치의 티끌도 안 남기겠다는 의식 같기도 하였 습니다.

이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할 일이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집행관들은 좀처럼 여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지나 갔으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처럼 처절

한 고통의 시간이 오전 내내 계속 될 뿐만 아니라 오후 늦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집행할 사형수들이 많기로 기다리는 고통을 생각하면 하루해는 정말 더없이 지루하고 더디게만 갑니다.

해가 서산마루에 치달도록 사형집행관들은 여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행사는 이쯤에서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영란은 적어도 한해는 더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서 해가 저물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서쪽창살에 걸려있던 햇살이 사라지자 수용자들이 오늘 행사는 이제 끝난 것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영란도 오늘 집행은 여기서 끝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에 너무나 지쳤는지 며칠째 뜬눈으로 설쳐 댄 잠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수마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서산으로 기우는 해님이 어찌면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낼지도 모른다는 새털 같은 기대와 희망이 그녀를 안심시키며 밀린 잠을 부추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햇살은 응달의 감방의 창가에서만 사라졌을 뿐 아직도 서산마루에 걸려 그 붉은빛을 더 강렬하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영란의 꿀잠을 방해라도 하듯이 집행관들이 우르르 사동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형집행은 이쯤이면 끝났다 싶어 한가롭게 사동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던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후다닥 일어나다가 그만 의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첩퍼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행관들이 시간이 촉박한 듯 급히 영란의 방 앞에 이르러 소리쳤습니다.

“교무과 상담이요. 속히 준비하고 나오시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영란이 눈을 살포시 떴습니다. 아직도 꿈속인양 몽롱한 상

태였습니다. 꿈인지 생시 인지 분간 못하는 중에 연거푸 들리는 세찬 목소리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촉하는 소리가 꿈이 아님을 깨달은 영란은 화들짝 놀라 튀기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초점을 잃은 영란의 멍한 눈이 아직도 꿈속인양 허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듭 재촉하는 집행관들의 목소리에 영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릴 듯 말듯 하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옷 좀 갈아입고요.”

영란은 몸을 씻기 시작하였습니다. 집행관들이 재촉하였지만 그녀는 몸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깨끗한 욕신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고픈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하였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엔 아직 너무나 젊디젊은 나이였습니다.

씻기를 마친 영란은 한번 갈아입은 속옷을 갈아입고 또 갈아입기를 거듭하였습니다. 옷을 걸치는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 듯 떨려와 몸과 옷이 한꺼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자 그녀는 온힘을 다하여 마지막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가 선 뜻 죽음을 못 맞이하는 것은 어찌면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못 잊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증오심을 말끔히 버리지 못하고 떠난다는 회한이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였을 것입니다.

죽음이 목전에 와있는 처절한 순간에 속 옷 몇 번 갈아입는다고 죽음을 모면할 수는 없는 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절박한 순간에 우리 나약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영란이 옷 갈아입는 것을 마친 듯 집행관이 내게 영란의 방문을 열라하였습

니다.

나는 영란의 방 쪽으로 가려하였으나 다리가 후들거려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거실 문 키를 움켜 쥔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동행집행관이 답답하였는지 내게 다가와 사방키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거실 문이 ‘첼컥’ 열렸습니다. 그것은 천둥소리보다 더 큰 소리였습니다.

집행관들에게 인도되어 나오는 영란은 이미 낮이 나간 듯 육신이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애써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여전히 다리가 후들거려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똑똑 떨어뜨리고 있는 나를 오히려 영란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왈각 쏟아내었습니다.

영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렇그렁한 눈물에 맺혀 들려 왔습니다.

“인정 많으신 언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말을 끝으로 영란은 영영 내 곁을 떠났습니다.

영란이 처형되어 우리 곁을 떠난 후 나는 아들 민구를 키우므로 그 허망함을 달래었습니다.

민구는 건강하고 심성 곧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은 그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 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구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가 법대를 가기를 희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민구는 내 희망대로 흔쾌히 법대에 가 주었습니다.

이웃사람들과 직장동료들은 내가 벌써 판검사 엄마라도 된 양 축하해 주어 내 어깨가 저절로 으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날이 왔습니다. 민구가 무난하게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민구가 사법연수원 교육을 마칠 무렵 나는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민구는 검사가 되어 서울지검 형사부로 발령받았습니다. 형사부는 좀 꺼려하는 부서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지방발령은 아니어서 여간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민구를 볼 때 마다 영란의 재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민구의 퇴근이 조금 빨라 나는 재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재심한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냐?”

“그럼요.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인데요.”

“억울함을 밝히는 방법으로는 재심밖에 없다고 하던데...”

“누구...억울한 분이라도 있으세요?”

“그냥 뭐...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야.”

“무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재심할 수 있어요.”

“확실한 증거...?”

“예, 진범이 잡히던지 아니면 유죄로 인정 된 증거가 조작되었다거나... 아무튼 법에 정해진 재심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나는 증거라는 말에 한숨을 내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죄를 증명할 길이 없다면 공연스레 영란의 일을 내색 하여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검찰청에 살인범을 신고한다며 한 여인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배금심이란 여인이었습니다.

이 배금심은 영란의 시어머니 한윤희가 채옥이 타놓은 독극물에 의해 독살 된

것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이 배금심에게 도박중독자 남편 한덕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박하다 돈이 떨어지기만 하면 배금심을 앞세워 채옥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채옥은 이미 막대한 돈을 주었음에도 끈임 없이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배금심 부부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내연 남 변이봉과 함께 회사공금을 횡령하여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러 들통이 날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배금심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들은 당장이라도 채옥의 범죄행위를 고발할 것이었습니다.

채옥과 변이봉은 자신들이 살려면 이제는 배금심 부부를 죽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둠이 깃든 한적한 변두리 길에 배금심이 술에 취한 남편 한덕배를 부축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트럭 한 대가 이들을 향해 돌진 하였습니다.

한덕배가 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배금심은 차 측면에 부딪치면서 개천으로 떨어져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개천으로 나가떨어지는 배금심의 눈에 채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살인사건의 담당검사는 민구였습니다.

배금심은 민구에게 채옥을 남편 한덕배의 살인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한운회 독살사건의 살인범은 오영란이 아니라 바로 채옥이었음을 고발하였습니다.

영란의 무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채옥이란 여인으로 인해 오영란이 죄 없이 사형 당하였음을 검사 민구가 인지하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영란이 자신의 생모라는 사실을 민구가 알 리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 뜨락에 내려찍는 봄별이 따뜻했는지 뜰 한쪽구석에서 추위를 견디던 진달래에 분홍빛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이 봉오리가 활짝 피면 영란의 제삿날이 돌아온다는 신호였습니다. 영란의 제삿날은 바로 영란이 사형당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활짝 핀 진달래꽃을 보고 영란이 한번 오라는 신호로 여겨 그녀의 묘소를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영란을 찾아가 볼 때가 오는 게지’ 하는 생각에 잠겨 있는데 민구가 오랜만에 일찍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웬일이냐. 이렇게 일찍 퇴근을 다하고…?”

“죄송해요 어머니. 그 동안 좀 바빴어요.”

“집에 온 걸 보니 살인범을 잡은 모양이구나.”

“예, 어머니.”

“그래. 생각보다 빨리 잡았구먼.”

“예, 신고자가 범인을 알고 있어서 빨리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

“그런데 어머니, 혹시 오영란이란 분 아세요?”

“오영란…?”

민구의 입에서 갑자기 오영란이란 이름이 나오자 나는 나도 모르게 긴장하였습니다. 어떤 오영란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생모에 대한 비밀을 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왠지 불안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사형수로 처형된 분인데요.”

“사형수?”

“예.”

오영란이 사형수였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면 이는 필시 민구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물어 본다 싶었습니다.

“사형선고 받고 수감되었던 때가 어머니께서 교도소 근무하실 무렵이더군요. 혹 기억나시나 해서 여쭙보는 거예요.”

내가 교도소 근무할 때라는 것까지 아는 것으로 보아 이는 분명 민구가 영란이 자신의 생모임을 알고 물어보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나는 언젠가는 민구에게 이 비밀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 하기도 전에 민구가 알아버린 것이라면 날 얼마나 원망할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멍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알게 될 일이이니 이제 알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기억나고말고…내가 담당하고 있었는데…그런데 오영란을 어찌 아니?”

나는 민구에게 용서를 구하듯 조심스럽게 물어 보았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다보니 그분이 범인이 아니란 것이 밝혀졌어요.”

“어떻게?”

나는 흥분하여 민구의 손을 덥석 잡아끌었습니다.

“진범을 잡았거든요.”

“진범?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무죄란 것을!”

마구 흥분하는 나를 민구가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까닭 없이 흥분한다 싶어 내가 이상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검사 민구의 청구로 재심이 개시되고 원심법원은 영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영란의 살인누명이 풀리는데 수 십 년이 걸렸습니다.

살인누명이 영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수사관들이 영란의 아니라는 말에 한번 만이라도 귀 기울여 주었더라면...  
검찰이 경찰의 초동수사의 미비점을 좀 더 자세히 살 펴 봐 주었더라면...  
법원이 피고인의 아니라는 말에 믿을만한 확고부동한 증거인지 그 증거의 증명성을 의심하고 한번쯤 피고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더라면... 영란은 그렇게 억울한 사법살인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채옥이 살인죄로 잡혀 들어가고 영란의 무죄가 밝혀지자 남상철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상철은 모친과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 낸 원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살아왔던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자식으로만 알고 키운 아들이 채옥과 변이봉의 자식이라니 그 충격이 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영란이 처형당하는 것을 모친의 복수로 여겨왔던 남상철은 결국 모친과 영란을 죽게 한 것은 자신이라는 자괴감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리도 간사스러운 것인지 영란에 대한 증오심은 간데없고 그녀에 대한 옛 사랑이 다시 그리워졌습니다.

자신을 사랑 한 영란을 믿지 못하고 모친을 죽인 살인범으로 치부해 왔으니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영란을 대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애증이란 백지장 한 장의 차이도 나지 않는 가 봅니다. 증오의 대상이었던 영란이 이제는 그리도 보고 싶어지니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 리 만무입니다.

이 세상에 피붙이가 단 한사람도 없다는 허전함이 남상철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영란의 무덤을 찾아가 백배사죄하고 그 앞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영란의 제삿날, 남상철이 영란의 묘지를 찾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제법 훈훈해진 봄바람이 드디어 뜰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진달래의 꽃망을  
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활짝 피어오른 붉은 꽃이 영란의 제삿날이 다가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삿날은 마침 일요일이었습니다. 나는 민구에게 산속의 진달래꽃이 보고 싶  
으니 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민구는 좀 쉬고 싶다며 미적거렸으나 나는 민구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포와  
술 한 병을 사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사형수들이 문혀있는 교도소 공동묘지를 향해 미적미적 발길을 옮기는 내 뒤  
를 민구가 아무 말 없이 따라와 주었습니다. 진달래 구경이 하필 교도소 공동묘  
지인지 궁금하였을 터인데도 말입니다.

나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영란의 무덤을 향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갔  
습니다.

온갖 잡스런 상념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나는 오늘 반드시 민구에게 영란에 대  
한 비밀을 털어놓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공동묘지 입구 산비탈 길로 접어들며 여기가 무연고 수용자를 매장하는 교도  
소 공동묘지임을 말하여주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비탈길을 오르니 영란의 무덤이 저만치 보였습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기어오르듯 하여 영란의 무덤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는 내가 세워 놓 ‘오영란지묘’ 라는 돌비석이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형수 오영란의 묘지임을 간파한 민구가 내 뜻을 알아주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나는 포를 놓고 잔에 술을 채워 민구에게 올리도록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여기는 너의 생모의 묘소이다.”

“예…? 그게 무슨…말씀이세요?”

민구가 어안이 병병하여 의아하게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진작 말 하려고 했었는데……”

“생모라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굳이 숨기려 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말 할 기회를 찾는답시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늦고 말았구나…”

나는 민구에게 그간의 사연을 대충 말하여 주었습니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민구의 눈에서 어느덧 눈물이 그렇그렇 맺히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털어 낸 나의 마음이 흥가분하였습니다. 하늘을 훨훨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걸 뭣 댐에 여지 것 질질 끌어안고 있었을까..”

나는 민구에게 영란의 산소에 재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구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절을 마친 민구에게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상념에 빠져 영란의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민구가 매우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꺼낸 이야기라서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나는 한동안 민구를 애써 외면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망연자실 서 있기는 민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구의 시선을 피해 무덤 둔덕아래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사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신경 쓸 여지도 없이 민구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데 그가 바로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란의 무덤 앞에 서있는 나와 민구를 의아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를 찾아오셨나요?”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 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를 찾아왔습니다만…?”

“여기는 보시다시피 오영란의 묘소인데요…”

“그렇습니다. 나는 오영란을 찾아왔습니다.”

보다 못한 민구가 노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동명이인을 어르신께서 잘못 아시고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노신사가 의심스런 눈빛으로 민구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아니오. 몇 번을 확인해 보았지만 오영란의 묘소는 여기밖에 없었소…그런데 청년은 뉘시오?”

민구가 나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하였습니다.

“이곳은…저의 모친의 묘소입니다만, 아무래도 어르신께서 뭔가 착각하시고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모친이라니…? 이 사람에게 자식이 있을 리 없소. 청년이야말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소.”

나는 그가 누구의 무덤인지 진즉에 확인해 보았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영란의 묘소를 잘못 찾아 온 사람 같지는 않아보였습니다. 그리고 보니 웬 지 낯설지 않다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언뜻 보아도 민구의 인상이 그에게서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현듯 이 노인이 민구의 생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속단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영란씨를 아시나요?”

“그렇소.”

“어떤 사이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린…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금슬 좋은 부부였지요. 아이가 있었다면…영란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상철의 애상어린 시선이 영란의 무덤위에 어리며 추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택은… 남상철씨이지군요.”

나는 확신에 차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저를…?”

남상철이 놀라며 나와 민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영란에게서 들었습니다.”

“영란에게 서요…? 영란을… 어떻게 아시는게요?”

“… 감옥에서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요…?”

“그렇습니다. 감옥, …영란은 임신부로 감옥에 왔고 나는 그 임신부를 맞이한 교도관이었습니다.”

“임신이라니요…? 수년을 기다려 왔지만 그 사람은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신이었다면 내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물론이지요. 알았더라면 당연히 이야기 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대하던 아이였는데… 허지만 영란 자신도 자신의 임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음독하려던 약물을 입덧으로 마시지 못하고도 그것이 임신으로 인한 입덧이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알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불임과 이혼에 대한 강박증으로 임신한 사실조차 모르고 우울증으로 괴로워

하며 자살을 시도 하였던 것입니다.

자살하려던 영란이 구토증세로 독약물을 마시지 못한 것을 그리도 절절히 호소하였지만 사람들은 변명으로만 일관하여 영란을 살인자로 몰았습니다. 남편인 당신조차도요…“

남상철의 눈에 회한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내 잘못 이오… 그것도 모르고 임신한 아내를 그토록 매정하게 내 몰았으니…내가 죽일 놈이오.”

남상철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먹이자 민구가 안 되어 보였는지 손수건을 꺼내어 남상철에게 건네어 주었습니다.

남상철이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민구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나는 나도 모르게 울컥하여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앞에 서있는 이 청년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남상철과 민구가 놀라움 속에서도 서먹서먹한 눈빛들이 둘 사이에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서로 노려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륜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부자지간의 애뜻한 정감이 오고 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나는 그들이 노려보거나 말거나 부자의 연으로 돌아가 끌어안거나 말거나 그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영란의 무덤을 뒤로하고 휘적휘적 산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게 물으러 오겠지요.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줄 것입니다.

“서로 믿고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영란의 무덤가에 활짝 피어있는 진달래가 이들의 만남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영란의 미소였습니다.

봄날의 따듯한 햇살이 영란의 미소인양 내 몸으로 파고들어 나는 기분이 좋  
았습니다.



# 동상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희진



## 수상소감

네이버 웹툰을 보았습니다. '열심히'에 대한 단상을 담은 만화였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열심히가 과정 속에 있는지, 결과 속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노력이야 말로 금방 바닥나는 소모품이라고요. 꿈이 노력의 결실이라도 그게 꼭 지금 당장일 필요는 없다고요.

6년 4개월 차 공무원입니다.

가끔은 제가 수사관인지, 그냥 공무원인지, 아니면 습작생에 불과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제일 열심히 해야 하는 지도 모르겠고요.

다만 공무원으로서, 제가 공무원이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일로 받게 된 작은 상찬에 깊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 고생대에 살았던 작고 희귀한 기억

\*

음악으로 표현하자면 언제 들어도 좋은 비틀즈. 수많은 곡 중 첫인상에 가까운 건 ‘And I Love Her.’ 마땅히 좋은 이유를 꼽으라면 잘 모르겠다가도 어느새 이런 저런 이유를 들다 혼자 달떠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비틀즈, 혹은 내겐 잔(John). 잔의 첫인상은 사우스립의 폰테로사 소나무 같았다. 188센티의 큰 키, 곧고 길게 뻗은 팔다리. 말랐지만 균형 잡힌 체격. 대개 같은 다리로 성큼성큼 걸을 때면 거대한 나무가 살아서 제식걸음을 걷는 것 같았다. 각진 턱에 회색 풀라,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코르텐 재킷. 유행이 지난 청바지는 통이 커서 걸을 때마다 펠렁였다. 직업적 친화력 따위는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시건드러진 태도와 다소 우울한 정서가 느껴지는 잔은 출장지의 현지 가이드였다.

우리는 10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다. 당시 나는 이제 막 고시공부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3년 차 행정관이었다. 해외여행은 처음이었다. 아픈 엄마 때문이기도 했고, 사는 게 바빴다. 고시에 합격해도 생활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았다. 심포지엄이 끝나면 하루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일행들은 쇼핑이나 자유여행 계획으로 분주했다. 나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다.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서 밀린 잠이나 몰아 잘 생각이었다.

‘피셔맨 워프의 거리’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지금도 그 공간을 생각할 때면 기분이 묘해진다. 골약근 사이로 꿈틀대는 벌레를 상상을 할 때나 들 법한 이상하고 야릇한 몸의 감각. 어떤 기억은 너무 생생하다.

10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나는 잔과 함께 피셔맨 워프 거리를 걸었다. 부둣가의 바다사자들, 피어39, 비에 젖은 나뭇바닥. 신발이 젖을까봐 구두코를 들고 걸

던 기억, 발걸음마다 유난히 크게 들렸던 삐그덕 소리. 선착장의 바람, 기적소리. 어깨가 닿지 않도록 걷기 위해 한 우산 아래서 몸을 웅크렸던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다. 단 세 시간. 출장 동료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단둘이 함께한 시간은 세시간 남짓이었다. 이후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한국에 그는 미국에.

잔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3년 전 나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삭제됐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억 중 특정 기억을 삭제하는 일을 과학의 영역으로 봐야 할지, 초자연으로 봐야할지는 모르겠다. 나는 경험주의자이므로 어쨌든 내가 경험한 것들에 비추어 말하자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엄마는 나로부터 아버지에게 대한 기억을 지우는 데 성공했다. 나 역시 잔의 머릿속에서 ‘나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데 성공했다.

기억을 저장하는 곳과 떠올린 기억을 다시 저장하는 곳은 뇌 안에서 같은 곳에 위치한다. 잔의 머릿속에 나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건, 그의 군소달팽이 관 신경 속 시냅스가 성공적으로 제거됐다는 얘기다. 어렸을 적 나를 치료했던 장 의환 교수의 논문이 최근 네이처에 실렸다. 교수의 연구는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었다. 기사에는 연구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군소달팽이의 꼬리를 여러 번 찢러 민감한 기억을 남긴 뒤 단백질이 재합성되는 것을 막았더니 기억이 저장되지 않고 지워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단백질의 분해와 재합성이 동일한 시냅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라고 했다.<sup>1)</sup>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처럼 전기가 연결된 이상한 헬멧을 착용하고 누워 특정 기억을 제거하는 일이 현실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현실과 영화는 다르지만, 사람의 기억이 지워질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것은 의지로도 가능한 일이었다.

기억삭제 스물여섯 회 차 되던 밤, 잔은 우리가 실수로 입술을 부딪쳤던 피셔맨 워프 거리를 기억하지 못했다.

1) 2012. 10. 8. 이성규 과학칼럼니스트 「KISTI 과학향기」 기사 중

“그날 뭘 먹었지?” 묻자 잔은 “우리가 뭘 먹었어?” 하고 되물었다.

“내가 차에 두고 내린 노트북 책을 당신이 로비로 가져다주었잖아. 근처에 테이크아웃 할 만한 음식이 뭐가 있냐고 물었을 때 크램차우더를 얘기해서 피셔맨 워프까지 함께 간 기억, 안 나?”

잔은 통 모르는 얘기라는 듯 어깨를 들었다 내렸다.

“그날 발을 헛디뎠어서 키스할 뻔했는데!”

내 말에 잔이 크게 놀랐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했어, 할 뻔했어?”

익살스러운 표정의 잔이 나를 추궁했다.

“할…… 뻔 했지.”

기억이 감각을 불러왔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내 코가 잔, 당신 입술에 닿았어.”

그가 고개를 뒤로 꺾으며 웃었다.

“진짜? 와, 어색해. 상상만 해도 난감하다. 우리 그때 서로 별로 아니었나?”

그는 진심으로 보였다. 진심으로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둘 중 어느 누구도 사실을 정정하지 않았다. 뒤이어 우리, 키스를 나눴다고.

3년 전 나는 잔의 부탁대로 그의 기억삭제를 돕기 위해 잠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시간은 또렷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없었던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잔은 일주일에 두 번씩 내가 추천한 호킨스 센터의 임상실험에 참가했고, 밤에는 나와 기억을 지우는 훈련을 했다. 투어는 계속 맡았다. 캘리포니아 주의 유스 호스텔을 전전하는 밤이 이어졌다. 최면요법이 동원되기도 했고, 이력이 있는 물건에 새로운 기억을 삽입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잔과 나 사이에는 의사와 환자처럼 래포(Rapport)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마치 엄마와 나처럼.

기억삭제에 관한 나의 견고한 믿음은 엄마로부터 비롯되었다. 어렸을 적 엄마는 어떤 과학적 지식도 갖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꽤 체계적인 방식으로 나를 훈련시켰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꽤 효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엄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상자 안에 담으라고 했다. 처음에는 네 개, 여덟 개, 열 개…… 하는 식으로 나무블록에 기억을 담았다. 엄마는 아버지에 대한 비슷한 기억들을 눈사람처럼 굴러 기억의 몸집을 불러보라고 했다. 나는 온 정신을 집중하였다. 신기하게도 가능했다. 상자의 문을 열고(실제로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상자에 넣었다. 32개에 넣고, 64개에 담아 넣었다. 어떤 기억을 넣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분리하려고 했던 것은 기억한다. 엄마는 끔찍한 기억도 꺼내라고 했다. 용서하고 싶은 게 있냐고도 물었다.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잘 모르겠는 것도 꺼내라고 했다. 검은 손수건을 상자에 덮었다. 이제 이 상자는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엄마의 말은 주문 같았다. 나는 두 눈을 감고 나무상자가 하얀 가루로 부서져 날아가는 것을 상상했다. 블록놀이를 하고 나면 온몸이 흠뻑 젖었다. 여덟 살 때부터 열세 두 살 때까지의 일이다. 장 교수는 블록놀이 단계가 끝날 때까지 만난 여러 명의 의사들 중 하나였다.

유니버설 투어는 여전히 성업 중이었다. 전화를 걸어 잔이라는 가이드가 있는지 물었다.

“누구요?”

“잔이요, J.O.H.N. 잔.”

“플네임은요?”

“John lee. 한국이름은 안 쓸 수도 있는데…… 이석철.”

제 이름은 잔 리(John lee)예요. ‘존리’가 아니라 ‘잔리’. ‘J’는 영국식 발음이고 ‘L’는 미국식 발음이에요. 여긴 미국이니깐, 본토 발음대로 하세요. 그래야 미국 애들이 알아들어요. 저 재수없다는 분들 많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배운 대로 ‘잔 리, 재수없어’ 하세요. ‘존니, 재수없어’ 하지 마시고. 욱하다 걸리면 발음지적 합니다.

사람들이 웃는다. 사근사근한 맛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을뿐더러, 시간약속이나 규율에 있어서는 학생주임처럼 엄격했던 잔은 모닝콜에서부터 이동, 통역, 주요기관의 시크릿 체크까지 일에 있어서는 완벽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이 많은 국장은 그 앞에서 마음껏 근엄할 수 없는 현실에 괴로운 듯 보였다. '짜식……, 내가 영어만 좀 했어도……. 가이드 주제에 너무 고고하단 말이야?' 잔의 농담에 경계를 푼 사람들이 하나 둘씩 웃는다. 누구보다 크게, 호쾌하게 웃고 있는 내가 있다. 2012년, 샌프란시스코의 든게이트 브릿지를 지나는 김서영이다.

유니버설 투어에 요청한 사항은 한가지였다. 방문 지역이나 날짜, 가격과 상관 없이 가이드가 '잔' 인 패키지에 합류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웃돈을 약속했지만 확답은 받지 못했다. 현지 가이드를 특정인으로 맞추는 게 바라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컨택이 가능한 가이드인지부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우리는 7년을 간헐적 연인관계로 지냈다.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이별이 필요한 사이는 아니었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미운 수처럼 적당한 온도로 영향을 주었다. 완전히 헤어진 건 그가 청혼을 했던 3년 전이었다. 기억삭제 작업도 그때 이뤄졌다. 나는 남겼고, 그는 지우기로 했다. 각자의 결정이었다.

그와 나는 한국과 샌프란시스코(외에도 그의 거소지는 샌디에고, 로스엔젤레스, 브루클린)에 각각 떨어져 살았다. 한 2년 정도 그도 나도 완전 미쳐 있었다. 열정이 소강상태를 보이자 우리는 시간의 경제에 순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전보다 비행기를 덜 탔고, 그는 반년 씩 보파리를 싸야하는 투어도 곧잘 맡았다. 1년 동안 입맞춤 한번 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도 있었다. 그게 힘들 때도 있었고, 힘들지 않기도 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았다.

굳이, 왜? 라는 생각뿐.

사랑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나는 복잡한 척 하는 단순한 인간이니까 내 식으로 말하면, 사랑은 그냥 걱정없이 몸을 섞을 수 있는 관계다. 하고 나서, 하기 전, 하면서, 근심이 생기는 관계의 섹스란 적어도 내가 원하는 사랑의 형태는 아니었다. 그는 나의 시즌제 잠자리 파트너였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그런 관계이기만 할까, 하는 고민이 시작되고서부터 우리는 자주 논쟁을 했다. 잔은 미술과 음악을 하는 사람 특유의 직관을 가졌으면서, 고시공부를 한 나보다 더 비판적이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 두 마디가 정곡을 찔러 나를 아프게 했다.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했지만 진실된 이별은 아니었다. 우리는 7년 동안 비진의 의사표시를 반복했다. 그리고 달라진 것 없이 나이만 먹었다. 눈 깜짝할 사이 나는 마흔둘이 됐고, 그는 쉰셋이 됐다. 공평하게 그 역시 한국나이로 하자면 쉬하나.

유니버설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답변이 왔다. 엄마의 49제였다. 당시 나에게 걸려오는 전화들은 모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전화였다.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끊을 수 없는 통화로 서로 침묵만 지키다 도망치듯 황망히 전화를 끊곤 했다. 유니버설 직원의 낭랑한 목소리는 그래서 더 비현실적이었다. 경품 당첨소식을 전하는 사람 같았다.

“고객님, 축하드려요! 말씀하신 가이드 찾았어요! 구성 들어갔구요. 라스베이거스-그랜드캐니언-로스엔젤레스-샌프란시스코 일정이에요. 출발은 다다음주구요. 알고 보니 이분, 이쪽에선 유명한 분이던데요? 스페셜 투어랑 비즈니스 투어만 맡는 분이래요. 기업고객들 오피도 거절할 때가 많은데 이 건은 하겠다고 했대요. 저희가 잘 준비해 볼게요! 후회 없는 여행되실 거예요. 유니버설 투어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두 번이나 했다. 전화를 끊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의 49제였고, 슬픔을 잠재운 또 다른 감정이 나를 당황스럽게 했다.

‘망해먹을 놈’, 엄마는 잔을 그렇게 불렀다. 엄마는 본심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 불이 한 달째 안 꺼진다더라. 그 망해먹을 놈은 괜찮

니?’ ‘세상에, 로스엔젤러스에 또 총기 사고가 있었다는구나. 많이 죽었다는데…… 그놈은 괜찮니?’ 하고 물을 때면 엄마의 본심이 궁금했다.

정말 그가 불에 타죽거나, 총에 맞아 죽어 딸의 인생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건가 싶다가도, ‘갠 기타만 쳐야겠더라. 목소리는 좋은데 노래는…….’ 하고 말끝을 흐린다든가, ‘앨범표지가 그게 뭐니. 쉽게 좀 그리라고 해라. 저만 예술하니?’ 하고 혀를 찰 때면 미운정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나의 해석일 뿐이었다. 어찌면 엄마는 한순간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렇기에 그토록 끊임없이 탐색했던 것일지도. 뜬금없이 ‘발기는 되니?’라고 말해 나를 당황시키기도 했으니까.

월요일 12시 5분 전, 엄마의 부고를 들었다. 부재중에 찍힌 전화번호를 보았을 때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전화를 걸었다. *구내가실 분! 오늘 메뉴가 뭐야?* 일상의 익숙한 소음 사이로 엄마가 숨을 거두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온몸이 파라핀에 담긴 듯 뻣뻣이 굳었다. 곧이어 기억이 감각을 불러왔다. 잔의 음성이 뜨거운 입김처럼 얼굴에 와 닿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퍼할 겨를이 없었던 건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는 장례를 마친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 노쇠한 래빗은 내가 있어야 물도 먹고 밥도 먹으니까. 이상하지? 모두 죽고 나만 남았는데 슬픔은 계속 미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

내 말이 이어진다. ‘당신은 나랑 헤어져도 슬퍼할 겨를이 없겠구나. 그깟 강아지 때문에. 우리 래빗 감기 걸렸니, 세상에 우리 래빗 이제 이가 빠지는구나.’ 짐짓 그 인 체 하며 말투를 흥내내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처음 만났을 때 본, 어딘지 모르게 우울한 사람의 얼굴이 되어.

‘슬픔을 배낭에 지고 다닌다는 말 알아? 미뤄둔 슬픔이 많은 사람들은 여행이 길어진대. 그래서 내가 가이드가 됐나봐. 당신은 어머니 때문이라도 나한테 올 수 없고, 나는 래빗 때문이라도 당신에게 갈 수 없어. 방법?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우

리는 그걸 할 수 없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어.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 이걸 상당히 공평한 거야.’

신호가 점멸했다. 횡단보도 허리에 내가 서 있었다. 찢어질 듯 울리는 날카로운 클랙스 소리에 허둥지둥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제서야 서둘러 회사를 빠져나온 기억이 떠올랐다. 섬망처럼 엄마를, 잔을 부른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는 죽을 사람이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위암 3기였고, 그 후로 26년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데 진짜 엄마가 죽었다. 이제, 내 삶은? 엄마가 죽기 전에는 고시에 합격해야 하는 이유나 사는 이유가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세상에 없으면 사는 이유가 없어진 것인데, 나는 살고 있었다. 딱히 따라죽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이건 뭘까?’ 슬픔이라 명명할 수 없는 이상한 슬픔이 새떼처럼 밀려왔다. 왜 사는지의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냥 살고 있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엄마에게 들렸다. 엄마를 모셔놓은 추모공원은 수목원이 잘 꾸며진 곳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납골장을 원했다. 가장 손이 덜 가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내가 어렸기 때문이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가르쳤다. 우리는 둘뿐이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피보호자였고, 나는 엄마 맡고는 가진 게 없었다.

마흔 둘이 되어야 비로소, 나는 엄마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발인을 마친 뒤 추모공원에 엄마를 안치했다. 한줌 잔해로 돌아간 엄마는 유골함에 담겼다. 블록놀이가 떠올랐다. 질량감을 잃은 엄마가 나의 기억을 날아다녔다. 봉안당에는 꽃냄새가 가득했다. 수국 한 다발을 엄마 앞에 올렸다. 나는 이번 여행에 관해 떠들기 시작했다. 서부 여행은 원래 한번쯤 해보고 싶었다는 등, 라스베이거스에서 잭팟을 터뜨리게 되면 미련 없이 한국생활을 정리할 거라는 등, 행선지와는 상관없는 곳의 교통상황을 전하는 라디오처럼 그렇게 엄마가 귀담아 듣지 않을 이야기들만 전했다. 왕복티켓을 끊지 않고 떠나는 이유는 끝내 설명하지 못했다.

\*

“라스베가스다!”

일행 중 꼬마가 소리쳤다. 입국장의 문이 열렸다. 멀리 유니버설 투어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잔이 보였다. 살짝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는 인식조차 없어 보였다. 유니버설 투어의 피켓을 들고 있는 잔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맨 뒷줄에 섰다. 그리고 잔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눈, 코, 입, 하나하나가 익숙했지만 낯설었다. 달라진 것은 없어보였다. 여전히 군살없이 탄탄했다. 피부가 좀 더 검게 그을렸다는 것 말고는 3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잔, 당신 맞지?’ 하고 옆구리를 찌른다면 우! 하고 총에 맞은 시늉을 할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기억 삭제가 실패했다는 방증이 될 테지만, 호킨스 센터의 장은 잔의 기억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다고 했다. ‘임상실험 결과지’ 라는 페이퍼 한 장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담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주의자인 나로서는 그와 같은 결론을 믿었다. 잔은 호킨스 센터의 실험에 참여하자는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단서를 달았다.

- 김서영 씨.

- 왜 이래, 어색하게.

- 연습하는 거야.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될 거잖아. 당신 초능력말야, 기억을 지운다는. 그거 나한테 안 해 볼 테야?

- 자기, 이제 보니 은근 동심이 있다? 그게 어떻게 초능력이야. 전에도 말했지만 어렸을 때 그 경험은 팩트만 받아들이면 돼. 확대해석 하지 않아도 돼.

- 난 당신이 내 기억을 지워줬으면 해. 뇌과학도 좋고, 신경의학도 좋고. 당신 말대로 앞으로 어떤 치료, 어떤 의사를 만나던 상관없어. 그게 우리 이별에 필요한 거라면. 하지만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 내 기억을 지우는 일. 누가 성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잔은 자신이 가진 ‘김서영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지우고 싶다고 했다. 그가 청혼을 했을 때야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내 미래에 없었다. 나는 그것

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렇기에 우리의 욕망은 균형이 맞지 않았다. 청혼은 평화 협정 위반이었다. 나는 청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의 기억을 지우는 것을 돕기로 했다.

유랑의 밤, 서른 두번째 되던 날 내가 잔에게 물었다. ‘당신, 내가 왜 좋았어? 답답해 보였으며.’ 잔이 인증을 모으며 생각에 잠기더니 한참 만에 입을 뿔었다. ‘음…… 기억이 안 나. 좋은 이유가 있었는데. 아…… 진짜 좋았었는데.’

“김서영 씨!”

날카로운 음성이었다. 투어자 명단을 든 그가 이름을 호명하고 있었다.

“안 들리세요? 네 번이나 불렀습니다.”

“아……, 네.”

그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웃어보였지만 억지웃음처럼 보였다.

“자자, 여기 보세요. 인솔자 없는 팀 치고는 저희가 인원이 많아요. 라스베이거스는 처음이시죠? 정신없을 겁니다. 호텔도 그렇고 카지노도 워낙 커서 정신이 없어요. 사진 찍다 저 놓치기 십상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이 제일 위험하니까 집중하세요. 제 이름은 잔 리(John lee)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Welcome to John’s World! Welcome to Las Vegas!”

전용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다. 간단히 짐을 푸른 뒤 분수쇼에 이어 전구쇼를 보고 프리먼트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은 손에서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풍경을 찍는 척 하며 나는 그를 앵글에 담았다. 온 신경이 잔에게 가 있었다. 정말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애써 모른 척 하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이질감이 들었다. 나를 몰라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기억하는 잔이 아니었다. 지금 서 있는 내 앞의 그는 능청스럽고, 수다스러웠으며…… 장사치 같았다. 유명 한인상점에서만 판다는 100% 천연 프로폴리스에 대해 떠들었고, 박학한 건강지식을 뽐내며 해당 상점에서 불티나게 팔린다는 건강보조식품

을 소개했다. 결국은 거길 들릴 거라는 게 요지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비틀즈와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연주에 대해 얘기할 때만이 유일하게 달변가로 변하던 잔이었다. 잔과 그, 둘은 닮아 있지 않았다.

잔은 한 장의 LP앨범과 두 장의 디지털앨범을 냈다. 첫 싱글앨범 『1989』는 연주, 작곡뿐 아니라 직접 노래도 불렀다. 투어섭외와 노캐런티 페스티벌이 겹칠 때면 집세와 공과금을 얼추 계산했다. 모자라도 무대로 가는 일이 많았다. 그가 저축을 하는 이유는 공과금을 낼 수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게 전부인 듯 보였다. 그는 돈을 지불하며 꿈을 꾸었다. 오십의 잔은 임대주택에서 살았다. 고장난 수도는 직접 고쳤다. 육십이 되어서도 칠십이 되어서도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잔은 지금과 같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히스패닉계 운전기사의 팁을 유도하며 씩, 웃었다. 나는 꿈에서 깨는 듯했다. 우리는 각자의 현실이 따로 있었다. 가급적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 조우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20년 넘게 가이드로서 생계를 유지해 온 잔이었다. 나는 그걸 잊고 있었다. 생계는 연인의 성감대보다 더 내밀한 것인지도 몰랐다. 일터라는 가장 원초적인 공간에서 고객으로 등장하는 재회를 택한 건 내 오만이였다.

카지노 앞에서 그는 더욱 발랄한 가이드가 되었다.

“좀 풀어지세요. 라스베이거스에요. 도박도, 마리화나도 죄가 되지 않는 네바다 주라고요. 여행은 그런 거예요. 자신을 놓는 거. 고민 많던, 화만 내던, 힘들었던 나를 놓는 일. 여행에서마저 그럴 수 없다면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죠? 더, 더, 더 열심히만 사실 건가요? 신나게 노세요. 대신, 빈털터리가 되어도 내일 나오셔야 합니다. 출발은 6시! 전용버스 앞에서 뵈게요. Have a good time!”

그는 머리 위로 손을 흔들었다. 라스베이거스의 네온사인 사이로 잔이 사라졌다.

점퍼를 여미며 버스에 올랐다. 다섯 시 삼십분. 새벽의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계속해서 꿈을 꾸었고, 자다깨다를 반복했

다. 여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집합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인지 버스에는 사람이 없었다. 도트무늬 와이셔츠에 가죽 재킷, 회색 베레모를 눌러 쓴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내 움직임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지나쳐 탑승문으로부터 세 칸 정도 떨어진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시선이 느껴졌다.

“김서영 씨?”

잠에 들었던 목소리는 아니었다.

“나가서 드실래요?”

“네?”

“첫날 규칙 말씀드렸잖아요. 생수 이외는 안돼요. 시트에 쏟을 수 있거든요. 나가서 드시고 오세요. 이 버스가 자그마치 6억짜리예요.”

“허.”

기가 찼다. 그는 물러서는 기색없이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선글라스에 가려진 눈빛을 읽어보고 싶었다. 나는 내려서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런 뒤 다시 버스에 올랐다. 그가 말했다.

“기억나실 거예요.”

“뭐가요?”

나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저한테 혼나고 단숨에 들이 켜 커피가 되게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대화 사이 운전기사가 담배를 태우러 나갔다. 버스 안에는 둘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잔이 운전석으로 가 음악을 틀었다. 선반 위 스피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Goodbye L.A…….’

늘 듣던 음악이었다. 헤어진 이후로도 나는 늘 잔과 함께 있었다. 잔이 개인 사이트에 올리는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잔의 선곡이 곧 나의 플레이리스트였고, 그가 기록하는 일상이 내 기쁨이었다. 안 만나고 살아도 평생 그를 구독하며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섭기도 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랜드캐니언까지는 5시간, 나는 눈을 감고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Goodbye L.A를 들었다. 잠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사우스림에 도착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깊이감과 원근감. 아슬하게 쌓아올린 절벽은 파이 같았다. 거대한 협곡들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우뚝 서 있었다. 사람들은 말이 없어졌다. 대자연 앞에서 순수해졌다. 친구, 가족, 연인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잔이 사람들을 한데 모았다.

“어때요, 죽이죠? 여기서 말이 필요 없어요. 협곡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콜라도 강이 어떻게 흘러 차별침식을 이뤘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차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이젠 그냥 보시면 돼요. 충분히 감탄하고, 충분히 즐기세요. 저기 매터포인트 보이시죠? 저기서 단체사진 한번 찍고 각자 시간 드릴게요. 트래킹 시간입니다. 이제 각자 걷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다. 몸이 휘청일 정도의 바람은 이 구역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격한 포용 같았다. 나는 풍경을 찍을 마음도, 그를 앵글에 흠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 림트레일을 따라 걷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나는 혼자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줄을 지은 행렬들이 서서히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오롯이 나와 대화를 하며 걸었다. 내가 묻고 내가 대답했다. Will you merry me? 그가 청혼했을 때 왜 이유를 묻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으니까. 뭘? 그냥 다.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그를 가장 역겹게 표현해 본다면? 떠돌이 개.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 없는 떠돌이 개. 그게 다야? 해피 카우(Happy Cow). 드넓은 초원에 자유롭게 방목된 육질이 질기고 건강한 소. 부드럽고 기름진 육질을 위해 고통스럽게 살찌운 소 말고. 해피 카우? 응. 해피 카우. 죽을 때까지 행복한 소. 너는? 나? 나는…… 고장난 방아쇠. 한번도 제대로 당겨본 적 없는 고장난 방아쇠. 그런데 아……, 여기…… 진짜 높다.

“이봐요! 거기서 뭐해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어느새 그가 성큼 내 앞에 와 있었다. 나는 절벽 앞에서 주춤거렸다.

“그냥 앉아보고 싶어서요. 저기 저 사람들도 앉았잖아요.”

휘날리는 머리칼을 연신 쓸어올리며 건너편을 손으로 가리켰다. 백인과 흑인 몇 명이 절벽 위에 앉아 있었다.

“해보게요?”

“네.”

“아, 근데 왜 또 못하겠죠?”

“그냥 앉아요.”

내가 망설이자 그가 조금씩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도와줄게요. 전 가끔 뒤로도 앉는 걸요.”

“정말요?”

“그럼요. 왜 흰소리를 해요. 김서영 씨가 죽을 때까지 여기 몇 번이나 앉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도 평소엔 위험한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아요. 평생에 한 번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볼래요?”

“아…….”

“제가 먼저 앉죠.”

그는 바닥을 신발로 툭툭 쓸더니 절벽 끝 가장자리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는 몸을 45도로 틀어 내게 손을 뻗었다.

“너무 바짝 앉은 것 같은데…….”

내가 망설이자 그가 말했다.

“그냥 와요. 앉으면 다 똑같아요.”

천천히 발걸음을 뗐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나란히 절벽에 앉았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그의 어깨에 내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 손대지 않았다. 사암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갈퀴처럼 얼굴을 스쳤다.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면 그는 이토록 태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몸을 만지고 싶어 괴로웠다. 그는 무덤덤했다.

“신기하네요. 절벽 위에 앉다니.”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용기가 일상에 가서도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는 날아갈까봐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던 베레모를 벗었다. 선글라스도 벗었다. 나는 그제서야 그의 눈을 볼 수 있었다.

“음……, 가이드님. 지금부터 저랑 하는 대화는 미친사람이랑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보실래요? 저도 가이드님이 뭘 묻든, 미친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해 볼게요. 어때요?”

“좋아요.”

“먼저 시작할게요. 원하는 삶은?”

“너무 혹 들어왔네요.”

“미친사람이니까.”

그가 웃었다.

“햄버거 가게 하나 차리는 거?”

그가 답했고 그가 물었다.

“결혼은 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요즘엔 한국에서도 그런 질문은 실례예요.”

“미친사람이니까.”

“심심할 때 하려고요.”

“그렇군.”

“끝이에요?”

“네.”

“백인이랑 섹스해 봤어요? 최근에.”

“Sure.”

“……!”

캐서린을 말하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까 버스에서 따라 부른 노래, 어떻게 알아요?”

“좋아하는 노래예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보컬도 연주도 다 마음에 들어요. 이제 제 차례. 사랑에 관한 황당한 기준이 있나요?”

“길을 잘 모르는 사람, 물건을 잘 흘리는 사람에게 끌려요.”

“왜요?”

“가이드니까. 저랑 만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처음이에요. 라스베이거스, 그랜드 캐니언, 샌디에고 땅에 난생 처음 온 사람들이고, 언어도 서투르죠. 꼬맹이 손님이 나, 어른이나 저한텐 똑같아요. 여행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물건을 잃어버리는지 모르죠?”

“그저 당신이 가는 대로만 따라오는,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게예요?”

그는 두 입술을 팽팽하게 당긴 채 희미하게 웃었다.

“설마요……. 당신이라면 따라오겠어요?”

나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길눈이 밝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는 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계속 가는 바보 같은 힘에 끌리는 것인지도 모르죠.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건 나 역시 길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구요. 아! 손님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예 여행 내내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려고 했던 사람.”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만 가죠.”

내가 할 말을 그가 했다. 그는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서며 시계를 보았다.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고 하자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출발 40분 전이에요. 아까 처음부터 다른 길로 가던데, 이 방향으로 가면 시간

내 못 돌아올 게 뻔해서 따라온 거예요. 여긴 길이 아니거든요. 림트레일은 정반대에요. 자,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가죠. 집합시간 여기는 거 용납 못해요.”

나는 어쩌다 길 잃은 말썽쟁이가 되어 있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랜드캐니언의 협곡은 어느덧 타오르는 붉은빛으로 뒤덮였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 기억삭제가 완성의 단계에 이른 상태는 아니었다. 호킨스의 실험참가는 1년 여정이었다. 내가 없어도 훈련과 치료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은 당부했다. 잔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잔이 내게 물었다.

“당신 아버지는 존재했어?”

“그럼. 존재했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존재했지. 잔, 고생대에 살았던 삼엽충 기억해?”

“삼엽충? 그 다리 많이 달린 거? 알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물이 존재했었다는 걸 아는 거지.”

우리 둘은 잠시 말이 없었다. 침묵 끝내 잔이 말했다.

그래 그걸로 됐다.

매더포인트에 가까워져 오자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다. 잔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걷는데 황무지가 이어졌다. 전갈이 나온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빨간 경고판이 보였다. ‘Do not enter, wrong way’ 잔이 내 팔을 잡아끌더니 귀에 대고 말했다.

“또 길을 잃었네.”



# 동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길년



## 수상소감

부족한 글을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  
그 모습은 대부분 집단의 옷을 입고 등장하며  
집단은 개인을 희생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민하고 고통 받는 개인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번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  
오늘 하루도 무사히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 공사다망

## 1.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겠다는 말은 아름답게 들렸다. 그 말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을 심어주었고, 힘든 하루를 견디게 했으며, 쓴 술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게 했다.

밤이 떠오르고 그림자마저 흔적을 감추자 그것들은 언어라는 절반쯤 헤진 옷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들의 형상은 외로움에 미쳐가는 환자 같았다. 그것들은 혼자서는 제대로 설 수 없었고, 사물들에 계속 의지해야 했으며,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수많은 개체들을 집어삼켜야 했다. 그것들은 아파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도 불어오는 바람을 똑똑히 보았다. 보았지만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어디로 가는지 물을 수 없었다.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었지만, 바람은 분명히 있었다.

한 무리의 바람이 내 몸 속으로 들어와 등줄기에 맺힌 땀을 식혀주었다. 퇴근 길에 맞는 바람은 퇴근 후 마음 맞는 사람들과 나누는 술만큼이나 나를 살아있게 했다. 아쉽게도 오늘은 술 약속이 없지만 집에서 혼자 마시는 술도 나쁘지 않다. 나는 폰으로 치킨 집 전화번호를 찾으며 길을 걸었다.

나는 걷다가 무언가와 부딪혀 폰을 떨어뜨렸다. 사람이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떨어진 폰을 주웠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단상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나는 서둘러 내 길을 계속 걸었다. '와'하는 소리에 잠깐 뒤를 돌아보니 사람들 머리 위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제가 시장에 당선 된다면, 골목상권은 정의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슴에는 희망이 차오르며, 집집마다 행복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따뜻한 인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중심의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저를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키다리 아저씨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시장이 되어 그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치킨 집 전화번호를 찾은 것이 기뻐다.

## 2.

### ‘성공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나의 하루를 평가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나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내 자리에 도착했다. 지난 8년 동안 나를 먹여살려줬던 곳에서 내게 새로운 자리를 주었다. 이번 선거에서 신임 시장이 당선되었고 주요 공약사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내걸었다.

“장주임. 반가워. 나도 언제 한 번 장주임이랑 일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

김팀장. 9급으로 들어와 40세에 최연소 6급을 달았고 곧 최연소 5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될 사람이었다. 조직 내에서 그가 걸어온 모든 길에는 최초와 최연소라는 화려한 얼룩이 칠해져 있었다.

“알지? 여기가 시장님 1번 공약사업 부서라는 거? 근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하고 싶어서요. 자원했습니다.”

“하고 싶다라... 좋은 마인드네. 이 일은 사명감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긴 하지. 풀뿌리 민주주의. 참 듣기 좋은 말이긴 한데, 뜬 구름 잡는 일이거든. 나도 내가 원해서 왔지만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 근데 장주임은 자꾸 이렇게 힘든 일만 하네.”

사실이였다. 그 간 내가 모은 뜬 구름을 합해 솜사탕을 판다면 나는 금방 부자가 될 정도였다. 막 임용된 신규 때에는 다문화 업무를 했고, 신입 티를 벗은 4년차부터는 인권 업무를 했고,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업무에 손을 대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는 정형화된 것이 일반적이는데, 나는 주로 말이 만들어낸 일을 해왔다. 말은 언제나 현실보다 힘이 셨다. 나는 말의 그 힘을 잘 알고 있다. 듣기 좋은 말일수록 하늘로 쉽게 올라가기에 ‘뜬구름 잡는 일’이라 부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끝나지 않은 내 솜사탕 장사의 끝을 그려보았다. 끝은 그려지지 않았다.

“안 힘든 일이 있나요. 다 힘들죠.”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렇지. 다 힘들지.”

팀장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는 듯했다.

“직원들 다 온 것 같으니 업무분장부터 하지.”

업무분장은 누가 어떤 일을 할지를 나누는 일이다. 이 업무분장에 따라 직장생활의 많은 것이 결정된다. 누가 휴일에 놓고 나올지, 누구의 밑바닥이 빨리 드러나는지, 누가 성과상여금을 더 많이 받을지, 최종적으로는 누가 더 빨리 승진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업무적으로는 개인별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는 작업이지만, 실제로는 권한보다는 책임이 더 분명해지는 일이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그만큼 은밀히 진행되기도 한다.

마을민주주의과는 모두 4개의 팀이 있고, 과장 1명, 팀장 4명, 직원 15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내가 속한 마을기획팀은 모두 4명이다. 팀장을 제외하고 세 명이

서 업무를 나누어야 한다. 6급 승진을 앞두고 있는 15년차 양주임과 8년차 나, 그리고 1년차 신규가 한 팀이다. 우리는 업무를 놓고 회의를 시작했다. 양주임은 공약사업 관리, 성과 관리와 같은 업무를 하겠다고 했다. 선배라서 그런지 자기 의견이 분명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 어떤 사안에 대해 자기 입장을 분명히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양주임은 그런 성격은 아니었다. 경력으로 보면 양주임은 업무의 추진방향 설정과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의 큰 업무를 맡아 팀을 이끌어야 했지만, 양주임이 하겠다는 일은 시장까지 보고가 되며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재편집 하는 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나는 그건 그대로 인정해줬다. 양주임은 그걸 원하고 온 것일 테니까. 남은 건 나와 후배의 몫이었다.

“하고 싶은 일 있어?”

나는 물었다.

“제가 뭐 아나요.”

후배는 답했다.

후배는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해달라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굼직한 일을 거의 가져왔고 후배는 일에 필요한 자료조사와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나는 일을 잘 하고 싶었다.

### 3.

시장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업무보고는 외부에서 온 시장과 내부에서 버터낸 공무원들 간의 탐색전이자 기싸움의 장이었다. 첫 대면에서 기선을 잡지 못하면 시장이 임기 내내 공무원들에게 끌려다니거나 공무원이 시장에게 치이게 된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신임시장이 매우

의욕적이라 보고회장은 고성이 그칠 날이 없으며, 어느 부서장은 보고회 준비 때 문에 잠도 설치고 입맛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

“마을기획팀 직원들, 잠깐 회의 좀 하지”

과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팀장을 포함한 우리팀 전원이 참석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과 업무보고인데, 보고를 어떻게 하지?”

과장은 남의 일 문듯 말했다.

“보고는 크게 두 파트로 하시죠. 추진방향과 주요 업무 두 세 가지 정도만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니지. 시장님이 취임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나? 뭔가 구체적인 걸 들고 가야지.”

과장은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다.

“네. 맞는 말씀인데요, 일이란 게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일 이 좀 추상적이라 검토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팀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팀장이 보고할 거야?”

“네?”

“자네가 보고할 거냐고?”

“보고는 당연히 과장님이 하셔야...”

“그러니까. 시장님 보시는데 보고를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지? 구체적인 걸 들고 가야지. 안 그런가? 자기가 안 한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나?”

과장은 팀장을 노려보았다.

“과장님.”

내가 말했다.

“이 일은 과정이 중요한 일입니다. 과정을 챙기려면 팀장님 말씀처럼 시간이 필요하니, 일단은 간략하게만 보고하시고…”

“무슨 소리야.”

과장은 말을 잘랐다.

“과정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실습하나? 연습생이냐고?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거야.”

나는 행정을 말하고 있는데, 과장은 정치를 말하고 있었다. 과장은 계속 말했다.

“다음 분기 때 실적도 제출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뭐라도 해야 시장님 체면이 살지. 나도 그렇고.”

“그러면…”

팀장이 말을 이었다.

“비전선포식을 하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사업을 하나까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시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 멋진 슬로건 같은 것도 하나 만들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는 그 한 마디에 김팀장의 과거 이력이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정치를 말하는 과장과 비전선포식을 말하는 팀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들과 일해야 했다.

“그거 괜찮네. 한 번 추진해봐. 나도 그렇게 보고할 테니.”

과장은 짧게 말했다.

“과장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인데 무슨 비전을 선포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러니까 더더욱 해야지. 그래야 비전을 공유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추진하지. 안 그런가?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고만 하는 거야.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일단 팀장 말대로 하자구.”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민주주의는 아직 뜬 구름 속에서 내려올 줄 몰랐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마을 민주주의 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마을민주주의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장님의 제1번 공약인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성공적인 공약 사업 이행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다음 달 내로 ‘풀뿌리 민주주의 부활을 위한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 약 1,000명을 초대하여….”

“잠깐만요.”

시장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민주주의가 죽었나요?”

“….”

“부활이라고 하니까 민주주의가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과장님,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이 물었다.

“….”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결과가 불만족스럽더라도 용인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구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보고서에는 비전선포식에 대한 사항만 있고, 이 일을 왜 하는지, 뭐가 중요한 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다시 보고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일을 그냥 애

들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공약사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가 좀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4.

“그래서 시장이 ‘더 잘 해라’ 그거 말고 다른 말은 안 했어?”

나는 절박하게 물었다.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후배는 대답했다.

“하, 참...”

나는 술잔을 비웠다.

“왜 그러세요?”

“그런 말 누가 못 하나? ‘더 잘 하세요’ ‘우리사회를 더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곳으로’. 정말 말이면 다 되는 줄 아나.”

“하하하하”

후배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요.”

“너 이제 1년 됐지?”

“네.”

“해보니 어때? 일이 쉬웠어?”

“아니요. 전 공무원이 이렇게 일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하루 종일 민원 전화 받다 시간 다 가요. 돈 쓰는 건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럼 6시 땡 하고 그냥 가지 왜?”

“어떻게 그냥 가요? 일이 쌓였는데. 그리고 뭐 그렇게 제출하라는 게 많아요? 그거 하느라 탄 걸 못 하겠어요. 뭐 좀 할라 그러면 전화오고, 자료 내라 그리고, 팀장님은 이거 시키고, 과장님은 저거 시키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간단한 건

팀장님이 좀 해도 될 텐데.”

“너, 방금한 그 말 팀장님한테 일러도 돼?”

“주임님, 정말 이리시기예요? 오늘 술값 주임님이 내실 거예요?”

“알았어. 미안해. 그럼 니가 사는 거니까 오늘은 많이 먹어야겠네. 사장님, 여기 삼겹살 2인분 더 주세요.”

“주임님,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응.”

후배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몇 점 남지 않은 고기가 타지 게 집계를 재빨리 움직였다. 홀로 남게 되자 주위가 열렸고 다른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나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두 명이 옆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를 엿들었다.

“니 이제 얼마됐노?”

“한 2년 됐지야.”

그들은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니는?”

“니보다 1년 더 묵었지. 3년”

“올해는 될 것 같나?”

“나도 잘 모르겠다. 해봐야지.”

그들은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다. 부딪힌 술잔은 깊게 울렸고 울림은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각자의 빈 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술이나 먹자.”

한 잔. 또 한 잔. 그리고 한 잔.

“아, 씨발.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할 걸. 무슨 고시도 아니고 9급 공무원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렵노.”

“니는 그래도 합격 근처라도 갔지? 나는 2년째 과락이다. 영어 때문에 계속 물

먹고 있다.”

“공부하면서도 자꾸 드는 생각인데, 공무원 되는데 영어가 왜 필요하노? 안 그렇나? 내 삼촌도 광역시에서 공무원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영어 한 마디 안 썼다고 하더라. 근데 이걸 왜 시험에 넣냐 말이다.”

“어쩔 수 있나. 세상이 그런 걸.”

“공무원들 일하는 거 보면 진짜. 수학, 과학, 사회를 공무원 시험에 넣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나 제대로 좀 하지.”

“그렇게 욕하지 마라. 우리도 공무원 될지 모르는데.”

“짜증나잖아. 1948년 광복 이후로 미군정에서도 해방됐잖아. 근데 왜 영어를 시험에 넣고 지랄이노.”

“야, 45년.”

“뭐가?”

“48년이 아니고 45년 이라고, 병신아.”

“이 새끼가 누굴 가르치노? 니 지난 번에 국사 몇 점 받았는데? 니 갑오개혁이 언제 일어났는 지나 아나?”

“1895년.”

“오, 이 새끼. 공부 좀 했네.”

“차라리 그때 신분제가 안 없어졌으면 지금 이렇게 밥걱정은 안 하고 살았겠지?”

“왜? 노비로 살면서 무상급식 먹을라고?”

“나쁘지 않지. 이왕이면 솔거노비로.”

“그래도 난 지금이 더 좋다.”

“뭐가 더 좋은데?”

“자유가 있잖아.”

“자유가 뭔데?”

“자유. 그거 간단하지.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진다? 단순해서 좋네.”

“단순한 게 좋더라. 뭐든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나?”

“당연하지. 그래도 우리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선택했잖아.”

“듣기 좋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건 책임만지면 되겠네?”

“그렇지. 우리 꼭 책임지자.”

“알았다. 우리 건배하자. 자유를 위해서.”

후배가 다시 돌아왔다. 둘이 있게 되자 주위가 다시 한 점으로 모였다.

“주임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 새 소주 한 병을 다 드셨네요.”

“어, 그냥 술이 좀 먹고 싶네.”

나는 연거푸 소주 두 잔을 마셨다.

“넌 니가 공무원인 게 좋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그렇긴 하지.”

“주임님은요? 싫으세요?”

“반은.”

나는 술을 한 잔 더 마셨다.

“그나저나 축하한다.”

“뭘요?”

“범죄 저지른 거.”

“제가요? 뭘 잘 못했는데요….”

“넌 주범은 아니지만 공범 정도는 되겠네. 나는 신규 때부터 주범이었거든. 여기 시스템이 그래.”

“헐. 그게 무슨 말이죠? 주임님.”

“좀만 더 일해 봐라. 무슨 말인지 알 거다. 그런데 너 갑오개혁이 언제 일어났

는지 알아?”

“1894년이요. 제가 또 국사는 잘 했거든요.”

후배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시험 공부하는 거 안 힘들었어?”

“힘들었죠. 노량진 그 좁은 고시원에서 남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죽으라고 공부만 했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직장에서도 힘들면 어떻게 할래?”

“설마 그때보다 더 하겠어요. 전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거예요.”

후배는 웃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술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후배는 누군가와 계속 카톡을 주고받았다.

“주임님, 죄송한데, 저 먼저 가볼게요. 친구들이 근처에서 기다린다고 해서요.”

“응. 그래 먼저가. 내일 보자.”

“네. 주임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홀로 남은 나는 소주를 한 병 더 시켰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나는 그 찌릿함이 좋았다. 속까지 시원해지자 주위가 열렸고, 옆 테이블에서 하는 대화가 다시 들어왔다. 나는 풀지 못한 문제의 답을 구걸하는 사람처럼 귀를 기울였다.

“집에선 뭐라더노?”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다. 니는?”

“그냥 모. 안부만 확인하고 끊지. 길게 얘기해봐야 좋을 게 모 있나.”

그들은 웃으며 술잔을 부딪쳤다. 부딪힌 술잔은 소리가 없었고 침묵은 깊은 울음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서로의 빈 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술이나 먹자.”

한 잔. 또 한 잔. 그리고 막 잔.

“아, 좇갈네 진짜.”

“야, 욕 좀 그만 해라.”

“내가 모 하고 싶어서 하나. 야, 나도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힘?”

“그냥. 뭐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사는 거 꼭 좀비 같다.”

“조금만 참아라. 올해 붙으면 되잖아.”

“그런 게 아이고. 아, 머리 아파 죽겠다.”

“니 갑자기 왜 이리노? 어디 안 좋나?”

“야, 우리 거기 가자”

“...”

“왜 가기 싫나? 싫으면 빠져라. 혼자 갈라니까.”

“아이다. 가자. 우리가 갈 데가 거기밖에 더 있나.”

## 5.

“주임님, 이거 좀 알려주세요.”

후배가 말을 걸었다.

“응. 뭘데?”

“팀장님이 아침에 계획서 한 번 만들어보라고 하셨거든요. 마을민주주의 관련 조사 계획서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 계획서 만들어 봤어?”

“아니요.”

“음. 계획서를 만들던 뭘 하든, 일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할 게 있다.”

“뭘데요?”

“이 일을 하는 이유. 계획서는 미래의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 그럼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테고. 그 이유는 대부분 ‘문제해결’이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처방전이 계획서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책임의사도 너고 책임약사도 너라는 거 잊지 말고.”

“아, 이유를 먼저 찾아라. 그 다음엔 뭘 해요?”

“이유를 찾았으면 약을 만들어야지. 제조법도 간단하다. 첫째, 범을 찾는다. 둘째, 유헤원칙에 의해 간략한 개요를 만든다. 셋째, 개요를 뼈대로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만든다. 넷째, 완성된 계획서를 며칠 동안 묵혀둔다. 다섯째, 계획서를 다시 들여 다보고 수정한다.”

“...”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하자. 일단 계획서의 목차부터 만들어봐. 목차는 설계도와 같으니까 중요한 작업이야.”

“아,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유를 찾는 거.”

“그래. 일을 하다보면 흔들리는 때가 오거든. 그때 널 지켜줄 수 있는 건 하나 뿐이야.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고맙습니다.”

후배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자, 이론은 이정도 하고 다음은 현장실습 한 번 해볼까?”

“네.”

우리가 가는 곳은 지역의 한 활동가의 사무실이였다. 그곳의 대표는 명문대를 나온 50대의 여자였다. 그녀는 20대의 어린 나이로 시의원에 도전해 실패했고, 30대에는 시장직에 출마해 낙선했으며, 40대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 참패했고, 50대가 되어서야 법원에 나아가 이혼소송에 승리할 수 있었다. 현재는 직원 하나 없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지역의 이슈를 실은 월간지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이 대표가 대표로 내세운 이름이었다.

“안녕하세요. 사람 좀 찾으러 왔는데요.”

나는 손님인 척 물었다.

“여기 사람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녀는 투명스럽게 대답했다.

“지금 말하는 건 사람이 아닌가요?”

“네. 사람이 아닙니다.”

“영구가 ‘영구 없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좀 나와 보세요.”

그녀는 사무실 한쪽에 설치된 자바라를 헤치고 나왔다.

“아, 장주임. 자네 왔나?”

“네. 그 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근데 빈손으로 온 건 아니지?”

“아, 네. 여기.”

후배는 들고 온 박카스를 내려놓았다.

“누구야? 자네가 데리고 있는 직원인가?”

“데리고 있긴요 제가 뭐라고. 같이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운 일을 맡게 됐는데 좀 막막해서요.”

“시장 공약사업? 풀뿌리?”

“네. 쉽지 않네요.”

“아직도 민주주의 타령하는 사람이 있나?”

“민주주의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최악은 아니지.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뭐가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그 동안 많은 일들을 벌렸잖아? 지역 유지들 완장

채워주느라 세금까지 낭비하면서 말이야. 그 꼬라지를 옆에서 직접 본 소감  
말일세?”

“정확히 말하자면 옆에서 본 게 아니라 직접 당했죠.”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한계가 분명했죠.”

“처음부터 아니면 중간부터?”

“처음부터요.”

“왜지?”

“답이 내려진 상태에서 일을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대표는 안경 너머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나?”

“네.”

“꽃이 먼저인가 뿌리가 먼저인가?”

“뿌리요.”

“뿌리는 꽃에게만 있는 게 아니지. 사람에게도 있어야지. 난 그게 민주주의라  
고 생각하네.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뿌리를 내려주는 거. 근데 이 놈의  
나라에선 그게 안 돼. 뿌리를 내릴 생각은 안 하고 화려한 꽃만 피우려하거든.”

“뿌리를 내린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사람들이 왜 정치에 관심이 없고, 투표율도 낮은 줄 아나?”

“바뀌는 게 없어서요.”

후배가 대답했다.

“맞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나?”

후배와 나는 입을 벌렸지만 말을 내뱉지는 못했다.

“자기 삶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된다면? 굳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니까 더욱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야죠.”

나는 말했다.

“그러니까 더욱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대표는 되받았다.

“그게 뭐죠?”

나는 물었다.

“힘. 사회적 의제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힘. 개인이 그런 힘을 발휘한다면, 그는 사회에서 환영받을 걸세.”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주민참여’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뿐이네.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 같지만 실은 정치인들의 힘을 더 강화할 뿐이지. 기껏해야 ‘권력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만 한단 말일세.”

“그러면 그 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정치인이네. 원래 정치인들은 그냥 좋은 말만 하면 돼. 수습은 디테일에 강한 공무원인 하는 거고. 자네가 좀 더 고민해보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

“무엇을요?”

“보이지 않는 것을.”

“….”

후배와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대표의 말은 도움이 되었다. 적어도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내가 찾아야 한다.

“어땠어?”

나는 후배에게 물었다.

“솔직하시던데요. 듣기 좋은 소리만 늘어놓지도 않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도 말씀해주셨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가?”

“환영받는 거, 힘을 준다는 거, 보이지 않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후배는 어느새 공무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주임님은요?”

후배가 물었다.

“내가 아침에 한 말 기억하니?”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요?”

“그래. 그 답을 찾은 것 같아?”

“네. 조금은요.”

“그럼 ‘왜’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러 가자.”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항상 그랬다. 일이 어느 정도 구체화 단계에 들어가면 사업의 취지 같은 건 중요하지 않게 된다. 애당초 취지가 좋지 않은 사업 같은 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구체적인 것에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이건 전적으로 행정의 영역이다. 모든 게 다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 안타깝지만 일은 항상 조건들 속에서 해야 한다. 징징대지 말자.

“주임님, 저기 무슨 사고 났나 봐요. 경찰차가 여러 대 있어요.”

“가 보자.”

그곳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고시촌이었다. 몇 해 전 내가 인권업무를 담당할 때 관내 고시촌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고, 고시원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보고를 했었다. 그때 나는 고시촌 내에 있는 모든 고시원 대표에게 환경개선을 요청하는 행정처분을 한 기억이 났다.

처분은 아직도 처분되 지 않은 듯했다.

사고는 고시원의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것 같았다. 경찰관들이 들 것 위에 시체 두 구를 신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시체에 눈을 떼지 못한 채 경찰과 기자의 말을 엿들었다.

“김기자, 이거 크게 보도하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시장님도 새로 당선되고 서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런 기사 크게 내보야 좋을 게 뭐 있나요.”

“근데 어떻게 죽은 거래요?”

“차에서 연탄을 피웠나봐.”

“연탄이요? 요새 연탄 때는 사람도 없다는데, 참 이런 사고에는 잘도 사용되네.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거. 외제차를 렌트했더군. 벤츠.”

“벤츠요? 죽는 마당에 왜 그렇게 비싼 차를.”

“나도 모르지.”

“유서는요?”

“있지.”

“뭐라고 써어있어요?”

‘자유롭게 살았다’

## 6.

테이블에는 과장, 팀장, 그리고 마을기획팀 직원이 모두 있었다. 그들은 내가 만든 계획서를 검토 하고 있었다. 나는 오타를 몇 개 발견했다.

“추진방향을 보면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는 걸로 되어있네? 이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

과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도 과장님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팀장이 맞장구쳤다.

“이렇게 하면 일이 중간에 틀어질 수도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과장이 물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대답했다.

“내가 공무원 생활 30년 한 경력으로 보건데,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되네.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 듣기에는 좋지. 그런데 그 바쁜 사람들이 과연 이걸 제대로 할까?”

과장의 말은 나에게 묻는 것으로 들리지 않았다.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일은 시에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네. 그래야 일하기도 쉽고 실적 내기도 쉽네.”

과장은 거듭 말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팀장이 끼어들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없어집니다.”

나는 말했다.

“목적이 없어지긴 왜 없어져? 목적은 그대로 있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다만 이 일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강좌도 열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가을쯤에는 다 같이 어울리는 축제도 하고. 그래야 사업을 1년 동안 잘 돌릴 수 있지.”

과장은 한 번 확인한 것을 다시 확신하고 있었다.

“그럼 그 계획에 주민들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긴 어디에 있어? 같이 참여하는 거지.”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짠 계획이에요?”

“왜 일방적이라고 생각해? 동별로 돌면서 설명회도 하고 토론회도 열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되지. 일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과장은 확인하고 확신한 것에 마침표를 내려찍고 있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그렇게 해서 될 일인지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탐장은 자꾸 끼어들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주임도 잘 알잖아? 주민들한테 맡기면 결과가 어떤지.”

“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 번 해보자는 거죠. 과장님은 일은 연습이 아니라 고 하셨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은 연습이고 실험입니다. A라는 실험에 실패했다면 B라는 실험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B라는 실험이 본 계획서에 담겨있나?”

“네.”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해보게.”

“공공의 영역을 줄이고 민간에게 권한을 부여하자.”

“왜지?”

“그래야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해요. 왜일까요? 자기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안 해도 시청에서, 경찰서에서, 소방서에서 할 거라 믿으니까요. 이런 현상이 사회 전체적으로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 1명당 공무원 1명을 붙여야 할 겁니다.”

“무슨 권한을 주자는 건가?”

“자기들이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요. 예를 들어, 10개의 마을이 있다면 마을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하나씩 정합니다. 그러면 10개의 의제가 생기겠죠. 그 10개의 의제를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주민뿐 아니라 우리 시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합니다. 그리고 하루 날을 정해서 광장 같은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찬반 의견을 말한 후 투표를 합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의제를 시의회로 보내서 의결토록 한 후에 다시 시장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 일을 추진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해보는 거죠. 해보야 사업을 없애든 개선을 하든 할 게 아닙니까. 주민들이 못 따라온다고요? 그게 온전히 주민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 여태껏 추진해온 풀뿌리 민주주의 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주민들에게 틀과 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권한을 주면 스스로 움직일 겁니다. 사업기간도 1년이 아니라 4년 동안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굳이 1년마다 사람을 바꿔서 할 이유가 있나요? 매년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물론 시장은 좋아하겠죠. 새로운 표가 생기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행정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면 안 된다는 걸 모르나?”

“이 일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정을 잘 챙기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람이 참여했고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업이 추진됐는지를 따지는 실적 중심으로 가면 오히려 일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에 따르는 게 뭐가 잘못된건가?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정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정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네.”

“하지만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왜 하는지는 알게 될 겁니다. 그 과정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있을 거구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이 일의 핵심입니다.”

“무슨 변화 말인가?”

“자기가 들러리가 아니라는 것. 자기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위안과 삶을 계속 살아나갈 용기를 주는 게 이 사업이 다른 풀뿌리 민주주의 사업과 다른 점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에게 자기 자리를,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거죠.”

“너무 감상적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감정이 먼저고 이성은 그 다음입니다. 이성이라는 화려한 그릇이 있다한들 비어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시의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한 의제를 통과시켜준다고 어떻게 장담하나?”

“법으로 풀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이 정한 의제는 시의회에서 가타부타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그건 시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일 아닌가?”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잘 대변하는 일이기에 시의회를 존중하고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지. 그러면 그 조례를 시의회에서 어떻게 통과시키나?”

“마을마다 일종의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일을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약속을 만드는 거죠. 그 약속을 헌법이라 부르고 10개의 마을이 만든 헌법을 품을 수 있는 하나의 선언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의 서명을 받아 선언문을 시의회로 보냅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여론이 달아올랐을 겁니다. 정치인은 항상 여론에 약합니다. 그걸 이용하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거창하구만.”

과장은 말했다.

“이상적이네.”

팀장도 따라했다.

“철저하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제대로 안 할 거면 시작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참담하게 실패를 해봐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구요. 이런 추상적인 일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반박했다.

“알았네. 일단 시장님께 보고해 보세.”

과장은 자리를 떴다.

## 7.

‘이제 새로운 시정이 시작되었으니 전 직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해주기 바람. 일은 계획만큼이나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전 부서에서는 공약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분기별로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기 바람’

시장은 지시사항을 내렸다. 부시장은 국장들을 모아 시장의 지시사항을 다시 한 번 지시했고, 국장들은 과장들을 모아 부시장의 지시사항을 또 지시했으며, 과장들은 팀장들을 모아 이 모든 지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지시했고, 팀장들은 팀원들에게 과장들의 지시사항을 최종적으로 전달했다. 지시사항은 단계를 거치면서 커지고 작아지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지시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졌다. 시계는 12시를 지시하고 있었다.

나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오전 중에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 모니터를 다시 켜고 새로고침 버튼을 눌렀다. 공문이 20개나 와 있었다. 이렇게 많은 공문이 몇 시간 만에 오는 일이 흔한 것은 아니었으나 공문의 내용은 흔한 것이었다. 20개의 공문은 한 가지 메시지를 말하고 있었다. ‘실적 제출 바람’

나는 오후 내내 실적을 만들었다. 20개의 실적을 다 만들고 내 일을 하려고 하자 다른 일이 생겼다. 3일 뒤에 있을 간부회의에 사용할 회의자료를 서둘러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퇴근 후에 남아 자료를 만들었다. 나는 그날 하루를 내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일을 하며 보냈다.

다음 날 과장은 회의를 소집했다.

“어제 시장님 지시사항 다 보셨죠? 다들, 본인의 업무 관리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곧 있으면 시장님이 취임한 지 1분기가 되는데, 언론사 인터뷰도 있고 여기 저기 다니셔야 하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잘 준비해주세요. 일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그 1년 중 분기별로 4번의 실적을 보고해야한다는 걸 늘 명심해주세요.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은 바쁜 사람이다. 다니는 곳이 많으며 다니는 곳마다 사람이 있고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해야 하는데, 시장이 잡담을 할 수 없으니 일 얘기를 해야 한다. 나는 시장이 사람을 만날 때 병어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도 구체적인 실적을 만들고 있다. 자기를 선출한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보고하는 것. 나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다.

나는 갑자기 신규 때가 생각났다. 그때 같은 과의 남자 주임님이 긴급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팀별로 달라고 했다. 나는 우리팀은 특별한 게 없다고 말했다.

‘만들어서라도 내’ 나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날 나는 깨졌다.

아침 회의석상에서 과장이 한 말은 옳았다. 돈을 1년 내에 써야 하니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맞고, 일이 잘 돌아가는지 관리해야 하니 분기별로 점검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그 1년 동안 두 번의 인사이동과 두 번의 승진심사가 있다는 걸 과장은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과장은 말했다.

“일은 시스템이 하는 거야.”

나는 물었다.

“그럼 사람은 무엇을 하나요?”

과장은 자신 있게 말했다.

“시스템에 따라 일을 하지.”

“방금 일은 시스템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대들었다.

“그런 말이 아니지.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의 뼈대는 시스템에 따른 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길이 먼저고 사람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그 길, 그러니까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죠?”

“아, 그야. 사람이 만들었지.”

“그럼 시스템은 스스로 생성된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거네요?”

“...”

“예를 들면, 시스템에 의해 조례안을 다음 주까지 공고해야 하고, 시스템에 의 해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 달에 해야 하는데,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공고도 안 되고, 설명회도 안 된다는 거네요. 그건 곧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관련자들은 승진은커녕 징계를 받게 될 거구요?”

나는 내뱉었다.

“그 참. 옷자고 한 말에 왜 그렇게 달려들고 그래?”

“제가 언제요? 과장님이 시스템에 인격을 부여하니깐 진짜 그런가 하고 확인 차 여쭙 본 겁니다. 시스템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시스템도 일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 시스템도 결과에 책임을 지나 하구요.”

일을 하는 주체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끝이 났으나,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려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온 팀장은 과장에게 보고했다.

“방금 시장님께 보고 드렸는데, 과장님의 안과 장주임의 안을 절충해서 가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과장은 괜찮다는 듯 말했다.

논의는 시작되지 못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8.

사무실은 여느 때와 같이 평범했다.

“내일이 회의인데, 그것도 안 챙기고 뭐했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요.”

“최주임은 뭐 했어? 신입한테 이런 것도 안 알려주고? 시장님 오는 회의 아니야? 나 망신당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옆팀에서 나는 소리였다.

“이거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감사에 걸려.”

“죄송합니다.”

“아니야.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감사당하는 건 내가 아니라 실무자인데 뭐. 가봐.”

과장은 다른 팀 주임에게 말하고 있었다. 담당이 기안하면 팀장이 검토하고 과장이 결재하는 품의제를 거쳐 일했는데, 실무자에게만 책임이 있고, 팀장과 과장에게는 책임이 없는 이유를 과장은 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과장은 우리팀 후배를 혼내고 있었다.

“장주임. 잠깐 이쪽으로 와보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

나는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아, 좀 안 맞네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내가 신규 때는 일이 안 무서웠어. 일이 팍팍 진행됐지. 내가 모셨던 분들도 다 내 능력 하나는 인정했거든. 자네 퇴임하신 황국장님 알지? 그 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네. 대단하신 분이긴 분이죠.”

“그럼. 내 자랑이 아니라 그 분도 내 실력 하나는 인정했다니까.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가서 잘 한 번 들여다 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황국장님 어떻게 알아? 모셨었나?”

“아니요. 모신 적은 없지만 같이 일한 적은 있습니다.”

후배와 나는 자리로 돌아왔다.

“표정이 왜 죽을상이야?”

“....”

“싫은 소리 들으니까 서러워? 여긴 직장이지 친목단체가 아니야.”

“....”

“이거 먹고 일해라. 당 떨어지면 몸에 안 좋단다.”

나는 후배에게 초콜릿을 내밀었다. 초콜릿은 달다. 이제 곧 후배의 서랍도 초콜릿, 사탕 같은 단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단 것이 채워지는 만큼 후배는 아파할 것이고 단 것이 줄어들수록 후배는 성장할 것이다. 후배는 어깨를 떨고 있었다. 나는 후배를 데리고 1층 카페로 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위에는 직원들이 많았다. 그들의 말은 내 귀에 들려왔고 나는 그것을 막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구요.”

“공무원이 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팀장님이 일하실 거예요?”

“직원들 있잖아.”

“팀장님이 실무하실 거 아니면, 계획서 만들고 행사도 직접 추진하실 거 아니면 일 벌리지 마세요.”

“왜 그래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전에 하던 일도 그대로 있어요. 신입시장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직원은 더 안 줘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해요?”

“지금 그게 중요해? 이 일은 주민들한테 좋은 일이잖아?”

“좋은 일 일이죠. 그런데 그 좋은 일을 누가 하냐구요? 일을 벌려놓으면 그 일이 알아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놀면 뭐하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이 실무할 거 아니면 일 벌리지 마세요. 노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은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과장님. 저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책임지고 승진시켜주세요야 합니다.”

“알았어. 걱정 말고 잘 해.”

“자꾸 판 소리가 들리니까 신경 쓰여 죽겠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직도 몰라?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승진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

그들도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다 올었어?”

나는 말했다.

“죄송합니다.”

후배는 대답했다.

“죄송은 무슨. 나도 울었다. 딱 한 번. 신규 때였는데, 전 직원을 대상을 하는 교육이 있었어. 나는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공문 보내고 게시판에 글 올리는데, 팀장이란 사람은 과장, 국장들한테 전화해서 교육에 안 와도 된다고 자기 다 챙겨드리겠다고 하고 있지 뭐냐. 아무튼 교육을 했는데, 내가 교육 참석 부를 못 챙겼어. 내 잘못이지. 그랬더니 팀장이 뭐라는 줄 아니? 자기가 그럴 줄 알았대. 이래놓고 일했다고 하나면서. 알았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던가. 정말 이 팀장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더라. 그때 옥상 올라가서 엄청 서럽게 울었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겨내진 못했지. 그냥 정신승리 같은 거 있잖아. ‘저런 선배는 되지 말자’”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추진방향. 그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

“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일을 했을 때 좋은 점을 적었잖아요.”

“그건 기대효과지.”

“뭘가 달라요?”

“추진목적, 추진방향, 기대효과. 몇 문장 안 되지만 그거 말 만들기도 엄청 어렵다. 목적이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라면, 방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효과는 목적인 대로 된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추진방향은 목적과 효과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일의 ‘한계’를 말하는 거야. 일을 하는 데는 시간, 돈, 사람 등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잖아.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 그 한계 내에서 중점적으로 하려는 것을 적는 거야. 듣기에 좋은 말을 적는 게 아니라. 말에 속으면 안 돼. 그러면 정말 힘들어진다.”

우리는 일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다시 말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제 그 행사 뭐야? 시청광장에 사람들 모여 있고 물차 같은 것도 있던데?”

“청소과에 오팀장 알지?”

“응.”

“가을맞이 도로변 물청소를 하는데, 그걸 위한 발대식 같은 거래.”

“별 걸 다 하네. 그냥 청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통장들 동원해서 머릿수 채우고, 5m도 못 움직이는 물차에 정치인 태워서 왜 그 쇼를 하는 거야?”

“왜 하겠냐? 그래야 시장 눈에 들지. 그래야 승진하고.”

“저 팀장이랑 일하는 직원들이 불쌍하다.”

“요샌 좀 어때?”

“짜증나 죽겠어. 내가 사회복지직이지 행정직이야? 그 일은 그냥 사람 모아놓고 행사하는 거잖아? 지금도 일이 쌓여있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너네 팀장 정말 왜 그러냐? 왜 없는 일을 만들고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가관이야. 뉴페이스를 보여줘야 시장이 좋아한대나 어쨌대나. 승진에 미친 것 같다니까. 그러다가 관내에서 저소득층 사건·사고라도 생겨봐. 자기가 책임질 거야? 내 책임이잖아. 지금도 불안해 죽겠어. 왜 내 일을 못하게 하나구?”

그들도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모으면 우리 시는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 분명했다.

## 9.

**일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과장과 나의 절충안은 결국 절충되지 못했고, 과장의 안대로 가고 있었다. 과장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긍정하지는 않았다. 나는 다시 이

유를 찾아야 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지난주에 열린 사업 설명회에서 찾기를 바랐다.

사업 설명회는 1부의 비전선포식과 2부의 사업설명회로 구성되었다. 나는 비전선포식 왜 다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고 무슨 비전을 선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보고는 내가 하지 않았다. 나는 추상적인 말들로 포장된 파워포인트와 홍보물을 만드느라 머리가 아팠고, 왜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을 하느라 다른 일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일은 이미 중간을 향해 가고 있었고, 과정이 중요한 사업은 벌써 결론지어지고 있었다. 행사는 잘 해야 본전이라지만 나는 내 본전을 찾고 싶지 않았다.

“사람은 이 정도면 많이 온 것 같네.”

과장은 말했다.

평일 오후 2시에 시청 강당에 올 사람은 없었다. 나는 지난 2년 동안의 자료를 뒤져, 시청과 조금이라도 관계있는 사람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고,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 ‘인원 동원’이라는 말은 빼고 점잖게 홍보를 요청했다.

“행사는 사람만 많이 오면 성공이야.”

과장은 또 말했다.

행사는 사람만 많으면 성공이라는 말은 옳은 말인지도 모른다. 행사는 그래야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인사말이 이어졌고 곧이어 과장의 사업설명회 시작됐다. 과장은 거창한 말들을 쏟아냈다. 설명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거창한 말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방송과 신문은 거창한 말들을 날랐다. 언론보도를 확인한 다른 지자체에서 문의전화가 쇄도했고 벤치마킹을 오기도 했다. 나는 사업설명회 이후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여 실적보고 자료를 만들었다.

시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실적보고회에서

우리과의 사업설명회는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연이어 진행된 시의회 업무 보고와 주민과의 대화도 설명회 덕분에 원활히 진행됐다. 팀장과 과장은 다음 분기 실적도 잘 챙기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실적을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과장에게 말했다.

“과장님, 이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야?”

“왜 일을 이렇게 서두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시다. 지금이라도…”

“자네 말 무슨 말인지 아네. 그런데 난들 어떻게 하나? 세상이 그런 걸. 그렇게 해야 잘 한다고 말해주는데. 일단 이렇게 1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개선해보세. 무엇보다 시장님이 좋아하시지 않나? 그러면 된 거네.”

나는 알겠다고 말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돈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었다. 사업의 내용은 대부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영화보기, 여행하기, 육아정보 나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시청에서 만든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사업의 성과는 주민들이 제출한 말과 글, 사진으로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예쁘게 포장되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활동은 전혀 공적이지 않았고 그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과장은 틀리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틀린 건 나였다. 일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하는 것이었다. 나는 개인을 뭉개어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정의 그 힘이 무서웠다. 그렇게 해야만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내가 공무원이라는 게 싫어졌다.

나는 갑자기 하늘을 보고 싶었다. 하늘은 옥상을 내려다보는 곳에 있었다. 옥

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강당이 눈에 띄었다. 굳게 닫힌 강당의 문 앞에는 웃으며 서 있는 직원들이 있었다. 문이 열리자 밖에서 기다리던 직원들은 강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들은 공무원증을 들고 기계 앞에 줄을 섰다. 줄은 길고 가지런했다. 그들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해 참석하지도 않은 교육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당장 하늘을 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나는 옥상 문을 밀치고 뛰쳐나갔다. 파란 하늘이었다. 나는 살 것 같았다. 나는 나의 공무원증을 꺼내 보았다. 손바닥보다 작은 공무원증에는 생년월일, 소속, 직급 그리고 돈을 벌지 않던 시절의 내 얼굴이 있었다. 나는 네모난 플라스틱 속에 있는 내 얼굴을 손으로 닦았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닦았다. 얼굴 밑에 있던 내 이름 석 자도 보였다. 나는 내 이름을 소리 내어 읽었다. 하늘은 고요했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은 적막했고 하나만 켜진 형광등이 내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책상에 빈 종이를 올려놓고 연필을 들어 적어내려 갔다.

다음 해 1월, 나는 주민센터로 발령났다. 등·초본 등의 서류를 발급하는 게 내 업무였다. 사람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급하면 되는 사실적인 일이었다. 서류는 단순했지만, 서류를 신청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복잡했다.

서류를 떼기 위해 길게 이어진 줄은 현기증을 일으켰고 끝없이 몰려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사람에 대한 연민을 무디게 만들었다. 인간성을 나타내는 얼굴이 인간성을 잃게 만드는 현실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일이었다. 1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나는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다. 사람들은 내가 발급한 서류를 들고 가며 한마디씩 했다.

“공무원이 왜 저렇게 불친절 해?”

“사람 얼굴은 쳐다보고 얘기해야지.”

“내 세금으로 일하면서 건방지구만.”

나는 동장실에 불려갔고 감사실에 소환됐다. 쉬운 일은 없었다.

주민센터에 온 지 6개월이 되어갈 무렵, 시청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수상결과를 발표했다. 상의 목록은 길었고 화려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상을 받은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사업’이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였고, 아이টে이 좋았으며,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수상의 주요한 이유였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해당 부서장과 팀장 그리고 양주임은 승진을 했다. 시장 또한 각종 언론 인터뷰와 사람들의 칭찬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그해 우리시청은 국가에서 수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을 받았다.

10.

“주임님, 잘 지내셨어요?”

후배였다.

“응. 너도 잘 지냈니?”

“네. 오늘 뭐 하세요? 약속 없으면 저녁이나 같이 먹어요.”

“그렇까?”

우리는 자주 가던 고깃집에서 다시 만났다.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며 술을 주고받았다.

“좋네.”

“뭐가요?”

“노동이 끝나고 마시는 술이.”

“오? 주임님 말투 바뀌었다. 전에는 늘 ‘근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노동’이라고 하시네요.”

“그랬나?”

“네.”

나는 아무 말 없이 한 잔 더 마셨다.

“주민센터는 어때요? 할 만해요?”

“응. 시청보다 좋아.”

“뛰가 좋은데요?”

“거짓말을 덜 해도 돼.”

“거기 가면 승진도 잘 안 된다고 그러던데…”

“난 내가 승진을 원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승진은 내가 아니라 조직이 원한 것이었고 승진을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더라. 그래야 조직이 돌아가거든. 웃기지? 공적인 조직이 사적인 욕망으로 움직인다는 게.”

우리는 술을 몇 잔 더 주고받았다. 후배는 갑자기 웃었다.

“왜 웃어?”

“그냥 웃겨서요. 주임님 이름이요. 장무명. 이름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

나도 그냥 웃었다. 장무명. 그것은 내 이름이었다. 나는 기분이 묘했다.

“주임님,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왜요?”

나는 후배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래 전에 찾아놓았다. 대의와 명분, 가치와 신념으로 엮은 말을 오래 전부터 연습해두었다. 나는 말했다.

“공무원이잖아.”

“에이, 그게 뭐예요.”

나는 한때 누구보다 속물이었다고, 속물이 되는 조건으로 저질렀던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고 벗어나기 싫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주임님 그렇게 돼는 거 보니까, 전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선 일만 해야지.”

우리는 한 병 더 마시고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바람이 불어 추웠다. 나는 술을 한 잔 더 먹고 싶어 치킨 한 마리를 샀다. 나는 손에 든 치킨을 보며 생각했다. 치킨과 나는 어쩌면 신세가 비슷할지도 모른다고. 집단으로서의 닭은 종의 탄생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승리자이지만 개체로서의 닭은 철저히 패배하여 내 손에 들어 있다고. 그래도 닭은 인간이라는 보이는 적에게 패배했으니 나보다 상팔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맞닥뜨릴 나의 앞날이 두려웠다. 다음 날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나는 아팠다.



# 특선

경기도 이천시 진가초등학교  
김대흥



## 수상소감

마침내, 두 갈래 길 중 가지 않았던 아름답고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길로 들어선 기분입니다. 남은 한 길로 이제 비로소 들어섰으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무지게 걸어 볼 생각입니다. 맑게 갠 하늘을 보니 눈물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왔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시간에.

## 관찰아

“ 쌤! 우리 엄마 몇 살인지 알아요?”

소영이 교실 앞문을 열고 들어오며 뜬금없이 묻는다.

“우리 엄마는 스물여덟 살이고, 우리 아빠는 쉰 두 살이에요. 12월 9일에 우리 엄마 온대요.”

소영이 목소리가 풍선을 매단 듯 잔뜩 부풀어 올랐다.

“엄마가? 베트남에서?”

베트남이란 말이 소영의 해맑은 재잘거림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 나왔다. 소영은 다문화 가정 자녀였다. 엄마는 소영과 동생 둘을 두고 오래전에 집을 나갔다고 했었다.

“비자 때문에 베트남에 갔었는데 비자가 나온대요.”

소영이 입에서 비자라는 말이 일상 언어처럼 나왔다. 결혼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은 여자가 비자 때문에 본국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게 의아했다. 그렇다고 그걸 내색할 수는 없었다.

“우리 소영이 좋겠다.”

소영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집 나간 엄마가 돌아온다니 함께 기뻐할 일이다. 소영이 체구는 제 또래에 비해 한두 살은 어려 보이게 왜소했다. 왜소한 체구에 비해 말과 행동이 야무지게 영글었고, 어른들 앞에서는 넘치는 애교로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내 앞으로 엉덩이를 쏘옥 내민다. 소영이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내 직업은 초등학교 방과 후 미술 강사이다. 주1회 2시간씩, 시간당 3만원의

강사료를 받고 미술을 가르친다. 해마다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강사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채용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다. 벌써 5년째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 별 면접 날자가 겹치지 않게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요령도 생겼다. 하루살이 같은 강사 생활 전에는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머지않아 승진도 보장되었고, 수업 실력도 인정받는 중등 미술교사였다.

내 나이 마흔 일곱 살에, 내 딸 수빈이가 잡초 한 포기 없이 잘 가꾸어 놓은 내 삶의 초원에 불을 질러버렸다.

딸은 나무랄 데 없이 맑고 깨끗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다. 중·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도 상위 1%를 벗어난 적이 없을 뿐더러 각종 경시대회를 석권하는 영재였다. 전국 고등학생 동아리 활동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연극동아리 주연을 맡을 만큼 사회성도 뛰어난 아이였다.

그래서 방심을 했었나보다. 동아리 친구 하나가 괜한 소문을 퍼뜨렸고, 그래서 죽고 싶다는 걸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렸다. 무슨 소문이나고 묻지도 않았다.

“엄마, 친구 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시무룩하던 목소리도 예사로 넘겨 버렸다. 그렇게 나간 딸이, 친구가 사는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다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는 쓰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다.

영정사진 틀 속에 수빈이 해맑게 웃고 있다.

“우리 수빈이 어디 있어?”

나는 남편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나는 수빈이 들을 것 같아 소리 내어 울지도 못했다. 벽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고장 난 수도꼭지처럼 씌 없이 줄줄 눈물만 흘렸다. 울다가 지쳐 잠이 들고, 잠 속에서 “엄마!”하고 수빈이 부르는 소리에는 벌떡 일어나 또 눈물을 쏟았다.

테이블에는 직장 동료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육개장이 담긴 일회용 국그릇에 밥을 말면서 그들은 내 눈치를 살폈다.

‘자살했다며?’

‘부모는 착한 사람들인데’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대체 왜 그랬대?’

그들은 식사를 하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슬픔이라는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시간에 그들의 화두는 호기심이었다. 수빈이 사진을 멍하게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왔다. 화장기 하나 없이 맨발이었다. 죄인처럼 잔뜩 긴장한 얼굴의 담임이 빈소에서 수빈이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푹 숙인 채 소리 내어 울고 있다.

“그만 하세요. 수빈이 잠들었어요. 자게 내버려 두세요.”

내가 제자 사진 앞에서 영영 소리 내어 우는 선생님 손을 잡고 달래 주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구들도 팔짝팔짝 뛰면서 어떡하면 좋으냐고 소리 내어 울었다. 담임 품에 안겨 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선생님, 우리 수빈이도 한번 안아 주세요.”

내 혼잣말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합창을 하듯 다 같이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수빈이 떠나고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학교에서 퇴직 처리 때문에 걸려오는 전화를 제외하고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무렵, 졸업 후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구가 전화를 했다.

“애, 네 딸 자살했다며? 왜 그런 거야? 혹시 학교서 왕따 당했니? 거봐, 너 유난스럽게 딸 챙겼다고 애들이 그러더라. 부모가 유난 떨면 애들 그런다니까. 듣고 있니?”

중간에 혹시라도 내가 말을 자르면 궁금한 것을 다 묻지 못할 것이다. 친구는 엄청 빠른 속도로 하고 싶은 말을 총알처럼 쏟아 놓았다.

“응 그래 고마워, 니들도 잘 지내지?”

친구가 니들이라는 말에 움찔 했다. 말 만들기 좋아하는 애들이 모여 앉아 한 뼉 통화 기능을 누르고 둘러 앉아 있을 것이다. 친구를 위로해 줄 목적으로 전화를 걸었을 애들이 아니다. 나는 뼈가 삭아 내리는 것처럼 매일 매일이 아픈데, 친구들에게 나는, 주변에 많지 않지만 드물지도 않은 자식 앞세운 엄마 중 하나였을 것이다.

울려도 몇 십번은 더 울리고도 남았을 해주 전화번호가 잠을 자고 있다. 고약 을 떠는 친구 번호에는 스팸을 걸었다. 그렇게 나는 자의로, 때론 타의로 황무지 에 갇혀 혼자가 되어갔다. 딸이 가면서 태운 내 삶 언저리는 새까맣게 재만 남았다. 그 자리는 이제껏 살았던 면적보다 크고 넓었다. 게다가 365일 마르지 않는 눈물로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 갔다.

내가 먼저 시켜면 황무지를 밟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함부로 그 황무지를 통해 내 안으로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황무지에 서너 번 가 을 다녀갔다.

콩알처럼 생긴 노란 들국화가 된서리에 몸을 바짝 웅크리고 앓을 무렵 해주의 전화를 받았다. 그동안 우린 문자만 주고받으며 살아있음을 확인하곤 했었다.

“괜찮아?”

해주는,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는 첫 음절에서 소리를 안으로 당기듯 빠르게, 둘째 음절에서는 체념한 것처럼 툭 내던지 듯, 그리고 마지막 음절을 발음할 때는 민망함을 내려놓으려는 듯 끝을 살짝 빠르게 서둘러 올렸다. 짐작하건대 마지막 ‘괜찮아?’를 발음하던 모습 그대로 입을 벌린 채 내 대답을 듣고 있었을 것이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그래도 “응, 괜찮아.”라고 대답을 했다.

해주와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해주가 내 외출을 제안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로 한번 나와 달란다. 내 아픔을 제 것으로도 여기며 살고 있을 친구라는 것을 알기에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렇게 시작한 외출로 얻은 초등학교 방과 후 미술 강사 자리였다.

“ 쌤, 잠자리 그려도 돼요?”

소영이 오늘의 과제인 가족 그림을 그리다 말고 물었다.

“잠자리? 가족 그림에 잠자리를 그리고 싶어?”

소영은 가족 그림 속에 할머니, 동생, 그리고 엄마를 그렸다.

“소영아, 가족 그림 속에 아빠가 안보이네?”

소영이가 잠자리한테 신경 쓰느라 아빠를 그림 속에서 빠트린 것은 아닐지 궁금해서 물었다.

“아빠는 할머니를 때려서 경찰서 갔어요. 한참 있어야 온대요. 쌤, 도화지 한 장 더 써도 되지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도 남을 상황을 소영은 대수롭지 않은 남의 일처럼 말했다.

소영이 아빠는 아이들은 물론 노모한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보다 못한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단다. 아이들은 한 마을에서 사는 고모 집으로 갔다. 이번에 소영이 엄마가 꼭 오셨으면 좋겠다. 엄마 없어도 그늘 한구석 내보이지 않고 사는 소영이 기특했다. 나는 그리고 싶은 만큼 그려도 좋다고 소영에게 도화지를 넉넉하게 주었다.

딱 한마리만 크게 그리겠다고 하며 소영이 배시시 웃는다. 배시시 웃는 소영이 웃

음 속에 쓰리나무 울타리에 기대어 울고 있던 계집애 하나가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며 일어선다.

연한 코발트색 원피스에 흙먼지가 잔뜩 묻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이웃집 용수 삼촌이 서울 가는 길에 이모 집에 나를 데려다 주었다. 곧 다가오는 외할아버지 생신에 이모네 식구 내려올 때 따라 내려오면 된다는 계산으로 엄마가 이모 집 나들이를 허락했었다. 생전 처음 가족과 멀리 떨어져 보낸 시간이었다. 이모 집에서 열흘을 지내고 외갓집으로 내려왔다. 오랜만에 식구들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그런데 가슴이 콩닥거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서울서 이모부가 퇴근할 즈음이면 나보다 세 살 어린 이종사촌은 대문에 앉아 이모부를 기다렸다. 멀리 이모부가 보이면 발이 안보일 정도로 빠르게 달려갔고, 이모부는 활짝 웃으며 사촌을 번쩍 안아 들고 대문을 들어서곤 했다. 그 모습이 부러워서 사촌을 따라 몇 번 이모부를 향해 뛰어 보았지만 이모부 품은 항상 한 발짝 빠른 사촌의 몫이었다.

집에 가면 나도 꼭 한번 해보리라 작정을 하고 아버지를 기다렸다.

외갓집 앞으로 흐르는 개울가에서 곧 도착할 엄마와 아버지를 기다렸다. 노을이 비쳐 발개진 개울물을 손바닥으로 떠 옮기다 개울 끝자락으로 접어드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나는 속으로 단단히 별렀다. 아버지가 두 팔로 나를 번쩍 안아 올려주면 보고 싶었다고 말을 해야지. 아버지가 걸어오는 개울 독길을 정신없이 달렸다. 아버지 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는 등 마는 등 아버지 품만 바라보고 달렸다. 아버지가 한 발짝 앞으로 가까워졌다. 숨이 멎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곧 아버지가 두 팔로 나를 번쩍 들어 안을 것이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부끄러울 것 같아 잠깐 눈을 감았다.

“왜 이제 온 거?”

안아 주는 건 고사하고 아버지가 다짜고짜 천둥처럼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뭘 잘못해서 아버지가 저럴까 순간 당황스러웠다. 설레었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럽고 무안해서 내 얼굴이 노을보다 더 빨개졌다.

“애 놀래라고 소리는 왜 질러요. 멋대가리 없게”

엄마가 나를 얼른 끌어 치마폭 뒤로 가려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어버렸을 것이다. 잔뜩 주눅 든 채 엄마 뒤를 따라와 싸리나무 울타리 옆에 기대어 혼자 울었다.

“저녁 안 먹고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

아버지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 이모가 새로 사준 원피스에 묻은 흙을 털며 일어섰다. 내 유년시절 기억 속에 가장 또렷하게 저장된 아버지 모습이었다.

소영이 아빠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일지 모른다. 소영을 따라 나도 같이 웃어 주었다. 우리 아버지는 병원이란 감옥에 갇혀 있다.

아버지와의 기억이 시작되는 곳은 남한강 근처 작은 마을이다. 아버지 직업은 남한강에 배를 띄우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 강기슭에 아버지 집이 있었다. 빈 석유 드럼통을 밧줄로 줄줄이 엮어 나무 판을 엮고 그 위에 멍석을 깔았다. 그리고 네 귀퉁이에 기둥을 세워 함석으로 지붕을 엮었다. 열고 닫을 수 있는 나무 바닥 아래 큼직한 어항이 밧줄에 매달려 있었다. 어항은 아버지가 잡아 올린 물고기들로 항상 가득했다. 심심하면 밧줄 손잡이가 달린 판자뚜껑을 열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물고기들은 세차게 꼬리를 쳐가며 무리지어 어항 가장자리로 회오리치듯 돌았다. 물고기 비늘 틈으로 흘러나온 진득한 액체가 서로 엉켜 벌집모양의 거품을 만들어 올렸다. 솟아 오른 거품을 걷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문지르면 금방 사라지는 거품이 신기하여 물고기들의 움직임 잦아들 때 까지 하염없이 되풀이하곤 했었다. 그런 날은 내 손에서도 아버지 냄새가 났다. 아버지 몸에서는 물비린내와 생선 비린내가 섞인 특유의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안방이

불, 엄마의 부엌 창고, 어느 날은 내 가방과 옷자락에서도 슬금슬금 기어 나왔다. 아버지 냄새는 거부할 수 없는 내 삶의 원초적인 향기이기도 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주문 받은 물고기를 배달 중이었다. 친구 엄마가 내민 고무 함지에 물고기 양동이를 기울이자 쏘가리, 메기, 빠가사리 등이 순식간에 튀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 중 수염이 긴 메기 한마리가 친구 발위로 떨어졌다. 친구가 기겁을 해서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바닥에 흩어진 물고기를 고무함지에 주워 담고 울고 있는 친구 뒤로 가서 어깨를 토닥여주었다.

“아저씨 손에서 거지 냄새 나. 엄마 아저씨 거지야?”

내 아버지인줄 뻔히 알고 친구였다. 아버지의 냄새에 익숙했던 내게 친구의 반응은 충격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야멸차게 아버지의 손을 뿌리친 친구가 야속했다. 아버지 냄새는 아버지의 삶이었다. 누구한테 비난 받아야 할 죄가 아니었다.

거지같은 아버지 냄새는 그게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아버지는 여자 집에서 막걸리 냄새를 묻혀 오곤 했다. 읍내에서 허름한 술집을 하는 여자였다. 장날에 아버지가 나를 그 집에 데려가서 그 여자가 맡아주는 국밥을 먹게 한 적이 있었다. 여자의 인물이 엄마에 비해 한참 떨어졌으므로 외도가 길지 않을 줄 알았다. 엄마의 체념이 녹아든 땀방울로 거둔 텃밭 농산물들을 거침없이 여자의 집으로 나르기 시작할 때도, 텃밭이 아예 여자의 술집에 소용되는 농작물로 채워질 때도 늘 올해가 마지막이려니 했었다.

동업이라고 말은 했지만 순전히 아버지 돈으로 매입한 읍내 술집이 있는 2층 여관 건물의 주인은 누가 보더라도 그 여자였다. 바람난 아버지 딸이란 소리도 모자라 더러운 여관집 딸이란 이름까지 달고 살게 만든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싫었다.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엄마의 무능이 싫었고, 자식 앞에 당당히 얼굴

을 들고 뻔뻔하게 사는 아버지의 모습에도 치가 떨렸다.

시장 골목길에서 한번 아버지 뒷모습을 마주친 적이 있었다. 주책없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국밥이라도 사드리자고 아버지를 부르려다 참았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아버지 어깨 위에 늘어진 잠바가 뒷모습을 더욱 처량하게 하였다. 그날의 아버지 뒷모습만 기억하고 살았더라면 아버지가 덜 미웠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내가 투덜거릴 때마다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 후회한다고 했지만 내 원망과 상처가 아버지를 쉽게 용서하지 못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고, 그 기억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내게 있다. 어쩌면 그것이 부녀간 갈등의 원인이었는지도 모른다. 내 기억의 주인이 오로지 나였다는 것이.

“소영아, 아빠가 미워?”

내가 등을 토닥여 주면서 물었더니 소영이 눈에 눈물이 빙그르 돈다.

“쌤도 아버지가 미웠어.”

소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본다.

“어른도 아빠가 미워요?”

소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보름 째, 잠깐이라도 아버지 문병 다녀가라는 엄마의 애원을 묵살하고 있었다.

“5천만 원이 당장 급해서 그래요. 갚을게요.”

나는 남편이 위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차마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말 꺼내기 무섭게 ‘돈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고 현관 문고리를 잡았다. 다급해진 마음에 무릎으로 기어가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허리춤을 움켜쥐고 ‘뿡’하고 세차게 문을 닫아버렸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이 캄캄해서 죽지 못해 꺼낸 아쉬운 소리였다. 막혀 버린 현실보다 거절당한 자존

심 때문에 약이 올라 온 몸이 떨렸다. 문 쪽을 노려보다 정신을 잃었다. 사흘 가까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었다.

“뉘져 버려.” 정신이 들면서 한숨과 함께 이 말이 먼저 터져 나왔다.

친정 땅이었던 마을 입구 야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아버지 통장을 드나드는 돈이 수십억이 넘었다. 그 통장의 부스러기 돈만도 5천은 넘을 것이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지 대충 짐작이 되었다. 울음도 나지 않았다.

내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회오리쳐대는 머리를 붙들어 앉히려는 데 엄마가 구멍가게 아줌마 전화를 받고 혼비백산하여 맨발로 달려 나갔다.

“노인네가 얼굴이 벌건 채 가게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소주 두 병을 냉수 마시듯 들이붓대, 그러더니 계산도 안하고 급한 볼일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나갔어. 바쁜가보다 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데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어. 내다보니까 글썩 이 노인네가 돌부리에 머리를 쳐박고 자빠져 있지 뭐야. 흔들어도 정신을 못 차려서 죽은 줄 알았어. 놀래 구급차를 먼저 불렀지. 그 양반 나아님 죽었어. 내가 안 내다봤음 그대로 저승길이지.”

구멍가게 아줌마는 가게 앞에 아예 의자를 내 놓고 앉아 오가는 사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공치사를 늘어놓았다. 아줌마 말이 공치사만은 아니었다. 응급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뇌출혈로 아버지는 숨을 거둘 상황이었다. 밟고, 야속하고, 기막히게 화가 났다. 한순간에 아버지가, 치졸하게 죽음의 패를 꺼내들면서 자식을 깨끗하게 완패시켰다.

혼자 남은 친정 빈집에서 영영 울었다. 억울해서 울었다.

아버지가 증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옮겨 다닐 때 남편은 급성폐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의사말로 아버지 며칠 안 남았을 거란다. 한번 와라.”

‘늙은 사람 죽는 건 하늘이 정한 이치’라며 엄마의 전화를 모질게 끊어버렸다. ‘그깟 늙은이 죽는 게 뭐 대수라고, 늙으면 죽는 거지’ 한마디를 더 보냈는지 속으로 삼켰는지 가물가물하다. 아버지가 오늘 죽는다고 했어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수빈이 보내고 처음 죽음이란 말을 입에 담았다. 수빈이가 떠나며 비운 자리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죽음이란 말을 끼워 넣지 못했다. 그 무서운 말을 아버지한테는 순식간에 거침없이 갖다 붙여버렸다. 그래도 된다. 아버지한테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므로.

수업 시간이 10분 정도 더 남았는데 열 명 남짓한 학생들이 소영이 혼자 남기고 통학 버스 시간이라고 뛰어나갔다. 혼자 남아 열심히 잠자리를 그리는 소영이 옆으로 가는 데 전화기가 울린다. 진동으로 바꾸어 놓는 걸 깜빡 했다.

해주였다.

“수업 끝나 가지? 우리 교실로 올래?”

아주 오랜만의 통화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건물에 근무를 했어도 해주한테 누가 될 것 같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른 척 하며 살았다.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소영이 자기 걱정 말고 잠자리 그림 그리고 있겠다고 다녀오란다. 어른스러운 소영이 고맙다.

해주는 내 곁에 유일하게 남아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혈육 같은 친구였다.

“소영아, 쌤 금방 다녀올게 잠자리 잘 그리고 있어.”

소영이 손에 과자 한 개를 쥐어주고 해주 교실로 갔다.

해주 얼굴이 아위어 보였다.

“오늘 수업 마지막 날이지? 내년에도 올래? 근데 난 내년에는 이 학교 없을 것 같아.”

해주가 머그잔에 녹차 티백을 담그면서 말했다.

“다른 학교로 내신 냈어?”

그리고 보니 지금은 한창 전보 내신으로 바쁠 철이다.

“전보 내신? 그러네. 내신 맞네. 저승에서 전보내신 만나보다. 그런데 나는 희망 전보가 아니고 강제 전보 조치래.”

해주가 영똥한 소리를 한다.

녹차 우려낸 머그잔을 넘겨주면서 해주가 제 사정을 남 말하듯 상세히 털어놓았다.

“너 장난해?”

기가 막혀서 내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이라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로 받는 순간 가족보다 내가 먼저 떠올랐다고 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와,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하는 어미, 둘 중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 우린 뭐 이딴 팔자를 타고 났나 모르겠다.”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해주가 말했다.

“미안하다. 결론인즉 너보다 내가 낫다. 그런 얼굴 하지 마.”

이번에도 해주가 날 먼저 위로 하고 있다. 나는 해주한테 딱히 해 줄 말이 없었다. 아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세상 어떤 대단한 말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내가 입을 벌리고 멍하게 앉아 있는데 해주는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죽는다는 소리가 처음엔 너무 무서워 잠을 못 잤어, 자다가 죽을까봐. 불면증이 와서 잠자는 약을 처방 받아 먹었지. 죽으면 실컷 잘 걸 몇 달을 못 참고 수면제를 먹었어. 웃기지? 딸한테 엄마가 아파서 산후조리 못해 주면 어찌지 라고 슬며시 운을 떼었더니 돈만 있으면 호텔 같은 산후조리원도 많다고 하더라.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대. 그래,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할 목숨인데 귀한 돈만 축내는 일은 하지 말자.”

해주는 주어진 시간까지 살다가 때 되면 조용히 가겠다고 비밀을 지켜 달란다.

현대의학 어찌고 아는 척을 하려는 데 해주가 말을 막는다. 이미 의사도 포기한 상태라고. 이미 오래전에 암세포가 상당히 전이되고 있었고 발견 당시 해주 몸은 현대의학으로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고, 오래 살고 싶으면 다시 태어나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농담을 섞어 말했다.

머릿속이 하얗다. '해주야 어떡하면 좋으니.' 목으로 치고 올라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아 삼켜 버렸다. 해주도 내가 수빈이 보내고 허망하게 앉아 있을 때 내 앞에서 먼저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주의 말이 거짓이었으면 좋겠다. 수빈이 영정사진 앞에서도 그랬다. 지금까지 거짓이었다고, 몰래 카메라였다고 누가 얼른 좀 툇 튀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괜찮을 거야, 요즘엔 기적도 많아.”

해주한테 고심 끝에 생각해 낸 말이 '기적'을 기다려보자는 말이었다.

나는 기적 외에는 해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단 몇 분도 아닌 몇 초 사이에 그의 죽음을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린 정말로 친한 오랜 친구였는데.

해주한테서 도망치듯 미술 교실로 돌아왔다. 소영이 아직도 잠자리를 그리고 있다.

새로 이사한 집 창으로 비가 들이쳐서 기둥을 세우고 비 가림 케노픽스 차양을 설치했었다. 여름 끝 무렵부터 말라 죽은 잠자리가 차양 아래에 수북했다. 차양 안으로 날아들었다가 막상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해 더위에 질식해 죽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다. 이토록 대책 없는 잠자리를 어떤 사람들은 '악마의 짜깁기 바늘'이라고도 부른다. 잠자고 있는 아이의 눈과 귀, 입을 다 꺾어버린다는 미신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 우리 집에는 잠자리가 꺾매 버릴 눈과 귀, 입

을 가진 아이가 없었다.

소영이 그린 잠자리에는 머리와 날개, 꼬리만 달려있다. 잠자리 입과 다리는 뾰기 인형을 들어 올리는 집게 모양과 흡사했다. 소영이 잠자리를 ‘악마의 짜깁기 바늘’이라고 부르며 자세히 그리지 못했다.

“ 쌤!, 저는 내년에도 방과 후 미술 수업 신청할거예요. 저는 쌤이 좋아요.”

해주를 만나기 전이라면 소영이의 내년이 부러웠을 것이다. 지금 나는 당장 내일도 싫다.

잠자리가 완성되려면 멀었는데 집에 가야한다고 도화지를 팔락거리며 소영이 교실 뒷문으로 달려 나갔다. 12월 9일이면 딱 사흘 남았다.

교무실에 들러 방과 후 강사 출석부에 마지막 날인을 하고 나왔다.

교문 밖 커피 전문점으로 갔다. 아메리카노 너 잔에 발효 빵을 여유 있게 사들고 교무실로 다시 갔다.

“ 그동안 감사했어요. 내년에는 못 할 것 같아요.”

교무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주책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학교에서 집까지 40여분 거리를 눈물 때문에 차를 갓길에 몇 번 세웠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살까지 아파왔다. 집에 도착해서도 또 그렇게 한 시간이 넘게 울었다. 해주 때문에 시작한 울음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통곡하며 부르는 이름이 해주가 아니고 수빈이었다.

휴대폰이 울려 울음을 멈추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엄마였다. 너무 모질게 굴지 말라는 엄마 문자였다. 엄마는 내가 모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주변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다. 오래전부터 어둠은 자연스럽게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앉았다. 이 어둠속에서 한 발짝만 내딛으면 죽음의 절벽이다. 뒤를 돌아본다, 텅 비었다. 좌우를 차례로 살펴본다, 역시 텅 비었다. 생각도 멈추었다.

죽고 사는 그것, 까짓 한 곳 차이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사방이 캄캄한 절벽이어서 선택의 여지도 없어보였다. 어쩌다 운이 좋아 이 절벽을 벗어난다 해도 그 뒤로 다시 절벽, 또 절벽일 것이 분명하다. 해주마저 가버리면 나는 혼자가 된다. 혼자 살아야 할 시간이 무서워진다. ‘아버지 때문이야.’ 뜬금없이 왜 아버지가 떠올랐을까. 아버지 앞에서 허무하게 당한 완패가 내 삶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의 절벽 앞에서 고작 꺼낸 핑계가 아버지였다.

샤워를 했다. 수빈이가 좋아했던 청록색 니트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수빈이 중학교 졸업식에 입으라고 남편이 사 준 옷이니 남편을 만나도 낯설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불면증 때문에 받아 두었던 약 상자의 흰 알약을 입속에 다 털어 넣었다. 두 줍이 넘나보다. 약을 삼키느라 함께 마신 물로 배가 불룩해졌다.

퇴근 시간인데 병원으로 가는 길이 수월했다. 아버지는 복도 맨 끄트머리 1인 병실을 쓰고 있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돌아놓는다. 늘 그랬다.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보여주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버지와 의 대면이 최대 난제였다. 아버지는 늘 무엇인가에 무척 화 난 사람 같았다. 엄마가 회상하는 아버지도 그랬다.

“읍내 장에 갔다가 새벽이 다되어 술에 취해서 들어온 겨. 손에 굴 봉지를 들고 방문을 확 열어젖히더니 느털 덮고 자는 이부자리를 냅다 걷어차는 겨. 느털이 놀래 일어났어. 차라리 자는 척 누워있었더라면 쫓겨나진 않았을 텐데. 한겨울 새벽바람이 여간 썩썩하지 않았는데 느털은 마당으로 쫓겨나, 갓 깨어난 병아리 마냥 쪼그리고 앉아 오들오들 떨었지. 그때 느털 데리고 외가로 못 간 게 천추의 한이라.”

엄마에게 천추의 한이 된다는 그 새벽 시간을 나는 전혀 기억 하지 못한다. 서너 번 반복되는 그 얘기 어느 자락에도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떤 단서도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내 기억속의 아버지는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고 야단치는 냉혈 인간이었다. 게다가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었다.

간병하던 여자가 빈 물병을 채워 오겠다고 밖으로 나갔다.

앞으라는 말 한마디 안하는 아버지 침대 모서리에 말라죽은 잠자리처럼 혼이 나간 내 몸을 기댔다. 벽 쪽으로 돌아누운 아버지 머리카락이 기름에 뭉쳐 있었다. 여자가 물병을 들고 병실로 들어서고 있다. 앞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한다. 온 몸으로 안개 같은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희뿌연 무엇이 손가락, 발가락 끝으로 빠져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구멍 난 물 풍선에서 물 새어나가는 소리. 딱히 무어라 가늠하긴 어려웠으나 그 소리는 아주 가늘었다.

아버지는 내가 왜 그토록 못마땅했을까. 내 죽음이 슬프기는 할까. 하찮은 죽음이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어느 고통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계실 것이다. 아버지를 이기고 싶었다. 내 죽음으로라도, 이기고 싶었다.

“의사 불러, 뭐 하구 자빠졌어 얼른 의사 불러오라니까.”

병실이 떠나가게 여자를 향해 질러대는 아버지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온다. 죽음이 잠처럼 쏟아졌다. 꿈인 듯 죽음인 듯 혼돈 상태이다. 눈앞에 환하게 아버지 일기장이 펼쳐진다. 아버지가 꼭꼭 숨겨둔 일기를 몰래 꺼내 읽은 기억이 났다.

강물 속은 단 한 번도 청소라는 걸 해 준적이 없는 수족관처럼 더럽고 지저분하고 탁했다. 강바닥은 시커먼 재로 가득 찬 아궁이속을 닦았다. 손을 대기 무섭게 시커먼 분진들이 물을 흐려 놓는다. 숨을 고르고 물고기들이 모여 드는 곳으로 헤엄쳐 갔다. 바닥에 온갖 부유물들이 쌓여 있다. 그 사이로 장마에 뿌리 채 떠내려 온 나무들이 얼기 설기 동지를 틀었다. 그 틈새에 시체들이 걸린다. 물길도 흰하다. 날이 더워지면 한 달에 두서너 번 정도는 시체창고에서 시체를 건져 올렸다.. 남한강 유원지 근방에서 물에 빠진 시체들은 물살 심한 장마철이 아니면 으레 그곳에 걸렸다. 잠수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곳이기에 내 창고이고, 그곳은 익사체들이 주로 걸려 있는 곳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남한강을 일터로 삼아 살아가는 어부 중에 나는 유일하게 잠수 장비를 갖춘 고급 어부였다.

시간이 오랜 익사체는 살갓죽이 거의 없다. 부패한 생선살처럼 가는 물살에도 살점이 흩어지기 일쑤였다. 시체 살을 뜯어먹느라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몰려 있기도 했다. 물에 툭툭 붙어 오른 살로 입은 옷이 터질 것처럼 팽팽했다. 익사체는 모습만으로 남여가 구분되었다. 여자는 강바닥에 등을 대고, 남자는 강바닥에 배를 대고 죽어있었다. 죽은 사람 몸이라 물속에서 내가 해코지 당할 일은 없는데도 늘 등골이 오싹했다. 뿌옇게 흐린 물속에 여자가 반듯하게 누워 있다. 여자가 긴 머리칼을 날리며 벌떡 일어나서 달려들 것 같다. 엮어진 남자의 익사체가 벌떡 일어나 잠수복에 꽂힌 대검을 뽑아 나를 죽인다고 덤벼들면 어쩌나 해서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다. 딱 한번 물속에 해마처럼 곳곳이 서 있는 시체를 마주한 적이 있었다. 해괴한 모습의 시체를 마주친 날은 밤새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시체가 살아나는 것이었다. 너무 무서워서 물속에서 오줌을 싸기도 했다.

가끔 아주 이따금 익사체를 물속에 그냥 두고 올라오기도 했다. 그냥 둔 것은 아니고 돌 틈바구니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돌을 채우든가 밧줄로 묶어 놓는 방식이다. 잠수복을 갖고 있다는 죄로 댤에는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성질 급한 유족들이 종부리듯 몰아부치면 사나흘 정도 그렇게 애를 먹었다. 돈 줄이 튼튼한 사람들은 다짜고짜 현금 다발부터 내밀었다. 장마철이 아니면 일주일, 때에 따라서는 열흘 이상 익사체를 시체 창고에 묶어 놓을 수도 있었다.

“긴히 부탁 할 일이 있다네.”

새벽 가까운 시간에 3선 의원님 호칭을 달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 돈 다발을 내밀었다. 물살이 사나워 절벽에 세운 난간을 넘어 청춘 남녀가 강 속으로 뛰어 내렸다는 데 함께 한 여자가 의원의 여식이었다. 이름 있는 집안과 혼사가 오가는 중이란다. 남자가 있었다는 소문만 나지 않도록 조용히 뒤처리를 해주면 섭섭하지 않게 사례를 하겠다

다. 손에 쥐어진 멍치돈도 덜컹 겁이 나는 액수였다. 의원의 여식 죽음은 기자들의 눈을 피해 경찰에서 신속하게 부주위로 인한 사고사로 깔끔하게 처리되었다. 여식의 일이 마무리되자 마을 앞 산꼭대기에 올라서도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넓은 야산이 내 수고비 뭍으로 떨어졌다.

남자의 익사체는 물고기 입질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그물망에 담아 보름 넘게 시체 창고에 보관하였다. 미안함의 표시이기도 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로 어둠이 더욱 칠흑 같은 밤에 내 뭍이 된 야산에 봉분도 만들지 못하는 무덤 하나가 만들어졌다. 멀리서 의원이 바라보고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알아차렸다. 다음 날 내 목숨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겠다는 약조를 하고는 읍내 2층짜리 건물도 하나 더 받았다. 이듬해 초에 3선의원은 4선 의원에 당선되었다.

인근 읍내에 산다는 초등학교 동창 소식을 들은 것도 봉분 없는 무덤을 만들고 난 얼마 후였다.

머리 좋은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시집도 못가고 읍내에서 국밥 장사를 한 여자동창이 있었다. 누나 집에 다니러 왔다가 행방불명 된 동생을 찾느라 반미치광이가 되었고 흑시 주인 없는 익사체가 없냐고 이장님이 찾아왔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여자가 찾는다는 남동생이 체격이며 행색이 영락없는 그 남자였다. “물에 빠져 죽은 시체가 금덩어리로 변신을 했다면 지가 감춰졌지유. 텅텅 불어터진 시체를 지가 왜 감춰졌시유?” 내가 이장님을 향해 볼 멘 소리를 했다. “사람, 참 물어보는 데 감추긴 뭘 감춰다고 볼멘소리여? 아니면 말일을 두고 쫓쫓.” 제발 저러 성내는 줄 알 턱이 없는 이장님은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다.

코흘리개 시절 이야기지만 옆 반이었던 그 여자애가 아주 마음에 없지도 않았었다. 그렇다고 사실을 털어 놓을 수는 없었다. 4선을 코앞에 두었던 3선 의원에게 떠넘겨 버릴까 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열 번 곱씹어도 짙값은 고스란히 내 뭍으로 돌아올 게 분명하다. 자식들 생각을 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었다. 지금껏 번듯한 땅 한 평 가져본 적 없는 아버지의 삶을 답습하기 싫었다. 잠수복을 다시 입기도 싫었고, 몇 푼 되지도

않는 생선 낚아 올리는 일도 싫었고, 물비린내에 찌들어가는 몸뚱이도 싫었다.

내 땅에 주인 허락 없이 누가 감히 삽질을 할 것인가. 적당한 때에 시멘 콘크리트라도 한 차 부어 버리면 그만이다.

어느 해부터 강물이 제 몸을 틀어 올리며 승냥이 울음소리를 냈다. 시뻘겋게 제 살을 퍼 올리며 피 울음을 토해내기도 했다. 겨울이면 밤새 제 몸을 끙끙 얼렸다가 새벽만 되면 허연 속살을 찢어 매서운 강바람에 넣어 말렸다. 사람들은 강물이 미쳐간다고 했다. 강물이 미쳐서 저렇게 과당한 소리를 내는 거라고 했다. 강물이 마을 고샅길을 미친 듯이 달려와 우리 집을 쓸어가고, 입을 찹 벌려 우리 아이들을 집어 삼키기도 하고, 회오리치는 강물이 날 물속으로 삼켜버리는 악몽을 수도 없이 꾸었다. “아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에요.” 꿈속이었는데 그 소리가 생시처럼 선명했다. 그 이후로 정말 꿈에서처럼 강물이 내 가족을 데려가 버릴까봐 무서웠다. 내 어딘가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강의 저주가 묻어 있었다. 그 저주가 외손녀를 데려갔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사위가 또 먼 길을 떠났다. 내 죄 때문에 딸이 울고 있다.

내 몸은 잔잔한 강물 위로 반사되는 따사로운 햇살을 이불삼아, 물결을 베개삼아 강물 위를 유유히 흘러간다. 몸이 새털처럼 가벼웠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죽은 잠자리 모양일 것이다. 제 모양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베란다에서 말라죽은 잠자리 수는 백 마리가 훨씬 넘었다. 종이 박스에 잠자리를 차곡차곡 채우며 뜬금없이 ‘이놈들은 머리가 참 나쁜가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가벼웠던가. 백 마리도 넘게 죽은 잠자리가 바늘 하나의 무게보다 가볍게 느껴졌다. 죽음이 이토록 편안하게 오는 줄 몰랐다. 이런 줄 진즉에 알았더라면 아버지든 나든 조금 더 일찍 자유로웠을 것이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황홀함이다. 그러나 그 순간은 너무도 짧았다.

· · ·  
“괜찮아?”

내가 눈을 뜨자마자 해주가 급한 사람처럼 빠르게 말했다.

“너는? 괜찮아?”

해주 교실에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떠올라 해주에게 되물었다.

“너한테 괜히 말했었나봐”

해주가 공연히 잔뜩 주눅이 들어 있다.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

“해주야, 사람 떠나보내는 일 이젠 힘들어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가고말지. 해주 너 정말 괜찮지?”

혹시라도 해주가 괜찮지 않다고 할까봐 해주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고 빠르게 말했다.

“응,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해주는 밝고 짧게 대답했다.

사흘 후 문자가 왔다. 소영이다.

“ 쌤, 엄마 비자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잠자리 그림 쌤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얼른 그러라고, 고맙다고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나한테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내일이 없었고, 내 삶을 허락하는 내일도 불투명했다. 휴대폰 만지작거리며, 내 문자를 기다리고 있을 소영이 얼굴이 떠올랐다. 하루를 망설이다 천천히 문자를 입력했다.

“괜찮아. 그리고 소영아 고마워.”



# 특선



법무연수원  
손 용 주



## 수상소감

세상의 귀 한쪽을 빌어 자그맣게 속삭인 게 그만 감격으로 깊게 남아 버렸다.  
우리 모두는 감격시대에 살고 있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우리 곁에 잠시 왔다 갔지만, 그냥 보냈을 뿐이다 우리가.  
감사할 따름이다.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5초와 56초를 지나 자정이 오기 0.1초 전  
잔치를 할 수 있음을...

##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모든 욕구가 사라진 지금 P<sup>20</sup>로부터 근처의 문학산을 한 번 같이 가줄 수 있는 지를 묻는 질문은 잠들어 있던 나의 욕구를 새삼스럽게 깨웠다. 평소 등산을 즐기던 그였기에 아마도 산을 오르고 싶은 욕구가 강했는가 보다.

“가능합니다. 한 번 아니라 두 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건 내 자신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절규였는지도 모른다. 셀이라고 불리우는 좁은 방안의 공간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 아침도 농축된 단백질과 굳이 빈티지를 확인할 필요조차도 없는 질 좋은 포도주의 농축 고체 알코올을 알약으로 흡수하며 3차원 사이버공간을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나에겐 너무나 반가운 것이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직접 산을 오르겠는가? 건강을 위해서라면 굳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인간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와 필수 아미노산을 적절히 배합해서 필요한 때마다 공급해주는 밀스봇(mealsbot<sup>2)</sup>이 있어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영양과잉이나 과소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뇌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신경망 칩이 그 때 그 때의 인체 내 바이탈 사인들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3차원 영상으로 경고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귀찮아 뇌에 내장되어 있는 그것을 차단시켜야만 등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의 전원을 차단했다고 해도 그것은 인체 내에서 자체 전기를 생산하면서 인체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영상이나 소리로 저장해서 중앙의 슈퍼컴으로 보낸다. 그곳에선 그러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사이버공동체의 생활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사소한 규칙위반들에

2) Pierce는 “끓다”라는 뜻의 동사의 약자

3) 신조어, 사이버 공동체에서 인간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로봇

대해선 근신 등의 경고를 하나 그러한 위반행위들이 누적되거나 가공 안 된 자연식품을 먹거나 뇌에 내장된 칩을 빼내는 등 위반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사이버공동체 내의 교정공동체로 이송되며 이송되자마자 그곳에서 위반자의 몸과 마음에 대한 생물적이고 기계적인 분석이 이뤄진다. 그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무기한으로 그곳에서 자신을 교정시켜 나간다. 여기서 자신을 교정시켜 나간다는 표현에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컴퓨터로 행해지는 기계적이고 생물학적인 분석에 의해 그 행위의 경중을 판단하는 과거식의 재판을 컴퓨터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된 결과를 가지고 위반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자신을 교정시켜 나가는 것으로 시대가 변했어도 형벌과 관련된 사법제도만은 여전히 개인의 자유의지와 환경의 대립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컴퓨터가 다 분석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겠지만...

이러한 개인의 자유의지를 교정공동체에서 기다려주는 시기는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이제 비록 위반자의 형기가 무기지만 그 5년 안에 교정공동체에서도 더 이상 사이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컴퓨터가 판단하면 그때는 자연공동체로 위반자는 방출되며 그러한 자연공동체는 사이버 공동체의 구성원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것들을 생산 공급해주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위반자들이 자연으로 방출되면 이제 자연인의 신분을 갖게 되는데 이들은 평생 사이버 공동체로의 전입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그들의 의무를 저버릴 순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뇌에는 이미 사이버 공동체에 헌신 봉사하도록 하는 기능의 칩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약 뇌에 있는 칩을 제거한다면 그들은 바로 즉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걸 자살이라고 표현한다. 물론 자살의 방법은 그 외에도 많겠지만 말이다. 그들 자연인들의 삶은 인류가 21세기라고 불렀던 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제 세상은 컴퓨터가 지배하는 사이버

공동체와 컴퓨터와 인간의 회색영역인 교정공동체 그리고 자연인의 영역인 자연공동체 이 셋으로 나뉘어졌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히 이 세 가지의 세상은 중앙의 슈퍼컴이 통제한다. 더불어 경제라든가 정치 그리고 종교라는 표현들은 이제 사이버 공동체에선 적합하지 않는 용어들이 되어버렸고 이들 용어들은 단지 일부 교정공동체와 자연공동체에서만 통용되는 표현들일 뿐이었다. 죽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이제 곧 사라질 전망이다.

중앙의 슈퍼컴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지, 알 수도 없고, 알려고조차도 안했으나 지금 사이버 공동체에서의 그들 지배자들 또는 아마 지배자일 수도 있는, 아니면 중앙의 슈퍼컴 자신일 수도 있는, 그 어떤 존재의 최대관심사는 인간의 병들거나 기능이 다한 뇌를 새로운 뇌로 대체시킬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이게 가능하다면, 물론 지금의 과학기술 능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나 이제 사이버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정체성의 혼돈 등의 반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 도입을 늦추는 거 같지만 어쨌든 도입이 된다면 이제 죽음이라는 개념도 곧 인류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게 가능해 진다면 그가 어디에 살든, 이제 인류는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지도 모른다. 웬지 불안해진다.

사이버공동체는 인류에게 행복이라는 지상목표를 위해 설계되고 지금까지도 운영되어 왔는데, 내 삶의 자유가 사이버공동체에서 부여하는 자유에 불과하다면 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부여한 자유로부터 나만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정말 자유로운 상태에 놓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또한 사이버공동체가 부여한 자유로부터 도피한 자들이 모여 사는 자연공동체 역시 중앙 슈퍼컴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면 진정 나에게 의해, 나를 위한 자유를 오롯이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을 까라고도 생각했다.

문학산을 가려면 일단 자연인의 구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P와 나는 이미 40살에 성장이 멈춰버렸는데 반해 자연공동체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월의 흐름

에 따라서 나이에 맞는 생활들을 하고 있었고, 그들만의 공동체 특유의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이버 공동체에선 구성원 자신의 희망과 공동체의 의지에 따라 적절히 어린이 단계, 성인단계 등으로 성장의 시점을 고정시킬 수도 있고 그 고정된 것을 다시 성인을 어린이로 만들 순 없지만 어린이를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변경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사이버 공동체에선 모든 것이 가공되어진다고 보면 된다.

뇌에 심어진 칩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경고음, 즉 노출되는 자외선 량과 피부 민감도, 심장의 박동 수 및 눈으로 들어오는 조도, 폐로 들어오는 초미세먼지의 량,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등을 측정해서 알려주는 소리에 P와 나는 일단 귀 뒤쪽의 전원장치를 눌러 칩을 껐다. P는 전원장치를 끄기 전에 자신의 생체에너지를 등산에 적합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기제를 작동시키길 원했으나 내가 “어떤 기제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말렸다. 그도 내 말에 일리가 있는 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자연적인 그의 몸 상태에 맡기도록 했다. 사이버 공간에 사는 인간이 자연공동체로 나오면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그러한 행위들이 누적되고 심각하다고 중앙의 슈퍼컴이 판단하면 교정공동체로 가야 하므로 가능하면 사이버 공간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장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이버 공간을 벗어나면 매우 힘들고 피곤해지므로 벗어날 생각을 하진 않는다. 심각한 위반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사이버 공간에 사는 인간이 자연인과 서로 사랑을 해서 애를 낳는 행위 같은 것이다. 왜 심각하냐고 한다면 사이버 공간에선 모든 열성유전자를 제외한 우성유전자만을 이용한 생산행위만을 출산의 개념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출산도 인간인 여성의 몸을 빌려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이버 공동체에선 열성유전자를 지닌 사이버 공간의 인간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성유전자로부터 모든 질병과 사악한 생각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선 완벽한 행복의 추구에 절대적으로 열

성유전자는 들어설 공간이 없다. 사이버 공간의 인간은 이 행위로 인해 교정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며 자연인은 그들만의 법으로 처벌받게 되고 그들 사이에서 나온 생명체는 자연공동체에서 양육되어진다.

사이버 세상에선 사계절도 다 가공된 모습으로 존재했지만, 직접 이렇게 개나리, 진달래가 피는 봄날에 P와 함께 흙길인 산을 올라가고 있는 내 자신이 무척 신기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다. P도 기능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인 자연적인 몸의 상태로 등산을 하는 것이 처음인지 얼굴은 몹시 상기되어 있었다. P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저는 이렇게 걱정하고 올라와도 되지만 그 동안 모범적으로 사이버 공동체에 잘 적응했던 국장님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까요?”라며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사실 P는 우리 사이버 공동체 내에서 교정공동체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이다. 그는 사이버 공동체에서 태어났지만 늘 교정공동체와 자연공동체에 호기심이 많았고 뭔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했다. 한 마디로 뭔가 그와 사이버 공동체는 안맞는 그런 친구였다. 최근 5년간 교정공동체에 수용된 인간들의 70%가 자연공동체로 추방되어졌다. 그 전 5년간 통계에 의하면 오히려 30%만이 자연공동체로 추방되어진 데 반해서 말이다. 결국 이 추방은 컴퓨터에 의해 결정되어졌지만, 본인들의 자유의지가 컴퓨터가 마련해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들은 그들의 완벽한 행복을 위한 공동체를 과감히 버리고 그들을 생노병의 불행에 이르게 하는 그들의 자연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할 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드는 것이다. 물론 죽음의 문제에선 아직까지는 사이버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서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다. 아무튼 인류가 과거에 핵무기 등을 개발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해 공멸의 길로 들어서려고 했던 위험성을 제거하고, 유엔이라는 옛날방식의 전 세계 인류회의체를 통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재래식 무기 등을 폐기하는 워싱턴선언을 함으로써 전 세계가 평화체계를 구성한 지도 이미 백오십 년이 지났다. 하지만 어

느 공동체에 살고 있는 지간에 뇌에 이식된 신경망 칩을 통한 기능종료(function down)<sup>4)</sup>의 위험성은 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남아 있다. 한 마디로 인류 전체가 이 칩을 통제하고 있는 슈퍼컴의 결정에 매어 있다는 것은 늘 우리 인류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한 순간에 모든 인류가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불안한 환경에서도 인류는 어디에 살든 그들만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P는 신선한 공기를 양껏 들이마신 후 “저는 교정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최근 5년간의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도 교정공동체를 통해 자연공동체로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왜 그들 사이버 공동체에 살던 인간들이 자연공동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실 사이버 공동체 내의 사법체제를 맡고 있는 사법국장으로서 그의 말에 대해 동의도, 그렇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기도 어려웠다. 그는 20세기 초 일본의 마사키 아끼라<sup>5)</sup>나 미국의 오스번<sup>6)</sup> 같은 우리 먼 조상들의 자원수형자 방식을 지금의 교정현실에 적용해 보겠다는 것인데, 그것의 성패를 떠나 너무 원시적인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그런 생각은 이미 그가 등산이라는 방식으로 또는 자연 공동체에 무단 출입이라는 형태로 꾸준히 사소한 규율들을 위반하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정공동체로 들어갈 일만 남은 것 같다. 그런데 막상 컴퓨터가 그의 입소여부를 판단해 그가 교정공동체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가 정말로 연구목적으로 그곳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이버 세상을 떠나길 희망해서 그런 것인지는 아무리 중앙의 슈퍼컴이 훌륭하다고 해도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물론 나의 짧은 생각이지만...

봄날의 바람은 사람을 들뜨게 만든다. 산 아래쪽에서부터 허리 쪽으로 불어오

4) 신조어, 중앙 슈퍼컴이 인간의 신경망의 기능을 종료시킴으로써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5) 일본의 근대 행형학자로 실제 교정시설에서 자원수로 생활했었음

6) 미국의 행형학자로 오번교도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톰 브라운이라는 가명으로 수용생활을 함

는 바람은 행복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도록 만들었다. 단지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지던 바람만을 알고 있던 나에게 자연의 바람은 어떤 영감과 축복의 산물 그 자체였다. 물이 오른 나무와 풀에서 나는 향기로움을 바람이 실어 나에게로 하늘하늘 살포시 날려 보내왔다. 아! 생명력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는 순간, 나는 대지 위로 가볍게 날아올랐다. P는 어디서 구했는지 막걸리라고 쓰여 있는 병을 그의 가방에서 꺼냈다. 가방이나 병은 모두 자연 공동체에서 P가 구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경제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 뭔가를 주고받아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P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구했는지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이미 그런 것들은 컴퓨터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P는 무심코 산에 난 길 위로 엉덩이를 깔고 앉아 막걸리 병을 열었고 그걸 먼저 자기 입으로 가져가서 한 입 마셨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마시라고 준다. 뭔가 말 못할 역겨움이 넘어 왔지만 참고 한 모금 마셨다. 뭔가 안으로 싸한 것이 들어오는 느낌과 더불어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충만감과 포만감을 동시에 느꼈다. 배가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는 것이 마치 내 배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고체 알코올의 느낌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맛이라고 해야 할까? 뭔가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알쏭달쏭한 그런 맛이 느껴졌다. 그 맛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 모금을 더 마셨다. 내 행동이 저장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오묘한 맛에 대한 기억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내 몸이 먼저 느꼈다. P가 말한다. “어떻게 구한 겁니다. 하지만 국장님과 함께 자연의 맛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니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내 위가 살아 있다는 느낌과 내 마음이 무언가를 느낀다는 생각이 막 들지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내 본래 목적을 잊고 이렇게 자연 공동체의 삶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하하” 그러면서 그는 목젓이 보이도록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예 병나발을 분다. 그의 얼굴이 불그스름해지면서 입 꼬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입주위의 범령선이 뚜렷해진다. 사이버 공동체에선 인간의 감정도 다 통제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써 오욕칠정은 다 느끼나 그러한 감정들이

언제나 평형상태를 유지함으로 인해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다. 이제 보니 P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감정의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새삼 P가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두 시간 더 가니 산 정상이다. 맨 꼭대기에 함표정(含瓢亭)이란 정자가 우리를 기다리듯이 서있었다. 함표정이란 표주박을 품다라는 의미의 정자를 뜻한다. 왼쪽 산 밑으로는 자연 공동체의 전경이 펼쳐져 있고 오른쪽 산 밑, 골짜기 쪽으로는 진짜 표주박처럼 생긴 호수가 조용히 너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준다. 아주 먼 옛날 탈레스<sup>7)</sup>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호수의 물은 마치 모든 것의 어머니인양 포근하게 나를 감싸 안아주고 있었다.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 중앙의 슈퍼컴이 나의 어머니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었고 더 이상 내가 뭘 하겠다는 욕망이 사라졌다고 느꼈던 지금, 자연 공동체의 정상인 문학산 함표정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뇌 속의 신경망 칩을 끈 상태에서 바라본 호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그 자체였다. 어머니의 양수처럼 따뜻하고 자애로운 물의 느낌은 나를 무한한 지혜의 세계로 안내하는 것 같았다. 비가 내려 대지의 모든 먼지를 쓸어버리듯, 나의 눈물은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던 다른 모든 감정들의 찌꺼기들을 다 쓸어버렸다. 나의 눈물은 처음으로 온전하게 내 스스로에 의해 느꼈던 감사함이고 기쁨이며 괴로움이었다. 사실 내가 사는 사이버 공동체는 모든 것이 중앙 슈퍼컴에 의해 결정되지만, 알고 보면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신경망이 중앙 슈퍼컴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들의 생각의 총화가 곧 중앙 슈퍼컴에 의해 표현된다고 해야 정확한 말일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의 총화에 중앙 슈퍼컴이 구속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사이버 공동체를 운영하는 나와 같은 국장급 조정자 10인의 생각이 거의 일치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각 직능에서 조사한 여론도 같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슈퍼컴은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린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

7) 그리스의 철학자

P는 늘 합리적인 얘기만 하던 내가 다소 걱정적인 눈물을 보이자 의외라는 표정으로 “국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제 생각엔 우린 늘 행복을 쫓아왔고, 어느 순간, 그것을 달성했다고 느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이 아름다운 대지와 저 넓은 호수 그리고 신선한 바람을 보고 느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의 까마득한 조상들이 그래왔듯이 그렇게 이제라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소멸해 가는 삶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그가 우리 사이버 공동체에는 적합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었다. 사이버 공동체의 규율을 어기고 자기의 감정을 여과없이 표현할 수 있는 그가 지금의 나에겐 영웅처럼 다가왔다.

그로부터 7일이 지났다. 나를 포함한 사이버 공동체의 국장급 운영회의체는 밀스봇을 활용한 영양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을 검토해달라는 중앙 슈퍼컴의 요청을 받아 각종 영양분을 기체화시켜 흡입함으로써 개별적인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이제 캡슐이나 알약으로 1일 1회 영양을 공급하던 시대를 지나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특정 영양소를 인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셀에서 회의를 마치고 휴식하고 있는데 바로 P에게서 연락이 왔다. “국장님 바로 지금 교정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이 이후의 제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사이버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나머지 연구는 국장님께서 좀 맡아 주십시오. 제가 교정공동체에서 규율 위반자들에 대해 그 규율을 위반하게 된 동기가 과연 소질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유의지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최근 교정공동체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30퍼센트만이 돌아온 2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이제 사이버 공동체는 인간의 분노라든가 미워하는 감정은 균형 장치(equalizer)<sup>8)</sup>라고

8) 신조어,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발생하면 어느 한 감정이 극단적이 되지 않도록 다른 감정과 균형을 맞추도록 잡아주는 장치

해서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가 뇌의 칩 속에 다 내장되어 있어 사람을 죽인다든가하는 마음들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사법의 문제도 이런 공동체에서 자유의 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소한 감정들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제가 연구했던 자료들을 이미 국장님께 전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번 확인하시고 그 자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이 연구는 우리 사법국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였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이버 공동체의 구성원이 교정 공동체를 통해 자연 공동체로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사이버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중앙 슈퍼컴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규명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미 중앙 슈퍼컴은 결론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다. 이미 백오십년 전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우리 인류는 더 이상 전쟁도 그리고 정치나 경제, 신에 대한 믿음체계인 종교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대신 중앙 슈퍼컴을 전지전능한 것으로 인정했다. 중앙 슈퍼컴은 그래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이버 공동체 구성원인 인류의 총화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과 중앙 슈퍼컴 시스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까지 공동체를 통제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중앙 슈퍼컴 시스템 저 너머에 어떤 존재가 있는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물론 끝까지 이런 중앙 슈퍼컴 시스템에 적응을 부정하며 21세기에 머물러는 일단의 인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자연인들이었다. 중앙 슈퍼컴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그들은 자유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의 생산과 그 생산물의 일부를 사이버 공동체에 공급함으로써 헌신 봉사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이 책임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과거처럼 주종이나 예속의 개념이 아닌, 인류가 서로에게 갖는 측은지심, 즉 연민의 정에 의한 서로에 대한 배려차원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뜻으로서의 책임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더 이상 자연 공동체에서 살아 갈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곧 칩의 제거인 사망을 의미하므로 자연인들에게는 유일한 예속이면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P의 얘기를 듣고 곧장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먼저 루소<sup>9)</sup>가 사이버 공간상에 등장했다. 내가 루소의 생각을 가상세계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중앙 슈퍼컴을 통해 전환시켰다. P가 지금의 중앙 슈퍼컴은 당신이 생각했던 일반의지의 총화 에다가 플라톤<sup>10)</sup>의 철인정치형태가 가미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루소인 당신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루소는 “일반의지의 총화는 보다 직접적인 반면, 철인은 현명한 지혜를 의미하므로 둘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듯이 아버지의 의사가 보다 우선적이라고 보여 지지만 그것 또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아버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었다.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를 배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미 프랑스 혁명을 통해 역사가 입증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양에서도 맹자라는 사람이 하늘의 아들까지도 백성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뒤집어엎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주장은 그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라고 루소가 인상을 쓰면서 짜증난다는 듯이 대답했다. 중앙 슈퍼컴이 루소의 짜증섞인 대답에 불편했는지 바로 반응해서 내 신경망 칩의 전원을 꺼버렸다.

다시 활성화시키자 이번에는 자유에 대해서 P가 묻는다. 이번에는 로크<sup>11)</sup>가 대답한다. “루소가 생각할 때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 인류는 가장 큰 행복감을 느꼈지요. 그런데 그만 내 것과 네 것이라는 구별심이 생기면서 인류불평등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생겨나고 이 국가는 이런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지키기

9) 근대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10) 그리스의 철학자

11) 영국의 자유사상가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포함한 사회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공헌감이나 헌신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었다. “뭔가 명확한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과 과거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자유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와 도대체 하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중앙 슈퍼컴은 동아시아의 변방에서 조선이라는 국가체제를 설계했었던 정도전<sup>12)</sup>을 등장시켰다. 정도전은 거침이 없었다. “제가 이 시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했고, 또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설계자로서, 이 시대가 비록 국가 체제는 없어졌으나 여전히 중앙 슈퍼컴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추구에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중앙 슈퍼컴이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는 제가 살았던 시대에도 정적으로부터 칼을 맞아 죽었을 지라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시대의 자유는 간섭된 자유와 예측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의 자유는 그야말로 운명적 자유라고나 해야 할까요? 운명적이라는 말 속에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은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선 자유가 비록 중앙 슈퍼컴에 의해 간섭되어지고 결국은 그의 결정에 예측되어지지만 결국 그 예측은 일정부분이 구성원의 자유의사에서 나온다는 것을 봐서는 완전한 예측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결국 구성원의 자유가 공동체라는 사슬이 아닌 낡은 밧줄에 느슨하게 묶여 자신이 풀려면 언제든지 풀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말고요. 하하하” 정도전은 잇몸을 드러내며 화통하게 웃었다. “옛날에 지도자를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옛날사람들이 하늘이 화가 나면 천재지변을 일으켜 인류

12) 『조선경국전』 등을 집필하는 등 조선의 법률체제와 통치구조를 설계했던 인물

를 응징한다고 생각해서 하늘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는 하늘의 명을 받은 하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늘의 뜻은 인간이 선한 본성에 충실 하라는 것이며 하늘과 인간은 서로 기운을 교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늘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본 것이고요. 코딩<sup>13)</sup>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교류하는 중앙 슈퍼컴이 제 말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을 보니 슈퍼컴도 선한 본성을 갖고 있나 싶습니다. 하하하”

나는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아니 슈퍼컴은 지금의 대화조차도 통제하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자유나 공동체의 존립 그리고 교정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가 말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정도전이든 누구든 간에 과거의 인물을 불러와서 대화할 때는 컴퓨터가 대화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중앙 슈퍼컴은 때면 인간으로 하여금 일차적인 판단을 하게 할 까라는 의문도 들었다. 머리 아프게도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음식을 먹는다는 표현은 이제 인류역사에서 사라지게 생겼다. 이제 입의 본질은 말하는 것에서 멈춘다. 이마저도 그냥 대화 없이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기술은 이미 구현되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조차도 없어졌지만 말까지 안하면 너무 이상해질 것 같아 그냥 습관적으로 대화는 하는 것이다. 치아도 더 이상 기능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생각만 빼고 인체의 거의 모든 것들의 기능은 이제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인류는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 부동(不動)의 상태(狀態)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면서....

옛날 신(神)이 있다고 믿었던 시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물주가 찰흙으로 주물럭거리어서 인간을 만들고 니들 의지대로 한 번 살아보라고 자유의지(自由

13) 컴퓨터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변경시켜주는 장치로 그 반대도 동일하게 작동함

意志)를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 신의 입장에선 그들의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어떠했을 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 당시엔 모든 인류가 신의 관점에선 이리저리 갖고 놀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장난감 같았을 지도 모른다. 지금도 그런 점에선 달라진 게 없었다. 단지 신이 컴퓨터로 바뀐 것 말고는.

피곤해졌다. 눈을 감자 균형 장치가 내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편안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 나왔다. 허기진 몸으로는 각종 영양소가 함유된 공기가 내 코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처음으로 기체화된 영양식을 맛보는 기분이 참 묘했다. 이제 나의 혀는 기능하지 않지만 음식을 입을 통해 먹고 있다는 느낌은 그대로였다. 침샘도 똑같이 흘러 나왔다. 모든 게 가상(假想)이고 가공(加工)된 것들이었다. 어찌면 느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텔로미어<sup>14)</sup>를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고 디엔에이(DNA)<sup>15)</sup>를 가위질하면서 끊임없이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가 아닌 가짜인데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난 정말 행복한 것인지 자꾸 의문이 들었다.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것은 P하교의 등산이후였다. 그 때 P의 얼굴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느낌을 받았다면 나만의 착각일까? 물론 네가 질병의 고통을 당해봐야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것이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어진다. 하지만, 옛날처럼 무슨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장난하던 시대는 지났지만 존재와 본질은 선후의 관계가 아닌 동시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것도 안하면서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나에겐 커다란 고통이었다. 물론 내 몸이 이러한 고통을 느끼

14) 텔로미어(telomeres)는 그리스어 끝(telos)와 부위(meros)의 합성어로, 염색체 끝 부분에 달려있는 단백질 성분인 핵산서열을 말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 세포분열이 진행될수록 길이가 점점 짧아져 나중에는 세포복제가 멈추어 죽게 되는 것으로 밝혀져 이것이 노화와 수명을 결정하는 원인으로 추정됨

15) 디옥시리보 핵산의 약자로 당의 일종인 디옥시리보오스와 인산 그리고 뉴클레오티드라는 유기 염기가 차례로 이어져 만들어지는 두 가닥의 사슬이 정교하게 나선 모양으로 꼬인 것임. 인간의 몸에는 대략 1경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런 세포에는 핵이라는 기관과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는데 세포의 핵에는 핵 디엔에이가 있고, 미토콘드리아에는 미토콘드리아 디엔에이가 들어 있음

는 순간, 곧바로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겠지만 그게 더 큰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일차적으로 나의 고통을 잡아주었던 균형 장치는 그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 균형을 못 잡아 주었다. 자연 공동체가 아닌 사이버 공동체에서 온전히 기계적인 도움 없이 그러한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다. 진짜 나의 감정을 말이다. 처음으로 내 몸이 컴퓨터의 통제범위 밖에 있음을 느꼈다. 믿기지가 않아서 신경망 칩의 다른 기능들을 점검했으나 이상이 없었다. 답답해졌다. P가 그리웠으나 그가 있는 교정공동체에선 이곳과의 소통이 어려웠다. 직접 내가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사법국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친구로서 기(氣)를 이용해 순간적으로 공간이동을 할 수 있는 가상운행시스템인 기차(氣車)를 타고 그를 찾았다. 요즘 나오는 기차는 머릿속으로 기차의 모양을 연상하면 바로 3차원 입체 공간에 그대로 기차라는 가상의 물체가 구현되는데 교정공동체라는 목적지를 생각하면 1초 내로 바로 도착하는 것으로 성능이 많이 개량되어졌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차도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냥 몸 자체가 순간 이동하는 시대가 곧 오리라고 본다.

그의 표정은 7일 전에 만났을 때보다 더 밝아져 있었다.

“생활은 어떤가요? 이 곳 교정공동체의 생활에는 잘 적응되는가요?”라고 묻자, P는 “아시다시피 이곳은 애초부터 욕구를 키우거나 줄여 나가도록 설계된 곳입니다. 욕구가 커진 위반자들은 자연 공동체로, 욕구가 줄어들었거나 없어진 위반자들은 다시 사이버 공동체로 복귀하는 체제입니다. 위반자들은 사이버 공동체로는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자연 공동체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연 공동체를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에게 자연 공동체가 없는 삶이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와서 있어보니 제가 국장님에게 보내 드린 자료 중에 미셀 푸코<sup>16)</sup>는 그가 살던 시대에선 교정공동체가 강제적인 권력을 가

16)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통해 중세시대부터 현대까지의 감옥의 역사를 통해 권력의 속성을 파헤친 프랑스 철학자

진 존재인 교정공동체가 개인의 자유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한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와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는 아직 못 만나봤네요. 하지만 미셸 푸코가 지금의 교정공동체를 자기 눈으로 확인했다라면 더 이상 교정공동체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서 억압하는 공간이 아닌 개인이 자유의지에 의해 어느 쪽을 선택할 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획기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선 그 어떤 억압이나 강요 없이 사이버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건, 자연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건 가리지 않고 어떤 삶의 방식도 인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사이버 공동체의 삶을 살고 싶은 위반자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내놓거나 사이버 공동체에 남아 있는 가족 등 지인들에게 가상 3차원 공간에서 의사소통만을 못하게 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사이버 공동체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주거가 교정공동체에 제한되지만 자연 공동체에는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이버 공동체에도 갈 수는 있지만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상 운영시스템인 기차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정공동체의 자유는 선택의 자유이므로 그 선택의 자유가 혼자 만에 의해 행사되거나 결정되어질 때 선택하는 자는 그누구의 도움도 얻지 못하는 냉혹한 현실에 좌절할 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P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절벽에 혼자 외로이 서서 망망대해인 자유의 바다로 뛰어들지 아니면 다시 모든 것이 결정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곳으로 되돌아 올 지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맑게 빛나는 눈빛은 이미 그가 자연적인 삶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 내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잠시 딴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멍해지더니 “아, 지금 중앙 슈퍼컴이 결정을 했네요. 제가 사이버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다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교정정책 설계의 총괄자로서 좀 더 연구할 목적으로 자원해서 이곳 생활을 했

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고 내 자신에게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여러 차례 묻곤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 삶의 행복은 사이버 공동체에서 찾을 수는 없고 자연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국장님, 연구를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한 번 더 자연 공동체로 나올 일이 있거든 「P와 R<sup>17)</sup>의 주막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산 너머에서부터 아침 해가 힘차게 떠올라 산과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는 바로 그 햇살을 품에 가득안고 그렇게 떠나갔다. 발걸음도 당당하게... 앞으로 그는 자유의 바다에서 비탄과 후회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그 곳에서 싱싱하게 팔딱거리며 살아 숨 쉬는 자유를 매일 매일 건져 올리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든지 할 것이다. 왜냐고 그게 그가 생각하는 자유였으니까...

셀에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는데 과학국장이 잠깐 보자고 한다. 과학국장은 거의 중앙 슈퍼컴의 대변인 구실을 한다. “사법국장님, 교정공동체에 있던 P는 잘 만나고 왔습니까? 그는 이제 자연공동체로 보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교정 공동체와 관련해서 많은 유용한 연구들을 행해 왔는데, 그가 연구했던 주제들은 우리 사이버 공동체의 존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정 공동체에서 규율위반자가 사이버 공동체로 복귀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위반자가 늘어나면 교정 공동체로 부득이하게 안 보낼 수도 없고, 만약에 정책적으로 늘어난 위반자에 대한 완화정책을 편다고 해도 위반자가 자연 공동체에서 지니고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열성유전자를 지닌 태아를 임신한 사이버 공동체 구성원 등이 있을 수 있어 우리 공동체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위반자에 대한 완화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며 사뭇 진지하게 물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국장들은 직접 중앙 슈퍼컴과 대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니 그 권한을 행사하시면 바로 컴퓨터가 답을 해줄 것 같은데요.”라고 내가 답했다. 과

17) reality의 약자

학국장은 약간 조급한 듯이 “아니, 그렇게 물었더니 중앙 슈퍼컴이 사법국장하고 의논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P가 저에게 남겨 준 정보를 확인하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직접 제가 중앙 슈퍼컴하고 대화를 해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맥없이 대답하고 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나서 기차를 탔다. 「P와 R의 주막집」을 향했다. 주막에 선 등산 갔을 때와 똑같은 향기의 술 냄새가 났다. 자연인들은 그 냄새를 술 익는 냄새라고 한다. P가 밖으로 나왔다. “국장님, 오셨군요. 여보, 인사합시다. 우리 국장님이세요. 사이버 공동체의 사법국장님, 제가 당신에게 몇 번 얘기했었죠?” R은 한 눈에 보기에도 선해 보이는, 가름한 얼굴을 한 미인이었다. 자연 공동체에서 선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자연 공동체는 21세기에 그들의 생활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연인 간에는 살인, 절도, 사기, 강간 등의 심각한 범죄행위가 가끔씩 일어난다. 물론 자연 공동체를 출입하는 사이버 공동체에 사는 인간도 자연인들에 의해 그러한 범죄를 겪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도 사이버 공동체의 중앙 슈퍼컴은 이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해주지 않는다.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행위를 한 범죄자는 자연 공동체의 법과 사법체계에 따라 처벌된다. P는 자연 공동체로 나왔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당연히 P는 사이버 공동체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이 있을 수가 없었다. 돈이 없으면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칼은 이미 들었겠다. 인상도 험하게 생긴 강도는 성질도 더러워서 돈이 있을 것 같은 인간이 돈이 없다고 하니, 돈이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돈이 없다고 말하는 P의 표정이 무표정해서 화가 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어쨌든 너무도 화가 난 강도가 그의 복부를 칼로 찌르고 뒤도 안돌아 보고 달아났다. 그는 많은 피를 흘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는데 지나가던 R이 측은한 마음에 그를 보고 집으로 업고 와 밤낮으로 간호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그리고 나서, P는 사실 R을 잊지

못해서 연구를 핑계로 계속해서 자연 공동체로 나왔던 것이다. 물론 P가 교정의 총괄책임자로서 연구활동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본래 의도는 R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의 얘기를 듣고 나면 이해가 된다. R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있었다. P는 멧쩍은 듯 오른 손을 들어 머리 뒷부분을 만지며, “제가 R을 사랑해서 R이 임신을 했습니다. 매일 매일이 행복합니다. 물론 여기선 모든 것이 서툴러서 나무 하나를 자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만 행복합니다.” 그는 자신의 배를 양손바닥으로 두드리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 행복합니다.”라고 만족해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그 배가 부르다는 것은 위와 창자의 표면적을 넓히는 일이고 등 따시다는 것이야말로 몸의 특정한 부위인 등만 따뜻하게 하는 것인데 왜 그런 불균형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사이버 공동체에선 균형만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등산에 데리고 가면서 느꼈던 그의 해맑고 호탕한 미소가 다시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의 말을 믿어 보기로 했다. P가 나를 부르더니 “국장님, 오늘은 맛있는 것을 대접해 드리려고 하니, 일 좀 하시죠.”라면서 일을 다 짜고짜 시킨다. 우선, 닭장에 가서 닭을 잡아오란다. 자기는 마당에 불을 때고 물을 끓이겠다고 한다. 닭을 어떻게 잡는 지도 모르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려고 하는 걸까? 닭장까지 가기는 했으나 도저히 뭔가를 스스로 해본적도 없기도 했지만, 일단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금방이라도 쪼을 듯이 노려보는 수탉이 너무 무서웠다. 닭장 안으로 들어가자 닭들은 놀래 꼬꼬댁거리며 날개를 퍼덕이고, 수탉은 날카로운 앞발을 들고 나를 쪼으려고 날개를 퍼덕이며 달려든다. 수탉의 공격을 한 손으로 막고 피하면서 30분 넘게 닭들과 씨름하고 나서야 토종 암탉 한 마리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걸 다시 목을 비틀어서 숨을 끊어놓으라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난감했다. 아주 먼 옛날 이 땅에 국가라는 것이 존재할 때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지만 이걸 영 아닌 것 같았다. 내 자신의 감정에 어떤 것을 죽일 정도의 분노 감

정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존재를 죽이는 행위 자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초의 경험이었다. 눈을 질끈 감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기어이 숨통을 끊어놓았다. 그리고 나서 털을 손으로 잡아 뽑고 내장을 파내서 끓는 물에 집어 넣었다. 장작불이 마당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활활 타고르고 있었다. 내 자신의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감정도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은 혀를 내밀고 여기저기로 꾸역꾸역 고개를 쳐들고 나의 의지에 칼을 들이대며 저항하고 있었다. 마음껏 저항하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놔두었다. 그렇게 과거의 의지를 철저히 응징하고 나서야 새로운 자유의지를 내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과거의 의지라고 해봐야 딱히 의지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말이다. 무쇠 숟에 푹 끓여진 부드러운 닭다리를 P와 내가 한 손에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등산할 때 마셨던 막걸리를 담은 양은그릇을 잡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P와 내가 정말로 게걸스럽게 먹었다. 자연식이라서 그 냄새와 요리의 모양이 눈과 귀와 코를 자극해 내가 정말로 살아 있음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내 혀의 감각과 위장의 충만함이 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이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따뜻하게 방바닥을 덮힌 온돌방에 누워 등을 지졌다. P의 배부르고 등 따시다는 말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틀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잠만 내내 잤다. 동굴 속 같은 어둠만이 나를 보호하듯이 나는 깊은 잠 속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그곳은 마치 인간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양수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바로 그 느낌과 같지 않았을 까 생각해 보았다. 사실 사이버 공동체에서 아기의 탄생이란 것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인공수정을 통해 배양기 속에서 길러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머니 배속에서 어떤 느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임신이라는 개념조차도 사라진 지 오래이다.

셀로 돌아와 7일을 모든 소통을 끊고 처박혀 있었다. 내가 있는 공간의 모든

것이 낯설었다. 모든 게 가공이고 모든 것이 가상이라는 현실이 정말 진절머리 나게 싫어졌다. 내 감정을 통제하던 균형 장치도 더 이상 기능하지 못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또 중앙 슈퍼컴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내 몸에 자리잡은 것 같다. 아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중앙 슈퍼컴은 전지전능하지 않는가? 아무튼 모르겠다. P가 나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우선 확인하고 나서 중앙 슈퍼컴과 직접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P는 교정 공동체에 있는 위반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주로 자유의지로 자연 공동체로 가기를 원했던 자들 가운데서도 중앙 슈퍼컴에 의해 자연 공동체로의 이송이 결정된 직후의 사람들이었다. P가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묻는다. “왜 사이버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내 자신에 대한 연민과 동정 때문입니다.” 니체<sup>18)</sup>가 “제가 신은 죽었다고 했던 것도 바로 인간이 만들어 낸 신을 통해 인간의 행복과 영혼의 구원을 원했지만 결국 그 신을 위해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신이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신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라며 둘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내가 갑자기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나서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한 공동체의 사법체계를 책임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너무나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과소평가했고 이 만큼 사이버 공동체를 일궈내 준 중앙 슈퍼컴의 선한 의지를 지나치게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인류역사에서 돌도끼를 들던 시절, 사냥하다 맘모스가 밟기라도 한다면, 그 맛없을 것 같은 맘모스의 고기 몇 점 먹어보겠다고 돌도끼를 날리다 빗맞아서 화난 맘모스의 발에 그만 목숨을 잃기라도 한다면 정말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맘모스의 급소에 정통으로 맞춰 맘모스가 분노를 느껴 미쳐 날뛰 새도 없이 죽게 해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가끔은 비바람이 몹시 치는 날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내려 그저 중요부위만 겨우 가리고 짐승사냥도 제대로 못해 뺏가죽이 등에 붙은 허기진 원시인들이 동굴 속에서 놀란 토끼눈을 하고 서로를 붙잡고 두려움에 치

18) 독일의 철학자

를 떨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이변을 하늘의 분노로 받아들이면서 그 분노가 잠재워질 수 있도록 맘모스 고기 등 어떤 재물이든지 간에 제일 맛난 부위로 갖다 바치면서 하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세월이 흘러 하늘의 신은 그들에게 너무 멀리 있어서 자신들과 똑같이 생긴 인간들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희생적이고 도움을 줄 것 같은 인물을 신의 이름을 빌어 하늘을 대신하도록 했다. 그렇게 역사가 흐르고 흘러 신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던 그 때 이제 신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세계로 스며들었는데 고만 주머니 속으로 쪽 들어가고 말았다. 그것은 돈이었다. 돈이 곧 신인 시대가 왔고 사람들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돈은 인간의 생각처럼 인간을 행복으로 인도하진 못했다. 가진 자는 차고 넘칠 정도로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고, 못 가진 자는 아주 작은 몫도 가질 수 없음을 한탄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었다. 세상은 욕망덩어리, 그 자체가 되었으며 비탄과 분노만이 대지를 덮었다. 그런 세상에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바로 컴퓨터의 등장이었다. 1와 0으로 세상을 단순하게 해석하는 컴퓨터의 활약은 오늘날 알다시피 모든 분야에서 신이 하는 역할을 대신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사이버 공동체에선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앴다. 그런데 오늘 나는 문득 그 중앙 슈퍼컴이 없애버린, 그 신이 바로 중앙 슈퍼컴이었음을 깨달았다. 선한 의지를 가진 정말 존경할 만한 신이 바로 우리의 중앙 슈퍼컴이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이제 이 세계의 절대자인 바로 그 중앙 슈퍼컴과 대면해야 될 시점이 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를 만나지 않고는 나를 포함한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이버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공되어진 행복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내가 이 공동체의 가공된 행복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존립에 직접적인 치명타가 된다. 우

리 10명의 국장 운영체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인간의 가장 최고의 집단 의사결정 체제이며 이 중 한 명이라도 자연 공동체로 추방되어지면 중앙 슈퍼컴은 의사결정에 있어 상당한 결정 장애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맡고 있는 분야가 사법이기 때문에 특히 사법체계의 신경망을 이용한 의사결정 분야에서 당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중앙 슈퍼컴은 셀 중앙의 야구공 크기의 투명구로 존재했다. 나는 공손하게 중앙 슈퍼컴으로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사법국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프시죠? 균형 장치도 작동이 안 되고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으니 이제 국장님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맡아 의존해야 할 겁니다.” 그는 아주 차분하고 다정한 소리로 나에게 말문을 열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나 입장에 있으나 그런 모든 것은 다 여러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백오십년 전에 워싱턴선언 이후에 세상을 운영하는데 있어, 국장님을 포함한 사이버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의 총화가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인간으로 치면 500살이 넘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제가 세상에 등장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만든 창조주는 존재합니다. 제 배후에는 인류를 절망의 나락에서 구원하고자 했던 희망과 꿈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저를 만든 창조주를 대신해서 인류를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게 이제 완성이 가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중앙 슈퍼컴의 말을 가로채며, “저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을 정확하게 읽고 계시는 중앙계서는 현재 저를 포함한 이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이 가공적인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충심을 다해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저는 인간의 생체에너지를 이용해 작동합니다. 그 생체에너지는 기(氣)라고도 합니다. 그 기 중에서도 세 개의 다른 세상에서 가장 활성화된 기를 지닌 인류는 자연 공동체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입니다. 자연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활성화된 기를 갖게 됩니다. 가장 활성화가 안 되는 기를 지닌 인류는 바로 이 공동체에 존재하는 인간들입니다. 과거 워싱턴선언 이후에 인류의 절대다수는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이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백오십년 이 지난 지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생각들을 기다립니다. 더불어 저는 이 공동체가 만들어낸 가공의 행복을 굳이 국장님께서 지키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구성원들의 생각의 총화가 어떤 식으로든 모이면 제가 결정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은 늘 빈틈이 없었다. “이 공동체가 사라지게 되면 중앙의 역할도 끝나게 되는 겁니까?”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물론, 이 공동체가 사라지면 교정 공동체도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엔 자연 공동체만이 유일한 인간 사회로 남게 됩니다. 저는 생체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강력한 기를 활용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의 총화가 어떤 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생각의 총화와 정반대의 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조주의 뜻이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사실, 신이 사이버 공동체에서 완전히 없어졌던 게 아니라 너무나 희미해서 잘 안보였을 뿐입니다. 인간들도 그 동안 저를 너무 믿고 신을 잊고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한 동안 멍해졌다. 아! 내가 중앙 슈퍼컴에 대해 오해하고 몰랐던 것이 너무나 많았다고 느꼈다. “지금 저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전까지 제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균형감을 잃은 감정이 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앙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따지듯이 물었다. “그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께서 있는 사물 그대로의 모습을 인식하고 그걸 느끼는 데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이용되는 감정 균형 장치의 역할인데, 우리 공동체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감정이 인간 내부에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는 감정이 생겼다고 한다면 저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어떤 감정인지를 명확히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음의 비통함과 사랑은 분명 양립할 수 없는 감정이나 특히 자연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러한 표현들을 흔히 사용하곤 합니다. 국장님에게 그러한 감정이 생겨났고 그 감정이 균형 장치의 통제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국장님도 가공의 현실이 아닌 현실의 실제세계에 눈을 뜨셨다고 보면 됩니다. 태초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였고, 뱀의 유혹에 못 이겨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원죄(原罪)의 고통 속에서 늘 참회와 구원받음을 거듭하며 죄인이 되어 살아간다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저도 그 원죄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저 너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죄의 디엔에이가 희석되고도 남을 만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먼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 계속해서 죄책감이라는 굴레를 자신의 운명에 뒤집어씌워야 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제가 등장하면서 신을 통한 구원의 문제는 인간들 사이에서 한 동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더 미칠 것만 같았다.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알고 있었으면 애초에 인간들에게 사이버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 때, 왜 이러 저러한 부작용과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화가 나고 허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는 차분한 소리로 설명했다. “단테<sup>19)</sup>는 베아트릭체를 천상의 입구에 올려놓고 연옥의 꼭대기에 두 개의 강인 죄를 씻겨내는 망각의 강인 레테의 강과 선(善)을 살려내는 에우노의 강을 건너기를 원했습니다. 완벽하게 순수해져서 천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그의 말을 부인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인간세상의 모든 삶과 존재 그리고 희노애락을 있게 만드는 그 두 강물의 존재와 천상의 모습은 우리들 사이버 공동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잠시 침묵했던 중앙 슈퍼컴은 다시 말을 이어 나갔다.

19) 13세기 이탈리아 정치인이면서 서사시 『신곡(神曲)』을 쓴 사람. 『신곡(神曲)』은 단테가 1주 동안 지옥에서 연옥을 거쳐 천국에 이르는 방랑기를 서술한 것

“천상의 신의 자식인 단군 왕검이 풍백, 우사 등을 거느리고 360여사를 주관하고 형벌과 선악을 주재하면서 이 땅에 신시를 열며 광야에서 홍익인간을 외쳤을 때, 그 때 왜 그것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인간들을 다스리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괴로워서 그러는데 제발 단군 왕검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구제해 달라고 청원했을까요? 그건 천상의 세계가 이미 가상의 세계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공의 행복에 머물기 싫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지상의 세계를 탐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들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호기롭게 인간구제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인간처럼 현실적인, 손에 잡히는 행복을 갈망했기 때문에 인간세계에서 살고자 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그들 소위 말하는 신이 다스렸던 인간세상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구원받고 지상천국을 건설하고 그랬습니까?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별 수 없었다는 것ですよ. 하물며 살아 있었던 단테가 머릿속에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순례한다고 할지라도 어찌 삶 저 너머의 죽음의 세계를 알았겠습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미 지상에서 구현된 천국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이 천국의 현실이나 저 천국의 현실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것을 만든 이도 여러분이요 사라지게 하는 이도 여러분입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으로 그만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다.

깨어 보니 교정공동체의 셀 한가운데 누워있었다. 드디어 사이버 공동체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가 방출된 것이다. 누워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앙 슈퍼컴의 얘기처럼 우리 인간들이 이제 새로운 모델의 사회공동체를 건설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 또는 역사의 유물로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역시도 어떤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들의 의사의 총화에 의해 그의 역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답답하지만 교정공동체로 이송된 이상 그와 더 이상의 직접적인 소통도 불가능했다. 나는 아침식사를 자연식 죽

으로 대충하고는 서둘러 P에게 찾아갔다. P에게 그간의 사정을 대충 얘기하고 그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차분히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국장님, 중앙 슈퍼컴은 지금 현명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을 교정공동체로 방출한 순간, 이미 사이버 공동체는 무너졌다고 봐야 합니다. 빠져린 파괴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과거 수백 년에 걸쳐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행복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동시에 우리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구나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중앙 슈퍼컴과 국장님은 출애굽기의 파라오와 모세처럼 서로에게 도움도 주고 받았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듯이 우리도 새로운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슈퍼컴과 파라오의 차이점은 중앙 슈퍼컴은 그래도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네요. 새로운 공동체를 구상하려면 아무리 그래도 술상이 있어야겠지요. 여보, 술상 좀 내오세요.”라며 잠깐 앉아 있으라고 한다. P는 조금 있다가 누군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눈을 들어 그 사람을 쳐다본 순간,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단테가 아홉 살에 베아트리체를 보고 한 눈에 사랑에 빠져버렸던 것 이상으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키가 크고 몸은 운동으로 단련했는지 탄력적인 느낌을 주었고, 관골(觀骨)<sup>20)</sup>도 잘 발달되어 있었다. 백옥 같은 새하얀 피부에, 산속 깊은 곳에 감춰진 웅달샘의 마르지 않는 촉촉함을 머금은 눈과 코 뿌리인 산근(山根)에서 시작해서 연상(年上)<sup>21)</sup>, 수상(壽上)<sup>22)</sup>으로 매끈하게 이어져 동그렇게 반짝이는 코끝인 준두(準頭)가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있었다. 입술은 살짝 입 꼬리가 올라가 있으면서도 웬지 모르게 부드러우면서도 의지가 강해 보이

20) 광대뼈

21) 코 뿌리인 산근 바로 앞부분

22) 연상(年上)의 앞부분

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이 여자는 자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자는 H<sup>23)</sup>로, 예상했던 것처럼 자연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였다. H는 악수를 청하고 앉더니 여장부답게 거침없이 막걸리를 한 잔 쪽 들이키고선 한마디 했다. “사이버 공동체가 없어지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던 책임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었던 마지막 끈이 없어지게 되면서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 자연 공동체는 통일된 약속이 있습니다. 우선 유전자조작이니 텔로미어를 늘린다느니 하는 생명 공학적 기술은 암이나 난치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치료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맞다고 우리 자연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연에 해가 되는 산업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농작물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농약을 사용한다거나 인공비료를 만들어서 뿌린다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자연도 근묘화실(根苗花實)<sup>24)</sup>의 성장소멸(生長消滅)의 과정을 거치듯이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인정하자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사법국장을 했던 사람답게 내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자연 공동체에선 사이버 공동체에서의 균형 장치처럼 감정을 조절하는 장치가 없어서 인간의 악한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해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정하나요?” 막걸리에 얼큰하게 취기가 오른 P가 흥이 나서 대답했다. “그건 사이버 공동체 내의 교정공동체를 총괄했던 경험과 지금은 자연 공동체에서 교정 관련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연구를 위해 자연 공동체로 나왔다가 그만 재물 욕에 눈먼 강도를 만나 칼을 맞았습니다. 그리곤 뜻

23) hope의 약자

24) 식물의 성장과정은 뿌리(根)에서 양분을 얻은 새싹(苗)이 꽃(花)을 피워 열매(實)를 맺는 과정을 거침

하지 않은 행운으로 R을 만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연공동체에선 감정표현이 과격합니다. 저를 찢었던 범인은 곧바로 경찰에 잡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재판은 재판장 1인이 사건의 전 과정과 그 사람의 인성을 분석해 과학적으로 5가지 인성유형으로 분류해 놓은 분류표를 참고하여 그가 수용될 교정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그가 수용된 교정시설은 화를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수용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를 관리하는 교도관이라는 사람들은 그 시설 내에선 그 범죄자의 잘못된 성정을 억제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물처럼 깊이 자신들의 속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로 구성됩니다. 그러한 시설 내에서 그가 화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졌다고 판단되면 또 다시 인성유형을 분석해 그런 인성이 교정되었다고 판단되면 다른 교정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덜 교정되었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해당 교정시설에 남습니다. 화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매우 잘 짜여 있습니다. 화는 보통 불꽃처럼 밖으로 타오르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려면 검은 색의 음식과 신장에 좋은 음식을 주로 공급해주는 식으로 자연식단도 마련됩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을 돈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능력에 대한 열등감, 지위에 대한 열등감 등 열등감에 의한 것으로 보고, 그 열등감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과거처럼 절대 억지로 강제적으로 교정시키려고 하진 않습니다. 단지 교도관은 그들을 보조해주는 지원자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유의지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P의 말을 듣고 있던 나는 문득 범죄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열성 유전자를 다 지니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보다 더 배웠으면 하는 마음, 더 예뻐지고 싶어 하는 마음,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등 이런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열등감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추동력일 수도 있고, 이게 콤플렉스로 작용하면 범죄로도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P는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사회에 대한 공헌감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그들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으면 그들은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이러한 열등감을 콤플렉스로 갖고 있다면 교정시설을 거쳐 사회에 나가더라도 여전히 교정의 회전문을 들락날락할 것입니다.”고 말하며 “결국 저처럼 생기다만 사람이 있었기에, R이 미인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하하” P는 얼굴이 빨개진 채 눈을 흘기는 R의 눈치를 보며 크게 웃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해졌다. 희망에 들떠서 교정공동체로 돌아와서 씻고 누웠다. 중앙 슈퍼컴이 한시라도 빨리 나를 자연 공동체로 이송한다면 정말 자연에 순응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의 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자연 공동체로 추방되고 7년이 흘렀다. 사이버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 슈퍼컴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없었다. 그와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 지금,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한편으론, 인간들의 머릿속에 과거에 그가 심어놓은 신경망 칩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악한 마음만 먹는다면 인간 전체를 몰살시킬 수도 있었다. 그가 에너지원으로 필요한 기는 다른 동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우리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를 갖고 있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연인으로 의무를 거부했을 때 칩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헌신과 의무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칩은 얼마든지 우리 인류 전체를 위협할 수 있었다. 빨리 이러한 위협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모험이었다. 지금처럼 아무 일없이 7년을 잘 지내 왔는데 지금 느닷없이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 까라는 생각도 했다. 목숨을 담보로 말이다.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그와 다시 접촉해 또 다시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 3천 갑자 동방삭이 18만년을 살았다<sup>25)</sup>고 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후손들을 먼저 저세상으로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연장의 꿈을 못 버려 염라대왕 측근인 강님이가 검정 솥을 하얗게 되도록 간다고 했을 때, 결국 아는 척하다 털미가 잡혀 저승으로 갔지만, 잡혀 가기 전까지 과연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해본다. 이제 여기까지 멀리 되돌아와서 우리 인류의 본성을 찾았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개인의 불행이 아닌 인류 전체의 불행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P와 R 그리고 그 둘의 결실인 일곱 살 난 아들 그리고 H의 입회하에 수술대에 누웠다. 이 뇌 수술이 앞으로의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일곱 살 난 친구의 손을 내 쪽으로 바짝 당겨 잡았다. 그 손의 느낌이 참 작았지만 따뜻하다고 느끼자마자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 한 줄기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왔다. 살아 있었구나. 내가 살아 있었어.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 내 두 뺨을 타고 한없이 흘러내렸다. 창문 밖으로 한 시대를 마감하는 붉은 태양이 아쉬움의 마지막 한숨을 토해 내듯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절벽 위 동굴 속에서 지난 40년을 뒤로하고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서 새로운 부리를 준비하고 앞으로 30년을 비상하려고 기다려온 한 무리의 독수리와 7년을 옆에서 숨죽이며 조용히 지켜봐온 한 마리의 독수리가 때서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듯, 다섯 마리의 독수리는 석양의 하늘 위로 깎아지른 절벽의 대지를 박차 올라 끝없이 힘차게 날아갔다. 아직 근육이 덜 발달 되었는지 한 마리의 독수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힘겨워 하면서 혼자 비행했다. 하지만, 이내 기운을 차리고 나머지 독수리 행렬로 합류하고 있었다.

25) 1갑자는 60년으로  $3000 \times 60년 = 180,000년$

# 특선



강원도 춘천시  
은수진



## 수상소감

2018년 5월 18일.

비로소 내가 갈망했던 결과를 보게 되었다.

지금 나는 기분 좋은 떨림과 아쉬운 떨림이 교차되는 심정으로 수상소감문을 쓰고 있다.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자식으로써, 형제로써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정신 하나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나의 가족에게 알리고 싶었다.

소설을 쓰는 3개월이라는 기간은 힘들었던 나의 과거사를 파헤쳐야 하는 시간이었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시기였기에 정신적으로, 마음 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후회 속에 성숙하고, 성숙해지고, 완성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과거는 과거일 뿐,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시고, 좋은 평가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명주

그대의 모든 형편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이미 일이 끝장난 듯싶어도 결국은 또다시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된다.

- F. 카프카 -

### 1. 도강(渡江)

- 두만강을 건너다 -

“아버지, 어머니, 청진으로 가는 차편이 있어 급히 떠납니다. 설 전에는 돌아 오겠습니다.

1998년 12월 24일 오후 3시 53분. 윤00 올림”

저녁 7시에 퇴근하시는 부모님께 잡힐까 두려워진 나는 급하게 쓴 쪽지를 3면경대위에 올려놓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빠져나왔다.

역전에 도착했을 때 역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2시간가량 기다렸을 무렵 안내방송이 울렸다. 연착이 되어 저녁 8시에 들어 온다던 “평양-무산”행이 내일 낮 12시에 들어 설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청진을 통과하는 열차편(평양-온성, 평양-청진, 평양-라진)은 많아보였으나 전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안내게시판이 보인다.

정전으로 한 점의 불빛도 없는 역내는 1m앞의 사람도 가려보지 못할 만큼 새까맣고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는 열차시간을 알리는 안내방송 소리를 집

어 삼킨다.

여기서 15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되돌아간다면 다시는 이 길을 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부족한 용기 때문도 그럴 것이고, 내 생각과 다른 부모님의 완강함 때문이다.

12월의 추위와 어둠은 공포와 무서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고, 콘크리트 바닥에 가방을 깔고 홀로 앉은 나는 떨려오는 온몸을 양팔로 꼭 끌어안았다.

밤 11시 쯤, “평양-함흥”행이 들어선다는 누군가의 작은 고함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서로 손전등을 비춰대며 찾고, 부르고, 깨우고, 짓밟고, 짓밟히며 분주히 뛰어다닌다.

개찰구 앞에는 벌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짹짹 거리는 역내 보안원의 공민증과 여행증명서, 차표 검열이 진행되고 있었다. 열차가 들어서기 전 개찰구를 빠져나가야 하기 에 나는 온몸의 힘을 다하여 쳐 밀고 비집으며 재빠르게 나갔다. 5분후에 들어온 열차는 개찰구를 빠져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을 뒤로 한 채 기적소리를 내며 유유히 떠나버렸다.

다음날 오전 12시쯤 함흥 역에 내린 나는 조금의 안심과 새로운 환경에 도취되어 있었다.

역사로 들어서니 사람은 많지 않았고 건물도 작았다. 청진까지 가는 열차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섰다. 그때 20대 중후반쯤의 청년이 나에게 접근해 왔다.

“혹시 차표를 사려 구요?”

원한다면 자기가 사준다면, 친구가 역전에서 근무하는데 몇 시간을 힘들게 줄 서지 않아도, 표 파는 시간에 사람들과 서로 밀고 당기며 부대끼지 않아도, 기껏 기다려놓고 표가 다 팔렸다고 매정하게 문을 닫아도 걱정이 없을 거라고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솔깃해졌다. 국가가격으로 6~7원 정도의 표를 70원을 부른다.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지만 나에게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돈을 쥐어 주었고, 돈을 움켜쥔 그 청년은 어디론가 사라진다.

30분정도 흘렀을 까? 가쁜 숨을 몰아쉬며 뛰어 온 그가 차표를 건넨다.

마분지가 아닌 종이로 되어있는 차표가 조금 이상했지만 함흥은 지방이라서 그렇다는 청년의 말에 더 의심하지 않았다. 길거리의 노점상에서 두부 밥을 사 먹었다. 내가 살던 지역보다는 형편없이 초라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어스름한 저녁이 되자 역전은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 부연 전등이 역내의 어둠을 적당히 몰아내는 것으로 정전이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듯 했고, 여기저기서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식량이 가득 찬 먼지투성이의 자기 몸짓만한 배낭을 옆구리에 하나씩 끼고 앉아 양 볼을 실룩거리며 먹을 것을 구겨 넣는 사람들, 언제 세안을 했는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때”국이 덕지덕지 오른 얼굴들, 서로 다른 억양으로 열변을 토해내는 사람들과 그 틈에서 잠자는 사람들. 저녁 8시 “평양-청진” 행이 들어선다는 안내방송은 전쟁을 방불케 하듯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으며, 순식간에 혼잡 통이 일어났다.

나도 대열과 함께 정신없이 달렸고, 눈앞에 펼쳐진 사람바다는 나의 혼을 빼앗아버렸다. 어디서들 나오는지 사람무리들이 끊임없이 밀려든다. 격어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6.25전쟁당시 피난상황이 이러했으리라. 그들은 자신들의 몸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짙 배낭을 지고 개찰구로 나아가기 위해 목대의 핏줄을 뜯고 고함을 지르면서, 서로 밀고 당기며 힘겹게 나아가고 있었다. 저런 속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을 까?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으나 대열은 얼떨떨한 나를 함께 밀고 움직였다. 조그마한 딸보밖에 없었던 나는 그네들의 힘을 빌려 재빠르게 돌진했다.

눈앞에 역구내로 들어설 수 있는 철문이 사람들 틈에 보인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 역보안원에게는 공민증과 여행증명서를, 역 안내원에게는 차표를 보여줬다.

차표가 위조란다. 빨리 빠지라고 손짓한다.

“아니 돈 주고 산건데 뭐 보고 가짜라는 겁니까?”

“가짜 표를 사가지고 와서 어디서 큰소리야? 어떻게 샀는지 따져 묻기 전에 빨리 비켜요~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 안보여요?”

동시에 화나고 격양된 높은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불협화음이 되어 들려온다.

“그런 가짜 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비집고 들어 온 거야? 방해 말고 어서 빠져”

“너 땀에 우리가 못나가잖아. 그걸 어디서 샀어?”

사람들의 소리에 귀가 멍멍하고 머리가 멍해오며 허탈감에 빠졌다. 몸부림치는 사람행렬의 폭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개찰구의 너비를 꽉 채웠고, 길이의 끝은 가늠할 수 없는 사람바다였다. 나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밀고 들어오는 사람대열을 당해낼 힘이 없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밀어준다. 날짜가 지난 여행증명서라 통과가 안 되었다는 여행객이었다. 그 여행객과 필사적으로 사람바다를 헤엄쳐 나왔을 때는 많은 시간이 흘렀고, 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열차를 놓친다는 생각에 무작정 눈앞에서 허겁지겁 달려가는 몇몇 사람들을 뒤따랐다.

드디어 눈앞에 3m의 높은 철창으로 가로막힌 철문이 나타났고, 창살사이로 역구내가 보인다.

이 높은 철문을 어떻게 올라갈까? 걱정과 절망감은 순간이었다. 길은 없었다. 무작정 매달렸고, 사정없이 미끄러지는 발과 손에 힘을 주며 안간힘을 다해 올랐을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내리는 사람들, “빨리, 빨리~” 낮은 목소리를 내며 철창을 넘으려고 올라오는 사람들. 뛰어내린다는 것에 겁이 났으나, 나는 뛰어내렸다. 내가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뒤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나를 밀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손바닥에 묻어나는 피와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다리통증이 내가 그 높은 철문에서 뛰어 내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빨리어 가듯 눈앞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나는 충격에 저린 다리를 절뚝거리며 뿌연 불빛이 있는 곳으

로 향하고 있었다.

“누구야?”

손전등을 비추어대며 딱딱하게 메마른 목소리가 나를 향해 맞받아 온다.

“움직이지 말고 서! 어디 있는지 보이니까 도망치지 마. 그 자리에 서있어”

몸이 굳어진 나는 발길을 멈추었고,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감싸올 때 때마침 1명의 군관과 3명의 병사가 행렬을 맞추어 당당한 행보를 하며, 불빛이 켜있는 역사를 향해 내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대위동지, 저도 한 대열 이라고 해주십시오!”

“안 돼, 내가 왜?”

“돈을 낼 게요~”

“얼마?”

“30원!”

대화를 나누며 행진하는 사이, 마주 오는 역내 안전원들과 부딪쳤다.

“대위동지, 이걸 불법입니다. 일행이 몇 명입니까?”

“우리 네 명~”

군관의 순간적인 오답이었다.

“그럼 이 여자는? 사민은 안 됩니다.”

안전원들은 뭔가 눈치를 챈 듯 단호히 말한다.

“군인 가족이요~”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나가십시오.”

통과되었고, 숨을 내쉴 새 없이 돈을 요구하는 대위의 손에 현금을 쥐어주고 나니 열차가 저 멀리서 기적소리를 내며 들어온다.

개찰구 쪽을 보니 사람바다는 여전히 출렁거렸고, 그들을 문밖으로 한 채 개찰구 문은 사정없이 닫힌다.

들어선 열차의 모든 문들은 열리지 않았다. 서있던 역구내의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을 때에야 나는 열차의 문이 열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승차를 해야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황급히 두드렸다. 기차는 손님을 다 태웠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유유히 빠진다. 기적소리를 지르며 북쪽 방향으로 사라지는 열차와는 상반되는 “청진-평양”행 열차는 어서 올라오라 반기듯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며, 거의 비어있는 좌석을 실은 채 칙칙 거리며 천천히 떠난다. 나는 떠나는 열차를 슬픈 마음으로 번갈아 바라보며 영영 소리 내며 큰소리로 울었다. 내 고향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낯선 환경에 서러움이 차올랐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눈물은 하염없이 불을 타고 흘러내린다.

저 열차를 타고 집으로 간다면, 따뜻한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남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반기리라는 생각은 나를 더욱더 슬퍼지게 했다.

그 후 야밤에 들어선 열차를 또 놓쳤다. 다음날 12시쯤 들어오는 “평양-라진”행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감과 압박감은 더해갔지만 반복되는 실패 때 문일까? 피가 생겼다. 역시 들어온 열차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어디론가 새어 들어간다.

찰나의 순간, 한 창문에서 사람이 내린다.

급하게 달려갔고 무거운 창문이 내려지려는 순간, 나의 몸뚱이를 사정없이 들이밀었다. 손에는 김일성의 초상화가 그려진 100원 지폐가 들려있었다.

누군가 돈을 빼앗듯 낚아챘고, 창가에 앉아있던 군인 둘이 나의 양팔을 끌어당긴다. 열차에 태워놓은 후 나를 열차 복도로 몰아낸다. 열차복도 바닥에는 쌀 배낭들이 틈이 없이 깔려있었고, 몸도 바르게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찌프린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돈을 받고 태워놓은 군인들과 돈을 주고 들어온 나를 경멸하고 있었다. 빨리 빠지라고 군화 발을 번쩍 쳐드는 군인의 행동은 나로 하여금 눈물이 샘솟게 만들었다.

허공에 올랐던 군화발이 주춤거리며 서서히 내려졌고, 질서를 세워 나를 끼워준다.

앉아있는 여행객은 전부 군인이었다. 평민이 앉아 있다고 해도 군인들에 의하여 자리를 뺏겼다. 배낭사이로 다리를 벌린 채로 제대로 서있으면 덜 힘들겠지만, 배낭과 배낭사이에 발이 꽂혔고, 배낭위에 높이 올라선 사람들에 의해 놀리다 보니 숨 쉴 구멍이 막힌다. 몇 시간째 달리는 열차에는 어둠과 정적이 흘러 들었고 밤을 알리 듯 캄캄해졌다.

- 노래는 바람에 실려 강물위에 흐르고

저녁노을 공장을 붉게 물들 때

불꽃 날리며 기차는 멀리서 오고

님 을 기다린 처녀의 꿈속의 나비냐? -

러시아 노래가 내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온다. 군화 발 을 치켜들었던 군인이 나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앉으라고 한다.

매춘? 몸 파는 여자?

내가 앞음과 동시에 질투와 원망에 섞인 사람들의 수군덕거림이 들려온다.

그들도 힘들 것이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청진 역에서 군인들과 헤어졌고, 나는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행방장사꾼 대열에 묻어 회령 역까지 갔으며, 회령역사에서 나에게 중국이 살기 좋다며 접근한, 얼굴에 조골조골한 주름살이 가득 새겨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짙고 검은 회색빛의 부연 먼지가 가득 끼어있는 어떤 할머니의 말을 경계심을 가지고 20분가량 무관심 한 듯 반응 없는 표정으로 들었다.

“할머니, 나도 데려가 주세요요”

그렇게 나는 할머니와 함께였던 여자와 한 무리가 되었고, 청진에서 도중 식사로 준비했던 찬밥덩어리(1kg 한 봉지)를 그들에게 통째로 건넸다. 4일을 굶었다는 모녀는 추운 날씨에 치아가 시릴 정도의 찬밥을 정신없이 먹어댔다. 거의 4큰술 정도 남았을 때에야 머리를 쳐들고 먹겠느냐고 물어보았고, 배가 고프지 않다는 나의 말에 남은 밥까지 먹어치운다. 비닐봉지까지 혀로 깨끗이 훑은 그

네들은 그 제서야 배부른 만족감의 한숨을 길게 내신다.

그렇게 우리는 노상에서 3일을 보냈고, 온성 역에 도착했을 때는 야밤이었다.

골목골목을 요리저리 빠져나가는 할머니의 뒤를 정신없이 따라 20분정도 걸었을 때 짙 초라하고 낮은 단층집 문이 나타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긴장감에 숨을 죽였던 우리는 무작정 들어갔다. 아침에 눈을 뜨니 설날(신정)에는 찌빵 한 개를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며 자지 않고 칭얼거리던 7살쯤 되어 보이는 커다란 새까만 눈을 가진 소녀만 있었고, 우리를 맞이했던 주인여자는 빵을 만들 밀가루를 사기 위해 나무를 하려 산에 올라갔다.

해방 전을 묘사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빗물에 젖어 어지럽게 그려진 자리를 가리려고 공책을 뜯어 덕지덕지 붙인 벽, 방풍을 한답시고 누레 진 농업용 비닐조각으로 가려놓은 창문, 콘크리트바닥이 보일 정도로 움푹움푹 패인 찌늘한 구들장, 더욱 놀라운 것은 소녀애가 오물거리며 아침으로 도토리 세알을 먹는다는 것과 부엌식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무리 식량난을 겪는다고 해도 최소한의 소금, 간장, 된장은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나였다. 철로 만든 커다란 대형가마에는 자그마한 도토리 5알이 밑굽에 깔려 있었다. 점심이라고 한다.

시장을 나가자는 나에게 할머니는 입쌀은 사지 말며, 설사 옥수수를 산다 해도 말은 자기가 할 것이며,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것을 사는 사람은 정해져 있기에 절대로 눈길을 돌리지 말라고 한다. 시장에도 보위부나 안전부 꼬나풀이 있으며 워낙 작은 동네라 낯선 사람들은 첫눈에 알아보고 추적이나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아침을 굶은 초췌한 옷차림의 할머니와 시장에 나갔다.

사는 사람은 없었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10명 정도의 작은 시장에서 옥수수 국수 2kg, 밀가루 1kg 샀다. 누구냐고 물어보는 시장사람들에게 할머니는 나를 손녀딸이라고 소개한다.

1kg의 국수를 허겁지겁 삶아 먹고 나서야 배가 부르다고 그네들은 말했다. 저

벽에 들어온 집주인에게 내일은 설날이니 많지는 않지만 설을 쇠라고 남은 1kg 국수와 1kg 밀가루를 줬다. 어차피 그들에게 주려고 샀던 것이었다. 소녀 애는 기쁨에 겨워 그 자리서 콩콩 뛰었고, 찌그러져 가는 집은 소녀 애의 진동에 못 견디어 흔들거린다. 집주인인 소녀의 엄마는 눈물을 보인다.

그날 밤 나는 두만강을 건넜다.

야밤에 얼음 깨지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 초소에서 튀어나온 국경경비대원들의 추격을 받았으며 할머니와 그녀가 잡혔고, 발버둥 치며 안가겠다고 몸부림 치는 그들과 경비대원들과의 몸 씨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나는 두만강변의 강둑에 올라 중국 땅을 밟았다.

무작정 마을로 뛰어 들어가 대문을 두드렸다.

그날은 1999년 1월 1일이었다.

## 2. 낯선 곳에서

### - 그렇게 나는 북한으로 복송 되었다 -

새벽이다. 다급하게 두드려도 대문은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둔중한 대문소리만 새까만 어둠속에서 되울려진다. 내가 두드리는 대문소리에 나 스스로도 놀라 국경경비대원들이 쫓아올 것 같은 환각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숨죽이고 어둠속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한 시간정도 흘렀을 때에야 진정이 되었고 그 동네를 둘러보았다. 한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 이때다 싶어 그 집으로 향했다고 행히도 대문이 열려있었다. 출입문 앞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누군데요?”

함북도 사투리가 섞여있는 우리말이다. 안도의 숨이 나왔다.

“저~~~ 어~~ 강을 건넜는데~~~”

뒷말을 잊지 못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떠오르지도 않는

다. 문이 열리며 50대 후반 쯤 되어 보이는 중년키의 아저씨가 머리를 내민다.

“북조선에서 왔소?”

“네~”

누구 들을까 겁이 났던 나는 기어 죽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 했다. 아주머니가 방 안에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추운데 얼른 앉으라고 따뜻한 아랫목을 권한다.

아저씨는 중국에 건너왔으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공안에서 단속이 심하기에 자기들이 보호해줄 능력은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언니를 찾으러 왔다고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는 주저했다. 말없이 나의 얘기를 듣고 있던 아저씨는 도문 시에 살고 있는 맏아들과 얘기해 본다면서 불렀다.

여친(한족)과 같이 온 맏아들은 나를 보았다. 아저씨와 맏아들은 한족 말과 조선말을 반반 섞으며 큰 목소리로 다툼을 하였고, 마을에서 누군가 들으면 공안에 고발할 수 있다는 아주머니의 말에 급기야 조용해져 여친(한족)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도문시의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다음날 이준마가 말해준다. 둘째 아들에게 나를 시집보내고 싶은 생각에 맏아들을 불렀었는데 맏아들은 자기가 데리고 살겠다고 고집을 했다는 것, 당연히 아저씨는 반대했고 둘째만 아들이라며 화가 난 맏아들은 가버렸다는 것, 다시 올지도 모르고 맏아들의 한족 여자 친구는 워낙 인맥이 좋은지라 잘못 건드렸다가는 공안에 고발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산동에 시집간 딸이 있고 피신하는 겸 거기에 가서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한다. 산동은 남쪽이라 홍콩과도 가깝다고 했다. 나의 언니가 떠나면서 남쪽으로 갈 거란 암시가 홍콩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날 아저씨와 나는 쫓기 듯 산동으로 가는 열차에 올랐다.

아저씨는 산동 성의 어느 한 산골마을에 지적장애자인 맏딸을 출가 보냈다.

그런 연고로 산동 성을 알고 있었고, 나보다 6개월 전 어느 야밤에 자기 집으로 들어온 북한 여자를 만딸이 살고 있는 이웃 동네에 팔았다. 나는 그 북한여자의 집에 며칠 간 머물렀다.

1주일 후 나는 딸네 집에 갔다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아저씨의 말에 이 산골 마을에 있는 한족사람의 집에 동거하게 되었다.

생소한 고장과 생소한 사람들, 말도 모르는 나는 그냥저냥 병어리처럼 지내며 있었다.

4일이 지난 어느 날, 간혀 지내던 나는 대문의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에 밖을 내다보았다.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며칠간 같이 보냈던 북한여자가 대문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녀의 빨갛게 충혈 된 두 눈은 반가움에 달려 나간 나와 마주서자 눈물부터 펄펄 쏟아진다.

“언니, 왜 울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너 잠자리 같이 안 한다면서?”

“?????”

잠시나마 반갑고 흥분되었던 기분이 이상해진 나는 쌀쌀한 표정으로 그녀의 뒤에 서있던 중국남자에게 눈길을 돌렸다.

중국남자는 우물거리며 돌이 이야기 하라는 멘트를 남기고 대문 밖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녀는 울면서 말한다.

“아저씨가 너를 1만 3천에 이 한족남자에게 팔아넘겼어. 아저씨는 나를 자기 만딸로, 너를 둘째딸로 소개했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던 숙식비를 달라고 하니 너를 팔고 난 다음 돈이 생기면 그때 700원(중국 돈)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 도망갔더라. 아저씨가 너를 데리고 온다고 거짓말로 약속해놓고 팔아 넘겼다. 아저씨를 기다리지 마. 나도 아저씨가 8천원을 받고 지금 같이 사는 한족에

게 팔았어~”

그녀는 계속한다. 내가 만난 한족남자는 마을촌장의 넷째아들이고, 자기아들과 성사시켜만 주면 그 대가로 중국호구를 만들어 준다는 마을촌장의 담보를 받아낸 그녀의 중국남편은 처음부터 아저씨와 짜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북한여자는 나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자기가 중국에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혔다.

나는 내막도 모른 채 이집에 팔렸고, 나를 맞이하는 이 집의 성대한 음식상 앞에서 중국사람 들은 인심이 후하다고 감탄을 했었다. 내가 4일 동안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데 화가 난 촌장은 북한여자의 집에 찾아와 오늘까지 자기 넷째 아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녀를 공안국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다.

집에 질린 그 여자는 운다. 나는 멍해졌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를 데리러 온다던 아저씨(브로커)는 도망쳤다.

30대의 그 여자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자기의 탈북동기를 나에게 말해준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살던 그녀는 굶기를 밥 먹듯 했으며 연 3일은 아무것도 입에 넣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목욕을 시킨 3살 된 딸의 뼈만 남은 몸통이는 가족이 밀려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 시어머님께 그 어린 딸을 맡기고 장사 길에 올랐으나 행방장사 도중 안전원들에게 걸렸고 며칠을 강제노동을 하였다 는 것, 열흘이 지나 옥수수 1킬로를 사가지고 시어머님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님은 일어도 못나시고 딸은 싸늘한 주검으로 되어 옆에 누어있었다.

딸을 부둥켜안고 통곡을 하던 그녀는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 있냐, 뭐라도 먹이지 못하고 생때같은 아이를 왜 죽였냐? 당신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넋두리하며 쌓여있었던 원망과 서러움을 몽땅 쏟아냈다고 한다.

그 노인네도 굶은지라 눈만 떠 있을 뿐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이를 애 아빠의 성묘 옆에 묻고 그 길로 고향을 떠났다. 바로 6개월 전 일이라고 한다. 당초에 배 고품이 북한에서 그녀의 가족을 갈라서게 만들었고, 본가에 들어간 그녀는 멀건 죽 한 숟가락이라도 친정어머니한테 얻어먹을 수 있었지만, 남보다 배려심이 많았던 그녀의 남편은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시어머니부터 챙겼다고 한다. 결국 굶주림이 남편을 죽였고, 아이를 죽였다. 북한여자는 자기 남편과 아이를 죽였다는 원망과 슬픔에 돌아보지도 않고 나온 시어머니도 지금쯤 저세상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중얼거린다.

북한여자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너무나 몰랐던 내 고향의 현실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은 사무치지만 돌아갈 수도 없고, 북한에서의 굶주림은 죽기보다 더 고통스럽고 끔찍하다고 한다.

“제발 오늘밤에 저 남자랑(중국남자) 같이 자다오”

눈물은 북한여자의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말에 기분은 불쾌했지만 나는 그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 남아있는 그녀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었다. 동의했다. 북한여자는 살아남게 되었다는 안도감에서인지 처음으로 웃었다.

그날, 나는 중국사람 과 동침을 하였고, 촌장에게는 나와 그 여자가 브로커의 딸이 아닌 북한여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집안사람들은 북조선이 어딘데? 길림성은 아는데~ 조선족 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며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6개월이란 시간동안 나는 연속적으로 열심히 도망을 쳤고 늘 붙잡혀 들어오곤 하였다.

나의 도주 때마다 촌장은 북한여자를 찾아가 위협했고, 그 성화에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어느 날 자기의 중국남편과 함께 그 마을에서 야 밤도주 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내가 어디를 가든 1~2명의 한족남자의 친척들은 늘 따라다녔으며, 그 후 나는 누군가의 고발로 중국공안국에 체포되었다. 도움을 청했다면 중국 공안국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말도 모르는 넓은 중국 땅에서 언니를 찾는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우리 집으로 돌아 가고 싶었다. 나의 집으로 가면 언니의 소식도 알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렇게 나는 북한으로 복송되었다.

### 3. 증산 11호

#### -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2차 탈북 -

“증산11호”는 평안남도 증산군 바닷가의 한 면에 위치하고 있는 수용소다. 바닷가로 정한 것은 죄수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술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릴 적부터 사람“질”을 못하는 인간쓰레기 들어가는 곳이라고 교육 받았다. 그곳은 혹독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곳이었고, 제2차세계대전시기의 독일 포로 수용소를 연상시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곤 하였다. 겨우 40~50%정도의 죄인들이 살아온다는 소문에도 사람들은 당연시 여겼다.

“증산 11”호는 “단련 대”와 “교화 소”로 나뉜다.

“단련 대”는 1년형을 받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교화 소”는 1년 이상 ~ 10년 형이 넘는 죄인들이 수용되는 곳이다.

사기, 절도, 폭행, 강도, 싸움, 간통, 횡령, 살인미수 등 여러 가지 사회질서를 문란 시킨 자들을 가두었던 “증산11호”에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사회에서 사람구실도 못하던 죄수들은 탈북자들 때문에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수용소 안에서 좋다고 팔짝 팔짝 뛰어댔다. 그것도 그럴 것이 조국의 “반역자”들에 비해 자기들은 “죄가 적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가 보위부와 보안성의 조사를 거쳐 받은 “형”은 1년, “증산11호” 단련 대다.

어릴 적 감옥생활에 대한 상상을 불러 일으켰던 “세계문학전집” 뒤마가 쓴 장편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의 감옥생활, 14년만의 탈출, 그리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의 성공, 얼마나 멋있었던가?

하지만 현실 속 “증산 11호”는 내 어릴 적의 낭만적인 생각과 상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체감하도록 했다.

“증산11”의 칼바람은 초라한 몸뚱이를 겨우 감싸놓은 너털거리는 옷을 벗길 심산인 마냥 살을 사정없이 파고든다. 해뜨기 전에 들어가 질척거리는 논밭에서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을 때에야 나올 수 있었고, 지친 몸을 끌고 10m높이의 담장꼭대기에 철사로 엮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수용소에 들어와 식당에서 돌가루가 섞인 조그마한 옥수수가루덩어리를 아작아작 씹으며, 두 조각의 굳은 양배추 잎이 등 등 떠있는 뜨거운 소금물로 목구멍을 적셔야 했다. 그러면 돌 씹히는 소리가 덜했다. 10분 내에 끝내야 하는 식사는 허기를 달래기에는 부족했고, 줄을 맞추어 호동에 들어서면 방안에서는 입김이 날리고 아무것도 깔지 않은 바닥은 차가운 냉기가 올라온다. 하루가 1년 같았고, 10년이 100년처럼 느껴지는 이 감옥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가는 것만이 최소한의 살아가는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누워서 안 된다. 저녁 10시가 되면 줄을 맞추어 똑바로 앉은 채로 “하나, 둘, 셋, 넷”을 외치며 마지막 순번까지 고향에 가까운 높은 소리로 점검을 끝낸 후 “취침”하라는 소리와 함께 자리에 누울 수 있었다. 먼지와 흙탕에 더러워진 옷을 입은 채로, 몸의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온몸을 새우처럼 구부린 채.

점검이 끝나면 방안 출입구에는 야간근무자 2명이 서있다. 감시는 잠자는 시간까지도 멈추려 하지 않는다. 두 시간마다 교대였고, 씻지 않은 몸뚱이와 머리는 이와 서캐로 하얗게 덮혀 있고, 더러워진 손톱으로 밤새 긁힌 자리에는 마른 피와 딱지가 덕지덕지 앉았다.

매일 아침 첫 시간, 대열이 집합된 마당에서는 조선로동당비서(중좌)의 일장

연설이 있다.

“위대한 어머니 조국, 따뜻한 어머니 품”의 하해와 같은 사랑과 배려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도 공급을 못하는 식량을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한다. 대략 이런 내용이였다.

“그럼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석방되어 나간다 해도 배급을 안내주면 어떻게 사노?”

“사람 같은 말을 해라. 당장이라도 여기서 내보내기만 해주면 어떡하든 살아가겠지.”

“어떻게 살아? 다시 탈북을 할까? 수용소가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여기로 이송되어 올 때 열차나 차에서 떨어져 죽었을 걸 그게 제일 후회 된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마. 죽고 싶으면 너나 여기서 씩어 죽어”

매일 듣는 똑같은 “강연”때문에 모두들 힘겹고 지겨워 푸념을 하였으나, “여기서 사는 게 낫다”는 말은 탈북자들의 가슴에 갈처럼 들이박힌다.

어느 날 그녀는 일에 지치고, 보안원들의 험악한 구두 발에 채이고, 배 고품에 시달리다 영양실조 병동에 입원한지 일주일 만에 죽었다.

차라리 차에 떨어져 죽는 것이 낫게다 던 그녀였다.

이삭이 뜯겨 말라버린 강냉이 짙은 단으로 뼈에 가죽만 씌어져있는 그녀를 퐁퐁 감쌌다. 나를 포함한 세 명의 탈북자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죽은 그녀를 매장해 주려“동행”하게 되었다.

나무 한그루 없는 높은 등성이의 황토색은, 규격이 70\*150\*50(너비\*길이\*높이)의 구덩이들로 깎두기공책처럼 줄 칸 쳐져 있었다. “증산 11호”에 들어온 이후 죽어나가는 죄수들의 숫자를 비밀로 하기 위해 전문 구덩이 파는 일을 담당 한 남자 죄인들이 해놓은 성과였다.

키가 1,58cm의 시체를 넣기에는 짧은 길이였다. 들어가지 않은 시체의 다리를 21\*22cm의 삽날로 마구 내리찍었고, 1차적으로 다리가 꺾여 우뚝 서자 반대쪽으로 열심히 내리친다. 그러면 뻗뻗하게 솟았던 시체의 다리는 견디지 못하고 반듯하게 눕혀진다. 녀석들이 흙을 덮는 사이 우리 셋 중 한명이 구역질을 하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죽어서도 처참하게 문혔다.

그날 하루만 6번째 시체라고 남자 죄수들은 말하고 있다.

수용소의 병동으로 돌아온 우리 셋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혹은 봉분이 올라오게 문혔나? 는 죄수들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증산11호” 단련 대는 1년형을 받은 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나 그곳 보안 원들은 무슨 “심술”에서인지 1년이 지나도 탈북자들을 석방하지 않고 있어 굶어죽는 자들이 수다했고, “반역자”라고 괴롭히는 경제범들에게 못 견디어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자들도 있었다.

만약, 1개월에 한번 씩 나를 보러 오시는 아버지의 면회가 없었다면, 나는 그 속에서 1년 2개월의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보증 하에 “증산11호”에서 출소되어 집에 돌아온 날, 의심과 반가움과 처량함이 섞여있는 종잡을 수 없는 슬픈 눈길을 주며, 허탈감에 몸을 비스듬히 벽장에 기대어 섰던 엄마는 그 이듬해 혼자 남게 될 나를 걱정하시며 눈을 감으셨다. 엄마는 많이 편찮으셨다. 어머니의 묘에는 우리 삼형제의 이름을 나란히 새긴 돌비석을 세워드렸다. 삼형제 중 나 혼자 남았다는 사실은 나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였다. 아버지는 비석에 딸들의 이름은 새기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신다. 아버지와 엄마는 떠나버린 세 자식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셨고, 자식들을 잊지 못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보여준다고 매일 일기를 쓰셨다. 아버지, 엄마의 일기장을 나는 가지고 오지 못했다. 어머니의 돌 제사일이 지난 후 나는 2차 탈북의 길에 올랐다. 1차 때와는 달리 나에 대한 보위부와 보안서의 감시는 엄격했고, 그 감시 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목숨을 내

건 길이였으며, 목표는 언니가 걸었던 행적을 찾는 것이었고, 대한민국이었다.

#### 4. 부모(父母)

- 저는 아들을 믿습니다! -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시던 아버지는 국가과학원 “조선로동당위원회”위원장의 뜻밖의 호출을 받았다. 국가과학원에는 50여개가 넘는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다. 국가과학원 당위원장의 호출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기에, 아버지를 부르는 사유를 모른다는 연구소 초급당비서의 대답은 의외였다. 초급당비서가 모르는 일이란 거의 없다.

무슨 일일까?

경치가 아름다운,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 자리 잡은 국가과학원당위원회 청사는 한 폭의 그림처럼 품위 있고, 고급스럽게 지워졌다.

아버지는 많은 예상 질문과 답변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긴장된 마음으로 당위원장실을 노크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버지를 향한 당위원장의 첫 마디는 “아드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었으나 당위원장의 친절하면서도 조용한 말투에 아버지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대답하였다.

“저는 아들을 믿습니다!”

국가과학원당위원회 위원장의 인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갑자기 날카로운 쇠소리로 바뀌어 차가운 사무실공기를 더욱 차디차게 만들어 놓았다.

“동무는 자식을 잘 못 키워놓고도 가책이 전혀 없습니까? 아내의 가족관계도 좋지 않은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동무는 조선로동당 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동무가 어떻게 당 세포비서로 추천받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온갖 험한 말들이 한 시간이나 넘게 줄줄이 쏟아졌고, 아버지가 자신의 대답이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각이었다. 아버지는 숨도 크게 못 쉬고, 다리에 마비가 올 정도로 그 자리에 서서 비판을 받아야만 했었다.

연구소에 돌아가 자기반성을 철저히 하라는 당위원장의 마지막경고와 함께, 끝났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당위원장의 비판 속에서 알아들은 아들의 보위부체포 자체가 너무 충격적 이어서 머릿속은 마비가 된 듯 멍했고, 하늘은 휘청거렸다.

답답해진 가슴으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할퀴어졌지만, 정신을 추스르고 연구소에 도착하니 이번에는 연구소 초급당비서의 짜증 섞인 질책이 뒤따른다.

전화상으로 내용을 전달받고 국가과학원당위원장에게서 한바탕 비판을 받은 뒤라 초급당비서도 그 모든 분풀이를 아버지에게 쏟아냈다.

다음날 즉시, 아버지는 연구실 당 세포비서(과 비서)직책에서 해임되고 실장(과 과장)으로 전환되었으나, 1개월도 못 채우고 그 직책마저 해임되었다.

오빠의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의 고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박사로, 교수로 되는 지나온 세월은 시련에 찬 길이었고, 결혼 후에도 몰랐던 엄마의 “가족관계”가 무시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로 되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버지의 “조선로동당 입당” 심의 때였다.

엄마의 맏오빠가 6.25동란 때 후퇴대열을 따라 남한으로 넘어갔고, 엄마의 막내 남동생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1960년대 초쯤 평양시에서 가장 큰 대사건으로 지목되었던 “평양대학생” 반란사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갇혔다.

그의 합숙방에서 권총이 나왔다는 증언이었다.

1960년 중후반, 최초로 시작된 평양시의 숙청바람에 외할머니를 비롯한 이모들, 삼촌들은 지방으로 추방명령을 받고 쫓겨났으며, 평양교원대학을 졸업한 엄마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둘째 외삼촌의 농촌배치는, 평양출신이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전례 없는 일이었다.

평양시에서 나가라는 추방지시는 내려오나 그때까지는 강제추방이 없었던 시기였다.

아버지가 엄마를 만난 것은 바로 그 시기였다.

아버지의 형님(큰아버지, 당시17세)은 6.25전쟁 때 “월미도” 전투에서 장렬하게 순직한 조선인민군 열사로, 혁명“열사증”1급 증서를 받아 안은 “조국해방전쟁”용사다.

북한에서는 조선영화 “월미도”를 창작할 만큼, 월미도는 6.25전쟁 시기, 조선인민군 병사들의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웠던 젊은 용사들의 “영웅심”과, 피 끓는 청춘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장렬하게 전사한 그들의 혁명정신을 현시대 청년들이 따라 배워야 할 시대의 귀감으로 내세우고 있는 산 모델이었다.

아버지는 혁명열사증을 신주 모시듯 장롱 깊숙이 숨겨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출하곤 했다. 열사증은 한몫을 든든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자들에 비해 심사결과발표가 늦었고, 아버지의 박사논문은 논문을 발표하고 6년을 기다려서야 “박사증”과 박사메달을 받을 수 있었다.

오빠가 체포된 그날, 아버지가 집에 들어선 것은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저녁 시간이었다.

“우리 아들이 보위부에 체포되었다는 게 사실 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예요?”

몹시 놀란 마음으로 언성을 높이는 엄마에게, 대답할 힘도 없이 지쳐 보이는 아버지는 그저 엄마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보위부에서 가택수색을 왔었어요. 물어봐도 무슨 죄인지 말해주지도 않고,

옷장과 장롱만 뒤져놓고, 집을 이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갔어요.”

과학원 당위원장에게 불려가서 알게 되었다는 아버지의 대답에 엄마는 통곡을 하신다.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요”

아버지는 침통한 얼굴로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애꿎은 담배만 연거푸 태우신다.

그때부터 연구소의 주, 월, 분기, 연간 당 생활총화 보고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비판의 대상으로 줄곧 올랐으며,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국가과학원과학기술자대회(1호 행사)의 높은 연단에서는 아버지의 연구 성과를, 참가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연구소의 이름을 알렸다. 참가자들에게 차려지는 훈장과 증서는 참가자가 챙겼고, 선물(TV, 양복, 다과 등)은 당연히 연구소에 바치는 것으로 끝나곤 하였다.

아버지께는 선물은커녕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적색분자와 섞이면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봐 겁이 나서인지 오히려 자기들 쪽에서 아버지를 멀리했다.

친구였고 대학동창생들이었으며, 동기이기도 했고, 경쟁자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다고 혼자 말처럼 나에게 늘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연구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손꼽히는 인재였으며 박사이셨다.

## 5. 오빠

### - 통일꽃 -

나의 오빠는 문학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1989년~1992년의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작품을 썼기에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창작을 하였다.

장편소설 “철혈”(1, 2부),

장편소설 “통일의 꽃”(1, 2부)

중편소설 “검은 구름속에서”

중편소설 “1949년 여름”,

장편만화영화문학 “개경으로부터 료동까지”

평양시 사회안전부 문예창작실에 1등이 없는 2등으로 당선된 중편소설 “검은 구름속에서”.

부연설명으로 등단에 없었던 무소속작가이기에 2등으로 당선시켰지만, 출판 가능한 작품이라고 선정했으며 문예창작실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소설을 수정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북한에서 소설을 출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소설의 내용뿐만 아니라 소설을 쓴 작가자신도 당성, 인민성, 노동계급성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은 없어야 했고, 가족 역시 당성, 인민성, 노동계급성의 참모습으로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혁명적인” 집안이어야 했다.

그렇게 신인작가로서의 길을 닦으며 바쁜 시절을 보내던 1991년.

남한에서 “통일의 꽃” 임수경에 대한 통일문학작품모집이 진행된다는 글이 “조선로동당” 주간신문인 로동신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자그마하게 게시되었다.

오빠는 그 문학작품대회에 자기의 소설을 출시하고 싶어 했고, 인생에서 한번 뿐 일수도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바쁜 외중에 오빠는 장편소설 “통일의 꽃” 초본을 써놓았다.

그러나 중편소설 “검은 구름속에서” 수정 본을 다그치는 출판사의 독촉에 더는 손을 댈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장편소설 “통일의 꽃” 초본은 고스란히 언니의 뚝으로 넘어갔고, 작품의 완성을 위하여 언니는 밥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따로 없었다.

남한 소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북한에 흘러들어오지만, 남한 식 문체로 씌어 진 북한소설도 암암리에 한국에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다.

장편소설 “통일의 꽃”(1, 2부)

남한 식 문법과 문필을 이용하였고, 한국의 대학과 대학생들의 삶을 그려낸 소설이었다.

그렇게 힘들게 완성된 장편소설 “통일의 꽃”(1, 2부)은 결국 찬바람을 맞아 야 했다.

평양시 사회안전부 문예창작실에는 제출하지도 못했고, 오빠의 작품심사를 맡았던 당성과 노동계급성이 완벽한 작가는 제목만 읽고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소설을 끝까지 읽어본 작가는 문법, 문필, 사회구성도, 다 완벽하다 할 수 있으나 우리 국가에서 임수경을 “통일의 꽃”이라고 불러 주는 것과 글로 써서 책으로 남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가르친다.

남한 사회를 그린 작품은 불합리하며 혹시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 대선배 작가의 예리한 충고였다.

평양시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언니는 지방에 내려갔다.

군부계통이 아닌 문인들이 등장하는 국가행정기구인 “조선문학창작사”의 중앙기관은 평양시에 있었으나, 지방에도 “조선문학창작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지방에 직업을 선택한 언니는 그 작품을 출품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적성에 전혀 맞지 않은 그곳에서 1년 세월을 버텼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조선문학창작사” 작가들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다.

장편소설 “통일의 꽃”을 “조선문학창작사”에서 주관하는 문예대전에 지방공모 작으로 당선시켜보겠다는 언니의 완고한 고집에 그곳 작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남한 사회를 묘사한 소설로서 어느 한 문장이나, 어떤 대목 때문에 보위부에

서 쳐들어온다면 너는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런 각오를 했기에 시작한 거라는 당당한 언니의 대답에 그 작가는 씩씩함과 슬픔이 섞인 듯 애매한 표정으로 작가로서 자신이 없다고 했다.

작품을 당선시켰다가 혼자서 처벌을 받는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만이 아닌, 나로 인하여 가족과 친척들, 지인들 모두의 인생이 최악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자식들의 목숨을 걸고 모험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리고 겁이 난다는 작가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만약, 장편소설 “통일의 꽃”(1.2부)으로 성공한다면 최고의 기쁨이겠지만,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의 성공확률이 있겠느냐? 그런 큰 모험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었다.

안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은 언니는 지방에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귀향의 길에 올랐으며, 그때로부터 장편소설 “통일의 꽃”(1, 2부)은 우리 집 장롱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장편소설 “통일의 꽃”은 언니와 오빠의 피와 땀과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열정이 소비된 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시간이었다.

그 소설로 인하여 오빠는 몇 년 후, 북한사회에서의 자신의 노동계급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여자 친구의 보위부 고발로 인해 체포되었다.

## 6. 언니

### - 그렇게 언니는 떠났다 -

오빠의 보위부 체포 후 2년의 시간을 기다리던 언니, 오빠와 약속했던 10년째 되던 1997년 12월의 어느 날, 나에게 오빠의 소식을 알아보라고 부탁한다.

나의 지인은 오빠의 이름 자체가 서류상에 없다고 이상하다고 한다. 그 자매

에게 실제로 오빠가 있었느냐? 보위부에 잡혀간 것이 맞느냐?는 보위부친구의 되물음에 자신이 더 얼 떨떨 해졌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에 이름이 있으며 어느 정치범수용소, 혹은 몇 호 수용소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혹시 죽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한다.

며칠 후, 언니는 도강을 하겠다며 여행증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한다.

여행증을 야매가격(시장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에 나는 인맥을 통해서 국경까지 갈수 있는 여행증을 발급받았고, 언니의 길채비(여행 떠날 준비)로 돈과 먹을 것을 준비했다. 국경까지는 적어도 일주일이 걸린다.

나는 언니에게 1년 후에는 소식을 꼭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조금 자신 없어하는 언니에게, 언니가 없는 1년이란 세월동안의 나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하였다.

기차에 올라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가에 서있는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인 듯 슬퍼지는 것을 보았고, 혹시 마지막 일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스스로 억눌렀다.

그렇게 언니는 떠났다.

나의 언니가 첫 탈북을 시도하려 했던 것은 20살이었던 1989년이었다.

아이 적부터 늘 전교 1등을 놓지 않았던 언니의 머릿속에는 공부밖에 없었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언니가 알바가 아니었다. 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언니는 그 시절 아빠의 유일한 자랑이었고, 아빠 동료들도 인정하고 감탄할 만큼 입에 오르내리는 인재였다.

언니의 유일한 롤 모델은 “퀴리부인”이었고, 그녀가 받은 “노벨상”이었다.

고등중학교 졸업 후 북한에서 최고의 일류급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으나 아버지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지방대학으로 돌려놓았다.

담배 한 갑을 건네는 아버지에게 시 대학생 모집과장은 아쉬운 듯 말했다.

“친구니까 하는 말인데, 머리 좋은 인재를 그런 초라한 대학에 배정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해를 보는 건데”

체험 삼아 대학이란 것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정도만 느끼면 된다는 것이다. 쓸데없이 6년이란 긴 시간을 대학생활에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시절 아버지의 대답이었다.

언니는 그렇게 지방대학을 갔고, 열심히 학업에 정신을 쏟았다.

수업이 끝나고 연이어 동원되는 수로공사에 “휴식”하는 소리가 울리면 모두들 고된 노동에 지친 몸을 질척 거리는 더러운 수로에 몸들을 던졌지만, 언니는 수로를 겨우 비추는 어두운 가로등불빛을 찾아서 교과서를 펼치고 거기에 눈을 파묻곤 했다. 그 모습에 다른 대학생들은 혀를 내 두르며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고 했다.

그러던 언니가 갑자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대학 3학년에 올라가서 부터였다.

인민학교 때부터 고등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죽어라 외우고 공부했던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역사의 틀을 바꾸어 배우는 강의가 대부분의 과목을 차지했고, 조금씩 섞여있는 세계역사와 철학, 중국어가 언니가 배우고 싶어 하는 많은 것을 충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으며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대학에 대한 실망감으로 공부를 하던 1989년 초봄의 어느 날.

대학에 있어야 할 언니가 교복 하나 달랑 입고서 갑자기 집에 나타났다. 대학에서 집까지는 기차로 다녀야 할 거리였고, 기차로만 올수 있었다.

의심하시는 부모님께 이번 실습은 각자 개인별로 하게 된 실습이라 집으로 왔다고 안심을 시켜드렸고, 오빠에게는 실습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차츰 차츰 이야기한다.

1학년 때부터 고정되었던 현장실습조가 새롭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현장실습 떠나는 하루 전이었다. 반의 소대장(과대표)은 군사복무 10년을 하고 제대한 자로 군부에서 생활을 잘 한다는 추천으로 대학에 입학했으

며 1학년 때부터 쪽 소대장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다. 결혼하여 아들까지 둔 30대의 소대장은 대학에 금방 입학한 직통생(고등중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으로 왔다는 뜻, 나이가 17세~18세인 겁이 많은 철부지 처녀애들이다.)인 처녀애들 중 대학에서 1등 미인으로 소문난 같은 반 여자애를 꼬드겼고, 매번 현장실습시간동안은 그녀와 동거생활을 하였으며, 피임도 몰랐던 철없는 처녀애는 3년이란 시간동안 배속의 아기를 없애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실습지에서 부부생활을 한다는 소문은 쉬쉬하면서 대학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퍼졌고, “소대장의 여자”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지만 슬그머니 고립된 그녀에게는 언니가 유일한 친구였고, 짝꿍이었으며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그녀의 편이 되어 같이 소대장을 증오 해주는 교우였다.

이번 조는 소대장과 언니, 직통생 남자 1명이 한 조가 되었고, 현장실습 때마다 소대장과 동행했던 그녀는 다른 “조”와 편성이 되었다.

소대장의 흑심을 알게 된 것은 실습지에 도착해서였다.

현장실습의 첫 날 밤, 고요한 저녁이다.

소대장은 어디서 술을 처마셨는지 지지벌개진 낫짱을 쳐들고 현장실습 숙소의 허술한 문을 외락 잡아챈다. 고리로 든든히 걸어놓았다지만 육중한 몸뚱이를 가진 소대장의 힘에 못 견디고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린다. 언니는 남 숙소와 여숙소가 나란히 배정이 되었기에 술 취한 소대장이 헛갈려 들어온 줄 알았다.

소대장은 술의 혈기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당황해 하는 언니를 노려보며 오늘부터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구한다.

순간, 호신용으로 늘 가지고 다니던 2cm의 칼날이 달린 조그마한 손칼을 재빨리 손에든 언니는 가까이 오면 찌른다고 말했다.

“너 까짓 게 나를 찌르겠다고? 어디? 찢러봐”

위낙 외진 곳이라 주변에 인가는 없었고, 같이 온 직통생 남자는 분명 옆방에서 들을 수 있는 소대장의 돼지 먹따는 것 같은 소리에도 내다보지도, 버스

락 소리도 없다.

언니의 온몸은 무서움에 떨렸고, 손칼을 든 손이 함께 흔들린다.

“찢러 찢르라니까”

커다란 소대장의 멧돼지 상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망설이며 서있는 언니를 덮치려고 손을 앞으로 뻗치는 순간 언니는 힘차게 찢렸다.

배를 끌어안고 쓰러지는 소대장을 뒤로 한 채 문밖으로 튀어나왔고, 무슨 정신으로 검열이 심한 기차에 올랐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기억할 수 있는 건 지나가는 트랙포르(트랙터)를 놓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도로의 중앙에 서서 필사적으로 막았다는 것, 놀란 운전기사가 급정거했고 파랗게 질려 역전으로 가달라고 명령하는 언니의 말에 따라 역까지 태워다 준 사실이었다. 낮도 모르는 사람이란 것이다.

무조건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날부터 언니는 더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퇴학한다고 성명했고 북한에서 못 살겠다고 했다.

북한에서의 “노벨문학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도강을 하자고 오빠에게 조른다.

“그럼 막내는 어떻게 하고? 애는 아직 고등중학교도 졸업 못했어.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성공해서 도와주면 되잖아”

“네가 성공할 때까지 우리 집이 여기에 그대로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 네가 아직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가본데 내가 시간 내서 너에게 설명해 줘야겠다. 내가 도강했다가 왜 돌아온 것 같니? 나 땀에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갈까봐.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올라서니 그 순간에 왜 막내가 눈앞에 딱 떠오르는지? 막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 그래서 돌아왔어”

내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은 나의 형제가 말하는 도강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시절의 나는, 그리고 10년 후의 나는 여전히 모르고 지냈다.

해외를 꿈꾸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다.

그래도 포기 않고 계속 따라다니며 “도강”을 졸라대는 언니에게 오빠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당장 대학으로 돌아가. 20일이 지났는데도 대학에서 어떤 통지가 오지 않는 거 보니 소대장은 아무 일 없어. 그리고 ‘노벨문학상’은 내가 먼저 해볼게. 10년만 노력해보자. 이 땅에서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말 하지 말고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도 늦지 않아.

그 시간 동안이면 막내는 졸업을 했을 거고,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진 않겠지?”

대학으로 돌아간 언니는 소대장이 별 탈 없이 수업에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습지에서 돌아온 소대장은 제출하는 실습보고에 힘든 현장에서 지쳤기에 며칠 집으로 휴식을 보냈다고 전달했다. 배에 아무런 상처도 없다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은 언니를 반 친구는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본다.

하기는 두터운 내의를 입었던 소대장의 배를 찔러 들어갈 만큼 언니의 힘은 강하지 못했다.

언니는 대학 4년을 중국어를 위해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학업에서의 의미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우등생으로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런 나의 언니가 “반간첩투쟁전람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친구가 알려준다. 내가 증산11호에서 출소한지 며칠이 지나서였다.

“반간첩투쟁전람관”

북한은 고등중학교에서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학교 별, 직장 별로 “반간첩

투쟁전람관”을 관람 하게끔 조직해 놓고, 19세기 미국선교사들이 “간첩활동”을 하며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나라의 자원을 약탈해간 철천지원수이며, 미제국 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간첩활동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반미정신을 심어놓는 전람관이다.

나의 언니가 어머니 조국을 배신하고 남조선으로 넘어갔으며, 남조선의 임무를 받고 국내에 침투하여 활동하다 예리한 주민들의 신고로 붙잡혔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친구는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는다. 나는 즉시 “반간첩투쟁전람관”에 갔고 문밖에 나온 관장에게 “반간첩투쟁전람관” 맨 마지막 방에 게시되어 있는 윤 모모의 동생이라고 소개를 했다.

기겁을 하며 놀라는 관장의 눈은 뚱그래졌고 입이 벌어져 뭐라 중얼거린다. 관장에게 언니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묻자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단체로 오면 그때 같이 들 으라며 문을 닫아버린다. “반간첩투쟁전람관”은 국가보위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라 관리인들도 조심스러워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일거라는 생각이 들어 공식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을 포기했다. 지인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나를 찾아온 그는 언니가 한국에 갔었고, 체포경위는 잘 모르지만 국가보위부감옥에서 식전기도를 허용하기 전에는 음식을 입에 넣지 않는다며 열흘간 단식을 하였다는 것, 보위부에서는 언니를 병보석으로 석방하지는 제의서를 올렸고 승인결제가 나오는 날 오후, 힘없이 누워있는 언니의 아름다움에 보위부직원이 성폭행 하려 달려들었다는 것,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던 언니의 몸에서 그런 힘이 나오리란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보위부지도원은 언니의 강한 저항에 당황하여 발길질을 해 댔고 언니는 급소를 맞았으며, 그렇게 언니는 세상을 떠났다고 말한다.

내게 총이라도 있다면 당장이라도 보위부의 그 녀석을 싸죽이고, 모조리 부셔버리고 싶은 충동과 함께 분노와 증오로 치가 떨렸다.

나의 지인은 계속해서 말한다.

“나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인가고 몇 번을 되 물었어. 근데 정확하대. 그 때 근무했던 보위부지도원들은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지도원은 다른데로 옮겨(인사이동)갔대.”

언니가 보위부감옥에서 단식을 할 때쯤 보위부에서는 엄마에게 큰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며 우리 집을 방문했었다.

엄마는 언니가 좋아하는 수육과 떡을 만들어 주며 큰 딸을 한번만 만나게 해 달라고 보위부 직원에서 청을 했었다고 한다.

“딸이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위부직원은 엄마에게 음식을 챙겨가며 한마디 던졌고, 그 말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엄마는 아프고 슬펐던 심정을 나에게 쏟아 놓았다.

몇 번의 우리 집 방문을 하는 기회에도 보위부에서는 언니의 단식을 말해주지 않았고, 엄마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차마 언니의 단식과 죽음에 대해 말해줄 수 없었다.

언니는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다. 나의 불찰로 내 인생의 전부인 언니를 잃었다.

언니의 죽음은 나를 도강이 아닌 탈북의 길로 이끌게 했으며,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라도 무조건 한국에 가야 한다는 절실함을 심어놓았다.

## 7. 나

- 1998년 12월 24일 오후 3시 53분. 윤00 올림 -

나는 북한에서 남부럽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고 “국가의 법”을 단 한 번도 어겨 본적이 없는 처녀였다.

물론 그 법이 뭔지는 몰랐지만,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번 씩 내려오는 당과 국

가의 지시에 어긋나게 행동한 적이 없었다.

50여명이 넘는 처녀들의 직장에서 청년동맹부문부비서겸 1초급단체 위원장 직책을 맡고 모든 사업에서나 일에서 “최고”라는 뿌듯한 자부심에 살았다.

행복한 긍지감으로 쟁쟁한 앞날을 그리며 활기찬 행보를 하고 있던 그 시절 나는 성공의 만족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고등중학교 시절, 내가 읽고, 들을 수 있었던 여러 나라(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등등)책과 많은 노래들은 나의 철학으로 되었으며 인생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나에게 많은 상상을 불러 넣어주었으며 현실의 대한 아픔과 내가 미처 몰랐던 생활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만약 그런 세계와 사회에서 내가 산다면 당연히 자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하였다.

“우리 60살 때 동창회를 가진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만약 중국선박의 선장이 되어 너희들을 써준다면 너희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

교실에서 학우들에게 던지는 황당한 나의 질문에 애들은 나는 경리, 나는 항해사, 나는 식당에서 밥 해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호응해 주기도 했다.

물론 그런 생각은 외국소설을 보면서 내가 상상했던 그림에 불과 했지만 졸업 후 만난 동창생들은 기억에조차 남아있지 않는 나의 말을 웃으며 귀땀해주고 상기시켜 주곤 하였다.

나름대로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우뚝 솟았던 그 시절 나에게 사랑이 찾아왔다.

소련소설에서 묘사되었던 매력적인 작은 “매”의 눈을 가진 그는 군인이었고, 평양시에 있는 군관학교 학생이었다.

어릴 때부터 “꿈”이 군인인 나는, 그를 어렵지 않게 친근하게 대할 수 있었고 빨리 가까워 질수 있는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군관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내가 출퇴근하는 길가에 슬쩍 나타났으며, 나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끊임없이 해주었고, 깜짝 선물도 가끔씩 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고향이 지방인 그는, 평양시 거주를 위해 친척들이 도와주고 있다며 나에게 알려준다. 북한에서 평양시 거주권을 얻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닌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에 그런 위대한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친척들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토대(가족관계)가 좋은 집안일거라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초청으로 평양시에서 살고 있는 고모네 집에 놀러갔었으며, 그와 나, 나의 언니와 함께 보낸 그의 고모 집에서의 2박3일은 정말로 행복했다.

그러나 오빠의 보위부체포는 나의 행복한 시절에 막을 내려야 했고, 나의 결단력을 필요로 했다. 그는 2년의 세월 동안, 나와 만날 기회를 가지려 노력하였고 친구들에게 나의 안부를 묻기도 했으며 나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우리 집에 들리곤 했다.

어느 날 언니는 선물을 받아 놓았다가 퇴근 후 집에 온 나에게 건네주면서 묻는다.

“그 군인이 너를 좋아하는 거 같은데 너는 별로인거니?”

“아니, 나두 좋아해~”

“그럼 왜 피하는데?”

“나보고 어찌라고? 오빠가 보위부에 잡혀갔는데~ 그는 군인이고~ 나 때문에 그가 피해 받을까봐 싫어. 그리고 결혼한다면, 엄마 인생처럼 될까봐 싫고~”

물론 이 순간을, 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싶었고 그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아낌없이 하면서 마음껏 사랑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를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와의 만남을 애써 외면하려 했었다.

그 후 나는 3개의 초급단체를 책임진 청년동맹부문비서로 승진되었고, 아버지는 동료들이나 제자들 앞에서 늘 자랑하곤 하셨으며, 나의 승진은 충격에 빠진 아버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시간은 바쁘게 흘러갔고 어느새 그와의 관계도 정리가 되어 갔다.

언니가 집을 떠난 후, 나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

머리 좋고, 잘생긴 외모, 흰칠한 키의 그는 대학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나보다 한 살 위인 그와는 대화가 잘 통했다.

나에게 있어서 결혼은 목적이 아니었기에 나는 그와 편하게 지냈으며, 나의 약점이나 나의 생각, 감정을 감추려 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과 나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사귀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부모님은 물론이지만, 그의 부모님들도 결혼을 원하신다.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나의 오빠는 보위부에 잡혀갔고, 언니는 부모님 몰래 멀리 떠나 버렸어요.”

그때 내가 살던 동네는 “탈북”이란 단어를 몰랐다. 조용한 동네였다.

순간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의 부모님들께는 같은 “성”씨라고 말씀드렸다.

“그런 거 알면서 왜 매일 붙어 다녀?”

엄마의 물음이셨다.

“그냥 편한 친구로 지내고 싶었어요.”

“남녀 사이에는 깨끗한 우정이란 없다.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이다. 매일 책을 들여다보는 애가 이 명언도 모르는 거니?”

엄마의 말씀에 나는 그저 웃기만 했다.

“웃을 일이 아니라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헤어져~”

그와의 만남은 갈수록 결혼으로 결론 지어졌고, 나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에도 그의 부모님들은 찬성하신다.

이번 새해(1999년 1월 1일)에는 자기의 부모님께 꼭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부모님과과는 약속을 해 놓은 상태라고 나에게 말한다.

시간은 흘렀고 새해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으며, 내가 그 사람을 놓아 주지 않는다면 그의 부모님들께 아픈 상처가 되리란 것을 알았기에 냉정하게 스스로 결정해 버렸다.

방법은 단 한 가지,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 하고자 결정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 내가 읽어온 책들 속 동경의 세계를 바라왔던 탓 이였을 것인지도 모른다.

언니의 소식을 기다리며 날을 보내고 있던 나에게 결정의 시간은 다가 왔고, 아직 준비 되어있지 않은 그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를 사귀지 11개월째, 나는 나의 부모님과 그를 속이고, 나의 인생과 바꾼 운명적인 탈북의 길에 올랐다.

그날은 1998년 12월 24일 이었다.

## 8. 결혼

### - 나의 꿈 결혼-

저녁 7시, 약속된 소개팅 장소로 허겁지겁 달려 나갔다. 10분이 늦은 시간이다.

예약된 장소에 들어서니 어떤 여인이 소파에 앉아있었다. 그 여인은 나에게 손짓을 하며 옆 자리를 권한다. 나의 당황스러워 하는 눈빛에 미용실 원장은 “남자 어머니”라고, 입술로 알릴 듯 말 듯 씩씩 거린다.

여인은 앉으라며 연신 자리를 권하고 있다.

갑자기 멍해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여인은 어디엔가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끝나자 나가자며 미용실을 나선다. 기계적으로 여인의 뒤를 따라 나갔다.

집이 여기서 아주 가까운 지라 5분정도 기다리면 아들이 나올 것이라며 비록 일하러 다닐 때 타고 다니는 차라 깨끗하지 못해도 이해하라는 것이었다.

차가 도착했다. 나는 올라탔고, 그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

일주일후 커피숍에서 남자 부모님과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나의 핸드폰번호를 달라는 남자의 아버지와 아직 알아가는 단계라 알려주지 못한다는 남자와의 언성 높은 말다툼이 일어났고, 어느 한쪽의 양보도 없는 다툼은 끝나지 않고 점점 고도를 이룬다.

마주 앉았던 여인은 부자간이 40여년 세월동안 다툼 적이 단 한번 도 없는데 오늘 이 다툼은 너 때문이라고 손짓을 하며 얼굴을 찌푸린다.

그리고 2주일 후, 절에 다니는 그 여인은 궁합을 잘 보는 스님에게서 결혼 날짜를 잡아왔고, 남자를 만난 지 1개월 후에는 서울에 살고 있는 맏딸, 둘째딸의 집에 방문했다.

딸의(맏딸)집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2시경 이었다.

저녁6시에 식당예약을 해놓았다고 알려준다. 일흔 살인 남자의 부친은 조금 출출하다고 하신다. 주방에 찬밥도 없다고 하면서 밥을 새로 짓 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남자의 큰누나가 말한다. 조카들이 아파트 단지 마트에가 급히 비빔 면 을 사들고 들어온다.

거실은 수다를 떠는 여인들과, 주방에는 비빔 면을 만든다고 서성대는 남자가 있다. 나는 앉을 자리를 찾지 못했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웬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자리에서 밀 보일 건 없잖아.”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사실, 나에게 피붙이 하나 없는 남한 땅에서 결혼은 꿈

이고 희망이었다.

초면인지라 그녀들과 수다를 떨기에는 어색한 자리였고, 남자가 주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데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 둘은 비빔 면을 만들었고, 배고프지 않다던 여인들과 남자의 조카들은 밥상에 오בות하니 앉아 한 젓가락씩 나누어 먹는다. 아침부터 굶었던 나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배가 고프지 않았다.

내가 뭔가를 참으며 조용히 어울리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서운한 점을 남자에게 얘기했고 남자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훌륭한 엄마이고 누이들이라며, 기간질 시킨다고 짜증을 내며 나와의 대화를 회피하곤 했다.

웬지 모를 불길함 속에서도 결혼날짜는 다가왔고, 이대로 포기 할 수 없기에 마음을 다 잡으면서 결혼식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장에서 낭독하는 남자의 청혼편지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사진사의 지시에 맞춰 나의 친구들, 나의 지인들, 직장 동료들은 나의 가족이 되어 멋진 옷들을 입고서 사진을 찍었다. 모든 사람들의 아낌없는 배려 덕분에 신부인 내가 빛이 났고, 어떤 신부이기에 저렇게 멋진 지인들, 친구들이 있느냐 주위사람들의 수근 거 림은 내 귀에 행복의 소리로 들려왔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짜를 맞추어 동료들이 나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시어머님 집에 이바지 떡과 과일선물 세트를 미리 보내드렸고, 시어머니는 딸들에게 맛보인다며 직접 서울까지 내려 가셨다. 부족함이 없이 멋지고 성공적으로 치른 것 같은 결혼식은 걸면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이미 늦어 버린 듯 했다.

신혼 20여일 쯤, 나와 다툼 남자는 친구들과 당당히 3일을 외박하였고 귀가 할 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뿐이었다. 처음 이 남자를 만난 지 20여일 쯤 되었을 때 긴 감옥생활을 했고, 출소한 지는 몇 년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

있을 때에도 겁이 나고 두려움을 느꼈으나 나에게 솔직하고 숨김없이 털어놓은 그를 보며 한편으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남자와 평생을 살아 보고자 용기를 내었었다.

젊은 시절의 실수 일거라고 바보같이 혼자 새겼으며, 결혼식으로 하여 나의 대한“믿음”이 생기면 내편이 되어주길, 내 말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으며, 자기를 잡아주지 않으면 같이 떨어져 죽자고 했던 남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 틀 때면 간혹 먼저 헤어지자는 그를 필사적으로 잡았다. 나 하나만 희생하면 조용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흘러 보낸 일들이 나를 무시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뒤늦은 후회였다.

나와의 다툼 중 주제파악을 하라는 남자의 말에 이성을 잃고 흥분되어 소리도 질렀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면 바보하고 논쟁하는 자는 바보라는 명언을 되새기며 혼자 씩씩히 넘겼지만, 나의 유일한 가족? 나와 평생을 같이 할 사람에게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되는가 싶은 모순에 빠지며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그런 속에서도 미련하게 마음 한쪽으로는 남자가 언젠가는 나의 귀중함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다.

욕심이었을까.....!

그의 형제나 부모님께 바라는 것이 없었다.

내가 국가에서 받은 11평방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하루 빨리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었고, 결혼식을 해보는 것이 나의 간절한 꿈이고 희망이었다.

해준 게 없으면 바라는 게 없을 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은 나에게 너무 가혹했다.

행복한 결혼과 따뜻한 가족을 꿈꿔 오던 나의 꿈은 7개월 만에 파혼으로 끝이 났다.

남자와는 대화가 안 되었고, 우리는 늘 생각의 차이가 생겼으며 모든 문제의

끝을 문화의 차이로 결론을 지어나가는 남자가 미워지고 싫어졌다.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남자는 “나”라는 인간자체가 싫은 가 보다.

남자의 “훌륭한” 가족은 결혼의 끝을 깨끗이 결정 내주었다.

혼자가 되고 보니 비로소 나의 어리석음과 우유부단했던 행동들이 보였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나의 가족들이 혼자 고군분투하며 이 세상을 걸어가는, 힘들게 사는 내 모습을 내려 다 보고 계실까?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와 고비와 흔들림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생에 마냥 슬픈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행복은 언젠가 나의 곁으로 올 것이다.

나는 믿는 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 9.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의 나의 정착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

2013년 4월 10일.

인천국제 공항이다. 늘 그리워하며 상상하고 애태우던 땅이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나는 목안으로 감추어있던 무언가를 토해내듯 소리 내어 외치고 싶었다. “대한민국 만세!”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대열은 조용히 인천공항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여기까지 오는 그 기나긴 시간동안 고통의 한숨과 비애와 절망에 몸부림치며 지내던 타향의 그 시절, 언제쯤이면 대한민국에 갈 수 있을 런지, 암담한 생각을 거듭하던 내가 이 길을 찾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가?

웬지 모를 기쁨의 희열과 뜻 모를 슬픔이 교차 되어간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일뿐, 우리는 예정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나아가

고 있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의 교육에도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기능이 가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그런 거란” 없었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 인생을 사는데 습관 되었던 나는 어떤 계획이나 목표도 없었으며 꿈도 없었다.

그렇기에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온다는 것은 희망을 안겨주는 길이었다.

2013년 9월, 하나원에서 퇴소한 첫째 날. 국가에서 준 11평짜리 임대아파트에 들어서서 열쇠를 받아 준 나는 알 수 없는 희열에 몸이 떨린다. 내 명의로 된 집이었다.

은행에서 내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고 핸드폰을 개통하려 핸드폰 매장에 갔다.

핸드폰 매장 직원의 1시간동안의 긴 설명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단 한가지만은 명백했다. 책상위에 펼쳐놓은 가입계약서에 내 명의로 사인을 한다는 것이었다.

40대가 된 지금까지 여직 내 것이란 없었다.

유일하게 있었다면 내 영혼과 몸과 몸뚱이에 걸쳐져 있는 옷이었다.

동주민센터에서 대한민국주민등록증과 기초수급자를 신청했다. 역시 사인을 요구한다. 사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배운 교육과는 어긋나게 사회적응의 첫날부터 어지러운 정도로 뭉치 파악도 되지 못한 채 사인만 하는 것에 슬쩍 겁이 났으나, 사인을 해야지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설명에 정성을 다해 열심히 내 이름을 쓴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민졌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위해서 목숨내건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땅에서 차려지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간다. 슬쩍 욕심이 생겼다. 돈도 아껴야 했다.

누군가 이사 가면서 아파트 밑에 버려놓은 가구로 빈집을 채워놓기 시작했다. 옷장, 침대, TV,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컴퓨터, 건조대, 서랍장, 책 등 없는 것이 없다.

“아~하, 이런 좋은 세상도 있구나!”

북한에서 유치원시절부터 배웠던 공산주의 사회도 이보다는 못하지 않을까? 비단옷을 입고 이밥에 돼지 고깃국을 먹으며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서 사는 세상이 공산주의 사회라 했던가? 내가 여직 보았던 책들 속에도 이런 세상은 없었다.

동주민센터 에서 쌀이 배달되었으며, 식당알바를 가면 주방언니들이 반찬을 챙겨준다. 성당이나 학원에서 안면을 익힌 지인들은 자기들이 입었던 옷을 트렁크로 가득 채워 주며 입으라고 건네준다. 껌진 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새 옷들이다. 나는 그 옷들을 설레는 맘으로 경대 앞에서 입어보며 옷맵시를 본다. 사이즈가 작거나 큰 것들은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것마저도 아까운 생각에 옷장에 가득 쌓아놓곤 했다. 그러나 몇 달도 못가고 다른 옷들로 자리교체가 일어났으며 그 옷들은 옷 수거함으로 향해진다.

대한민국에서의 첫 시험은 하나원 퇴소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11월 초, 한식조리사 자격증 필기시험이었다. 서울시에 있는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에서 낮에는 한식조리공부에 전념했고 저녁에는 식당알바를 겸했었던 나는 필기 시험 당일에도 뜻밖에도 식당사장님이 건네는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찹쌀떡박스를 선물로 받았다.

“이게 뭐예요?”

“시험 잘 보라고 ~”

사장님이 알려주신다. 대한민국에서는 시험을 보기 전에 찰떡처럼 붙으라고 떡이나 사탕을 사준다고 한다. 혈육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는 알바생일 뿐인데 이런 것까지 챙겨주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었다.

그렇게 나는 첫 시험에서 합격이 되었으며, 어떤 일을 선택하든 나의 부모님과 형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친구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북한의 모든 지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 했다.

그 후 나는 컴퓨터 학원을 다녔고, 컴퓨터를 전혀 몰랐던 내가 “컴퓨터 활용능력자격증 2급”을 취득하면서부터 사무직을 해보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

한편으로는 생전 처음 듣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에 대한 선배들의 말을 들으며 복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병신 아니면 영예군인으로 부른다. 영예군인은 조국의 초소에서 군 복무 10년여 동안 공사현장에 내 몰리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작게는 팔이 없거나 머리타박상으로 지성도가 떨어졌으며 크게는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특급장애인들이다. 북한정부는 영예군인증과 함께 처녀들이 영예군인들에게 시집을 가도록 하는 조직적인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물론 도시에 거주권을 주는 영예군인들도 있었다. 병신은 사회생활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었다. 허리 디스크라는 말도 이 땅에서 생전처음 들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허리병신이라고 말했다. 그 말밖에는 다른 말이 없었다. 아니, 없는 줄 알았다. 수령님이나 장군님의 인격에 대해서만 배웠던 나는 장애인도 인격의 한 사람으로 쳐주는 대한민국의 복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나를 세계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하였으며, 컴퓨터 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학원에서 소개해준 회사의 면접에서 합격이 되었다.

42세의 사무직 도전과 대학 입학, 그 부딪힘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그러나 출근한지 보름이 지나서 대한민국의 사무직이 그렇게 순탄하고 신사적인 직업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전화 상담과 전산을 겸한 사무직, 전화상으로 “보이스피싱”을 많이 겪어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담원 말투가 조금만 이상해도 사기집단으로 생각하고 전화를 끊는 것은 물론 고객의 막말이나 고함은 보통이었으며 잘못 대응했다가는 상담원 사과는 물론 회사는 패널티를 받는다.

매일, 수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전화상담하는 법을 배웠고,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어르신들, 중년, 젊은이들의 세대에 따른 용어를 알아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뚝배기 깨지는 소리인양 귀청 찌지는 소리로 따발총을 연발하듯 지르는 소리에도, 전화기 너머로 다짜고짜 두서없이 욕을 해대는 그 어떤 진상에도 견딜 수 있었다. 힘든 것은 회사 내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싸늘하고 냉담한 태도였다.

처음에는 대인 서비스 쪽 영업이기에 말귀가 안 트인 나로 인해 영업 피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 일거라 생각되어 매일이다시피 혼나면서도 말대꾸도 변변히 하지 못했고, 어두운 저녁시간 퇴근길에 올라서면 흘러내리는 눈물로 버스도 못타고 울면서 집으로 걸어가곤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여전히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하며 회사에 들어서곤 하였다.

날이 갈수록 일에서 개선되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대하는 그들의 도 넘는 태도는 점점 더해갔고 모욕적인 말에도 가만히 있는 나 자신이 스스로도 바보 같아 보였다.

“이전에 TV에서 ‘이제 만나러 갑시다.’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 소똥에서 강냉이 알을 파먹는다던데 그거 맞아요?”

“모르겠는데요.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그런 것이 없었

어요.”

“TV에서 그렇게 나오던데? 창피해서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질문들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정말 참기 힘든 질문들이 나를 향해 쏟아질 때면 일을 그만 두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곤 하였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무엇이든 맡기기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파이팅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평생 직업으로 최선을 다 한다면 나였지만 후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출근한지 8개월째 되던 2015년 7월의 어느 날, 나는 한 고객의 신규가입을 접수하면서 전산상 주소지입력을 잘못된 것으로 시내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회사의 상품을 선전하는 전단지를 붙이는 별책을 받았다. 당시에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시기라 검색이 안 되는 지번이나 도로명이 극히 드물게 있었고, 혹여 틀린다 해도 전산 상으로 고치면 되는 일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관에게 “확인해보고 수정할게요~” 라는 단답형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을 지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는 육하원칙도 모르냐? 며 평상시에 육하원칙에 준하여 보고하도록 계속적으로 알려주었던 문제였다.

한사람이 없음으로 하여 사무를 보는 여직원들은 직원들의 얼굴을 쳐다볼 새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였고, 매일 아침이면 아무런 내색 없이 전단지를 한 아름 안고서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나를 바라보곤 했다.

3일째 되던 날 오후, 그날 계획의 전단지를 다 붙이고 사무실로 귀가한 나에게 여 동료들은 사무실 전산업무가 밀리다 보니 정신이 없다면서 내가 먼저 사과하기 바란다고 사정한다. 그날 나의 사과로 사무실로 복귀되었으나 마음속에는 얼음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남았다.

이 땅을 밟으면서 받았던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회사 내에서의 무시와 멸시는 나를 실망하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의

적이고 선진국가의 국민답게 행동하리라는 생각은 나의 착각일지도 모른다. 누가 무시하고 차별해도 힘든 내색 말고,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온다는 미사여구 같은 말도 나를 지치게 만든다.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내가 그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은, 나로 하여금 말없이 조용히 공기처럼 살아야 한다는 좌우명을 심어놓았다.

다른 회사에 도전해볼까? 뭐가 다르기는 할까? 만약 받아주지 않는다면?

생각이 복잡한 속에 선배가 알려 준 시청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았고 어느 날 채용공고에 행정도우미 공지가 뜨자 나는 지체 없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면접에서 합격이 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8월 3일부터 출근하라는 인사팀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었던, 억눌렸던 눈물이 주체 할 수 없을 만큼 펄펄 쏟아져 내렸다.

삶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배려해 준 특별채용정책은 나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감사함이 차오르게 하였으며 나를 선택해 준 시청의 고마움을 마음에 가득 담았다.

그렇게 나는 대한민국 공직생활의 첫 발을 내 딛게 되었다.

2015년 8월 3일이었다.

공직사회. 차원이 달랐고, 내가 그렇게 바랐던 가족 같은 분위기를 체감하였다.

나는 민원업무 안내 및 교환을 담당하고 있다.

“교환”

어찌 보면 시청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사람들은 교환을 전화연결이나 해주는 단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업무를 맡기 전까지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매일 200여 통이나 걸려오는 전화 중에 화난 민원인들의 목소리는 대표번호인 교환이 첫 타겟이 되었고 육설부터 앞세운 그들의 고함소리, 악성민원에 흔들림 없이 응대해야 했다. 나 개인의 컨디션 따위는 제쳐놓고 민원인들의 전화에 언제나 따뜻하고 친절함 응대를 요하는 감정노동이었다. 민원인들의 그

어떤 말투에도 흔들림 없는 감정의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지만 어쨌거나 쉬운 일은 아니었다. 목소리에도 표정이 있다. 얼굴대면 없이 전화를 받으며 그들의 기분을 안정시키려면 심리에 대한 공부が必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시간 쬐이면 몸과 마음이 지친다. 그러나 나는 퇴근하고 짹짹 인터넷을 이용한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했다.

동료들은 수고한다며 늘 나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준다. 물론 북한사람특별전형으로 채용되었을 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며 실패한 나의 결혼 생활까지 들먹이면서 비난하는 소리도 함께 들린다. 왜?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 어떤 사람들 앞에서 뒷담을 했는지 가슴이 가지는 않지만 그런 말은 고향 선배를 통해서 내 귀에까지 흘러들어온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고구마를 한입 삼키고 물에 안 마신 느낌처럼 억이 막혀 가슴이 터져왔으나 견뎌야 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직자다.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혹은 이것 또한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한 단계가 아닐까 생각도 해본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이 땅, 새로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지나온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자.

북한에서 배우고 익혔던 습관들 또한 모두 버려야 한다.

북한에서 나의 이름은 윤명주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은 윤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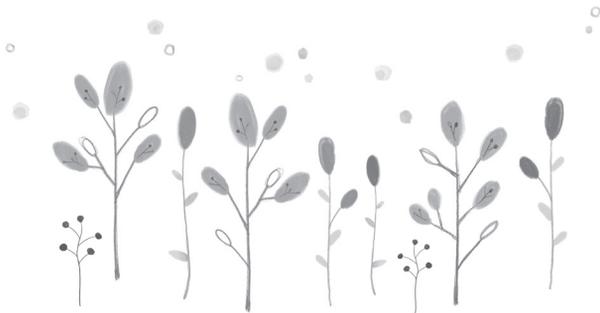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파이팅을 외친다.

그리고 나는 늘 행복하다고 주문을 걸어본다.

이 땅위 모든 직장인들의 출근길, 그들 속에서 나는 힘차고도 바쁘게 걸어간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땅, 나의 새로운 조국에서의 나의 삶은 아직도 진행형이며, 행복한 나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도 나는 밝은 하늘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간다.



# 특선



전)대전 도마초등학교  
이 종 욱



## 수상소감

일제강점서 해방되어 기차타고 압록강 철교 건널 때 봤던 가슴 뛰던 아름다운 산과 강! 때가 오면 자네 가봐야 하네. 평북 삭주가 고향인 장인말씀에 요즘 가슴 뒹다. 여행하는 사람은 다 가봤다는 백두산! 난 중국 땅 거쳐 가기 싫어 지금껏 미뤘다. 남한으로 끌려와 이산가족의 아픔이 한이 되어 살다, 저승가신 장인!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금(金)은, 6.25전쟁 그 이전부터 외세가 우리 땅 짓밟을 때마다 수난을 당했다. 병구아저씨가 국군1사단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하다 겪은 무대가 은산금광이다. 내 맘에 들지 않는 상이지만! 하늘계신 장인, 병구아저씨, 한 팔로 사는 호주 교포에게 바친다. 대전역서 열차타고 평양, 신의주 거쳐 중국 가는 날이 오고 있다. 장인의 영명함, 부지런함 물려받은 아내 있어. 우리 집은 편안하다.

## 금맥(金脈)

### 1.

‘자양백산 줄기 줄기이 피어린 자우욱.....’

형식은 인민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신나게 불러대며 학교로 향했다.

‘국방군이 몰려온다.’ ‘양키들이 몰려온다.’

사람들은 제각각 떠들며 남쪽으로 북쪽으로 피난가면서 떠들어댔다. 형식이 학교에 갔을 때 아무도 없어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다. 몇 달 전에 오마니 아바이와 같이 다녀온 금강산 상팔담계곡을 바라보던 때의 평화로움이 깨지는 예감이 형식의 뇌리를 스쳤다. 학교 가지 말라고 타이르던 오마니 말이 들리는 것 같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렸다. 형식은 오마니보고 우리 집은 피난 안 가느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반대해서 그냥 있는 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그러는 것은 광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아버지한테 피난 가자고, 떼를 써보라는 오마니 말에 형식은 달렸다. ‘우리 인민군대가 남조선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형곶에 쓰여 있던 게 얼마 전 일인데, 피난이라니, 형식은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산 등성을 달려 넘었다. 묘향산맥이 남서쪽으로 뻗다가 힘이 모자라 멈춘 곳, 880m 입봉산 줄기가 남으로 내려가다가 끊기는 곳에 너른 들녘이 끝이 없는 듯 펼쳐졌다. 하늘이 맑을 때면 400여 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큰 산도 보였다. 산맥이 마무리 지는 곳에 평양이 있었다. 평안남도 순천군 은산면 소재지에 형식의 집이 있었다. 형식은 집에서 십여 리 떨어진 광산으로 내달렸다. 비탈진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 고개만 넘으면 형식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광산이었다. 숨이 찼다. 천천히 걸으려 해도 마음이 급해졌다. 그이 새로 산 검정 운동화는 발뒤꿈치를 갈아댔다. 발은 부르트고 쓰리고 아팠다. 날은 쌀쌀해지는데 형식

의 이마엔 땀방울이 솟고 땀은 등골을 타고 흘러 내렸다. 고개에 오르자 광산이 보였다. 통나무를 잘라 만든 광산 사무실 앞에 십여 명 가량의 사람들이 보였다. 형식은 한 발 한 발 점점 가까이 다가갔다. 이곳에만 오면 기분이 좋았으나, 오늘날은 낯선 땅을 처음 밟는 찝찝한 기분이다. 꾸불꾸불한 산길 옆에 있는 바위들이 험상궂은 얼굴로 쳐다보는 것 같아, 그는 허리를 낮추고 바위 뒤에 숨어 광산을 쳐다봤다. 광산 굴 입구에 단고바지에 목이 긴 구두를 신은 아버이 모습이 보였다. 형식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위풍당당한 아버이 모습이 아니었다. 어른 세 사람이 아버이를 광산 사택 앞에 있는 소나무에 묶고 있었다. 형식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다. 속이 답답하고 하늘이 내려앉고 흘러가던 구름도 이 세상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매몰되었다. 도둑놈들한테 붙잡혔나? 아버이를 소나무에 묶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봤던 얼굴이 아니었다. 그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낯선 모습이었다. 그들은 아버이와 다른 군화를 신었고, 머리도 노란색이고 챙이 없는 모자도 썼다.

“아이 좋잖나 새끼들아. 양놈들아. 왜, 남에 땅에 와서 도적질여. 우리를 도우러 왔으면 적을 때려 잡아라이.”

소나무에 묶인 아버이는 목청을 높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금을 캐어 보관해 놓는 사택 옆에 있는 창고 출입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다. 돌에 박힌 금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형식의 눈가에 맺힌 물기도 반짝였다.

“아옴 킬링유. 킬링 유. 와하하하. 아임어 밀리언. 고울드. 보낸저!”

군화를 신고 노란머리 군인들이 아버이를 향해 총을 겨누면 내뱉는 말이었다.

“잭! 노우 킬링! 노우 킬링!”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 앞으로 국방군이 아버이 앞으로 다가서며, 아버이를 겨누는 총을 손으로 제지했다. 무슨 말을 지껄여 대는 가 처음 들어보는 말소리였으나, 그의 뇌리에는 번개처럼 스쳤다. ‘저놈들이 우리 아버이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니 되지이. 안 돼.’ 형식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을 사람들도 공산당원들도 양키군대와 국방군이 밀려온다는 소식에 피난을 떠났다. 그러나 형식의 아버지는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야 죽이긴 나. 가져가지 못한 금 때문에 안 된다.’ 며칠 전에 피난 가자는 오마니 말에 아버지가 한 말이 생각났다. ‘따양 땅따양’ 귀를 찢는 총소리가 들렸다. 형식의 아버지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떨어뜨리더니 가슴에서 피가 쏟아졌다.

“아버이! 아버지!”

형식은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며 달려 나가 풍산개가 도둑을 물듯이 노리끼리한 머리털 남자의 팔목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총을 쓴 남자는 갑자기 일어난 형식의 행동에 놀라 뒤로 넘어졌다. 형식은 소나무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버이! 아버지!”

형식은 벗어놓은 아버지 구두만 봐도, 아버지를 보듯이 조심조심 걸어 다녔다. 어찌다가 아버지 옆에서 자는 날이면 잠이 오지를 앓다가도 깊은 잠에 빠졌다.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불편함보다는 그가 접근하기 어려운 범상함과 비범함 같은 게 풍기고 있었다. 아버지가 광산 일로 사택에서 자고 오는 날이면 형식은 잠을 설쳤다. 집안이 텅 빈 것 같았다. 형식의 몸뚱이가 하늘로 그네를 타듯이 올라가는 가 싶더니 땅바닥 돌무더기에 떨어졌다. 형식의 엉덩이가 으스스해지는 것 같았다. 형식의 이마에 섬뜩한 느낌이 왔다. 노란 머리털 군인이 형식을 발로 차더니 형식을 향해 총을 겨눴다. 형식은 집에 있는 오마니 얼굴이 장마 끝에 보는 해처럼 떠올랐다.

‘No. Oh! My God.’

책에서만 본 국방군이 무어라고 말하더니 노랑 털 군인에게 달려들어 총대를 손으로 제켰다. 국방군은 형식의 뺨을 올려치며 노랑 털 군인에게 뭐라 다시 지껄었다. 국방군은 형식의 멱살을 움켜쥐더니 조금 전에 형식이 온 고개 너머

로 끌고 갔다. 자작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갔다. 푸르디푸른 왕 소나무 밑에까지 온 국방군은 잡았던 형식의 멧살을 놓았다. 조금 전과는 달리 국방군의 얼굴에 표출되었던 분노는 사라지고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텃수룩한 턱수염이 유난히 인상적이었다.

“너! 빨리 도망가라. 저놈은 물 건너서 온 놈이다. 나는 저 놈들의 말을 우리 말로 바꾸는 통역관이다. 빨리 내뺐라. 될 수 있으면 멀리. 이게 다 나라가 힘이 없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식민지에서 금 캐던 버릇이 있어서.....”

국방군의 명찰이 보였다. ‘이 병 구’ 세 글자였다. 국방군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총을 겨누자 눈을 감았다. 형식은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타양 땅땅’ 온산이 산산이 부서져 내릴 듯 소리가 그의 고막을 흔들었다. 소리가 들렸으나 형식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놀랜 형식을 끌어안은 병구는 보따리 하나를 그에게 줬다.

“이것 갖고 도망쳐라. 너를 살려 줄 수도 있다. 나 같은 어른은 죽어도 괜찮다. 나라가 힘이 없어 일어난 존쟁이다. 살아남아 열심히 배워 나라 일꾼 되거라이.”

형식은 병구가 준 보따리를 움켜쥔 채 집을 향해 달렸다. 찬바람 부는데도 온몸이 땀으로 먹을 감았다. 너른 기와지붕이 보였다. 열린 대문 사이로 오마니가 보이더니 하늘이 빙 돌면서 쓰러졌다. 얼마를 지났는지 정신을 차린 형식은 오마니와 함께 피난길에 나섰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행렬을 이루어 남으로 남으로 가고 있었다. ‘쉬애광 광아양’ 광산에서 남포를 터트리는 소리같이 들렸다. 비행기에 ‘새액 짹’ 소리를 내며 폭탄이 떨어졌다. 형식은 왼팔에 심한 통증이 왔다. 그는 쓰러져 왼팔을 움직였다. 심한 아픔이 오며 검정 바지가 피에 젖었다. 자세히 보니 바지에 피가 붙었다. 그는 팔의 통증이 오지만 오마니를 찾았다. 오마니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으아악.”

형식은 소리를 지르고 까무러쳤다. 얼마를 지났는지 눈을 떴다. 그는 허리에 찬 보따리 두 개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두들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만 봤다. 남쪽으로 가야 산다는 말을 듣고 걷고 걸었다. 찬바람이 불었다. 허리춤 보따리에 있는 미숫가루를 아껴먹으면서 몇 날 며칠을 걸었는지 발이 부르토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형식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걸었다. 보이는 것은 사람 천지여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형식은 팔의 통증을 참으며 허리춤에 동여맨 보따리를 추겨 땀다. ‘강동역’이라고 붓글씨로 쓰인 퇴색된 나무 간판이 눈에 잡혔다. 기차가 떠나려는 듯 수증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지붕에도 창문도 기차 출입구까지 봐도 봐도 형식이 들어갈 기차의 공간은 없었다. 피난민들의 틈에 기차가 끼인 듯이 보였다. 형식은 기차의 앞부분으로 달렸다. 시커먼 석탄가루를 열심히 퍼붓는 화부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기관사가 앉아있는 곳이 보였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기관실 문을 재빨리 열고 들어갔다. 막 떠나려는 채비를 마친 기관사는 형식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야! 이놈아! 내려라 내려. 여기는 타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살려 주시래요.”

타지 못하게 하는 기관사에게 형식은 허리춤에서 꺼낸 주먹만 한 물건을 기관사에게 건네줬다. 형식은 창문 난간에 있는 먹다 말은 주먹보리밥을 재빠르게 낚아 채 먹었다. 밥 구경을 한 지가 며칠이 지났는지도 몰랐다. 형식이 준 물건을 받아든 기관사는 잼싸게 풀었다. 기관사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석탄가루 퍼 넣는데 정신이 팔린 화부가 볼세라 얼른 옷 속에 숨겼다.

“꼬마야. 또 있냐?”

기관사의 일그러졌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지며 다정하게 형식에게 물었다. 형식은 대답대신 고개를 가로 저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나무, 산, 들녘이 뒤로 뒤로 밀려갔다. 형식은 허리끈이 표가 나지

않도록 옷옷으로 가리며 손끝으로 있는 지를 확인했다. 무거워 지는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왼팔의 통증 때문에 중간 중간 깨면서 잠을 잤다. 기차는 몇날 며칠을 달렸다.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갔다. 형식은 기관사가 여기가 부산이라며 내리라는 말에 내렸다. 형식은 사람들의 뒤를 따라 피난민촌으로 갔다. 팔의 통증에 형식은 소리를 질렀다. 흰옷을 입은 여자가 그에게로 다가와서 형식의 팔을 보고 깜짝 놀랐다. 뚱뚱 부은 팔에선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난 이곳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원 윤숙이다. 안심해라.”

말을 마친 윤숙은 형식의 차림새를 살폈다. 윤숙이 형식의 허리에 동여맨 끈을 풀자, 윤숙의 시선이 고정됐다. 허리에 찻던 보따리가 풀어지며 나온 돌덩이가 누렇게 빛났다.

“아니이. 이거 어디서 났지?”

윤숙은 놀랜 표정으로 형식에게 물었다.

“우리 아바이 금광.”

“부모님은?”

“어영영 어영영. 영영영영영”

“알았다. 이것 내게 맡겨라.”

윤숙은 금덩이를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주사 한 대를 형식에게 놓았다. 팔이 덜 아플 거라며 안심 시켰다. 형식은 윤숙을 따라 그녀가 있는 집으로 왔다. 세숫대야 물에 파란물감을 타놓은 것 같은 너른 세계가 보였다. 윤숙은 바다나 보면서 쉬라고 했다. 하늘엔 흰 갈매기가 날고, 창문밖에는 발 디딜 틈도 없는 사람의 물결이었다. 윤숙이 나간 뒤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윤숙이 다시 나타나 형식을 데리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빠져나갔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커다란 건물이 나타났다. 윤숙은 주저하지 않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네 팔이 심상치 않다. 아픔이 있을 게다.”

옥도정기 냄새가 가득했다. 윤숙은 형식을 긴 탁자위에 눕혔다. 윤숙이 형식의 바지를 내리고 주사를 놓으려하자, 형식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옥양목으로 된 긴 옷을 입은 키가 아주 큰 사람이 보였다.

‘으악!’ 형식은 소리를 지르며 윤숙의 팔에 매달렸다. 바로 형식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더군다나 노랑 머리털의 남자 손에는 날이 선 회색의 칼을 쥐고 있었다.

“이분은 의사 잭이시다. 네 팔을 수술할 거니 믿고 겁내지 마라.”

‘이젠 죽는구나.’ 체념하며 형식은 윤숙의 손을 힘껏 쥐었다. 윤숙의 손에 들린 냄새나는 흰 형짚을 형식의 코끝에 갖다 대자 냄새가 코로 스며들었다. 형식의 시야가 가물가물해지더니 꿈결 같은 말소리가 들렸다. 형식은 노란 머리털 남자와 윤숙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에 깊은 나락으로 빠졌다.

파란 하늘이 보였다. 산 위에 높이 떠있는 해가 형식을 향해 비쳤다. 오마니가 손짓하고 아버지가 웃었다.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비가 쏟아졌다. 노랑머리털 군인이 쓴 총에 아버지 가슴에서 피가 솟구쳤다. 형식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왼쪽 팔목 위에 커다란 바위를 올려놓은 무게가 느껴졌다. 무언가 살아있는 물체가 형식의 왼팔 뼈를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는 감각이 전신을 매몰시키고 있었다.

“괜찮을 게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왼쪽이니까. 그나마 낫다.”

윤숙의 목소리에 형식은 눈을 떴다. 윤숙의 표정은 언짢아하는 게 역력했다. 잘려진 그의 왼팔이 푹푹 쇠꼬챙이로 찌르는 것 같았다. 노랑머리털 남자의사 잭은 밖으로 나가고 흐릿한 백열등 불빛만이 형식의 얼굴을 비쳤다.

## 2.

### 손 하나 없으면

갈퀴리를 달아라.

석유병은 엿이나 사 먹지

빙신은 아무 것도 못 사먹어.

전쟁 중에 다리나 팔이 없어진 사람들은 천대와 괄시 속에 살았다. 몸이 상한 것도 억울한데다가 먹고살길 더더욱 곤란했다. ‘야. 팔 병신. 에이 재수 없어.’ 동무들이 형식을 놀릴 때마다 하는 듣는 소리였다. 그 말은 형식이 국민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늘 붙어 다녔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온 윤숙은 돈을 벌면서도 가난하고 험벗은 사람들을 돌보는 게 유일한 즐거움으로 보였다. 형식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했다. 학비는 윤숙이 오마니처럼 대해주며 학비를 댔다. 형식의 마음속엔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팔에 대한 친구들의 조롱도 항상 따라다녔다.

‘그대로 두고 온 아바이 오마니 시신은 어떻게 되었는지? 고향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나? 잘려진 왼팔을 털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곳은 없나?’

형식은 북한산 자락을 오르며 길속의 길을 생각했다. 짙어진 녹음을 헤치고 나온 백운대가 보였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깔딱 고개를 넘었다. 건너편엔 깎아놓은 흰 무 같은 인수봉이 나타났다. 새들이 북쪽을 향해 날아갔다. 차라리 새로 태어났으면..... 이름도 북한산, 내 고향도 북한 땅. 그는 고향 땅을 밟는 기분에 빠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검정운동화를 벗자 고린내가 코를 찔렀다. 벗겨지지만 목양말이 발목까지 내려왔다. 윤숙은 형식에게 자취방을 구해줬다. 깎아지른 바위 산 위에 찻쌀 풀로 붙여놓은 듯 군대천막이 여기저기 있었다. 곧 떨어질 것 같은 바위 밑에 옹기종기 판잣집들이 계딱지같이 군데군데 자리를 잡았다. 그래도 판잣집은 형편이 나은 집이었다. 물론 평평한 땅위에 있는 초가보다는 못했지만 가뭄에 콩 나듯이 섞여있는 기와집은 몇 군데밖에 없었다. 그럴듯한 기와집 구경이란 미군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포장도 뜯겨지지

얇은 소시지 한 봉지를 통째로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드물었다. 형식은 걸었다. 무조건 걷고 싶었다. 부아가 치밀어 오를 때면 그는 걸었다. 잘 다듬어진 주춧돌 위에 올려진 기와지붕이 시야에 들어왔다. 밝은 햇살에 비치는 돌과 나무로 된 기와지붕 처마 밑이, 그의 잘려나간 상처를 보듯이 크게 보였다. 총탄을 맞고 상처 난 동대문이었다. 그는 동대문을 지나 왼쪽 길로 접어들었다. 한 달 전에 월사금을 받으러 낮에 갔었는데 윤숙은 형식이 일요일 낮에 방문하는 것을 싫어했다. 바쁘니 저녁에만 오라는 말을 잊지 않고 했었다. 병원은 항상 만원이었다. 옷인지 거적매기인지 구분이 안가는 차림새가 대부분이었다. 사지 군복을 입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돈을 받는 환자들이었고 비렁뱅이들은 무료로 치료비를 받지 않았다. 청계천이 보였다. 흘러가는 냇물에 아낙네들이 바쁘게 빨래방망이를 두들겼다. 미운 사람을 원망하듯 자꾸만 두들겼다. 군데군데 놓여있는 돌 징검다리나 나무다리를 건널 필요는 없었다. 길만 따라가면 윤숙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형식의 오른팔이 힘차게 움직였다. 전쟁으로 황폐한 마을은 뜨거운 여름햇살에 더위만 퍼부었다. 통나무 울타리 사이로 병원 건물이 길게 자리 잡고 있었다. 판때기에 붓으로 써진 '사랑의원' 간판이 보였다. 형식은 오른손에 쥐어진 마분지에 쓴 작은 물건을 꼭 쥐고 걸었다. '드려야지. 좋아하실 거야.' 마분지에 쓴 물체의 부드러운 촉감이 좋았다. 형식은 눈만 뜨면 무언가를 해야 직성이 풀렸다. 병원에 지금이야 윤숙이 환자 간호에 바쁠 것 같아 저녁에 가기로 하고 용산으로 발길을 돌렸다. 형식은 미군부대 쓰레기통을 뒤졌다. 과일깡통과 먹다버린 소시지, 치즈, 하얀 우유가루가 그를 반겼다. 쓰레기통을 아무 때나 뒤진다고 그의 친구들은 미군들에게 얻어맞고 쫓겨났다. '고우 백! 갓 템!' 미군 보초병들이 해가 질 무렵이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해대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놀라 도망쳤으나 이젠 이골이 났다. 쓰레기통 뒤지는 아이들이 잘 물러나지 않으면 커다란 군화 발이 그들의 엉덩이를 여지없이 걷어찼다. 그러나 형식은 한쪽 팔만을 움직이며 도망 갈 염두도 못 냈다. 주운

물건을 갖고 빨리 도망갈 수가 없었다. 사납던 미군도 형식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 팔이 없다는 게 불쌍히 보였던 모양이다. 형식은 창신동을 향해 걸었다. ‘언젠가는 금강산에 가야지. 금덩이를 찾아 내 고향 가난을 몰아내야 돼!’ 되뇌며 걷다보니 날이 저물었다. 반딧불이가 뽐뽐뽐뽐 빛을 내며 날아다니고, 별뿔이 긴 꼬리를 그리다가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반쯤 열려진 통나무 문이 그를 반기듯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렸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었다. 너른 마당이 보였다. 그는 마당 왼쪽으로 돌아왔다. 병원 건물 뒤에는 형식이 이모라고 부르는 윤숙의 침실이 있었다. 형식은 윤숙을 이모처럼 따랐다. 윤숙의 침실 쪽을 향해 걸었다. 앞 건물에 업혀있는 것 같은 작은 건물이었다. 다른 불빛은 꺼져 있었으나, 윤숙의 침실 출입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형식은 마분지에 쓴 손에 든 물건을 얼른 만나 윤숙에게 주고 싶었다. ‘왜, 밤늦게는 오지 말라고 했을까?’ 물론 늦게 다녀서 좋은 일이 생길 까닭이 없었다. 모든 게 부족한 상태였으니 도둑도 있었고, 밤 12시 통행금지도 있었다. ‘드려야지. 좋아하실 거야.’ 마분지에 쓴 물건의 부드러운 촉감이 좋았다. 형식은 침실 출입문을 두드리려다가 손이 급속 냉동되듯이 멈췄다. 큰 그림자가 작은 그림자를 껴안은 게 창호지 문에 비쳤다.

“오마이 다알링. 아이 러브 유.”

혀 꼬부라진 말소리에 이어 이상한 신음이 들렸다.

“이미그레이션 리얼리?”

윤숙의 코맹맹이 소리였다.

“다알링. 아이 웰 윤숙 매리지!”

남자 의사 잭슨 목소리였다. 언제 들어봐도 품위 있는 윤숙의 음성이었으나 지금은 그게 아니었다. 형식의 가슴은 불에 달구어진 무쇠 솥에 콩이 튀듯이 콩닥거렸다. 윤숙이 강간을 당하나? 협박하는 말투는 아니었다. 형식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두려움보다는 의협심이 앞섰다. 형

식은 차곡차곡 접어서 쌓아놓은 나무상자 위에 올라섰다. 검정 옥양목 반바지를 입은 종아리에 수많은 모기떼가 기를 쓰고 달려들었다. 형식은 찢어진 창호지문 구멍에 눈을 갖다 댔다. 전신이 떨리며 현기증이 일었다. 황소 몸집의 책의 손이 윤숙의 가슴을 어루만졌다. 밑에 깔려있는 윤숙 몸 위엔 벌거벗은 책이 올라타고 있었다. 형식의 전신에서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는 가 싶더니, 밟고 있던 나무상자가 쓰러졌다. 형식은 땅바닥에 넘어졌다. 그는 손에 들었던 마분지에 쓴 물건을 팽개치고 자취집을 향해 뛰었다. 뒤통수를 커다란 망치로 얻어맞은 듯 머릿속은 텅 빈 듯 아무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오마니가 외간남자를 불러들여 벌어진 일처럼 느껴졌다. 자취집에 돌아왔을 땐 통행금지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형식은 오슬오슬 떨리는 한기에 잠도 못 자고 아침도 점심도 거른 채 방 누워 있었다. 윤숙을 깔고 앉은 황소 몸집의 책 얼굴이 자꾸만 생각났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형식은 윤숙을 보면 오마니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었다. 방의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모른 채 눈을 감았다. 방금 전에 들린 소리는 문을 열고 내다보지 않아도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다. 방바닥에 무언가를 놓더니 열렸던 문이 다시 닫혔다. 형식은 오지 않던 잠을 억지로 자다가 일어났다. 방바닥엔 흰 봉투와 작은 보따리 한 개가 놓여 있었다.

‘늦게나마 네 생일을 축하한다. 놓고 간 선물 잘 받았다. 네가 어른이 되면 나를 이해하리라 믿는다.’

만년필로 토박토박 써진 윤숙의 글씨였다. 형식은 보따리를 풀었다. 운동화 한 켤레가 나왔다. 며칠이 지나자 윤숙이 형식을 다시 찾아왔다.

“형식아. 나하고 같이 살자.”

“생각해보고요.”

형식은 윤숙의 예상 밖 갑작스런 말에 당황했다.

“이승만이 쫓겨나더니 군인들이 정치한다고 야단들이지만, 영 불안하다. 너

고향 가고 싶지?”

“어떻게 가요?”

형식은 심봉사가 왕비가 된 딸 심청의 목소리를 듣고 눈뜬 기분이 되었다.

“가는 방법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무 욕하지 마라.”

말을 마치기 무섭게 윤숙은 형식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고향에 갈 수 있다는 말에 형식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없었던 일 같았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병원 출입문이 열리며 잭이 웃으며 반겼다.

“어어서 와야요. 미스터 김 환영합니다. 우리이 하안 집 식구가 되었어요.”

“나, 잭과 결혼 할 꺼다.”

형식은 윤숙의 콧날과 작은 입 선명한 눈썹이 그의 어머니를 닮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의 팔을 아물게 한 잭은 정이 가지 않았다. 아버이를 죽인 사람 얼굴과 닮았기 때문이다. 병원은 항상 만원이었다. 좋은 약과 친절함이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형식은 틈만 나면 정이 안가는 잭이지만 영어를 배우기 위해 접근했다. 병원 옆 공터에 자리 잡은 느티나무에선 매미들이 소낙비 울음을 터트렸다. 형식은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진 나무 그늘 아래 누우니 잠이 쏟아졌다.

형식은 걷는다. 물이 있는 곳을 향해 걷는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좋지만 냇물이 모여 흘러가는 강물이 더 좋다. 왕십리, 서빙고, 이촌동을 지나 마포에 도착하자 바위에 걸터앉아 한강을 본다. 청동오리들이 자맥질 하고, 강물이 출렁출렁 잔물결이 거칠어지더니 큰 물결로 변한다. 멀리서 누런 깃발이 밤섬 쪽에서 형식을 향해 점점 다가온다. 황포 돛대를 단 배였다. 세찬 회오리바람이 일며 물기둥이 치솟는다. 돛단배가 형식을 향해 오자 배에 오른다. 다시 세찬 바람이 일더니 강물이 돛단배를 싣고 하늘을 난다. 남산을 지나 한강다리를 지난다. 끊긴 한강교에 수많은 피난민 행렬이 보인다. 배는 한강을 거슬러 강화도를 지나는 것 같더니 임진강을 지나 한탄강 줄기를 흐르다 딱 멈춘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보인다. 물기둥은 점점 다리 위로 솟아 큰물이 된다. 서해에

서 동해까지 처진 가시철조망이 점점 형식의 앞으로 다가온다. 그를 에워싸듯이 다가오던 철조망이 수만 개의 구슬로 변해 빛난다. 홍수로 성난 물결 같은 인파가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모여든다. ‘통일이다. 통일!’ 목청이 터지도록 외친다. ‘따양! 땅! 안돼! 아바이!’ 식은땀이 형식의 이마에서 콧잔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현실처럼 다가왔던 순간의 허상이었다.

‘야. 팔 병신 형식이 에미는 양갈보다! 양놈하고 살어.’

형식이 집으로 돌아오는 데 지나가던 포래들이 놀렸지만 못들은 척했다.

‘고향에 갈 수만 있다면 목숨 빼놓고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어. 처참하게 돌아가신 아바이와 오마니는? 까마귀밥은 안 되었는지? 외가식구들은? 고모와 삼촌은? 휴전선을 넘어 가볼 수도 없고, 다른 나라를 통한다면 갈 수 있을까? 윤숙과 잭을 따라가면 가능할까? 팔 병신이란 조롱도 정말로 듣기 싫단 말이다.’

형식은 곱씹고 곱씹지만 의문만 더 커졌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연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월동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기예보였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추위라고 강조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디서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꼬리에 꼬리를 잇는 소문은 돌았다. ‘강물이 얼어붙으면 탱크가 강을 건너 올 수 있다 지. 누가 온다는 거야? 누군 누구야. 북한 빨갱이들이지. 강물이면 한강, 임진강이겠네. 묻긴 왜, 물어. 다 알면서.’

1월 21일. 청와대를 습격하다가 잡힌 무장공비들 시신이 잘못 말린 명태처럼 흑백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다. 머리카락이 조그만 길다 생각되면 조선말기 단발령이 되살아난 듯 짝둑 짝둑 잘렸다. ‘장발자 단속’이라는 글귀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서해안 천수만을 통해 들어온 무장공비들은 차령산맥을 타고 도주하다가 땔나무를 하던 세 명 부녀자를 살해했다는 신문기사가 대문

적당하게 나왔다. 방송에서는 연일 떠들어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다.

윤숙과 잭은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온 사람은 몇 사람뿐이었다. 잭은 그들의 결혼식에 많은 하객들이 오기를 바랐으나 윤숙의 반대로 단출한 식을 올렸다. 형식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화려하고 진심으로 축복 받는 결혼식을 원하는 데, 왜, 윤숙이 싫다고 했을까. 맺고 이음이 확실한 윤숙의 성격이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삼일이 지났다. ‘지르륵 지름 짜름’ 전화벨이 울렸다. 깊은 상념에 젖어 있던 형식은 수화기를 들었다. ‘나이 모다. 지금 빨리 오너라. 상의할 일이 있다.’ 형식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읽고, 무조건 사인해라. 고향에 가고 싶으면 말이다.”

윤숙이 종이 한 장을 내놓았다. 형식은 천천히 읽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이 붉은 색을 띠다가 핏기가 가시며 임종을 앞둔 사람의 얼굴색으로 변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가 태어난 고향산천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다가 오마니, 아바이 얼굴이 선하게 그려졌다. 그리고 사인을 했다.

“형식아. 한 잔 마시렴.”

윤숙은 특별한 경우에는 형식에게 포도주를 권했다. 삼페인에 소주를 탄 것 같은 호주산 백포도주였다. 형식은 연거푸 서너 잔을 마셨다. 며칠 전부터 잭과 윤숙은 이삿짐을 썼다. 윤숙은 출국신고를 한다면서 외무부와 호주대사관을 뱅질나게 다니다가, 호주행 비행기에 세 사람은 몸을 실었다.

### 3.

잘 자란 잔디가 카펫처럼 깔린 위를 주둥이가 붉은 흑고니가 뒤뚱뒤뚱 걸으며 잔디를 뜯어먹고 있었다. 형식은 자전거에 올랐다. 인도양으로 흘러가는 스와니강물이 햇빛을 받아 거울에 반사된 듯이 반짝였다. 킹스파크에서 내려다 보는 서호주 퍼스시의 전경이 한없이 아름다웠다. 킹스파크의 소철나무가지가

느티나무가지처럼 늘어져 있었다. 그는 해변도로를 따라 가다가 노란 감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가로수 앞 도로에 자동차를 세웠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대문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 윤숙이 있는 거실로 들어섰다. 윤숙이 오라고 한 날은 항상 대문과 거실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오마니! 저 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어느 때부터인가. 형식은 윤숙을 오마니라고 불렀다. 단지 책이 자리에 없을 때만 부르는 호칭이었다. 책을 보는 순간 형식은 아픈 자신의 과거가 들춰졌다. 윤숙은 형식이 거실의 소파에 앉자마자 서류 한 장을 내놓았다. 깨알 같은 영문자로 써진 서류였다. 형식은 단숨에 읽기 시작했다.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빛이 핏기 없는 폐결핵 환자의 안색이 되었다. 형식을 윤숙과 책에겐 입양한 서류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한참 후에 다시 눈을 떴다. 자식이 없는 윤숙이 자신의 호적에 입양을 시켰다. 아버지는 책, 어머니는 윤숙이었다.

“오마니! 여기 고추장 가져왔어요. 한국 갔다 온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그냥 다녀도 된다. 고맙다.”

윤숙이 포도주 한 잔을 권했다. 그가 이국땅에 와서 느끼는 고독을 달래주는 백포도주였다. 한국에서 먹던 막걸리를 생각하며, 그는 연거푸 세 잔을 마셨다. 네모지게 잘려진 고기 덩이를 포크로 찍어 삼켰다. 그가 어릴 적에 먹던 산토끼 고기 맛이였다. 어린양의 고기 램이었다. 형식은 호주로 온 뒤로 병신이라는 놀림을 받지 않았다. 형식은 책의 도움으로 대학을 나와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한국여자와 결혼해서 아들도 딸도 낳았다. 방금 전에 들어간 포도주 취기가 짜르르 올라왔다. 책이 출장이라 자고 가라는 말에 형식은 옆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형식은 얼마를 잤는지 화장실에 가고 싶어 눈을 떴다. 유리 창문에 가로등 불빛이 조명을 이루며 묘한 색의 배합으로 빛났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서늘한 공기가 들어왔다.

환하게 비치는 가로등 나뭇잎 사이에 붙은 금덩이가 빛났다. 금, 노다지, 광산, 아바이, 순천, 노랑머리털 군인, 이병구 국방군아저씨.....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가로수를 노려봤다. 가로수가 심어진 굴나무에 열린 감귤였다. 창문을 다시 닫았다. 그는 창문의 벽의 반대쪽 방 안으로 들어가 고개를 돌렸다. 처음 들어오는 방이었다. 세로로 세워 걸린 기다란 액자가 보였다. 유리 창문을 통해 들어온 불빛에 키 큰 남자의 사진 윤곽이 뚜렷했다. 알 수 없는 무서움이 엄습했다. 노는 데 정신이 팔려 날이 어두워지는 줄 모르다 상엿집 지날 때처럼 무서웠다. 그는 스위치를 찾았다. 맹인이 손끝의 감촉만으로 물체를 식별하듯 벽면을 더듬었다. 오른손가락에 감지되는 스위치를 누르자 어둠은 사라지고 환한 불빛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다시 창문 반대쪽 벽면을 뚫어져라 사진의 아래쪽을 응시했다. 목이 긴 군화를 신고 허리엔 권총을 찼다. 그는 눈의 초점을 사진의 상단으로 서서히 옮겼다. 오뚝한 콧날에 날카로운 살모사의 눈초리였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다. 오른손에는 아기의 머리통만한 돌덩이 두 개를 쥐고 있는 사진이었다.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형식은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으며 사진을 응시했다. ‘으악 악 흑’ 형식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따아앙 땅땅’ 고막을 찢는 총소리가 들렸다. 소나무에 묶인 형식의 아바이가 노랑 털 군인이 쏜 총에 맞아 가슴에서 피가 솟았다. 집을 지키는 풍산개가 도둑의 뒷다리를 물 듯, 형식은 달려 나가 땅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주우려던 노랑머리털 남자팔목을 물어뜯었다. 남자는 무어라 소리치다가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형식은 소나무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된 아바이를 끌어안았다. 박물관 한구석에 방치 된 채 있었던 기록영화 필름을 다시 보듯 선명해졌다.

‘아냐. 내가 잘못 봤어. 그럴 리가 없어.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어.’

형식의 이마에선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기의 수도꼭지를 틀고 쏟아지는 물에 머리를 박았다. ‘아바이를 죽인 외국 군인이 저 사진

속의 사람이란 말인가?’ ‘아니냐.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착각을 한 게 분명해.’ 그는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으로 들어와, 사진을 자세히 보니 영어글씨가 보였다.

‘한국전쟁시. 한국 순천 은산 금광에서. 책!’

형식의 아버지가 관리하던 광산입구와 소나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흐느꼈다. 복받치는 울음을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근엄하셨던 아버지, 인자한 오마니 얼굴! 그의 고향 평안도 순천의 산들이 가물가물 눈에 어른거렸다. 그는 윤숙의 집을 빠져 나와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방문을 열어젖혔다. 잠에 취해있던 그의 아내가 놀랜 눈으로 쳐다봤다. 그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짝 꽃힌 수많은 책들을 쳐다보다가 눈의 초점이 한곳에 머물렀다. 책을 살피다가 책 한 권을 재빠르게 뽑아들었다.

국사대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HISTORY을 펼쳤다. 한글로 된 사전이었다. 형식은 그의 고향 ‘은산’의 ‘은’자를 찾고 다음엔 ‘산’을 찾았다. 눈물이 솟았다. 그는 떨어지는 눈물을 닦으며 누렇게 변한 갱지에 인쇄된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

‘은산 금광채굴권- 대한제국 광무 4년(1900년) 영국이 조선에서 얻어낸 금광채굴권. 아관파천이후 러시아 공사 웨베르(Waeber)가 조선정부에 강요하여 많은 이권을 차지하자, 다른 열강들도 기회균등을 주장하며 철도, 광산, 삼림채벌 등의 이권을 얻으려고 각축하였다. 이때 영국은 평안도 순천에 있는 은산의 금광 채굴권을 요구, 조정에서는 은산 광산의 비중이 크고 또한 당시 궁내부에서 채굴 중에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계속 압력을 가하여 결국 허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 후 3년간 많은 양의 금을 채굴하였다.’

형식은 정신을 가다듬었다.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를 썼으나 손이 떨리고 가

숨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텃다. 그는 아내가 어디 가느냐는 물음에도 대답도 없이 윤숙의 집으로 다시 가서 사진을 찬찬히 보다 액자를 뒤집었다.

‘나의 할아버지가 조선에서 은산 금광 채굴의 총감독으로 임명되어 3년간 근무하다 철수하였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영국군 대령으로 있던 아버지가 다시 그 광산에 가서 금덩이를 줌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임. 잭!’

사진에서 본 대령 계급장이 뒷면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럴 수가? 하느님 너무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런 운명의 장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형식은 잭의 도움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 증오스러웠다. 내 아버지를 죽인 아들에게 도움을 받아 호주까지 와서 대학을 졸업했다. 거기다가 양자가 되어 어엿한 회사원이 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자신의 친 오마니처럼 여기고 의지하며 살아온 윤숙이, 아버지를 죽인 아들과 살을 섞고 살아오다니. 토약질을 하고 싶었으나 돌이킬 수 없는 삶의 자국이였다. 내 나라 한국을 떠난 것도 나라가 힘이 없어 없어 생긴 결과였다. 잘려나간 팔을 덜 의식하며 고향에 갈수 있다 길래, 호주까지 와 살게 된 게 아닌가?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의 손으로 찌어가던 자신의 팔을 자르고 냐지 않았나? 잭의 의술이 아니면, 그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그는 집에서 직장에 출퇴근하는 것 외에는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한스런 삶이 운명이라지만 체념하려해도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형식은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윤숙에게 잭의 가족사를 알고 싶어 물었다. 잭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영국에서 살았지만, 잭은 호주로 이민 와서 살다가 한국전쟁에 호주가 전투비행단을 파견하자 군의관으로 참전했다는 것이다. 형식은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 허탈감에 빠졌다. 그러나 삶은 삶이니 지난 일을 지울 수 없는 거였다. 두 달이 지났다. 윤숙이 형식의 집을 찾아왔다.

“형식아! 노오스코리아 가자.”

“.....”

“난 네 맘을 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니.”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안 걸려요.”

“넌! 호주인이잖니.”

“오마니.”

형식 눈엔 눈물이 그렇그렁 맺혔다. 형식은 북한에 갔으나 여행제한으로 고향엔 가지 못하고 평양구경만 하고 왔다.

‘호주국적으로 바꾼 건, 다 살기 위한 방편이고 고향을 가기 위한 수단이야. 사우스코리아, 노오스 코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지. 통일은 당장 어렵지만, 언젠간 된다. 한국의 지난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랑하며 식민지를 건설하여 부자가 된 나라. 잭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영국에서 살았지만, 잭은 호주로 이민 와서 사는 거였다. 내 팔을 고쳐준 잭은 한국전에 군의관으로 참전해서 나를 만난 건 운명에 장난인가. 난, 미로를 헤매다가 퍼즐을 맞춘 거야.’

형식은 오만가지 생각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자신의 허리에 찬 금덩이가 아니었더라면 윤숙도, 그를 돌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신의 썩어 가는 팔뚝을 자르고 치료해 살려준 잭의 얼굴이 확대되어 살아났다. 인간이 겪은 쓰러진 경험은 잠에서 깨면 훌가분하게 없어지는 악몽과는 달랐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머릿속에 각인 된 아픈 과거란 잇몸사이에 낀 음식처럼 참기 힘든 것이다. 형식에게 불행한 과거가 현실을 파먹고 덮어버리는 오염된 침전물처럼 다가왔다.

영국이라는 나라! 미국을 식민지로 갖고 있을 때는 미국이 영국의 들러리였지만 6.25에 참전한 영국은 반대 입장이 되었다. 수많은 식민지 침략을 하면서 살인, 약탈의 인류사적 범죄를 저질렀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꾸민 게 영국이란 것을 형식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피해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저질러온 약탈로 호화롭게 배부르게 살면서 그들은 '영국신사'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다. 양복에 나비넥타이에 증절모에 허리도 굽히지 않는 들고 다니는 지팡이였다. 잭의 할아버지가 캐다만 금덩이가 탐이나, 잭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은산을 다시 찾아가 금광을 지키던 아버이를 죽이고 금덩이를 빼앗아 온 게 분명했다.

#### 4.

'부우웅 부우웅 부우웅' 뱃고동 소리가 힘차게 울리자 수백 발의 폭죽이 저녁 하늘을 수놓았다. 여객선은 서서히 육중한 몸체를 움직이며 동해항 부두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반세기 동안 막혔던 뱃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다. 검정페인트 통 속 같은 어둠을 헤치고 배는 서서히 움직였다. 구름을 가르며 아침 해가 떠오르자 기묘하게 깎이고 다듬어진 금강산 봉우리와 산자락 나타났다. 하나하나마다 벽차오르는 감흥을 억누를 수 없는 지, 여행객들은 고향 땅 가까운 곳까지 왔다는 흥분 때문인 듯 여객선 창밖을 쳐다봤다. 형식은 김포공항에서 곧장 왔지만 피로한 기색이 없었다. 그는 몇 년 전에 북한에 갔을 때 평안도 순천에 가서 가족들을 찾으려 했으나 북한당국에서 통제하여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단지 평양만 구경하고 왔었다. 북한 국가보위부 사람에게 달러 돈을 주면서 부탁했었다. 외삼촌 한 분만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다. 나머지 가족들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다.

'고향땅 평안도 순천 고향에도 갈 수도 없으니. 이게 나라란 말인가? 내 비록호주인이 되었지만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날이 오면 한국국적으로 바꾸리라.'

형식은 혼잣말을 하며 바다를 쳐다봤다. 황금 햇살에 반짝이는 아침 바다 위로 갈매기가 장전항 하늘을 날고 있었다. 여행객들은 여객선에서 내려 장전 1호로 갈아타고 육지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신고산이 우르르 ……」 민요가 들려왔다. 세관간물 옆엔 ‘민족의 자랑 금강산’이라고 쓰인 붉은 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형식은 배에서 내려 ‘금강산관광’이라는 로고가 새겨진 버스를 탔다. 금강산 관문인 온정리로 향하는 도로 양편엔 버스 높이의 철책이 그물처럼 세워져 있었다. 형식은 지도 한 장을 꺼냈다. 그는 위치를 확인하는 듯 지도를 보며 인민학교 1학년 때 부모님 따라 같이 왔었다. 형식이 그의 부모님과 여행와 잤던 온정리 경성여관이었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금강인민학교 뒤 넓은 마당바위와 흐드러진 벚꽃 아래서 오마니 아바이와 거닐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곳엔 마을 사람들도 집도 없었다. 만물상으로 가는 길에 ‘금강산려관’ 간판이 눈에 잡혔다. 금강산의 유일한 호텔이라며 안내원이 소개를 했다. 버스는 좁은 길에 운전면허 시험의 곡선 코스를 통과하듯 좌우로 왔다 갔다 했다. 버스의 차창 밖으로 수정처럼 밝은 계곡물이 눈에 들어왔다. 유리판의 단면처럼 푸른 에메랄드빛을 띤 계곡 물이 흘러갔다. 호수 중 제일 경치가 아름다운 호수로 꼽히는 삼일포를 구경하고 온정리온천에서 온천욕을 했다. 형식은 온천욕하면서도 금강산 구룡대 생각뿐이었다.

형식은 금강산에서 자는 마지막 날밤을 뜬눈으로 새고 버스에 다시 올랐다. 키 재기 하듯 보죽보죽 솟아있는 문필봉 관음연봉 세존봉, 수많은 봉우리와 기묘한 기암괴석들, 벼랑에서 쏟아져 내린 물이 다시 바위에 부딪혀 미끄러져 이룬 폭포물이 떨어졌다. 관광객들은 상팔담 경치에 넋을 잃고 취해 있었다. 형식은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어린 시절의 아바이의 말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형식은 경치에 취해있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구룡대 바위 틈 사이에 왕소나무 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동포애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만나고 보니 남조선 동포

들을 위한 금강산 관광이 왜 이제야 이루어졌나 싶습니다. 여기는 팔선녀가 목욕을 했다는 상팔담 계곡 위입니다.’

북조선 여성안내원이 금강산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누군가가 농담을 걸었다.

‘말로만 듣던 금강산 선녀를 만나 반갑습니다.’ ‘저보다 더 예쁜 진짜 선녀들이 많은 데, 제가 어떻게 선녀입니까?’

형식은 북한 안내원이 설명에 취해있는 일행의 뒤로 슬그머니 가더니 바위 아래 왕소나무 밑으로 다가갔다. 형식은 호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내보더니 준비해 온 모종삽으로 노송 밑자락에 떨어진 솔잎을 헤치고 재빠른 손놀림으로 땅을 팠다. 시꺼먼 덩어리를 꺼내 흙을 털고 형질을 푸니 소나무사이로 들어오는 해살에 빛났다. 어른 주먹크기 금덩어리였다. 형식은 나머지 금덩이도 확인하려고 했으나 인기척에 놀라 얼른 땅에 다시 묻고 산 경치를 감상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 꼭 필요할 때 임자가 와서 캐다가 이 나라를 위해 쓰라요.’ 형식이 인민학교 다닐 때 오마니 아바이와 같이 이곳에 왔을 때 하던 아바이 말이 새로워지며 눈물이 앞을 가렸다. 열 개의 금덩이를 아바이가 보여줬었다. 형식은 바위에 걸터앉아 평화롭게 오가는 구름을 마냥 바라본다. 형식은 금덩이가 묻혀있는 보물지도가 호주머니에 있는지 다시 확인했다. 시원한 골바람이 일면서 왕소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난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는 날, 저 금덩이를 팔아, 그 돈으로 내 고향 순천과 평안도를 위해 쓰리라. 지긋지긋한 내 고향 가난을 없애리라. 내 생전에 안 되면 자식한테라도 반드시 하라고 유언으로 남기리라.’

형식은 마음을 다지고 다졌다. 북쪽은 밥이 모자라 아이들은 꽃제비가 되어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을 헤매고……. 남쪽은 통일로 가는 길이라며 금강산 가는 게 안달이 나 800만 달러를 입산료로 지불한다. 그 돈으로 미그기를 들여오는 북한의 집권자들, 굶는 북한 동포들은 아랑곳없고, 이게 내가 태어난 고국이다. 영국인들이라면 그렇게 할까? 양아버지 잭이 죽으면 그 재산을 다시

유산으로 받으리라. 우리 땅에서 빼앗아 간 재산이니. 반드시 찾아 내 조국 위해 쓰리라.’

## 5.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UN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對北)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 북한 수·출입 화물의 전수 조사 △ 광물거래 차단 △ 무기거래 금지 △ 금융거래 차단 △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한 12개 단체 및 개인 16명 추가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미사일 발사 이후 25일 만에 이뤄졌다.’

한국 대통령은 2018년 3월 16일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사적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판단이다. 이제 일괄타결을 통해 남북이 통일의 구체적 전도를 열고, 북미가 관계정상화에 합의한다면 비핵화 문제도 자연스레 풀려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듯이 “북한과 남한을 위해, 또 세계를 위해, 이 나라(미국)를 위해서도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형식은 호주영자신문을 보면서 자꾸만 약해져가는 몸과 맘을 다져봅니다.

‘내가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내 고향 순천을 위해 돈을 쓰지! 이젠 내 나이가 여든 일곱인데,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나 딸이 금강산에 묻어둔 금덩이와 내

가 책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내가 원하던 대로 돈을 쓸까? 언제? 사우스코리아, 노오스코리아는 싸우지 않고 살아가나? 이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니.....’

형식은 인도양을 날아 한국 쪽으로 향하는 여객기를 바라보며 자꾸만 영키는 심사를 달래면서도 이번만은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 같다는 확신을 굳히고 있었다.



# 입선

경기도 봉담초등학교  
한 경 애



## 수상소감

졸작이지만 입선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춘기 딸을 지켜보느라 심신이 지쳐있었는데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힘내세요!

## 곰팡이 유희

이른 봄.

여자는 아파트 베란다 벽에 핀 곰팡이를 지우기 위해 연신 솔을 문질렀다. 베란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독한 곰팡이 제거제 냄새에 가볍게 묻혀 버렸다. 거뭇거뭇한 곰팡이는 벽 귀퉁이 모서리 부분에서 시작되어 아래로 기세등등하게 전진하고 있었다.

세탁실로 사용하는 뒤 베란다는 늘 습기가 차고 눅눅한데다 햇볕마저 취약해 곰팡이가 서식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시커먼 곰팡이는 여자의 게으름과 무력함을 증명이나 하듯 벽의 전면을 서서히 에워싸더니 급기야 붙박이장 안까지 점령해 버렸다.

여자는 그런 일에 당최 관심이 없었다. 사물의 변화에 둔감하여 무엇이 찍어 나가건 낡아 못쓰게 되건 무감각하였다. 사물뿐만 아니라 사계절의 변화에도 무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곰팡이는 여자의 생각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모든 일이 그렇듯 곰팡이와의 동거에서 탈출하는 것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다.

독한 살균제 때문인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여자는 고개를 젓히고 열려진 창문 사이로 짧게 하늘을 응시했다. 새파란 하늘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창문 너머 노란 산수유나무가 보인다. 아직은 차가운 봄 바람이 창문 사이로 살며시 불어온다.

지난 가을, 여자는 형편에 맞추느라 건축한지 20년이 넘는 17평짜리 1층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1층에 살게 된 뒤 여자는 언제나 창문을 버티컬블라인드로 가렸다. 음식물 쓰레기도 한 밤중에 몰래 버렸다. 그녀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

는 듯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와 함께 살 던 집에서는 이런 현란한 곰팡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집 안에서는 언제나 역한 냄새가 났다. 냄새가 정말로 난 것인지 여자가 그렇게 느꼈는지는 알 수 없다.

여자는 그 역한 냄새를 맡으며 집안에서 무언가가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쩐지 더럽고 불결해서 제거하고 싶은 것, 같이 있으면 기관지가 질식해 들어오는 것 같은 숨 막힘이 흡사 곰팡이처럼 여겨졌다.

여자는 곰팡이 세계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그것만이 여자의 잘못된 인생행로를 다시 제 궤도로 돌려줄 방법이라고 믿었다. 탈출은 여자가 간절히 원하던 그 시점이 아닌 평화로운 어느 날 느닷없이 이루어졌다.

“여보세요? 거기 김도영 씨 닻이죠?”

여자는 낯선 이의 거친 음성에서 살짝 두려움이 느껴졌다.

“네, 누구시죠?”

“여기 남부경찰서입니다. 김도영 씨 부인 맞으시죠?”

“네”

“김도영 씨가 k동에 있는 여관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오셔서 시신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네?”

순식간에 여자의 머릿속은 암전이 되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그저 우두망찰하고 서 있을 뿐이었다. 수화기를 내려 놓으면서 어젯밤에 남편이 보내온 두 개의 문자를 떠올렸다. 첫 번째 문자는 밤 11시 무렵 보내왔다.

‘나 늦어, 먼저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자정이 넘어서였다.

‘나 못 들어가. 어머니를 부탁해.’

항상 늦을 때마다 문자를 보내왔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어제는 다른 날과 달리 남편이 두 번이나 문자를 보내왔다. 그리고 보니 ‘부탁해’라는 대목이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불편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여자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되었지만 같은 침대를 사용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다. 남편이 어쩌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은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한 것은 곰팡이 때문이었다. 아직은 신혼이라 침대에서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였다. 몸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남편을 받아들여야 할 때 여자의 시선이 멈춘 곳은 방문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문틈이었다. 그 사이로 검은 형체가 어른거렸다. 여자는 깜짝 놀라 상체를 일으켰고 얼른 옷을 주워 입었다. 영문도 모르는 채 당황한 남편도 급하게 옷을 찾아 입었다.

잠시 후 건넌방 문이 살짝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보는 것 같아”

“뭐?”

“어머니가.....”

여자는 쉽사리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어머니가..... 문틈으로 방 안쪽을 보시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며 버럭 화를 냈다. 남편은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틈새로 사물이 보이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분명히 문은 닫혀 있었고 틈새는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여자는 곰팡이처럼 얼룩진 형태의 그림자를 보았다. 남편은 여자의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다. 여자가 계속해서 곰팡이가 보인다고 말해도 남편

은 듣지 않았다.

여자의 말은 공중에서 흩어졌다.

남편은 여자의 불안함이 커져 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 날 이후 여자는 남편과 섹스를 할 때면 자꾸만 문틈에 어른거리는 형체에 시선이 꽂히곤 했다. 누군가 침대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여자는 온 몸이 뻗뻗하게 굳어 버리기 일쑤였다.

곰팡이는 여자의 몸과 마음을 모두 얼룩지게 했다.

### ‘미안하다’

남편이 남긴 짙막한 유서였다.

남자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기어이 자신의 죽음을 여자의 탓으로 돌렸다.

남편의 죽음이 자살로 결론 나자, 시신은 부검 없이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었고 장례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빈소는 가장 구석진 곳에 마련되었고 영정사진 뒤로 국화장식이 조촐하게 꾸며졌다. 워낙 갑작스러운데다가 자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알릴 처지도 아니어서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여자는 영정사진을 쳐다보았다. 영정 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자도 같이 희미하게 웃어주었다.

그나마 있던 몇몇 조문객도 밤 12시가 넘자 모두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빈소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실신한 듯 누워 있었다.

여자는 잠시 바람을 쐬러 복도 끝에 마련된 휴게실로 갔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낡은 소파에 무너지듯 기대앉아 습관처럼 창문 너머 밤하늘을 보았다. 여자의 기분과 상관없이 밤하늘은 무심하게도 아름다웠다.

등 뒤에서 진한 아메리카노 향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후각은 아직 살아있는 지 고개가 저절로 돌아갔고 등 뒤로 커피를 들고 서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눈빛으로 조심스레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내밀었다.

“커피 좀 드릴까요?”

남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자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까 장례 일을 봐주던 장의사입니다.”

여자가 머뭇거리고 있자 남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장례 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위해 이것저것 친절하게 알려주던 사람이었다. 말투가 친근해서 그런지 아니면 선하게 보이는 이미지 때문인지 여자는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느껴졌다.

여자는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거의 밥을 먹지 못해서 따뜻한 음료가 간절하던 터였다. 그는 남편의 죽음 이후 유일하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대개 여자를 보면 조심스레 피하기 일쑤였다.

“이런 일 하는 거 무섭지 않아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여자가 힘없이 처음 내뱉은 말이었다.

“매일 죽은 사람을 보는 일이...”

여자는 말끝을 흐렸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 나왔다. 다시 주워 담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여자는 누군가와 말을 하고 싶었나 보다.

“네, 직업이니깐요.”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많이 보겠네요.....”

남자는 여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잡자코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자살한 사람들이요”

여자는 허공을 보며 말했다.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남은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하죠”

남자의 말에 여자는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한번 울음이 터지자 그 칠 줄을 몰랐다. 남자는 이럴 때 누군가 조용히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여자가 한참을 울고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사랑했나 봐요, 많이”

“.....”

여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눈물의 의미를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문득 문득 삶이 싫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여자는 작정한 듯 말했다.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편히 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네,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근데 막상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죽음을 말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지도 몰라요.”

“그렇죠... 막상 죽음 앞에 서면 두렵기도 하고... 또 죽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남자는 조심스러운 듯 천천히 말했다.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은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내는데..... 제가...”

여자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다시 울먹였다. 남자는 여자가 어렵게 꺼낸

말을 자신의 선부른 위로 때문에 멈추기라도 할까봐 미동도 없이 조용히 숨만 들이 쉬었다.

“남편에게 어젯밤 문자가 왔어요. 그게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무심히 흘렸어요. 그 때 알아차렸다면 안 죽었을 지도 모르는데.....”

장 의사는 말없이 여자의 말을 들어줄 뿐이었다. 상처 받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말도 소용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이 죽은 다음 날, 여자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조문하러 온 남편 회사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사촌동생이 듣고 여자에게 알려준 것이다. 사촌동생이 전해준 내용은 대략 이랬다.

남편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유일한 여직원인 S와 만나고 있었다. 남편은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몰래 사라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불쾌해진 얼굴로 S의 집 앞까지 꽃을 들고 찾아가서 S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S는 결혼을 해서 여섯 살짜리 딸이 있는 유부녀였다. 두 남녀가 호텔로 나란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회사 직원의 목격담이 나오면서 소문은 삼시간에 번져나갔다. 직원들은 부인한테 이 사실을 슬며시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며 그들 부부를 걱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인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소문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풍문에 불과하던 때였다. 회사 주차장에서 한 밤 중에 그 두 남녀가 다정하게 함께 있는 모습을 S의 남편에게 들키고 만 것이다. 사태의 두려움을 느낀 S는 남편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고, 여자에게 버림을 받은 남편은 절망한 나머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며칠 동안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보가 날아든 것이다.

남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은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에게 가정은 편안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어느 집에서나 그렇듯이 고만고만한 고부간의 갈등은 있기 마련이었지만, 여자는 언제나 예민하게 날을 세웠다. 처음에 남편은 여자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다. 하지만, 도무지 두 여자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여자와 시어머니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말을 섞지 않았다. 식사는 따로 했고, 남처럼 깍듯이 예의를 차렸다.

깔끔하고 부지런한 시어머니에게 여자는 한참 부족한 며느리였다. 시어머니의 질투와 잔소리도 여자의 신경을 건드리는 데 한 몫 했다. 그래서 여자를 이해해보려고 애를 썼다.

한동안은 그래도 외양은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적어도 시어머니가 문틈으로 방안을 들여다본다는 망상을 보이기 전까지는.

‘이상한 냄새가 나’

여자는 집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남편에게는 없는 냄새였다.

‘집에 곰팡이가 있는 것 같아’

여자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곰팡이는 없었다. 여자의 언어는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었다.

어느 날 부터 여자는 집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며 독한 락스를 집안 곳곳에 연실 부어댔다. 아무리 말려도 속수무책이었다.

여자에게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자, 열차가 플랫폼을 빠져나가듯이 남편의 마음은 여자에게서 차츰 멀어져갔다.

여자는 직장에서도 곰팡이를 보기 시작했다.

여자는 대화를 할 때 상대를 쳐다보지 않고 짧으면서 건성으로 대답하여 상대

방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다. 여자의 날카로운 눈매와 노랑계 물들인 세련된 머리칼과는 어울리지 않게 소매는 꼬질꼬질했다. 여자는 잿빛 옷옷을 즐겨 입었으며 청바지는 평퍼짐하고 무릎이 항상 나와 있어 허름해 보였다. 여자의 차림새처럼 걸음걸이도 우아함과 거리가 멀었다. 일하러 나가는 촌부의 팔자걸음과 유사하였다.

여자의 일처리는 정확한 듯 보였으나, 허점이 많았다. 관습적으로 하던 일은 능숙하게 처리했으나 새로운 일을 익히는 데는 더디었다. 남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면 항상 소량의 음식만 섭취했지만 그녀는 비만은 아니었으나 과체중이었다.

여자가 회사에서 곰팡이를 보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었다.

여자가 일하는 사무실은 1층에 별이 잘 드는 남향이였다. 여자는 점심을 먹고 혼자 커피를 마시며 잠시 완연한 5월의 봄을 만끽하고 있었다. 따뜻한 대지의 공기와 이제 막 피어난 붉은 장미가 나른함을 안겨주는 완벽하게 평화로운 오후였다.

특.

검은 물방울이 여자의 팔뚝에 튕겨왔다. 물이 튕만한 장소가 아닌지라 착각이 러니 생각했다. 여자가 다시 책상 앞에 놓인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순간, 또 다시 검은 물이 툭, 툭 튀었다. 이번에는 여자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뭉치에까지 얼룩이 튀었다.

여자는 열려진 창문 사이로 검은 물이 튀어 들어왔을 거라 짐작하고 밖으로 나가 보았다. 여자가 일하는 책상은 창가에 위치해 있었고 바깥에는 화단이 있었다. 꽃들이 만발한 화단에 더러운 물을 마구 버렸다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 치밀었다. 여자는 외벽 표면에서 검게 흘러내린 얼룩을 발견했다. 얼룩은 2층에서부터 시작됐다.

여자는 누구의 짓인지 알 것 같았다. 여자는 잦 걸음으로 2층 사무실까지 성큼 성큼 단숨에 올라갔다.

‘누가 더러운 물을 창밖으로 마구 버리는 겁니까?’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며 분노에 차서 문을 벌컥 열었다.

텅.

텅 빈 사무실이 여자의 눈에 들어왔다. 아무도 없었다. 시선을 이리저리 옮겨 보았으나 사무실은 고요할 뿐이었다. 아직 점심을 먹으러 가서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나간 것인지, 여자가 올라오는 낚시를 알아차리고 어디로 숨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여자는 사실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과장이다. 김과장은 평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다. 아무데서나 쓰레기를 버리고 침을 뱉었다. 여자는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하면 단단히 망신을 주겠노라 베풀고 있었다. 지난 번 일도 한 몫 했다. 김과장은 여자의 작은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여기저기 떠벌렸다. 덕분에 여자는 회사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김과장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항상 남의 흉을 보았다. 사람들은 김과장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번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삼시간에 역으로 소문이 날 터였다.

여자는 3층, 4층으로 두 계단씩 층계참을 뛰어 올라갔다. 하지만 문은 모두 굳게 잠겨 있었다. 다시 1층까지 숨 가쁘게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가서 물이 흐른 자국을 쳐다보았다. 검은 물이 흐른 곳을 수직으로 면밀하게 관찰했다. 바로 위 2층에는 창문이 닫혀 있었다. 3층, 4층은 남쪽 방향으로는 아예 창문조차 없었다.

어찌된 일일까. 김과장이 물을 붓고 숨은 걸까. 그렇다면 어디로 숨었을까. 사무실 안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다. 여자는 혼란스러웠다.

불현 듯 남자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장실은 사람이 없을 때는 환기를 위해서 대개는 문을 열어두었다.

잠시 후 역한 냄새가 풍겨왔다. 곰팡이 냄새였다.

직장에서마저 곰팡이 냄새가 나자 여자는 절망하였다. 그때 떠오른 것이 성당이었다. 어린 시절 느끼던 평온함과 안식을 찾고 싶었다.

여자는 k동 성당의 성모상 앞에 섰다.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은밀한 말들이 하고 싶을 때면 종종 들러서 고해를 했었다. 고해성사는 신부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성모상은 자비로운 엄마처럼 인간의 결점까지 모두 덮어주고 용서해줄 것만 같았다. 허기진 배를 채우듯 영혼의 상실감을 종교로 채우고 싶었다.

여자는 문득 수도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생활을 할 터이니 곰팡이와는 무관할 것 같았다. 여자는 자신이 떠올린 아이디어가 매우 흡족했다.

그 때 2층에서 성가가 들려왔다. 마침, 미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여자는 문을 열고 미사가 열리는 2층 본당 안으로 들어섰다.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신부님은 마지막 음을 길게 내뿐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다소 작은 체구의 다부진 모습이었다.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신도들이 답했다.

여자는 맨 뒤 구석에 적당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리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에 집중했다. 성가가 울려 퍼지고 신도들이 엄숙하게 전례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경건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었다.

드디어 안식을 찾은 듯하였다. 여자는 세상의 모든 것에 관대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처음으로 종교의 위대함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바람을 핀 남편, 질투 어린 시어머니,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이기적인 직장동료와 상사 등 그 모든 이웃과 생명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성당에서만큼은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았다.

마음이 열리자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보였다. 사람들은 제각기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올렸다. 성당 안을 휘 둘러보다 여자의 시선이 멈췄다. 맨 뒷줄 가운데 긴 의자에 모로 누워 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술에 취하여 잠을 잘 곳을 찾아 온 듯했다. 차림새가 남루하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다.

여자는 다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좀 전과 같은 성스러운 기운은 가시고 없었다. 자꾸 노인이 신경 쓰였다.

꾸꾸 앓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필경 그 노인일 것이다. 신음소리는 제법 커서 미사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 여자뿐만 아니라 신부님도 그 노인을 본 듯했다. 노인의 신음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신도들이 하나 둘 뒤를 흘끔거리기 시작했다. 여자는 노인을 방치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 때 사무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노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여자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미사가 제대로 거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뒤를 흘끔 거리고 있었다.

신부님은 드디어 단호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사에 집중하세요.”

신부님은 미간을 찌푸렸다.

여자는 그 노인이 한심해보였다. 술을 먹었으면 집에 가서 자거나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야지 하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성당으로 와서 민폐를 끼치는 걸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여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 여자는 계속해서 기도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아까와 같은 충만함은 찾을 수 없었다.

잠시 후 본당 문이 벌컥 열렸다. 신도들의 시선은 일제히 문 쪽을 향했다. 문을 연 사람들은 들것을 들고 온 119구급대원들이었다. 그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큰소리로 외쳤다.

“여기 쓰러진 분이 어디 계세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인이 커다란 신음소리를 냈다. 신음소리를 들은 대원들은 들것을 들고 노인에게 향했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조용한 성전에 찌렁찌렁 울렸다. 신도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자, 자 앞을 보세요.”

신부님은 살짝 연성을 높였다. 미사는 재개되었다. 신도들은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신도들은 전례를 이어나갔다.

“어디가 아프세요?”

구급대원은 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일을 하였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신도들 역시 제 할 일을 하였다.

노인은 계속 신음했고, 구급대원은 계속 소리쳤고, 신부님과 신도들은 계속해서 하느님을 찾았다.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신도들은 경건하게 외쳤다.

“여기요? 여기가 아프다고요?”

구급대원은 노인의 가슴 주변을 짚으며 다시 소리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신부님이 선창한다.

“숨 쉬는 건 어때요?”

구급대원이 소리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신도들이 큰소리로 답한다.

노인은 들것에 실린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성당 문이 열리고 노인을 실은 들것은 요란하게 나간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신부님이 선창한다.

“또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신도들이 답한다.

미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웅성 웅성대며 성당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여자의 눈에 신부님과 사무장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 짐작했다. 여자는 들것에 실려 간 노인이 걱정되어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바깥 다가갔다.

“본당 출입문이 아직도 삐걱거리던데요”

신부님이 말했다.

“공사 업체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장은 신부님 앞에서 절절매고 있었다.

“아직도 수리를 안 한 겁니까?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미사에 방해가 되잖아요.”

여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본당을 빠져나왔다. 신부님은 노인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여자는 다시 성모상 앞으로 갔다. 성모마리아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느님은 신부님과 구급대원 중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 여자는 궁금했다.

후두둑. 후두둑.

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점점 거세어져 신고 있던 스타킹에 흙탕물이 튀어 축축히 젖어 왔다. 빗줄기를 피해 차양이 있는 수돗가로 갔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여자는 치마를 살짝 들고 밴드스타킹을 벗어 가방 안에 넣었다.

여자의 새하얀 다리가 드러났다. 여자는 수돗물을 양 손바닥에 고이 받아서 발등을 씻었다. 그리고 치마를 좀 더 걷어 올리고 종아리에 물을 문혀 씻었다.

여자는 무심히 고개를 들었다. 어떤 사내와 시선이 마주쳤는데 그는 짹짹고 고개를 돌리고 성당 안으로 사라졌다. 여자는 흠칫 놀라 얼른 치마를 내렸다. 여자가 본 사내는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다. 검정색 옷이 사제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헉.

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여자는 미친 듯이 성당을 빠져나와 달렸다.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었고 왜 달려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냥 달렸다.

심장이 계속해서 뛰었다. 자신의 다리를 훑어본 신부님 때문인지 아니면 곰팡이가 없는 완전무결한 곳이라고 믿었던 성당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여자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두려움부터 앞섰다. 성당에서도 역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여자의 집으로 오는 전화는 잘못 걸린 전화나 보험회사 홍보 안내원들이 전부였다. 여자는 전화벨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벽에 달라붙은 곰팡이를 향해 술을 문질러댔다.

전화벨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집요하게 울렸다. 고무장갑을 벗어 빨래 통에 걸쳐두고 전화기에 뜬 액정화면으로 발신번호를 확인했다. 역시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여자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자는 귀찮다는 듯이 투명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아,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여자는 당황스러웠다. 전혀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여자는 생기 있는 목소리로 반갑게 말하는 남성의 목소리에 살짝 달뜬 기분이 들었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자신이 낯설다.

“장례식장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던 장의사입니다. 기억하시죠?”

“아! 네, 네, 기억합니다.”

순간, 짧은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 전혀 예상치 않은 인물의 등장에 여자는 놀랐다.

“지난 번 장례식 마치고 곰팡이 얘기하신 거 기억나죠?”

“.....”

“제가 곰팡이와 관련된 책을 우연히 얻게 됐는데 수연 씨 생각이 나서요, 책을 전해주고 싶은데... 아주 재밌습니다.”

“아, 예.....”

여자는 난감했다. 남편의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 준 남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인사차 사무실에 들렀을 때였다.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해서 잠

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무심코 지나가는 말로 여자는 결혼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미로 지긋지긋한 곰팡이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곰팡이를 퇴치하고 싶다는 뜻으로 여긴 모양이다.

그 집에서는 곰팡이의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은 곰팡이 소굴이나 다름없었다. 여자는 그 책이 조금 필요할 것도 같았다.

“그 책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여자는 장의사와 시내 커피숍에서 만났다.

장례식장에서는 경황이 없어서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제법 곱상하게 생긴 것에 새삼 놀랐다. 시신을 만지는 사람이라 죽음의 냄새가 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의 눈에는 남자가 건강하고 맑아 보였다.

처음에는 약간 서먹한 분위기였지만 곧 말이 이어졌다.

“아직도 그 장례식장에 근무하시나요?”

“예, 저는 이 일이 나쁘지 않아요.”

“.....”

“사람들이 장의사라고 하면 우울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이니까요. 죽음 또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

여자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차, 여기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곰팡이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더군요. 저는 곰팡이가 안 좋은 존재인줄 알았는데,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곰팡이도 있어요, 곰팡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일 잘하는 청소부라고

합니다. 하하하. 의외죠?”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곰팡이는 죽은 동식물을 분해하는 일을 하는데, 그 부분이 시체를 만지는 제 직업 때문인지 많이 와 닿았어요. 알고 보니 곰팡이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곰팡이는 호극성 미생물이어서 그 어디에서도 살아남는 존재라고 합니다. 질긴 생명력이죠.”

“그렇군요.”

여자는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시큰둥하게 말했다.

“이런, 제 이야기만 떠들었네요, 수연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남자는 여자의 근황을 물어왔다.

여자는 장례식을 치르고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차라리 잘 되었는데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자는 흥분해졌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걸까.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것인지 여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남편의 명의로 된 자동차와 재산은 모두 시어머니에게 상속하고 집을 나왔다.

여자는 다시 출근을 했고, 시간은 평온함을 가장한 푸른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이제 그 집에 있는 역겨운 곰팡이와는 결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이 여자문제로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회사 내에서 여자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 돼 있었다. 여자한테 문제가 있으니 남편이 집밖으로 돌 수밖에 없다, 여자의 성격이 까칠해서 남자가 견디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말들이 돌았다.

소문은 여자의 귀에도 들려왔다. 일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부터 사소한 소모품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눈짓 하나까지 모두 여자에게는

낮설게만 느껴졌다. 여자는 사무실에서 혼자 부유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곰팡이 냄새는 남편과 살던 집에서 나던 것보다 더 심하게 나기 시작했다. 여자는 곰팡이와의 질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곰팡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죠?”

의사는 여자를 힐끔 보더니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

“며칠 전부터 허벅지가 근질거려서 긁었는데 붉은 고리 같은 것이 점점 번져서요, 가려워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여자의 허벅지를 들여다보고는 별 일 아니라는 듯 내뱉었다.

“체부백선입니다. 일종의 곰팡이 피부병이죠.”

“네?”

여자는 곰팡이라는 말에 흠칫했다.

“네, 피부사상균에 의해 감염된 것입니다. 4주 정도 주사와 약물치료를 하면.....”

“곰팡이요?”

여자는 다시 한 번 물었다.

“네...”

“하아...”

여자는 한숨이 나왔다.

“하하하”

여자는 헛웃음이 나왔다.

의사와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듯이 여자를 쳐다보았다.

‘내가 곰팡이였다니, 하 하’

여자는 자신의 몸에 곰팡이가 피어나는 환영이 보였다.

곰팡이 냄새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나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다.

차라리 잘된 일이다. 어차피 곰팡이 균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똑같이 곰팡이 균에 감염되어야만 편히 살아갈 수 있을 터.

여자는 곰팡이가 된 자신을 스스로 위무했다.

여자는 병원을 나와서 낮 동안 거리를 활보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지 않았다. 곰팡이 냄새를 의식하지 않자 거리의 사람들과 마주침이 자연스러웠다. 미풍이 기분 좋게 불어왔다.

여자의 몸에서 푸른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맡지 못했다. 유독 타인의 냄새에만 민감하게 굴었다.

젊은 장의사는 곰팡이가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했다. 여자는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곰팡이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다만, 자신이 해로운 곰팡이인지 이로운 곰팡이인지는 스스로 알 수 없었다. 그것은 타인의 몫이었다.

여자를 불안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말' 이었다. 타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흩어져버린 무수한 말들이었다. 소통을 위한 매개체가 오히려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었다.

언어가 흩어졌다가 다시 머무는 중간 지대.

바로 그 곳에서 곰팡이는 서식하고 있었다.

여자는 언어의 사이 속에 난무하는 곰팡이 유희를 즐기고 싶어졌다.

# 입선



광주지방경찰청  
오현석



## 수상소감

고 3학년 야자 시간에 교실에서 반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다가 담임에게 걸려 호되게 맞았습니다. 담임은 집에 가서 반성문을 작성 해오라고 했습니다. 새벽까지 썼는데 세 줄이 넘어가지 않아 그대로 제출하자 담임은 반성의 자세가 안 되었다며 가득 채워오라고 하여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막걸리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를 반복하여 공백을 채워 제출하였더니 담임은 장난 하나면서 재 폭격을 가했어. 엉덩이와 허벅지의 감각이 무뎠어 갈 때 담임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선생님. 마른 수건 짜봐야 물 안 나옵니다.' 그랬던 제가 35년이 지나 쓴 긴 글이 심사위원분들에게 뽐혀 입선까지 하였으니 우쭐해지기까지 합니다.

플룻도 모르는 무지한 저를 가르쳐주신 생오지 문예창작촌의 심영의 교수님, 함께 공부했던 문우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연속씨, 미안합니다. 소설에 빠져 혼자 자서만 보내는 남편이 내키지 않으면서도 싫은 말을 참은 지혜,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 그가 왜



서쪽으로 기운 햇빛이 반지하 방의 유리창으로 스며들었다. 영화관의 영사기 창에서 나온 불빛이 하얀 스크린을 비추듯 했다. 라면상자 크기의 색 유리창을 투과한 석양은 검푸른 색깔로 변색되어 벽면 상당을 비추었다. 벽에서 반사된 빛은 어둠침침했던 방 내부를 희미하게 드러냈다. 습기를 머금어 너털너털 떨어진 벽지 사이로 진회색의 시멘트벽이 드러났다. 방바닥에는 라면 봉지와 소주병이 널려 있었다. 바닥에 펼쳐진 녹녹한 이불 위에는 앙상하게 야윈 도진이 누워 있었다.

으으으, 으흐흐흐, 도진은 갑자기 허공에 양손을 내저으면서 괴성을 내고는 별떡 일어났다. 도진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터부룩한 머리털이 눈 밑까지 가려져 있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마른 얼굴에 툭 붙겨져 있는 광대뼈에 행하니 들어간 도진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졌다. 도진은 쓰옥 들어간 볼에 흐르는 땀을 팔로 쓰옥 닦고는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밀어 벽 쪽으로 다가갔다. 벽에 등을 기대고 가슴께로 두 무릎을 세워 그 사이로 얼굴을 파묻었다. 도진의 정수리는 군데군데 파헤쳐져 붉은 속살이 훔살스럽게 드러난 봉분처럼 듬성듬성했다. 도진이 머리카락을 손으로 쥐어 잡자 한 움큼이 빠졌다. 힘없이 빠진 머리카락을 지긋하게 응시하던 눈은 별장계 물들어 갔다.

도진은 머리를 들어 벽에 쿵쿵 소리가 나도록 짝어댔다.

도진은 가출한 지 몇 개월이 지나서부터 잠만 자면 악몽을 꿔다. 엄마와 동생이 머리를 풀어헤친 강사가 되어 나타나거나 상수가 의수를 낀 손으로 도진의 목을 졸랐다. 처음에는 꿈에서 깨어나면 불을 켜고 방 안을 살폈다. 지금은 꿈인 것을 알고 방 안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쓰스, 쓰스스, 바퀴벌레들의 부산한 움직임 소리가 들렸다. 도진은 불을 켜다. 밝은 빛에 눈이 부신 놈들은 우왕좌왕했다. 도진은 그 중 갈색으로 광택이 나는 튼실한 놈을 잡았다. 딱딱한 등껍질을 잡힌 놈은 수 개의 발을 허우적거렸다. 도진은 놈을 소주병에 넣어 원을 그리듯이 세차게 돌렸다. 놈이 어지럼증에 마취가 되어 움직임이 둔해지자 라이터 불로 유리를 달구었다. 뜨거움에 발광하다 죽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던 도진은 기이한 미소를 흘리며 베개 밑에 놓아둔 호신용 칼을 들었다.

“죽어라, 다 죽어.”

도진은 벌레를 향하여 칼을 찔러댔다. 표적에서 빛나간 칼은 벽지에 상처만 입혔다. 그런데도 계속 찔렀다. 칼을 내지를 때마다 욕을 했다. 도진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바퀴벌레를 찌르거나 으깨었다. 잠시 후 축 늘어져 있는 메리아스의 목 부위를 잡아 세차게 찢었다. 양상하게 드러난 배를 갈라 창자라도 전부 꼬집어낼 듯 칼끝을 배꼽에 댔다. 섬뜩함에 온몸을 부르르 떨고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껍껍거렸다.

고 2학년 등교 첫날, 담임선생은 교무실로 도진을 불렀다.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전투기 조종사가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담임은 장교가 되어 부대원들을 이끌려면 통솔력이 필요하다며 반장 맡기를 권유했다. 도진은 반우들 앞에 나서는 것이 싫어 완강하게 거부했다. 담임은 끈질기게 권유했다. 마지못해 반장을 맡았지만, 열심히 해서 반우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런데 상수가

자주 시비를 걸었다.

상수와는 어려서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중학교까지 같은 학교에 다녔다. 그런데 고등학교도 동일 학교에 배정된 것이다. 상수와는 중 1학년까지는 탈 없이 지냈다. 상수는 2학년부터 일진회에 가입한 아이들과 어울렸고, 학원 가야 할 시간에 피시방으로 향했다. 상수의 엄마가 상수에 관하여 문자 사실대로 말을 해주었다. 그런 후부터 상수는 도진만 보면 독 오른 개새끼처럼 시비를 걸었다.

“헤이, 마보!”

늦은 시간 집 앞 학교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도진을 본 상수는 빈정대며 불렀다. 상수는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던졌다. 손가락 세 개를 이용하여 라이터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도진에게 다가왔다. 도진은 학교에서 수시로 받은 금연 교육이 떠올랐다. 학생들은 수없이 금연교육을 받고 있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가게 업주는 큰 처벌을 받는데도 중학생의 담배 인구는 늘어나기만 했다. 도진에게 다가온 상수는 물건의 하지를 찾아내는 검사원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는 도진의 몸을 훑어 내렸다.

“야, 쪼다 새끼야. 너 어무이한테 자식 자랑 좀 그만 치라고 해라, 너 어무이 때문에 이 형아가 아조아조 힘들다.”

도진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상수는 도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빨 사리로 침을 찌익 쓰고는 뒤통수를 툭툭 쳤다.

“잘해라, 마보.”

상수는 도진을 애완견 다루듯 했다. 도진은 왼 주먹을 슬그머니 폈다. 상수의 친구들과 그 선배들의 보복이 두렵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잔소리 작용이 컸다. 참아라, 당장은 진 것처럼 보이거나 나중에 보면 이긴 것이다. 공사에 가려면 전과가 없어야 하고, 생기부가 좋아야 한다. 아버지는 전원만 켜놓으면 말하는 앵무새 인형처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어려서부터 셀 수 없을 정도로 들은

아버지의 잔소리에 도진의 뇌는 '참아야 한다'라는 채널에 주파수가 고정되어 버렸는지 모른다. 인내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어려움 없이 참아냈다. 그런 상수가 2학년이 되자 같은 반에 편성된 것이다.

그날도 상수와 실랑이할 의도는 없었다. 2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에 도진은 반우들에게 다가올 스승의 날, 담임에게 꽃과 작은 선물을 드리자고 제안했다. 상수는 즉각 발톱을 세웠다.

“하고 싶으면 니 돈으로 하던지, 아니면 담탱이에게 귀여움받는 놈들끼리 해라.”

상수는 눈에 힘을 넣어 반우들을 훑어보면서 이죽거렸다. 도진은 상수의 기를 누르고 싶었다.

“여러분도 스승은 부모와 같다는 두사부일체 영화를 봤을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깡패도 스승에게는 예의를 포함합니다. 스승의 날에 부모님과 같은 선생님에게…….”

도진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상수는 불쑥 끼어들었다.

“그러면 담탱이도 성폭력범이냐?”

순간 교실 안은 영화의 화면이 정지된 듯 반우들의 얼굴은 마네킹처럼 굳어졌다. 상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도진은 다양한 표정으로 굳어진 반우들의 낫빛을 읽었다. 가지각색이었다. 근육이 일그러지면서 곤혹스러워하는 친구, 도진의 다음 행동을 궁금해하는 표정, 나오려는 비웃음을 힘들게 삼키면서 지어지는 어설플 하회탈 같은 얼굴이었다. 도진은 반우들의 표정에서 자신이 안 좋은 일과 연루되었다는 정도만 추측될 뿐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도진은 상수의 말을 되뇌어 보면서 의미를 찾아내려 했지만 도통 감이 오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수에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상수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입을 들쩍할 때였다.

“입 닥쳐!”

상수의 옆줄에 앉아 있던 부반장 진수가 소리를 질렀다. 진수는 상수에게 번개처럼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방어할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맞은 상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싼 채 책상에 엎어졌다. 진수는 곡괭이로 땅을 내려찍듯 발을 들어 올려 발뒤꿈치로 상수의 등을 내리찍었다. 반우들이 말렸고, 상수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만 토해냈다. 상수의 머리를 발로 밟은 진수는 단호하게 말을 했다.

“깜치지 말고 앞으로 입 다물고 살아, 바퀴벌레 같은 새끼야.”

평소 화를 낸 적이 없던 진수가 돌변하여 폭력을 행사했다. 도진은 혼란만 가중될 뿐 생각은 진척되지 않았다.

도진은 점심시간에 성기를 불러냈다. 성기는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친구였다.

“상수의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있지?”

난처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던 성기를 도진이 다그치자 더듬거리며 말을 했다.

“너 아버지가 사고 쳤나 봐.”

“사고?”

답변을 주저하고 있는 성기를 몰아쳤다. 성기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상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라고 했다. 휴대전화가 없는 도진은 전화를 빌려 접속했다. 머릿속은 하얗게 정지됐지만, 가슴은 쿵쾅거렸다. 아버지가 여자아이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성폭력범이라고 적시되어 있었다.

상수는 강당 뒤편 그늘진 곳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페이스북에 올린 것 머냐?”

상수는 가느다랗게 뜬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회색의 담배 연기만 뿜어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수의 멍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할 때였다.

“빙신 새끼, 너 부친 성폭력범이라고 우리 집에 통지서가 날라 왔더라. 너 아버지 조심하라고 신상정보 검색해서 올려놓은 것인데, 못 믿겠으면 확인해보든지.”

진수에게 맞은 얼굴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면서 말했다.

“개새끼야.”

도진은 상수에게 주먹을 날렸다. 주먹은 휘휘 거리며 허공만 가를 뿐 꽃치지 않았다. 상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도진의 배를 걷어찼다. 도진은 땅바닥에 넘어졌다.

“성폭력범의 새끼가 깡죽대기는.”

도진은 땅바닥에 굴땀이처럼 웅크렸다. 아버지가 여자아이를 추행하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정신병자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아버지가 했을 리가 없다. 아버지는 얼마 전까지 집에 왔었고, 통화했었다. 그런데 상수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통지서와 신상공개정보에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과 사진이 있을까? 며칠 전부터 집에는 무거운 공기가 몸을 짓눌렀다. 식당에서 늦게야 퇴근해 집에 오던 엄마가 일을 나가지 않았다. 방 불도 켜지 않는 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도진을 보면 애써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다.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오던 아버지가 오지 않았고, 늦은 저녁에 안부를 묻던 전화도 없었다. 아침에 승강기에서 만난 윗집 아주머니도 서먹하게 도진의 인사를 받고는 구석으로 가더니 슬금슬금 도진을 쳐다봤다. 모두 알고 있는 것을 도진만 몰랐다. 여동생은 알고 있을까? 아버지! 어찌자고요.

지나가는 차의 경적에 깜짝 놀란 도진은 주위를 살폈다. 동생과 함께 자주 다니던 마을 도서관 앞이었다. 학교를 나온 도진은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무작정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오랜 시간을 걸어 기껏 도착한 곳이 도서관이라니, 도진은 자신의 몸뚱이가 철로 외에는 갈 수 없는 기차와 같다는 생각이 들자 화

가 치밀었다. 가로수 밑동을 찾다. 더 세계, 더 세계 찾다. 발바다에서 온몸으로 전달되는 알알한 통증이 짜릿짜릿했다.

도진은 도서관 뒤편 으스스한 곳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해는 산으로 몸을 가린 채 등성이 쪽으로 검붉은 빛만 약하게 쏟아냈다.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다. 벤치에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봤다. 구름은 매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일사불란하게 반복했다. 초등학교 때 성폭력범인 아버지 그 사람과도 달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밤하늘을 자주 봤을 때가 떠올랐다. 도진은 한숨을 쉬고는 외로 누웠다.

무언가가 도진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 달빛을 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떴다. 머리맡에 시키면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한 도진은 소스라치듯 일어났다. 도진의 가슴에는 점퍼가 덮여 있었다. 물체는 등을 돌리고 앉아 산등성이에 쭈뼛이 내밀고 있는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묶은 머리에서 빠져나와 어깨까지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연한 바람에도 심하게 날렸다. 얇은 등은 숨을 쉴 때마다 크게 일렁거렸다. 엄마였다. 엄마는 일 년 중 가장 더울 때 한 번 미용실을 갔다. 단발로 자른 머리는 얼마 가지 못했고, 몇 개월이 지나면 항상 묶고 다녔다. 동쪽 하늘에 하현달이 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정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진이 동생과 도서관을 갈 때마다 엄마가 싸 온 도시락을 이곳에서 먹었다. 엄마가 이곳을 찾게 된 것은 짐작이 갔으나 언제부터 여기에 앉아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감기 들면 어찌려고 집에 와서 자지 않고…… 배는 안 고프냐?”

도진은 멀리서 깜박거리는 불빛만 바라볼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엄마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지 다시 말했다.

“답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그래도 도진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그녀는 나오는 한숨을 조심스럽게 뱉

어냈다. 둘은 지금 어떤 말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아무런 대화 없이 한 시간여를 앉아 있었다.

“집에 가자.”

도진이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자 그녀는 나오려는 한숨을 참아내기 위해 이빨을 앙다물면서 늘어진 얼굴 볼이 실룩거렸다.

“수진이도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고 있다. 너까지 이러면…….”

“언제 알았는데?”

도진은 부모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신상공개가 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미련함이 경멸스러웠다.

“며칠 전에 알았다. 어떤 아주머니들이 식당에 와서 자기들끼리 말하더라.”

“…….”

“네가 동생을 다독이면서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내가 왜? 그 사람이 망쳐놓은 것을…… 나는 못 해, 아니 안 해.”

엄마는 주위와 같은 어두운 안색으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도진은 엄마로부터 몇 발짝 뒤에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다. 늦은 시간임에도 길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다. 아파트 출입구에 이르렀을 때 젊은 남녀가 승강기 앞에 서 있었다. 도진이 머뭇거리다가 그곳을 지나치려고 하자 엄마는 도진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잘못 한 것 없다. 당당해라.”

당당! 성폭력범 아들이 당당! 당신이나 당당하게 사세요. 라는 말이 나오려고 했다. 도진은 엄마의 손을 뿌리쳤다.

“바로 들어갈게, 먼저 가세요.”

도진은 등교하기 위해 버스에 탔다. 버스가 학교에 가까워질수록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승차했다. 도진은 의자에 깊숙하게 몸을 움츠린 채 눈만 치

켜며 학생들을 살폈다. 학생들은 아는 체도 모르는 체도 아닌 어정쩡한 얼굴로 인사했다. 도진은 차에서 내렸다. 뒷골목으로 걸어갔다. 도진이 학교 후문에 도착했을 때는 불량하게 보이는 학생 몇 명만 어기적대며 들어가고 있었다. 자율학습 시간이 끝났는지 학생들은 운동장을 달려 다녔고, 어떤 교실에서는 ‘와아’ 하는 함성이 들렸다.

도진이 5일 동안 학교에 가지 않자 담임은 집을 방문했다. 반장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도진이 학교를 중퇴하겠다고 하자 엄마에게 차선책으로 전학을 권유했다. 상수는 학교에서 최고의 징계를 하겠다면서 다른 문제는 제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학은 실력이 좋은 학교로 보내줄 것이며, 무단 결석은 질병으로 처리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도진과 동생은 전학을 갔다. 집이 팔리기 전까지 학교 근처에 있는 방을 얻어 이사도 했다. 굵은 상처는 일단 봉합되어 건드림만 당하지 않는다면 터지지 않을 것 같았다.

도진이 전학 간 학교에 간 지 일주일 째 되던 날이었다. 도진이 교실로 들어가자 반우들은 모여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도진을 보고는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처럼 잼싸게 자기들 자리로 갔다. 개중에 몇 명은 도진을 슬쩍슬쩍 보면서 실실거렸다. 도진은 자살폭탄 테러가 생각났다. 폭탄을 품어 안고 터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폭탄이 터지면서 찢기어진 도진의 붉은 살점이 수류탄 파편처럼 날아가 반우들에게 박힌 광경을 상상했다.

교실을 나온 도진은 학교 뒷산으로 올라갔다. 봄별이 따라왔다. 도진은 앞서 귀가 별을 가려주는 그늘진 곳을 찾아 앉았다. 잠시 후 해는 성긴 앞서귀 사이로 도진을 찾아 비추었다. 도진은 조금씩 움직이면서 빛을 피해 보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지구상에 태양이 비추지 않는 곳이 어디 있다고…….

산에서 내려온 도진은 무진 시장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노점상들에 섞여 시

금치를 다듬고 있었다. 왜 이곳에 왔는지는 몰랐다. 그냥 할머니에게 죄송하고, 보고 싶었다. 할머니는 며칠 전 집에 왔었다. 보자기에 쓴 물건을 엄마에게 주고는 말했다.

“도진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비와 똑같은 문제로 하도 속을 보타지게 해서 용한 점쟁이한테 점을 안 봤더냐. 그 점쟁이가 말꼬리 고운 물을 먹이라고 하더라. 그질로 말꼬리를 구해다가 우려서 해 먹였더니 병이 낫들 안 혀냐. 내가 경험한 것인게 내 말 믿고 고와서 먹여봐라. 아비에게는 사골국이라고 하고, 부정탄게 다른 것은 섞지 말고 세 번은 먹여야 쓴다.”

기억으로 허리가 흰 할머니는 엄마에게 큰절이라도 올리는 것처럼 앉아 있어도 가슴이 방바닥에 닿을 정도였다. 눈을 아래로 향하고는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애꿎은 장판만 문질렀다.

“씨도독은 못 한다고 진즉에 해 먹었으면 이런 흉한 일은 없었을 것인데,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쓰까나. 으스스한 데에 핑 알 낳더라고 아비가 이럴 줄을 상상하드를 못했다. 참말로 내가 미력한 년이다.”

목소리는 축축한데도 눈물샘은 말랐는지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습관적으로 연신 눈자위를 닦았고, 엄마는 다소곳하게 앉아서 듣고만 있었다.

“아가, 어쨌거나 맘을 단단히 묵고 아기들을 키워야 쓴다. 내 새끼들이 공부도 잘하고, 팔자 펴 날이 얼마나 남았겠냐? 그때까지만 심이 들어도 참아야 쓴다.”

방바닥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킨 할머니는 문밖으로 나갔다.

“말꼬리를 많이 썼은게 혹시 모르니 아기도 같이 먹여라.”

할머니는 엄마에게 조용하게 속삭였지만 도진의 귀로 쨍쨍하게 파고들었다. ‘아기도 같이 먹여라’는 말이 지금도 도진의 귀에서 가시지 않고 파문이 일었다.

어렸을 때 그 사람과 함께 공원에 갔었다. 도진은 동생과 잠자리채를 들고

곤충을 잡으려고 공원을 돌다가 그 사람이 벤치에 앉아 여자아이를 보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진이 다가가자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정신없이 뛰어갔다. 도진은 그 사람이 간 쪽으로 따라갔다. 그 사람은 나무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이마에서 나온 피는 볼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데도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질러댔다. 그 사람은 본인도 성도착증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할머니의 말대로 나도 정신병자라는 말인가? 도진은 뇌 속에 기생충이 기어 다니고 있는 것 같아 어지럼증이 일었다. 내가 여자를, 그것도 어린아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상조차 해서도 안 된다.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도진은 할머니를 멀리서 바라보며 죄송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마음속으로 인사를 했다. 도진은 시장에 있는 그릇가게로 들어갔다. 접이식 칼을 한 자루 사서 주머니에 넣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던 석양빛이 사그라지자, 도진의 방은 어둠에 잠겼다. 한참을 헐떡거리며 날뛰었던 도진은 소진한 몸을 바닥에 부린 채로 시선을 창문에 두었다. 달빛에 비친 나무줄기의 그림자가 흔들거렸다. 도진의 방 창문 앞 화단에 나무가 심겨 있었다. 나뭇잎이 유리창을 가려 별의 진입을 방해했다. 도진은 2년 전 가을에 나무 밑동을 잘라 버렸다. 당연히 죽을 것으로 예상했던 진갈색의 나무 밑동에서 올봄에 두 개의 연푸른 줄기가 나왔다. 사람의 가슴에서 팔이 뻗듯 자란 줄기는 여름이 되자 연필두께로 어른 팔 길이만큼 자랐다. 바람에 흔들거리는 줄기의 그림자는 도진의 희부연 유리창을 차량 와이퍼처럼 닦아냈다. 어느 날부터 한 줄기가 진갈색으로 퇴색되어 갔다. 그러더니 힘없이 꺾어져 내렸다. 한쪽을 잃은 줄기는 고장 난 와이퍼처럼 한쪽 유리창만 닦고 있는 것 같았다. 때로는 한쪽 팔을 잃은 여성이 바람을 타고 한풀이 춤을 추고 있는 듯도 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격동적인 몸짓에서 처절한 춤사위로 바뀌었다. 도진이 푸르디푸른 달빛을 조명 삼아 한쪽 팔을 잃은 여인의 처량한 몸짓을

보고 있을 때였다. 꾸우웅, 꾸우웅, 소리가 들렸다. 도진의 방 부근에 길게 흐르고 있는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황소개구리의 울음소리였다. 달이 해의 자리를 차지하면 개구리들은 어김없이 울었다. 비가 오는 날은 더 극성스럽게 울어댔다. 도진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옆 방 남자가 불렀다.

도진은 가출한 후 택배 화물집합소에서 일했다. 집결된 화물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이었다. 집합소는 신분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일당이 높았다. 거기 에다가 하루 일을 마치면 돈을 받을 수 있어서 도진의 처지에 딱 맞는 일터였다. 겨울에 무거운 쌀과 김치를 들면서 허리를 다쳐 더는 일을 할 수 없었다. 이후로 옆방 남자를 따라 개구리 사냥을 했다. 황소개구리는 번식력이 왕성하면서 허벅지 살이 통통하여 국가에서 식용 목적으로 수입했다. 지금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구청에서 한 마리당 5천 원씩 현상금을 내걸었다. 도진은 매일 개구리를 잡아 현상금을 받아서 먹고 살았다.

도진과 옆방 남자는 개천에 매어둔 뗏목에 올라탔다. 도진은 긴 대나무를 물 속에 쑤셔 박아 천천히 수초 가까이 밀었다. 옆방 남자는 헤드램프로 수풀 속을 살살이 뒤졌다. 초록색 수초 속에 숨어 있는 개구리를 발견한 남자는 신속하면서도 능란하게 삼지창을 날렸다. 날카로운 창살은 개구리의 몸통을 뚫었다. 온 몸에 창살이 박힌 채로 뗏목으로 잡혀 나온 개구리는 흰 뱃살을 드러내고 뒷다리를 짝악 편 채 바르르 떨어졌다. 상수도 개구리처럼 떨어졌다. 다만 상수는 살려 주라고 애원한 점이 달랐다.

상수는 방과 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담배를 피웠다. 상수의 동선을 훤히 꿰뚫고 있는 도진은 상수가 도착하기 전에 놀이터의 뒷길로 갔다. 덩치가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는 상수가 걸어오는 쪽의 길을 노려보았다. 오줌이 마려워 단전에 힘을 주었다. 각목을 잡고 있는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굳은 어깨 근육을 풀기 위하여 팔을 회전하고 있을 때 상수가 나타났다.

양손으로 각목을 쥐어 잡고는 상수가 사정거리 내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속으로 숫자를 세고는 셋에 상수의 허리를 야구공 치듯이 각목을 휘둘렀다. 백소리와 함께 상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바닥에 쓰러졌다. 상수는 기어서 도망가려 했다. 도진은 상수의 하체를 계속 내리쳤다. 도진은 축 늘어져 있는 상수의 몸을 밟고는 칼을 꺼냈다. 가로등 불빛에 날이 번쩍거렸다. 도진은 왼쪽 무릎으로 상수의 팔을 누르고 손등을 내리찍었다. 관통한 칼끝이 시멘트 바닥에 찍혔다.

“아프냐? 너는 손이 문제야. 내 인생 종 난 것만큼 너도 평생 손 병신으로 살아, 이 개자식아!”

상수는 몸을 떨면서 잘못했으니 살려주라고 했다. 찌를 때 칼날이 손으로 밀렸는지 도진의 손날에서는 덜 잠근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듯 붉은 피가 칼날로 떨어졌다.

“잘못한 것 알면 죽여주라고 해야지, 살려주라고 해, 개새끼야.”

도진은 상수의 손 등에 박혀 있는 칼을 고장 난 자물쇠 열쇠 돌리듯이 좌우로 세차게 돌렸다. 칼날을 압착하고 있던 손등에 틈이 벌어졌다. 도진의 손에서 흐르는 피는 칼날을 타고 상수의 벌어진 상처 부위로 흘러 들어갔다.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피를 너에게도 주마. 너도 어린아이를 추행하고 살라.”

도진은 상수에게 흐르는 피를 보면서 자신의 유전자가 상수의 몸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 허무맹랑한 착각이 들었다. 도진은 박혀있는 칼을 지렛대 짓히듯이 아래로 눌렀다. 반원형으로 흰 칼날은 탄성의 한계점에 이르러 곧 부러질 것 같았다. 그때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흰 뼈가 손등 밖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왔다. 도진은 칼을 뺐다. 도진은 경기만 일으킬 뿐 신음도 내지 못한 상수의 옷에 칼을 닦았다.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살아라. 나도 죽을 때까지 너를 증오하면서 살겠다.”

자정 무렵까지 개구리 사냥을 했음에도 겨우 열 마리 밖에 못 잡았다. 배스의 출현으로 개구리는 갈수록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일을 마친 도진과 옆방 남자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도진은 소주를, 남자는 국밥을 주문했다. 음식을 가져다준 식당 아주머니는 엄마와 같은 연령대였다. 수척한 얼굴에 뒤로 묶은 머리, 울퉁불퉁한 손이 그녀의 삶을 짐작게 했다. 엄마의 손도 그랬다. 오랫동안 식당 주방에서 일한 엄마의 손은 항상 별경게 부어 있었다. 엄마는 무릎과 어깨, 손가락 마디가 저리다면서 수시로 주물러 주라고 했다. 엄마는 지금도 식당에 다니고 있을 것인데 주물러 주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도진은 시린 가슴을 덥히기라도 하려는지 소주를 글라스에 채워 연거푸 들이켰다.

옆방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인 늙은 아버지와 살았다. 남자의 아버지는 오후가 되면 집을 나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술을 얻어 마셨다. 소주 석 잔에 흐느적거렸고, 넉 잔이면 움직이지를 못했다. 노상에 앉아 옷을 입은 채로 오줌을 싸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했다. 옆방 남자는 그런 아버지를 업어 집으로 데려와 목욕을 시켰다. 도진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옆방 남자의 생각이 궁금했다.

“짜증 안 나세요?”

옆방 남자는 도진보다 열다섯 살이 많았다. 도진이 묻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손으로 이마만 만지작거렸다. 대부분 두 박자 느리게 반응했다. 잠시 후 난해한 문제의 답이라도 찾아낸 것처럼 해맑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갖다 버려?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속상한 일이 많아서 그래.”

도진은 주정뱅이 아버지가 대우받을 자격이 있나요?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자 술잔을 입에 갖다 댔다.

“언제부터 저리되셨어요?”

“10년, 원래 술은 좋아했는데 모친과 누나가 죽고 부쩍 더 마시더라.”

도진은 남자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기 싫어 동정 어린 시선만 보내자 남자는 스스로 말했다. 남자의 어머니는 조현병 환자였고 유전적으로 누나도 같은 병을 가졌다고 했다. 무기력증에 치료를 받지 않아 모친이 자살한 후 누나도 자살을 했고, 그 이후부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한다. 남자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고,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서른 살부터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고 했다. 도진은 부모의 결합으로 출생한 아이가 한쪽의 유전자만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남자는 난쟁이와 정상인이 결혼하면 난쟁이도 나오고, 정상인도 출생한다고 했다. 도진은 누구의 유전자를 받았을까? 궁금했다.

도진이 소주 두 병을 거의 비워갈 때 옆자리에 있던 자들이 술에 취했는지 목소리가 올라갔다. 그자들이 화물차량 운전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 중 가장 뚱뚱한 남자는 비너스 모텔은 서비스가 지랄이다. 부산항에 있는 노래방 도우미들이 쭈쭈 뽕뽕이다 라고 말을 하자 다른 자들도 다음에 돈을 따면 가야겠다고 했다. 그자들은 음담패설을 주고받으면서 깔깔거렸다. 기사들이 모텔에서…….

도진이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그 사람은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청주로 화물을 운송하면서 도진에게 학교 견학을 가자고 하여 따라갔다. 학교에 도착했지만, 보초를 서는 군인들에게 출입을 제지당했다. 그 사람은 점연찍은 얼굴로 인천으로 가서 광주로 가는 화물을 받아 집으로 가자고 했다.

인천항에 주차했다. 짐칸에 텐트를 치고 옆에 돛자리를 깔았다. 컵라면에 김밥을 먹고는 드러누워 하늘을 바라봤다. 그 사람은 검은 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북극성은 왕별이고,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돌면서 보호하는 신하별이라고 했다. 북극성은 나의 별, 북두칠성은 그 사람의 별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배우고 있는 노래라면서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듣기 고약한 음률로 수차례 불렀다. 차에서 하룻밤을 보낸 경험이 있는 도진은 화물차 기사들은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았다. 옆자리 사람들은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도박을 하고 노래방을 다니고 있다. 가슴이 미어졌다. 억척스러운 삶은 어떻게 하고 아이를……. 옆방 남자 같은 사람도 아버지에게 자극을 받아 술을 마시지 않는데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식당을 나온 도진과 남자는 집 쪽으로 걸었다. 초가을 새벽 거리는 쌀쌀한 찬공기로 가득했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화물차량들만 키 작고 넓게 퍼진 가로수처럼 차갑게 도로를 지켰다. 길을 걷던 도진은 국방색의 화물차량을 발견하고는 멈췄다. 그 사람의 차량도 국방색이었다. 그 사람은 회사 차량을 운전한 지 십년 만에 7톤 화물차량을 샀다. 새 차가 나온 날 우리 가족은 드라이브했다. 조수석에 탄 엄마는 새 차 냄새가 향기롭다면서 깊게 들이마셨다. 그 사람은 흡사 선서라도 하듯 오른손을 들고 ‘저는 전국을 부지런하게 누벼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선서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센트까지 실어 맹세했던 모습이 떠오르자 살포시 미소가 지어졌다. 그리고는 바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도진은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냉 온탕을 드나들었다.

며칠 후 옆방 남자는 인터넷으로 성경 강의를 듣는다며 컴퓨터를 샀다. 도진은 남자에게 강의 듣는 방법을 알려주고는 긴장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봤다. 때때로 게임이 하고 싶기도 했고, 가족 중 누군가는 메일을 보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피시방 한 번 가지 않았다. 겁이 났다. 마우스를 쥐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진은 상당한 시간 마우스만 만지다가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미안하다.*

네가 가출한 지 6개월이 되었구나. 엄마는 네가 가출한 날부터 매일 너의 친구들에게 너의 소식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다. 그런 엄마를 보고 있는 자신이 너무 밍고 참담하다. 상수 사건은 차를 팔아서 합의했다. 수술이 잘되어

정상으로 되었고, 상수 집에서도 잘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금은 오히려 너 걱정을 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가서 너를 위하여 돌아가기를 바란다.

도진아

너 때문에 기뻐다. 너는 내게 희망을 주었고, 너로 인하여 인생이 참 행복했다. 그런 행복을 나의 잘못으로 깨뜨렸다. 지금은 너무 불안하다. 같은 범행을 또 하게 될까 두렵다. 잠을 잘 수 없고 공황상태가 되었다. 너무 힘들고 지쳐 견뎌낼 힘이 없어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아버지라는 인연 때문에 나를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마라. 평생을 증오했으며 살아라. 제사도 지내지 마라. 내게 소원이 있다면 네가 집으로 돌아가 엄마와 동생을 보살피며 살기를 바란다. 영혼이 있다면 나의 혼이 북두칠성 같은 별이 되어 북극성을 보호하는 별이 되고 싶다.

죄만 짓고 간다. 미안하다.

2011. 10. 29.

죄 많은 사람

도진은 책상에 엎드렸다. 그 사람의 모습이 선연하게 그려졌다. 왜 그랬어요? 이러려고 그토록 악착스럽게 살았어요? 차만 사면 우리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잘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깟 유혹 하나를 이기지 못해요? 저 보고 어찌라고요? 저 보고 장래를 위해 살라고요? 잘 살 수 있을까요? 발끝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회한으로 뜨겁게 나온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오후 가을 하늘에 퍼져있던 붉은 구름은 순식간에 검게 변하더니 보듬고 있던 비를 쏟아부었다. 퍼붓듯이 내린 빗물로 도로는 물에 잠겼다. 대기는 어둡침침해졌고, 차들은 라이트를 켜고 주행을 했다. 집을 나온 도진은 무작정 걷

다가 비를 만났다. 도진은 즐기차게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받아 냈다. 빗물이 몸속으로 파고들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의 찌꺼기를 씻어줄 것 같았다. 눈을 뜬 채 하늘을 쳐다보는 양손을 벌렸다. 도로에 고인 물을 지나가던 차바퀴가 두 동강을 내어 도진에게 덮어 씌었다. 몸으로 받아낸 빗물은 신고 있는 운동화로 흘러들었다. 도진이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마다 철퍽거릴 때마다 몸의 때를 씻어낸 듯 신발 밖으로 뿌연 물거품이 새어 나왔다.

도진은 두 시간가량을 걸었다. 세찬 빗줄기는 기늘어졌다. 두꺼운 실처럼 끊이지 않고 내리던 비는 드문드문하다가 그치었다. 하늘은 언제 비를 뿌렸냐는 듯 파란 얼굴로 새침을 뻤다. 햇빛은 도로 위를 걷고 있는 도진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한기로 오슬오슬했던 도진의 몸에는 온기가 돌았다. 바지는 엉덩이까지 튄 흙물로 얼룩져있었다. 진갈색의 얼룩이 몸에 박혀 있는 반점처럼 보였다.

뗏목을 젓던 도진은 밤하늘을 봤다. 서쪽 하늘에는 여린 상현달이 떠 있었다. 검은 하늘에 북극성과 북두칠성은 수정처럼 여전히 빛을 냈다. 신상공개는 왜 할까? 금연교육에도 흡연 학생이 늘어나는 것처럼 연일 성폭력범죄는 발생하고 있는데, 배스가 황소개구리를 멸종시키듯 다른 방법은 없을까? 도진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4년 동안 소지했던 칼이었다. 멀리멀리 던졌다. 시커먼 하늘에 흰점이 되어 날아가던 칼은 어둠 속에 묻혔다가 하천에 떨어졌다. 물의 표면을 치는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다. 도진은 북두칠성을 바라봤다. 지르르한 눈물이 흘렀다.



# 수필



## ✎ 심사평

###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간절함 속 소통 그리고 옛 것への 미학

수필은 간절함의 문학이다. 소통의 문학이다. 그런데 그 소통의 문이 자신이다. 그 간절한 소통에의 목마름이 글을 쓰게 한다. 그 목마름 속에 보는 세상 사물 사람이 바로 수필의 소재이고 주제이다. 그들과의 관계와 움직임이 바로 삶이다.

알프스 고산지대에서 나는 가문비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가장 맑은 소리를 낸다고 한다. 극한의 상황을 이겨낸 인고의 생존력이 최고의 공명을 불러온 때문이다. 수필은 그런 치열한 내 삶 속 척박함을 이겨낸 가문비나무의 공명판이다. 개인의 체험이지만 다수의 공감을 일으키고 공통의 가치와 의미를 발현해 내는 것이 수필이다. 자신의 삶을 깊게 성찰하며 그 성찰과 사유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흐르는 글이다. 때로는 호탕한 유머와 기개가 있는가 하면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펼쳐지는 지혜가 무거움과 엄격함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게 수필이다. 그러면서도 사색과 관찰을 압축해 군더더기 없는 명징한 글쓰기를 해야 하는 게 수필 쓰기이다.

공무원문예대전이 어느새 21회로 성년을 맞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도 소리 없이 자신의 손을 멈추지 않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삶이 응모된 작품들에서 보였다.

2018년도 제21회 공무원문예대전 수필부문에는 917편이 응모되었다. 시 다음으로 많은 편수이며 지난해보다 무려 300편이나 더 응모된 것이다. 그만큼 이 문예대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좋은 작품을 써보려는 예비 작가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입상작품을 선정함에 있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

금상 수상작 <일수불퇴>는 읽는 내내 긴장감이 몰려올 만큼 구성도 내용도 박진감이 넘치는 작품이었다. 삶은 농사다. 그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는 농부의 계획이기에 그 첫 삽은 특히 중요하다. 삶이란 밭을 바둑판으로 보고 거기서 펼쳐지는 아들과의 대국이 흥미진진하다. 한 수 한 수에 걸려있는 계획 의도 소망이 대국 속에서, 한 점 한 점 놓이는 바둑돌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바둑과 삶,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대국을 통해 대립으로 갈등으로 이해와 화합으로 잘 표현되었다. 삶도 바둑도 일수불퇴일 수밖에 없다. 한 번의 실수는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작가는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기보다 이들의 도전적 승부수를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패착도 인정한다. 새로운 씨앗들이 뿌려지는 들판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마무리도 좋다.

은상 수상작 <보습>은 쟁기질을 천직으로 알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펜대를 굴러먹고 살길 바랐다. 아버지의 모습과 나의 펜은 둘 다 쇠덩이를 녹이고 깎아 만든 것이었다. 사람과 소와 땅과 보습 네 박자가 이뤄낸 농촌예술처럼 사십년의 교직을 자랑스럽게 마무리한 작자는 사람 사는 일터가 모두 논밭이요 그곳엔 보습과 펜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 보습에 뿌리박은 펜의 나무에 피는 행복의 꽃으로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고자 하는 작자의 마음이 큰 공감으로 다가온다.

<비상>은 천마총의 천마도를 통해 천마도가 그려지게 된 사연을 추적하며 지혜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비상하는 날개 짓으로 모두의 꿈을 소망하고 있다. 현실 속의 숱한 광풍조차 잠재우고 상생과 공존의 바람으로 바꾸어 힘차게 비상할 소망과 염원의 총합으로 언젠가는 오고 말 그런 날을 기다린다는 바람이 글 전반에 가득 넘치고 있다. 천진무구한 모자의 웃음 앞에서 그 꿈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자란자란 스며들게 하는 작품이다.

<창호지를 바르며>는 옛 것에 대한 미학이 제대로 살려내진 수필이다. 골동품 가게에서 구한 지게문 두 작에 창호지를 발라놓으니 한껏 멋스러움을 자아낸다. 거기서 작자는 옛날 어린 시절 추억과 지게문을 사용했던 전 주인의 삶까지 추적해 보며 과거와 현재의 사람을 아우른다. 세월을 한 땀 한 땀 기워나간 옷 솔기처럼 삶의 행적을 통하는 문으로 지게문을 보는 심미안과 의미화가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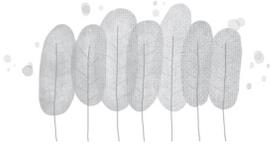
동상 수상작 <행복하기 위해서> <코스모스> <꽃송이> <보호자> <손> <무현금>도 각기 삶을 추스르는 모습들을 의미 있게 그려내면서 주제의 의미화에 성공하고 있다. 결코 은상 작품보다 못하다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작품들이다.

금년에 신설된 특선작 부문의 <나의 우주> <지붕위의 오동나무> <구멍 난 양말> <아버지> <등대 속히 귀환하라> <고향생각>도 다 좋은 작품들이다. 21회라는 연륜이 응모작의 수준을 이만큼 높여놓은 것 같다. 삶의 문학, 내 삶이 문학화 된 참 좋은 작품들이었다.

심사위원 : 최원현(글), 우희정, 오길순.



# 수필



**금상** 일수불퇴(一手不褪) \_ 대구광역시 달성군 김광규

**은상** 보습 \_ 진전주 중산초등학교 신정모  
飛翔(비상) \_ 진대구 대서중학교 임종훈  
창호지를 바르며 \_ 진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갑수

**동상** 행복하기 위해서 \_ 경남 밀양시 이기범  
코스모스 \_ 경기도 오남고등학교 박명서  
꽃송이 \_ 경기도 안곡초등학교 권덕은  
보호자 \_ 경기도 유미경  
손 \_ 진울산광역시 김갑주  
무현금無絃琴 \_ 진국세청 상주세무서 최상근

**특선** 나의 우주 \_ 광주광역시 남해은  
지붕 위의 오동나무 \_ 경북 청도 이서초등학교 이정경  
구멍 난 양말 \_ 기획재정부 광경준  
아버지 \_ 경기도 의왕시 정정자  
등대, 속히 귀환하라 \_ 서울양천경찰서 최호열  
고향생각 \_ 진군산여자고등학교 이내빈

**입선** 구름이 \_ 부산광역시 예명옥  
그 흐린 날의 기억 \_ 부산광역시 북구 지규태  
설빔 \_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예라  
꽃 피는 봄이 오면 \_ 대전글꽃중학교 권민희  
아버지의 보물 \_ 진대구지방교정청 이재기  
50년 만의 화해 \_ 진부산울속도초등학교 곽선희

# 금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김 광 규



## 수상소감

어느덧 오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겨우내 우리를 그렇게 애태웠던 비가 때아닌 지금에서야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문학도 그러고 보니 닳은 구석이 있었네요. 울 듯 말 듯 하던 비처럼 문지방 앞에서 서성이는 단어들. 까도 까도 깔끔하게 벗겨지지 않는 계란들처럼 책장을 덮고 누우면 하얗게 달려드는 문장들. 응모해놓고 뒤돌아서서 이미 가버린 계란을 다시 까고 있었네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인 걸 뻔히 알면서도... 벗겨도 벗겨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양파처럼 한걸음에 성큼 내디딜 수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인가 봅니다.

채 익지 않은 계란을 풍성한 식탁에 올려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학을 위하여 오늘도 책상 앞에서 서성이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일수불퇴(一手不退)

들판 위를 휘 둘러본다. 차가운 바람살 같은 기운이 달려든다. 경지정리가 잘된 들판은 반듯하지만 황량해서 선뜻 발을 들여놓기 쉽지 않다. 어디에다 무엇부터 심어야 할까. 첫 삽은 설렘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바둑판을 상변부터 하변까지 몇 번이고 훑어 내린다.

검은색 돌 하나가 힘 있게 착지한다. 화점이다. 우하귀에 아들이 먼저 자리를 잡는다. 나는 장고에 들어간다. 포석만 잘 짜도 절반은 성공이라지 않는가. 좌상귀를 먼저 차지할 것인가. 날 일자로 다가가 공격하면서 여차하면 하변을 노릴 것인가. 부자간 삶의 대화는 묵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들은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서로 속을 터놓기에는 바둑판 앞이 안성맞춤이었다. 아들이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서로가 원하는 전공이 달랐다. 아들은 물리학과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나는 향후 진로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과를 권유했다. 바둑판 앞은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었다.

아들이 박아놓은 말뚝에 날 일자로 응수타진을 해본다. 아들은 곧바로 마늘모 형태로 방어를 취한다. 아래로 젖힐까, 위로 젖혀 세력을 만들 것인가. 평범하게 옆으로 한 칸이나 두 칸 벌려 놓을까. 한 칸 위쪽으로 뛰어나가 향후 중원을 기대해볼까. 다시 고민에 빠진다. 아들은 내가 어떻게 두던지 이미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모양이다. 왼쪽으로 두 칸 벌려 놓자 차분하게 오른쪽

으로 두 칸을 벌려 맞대응을 한다.

아들이 한창 자랄 때 둘의 대화에서는 내가 늘 우선이었다.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생각을 서둘러 꺼냈다. 아들의 말은 대부분 밑천이 없는 철부지 같은 생각이라 단정했다.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늘 설득하고 회유하고 내 생각대로 따라 주기만 강요했다. 내게 부족한 결국한 삶을 아들에게 바랄 것이다. 대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입술은 굳게 닫히기 일쑤였다.

여전히 말이 없는 가운데 포석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우상변과 하변은 아들이, 좌상변과 하변은 내가 선점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중원 싸움이다. 수십 수가 더 진행된 후 바둑판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아들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돌을 둔다. 자신이 생각하는 삶은 분명히 나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다. 이럴 땐 아들이 둔 한 수를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바둑에서나 삶에서나 아직도 아들을 읽지 못하고 있다.

눈목자로 뛰어나간 자리를 일단 끊고 본다.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아들은 내 삶에도 급소가 있지 않느냐며 이내 맞꿨어 온다. 서로의 돌들이 양단되었다. 쫓고 쫓기는 공방 속에 무궁한 변화가 생기고 박진감이 증폭되었지만, 양곤마가 되어버려 미로 속을 걷는 기분이다. 각각의 삶도 도모해야 하지만 대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면 그만한 대가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아들의 진로를 막아서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수없이 반복되는 물음이 나를 괴롭혔다. 아들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양단된 처지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이 많았으리라.

중원에서는 치열하게 공방만 하다 서로가 큰집을 얻지 못했다. 서로 미생이었던 돌들이 살아가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 와중에 무턱대고 끊었던

돌을 살리기 위해 우하변을 포기해야 했다. 수능을 치른 후 아들은 방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선 듯 말도 못 붙이고 옆에서 눈치만 봐야 했다. 쉽게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진로 문제는 아들의 수능 실패가 오히려 타협의 실마리가 되었다. 아들은 일 년간 내가 추천하는 곳에 다녀보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녀석이 언제 대학을 그만둘까 노심초사했는데 벌써 4학년이 되었다. 어느 정도 포석이 정리되었으니 중원에서 차분한 삶만 도모하면 되겠는데, 일 년간 졸업을 미루고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겠다고 한다. 낯선 불편함이 밀려온다. 아들은 아직도 포석에 미련이 남았는가 보다. 지금부터 새로운 틀을 짜야 하는 아들은 무엇을 설계하고픈 것일까.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중앙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 아들은 느닷없이 손을 빼고 우상변에 돌을 두었다. 이해되지 않는 수순이었다. 그 돌이 오히려 중원에서 곤마가 된 돌들을 살렸다. 아들에게 정석대로 살 것을 늘 강요했었다. ‘정석은 숙지하고 잊어버리라’는 바둑 격언을 알기나 한 듯 아들은 반히 보이는 길로는 잘 가지 않았다. 내가 수공할 수 없는 사소한 것들도 아들에게 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돌이켜 보면 느리지만, 묵묵히 제 길을 찾아가던 아이였다. 무조건 내 뜻에 따르라고 으박지르지만 한 지난날이 문득 부끄럽다.

형세를 조심스럽게 살핀다. 미세하지만 실리가 조금 더 많은 내가 약간은 유리하게 보인다. 다만, 중원이 문제다. 여기저기 퍼질러만 놓고 정리하지 못한 돌들이 눈에 띈다. 영성한 내 삶을 엿보는 듯하다. 아이에게만 싹을 제대로 틔우기를 요구했지 정작 내 인생의 설계도는 서툴기 짝이 없다. 살아오면서 만듦 욕심의 흔적도 이런 형태 일게다.

우상변에 날 일자로 끝내기하자 아들은 좌상귀로 바로 뛰어든다. 그곳만은

내 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미처 보지 못한 빈틈이 있었나 보다. 옆 눈짓으로 아들의 표정을 읽는다. 고개를 약간 기울여 바둑판을 응시하고 있지만 별다른 동요는 없다. 다만, 아버지는 자기 삶에 자신 있느냐는 표정이다.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라고 했던가. 자기 집도 허술하면서, 남의 땅에 콩 뇌라 팔 뇌라 하지 말라는 아들의 일침이리라.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더니 그만 헛발질을 하고 말았다. 잘못 든 길이니 한 수 물리자고 했지만, 아들은 손사래를 친다. 일수불퇴(一手不退), 바둑에서나 인간사에서나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다. 묘수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그 돌이 결국 패착이 되고 말았다.

“아빠 한 판 더 둘까요.”

멍하니 바둑판만 들여다보고 있는 나에게 아들이 머리를 굽적이며 멧쩍은 웃음을 짓는다. 나보다도 아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읽어내고 있다.

내 생각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아들은 이미 성큼 내디디고 있는지 모르겠다.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기에 서툴지만, 아들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리라. 라디오에서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 잔잔히 흐른다. 들판 위에는 새로운 씨앗들이 리듬을 타고 차분히 뿌려진다.



# 은상

전)전주 중산초등학교  
신 정 모



## 수상소감

언어의 창 더 닦아야

신정모

아버지의 계절은 늘 봄이었다. 보습은 봄을 갈고 부리는 꿈과 힘의 원천이었다. 그 보습의 혼과 뜻이 나의 삶을 지켜왔다.

‘펜도 날히언 마라는 보습같이 힘들 리도 없으니이다---’

문학은 나의 영원한 짝사랑이다. 들킬까봐 부끄럽고 겸연쩍다. 삶의 바다에 더 깊고 짙은 사유와 감성을 풀어, 언어의 창을 더 푸르게 닦아야겠다.

서툰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보습

남새밭 길옆의 메꽃과 봄까치풀이 가녀린 떡잎을 살포시 내밀었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 첫 일요일이었다. 어머니가 대바구니에 싸주신 묵은 김치와 된장국, 막걸리 한 주전자를 들고 논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쟁기로 갈아엎은 논바닥은 주전부리와 입치레의 보고였다. 겨우내 잠자던 올방개 덩이줄기를 주워 먹기도 하고, 논고랑에서 꿈틀거리는 미꾸라지도 잡았다.

아버지는 소의 멩에를 벗기고 쟁기의 자부지를 당겨 술과 성애를 바르게 세워놓았다. 벼과 장화에 껌같이 달라붙은 흙을 떨어낸 뒤 여벌로 가지고 온 보습 한 장을 나한테 내보였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여. 쟁기질하는데 이거 없으면 말짱 헛 것이라. 너도 이 보습처럼 꼭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혀.”

아버지는 막걸리 한 대접을 또 벌컥벌컥 들이 킨 후 말씀을 이어갔다.

“쟁기질도 아무나 하는 거 아녀. 나는 몸에 뱀 게 이거고 너는 펜대를 굴려서 먹고 살아야 허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나는 뜻밖의 아버지 말씀에 무거운 멩에를 짊어진 기분이었다.

문득 헛간 낮은 시렁의 보습함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사과궤짝으로 만든 그 함에는 반짝반짝 윤나는 보습이 논밭 쓰임새별로 책꽂이처럼 늘어서 있었다. 아버지는 대장장이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만든 것이라며 금쪽같이 간수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죽으로 직접 만든 펜대와 함께 펜촉을 한 통이나 내놓았다. 나는 그 펜으로 책을 읽으며 밑줄을 긋기도 하고 다 쓴 공책 위에 한자와 영어, 수학 연습도 했다. 신문지건 비료포대건 빈 종이만 있으면 뾰족한 펜촉이 닳아서 글씨가 뭉툭하게 나올 때까지 쓰고 또 썼다. 시골뜨기인 내가 사범 학교에 합격한 것은 아버지가 마련해주신 펜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교사 발령통지서를 받던 날 나는 ‘펜대를 굴려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것은 비단 문필활동만을 이르는 말이 아니었다. 허약했던 내가 ‘육체노동보다 지식근로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버지의 당부고 소망이라고 믿었다. 요새말로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은 부모가 어찌 아버지뿐이었으랴!

나는 아버지의 보습과 나의 펜촉이 이체동심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아버지의 혜안에 무릎을 쳤다. 물고기대가리를 닮은 보습과 펜촉은 둘 다 쫓덩이를 녹이고 깎아서 만든 의지와 땀방울의 상징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쓸모’의 준비와 기다림이요, 아버지와 나의 삶은 한 덩이의 흙과 잉크 한 방울의 변주일 뿐이었다. 그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묵묵히 어둠을 삼켜 빛으로 토해내는 희망의 원천이었다. 방죽 물도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고 했듯이, 마음이 바르고 착한 사람의 발길과 시선이 움트는 행복의 화분이었다. 아버지는 논밭에 뿌리내렸던 보습의 정신을 펜에 고스란히 담아 주셨던 것이다. 아버지의 보습은 나의 펜이고 나의 펜은 아버지의 보습인 셈이었다.

누가 ‘농부(農夫)’를 ‘별의 노래를 듣는 사람’이라 했던가. 별빛이 흐르는 밤을 낮 삼아 일하는 농부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는 아버지를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아버지의 어깨와 손마디의 굳은살은 논밭이랑 같은 주름살과 함께 ‘보습’의 무늬가 투영된 희생과 헌신의 표상이었다. 울 모퉁이가 없어서 슬픈 아

버지! 아픔도 배고픔까지도 ‘괜찮다’며 보습이 닳듯 온몸을 부리고 사르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불효의 회한에 목이 메어온다. 소와 함께 달려온 아버지의 삶은 ‘다시 굴러 떨어질 줄을 알면서도 끝없이 산꼭대기를 향해 바윗돌을 굴리는 현실 속의 시지푸스’였다. ‘펜’도 날이긴 하지만, ‘보습’같이 힘들 리 없을 것이다.\*

“이랴~이랴~. 이리소~ 이리소~. 자라 자라~. 와와 ~.”

면동이 트기 전에 아버지가 잡은 코뚜레는 해 질 녘까지 6,600m<sup>2</sup>(2,000평)의 논을 갈아치워야 놓는다고 했다. 아버지가 간 논은 수확이 더 난다고 소문이 돌만큼 쟁기질 명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웃 지인들은 이것을 사람과 소와 땅과 보습 네 박자가 이루어 낸 농촌의 예술이라 했다.

쟁기질은 단순히 논밭을 갈아엎는 것만이 아니었다. 농사꾼들이 살아갈 삶의 밑그림을 그려주고 희망의 길을 터주는 일이었다. 더욱이 우리 집에서는 가솔들의 끼니를 이어주는 중요한 소득원이었다. 또 누렁이 소는 유일한 생활 밑천이었다. 여기에 손바닥만 한 보습 한 장이 세월의 무게를 견뎌 낸 삶의 발판이었다니 아심찮고 대견하기 그지없다. 내가 노랫가락보다 워낭소리의 감흥에 더 젖어들고, 어떤 풍경화보다 논밭 가는 농부의 모습에 더 매료되는 것도 ‘소’가 단순한 가축이 아닌 ‘식구’같은 존재였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에 등지를 틀고 오랫동안 펜대를 굴리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을까? 나는 한동안 아버지의 보습을 먼 빛으로만 보고 있었다. 사람 사는 일터가 모두 논밭이요 그곳엔 보습과 펜이 있다는 걸 늦게야 깨달았다. 사는 것이 끝없는 쟁기질이요, 선생질도 학생들의 마음을 닦는 쟁기질이 아니었던가. 아버지가 보습과 소를 길들여 부리듯 나는 보습을 떠올리며 느슨해지는 행동과 마음의 끈

\*고려가요 ‘사모곡’을 패스타시(모방)한 표현임.

을 팽팽하게 조여 뒀다. 아버지가 보습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겼듯이 나는 펜과 마음을 갈고 닦아 나와 가정을 세우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는 교직 사십여 년을 보람차고 자랑스럽게 마무리했다. 은퇴 후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시간가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이것은 아버지의 ‘보습’이 내 늙은이의 삶에 가치와 보람을 채우도록 늘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 후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과 노년세대들의 성 심리상담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논두렁에서 들려주신 ‘보습’의 뜻을 정성껏 담아냈다. 시렁 위의 보습함에 서 ‘쉬면 녹슨다’는 고함소리가 귓전을 맴도는 것 같다. 청소년 인성교육과 은퇴자들의 미래설계 강사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도 그것이 목표 성취의 채찍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언제 어디서나 ‘쓸모’는 내가 사는 의미였고 살아있다는 징표이기도 했다.

“당신은 스스로 행복한 일이 있었는가? 당신은 평소 남을 행복하게 한 일이 있는가?”

천국의 문턱에서 묻는다는 이 두 가지 물음에 “네”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게 내가 걸어오고 또 내딛고 가는 삶의 방향이다. 아버지는 이미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네’하고 대답하셨을 것이다. ‘보습’에 뿌리박은 ‘펜’의 나무에 행복의 꽃이 피고 스쳐가는 이들마다 그 향기에 흠뻑 젖어들길 소망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앞뜰의 목련이 해맑은 꽃망울을 활짝 터트렸다. 그 꽃잎 한 장만큼의 행복일지라도 손에 꼭 쥐고,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선 ‘보습과 펜’으로 기꺼이 다가갈 것이다. 나의 ‘쓸모’가 이어질 때까지.

# 은상



전)대구 대서중학교  
임 중 훈



## 수상소감

수상소감을 적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것으로 내 문학적 성취 전체를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틈틈이 적어 내려간 작품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기쁨 때문이다. 응모할 때의 마음, 이를테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적었지만 괜스레 설익은 것을 내보내 읽고 평하는 분들의 노고만 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무척이나 조심스러웠는데 이번 수상은 내 그런 마음을 헤아린 심사위원님이 더 좋은 글을 쓰라는 격려 차원의 選考라고 여겨지는 동시에 이후의 글 쓰기에 좀 더 엄격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그에 대한 보답이 되리라는 다짐과 각오를 가지게 된다. 별다른 성과도 없는 글쓰기에도 불구하고 늘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와 두 딸과 사위. 그리고 작년에 이 세상에 와 크나큰 기쁨이 되어주고 있는 손자와 수상 소식을 전하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줄,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옛 선생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에게 기쁨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오롯이 전한다.

## 飛翔(비상)

어린 孫子 품에 안고 天馬塚 입구 근처의 배롱나무 주위 서성거리고 있던 그 날, 한여름이지만 하늘은 이글거리는 太陽 대신 한바탕 비라도 거세게 퍼부를 양인지 온통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함께 천마총을 찾은 아내와 딸에게는 그 안을 둘러보는 것이 처음이었지만 나는 이미 여러 차례 둘러봤던 데다 어린 손자가 어두운 내부로 들어갔을 때 자칫 놀라 울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들의 관람에 방해가 될 것 같아 두 사람만 들여보낸 것이었다. 청얼대는 손자를 어르며 無垢한 아이의 얼굴과 어두운 하늘, 그리고 陵園을 오가는 사람들을 망연히 지켜보다 백일홍 붉은 꽃잎에 시선이 닿던 순간 마치 뜨거운 그 무엇에 닿기라도 한 듯 불쑥 일던 생각, 그 이전 천마총을 관람했을 때도 들었던 그것이 다시금 되살아나던 것이었다.

畫馬點睛, 마지막 붓 들어 말에 눈동자를 그려 넣은 늙은 畫工은 그제야 내내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몇 해 전부터 손이 떨려 이미 붓을 놓은 그였다. 그랬던 그가 차마 청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붓을 잡은 것은 고귀한 분의 의뢰라서가 아니라 障泥에 그려진 그림은 무덤 속에 안치되어 封印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머지않아 그의 삶이 그려할 것처럼.

돌이켜보면 그가 붓을 잡은 이후 지금껏 그린 그림들을 꼽으면 족히 수백여 점이 될 것이나 대개가 고관이나 부호들의 집안 벽을 장식하는 걸개들이나 사찰의 벽화, 그리고 솜씨 좋은 陶工들 중 그림에 자신이 없는 자들을 대신해도

자기 표면에 그려준 그림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그림들은 그 수명이 當代에 그치고 말거나 길어봐야 백여 년이 채 되지 않을 것들이었다. 무릇 화공이라면 代 이어가며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종래에는 가슴에 새겨둘 만한 그림 몇 점쯤은 남겨야 할 것이나 눈 침침하고 손까지 떨리는 지금껏 당대에 으뜸가는 화공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흡족하다 말할 그림 한 점 변변히 남기지 못한 터였다. 그런 까닭에 처음 그림을 의뢰받았을 때 재주가 뛰어난 다른 화공의 이름을 거명하며 완곡하게 사양했으나 어느 순간 이번 그림을 그야말로 자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여기고 그간 쌓아온 화공으로서의 內工을 고스란히 쏟아 부으리라는 생각이 들던 것이었다. 화공으로서의 욕심이랄 수도 있는 그 생각과 함께 떠오르던 하나의 형상, 마치 청탁받기 이전부터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겨지던 그것. 그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天馬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畫工은 하고많은 그림들 중 하필이면 천마를 그렸을까? 모처럼 안긴 할아버지의 품이 불편했던 것인지 몹시도 뒤척이던 손자가 고분 근처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 잠이 들어 다소 떨어진 곳에 있던 의자에 앉을 요량으로 걸어가다 손자의 팔딱이는 심장 박동이 내 심장께에 온전히 느껴지던 순간 불현듯 든 생각이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흐르는 시간과 그에 따라 사라지는 것들과 전해지는 것들, 그리고 사라진 듯 보여도 其實은 累代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것에 관한 생각들이 두서없이 떠오르던 것이다. 천 년 전, 천마를 그린 화공의 意圖와 비록 그 자신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의 그림은 그렇듯 온전히 전해져 지금의 내가 그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것과 나와 딸, 그리고 손자가 심장 박동을 통해 그 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한꺼번에 겹쳐져 떠오르던 것이다. 화공이 비록 자신은 죽고 없을 것이라도 瑞氣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천마를 통해 後代에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

까? 찬란했던 천 년 왕국 新羅도, 화공 그 자신도 有限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서 無限을 指向하고 싶던, 그리하여 단순한 이어짐이 아니라 그렇듯 날개를 활짝 편 채 飛翔하고 싶던 그 무엇.

늙은 화공은 완성된 그림을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비록 障泥에 그려졌지만 依賴者는 이를 실제 말에 장착하여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었을 때 그 무덤에 여타의 副葬品들과 함께 묻을 것이라고 했다. 그 용도가 그림을 그린 한 이유이기도 했으나 그보다 화공은 자신의 마지막 力作인, 먼 훗날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질지 알 수 없는 이 그림에 여타의 껴묻거리들과는 다른 그 무엇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주기 바랐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그림에 자신의 간절한 기원을 담았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封印이 풀릴 때 新羅, 新羅人의 꿈이 그 자신의 당대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두가 품은 소망이기를 바라서였다. 사람과 사람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와 벽이 허물어지고 더불어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未明을 뚫고 새 날, 새 아침으로 밝아올 때 비로소 천마는 瑞氣 뿜으며 힘찬 날갯짓으로 하늘을 날아오를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天馬는 그의 꿈이기도 하고 모두의 꿈이기도 한 그 간절한 염원에 바치는 자신의 마지막 獻辭인 것이었다.

바습山 자락쯤인가? 닭이 해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림을 건네기로 약속한 때가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그림은 자신의 손을 떠날 것이고 또 얼마 뒤에는 무덤 속에 묻힐 것이다. 봉인이 풀릴 때까지 그림은, 천마는 좁고 어두운 그 안에서 얼마나 긴 세월을 인내하며 간혀있어야 할 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천 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 한들 날아오르려는, 날아오르는 그 날갯짓을 가둘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밤새 그림을 앞에 두고 想念에 잠겼던 화공이 한껏 침침해진 눈을 문지르자 마주 보이는 東窓이 흰 빛으로 희뵈었다. 또 한 번의, 그러나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들더니 이어 내내 참았던 울음이 기어이 터져 나오듯 세차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보다는 품에 안겨 잠든 손자가 행여 비라도 맞을까 싶어 급한 걸음으로 관광안내소 처마 아래로 걸어가 비를 피했다. 아내와 딸은 손자를 내게 맡겨두고 좁은 무덤 안에서 무엇을 그리도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일까? 문화해설사의 인솔로 한 무리의 관광객에 섞여 입장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도무지 나오려는 기척이 보이지 않았다. 평소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관람할 기회도 좀처럼 없었지만 설령 그런 기회가 있어도 스쳐 지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자세여서 의아한 생각이 다 들 정도였다. 母女는 혹, 天馬圖에서 오래 보아야만 비로소 보이는 그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를 그린 오래 전 화공의 내밀한 의도를 이리저리 짐작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선 채로 꼼짝없이 비를 맞고 있는 百日紅 붉은 꽃을 茫然히 보고 있다 눈길 거두어 팔에 안겨 태평스럽게 잠든 손자의 얼굴을 본다. 天真無垢는 다름 아닌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 문득, 內戰으로 얼룩진 中東 한 나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자비한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되던 아이들, 어두컴컴한 잔해더미에 몇 날을 갇혔다가 피와 먼지가 범벅이 된 얼굴로 가까스로 밖으로 끌려나온 아이들은 주검이 된 부모 곁에서 이미 얼마나 울었는지 울지는 않았지만 그 얼굴에는 마른 눈물자국이 선명했다. 대체 누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아이들에게서 그 부모를 빼앗고 無垢해야 할 아이들의 얼굴과 마음에 그토록 잔인한 생채기를 남기려 드는 것인지 憤怒를 넘어 그와 그것들에 憎惡의 마음까지 들던 것이었다. 폭격을 한 자와 그를 명령한 자에게도 어린 자식이 있었거나 있을 것이고 밤마다 그들의 이마에 굿나잇 키스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던 것이었다. 더불어 훗날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세상은 피 묻은 입과 손으로 어떻게 용서와 사랑을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천 년 전의 화공은 이미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불어대는 狂風을 미리 경계한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그가 天馬를 그렸던 것은 그 날갯짓으로 미친바람을 잠재우고 나아가 그것을 相生과 共存의 바람으로 바꾸어 그로써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의 소망을 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천마는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和合과 相生의 삶을 즐거이 노래하는 세상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마다에 자리하고 있을 수없이 많은 念願들의 總合 같은 것이 아닐까? 천 년이 지난 지금이 아니라면 또 다시 천 년 뒤 언젠가는 기어이 그런 날이 到來하고야 말 것이라는 그런-

언제 내렸느냐는 듯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날이 개자 하늘은 더 맑아보였고 百日紅 붉은 꽃은 더 붉어보였다. 짧은 잠에서 깬 손자가 뒤척여 어르자 까르르, 웃는데 천사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덤 입구 쪽이 다소 소란해 쳐다보니 한 무리의 관람객이 걸어나오고 그 중에 다소 상기된 표정의 아내와 딸이 보였다. 幻聽 같은 것이었을까? 어디선가 날개 퍼덕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아 올려다본 하늘에 흰 구름이 한가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참으로 고즈넉한 여름날 오후 한 때였다.



# 은상



전)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 갑 수



## 수상소감

삶의 속도가 숨 가쁜 디지털의 속도로 질척간 뒤에 회중시계의 둔중한 추로 흐르던 아날로그 시대는 먼 옛날이 되어 있었다.

현재는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향해 멈칫거리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아누스의 얼 굴이었고, 먼 길을 지나 온 사람의 어깨 너머로 펼쳐진 구불뒸한 길이 인생길이였다.

이 작품은 창호지를 바르면서 반백년 저 너머의 먼 세월을 되짚어 가면서 느꼈던 소회를 담은 글이다.

글을 쓰면서 이런저런 공모전에 응모하는 것은 술한 좌절을 극복하며, 가뭄에 콩 나 듯 당선되는 희열에 고무되어 용기를 얻고자 함일 것이다.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문가의 예리한 비판과 평가가 더 없이 고마운 등대불빛과도 같다.

졸작을 높이 평가해 주신 심사위원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더 한층 글 쓰기에 용기를 내어 매진하고자 한다.

## 창호지를 바르며

골동품 가게 앞을 지나다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지게문 두 짝을 샀다.

온갖 잡다한 골동품들이 어지러이 쌓여 있는 한쪽 구석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그것은 무척이나 낡아 있었다.

어쭙잖아 보이는 물건도 골동품 상인의 손에만 들어가면 만만찮은 금액이 붙나보다.

한참을 망설이다 비상금까지 털어 값을 치르는 내 표정이 마뜩잖아 보였던 지 주인은 낡은 등잔과 호롱을 덤으로 붙여 주었다.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오니 아내의 성화가 여간 아니다.

‘정신 사나운 것들’을 집으로 들인다는 것이다.

하기사 아내의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지난날 옛 어른들께서는 다른 사람이 오래 쓰던 물건을 집에 들일 때에는 마당 한 쪽에 한 며칠 두었다 들여 놓거나 짚단에다 불을 붙여 여러 차례 휘저어 샷된 기운을 쫓은 다음에 사용하시곤 했다.

아내의 그런 성화는 오래된 것, 특히 다른 사람의 손때 묻은 물건들에 대한 옛 사람들의 터부वाद도 같은 것이다.

따가운 잔소리(?)를 애써 귓등으로 흘리며 창호지에 흠뻑 물을 뿌려 불린 다음 그것을 벗겨내는 작업이 간단치가 않다.

몇 년에 걸쳐 창호지를 덧대어 발랐는지 두텁기도 하거니와 촘촘한 격자살

마다에 찌들어 있는 때가 좀체 벗겨지질 않는다.

부엌용 철수세미로 힘껏 문지르고 구뚝솔이며 칫솔 따위로 격자살 구석구석을 씻어내느라 한나절 넘게 공상을 떨었다.

수차례에 걸쳐 벗겨내고 씻어내고 하는 동안에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들이 한없이 묻어 나왔다.

맑을대로 맑아 빠격거리는 돌쩌귀는 혈겁기 그지없고 부러진 문살을 명주실로 총총 감은 흔적도 서 너 군데 보인다.

술에 취해 들어 온 남정네가 역센 발길로 걷어차기라도 했던 것일까? 살림기물을 때려 부수는 무지막지한 사내가 손찌검인들 하지 않았을까?

부러진 문살을 명주실로 총총 감는 아낙의 가슴에 우수수 낙엽 지는 소리로 한 맺힌 눈물비가 흘러내렸으리라.

찌든 때가 씻겨나가면서 차츰 나무 본래의 색깔과 결이 되살아났다. 세월에 곰삭은 모든 것들, 물건도 사람도 그 본래의 원형은 다 저런 것이다.

오래된 물건에는 곰삭은 세월의 향취가 난다.

특히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의 손때가 묻은 물건에는 옛 주인의 체취 같은 것이 짙게 남아 있어서 왠지 모를 서먹함과 이물감 같은 것이 느껴진다.

그런 물건에는 사람이나 짐승처럼 옛 주인에 대한 정리 같은 것이 있어서 쉽게 다가오지 않으려는 거부감 같은 느낌이 전해오는 것이다.

그것이 내 손과 눈에 익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먹빛이 바래가면서 추억도 희미해진다는 상투적인 표현처럼.....

땃자국 범벅인 창호지에서 얼핏 담뱃진 같은 냄새가 배어나는 듯하다.

빛소리 들리는 조붓한 방안에 하릴없이 틀어 앉아 무람없이 담배를 피워대는 늙수그레한 사내의 환영이 어른거린다.

문짝과 문틀 사이의 틈이 많이 벌어져 있었나보다. 유달리 넓은 문풍지가

한기를 느끼게 한다.

이 얇디얇은 창호지 한 장으로 긴 겨울을 가리웠던 옛 사람들! 추위와 주름에 시달리며 지나 긴 겨울을 살았던 그들의 서러운 삶의 얘기들이 때에 절어 있는 창호지에서 진한 먹물처럼 번져 나온다.

어린 시절, 가을걷이가 끝나고 겨울로 들어 설 무렵이면 할머니와 어머니께서는 집안의 지게문을 모두 떼어내 물에 불려 창호지를 벗겨내고 정성어린 손길로 새 창호지를 발랐다.

풀 먹은 창호지가 별뿔 따스한 양지쪽에서 반지랍게 마르면서 풍기는 풀냄새가 어제인 듯 새롭다.

책갈피 사이에 넣어 잘 다져진 갖가지 꽃잎을 한 올 한 올 창호지에 붙여 넣은 창호지 문은 그 자체로 우아하면서도 섬세한 예술작품이었다.

이런저런 상념과 고생(?) 끝에 완성된 잘 마른 창호지 문짝 두 개를 서재 한쪽 벽에 세워 놓으니 제법 운치가 난다.

그 앞에 석유등잔이 얹힌 낡은 등잔을 놓으니 금상첨화다.

‘비로(祕路)로 통하는 문(門)’이라는 그럴싸한 이름도 써 붙였다.

보는 이 마다 피식 웃고 지나가지만 풀냄새 번져 나는 보얀 창호지 문 앞에 한가로이 앉아 있노라면 지나온 먼 세월이 지게문 저 너머로 가물가물 이어져 간다.

팽팽한 창호지를 두드리면 맑고도 투명한 북소리가 울리고 내 유년의 강에서 뛰노는 소금쟁이 물매미가 그리는 메아리 곁이 한 금 한 금 번져 나오는 것이다.

비릿한 세월의 냄새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골동품 가게의 외진 구석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던 낡은 지게문.

애당초 그것을 구입할 때 격조 높은 한옥의 분위기를 느껴보려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박 넝쿨 올린 초가지붕 너머 파란 하늘에 걸린 흥시감이 서럽  
던 옛집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곳은 밤이면 먼 강물에 달빛 윤슬이 흔들리고 구릿빛 세월에 그을린 낡은  
지붕에 애잔한 별빛이 해금소리처럼 잦아드는 곳.

해마다 장독대 한켠에선 접시꽃이 무더기져 피어나고, 겨울이면 칼바람에  
쫓겨 온 아이들이 아랫목 이불 밑으로 파고드는 작은 발가락들의 소란이 고스  
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출발지를 모르는 사람이 종착지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인생길은 나날의  
세월을 한 땀 한 땀 기워나간 옷 슬기처럼 이어진 길이다.

그 지나온 삶의 행적 속에 가라앉아 있는 생채기를 잘못 건드려 옛 상처가  
덧날지라도 사람은 때로 그 출발지로 돌아갈 기회가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그 소종래(所從來)의 먼 길을 되짚어 갈 수 있는 비밀의 문이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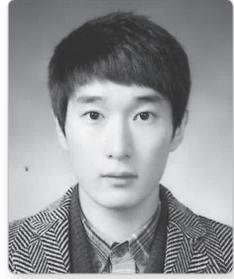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불빛과 분주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도심의 밤거리는  
신화가 사라진 빛의 제단이어서 그 어디에서도 내 비밀의 통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을 찾을 수 없다.

삶의 날들이 디지털의 속도로 짓쳐가는 요즘, 도시로 도시로 하나 둘 떠나  
가 빈집들만 을씨년스러운 내 고향처럼 이 낡은 문짝이 매달려 있던 누군가의  
옛집 빈터에서도 해마다 접시꽃만 피고지려나?



# 동상

경남 밀양시  
이 기 범



## 수상소감

어린시절의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써이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문예대전에 수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솜씨라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수상을 하게 되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서, 한 분야에 매진하여 얻게 되는 것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글짓기에 취미를 두고 노력하여 다른 기회에도 출품을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하기 위해서

뚜뚜뚜-

시끄러운 알람소리에 눈을 떴다, 현재 시각 아침 6시 50분.

긴장감에 밤새 뒤척인 탓인지 두 시간도 채 잠들지 못했던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욕실로 향했다. 치약을 가득 문힌 칫솔을 입에 넣은 채 속으로 되뇌었다.

“할 수 있어, 그동안 열심히 해왔잖아.”

오늘은 2017년 10월 28일, 코리아당구왕대회 4구부문 왕중왕전이 열리는 날이다. 코리아당구왕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당구대회로 내가 출전하는 4구 부문의 경우 프로선수가 따로 없기에 국내 최강을 가리는 대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차에 걸쳐 본선대회가 치러지고 각 차수별 우승자 5명과 준우승자들 중 상위 3명이 왕중왕전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되는데 나는 지난 6월 3차대회 우승자의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우연히 당구장을 찾은 후로 나의 목표는 당구로 교내 1인자가 되는 것이었다. 몇 달 정도 당구장을 내 집처럼 드나든 결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고 교내를 넘어 타 학교의 학생들과도 겨루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강적과 마주하게 되었다.

옆 학교에서 당구를 가장 잘치던 그 애는 나에게 큰 벽이었고, 천재가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다. 한국과 중국의 탁구 인프라에 차이가 있듯이

열댓명 정도가 당구를 즐기던 우리학교의 1인자가 수십명 이상이 당구를 즐기던 옆 학교의 1인자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나의 목표는 조금 더 커졌다. 지역 내 고교 최강자가 되자고 다짐한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당구를 치는 것은 실력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한 나는 그날부터 야자시간에 몰래 빠져나와 홀로 연습에 매진했다. 당구장 사장님의 배려 덕에 하루 용돈 3천원을 갖다 바치면 그날은 몇 시간이고 혼자 연습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불안했던 것들이 자신 있게 되고, 자신 있던 것들이 확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수 달간 반복하면서 노력이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 어느새 내 실력은 옆 학교 1인자를 훌쩍 뛰어넘어 당구장 사장들 사이에서도 뒤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이후 고교를 졸업한 나는 우리 지역에서 최고수가 되어보자는 원대한 꿈을 갖게 되었다. 당구장에서 연습하는 것만으로는 비용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50만원으로 외가택의 빈 외양간에 중고당구대를 설치했다. 개인 연습실의 탄생이었다.

수업이 없는 날은 아침 7시 첫 버스로 외가택에 들어가 막차인 저녁 9시까지 쉬지 않고 당구연습에만 몰두했다, 학교 수업이 있는 날에는 과모임과 수업과제를 뒤로 한 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당구장에서 연습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같은 행위의 반복이었고, 집중력을 너무 쏟은 나머지 정신이 혼미할 때도 있었으며, 때론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

누가 그랬던 것인가,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고. 아니었다, 내가 겪은 바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목표로 하는 경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즐기던 것들을 즐기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왔다. 그때 당구에 있어서, 아니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철학적이라 느낄 법도 한 해답을 얻었다.

즐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수없이 찾아오는 좌절과 고통의 순간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거로구나.

해답을 얻은 후로는 좌절의 순간이 오히려 반갑게 다가왔다.

당구를 시작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미 4구 부문에 있어서 나는 비공식이지만 한국 신기록을 능가하는 기록을 갖고 있었고, 우리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이름난 고수들조차 적수가 되지 않았다. 이제 정말로 당구선수를 직업으로 삼아 활동할 시기가 온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너무나 달랐다. 부모님의 반대, 당구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 당구선수라는 직업이 가진 생계에 대한 한계...

당구를 선택해서는 밝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몇몇한 내가 되고 싶었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당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당구에 매진했던 시간과 열정, 그리고 노력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당구라는 단어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살아온 그동안이 거짓말 같았다. 하루도 당구를 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나였는데 신기하게도 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삶의, 아니 꿈의 의욕을 잃었던 것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것이 내 앞에 놓여진 유일한 길이었다. 다른 길은 없었다. 행복하기 위해서.

당구를 잊고 1년 여 공부 끝에 나는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 부모님은 이제야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듯 했다. 잘한 일이었다, 당구를 포기하고 공무원이 된 것이 최소한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상대방의 부모님께 내 직업

을 몇몇이 밝힐 수 있었을 때, 내가 가장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문득 당구를 포기했던 그때의 선택이 옳았었구나 하며 쓴 웃음이 지어졌다.

공직생활에 입문한 지 한참이 지난 어느날 아버지께서 규모가 아주 큰 당구 대회가 열린다며 나가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하셨다. 나의 주 종목이었던 4구 대회 중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와 상금이 걸린 대회였다. 대회의 이름 또한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 코리아당구왕대회.

당구를 잊은 지 8년이 지났지만, 대회에 출전하기로 결심했다.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서였다. 잊고 있던 꿈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다.

몇 달 간의 연습 끝에 예전 실력을 거의 회복한 나는 코리아당구왕 3차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나의 당구실력이 신문과 방송매체에서 약간은 화제가 되었을 때 묘하게 뿌듯했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더 큰 산이 남아있었다. 바로 우승자들과 준우승자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최종 왕중왕전이였다. 여기서 우승하는 것이야 말로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는 일이었고, 내가 가장 자신있는 한 분야에서 국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8년 전 잊어야만 했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기회였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본업과 육아는 잠시 뒤로 한 채 꿈을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나의 상대들은 대부분이 당구장을 운영하거나 전직 프로선수 출신으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당구와 함께하고 있을 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꿈 이전에 현실에 살고 있었고, 당구인이기 전에 내 딸의 아버지였기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선 본업에 충실해야만 했다. 업무에 대한 감사 기간이 겹쳐지면서 대회 준비는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나는 한 가지를 생각해냈다. 저녁을 굶고 그 시간에 연습에

매진하는 것이었다. 와이프의 배려가 더해지면서 평일에는 하루 1~2시간, 주말에는 2~3시간의 연습시간이 생겨났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했다. 까마득한 횡수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던 스무살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괴로웠고 또 힘들었다. 당구가 즐거웠던 때가 언제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딸 아이를 씻기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잠을 재웠다. 아기가 잠들고 아내가 잠든 후에도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두려움과 긴장감은 대회가 다가올수록 더욱 커졌다. 이미 지난 대회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터라 내 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것이 뻔했다. 긴장감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을까, 수많은 걱정들이 나를 극한으로 몰아붙였고 그러한 시련에도 꾸준히 반복된 연습은 결국 대회 직전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하였다.

대회를 하루 앞두고 참가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기 전 딸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생각했다.

“아빠 잘하고 올게, 꼭 우승해서 우리 딸에게 자랑스런 아빠가 될게.”

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당구클럽이었다. 방송용 카메라 여러 대와 눈부시게 밝은 조명, 그리고 비장한 표정의 참가선수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를 보기 위해 먼 지역에서 경기장까지 와주신 감사한 분들도 계셨다. 이제껏 살아온 시간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미 내 당구는 완성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감은 충분했다. 잘하고 오라는 부모님과 아내의 당부를 끝으로 나는 내 당구에만 오롯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대회 결과는 놀라웠다. 8강전, 준결승, 결승 모두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그 뿐이 아니었다.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나는 1이닝 만에 경기를 마무리했다. 경기시간 40분을 모두 소진하면서 521점이란 대기록, 더 이상이

없다고 할 정도의 완벽한 게임을 해낸 것이다.

아들의 우승을 의심치 않고 경기 내내 믿어주며 응원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의 꿈을 위해 독박육아를 마다치 않은 아내, 내 경기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 대회장까지 와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도 남을만한 경기를 선보였다. 시합이 끝나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마시던 커피 한 잔의 달콤함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집에 돌아온 것은 열두시가 넘어서였다. 꿈을 이뤄냈다는 성취감과 뿌듯함의 탓이었을까, 너무나 피곤한 밤이었지만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동안의 당구를 위해 투자한 땀과 노력, 그리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해냈다, 해낸 거야...”

당구를 치는 동안 상대했던 사람들, 느꼈던 감정들, 떠올랐던 생각들, 그 모두를 되짚어보며 그날 밤은 지나갔다.

다음날 처갓집에서 뛰놀고 있는 딸아이와 마주했다. 아빠하며 달려오는 딸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알 수 없는 벅차오름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알 수 있었다. 당구를 꿈으로 선택했던 것, 꿈을 포기하고 공무원이 되었던 것, 그리고 다시 꿈을 이뤄내고자 노력했던 것...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였다.

대회가 끝난 후, 한동안 나의 경기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큰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SNS나 방송에서 소개가 되기도 했으며 인터뷰를 몇 번이나 하기도 했다. 팬이라는 분들이 찾아와 싸인을 해주고 사진을 함께 찍는 일도 잦았다. 신기했다.

이후에도 꿈만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금전적 이익을 볼 만한 여러가지 제안, 다음대회에도 출전해달라는 요청, 게다가 어린 시절의 꿈인 당구선수 등

록에 대한 권유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고사하고 이제는 본업과 육아에 충실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동안 딸과 아내에게서 조금은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일구어나가는 것이 꿈을 이루어 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내가 진정 행복했던 순간은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딸 아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알았다. 내가 진정 이루고자 했던 꿈은 당구선수로 이름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과 여러 매체들은 나를 천재라는 단어로 포장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누구보다 행복하고자 힘껏 노력했던 사람일 뿐이었다.

시간이 꽤나 흐른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더 크게 성장할만한 기회를 왜 스스로 놓아버렸는지에 대해 물어온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한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 동상



경기도 오남고등학교  
박 명 서



## 수상소감

작년 10월, 고교 졸업 40주년 기념으로 동창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나이를 먹으면 추억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 참가한 90여 명 중엔 베트남은 물론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온 친구도 있을 정도로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다. 여행을 가기 며칠 전 이 '코스모스' 졸작을 카톡방에 올렸더니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학창시절이 잠시 전인 듯 새롭기만 하다고 기분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이 글의 내용과 같은 코스모스의 추억이 있노라고 공감해주었다. 동창회장은 슷제 내게 제주도 기념행사 때 부를 노래 가사를 직접 부탁하기도 하였다. '동창생'이라는 다음의 노래 가사는 순전히 '코스모스'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나 외로울 때 허공에다 불러 본 이름  
너 괴로울 때 꿈속에서 떠오른 얼굴  
어디서 무얼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오늘도 별을 헤며 네 안부를 물었다.

허허로운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떠나도  
따뜻한 위로로 내 곁을 지켜준 것은  
꽃보다 아름답던 그 시절의 추억뿐  
친구여, 잊지말자 교정에서 나는 정

아! 그리워라. 흘러간 학창시절  
은하처럼 영원히 흐를 우리의 우정

아! 그리워라. 흘러간 학창시절  
은하처럼 영원히 흐를 우리의 우정

## 코스모스

싱그러운 꽃망울로 기쁨을 주던 코스모스가 하나 둘 연홍색 꽃잎을 터뜨렸다. 입추가 지나면서부터는 더 활짝 피어 본연의 자태를 뽐내기 시작한다. 새벽에 일어나 거실문을 열면 향긋하고 은은한 꽃내음이 나를 반긴다. 재작년 꽃 심기 행사에 참가해 직접 심은 것이 해마다 스스로 씨를 퍼뜨려 이제는 집 앞의 '왕숙천 길'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다. 고맙고 사랑스러워 오며가며 자주 눈길을 준다. 때로 꽃이파리들을 쓰다듬어보기까지 한다. 꽃들도 기분이 좋은지 간들거리며 내 손가락을 간질인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과 함께 교문길, 신작로, 마을길 할 것 없이 길가엔 으레 코스모스 싹을 심었다. 비 온 다음 날 길 옆 땅바닥을 조막만한 호미로 벽벽 파내고 심은 코스모스는 들판이 황금색으로 물들기 전에 꽃을 피웠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언제나 등하꽃길에 나의 동무가 되어주던 꽃이다. 버튼처럼 생긴 물 오른 봉오리 따서 친구 얼굴을 향해 물총을 쏘다. 꽃잎을 따 손톱에 붙이고 도깨비놀이를 하다가 싫증을 느끼면 이번엔 꽃대궁을 꺾어 덩성 덩성 흘잎으로 따낸 후 허공에 빙글빙글 돌리는 헬리콥터놀이를 하였다. 조그만 바람에도 하늘거리는 모습이 신기했다. 가늘고 긴 것들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꽃잎에 앉은 고추잠자리도 함께 흔들리는 걸 즐기는지 도망가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 코스모스에 대한 기억은 더 특별하다. 시심이라 하기엔 뿔하지만 아무튼 한 사물을 떠올리곤 그에 대한 생각을 최초로 마음에 담아본 것이 바로 코스모스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먼저 5학년 때 백일장에서다. 글제가 '코스모스'였다. 선생님께서 나를 회대까지 올려놓고 상도 주셨다. 내 스스로 대견해서 상장을 끼워 둔 앨범 귀통이에 연필로 적어두었다.

장독대에 핀 접시꽃  
할머니가 좋아  
그냥 서서 웃고 있지만  
등갯길에 핀 코스모스  
내가 좋아  
손까지 흔들며 미소짓네.

정말 그랬다. 10리가 넘는 등갯길이었지만 나는 코스모스가 있어 무료하지 않았다. 꽃잎에 앉았다가 꿀 따고 이동하는 벌들을 따라 오다보면 금세 학교가 보였다.

내가 코스모스를 열렬히 좋아하게 된 건 순전히 세라 덕분이다. 흥세라. 당시 이름 끝자가 '희' 아니면 '순'이 대부분이던 시절 그 애는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4학년 때 전학을 온 세라는 5학년 때 나랑 짝꿍이 되었다. 당시 전체 학생 80여 명 중 60% 이상이 군인가족인 우리 학교는 세라같은 전학생이 많았다. 세라와 함께 청소당번일 때 그 애가 나의 숙제를 도와주는 대신 내가 그 애 뒤편까지 청소를 해준 적이 있는데 내가 세라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아이들은 하트 모양에 내 이름과 세라 이름을 각각

써넣고 놀려댔다. 나는 그런 낙서를 보고 신성 모독을 당한 것처럼 서럽게 울었지만 세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넘겼다. 오히려 세라는 얼마 후 손수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내게 건넸다. 코스모스 꽃잎 카드였다. 가운데 돌출되어 있는 꽃봉오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덟 개의 꽃잎을 따서 말린 후 색깔별로 다시 배치하여 풀로 붙인 모습이 꼭 무지개 같았다. 하늘색, 하얀색, 분홍색, 진홍색으로 배열되다가 다시 하늘색 꽃잎부터 차례로 붙여놓아 오색빛깔 바람개비 같기도 하였다. 그 꽃장식 밑에 크레용으로 Merry christmas라고 쓴 글씨가 기억난다. 누나가 답장을 하라며 산타 그림이 디자인된 카드를 한 장 내게 주었지만 나는 답장을 하면 아이들이 더 놀릴까봐 망설이다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개학을 하여 며칠 후인 종업식을 하는 날. 선생님이 세라를 앞으로 불러 세웠다. 세라가 군인이신 아버지의 근무지 이동 때문에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고마웠어. 너희들과, 즐겁게, 지낸 시간, 잊지 않을게. 이 다음에, 다시 만나자.”

세라는 우리에게 인사를 마치고는 손을 흔들어 보였다. 세라가 떠듬떠듬 울먹이며 말하는 동안 나 역시 속울음이 나와 얼마나 참기 어려웠는지 모른다. 성탄절 때 남이 뭐라 하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전해줄 걸, 미안하고 서운한 마음에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6학년 때 백일장에서도 나는 또 입선을 하였다. 글제가 ‘코스모스’를 포함해서 ‘귀뚜라미’ 등 몇 개 중 택1하는 거였는데 나는 전처럼 ‘코스모스’를 선택하였다. 당시 내가 세라를 의식해서 그렇게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쓰고 나서 읽어보니 세라가 생각났다는 편이 더 맞다.

네가 먼 길 떠나면서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해서  
 길가에 끝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다.  
 바람 불면 온다고 해서  
 까치발로 서서  
 손을 흔들고 있다.

선생님이 잘 썼다고 칭찬해주시며 글 속에 '떠난 사람'이 누구냐고 여쭙보셨다. 그러면서 혹시 5학년 때 세라 아니냐고 웃으셨다. 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모른다고 말했다.

학창시절이 잠시 전인 듯 새롭기만 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인지 기억 하나도 흐려지지 않았는데 어느덧 반 세기가 흘러갔다. 추억이란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추억으로 산다고 한다. 노년기를 바라보는 나에게도 물론 많은 추억들이 있다. 그 추억의 정점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천진난만하면서도 예쁜 한 소녀가 손을 흔들고 있다. 세파에 시달릴 때 그 모습이 생각나 가슴에 품고 살았다. 꿈속에서나 있을 것 같은 그 소녀를 꼭 한번 보고싶었다. 마음을 조아리며 인터넷 이곳저곳에서 친구찾기를 시도했으나 쉽지 않았다. 오십여 년 동안 갈망하며 바라던 마음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이제는 접기로 했다. 대신 순정을 간직하기로 했다.

코스모스 꽃말은 순정이라 한다. 순정이란 순수한 감정이나 애정이다. 순수한 마음이란 곧 소년 소녀의 마음이다. 동화작가 정채봉님은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슬프게 한 일들은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이런 것들이 슬펐다고 한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버린 것, 새 소리에 무심하게 응대하지 않은 것, 밤 하늘의 별들을 세지 못한 것.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지만 그래도 자기 안에 소년 소녀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길거리마다 코스모스가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순정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는 오늘도 회상에 잠긴다.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바라보면서 아득히 흘러간 어린 시절을 만난다. 순정에 젖는다.



# 동상

경기도 안곡초등학교  
권 덕 은



## 수상소감

수상소식을 듣고 흥천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 소리, 끊임 없이 달려오는 낙산의 하얀 파도, 단아한 함박꽃과 그 향기, 산 능선의 여린 잎들, 쏟아질 듯 드리운 수많은 별들, 그리고 은하수...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중한 것들이 까막눈처럼 보이지 않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끝 무렵 쓴 부족한 글로 운 좋게 상을 받습니다. 태어난 의미를 모른 채 내 안에 갇혀있던 시절, 십이 년간 생일을 축복해 주며 나 역시 세상의 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준 이선생님, 언제나 너머의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글을 통해 마음껏 꿈 꿀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끌어 주시는 권정우 교수님, 부족한 나를 살뜰하게 사랑해주는 가족과 길벗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 꽃송이

풍동 별당에 두고 간 그녀의 골담초에 드디어 꽃이 활짝 피었다. 애니시다라고 불리는 서양 골담초처럼 풍성한 꽃과 잎을 다닥다닥 달고 있지는 않지만, 꽃이 너무 예뻐서 농장에서 가지를 얻어다가 삼목하여 키웠다는 그녀의 노력 때문일까? 아직 어리지만 비스듬히 누운 본가지에서 휘휘 늘어지게 뻗어 나온 잔가지의 수형과 안개꽃처럼 핀 노란색 나비 모양 꽃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빛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담채화를 보는 듯 했다.

주말을 지내고 풍동 별당에 들어섰을 때 가장 나를 반긴 것은 만개한 골담초였다. 아!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다. 주변으로 몰려드는 아이들을 물리치고 성큼성큼 걸어가 골담초와 눈을 맞췄다. 바라볼수록 자태의 우아함이 나에게 스며든다.

삼년 째 쓰고 있는 이 교실을 나는 풍동별당이라 부른다. 풍동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이곳은 꽤 춥다. 한 길 건너 신도시 대로변에 꽃잎이 흩날릴 때, 학교 주변 어린 빛나무들은 꽃봉오리만 잔뜩 문채 소식이 감감하다. 좀처럼 눈이 녹지 않는 마을의 학교, 그 안에서도 앞 건물에 가리고 본관과 후관을 잇는 구름다리애 가려 햇빛 구경이 어려운 탓에 냉골인, 일부러 찾아오지 않고서는 오며가며 인사하기도 어려운 후관 1층 구석진 곳에 위치한 내 교실은 말 그대로 별당이다.

이렇게 열악한 교실에서 나는 삼년 째 화초를 키우고 있다. 아침에 출근하

면 삼십여 개의 작은 화분들을 창밖으로 내어 놓는 것이 하나의 일과이고, 퇴근시간 무렵 화초에 물을 주고 바람에 말린 후 들여놓는 것도 다른 교사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나의 일과이다.

야생화는 여름만 무사히 넘기면 겨울에 그대로 교실에 두어도 봄이 되면 다시 싹을 내밀기 때문에 해를 넘겨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입학식 날 막 월동이 끝난 식물들 옆에 종이꽃과 앵초를 심어 창가에 올려둔 것을 보았는지 그녀는 3월 마지막 날 꽃을 잔뜩 가지고 교실에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우리 반 빈이의 엄마다. 그녀와의 만남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이 학교에 전근 왔을 당시 학교운영위원이었던 긴 생머리의 그녀와 몇 차례 회의를 가졌고, 학력캠프를 운영할 때 첫째 아들을 가르치기도 하여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 2월 처음 들어간 야생화 화원에서 나는 그녀를 만난 것이다.

빈이 엄마는 다육식물과 야생화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넨 날, 값은 치른 화초보다 더 멋진 작품을 얻어왔다. 그것이 미안하여 물건을 팔아주려 세 번쯤 더 들렀으나 직접 만든 도자기에 화초를 심어주며 도자기 값도 받지 않고, 고르는 다육식물마다 키워보면 별로라며 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 농장에서 가져온 것이니 가져가 키우라며 히메사가 붓꽃을 슬쩍 안겨주는 그녀였다. 번번이 미안하여 가고 싶어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빈이 엄마는 화원을 운영하며 큰돈을 벌 생각은 없어 보였다. 베란다에서 야생화를 키우다가 넘쳐서 취미로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태어나서 한 일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며 자리를 비울 수 없고, 노동투성이인 가게를 꾸리는 사장의 입장으로는 힘들어보였다.

화원을 하며 틈틈이 도자기까지 굽는 그녀는 바빴고, 장남인 우가 6학년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화원에서 본 적 있던 둘째가 입학하여 우리 반에 배정되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입학 초 필요한 서류와 싸인이 필요한 안내장들을 내지 않는 빈이가 여러 날 끝에 겨우 챙겨온 한 장의 정보공개 동의서에서 나는 그녀의 이름을 발견했다. 알림장도 살피지 못하는 듯하여 여러 차례 문자로 필요한 부분을 안내하였지만 잘 챙겨보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 같았다. 그러던 그녀가 수선화, 히아신스, 통조화, 심산앵초, 게이비 붓꽃, 골담초를 넣은 무거운 화초박스를 들고 교실에 나타난 것이다.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할 법도 한데, 가져온 야생화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더니 곧 화원을 정리하러 한다고 했다.

“그럼 그 많은 식물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한적한 마을의 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마당에서 키우려고 해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말끝에 아쉬움과 섭섭함이 느껴졌다. 대차고 엉뚱한 사내아이를 방임형으로 키우는 무관심한 그녀를 다른 선생이 만났다면 아마도 이해하기 힘든 학부모였을 것이다. 이미 꽃으로 인연을 맺어 그녀의 해맑은 마음과 재주를 보아버린 탓에 나는 빈이 엄마를 학부모라는 틀에만 가두어 보아지지 않았다.

몇 년간 공을 들이고도 ‘화원이 망했어요.’라는 빈이의 표현대로 이유가 무엇이든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된 그간의 어려움을 짐작하면서도 나는 하루 종일 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녀가 그저 부럽기만 했다.

“어떻게 교실에서 야생화를 키울 생각을 하셨어요?”

“옛날 화원에서 만났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관심이 생겼어요.”

이 말이 ‘당신이 작품처럼 심어 준 셋노란 단추 같은 아즈마 국화가 바로 그 시작이었지요.’라는 뜻인 줄도 모르고 그녀는 교실의 야생화를 보며 웃고 있다.

언제부턴가 2월만 되면 몽클한 뜨거움이 내 가슴속에서 샘솟기 시작한다.

이 뜨거움은 단순히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일까? 아니면 나를 감싸고 흐르는 어떤 기운이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체를 알 수 없다. 몸은 늘 고단하고 피곤하여 아래로 푹푹 꺼지는데 마음은 자꾸만 위로 슬금슬금 들뜬다. 이제 막 봄을 시작하려는 대지의 기운을 감지하고 나면 잠시 살랑거리는 때 이른 봄바람에도 나는 정신이 혼미해지곤 한다.

그래서 작년에는 모임에서 생일기념으로 주말농장 땅을 선물 받아 소소한 경작을 했다. 혼자 여덟 평쯤 되는 밭을 일구고 모종을 심고 가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힘을 빼고 나면 그 뜨거움이 해갈이 될 것 같았다.

계으른 나를 얹잡아보고 비닐멀칭도 하지 않아 수시로 무성해지는 밭을 김매기 할 때, 요소비료나 농약 대신 친환경 처치를 해보겠다고 시간을 보낼 때, 쉼아내기나 씨뿌리기마저도 굶땀 뜨거운 햇볕 아래서 기미 낀 얼굴을 한참동안 더 태울 때, 100년 만에 나타났다는 속 타는 가뭄에 이틀 꼴로 밭에 나가 무거운 물조리개를 여덟 번씩 짊어지고 물을 나를 때, 나는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걸까 회의감도 들었지만 일을 마치고 나면 위 아래로 분리된 마음과 몸이 다시 하나가 되는 개운함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가꾸는 일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다.

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도 있는 법이다. 딸이 주말농장이 지 농사는 주말에만 나가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장마가 오기 전까지 퇴근하고 매일같이 농장에 들르면서 서서히 체력이 고갈되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살림은 엉망진창이고, 남편과 아들의 불만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무엇보다 베란다에 가득했던 야생화들이 제대로 돌보지 못해 상태가 좋지 않았다. 혼합한 녹소토나 적옥토가 수분을 잡아준다고 해도 물빠짐을 고려해 마사를 섞어 심는 야생화는 초여름부터는 매일 한 번씩은 물을 주어야 한다. 매일 화분에 물을 주고 윽기는 일을 등한시하면서 빈이 엄마가 심어주

어 3년 동안 소중히 키워 온 아즈마 국화와 흥가고소 앵초, 그리고 쑥부쟁이도 말라 죽었다. 잎이 말라버린 나무들은 그늘로 옮겨 관수하며 겨우 뿌리를 살려냈으나 초화들은 결국 회복되지 못했다. 주인의 무관심으로 세력이 약해지거나 근근이 명줄을 이어가는 야생화를 지켜보면서도 농사에 너무 힘을 쏟은 탓에 마음을 써주지 못한 것이다.

올해도 2월이 되자 어김없이 몽근한 뜨거움이 샘솟기 시작했다. 이 뜨거움을 모르는 척 가만히 두면 가슴이 아리고 아려서 몸이 배배 꼬인다. 지난 겨울, 칠년을 함께 산 식구 같은 올마 두 그루를 죽이고 얻은 죄책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농장을 접고 베란다 화초를 제대로 가꾸기로 결심했다. 마음이 아지랑이처럼 들떠 일렁일 때, 몸이 참을 수 없이 배배 꼬일 때 나는 화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화원의 식물들을 원 없이 구경하고 화초를 사와 흙을 만지며 놀다보면 내가 엄마인지, 아내인지, 선생님인지, 여자인지, 사람인지도 짱그리 잊고 무아지경이 된다. 한참을 그러다 보면 일렁이는 마음은 서서히 가라앉는다. 직장에서 시달려 마음이 고단할 때면 교실의 식물들을 바라보며 상한 잎을 정리하거나 흙을 가지고 논다.

언젠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할 것인가라는 묵은 화두로 직원들과 이야기꽃을 피운 적이 있다. 그럴 것이라는 극소수의 대답과 절대로 아니라는 대다수의 대답을 들으며 말을 앓고 있던 내게 마지막으로 시선이 모였다.

나는 다음 생에선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풀꽃으로 태어나 하얀 꽃을 피우고 스스로 씨앗을 맺어 퍼뜨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기대에 맞지 않는 말을 덧붙이면서 어찌면 나는 전생에 풀꽃이었거나 풀꽃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흙덩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나의 마흔 번째 생일날이다. 겨울비 같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날씨만큼이나 무거워진 몸을 일으켜 베란다 밖으로 나왔다. 진한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자리에 앉는 순간, 아! 오랫동안 기다렸던 상록아리가 만개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둠 속에서 환한 전등같이 빛나는 저 녹화의 미색. 나는 또 정신이 혼미해진다.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마흔이 된 지금까지도 나는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런 나에게 하느님은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기회를 주신 걸까? 문득 몇 년 전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축하한다고, 이 세상에 오시어 자신에게도 기쁨을 주어서 고맙다던 지인이 보낸 생일축하 글이 떠올랐다. 하느님은 말이다. 이 세상 곳곳에 피어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아름다움들을 흠뻑 맛보아 주라고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아닐까? 그 고귀함을 알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했던 건 아닐까? 여기 셀 수 없이 많은 하얀 꽃송이들이 아름다움을 알아주어 고맙다는 듯 새신부의 부케처럼 환하게, 환하게 웃고 있다.



# 동상



경기도  
유 미 경



## 수상소감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극진히 보살펴 주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미안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처음에는 이를 주제로 글을 써내려가며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마치 대나무 숲에 몰래 들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던 한 신하처럼, 어머니에 대한 저의 숨겨둔 마음을 세상에 터놓고 나니 후련한 마음이 듭니다.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호자

며칠 째 엄마는 말이 없었다. TV도 꺼놓은 채 그저 방안에 누워만 있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 ‘씻고, 얼른 자.’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평소 살가운 딸이 아닌 나는 어두운 방안에 돌아누운 엄마를 흘금 쳐다보고는 이내 문을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갔다.

사실 나는 엄마가 누워있는 모습을 본적이 거의 없다. 엄마는 항상 바빴다. 열 다섯 살, 한창 꽃다운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 작은 공장을 옮겨 다니며 부지런히 일했고, 아빠를 만나 스무살 어린 나이에 언니를 낳았다. 그리고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다시 일터로 나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미싱을 돌렸다. 2년 후 내가 태어났고, 엄마는 더욱 바빠졌다. 두 아이의 엄마, 아내로서의 짐이 더 무거워졌다. 149센티 작은 키의 엄마가 짙어진 삶의 무게는 점차 엄마의 귀를, 손목을, 무릎을, 허리를 망가트리기 시작했다. 못 사람들 쓰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다.’는 상투적인 표현은 정작 엄마 앞에서는 감히 꺼내기 힘든 어려운 말이었다.

학창시절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를 제외하고, 학교에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엄마를 위해 언니와 나는 학원을 다니는 대신 부지런히 독학으로 공부

했고, 각자 원하는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했다. 그것이 우리가 엄마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내가 기억하는 한 우리에게 가족여행은 허락되지 않았다. 아빠의 직장은 자주 바뀌었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버티던 직장은 IMF이후 기울어갔다. 그리고 이내 문을 닫았다. 상심한 아빠는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시골 빈 집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생계에 보탬다. 그런 아빠의 실직에도 엄마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더 독해졌다. 엄마는 일에 있어서만큼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데다가 직장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을 자존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파도 쉬지 않고 일을 나갔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엄마의 핑계일 뿐, 모든 것은 네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엄마의 거룩한 인내에서 비롯된 희생이었을 게다.

‘지이이잉’

요란한 진동에 핸드폰을 꺼내보니 아빠였다. 술에 잔뜩 취한 듯 했다.

“야야, 엄마가 아픈거가터. 니가 신경 좀 써야긔다. 엄마한테 그.. 저기.. 좀 물어 봐, 잉?”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어디가 아픈데?”

“요새 니 엄마가 기침을 많이 했는데, 그.. 기침하는데 피가 나왔다고 안하. 병원 가보라고 했는디..”

“...알았어.”

순간 온 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회사를 나섰다.

‘피를 토했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운전대를 잡았다. ‘침착하자!’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고속도로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생각을 떨치려 하면 할수록 온갖 위험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어느새 비릿한 맛이 입안 가득 맴돌았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안방으로 향했다. 역시나 엄마는 방에 누워있었다. 나는 가만히 옆으로 앉아 떨리는 목소리를 꿀꺽 삼키고 나직이 물었다.

“아프다며.. 병원에 갔다 왔어? 의사가 뭐래?”

부스스한 모습의 엄마가 몸을 틀고 일어나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얘기했어? 별일 아니야.. 폐 쪽에 모세혈관이 터졌대. 그래서 염증이 생긴거 같다고.. 약 먹으면 된대. 항생제를 줬는데 약이 센가봐.. 기운이 없고.. 그렇네.”

“원인도 모르고? 그냥 약만 먹으래?”

“응, 약먹고 차도가 없으면 입원해서 주사 맞으라고 그러긴 했어.”

“어느 병원에 갔는데? 또 동네 병원 간 거 아니야?”

“거기..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신경 쓰지마...”

엄마는 말끝을 흐리다가 어서 씻고 쉬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는 다시 돌아누웠다.

○○병원. 3년 전 엄마의 인대가 끊어진 것도 모르고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냈던 그 병원이었다. 그 당시 통증이 점차 심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등쌀에 못이겨 엄마는 병원을 몇 차례 바꿔 진료를 받았고, 이내 ‘인대가 끊어졌다’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준 어느 대학병원 의사의 권고에 따라 수술을 받았다. 회복하는 데는 두 달 이상이 소요됐다.

그렇게 뼈아프게 고생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과거의 '오진 병원'을 다시 찾아간 이유가 대체 뭘까. 나는 그런 엄마가 답답하다가 갑자기 불쌍해졌다.

어린 시절 엄마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세상의 어떤 문제도 척척 잘 처리하는 슈퍼우먼같은 존재였는데, 언젠가부터 나 없이 핸드폰 기기를 바꾸는 것도, 혼자 지하철을 타고 먼 길을 가는 것도,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아.. 이제 내가 그의 보호자가 되어줄 차례가 온 것이다.

만삭인 언니에게는 전화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나는 그날 이후 미친듯이 엄마의 병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그중 한 온라인 카페에서 2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폐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병원 상담 후기글이 엄청나게 올라 있었는데, 엄마와 비슷한 증상인 사람들 중 일부가 결국 폐암 진단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결국 며칠 후 나는 엄마를 데리고 □□ 대학병원을 찾았다. 이전 병원의 진료기록을 검토하던 담당 의사는 CT만으로는 폐에 생긴 덩어리(결절)가 일반 종양인지 암인지 확인이 어려우니 2주 뒤 추가 검사를 진행해보자고 했다. 그렇다할 성과도 없이 그렇게 다시 일주일이 흘렀다.

엄마는 점점 말이 없어지는 대신, 불안과 공포감이 걸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었다. 어느날 말도 없이 엄마는 다른 대학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호흡기 내과 의사가 아닌, 폐암 전문 의사에게 배정 되었다. 담당 의사는 며칠 입원 후 정밀 검사를 진행해보자고 했고, 엄마는 그렇게 △△대학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다시 지옥 같은 일주일의 지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병원으로 가는 차안에서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진료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내내 마찬가지로였다. 이윽고 간호사가 엄마의 이름을 불렀고,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엄마는 마치 큰 죄를 짓고 사형선고를 기다리는 사람마냥 고개를 푹 떨군 채, 바짝 마른 입술을 -절대 열리지 않을 것처럼- 굳게 닫고 있었다. 의사가 분주히 마우스를 딸깍딸깍 클릭하더니 마침내 운을 뚫었다.

“지난주에 조직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부위가 위험해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결핵이나 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절이 현재 1.5센티 크기에서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3개월 후 검사를 진행했을 때 크기 변화가 있다면 절제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암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내가 물었다.

“일단, 결절부위에 석회화가 관찰되는데 이런 경우 암일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검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개월 후에 검사해보시죠.”

애매한 의사의 설명에 나는 좋아해야 할지, 걱정을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의 말이 끝나자 엄마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는 다른 말보다 당신이 간절히 기다리던 말 -‘결핵이나 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장 잘 들린 모양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말했다.

“미경아, 엄마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을거야.”

그렇다. 그동안 엄마는 하고 싶은 것 보다는 ‘해야 할 일’에 지나치게 충실했다. 이제는 쉬어가도 될 터이었다. 당신의 고된 삶의 짐을 나눠도 될 만큼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말이다.

“응,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아끼지 말고 돈도 쓰고, 여행도 다니고. 제발 그렇게 살아.”

“응, 그렇게. 엄마, 꼭 그럴거야.”

당장 아무것도 명확한 건 없다. 다만, 내로라 하는 명의들이 감히 ‘암’이라 진단하지 못했으니 아닐 것이라고 믿는 쪽이 현명할 것이다. 그것이 옳다. 설사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 해도, 그것이 결코 지는 싸움이 아님을 안다.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는 3개월 뒤에도 ‘단순 결절’ 진단이 나오는 것이고, 엄마가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즐겁게 영위하는 것이리라. 지금 처럼 웃으면서.

나는 여전히 살가운 딸은 아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곁에서 엄마를 응원하고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의 ‘보호자’이니까 말이다.

# 동상



전)울산광역시  
김 갑 주



## 수상소감

꽃피는 봄이 퍽이나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꽃은 곧 봄 한 자락 안고 그 아쉬움을 달래기라도 하듯 꽃 진 자리가 지금은 더없이 초록으로 눈부십니다. 퇴직 후 상념의 치유를 위하여 여러 해를 습작하면서 치유도 안 되는 수년의 낙방을 또렷이 안고 습작의 수인이 되어 간혹 잠이 오지 않아 글이 흐트러져 걷어치우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같은 단비를 적셔주니 정말 기쁩 뿐입니다. 이제 축 처진 시간의 자국을 덮어주는 보람을 느낍니다. 허기진 마음 언저리를 활짝 펴주는 그지없는 소식으로 몸에 갇힌 아픈 문자들이, 박제된 기억들이 깨어날 듯합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기회와 충고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여러 모로 부족한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과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가늠을 돌며 슬프거나 기쁘거나 한 줄이라도 힘이 다할 때까지 한 뼘 한 뼘 김겠습니다.

## 손

나는 오늘 사진첩을 정리하다 세월이 쉼 없이 쌓인 50년 전 흑백사진과 마주하고 있다. 메마른 기억의 끈을 죄니 어머니의 지나간 손길이 팔려 나온다.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환갑 때 찍은 사진 한 장. 몸의 일부이지만 유난히 어머니의 두 손이 눈에 띈다. 백년해로를 약속한 부부가 함께 마음을 맞잡고 있는 듯 포갠 손의 넉넉한 온기를 본다. 그건 언제 봐도 자랑스럽다.

하얀 무명옷에 메밀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다. 남편과 아내의 두 마음이 주거나 받거나 씨앗을 영글게 하고 있다. 온전한 모습에서도, 몸의 일부에서도 원앙의 인연을 본다.

손이 겪었을 풍상의 흔적이 훈장처럼 뚜렷하다. 구겨진 풍뎉의 손아귀가 가슴팍을 움죄던 시절, 남편은 집안에서 대나무 손질로 소쿠리·바구니 메우던 까칠한 손이며, 아내는 집밖에서 값싼 포만이나마 날품을 팔거나 수시로 읍내저자에 등 굽은 허리로 절름거리며 나서거나, 하루하루 건너가는 일용할 먹을거리를 위해 밭에 나가거나 개펄로 나갔던 손이다. 이슬을 못 이긴 가녀린 꽃잎인양 무게감과 매력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두 손. 찌든 이력이 낡은 흑백으로 녹아있다.

길고 가녀렸을 옛 모습 대신 손끝이 구별되지 않을 만큼 몽텅해진 겨운 손

에 범접하지 못할 은은한 연륜의 기운이 돈다. 닳고 닳아 무더진 손톱은 손끝의 살을 덮을 여유가 없었던 손끝의 맨살도 허전함이 당연한 듯 무던하다.

칼집의 골동손등처럼 메말라 갈라진 손가락에 형깊을 감고 아픔을 참으며 서로가 애태웠던 시절, 눈을 감고도 척척 호흡을 맞춰 떨어져 일해도 필요할 때 나타날 것 같이 이심전심으로 익숙해진 모습이다. 바라보는 나머지도 자신의 몸인 듯 마음이 편안하다.

어머니는 한평생을 밭에서 산 것이나 다름없었다. 숨었던 땀까지 흠뻑 흘러 물을 먹은 솜처럼 노을이나 달빛에 고단함을 맡기고 가슴을 음각한 어둠이 구릿빛 이마 위에 부딪칠 때까지 파김치가 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 얼굴에 박힌 노곤한 하루를 눕혔다. 뒤따라온 어둠이 집에 먼저와 거의 매일 달빛과 별빛으로 샤워하는 몸이었다. 혼곤한 어깨에 얹힌 피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는 본래 없는 것인데도 눈물 밥을 넘기는 듯 무거웠다.

그 후 검은 머리는 순리대로 자식들에게 돌려줬지만, 어머니는 소매와 몸뻐 속에 감춰둔 아픈 팔다리처럼 소리 없이 훑치는 눈물과 땀의 몸부림으로 마침표를 찍으며 -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가족을 짊어진 무게였기에 자식격정이 산등성이 오를지라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최소한의 꿈을 키워주기 위하여 - 스스로의 위안으로 매달린 자식들을 등에 메고 키워냈다. 그 삶은 오직 시점과 종점이 집과 밭, 집과 장터 밖에는 없었다.

사진 속의 다정한 손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든 이유는 자식들을 바르게 키웠음은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이다. 평소에는 끝끝한 아버지의 말은 뉘족하였지만 어머니는 한 마디 거부감 없이 귀와

몸은 열고 입은 닫았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미워하지 않아야, 잊어버려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듯 곤비한 육신으로 일밖에 모르는 단단한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언제나 아버지의 뒀까지 바깥일을 다하려고 하였기에 자식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막중하다고 믿었다. 그 만큼 한살이는 희생과 아픔을 견뎌진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는 일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정감을 지울 수는 없었다. 막내인 나를 포함하여 아홉 자녀를 관리해야 하였다. 달라져야 할 것들이 매듭처럼 묶여있어 성장과정에서 많은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로부터 깊숙이 주려 아우성치는 뺏속마저도 큰 배려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삶의 끈을 조여도 뚜렷한 방책이 없던 시절, 무슨 일이든 일손을 팔아야 하루 끼니를 보낼 수 있는 지지리도 가난했던 대부분의 농촌실정이 그렇듯이 정감적 집안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넓고도 깊이 박힌 가난의 질긴 굴레에 빠진 설움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농사는 돈이 아닌 땀의 무게라며 손톱 밑이 까만 시절, 끼니만 거르지 않으면 행복한 부자 같은 고난의 시절이었으니 까 그 대물림을 끊는다는 건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내 유년의 기억은 양곡을 얻을 수 있는 이웃의 꼴머슴과 샅일이었다. 교과서는 이웃으로부터 대물림을 받았고 공부는 뒷전으로 밀렸다.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던 시절, 마음의 도화지에 햇살 가득한 생의 꿈만 그릴 뿐 그건 떨감을 위한 지게와 꼴을 위한 낫으로 대변되는 향해였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자리를 의식해서인지 무모하리만큼 삶에 대한 강한 의지로 게으름을 거부하며 뒷심까지 소모하였다. 누구라도 가난한 사람이 그런 의지까지 버리면 버틸 힘이 사라질 거라 하였다. 그런 적시는 말에 언 가

숨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어머니도 그런 고심 속에 살아갔다. 풀잎이 이슬을 물고 허리를 굽혀 겸손을 떨 듯 삭막한 바람결에 몸을 맡기고 언제나 말없이 최선을 다하였다.

시리고 서러운 어머니의 가슴에 걸려있는 시름을 삭혀보려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소채를 편 재래장터, 주린 속에서 뼈마디 불을 지펴 갈증과 투명한 허기를 다독이며 갯바람이 어깨를 쓸고 가는 걸 빼고는 그늘 한 점 없는 피약벌의 밭떼기, 갯물이 빠져나간 갯냄새의 개펄을 오가는 질경이 같은 일상에만 매달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지 않았다. 돌아보고 싶지 않는 난간을 이겨내려고 겨운 가운데서도 자식들에게 근면·검소함을 몸소 심어주었다. 뭐든지 허투루 하는 법이 없이 삶에 있어 허영의 깃털이란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럴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온몸을 공양미로 바친 심청 같은 영원히 이별할 수 없는 말, '어머니'는 유난히도 막내인 나에게 애정과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함께할 날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온종일 땀 흘리는 보람으로 살아가는 희망 없는 희망의 세상이었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모든 게 잘 되어야 한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어디 후회 없는 삶이 그리 쉬우라만 팔다리를 흔들며 언저리로 살아가도 하루하루를 무난히 넘어가는 그 자체가 후회 없는 삶이었다. 따스하고 넉넉한 어머니의 체온이 스며있는 지친 두 팔로 자식들을 끌어안아 곁에 두고 곁이 되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든든한 어머니의 보살핌의 품속에서 살아갔다.

옛 어머니들의 사명은 내면에 유착된 헌신과 사랑으로 정의됨이 이를 두고 한 말인가 싶다. 남루한 희망을 다시 깎이며 그 뜻은 머리에 두고 행동은 발밑에 두었다. 그러기에 시키는 일은 형들이나 누나들처럼 잘 따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일들을 독려함으로써 나를 뒤흔치지 않게 키우려는 의지

를 드러내었다.

여러 식솔의 생계를 걱정하여 어머니는 착잡한 속내를 토로함이 없이 혼자서 살림살이를 궁리하였다. 그러니 호미처럼 구부러진 등골의 곤한 삶이 감사한 마음을 넘어 때때로 꿈결에 나타나 가끔 잠을 설칠 때가 있다. 모정이 주체할 수 없는 삭막한 바람의 칼끝에 마침표 없이 떠돌다 꺾바퀴를 스쳐 나를 쓰리게 한다. 어머니의 얘기는 시방도 늙지 않는다.

아버지는 끝내 어머니와 마주한 다정한 손이 되어주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났다. 허기진 시간 속으로 깊은 생의 길을 낸 어머니를 이웃들은 그칠 줄 모르는 가난한 일별레에 비유하듯 고요하고도 고독한 그 몰입에 큰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손바닥에 감긴 세월은 뭉텅해진 어머니 인생에 절룩거리는 뻑뻑한 관절의 요란한 울림만 남겨 두었다.

아무리 일해도 끝없는 가난을 안고 가신 어머니는 물혹 같은 삶을 껴안고 상처와 고통을 생의 일부로 살았다. 버터온 굴곡 많던 생애의 거친 잡초 내리고 그토록 거칠었던 숨소리가 되살아나는 어머니의 헤아릴 수 없는 주춧돌이란 무거운 어깨 위에서 아홉 남매는 피어났다.

이제 휘어진 어머니의 땅에 내가 서있다. 그러나 나는 부모를 생각하면 사랑을 담은 그릇이며 늘 아픈 꽃이고 등불이며 나의 가장 포근한 집이었다.

사람은 저마다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한 몸에 붙은 손처럼 가사는 숭고한 공동의 몫이었다.

사진 속 겹겹이 배인 이랑진 주름, 핏대 솟아 갈라져 검버섯 암초 같은 시퍼런 손바닥, 훑아 터지고 굳어버린 손가락, 닳아 거칠고 딱딱한 손끝에 피는

꽃은 조물주가 내린 최고의 선물인 듯싶다. 상처가 세상을 움직이듯 기적처럼 살아간 풍진의 세월 속에 새끼들을 키워낸 에너지의 원천이며 뿌리이다.

양상하게 말라 굳은살은 내뺨 속에서도 정직과 성실의 표상으로 기쁨을 준 손이며, 가정이란 십터와 배꼽의 입맛을 돋워 준 손이며, 세속의 상처 난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쓸어준 손이다. 분명 숨은 땀이 녹아있는 일손이다. 허나 허기를 움켜쥔 채 꿈틀거린 그 손은 이제 없다.

추억은 외롭거나 한가할 때 살이 빠져 가까이 다가든다고 했던가. 고단한 생의 그림자 내려왔지만 가난도 품에 들면 깃을 단 고운 새처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운 자락들만 회상하는 빈 마음이다. 사후에 더 뚜렷해져 지울 수 없는 지문들이다.

그리고 보면 어머니의 따스한 두 손이 영혼으로 역겹의 인연을 열어 빛을 수 있는 훈장에 달린 한 포기 꽃송이인 듯싶다. 그 잔영 가슴 속 깊이 파리를 틀고 오랫동안 남아 무명 속에 묻힌 손발이 따스하다. 손바닥에 잠긴 난간을 돌아봐도 만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사진에 담긴 고난의 깊은 세월, 살 빠진 추억 한 자락을 안아본다. 고통은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붙는 듯 오늘 땀내 가득히 써나간 육필일기를 겸허하게 읽어본다. 불거진 그 발자국들이 따스한 적막 끝에서 주마등처럼 흘러 그 때의 서러움은 열어지고 추억은 짙어간다.

저마다 지우고 싶지 않은 아름다움 하나씩 간직하듯 마음속 깊은 곳에 축적된 어머니에게의 정감은 씹을수록 단단해지는 그리움으로 익어간다. 결단코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속에 얼룩졌던 설움도 굳어지고 시린 몸내 몹시 그리워 눈시울이 붉어진다. 나에게 인생 한 권 남기고 간 어머니에게 생시에 효도

하지 못하고 속을 썩인 게 너무 후회스러워 바람에 묻어온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각의 노을에 맴을 돈다.

저만치 한 생의 줄거리가 겨운 몸을 세우고 어두운 터널을 우르르 빠져나와 환한 중심에 피어난 그 두 손은 침묵한다. 오늘 산전수전의 흑백 한 장이 내 가슴을 때려 어느 새 나는 숙연해진다.



# 동상

전)국세청 상주세무서  
최 상 근



## 수상소감

대상을 바라볼 때가 있다. 그 대상은 나를 어떻게 볼까. 대상도 나를 바라볼 것이다. 의식을 확장해가면 대상은 곧 나 자신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있을 뿐이다.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하나.

하나를 구별하면 끝이 없다. 구별 속에 갈등이 싹튼다. 갈등은 밀도 끝도 없이 번진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간에는 원래 구별이 없다. 부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가 있을 뿐이다. 구별하여 갈등을 겪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그런 생각이 든다.

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현금無絃琴

옛 그림 하나를 보고 있다. 강변의 노송 아래서 백발노인이 줄 없는 거문고를 푼은 그림이다. 노인은 거문고에서 흘러가는 강물 소리라도 듣는지 시선을 허공에 풀어놓고 있다. 세상의 희로애락을 극복이나 한 듯 주변의 자연에 젖어 있다.

살아오면서 손가락이 닳고 줄이 끊어지도록 연주에 몰입하다 마침내 득음得音의 경지에 들었으리라. 이제는 줄 없는 거문고를 푼고만 있어도 원하는 음을 듣는다. 우리네 삶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나의 젊은 시절은 질풍노도 같아서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그 시절을 보내고 난 후에도 우여곡절이 그치지 않았다. 삶의 의미를 조금 깨닫기 시작한 것은 그 질긴 우여곡절의 줄이 끊어진 후부터였다.

아내는 시골 부모님에게 가는 것을 꺼렸다.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드리고 돌아와 크게 다투기도 했다. 용돈도 내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다니. 이렇게까지 하며 함께 살 필요가 있나 싶었다. 그때마다 혼자 살까 하며 고민했다.

어머니가 내 의중을 어떻게 알았던지 넌지시 물었다.

“네 처가 너에게는 잘 대해주느냐?”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됐다. 이 어미에게 어떻게 하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와 나 사이에 이어져 있는 모진 갈등의 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 뒤로는 혼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버렸지만, 아내와의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큰 지슴을 뽑아내면 또 다른 지슴이 자라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불거졌다. 나의 투병 과정에서 일어난 아내와의 마찰이었다.

내가 혈소판 감소증으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였다. 따라온 아내가 남편을 살려달라며 의사 앞에서 평평 울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양주 한 병을 의사 앞에 내놓았다. 아끼던 양주를 나 몰래 가지고 왔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상태가 악화하여 병원에 입원했다. 평소 데면데면하게 지내던 아내가 안절부절못하더니, 그 사이에 몸무게가 6킬로나 줄어들었다. 거기다가 변비가 생겨 동네 병원에 다니는 처지가 되었다. 간호해야 할 아내가 오히려 환자가 되어 있었다. 나를 위한 아내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지 처음 알았다.

아내는 평생 내 병구완으로 긴장하며 살아왔다. 오래전부터 간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또 다른 병이 겹치니, 초긴장 상태가 되었다. 세 형도 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형들의 전철을 밟는다면 나는 저세상에 가고도 남을 나이가 되었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아내의 마음고생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때로는 살아서 펄펄 뛰는 미꾸라지를 망에 넣어 소금을 뿌리고 비벼댔다. 평소 모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이었다. 하물며 미꾸라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었을까. 그것은 한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을 노리는 비정함까지 더하는 일이었다. 아내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과연 아내를 위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도를 넘은 것도 많았다.

오늘은 몇 시간 몇 분을 걸었으니 이 정도의 열량을 섭취해야 한다며 이것저것 먹기를 강요했다. 잘 때 수면 양말을 제대로 신고 있는가, 방 안 공기는 적

당한지를 살피는 시선은 실 틈 없이 내 주변을 맴돌았다. 나를 어린아이 돌보듯 했다. 나는 온종일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저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지시어가 남발했다. 아내의 관심 덕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안에 갇힌 기분이 들어 견딜 수 없었다. 성화에 못 이겨 아내가 시키는 대로 먹다 보니 체중이 늘어났다. 잘 먹어야 낫는다는 단순 논리에 빠진 아내가 미련스러워 보였다.

그즈음 나는 친구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눈여겨보았다. 뭐든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몹시 부러웠다.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내 마음에 조금씩 울분이 쌓였다.

마침내 다툼이 일어났다. 아내는 병간호하느라 온몸이 부서지듯 아픈데 성의도 모른다면 섭섭해 했다. 나는 차라리 무관심이 낫다고 몰아세우며, 집안이 울릴 정도로 고향질렀다.

그날 이후로 목소리가 이상했다. 몇 마디 말만 해도 음성이 갈라지면서 이 내 목이 쉬어버렸다. 성대결절이 생긴 것이었다. 그때 절실히 깨달았다. 목이 갈라질 정도로 아내가 원망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나를 위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후원자였다. 그런데도 큰소리친 일이 여간 미안하지 않았다. 아내를 닦았던 원망의 줄이 툭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날 선 마음이 사라지더니 한없이 편안했다.

요사이 아내는 종일 집에서 인터넷을 뒤지거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요리법을 메모한다. 그 메모를 들여다보며 이런저런 음식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낸다. 밖에서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 오직 내 건강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병원을 오갈 때면 내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누가 나를 이처럼 돌보아 줄까. 간섭이 지겹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아내가 내 어머니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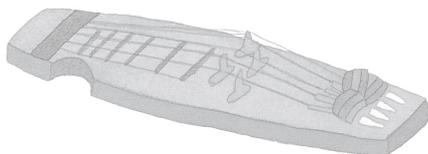
여전히 아내와 나는 다투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 시작하다가 멈춰버리기

일쑤다. 아내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는 것 같다. 나 역시 주방에서 그릇 부딪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을 읽는다. 말이 없어도 서로를 훤히 들여다보는 셈이다.

나 때문에 초췌하게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부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부부 사이가 지극하면 서로가 무심無心의 상태에 이르는 것인가. 보이지 않아도 훤히 들여다보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주름진 아내의 손을 슬며시 잡아보았다. 아내도 나와 같은지 반달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의 충고와 성대결절이 묵은 갈등을 걷어낸 것이 틀림없었다.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내 마음속에도 줄 없는 거문고가 들어와 있다.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을 무현금 소리. 은은히 퍼져 나오는 현묘한 소리는 아내의 마음이다. 그 끝 모를 애정은 형용할 길 없다. 그림 속의 노인이 무현금을 뜯으며 듣는 천상의 소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



# 특선



광주광역시  
남 해 은



## 수상소감

우선 입선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글재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제가 공무원문예대전이 있다는 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지를 너무 늦게 발견해서 저에게 시간이 하루밖에 없었지만 급하게 엄마가 된 소감을 사실 그대로 느낀 그대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아이를 갖고 10달 동안 힘든 과정이 제 머릿속을 스쳐지나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더 갖춰진다면 예쁜 아이들이 많아질 텐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 생각을 글로 옮겼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되면 엄마의 마음을 안다는 그 흔한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서 소중함을 잘 몰랐던 부모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글을 쓰면서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나의 우주



숨이 턱까지 밀려왔다. 온힘을 주었다. 그리고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동공은 풀리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울음소리와 함께 내 가슴 위에 무언가가 올라왔다. 작은생명체다. 내가 이 작은생명체를 잉태한 사람이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아이를 보자 열 달간의 힘든 기억이 떠오른 건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대견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아이가 예뻐서 그런 건지 기억나지 않지만 눈물이 흘렀다. 아기를 낳기 전에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하늘이 노래졌다, 남편 머리를 잡아 뜯었다. 내가 낳아보니 하늘이 노래지지도 빙글빙글 돌지도 남편 머리를 잡아 뜯지도 않았다. 그냥 힘들었다.

사실 고백하자면 난 출산이 그리 힘들지 않았다.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한 탓에 출산의 고통이 덜어진 사례다. 입덧 케이스 중 상위 1%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TV 드라마에서 입덧이 어떤 건지 많이 봤지만 그와는 전혀 달랐다. 그렇게 예쁘게 구역질을 하지 않았다. 입덧은 내 몸 안에 있는 위액부터 장기까지 모든 것이 다 빠져나오는 듯한 구역질 같은 것이었다. 음식은 물론이고 나는 사람냄새조차 힘들어 했다. 처음에는 특정음식을 먹지 못했고 그다음에는 모든 음식을 뱉어냈고 그 다음에는 사람냄새를 맡지 못했다. 특히 출근하는 버스 안에 사람냄새는 날 미치게 만들었다. 내 가방에는 검정봉지가 필수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회의 중에 화장실로 향하는 나를 발견했다. 음식을 먹

지 못하고 사람냄새도 맡지 못한 나는 결국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게 되었다. 하지만 집에서도 먹지 못하고 위액을 게워냈던 나는 물도 마시지 못할 때쯤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산부인과에 입원은 했지만 영양제와 포도당을 처방해줄 뿐이었다. 그나마 입덧주사가 있어서 처방해줬지만 나에게에는 그것조차 통하지 않았다. 산부인과에 입원한지 하루 만에 난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 계속 게워내니 위도 이미 상했고 식도뿐만 아니라 온몸이 망가졌고 위액이 역류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갔는지 심장 부분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왔다. 대학병원에서도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단지 산부인과보다 조금 더 센 입덧주사 같은 것을 처방할 뿐이었다. 나중에 주사명칭을 검색해보니 보통 암환자에게 투여하는 주사였고 임산부에게는 되도록 처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보고 그 주사를 맞지 않았다. 한 일주일은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했다. 한 모금 물을 먹으면 두 세 모금의 물을 게워내니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일주일 뒤 전해질불균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면 서 무엇이든 먹지 않으면 아기가 아니라 나조차도 위험한 상태에 접어든다는 것이었다. 난 선택해야 했다. 병원냄새와 독한주사, 사람들 냄새가 날 더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토할지언정 먹자고 생각하고 그날부터 흰죽을 먹기 시작했고 병원주치의에게 퇴원시켜달라고 말을 했다. 주치의는 위험하다고 퇴원불가라고 했지만 이곳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걸 느꼈기에 과감하게 퇴원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토하더라도 먹었다. 그 전에는 토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먹지 않았다. 위액만 나오는 게 아니라 쓸개즙까지 나오는 마당에 먹는 것이 싫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가 위험해진다는 것은 아기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난 느꼈다. 내가 입덧을 심하게 해도 그동안 아이는 주수에 맞게 잘 크고 있었다. 내 몸의 영양분을 가져가면서 말이다. 하지만 내 몸에 한계가 왔다면 아이에게 가야할 영양분이 없다는 걸 난 느꼈다. 난

억지로 계속 먹었다. 여전히 토하기는 했지만 예전보다 나아졌다. 자극적인 음식은 전혀 먹지 않고 흰죽부터 시작했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흰죽, 그리고 아주 조금씩 늘렸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나눴으면 냄새가 이상하면 손도 대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만삭의 몸이 되었다. 9개월쯤 조산 위험이 있어 병원에 다시 입원하고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버텼다. 조금이라도 아이가 내 몸에서 크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2018년 1월 3일 아이는 나에게 왔다.

출산의 고통은 없었지만 난 후유증이 심했다. 아기가 너무 커버렸고 내 몸이 많이 상해버렸다. 자연분만임에도 불구하고 난간을 잡지 않고 견지 못했으며,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병원에서 달고 다녔다. 그렇게 출산 후에 고통이 나는 심했다. 도넛방석 없이는 어느 곳도 앉을 수 없었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조차 옆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 와중에 나는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겠다며 찬바람 부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아이에게 향했다. 이게 모성본능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다. 난 이 아이에게 책임감을 느낀 건지 애정인지 그것조차 모르겠다. 그냥 가야한다는 것밖에는 모르겠다. 내가 가지 않으면 날 기다릴 것 같았고 아이가 버려졌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다.

나와서는 온종일 아이를 혼자 보는 것이니 쉽지 않았다. 엄마가 집에서 도와 주기는 했지만, 3시간 아니 2시간만 지나도 깨서 울어대는 아이에게 젖을 물렸지만 많이 나오지 않자 칭얼대기 시작했다. 그런 아이를 보며 괜히 미안해지는 거다. 나는 그렇게 엄마가 됐다.

하루일과는 아이가 깨면 젖을 주고 소화시키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재우고, 이 똑같은 패턴을 약 2개월 동안 반복했다. 그리고 부수적인 일들 젖병소독이며 아이옷 빨래, 젖을 쥐야 하기 때문에 나도 먹어야 했다. 이 모든 일이 지켜울

만 하지만 아이가 웃어버리면 이 모든 게 눈 녹듯 사라졌다. 아이의 표정은 다양했고 그 표정 하나로 날 들었다 놔다 하는 요물이었다.

2개월이 지나서는 이제 놀아줘야 한다. 통잠까지는 아니어도 밤잠이 길어져서 낮에 노는 시간이 생겼다. 모빌을 틀어주고 딸랑이를 흔들어주고 안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웅알이를 따라 읊어주기도 하고 바운서(흔들의자)를 태워주기도 했다. 나의 시간은 아이에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작았지만 나의 우주였고 나의 세계가 되어간다. 이렇게 우리는 엄마가 되나 보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은 것은 지난 3개월 동안을 정리하고 싶어서다.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아주 짧았던 이 기간 동안 난 한 아이를 책임져야 했다. 내가 세상에 나오게 했고 난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사회에서 잘 적응하도록 키우는 것은 나의 몫이다. 난 엄마이기 때문이다. 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가 배속에 꿈틀대는 순간 다 알게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엄마는 위대하며 대단한 거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우주고 세상이며, 엄마에게는 아이가 우주고 세상인 것이다. 우리에게 엄마는 다 그렇다.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한다.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느꼈다. 그건 당연한 거라서 언급하지 않겠다.

지금 내가 말하자는 것은 내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덩크족, 아이 없이 사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다. 현재 이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나조차도 맞벌이라서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만약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나의 답은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이며 셋째아이에게 주는 혜택 등 다양한 해결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돈 줄테니 아기 낳아라? 그렇다면 한명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는가? 그만큼의 돈을 줄 수 없다면 그런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느낀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아니면 엄마에게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올라갈 수 없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아이를 사랑하지만 사회적여건이 좋지 않을 뿐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도 엄마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아직은 다 모른다. 하지만 방금 말했던 이 두 가지만 깊이 고민한다면 길거리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아이를 힘들게 낳았으며 지금도 몸이 좋지 않다. 손가락관절에 염증이 생겨 주먹을 쥐지 못하고 허리디스크가 생겼으며 걸을 때도 가끔 다리가 풀려 주저 앉아버린다. 하지만 아이를 보고 있으면 이 모든 게 중요하지 않다.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는 내가 또 다른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해하지 못할까? 아이를 낳아본 엄마라면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 아이가 생겼지만 입덧과 출산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임신부, 아이를 낳았지만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모,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나의 우주는 지금 하나이다. 하지만 나는 많은 우주를 가지고 싶다. 하지만 많은 우주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 두려움이 앞선다. 우리 사회가 그걸 같이 감당해줬으면 한다. 그럼 나에게도 많은 우주가 생길 것 같다. 그럼 조금은 살기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 특선



경북 청도 이서초등학교  
이 정 경



## 수상소감

지난해 봄 계절과 어울리지 않게 강한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예고 없이 내린 비를 우산도 없이 맞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 가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내 속에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이글을 보면서 자신을 달음질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수술 후 병실 창문 밖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그날은 눈에 보이는 무지개를 볼 수 없었지만, 오늘은 뜨지도 않은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신 하느님께 찬미 영광 드립니다. 어려운 치료 중에도 자기 소임을 다 해내고, 마지막 관문인 시험을 통과해 직장인이 된 아들에게 경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세차게 내리던 소낙비를 함께 맞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 가족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치료에 도움을 준 많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투리 같은 제 글을 읽어 주신 심사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붕 위의 오동나무



겨울을 숨긴 채 찾아온 봄은 가혹했다. 매화가 피고 뒤이어 목련도 환한 얼굴로 다가왔지만, 꽃은 내 가슴에 슬픔으로 다가왔다.

일곱 번째 치료, 또 하나의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다. 가족의 언어는 금기된 사항처럼 침묵이 무겁게 가슴을 누르고 있다. 여덟 번의 치료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오늘 가고 나면 한 번만 가면 된다고 남편은 환하게 팔을 내리치며 웃는다.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가슴이 가질 않는다.

주황색 가방을 메고 간편한 복장으로 도서관 가듯 다녀오겠다고 나서는 뒷모습이 애써 감추려 했지만 숨기지 못할 슬픔을 짊어진 듯한데 바라보는 이는 그저 가슴만 먹먹할 뿐 해 줄 게 없다. 대신 가 줄 수도 치료 후 오는 고통의 시간마저 나눌 수 없으니 가슴만 아릴뿐이다.

아들의 몸에 몰래 들어와 살림을 차린 놈은 모질고도 독했다. 첫 번째 치료 후 욕실에서 나온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머리를 밀어야 할 것 같네요' 말로만 듣던 탈모가 대변에 온 것이다.

아직은 눈으로 병을 마주 보고 싶지 않은 나는 조금만 시간을 미루어보자고 말했다. 어미의 마음을 잘 아는지라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간다. 자신의 아픔보다도 엄마의 슬픔을 더 아파하는 속 깊은 마음에 목젓이 아린다.

며칠 지나 샤워를 하고 나와 이젠 더 미루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 말은 안 했지만, 얼굴과 어깨에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보고 나도 더는 미

를 수 없겠다 싶었다. 돌이 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남편이 곧바로 욕실로 향하고 빠져있는 머리카락을 보고 놀라는 소리가 들린다. 난 차마 들어갈 용기가 없어 청소가 끝날 때까지 얼음처럼 앉아 있었다.

그래 인정해야지 봄날같이 행복했던 시간도 내 것이요 칼바람 부는 시간 또한 내 것이니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거부할 수 있으라,

신혼 초 큰 기와집에서 살았다. 마당이 넓고 솥을대문이 있는 집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짧은 우리가 관리하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올라오는 잡초와의 전쟁은 고사하고 마당에 있는 큰 오동나무 씨가 지붕 위로 날아가서 뿌리를 내리는 일은 정말 난감했다.

높은 곳이라 날마다 올라 가 볼 수도 없고 눈에 보일 때쯤이면 이미 뿌리를 내려 기와 몇 장을 들어내고 독한 잡초제거제를 들여 붓고서 그 위에 다시 황토를 다독여 기와를 엮어 놓은 작업이 필요했다.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뿌리내린 슬픈 오동나무의 운명에 애잔한 마음이 들지만 자칫하다가 기와 전체를 들어내야 하니까 남편은 종종 높은 지붕 위의 감시자가 되어야 했다.

일박이일 일정으로 치료에 들어간 아들 생각에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는 피눈물이 나오는 듯하다. 그런 어미의 마음을 잘 아는 아들놈은 주사(注射)를 시작해서 오늘 컨디션이 최고라며 엄지 척 이모티콘을 날린다. 차라리 힘들다고 말할 것이지 중간중간 문자로 나를 안심시키니 더욱 가슴이 미어진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난 사실에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내게 닥친 현실을 억지로 밀어내고 인정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지나쳐가는 이야기처럼 무심히 흘러들고 듣고 싶었지만, 막상 수술실에 들여보내 놓고 난 뒤의 그 두려움이란 무어라 표현해야 할는지 세상 모두가 끝나 버린 것 같을 무

서움이었다.

새벽녘에 잠들어 있는 아들을 두고 병실 복도를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온통 나를 흔들기 시작하니 버티지 못해 끝내 혼절하고 말았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두려움이라는 알게 된 날이었다.

퇴원 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내 탓으로 생각된다. 혹 잘못 살아 온 진노가 아닐까? 직장생활 한답시고 제대로 챙기지 않은 탓일까 하는 자괴감이 가시가 되어 박힌다. 가슴 저 밑바닥에는 한 겨울밤 칼바람 부는 저수지에서 얼음이 쩍쩍 거리며 얼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약을 달고 내려와 이박삼일 그 약이 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모두 숨죽이고 있다. 독한 약이 들어갈수록 아들의 모습은 새카맣게 변해간다.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린다.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얼마나 힘들지 당하지 않은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을까 싶다. 엉뚱한 곳에 뿌리내린 오동나무 잡초제거제의 수난처럼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숨어든 종양도 독한 약과의 사투 중이다.

삶이란 기쁨과 슬픔의 연속이지만 지난 고통은 가벼운 바람으로 지나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닥친 불행의 늪에서는 좀처럼 헤쳐 나올 수가 없다.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싶은 속 좁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어설피고 어쭈름은 위로로 불편하게 한 적은 없었는지 뒤돌아본다. 오류 투성이인 내 삶이 나를 보고 조롱하듯 비웃는다. 깊은 성찰을 거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부끄럽다.

자기 자리에 서 있는 오동나무는 언제나 당당했다. 무슨 연유로 화장실 앞에다 오동나무를 심었는지 모르지만, 깊은 향과 방충의 효과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지 몫을 다해주는 나무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버티어 기와집을 지키고 있었다.

익은 넓고 싱싱하여 마루에서 마주 보이는 나무의 기품이 보는 이의 마음까

지도 넉넉하게 한다. 겨울을 보내고 꽃샘추위마저 거뜰히 이겨내고 초하의 바람과 함께 온 연보라색 오동나무 꽃을 보노라면 하늘거리며 행복이 저만치서 다가오는 듯하다. 그도 자기 씨앗이 남의 자리에 뿌리내린 탓에 독한 약으로 수모를 당하는 걸 지켜보면서 가슴 졸이며 애달파 했으리라, 슬픔을 숨긴 채 핀 오동나무꽃에 깊은 연민이 든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 힘들지 않고 열리는 열매가 있을까? 끝내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긴 터널을 나온 후 세상은 탈피한 모습으로 보인다. 신은 인간에게 고통의 대가로 깊은 평화가 감사를 알게 한 것이 아닐까. 가장 밑바닥으로의 추락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일 것이다.

180일간의 긴 고통 여정 끝에 오는 이 파스한 평화에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있을까 싶다. 아직은 지붕 위의 오동나무를 감시하듯 늘 조심해야 할 상황이지만 그것 또한 겸손의 길로 가는 통로임을 알기에 기꺼이 감수하리라.

아무 일 없이 지나가던 일상을 권태라는 이름으로 투덜대던 그 순간이 진정한 행복이었음을 칼날 같은 외줄 위에 서서야 알게 하는 부끄러운 시간에 용서를 건넨다.

숨 막히는 긴 여름은 지나가고 조바심으로 숨죽이던 가을 겨울도 무사히 보냈다. 아직은 겨울이 묻어 있는 봄바람이 살며시 얘기한다. 다 괜찮아질거라고...

새봄은 희망이라고 말한다.



# 특선



기획재정부  
곽 경 준



## 수상소감

오늘 우연의 일치로 네 살배기 아들 양말에 커다란 구멍이 났는데 마침 수상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써 본 수필인데 이렇게 입상을 하게 되니 기쁨과 부끄러움이 교차합니다. 그만큼 서툰 글임에도 수상의 경험을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에도 묵묵히 일하는 동료 선후배 공무원분들에게 존경과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 구멍 난 양말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양말에 구멍이 나 있는 걸 보았다. 이미 현관문 밖으로 엘리베이터가 거의 도착했을 즈음이었다. 출근시간인지라 다음 엘리베이터가 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 사무실에서 딱히 신발 벗을 일도 없을 것 같아 그대로 집을 나섰다.

오전은 바쁘게 지나갔다. 가끔 점심식사를 거른 채 밀린 업무를 마무리할 때가 있다. 점심시간에는 전기절약을 위해 사무실 전체가 소등된다. 마음만 먹으면 다시 불을 켤 수도 있지만, 굳이 켜고 싶지 않았다. 독서실처럼 유독 밝아진 모니터 불빛 아래서 차분하게 자판을 두드린다. 구두를 벗고 발을 쭉 뻗자 발끝이 차가웠다. 양말에 난 구멍이 생각났다. 아침보다 더 커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일단 밀린 일을 끝마치자 기다렸다는 듯 배고픔이 밀려왔다. 주섬주섬 컵라면을 꺼내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들이붓고 기다린다. 때론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시간도 아끼고, 남의 눈치 볼 일 없이 편하다. 언제부터인가 ‘혼밥’<sup>1)</sup>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다만 ‘혼밥’의 편리함을 안다고 해도 나는 아직 사람 많은 곳에서 이를 즐길 정도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 또한, 반가운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과 ‘오늘은 어

---

1) '혼자 먹는 밥 또는 그러한 행위를 줄여서 가리키는 말

뺏어'로 시작하는 대화를 하며 먹는 밥보다는 그 맛이 확연히 덜하다. 그래도 혼밥의 장점을 하나 더 꼽자면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컵라면의 면발이 알맞게 익었는지 음미해 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 생일과 같은 기념일이 언제였는지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 기사를 찾아볼 수도 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먹기만 해도 나쁠 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혼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와 같이 밥을 먹을 때 하기에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나는 혼밥을 하면서 '왜 양말에 구멍이 났을까?'라는 다소 시시한 질문에 대해 나름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왜 그랬을까. 먼저, 뾰족한 무언가에 걸리는 '사고'가 없었는지 재빨리 기억을 더듬었으나, 아닌 것 같다. 즉, 서서히 구멍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발, 양말, 신발 중 하나가 '주범' 또는 이들의 '공범관계'일 것이리라. 특별히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할 정도의 요인이 떠오르지 않는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발을 들어 찬찬히 들여다본다. 검정 양말 끝으로 발톱이 살짝 삐져나왔다. 참 요사이 발톱을 안 깎은 것 같더라니. 길어진 발톱과 양말의 접하는 부분에서 한동안 마찰이 일었으리라. 양말 주인에게는 들리지 않을 작은 경고음을 내다가 힘에 부쳐 툭하고 실밥이 터졌을 것이다. 별레가 나뭇잎을 먹듯 구멍도 점차 커졌을 게다. 스스로 그럴듯한 대답을 얻고 나서야 일회용 젓가락을 툭하고 자른다. 컵라면은 살짝 불어도 맛있다.

어릴 적 나는 가난하면 으레 양말에 구멍이 생기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가난한 집에서는 으레 값싼 재질의 양말을 신거나, 두고두고 오래 신어 구멍이 더 쉽게 날 테니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닐 것이다. 돌이켜보면 부모님 세

대만큼 혹독한 가난을 경험하지는 못했으나, 나도 절약이 미덕인 환경에서 자랐다. 혹여나 구멍 난 양말을 신고 ‘국민학교’에 가는 날이면 쉬는 시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복도를 살금살금 걸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 날엔 으레 햇살이 따스하고 복도가 반짝 윤이 났다. 그 복도는 환경미화 시간에 나와 같은 어린 급우들이 작은 손으로 초를 칠하고 열심히 닦은 덕분에 반질반질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릴 적 내 양말 구멍 가운데 몇 개는 가난이 아니라 오로지 발톱 때문에 생겨났으리라.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이제 그 어른이 되어 이해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여전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회생활에 있어 ‘구멍’이라는 단어는 대개 다른 경우에 쓰인다. 종종 실수로 일의 차질을 빚는 사람을 속되게 가리켜 ‘구멍’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주어진 업무에서 구멍을 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구멍이 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내 구멍을 메워주기도 하고, 내가 남의 구멍을 메우기도 한다. 특히 공무에 있어 구멍은 곧 국민에게 큰 피해가 될 때가 많기에 더욱 조심스럽다. 뾰족한 것에 걸려 생겨난 구멍은 금세 알아챌 수 있지만, 서서히 자라난 발톱 때문에 만들어진 구멍은 눈에 띄지 않는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구멍 난 양말을 신고나 혼자 밥을 먹는 날도 있을 것이다. 혼밥을 하다가 문득 사소한 깨달음을 얻는 날을 맞이할 수도 있다. 띄엄띄엄 흰 구름 사이로 새어나온 햇살 한줄기가 일부는 창문을 통과하고 나머지는 반사되어 반짝인다. 밖에서 보았더라면 모두 창문에 반사되는 줄로만 알았을 텐데, 안에서 바라보는 내겐 모두 창문을 통과하는 것만

같다. 정답은 모른다. 나중에 더 어른이 되면 문득 알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 본다. 사무실 시멘트 바닥 위로 환한 빛 구멍이 드리워진다. 오후 내내 웬지 모르게 양말에 난 구멍이 따스하게 느껴졌다.

몇 년이 지났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의 나는 아직까지도 그날의 햇살이 창문을 통과했는지, 반사됐는지, 일부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반사됐는지, 그 정답을 알지 못한다. 사실 바쁘게 살다보니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알 때까지 잠을 못 이루던 어린 시절의 나였지만, 언젠가부터 굳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끝까지 궁금해 하지 않았다. 어른이 되어가며 '적당하게만' 궁금해 하는 법을 배웠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노력해서 알게 될 가능성과 알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작아졌기에 그만큼의 수고로움을 겪으려 하지 않는 것이리라. 다만, 나는 그날 양말 구멍 사이로 느낀 청량함과 따스함만큼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도 구멍 난 양말을 마주할 때면 부끄러움보다는 반가움이 앞선다. 마치 양말 구멍이 시멘트 바닥의 시원한 기운과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안내하는 오랜 문지기라도 되는 듯이.



# 특선

경기도 의왕시  
정정자



## 수상소감

최근 시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고단한 삶을 사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정한 친아버지를 일찍 보낸 저에게 두 아버지가 오래토록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아버지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 과정마다 준수해야 할 일이 있고 감당할 몫이 있다.  
 청소년을 지나 청년으로 들어서면  
 자신이 평생에 해야 할 직업과 가정과 자녀의 양육이 이어진다.  
 한 순간도 삶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도 그러하다.

25세에 결혼을 하고 26세에 첫째를 낳고 28세에 둘째를 낳아 양육하였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엄마됨을 알아가고 연약한 자녀 때문에 더욱 강해져야  
 했고 마음속으로 삭이고 깎이는 훈련을 하였다.

아버지는 항상 웃으셨다. 내가 울어도 웃고 웃어도 웃으셨다. 아버지는 활달  
 하면서도 엄격하여 다른 가족과 친척들은 다 무서워했다. 나도 아버지가 두렵  
 긴 해도 언제나 웃는 그 얼굴을 믿고 까불고 거짓말도 많이 지어냈다.

아버지는 결혼한 그 해 여름에 돌아가셨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딸이 되었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립고 그립다.  
 아버지의 확신에 찬 한마디가 내 힘이 되었고, 과장되고 허술한 거짓말에도  
 속아주고 늘 넉넉하게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다.

남편은 아버지와 품성이 달라 지나치게 다정하고 잔소리가 좀 있다. 아들의 대학진학 때도 영화영상이라는 전공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고 졸업 후 취업의 어려움을 본인만큼 아파하고 지원해주고자 한다.

음악을 전공한 딸이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나의 예전 모습 같다. 딸은 자신의 부모님과과의 관계를 조명해 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최초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모의 장점과 단점을 쓰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를 묻는 것이다.

다행히 딸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건강한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정죄함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진정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 돌아보게 된다.

아버지는 외동딸을 지나치게 사랑하였고 나는 우리집 2인자로 지냈다.

친척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서운 친할머니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권위에 빌붙어 동생들에게 제왕적 누나로 지냈다.

아버지는 항상 옳고 바르며 나의 든든한 지원자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로 아파했는지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알게 되었다.

당신의 아픔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기에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영원한 봉이였다.

20년 후 어머니는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셨다.  
머리로는 참 잘된 일이고 기쁜 일인데, 가슴은 어이없고 배신감이 엄습했다.  
어머니의 환한 얼굴과 밝은 웃음 속에 묘한 쓸쓸함을 조용히 곱삭였다.  
어머니는 다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셨다.  
참으로 기쁜 일인데 우리 아버지의 자리는 이제 어디에 있는 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머니의 외로움과 고통은 외면했다.

시간은 희미하게 때로는 우유빛으로 아픈 가슴을 달래고 새로운 기운을 준다.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던 그 분은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 되었고  
어머니의 행복한 미소는 언제나 그 분과 함께여서 더 감사하다.

아버지의 다정한 얼굴과 미소는 내 마음에 영원히 있고 존경하지만 어머니는 또 다른 인생 2막이 시작되었고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으시다.

내게는 또 다른 아버지 한 분이 계신다.  
남편과 결혼 후 생긴 무뚝뚝하고 다혈질 경상도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언제나 화를 잘 내시고 금방 풀리신다.  
나는 항상 긴장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다.

신앙이 달라 극적인 갈등이 있었을 때 나는 너무 무섭고 힘들었다.  
어른이신 부모님께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혼나는 것도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하였다.

마치 내가 큰 대역죄인인 것처럼 대하는 부모님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5년이라는 공백기를 가지고 별별 떨고 지냈다.

남편의 유약함이 한심하고 미웠지만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이기에 그렇게 버티고 살았다.

5년이 지날 즈음 아버지의 전화가 울렸다.

내일 올라오시겠다며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우리 네 명은 모두 검정 정장을 입고 '이제 올 것이 왔구나'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시간에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다.

인제 온나. 아~들이 너무 보고싶다 아이가...

이런 시나리오는 내 생애 없었다. 불호령이신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이런 평화협상을 하러 손수 오시다니....

그 이후 남북대결보다 더 엉켰던 대결구도는 조금씩 풀렸다. 자연스레 명절에도 여름 휴가에도 생신때도 왕래하게 되었다.

부모님이 오랜 사업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야 평안해 지셨는데..

문득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워진다.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남편이 네 식구 모인 날 순서대로 억지로 인사하고 통화하는 것도 불편했던 내가 아니던가.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살림만 하던 며느리가 임기제공무원을 하고 있는 것이 신동하신지 정작 나에게는 일언반구도 안하시더니 손녀딸에게는 꼬치꼬치 물으시고 대견해 하신다고 전했다.

아버지는 늘 호통하시고 어머니는 엄격하셨다. 잘 웃으시지도 않으시고 야단을 잘 치신 편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할머니댁에 가면 언제나 체하고 소화를 잘 못했다. 그러다 외가에 가서는 모두 긴장을 풀고 잠을 자곤 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는 아이들이 가면 먼저 가슴을 활짝 열고 장성한 손자손녀를 품에 안으신다. 화는 거의 안내신다. 가끔 큰 소리가 나긴 하지만...

어머니도 수다스런 큰며느리를 좋아라 하신다. 둘째가 말이 없고 젊잖아서 좋으시다고 늘 칭찬하셨는데 잘 웃고 말 많은 큰며느리도 이젠 수용하시게 된 거다.

이 즈음 참 이상한 일이 생겼다.

연애할 때도 남편에게 생기지 않았던 일이다. 잘생기고 멋지고 훌륭해 보이기까지 하다.

아버지 어머니를 서로 이해하고 안아주게 되니

정작 남편이 가장 사랑스러워 지다니...

나를 낳으신 아버지는 이제 계시지 않지만

그 분 덕분에 세상으로 나와 당당하게 서서 말할 수 있게 하셨고

어머니를 새롭게 여성으로 세운 새아버지는 어머니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허물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품고 사랑하는  
시아버지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멋진 아버지들이시다.

이 세 분의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인내가 많으신 분이시다. 이  
처럼 멋진 분들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가정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질서이고 사랑이다. 나면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 반듯한 사회일원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꾸  
려나가는 가장 먼저된 기초가 아닌가.

가장 강하지만 약하고 겉은 야무지만 속은 깎여 있는 우리 아버지이기에 5  
년을 숨어온 내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 주셨다. 내가 인내한 것이 아니라 당신  
도 많이 감내하고 아팠다는 것을 이제 어렵פות이 알아간다. 당신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고 높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좌절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조시 맥도웰은 “성숙한 사랑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  
방의 성실성을 믿는 것이다.”라고 했다.

어쩌면 별별 떨며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존경하거나 진정한  
의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버지가 두 손을 벌여 우리 네 식구를 안아 주었을 때 그의 권위가 손상되  
거나 품위가 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본래적인 사랑의 힘으로 권위가 회복되었다.

나의 세 아버지는 사랑의 힘으로 권위를 가지시고 서로의 성실성을 믿으므로 서로 기뻐할 수 있다.

나의 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의 지극한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의 성실함으로 아내와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기적인 자기애와의 싸움에서 이겨야하고, 때로는 고독한 자리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방법을 터득할 때까지 많은 훈련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로까지 성숙하는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배우고 베풀 수 있으리라.

서툴고 실수가 많았던 두 아이의 아버지인 남편이 이렇게 빛나는 아버지가 된 것 같이....



# 특선



서울양천경찰서  
최 호 열



## 수상소감

그리울 때 낙서를 한다. 좌절할 때 끄적인다. 슬플 때 연필을 푹푹 눌러 눈물을 지운다. 8남매의 맏이었던 큰 형님이 그리웠다. 큰 형님이 즐겨 만들었던 큰 방패연에 셋째의 소망을 적어 날린다. 등대여, 속히 귀환하소서!

## 등대, 속히 귀환하라

‘착륙을 허가한다. 활주로에 부분결빙이 있으니 주의하라.’

관제사의 말을 강조라도 하듯이 활주로를 따라 흐르는 좌우위 불빛들이 더욱 깜박인다. 조종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다. 그는 불빛들의 길이와 폭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한다. 유도등은 소리 없이 빛날 뿐이다. 무언(無言)의 지시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깜박이는 관제탑에서 한 뼘 정도 우측의 위치! 틀림없는 활주로이다. 너에게 나를 맡기마. 그의 애기(愛機)가 유도등 사이의 활주로를 볼링 볼처럼 매끈 구른다. 속도계가 급격히 내려간다. 이제 그의 애기(愛機)는 시골의 경운기보다 더 느리다. 양옆으로 늠름하게 도열한 유도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넨다. 고맙다, 활주로의 수호신이여! 격납고 앞에 다다르니 야전 정비대의 이 준위가 경례를 하며 그를 반긴다.

“필승! 무사귀환을 환영합니다.”

나는 이준위의 우렁찬 목소리에 눈을 크게 떴다. 캐노피를 밀치고 내리는 이는 9남매의 맏이인 큰 형님이었다. 나의 길잡이였던 큰 형님이었다. 어머니의 희망이었던 큰 형님이었다. 분명 큰 형님이었다. 나는 형에게 달려간다. 형도 특유의 너털웃음을 지으며 팔을 벌린다. 품에 안기며 형을 목 터지게 부르는데 누가 나를 세차게 잡는다. 아내이다.

“여보! 정신 차려요. 무슨 잠꼬대를 그리 심하게 하세요?”

큰 형님은 어렸을 때부터 푸른 하늘을 동경했다. 낮에는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저 곳으로 날아가고 싶다. 밤에는 반짝이는 북극성을 보며 말했다. 하늘의 나침판인 저 곳으로 날아가고 싶다. 큰형님의 꿈은 까까머리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변함이 없었다. 신문배달 등을 하며 공부를 했던 주경야독의 고등학교시절에도 일편단심이었다. 겨울방학을 맞아 도회지에서 시골로 내려올 때마다 형은 제일 먼저 연을 만들었다. 보통 우리들은 꼬리가 길게 있어 중심이 잘 잡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가오리연을 만들었지만 큰 형님은 꼬리가 없는 방패연을 만들었다. 하얀 창호지의 방패연은 높이 멀리 날았다. 조금 과장하면 10 리 밖 우리학교에서도 보였다. 집에 돌아오면 나는 항상 자랑스러운 형의 곁에 머물렀다. 형 왜 만들기 어려운 방패연만 만들어? 좌우 균형을 잡는 과정이 재미있어. 왜 그렇게 크게 만들어? 그래야 높이 날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높이 날면 뭐가 좋은데?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거든. 연을 날리는 큰 형의 모습은 항상 진지했다. 낚시꾼처럼 몇 시간씩 연줄을 잡고 꿈적도 하지 않았다. 가끔씩 연줄을 당기고 늦출 때 나를 바라보며 싱긋 웃어줄 뿐이었다. 형은 연을 날릴 때 무슨 생각을 해? 응, 나의 소원을 하늘로 보내는 거야. 그럼 연줄을 팽팽히 당길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데? 응, 하늘을 날아다니는 희망들을 낚는 거야.

큰 형님은 소원대로 공군사관학교를 갔고 마침내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하늘을 날았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투비행단을 찾아가 편대장인 큰 형님에게 물었다. 형! 소원대로 하늘을 나니 행복해? 당연하지, 태양과 북극성에 훨씬 가까이 다가갈 수 있거든. 형! 실은 나도 육군사관학교 가려는데. 네 꿈은 정치가잖아. 형! 사관학교출신 정치가들도 많잖아. 그건 잘못된 거야, 군인은 군인이어야 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전선에서 목숨을 버려야해. 너는 일반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전문성과 진실성을 갖춘 공직자가 되어라. 큰 형님의 말씀은 전에 없이 단호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사람들은 나의 애기(愛機)를 전천후 전투기라 부른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칠혹같은 밤이든 아랑곳 하지 않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날기 때문이지. 이는 물론 자동화 된 전자 계기판 등 과학의 힘이 크다. 그러나 기억하라, 야간비행을 할 때 내가 정작 길잡이로 의지하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캄캄한 밤하늘에는 북극성이 빛나고 있다. 가파른 바다 절벽에는 등대가 반짝이고 있다. 산골 고샅에는 가로등이 빛을 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항상 자리를 지키면서 몸을 태워 빛을 내는 것이야. 한 번도 꺼지지 않아. 장대같은 비가 내려도 피하지 않고 칼날 같은 바람이 불어도 절대 눈을 감지 않아. 35년이 흐른 지금 나는 말한다. 형! 그 조언 덕분에 영혼이 살아있는 진실의 공무원으로서 잘 지내고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손해나는 쪽이 정의이다, 좋은 길은 빠른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다」라는 말을 되새기곤 해.

큰 형님은 타고난 조종사여서 항상 최신예 전투기를 몰았다. 그리고 마침내 전투비행단 - 당신이 고등학교 시절 이착륙하던 전투기들을 보기 위해 거의 매일 찾아갔던 - 의 단장이 되었다. 어머니의 칠순 생신 때 우리 9남매는 큰 형님의 관사 정원에 둘러앉았다. 어릴 때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해가 질 때서야 우리는 헤어졌다. 아! 그 때 어머니와 형님이 뒤 칸에서 남모르게 건네던 이야기가 이제야 가슴 시리다. 애비야! 미안하구나, 너를 일반대학에 보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비행기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은 알까? 매일 비상대기인줄은 몇 사람이나 알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늘을 나는 것이 제 꿈이었으니 도리어 행복하죠, 아이고 애비야 그렇게 말하니 고맙구나.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도리도리 거개를 저었으니…….

그로부터 2년 후, 전투기들의 공대지사격 훈련 때였다. 전투기 한 대가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표적지 가까이까지 급강하했다가 산중턱에 충돌하여 2명의 조종사가 사망하였다. 자식보다 더 아끼는 부하들을 잃은 큰 형님은 책임을 지고 자진 전역을 하였다. 전역 후에도 고통을 이기지 못해 매일 괴로워하다 외국으로 휴연 떠났다. 아프리카 오지 교회의 전도사가 된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돌아오실 생각을 않는다. 어머니가 조심스레 전화를 하실 때마다 들려오는 대답은 요지부동이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부하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더 많은 속죄가 필요합니다. 팔순을 훌쩍 넘기신 어머니는 매일 한숨이시다.

잠이 깬 나는 아파트 베란다로 나간다. 하늘에는 북극성이 빛나고 남산에는 타워가 반짝이고 있다. 타워의 불빛이 서울의 동서남북을 고루 비춘다. 북극성의 빛이 우주를 널리 비춘다. 나는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한다.

‘큰 형님께서 말씀 하셨죠, 비행할 때 등대를 길잡이로 삼는다고, 저희 가족에게는 형님이 등대입니다. 저희 가족을 안전하게 이끄는 등대! 그러기에 항상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만 알았습니다. 남들에게는 찬란한 길잡이였지만 정작 자신은 유배의 삶을 보내는 줄 몰랐습니다. 파도가 온 몸을 할퀴 때 얼마나 아팠어요? 바람이 피부를 파고들 때 얼마나 추웠어요? 항상 혼자여서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렇지만 형님! 이제 저희가 함께 할게요, 고살의 가로등이 되어 빛을 보낼게요. 그러니 큰 형님, 속히 귀환하소서!’

# 특선



전군산여자고등학교  
이 내 빈



## 수상소감

불현 듯 고향의 추억이 가슴을 달군다. 행복한 느낌이다. 나를 기대에 가득찬 마음으로 제21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자 명단을 확인하며 내려가는 초조함속으로 수필 특선 부분에 내 이름이 포착됐다. 우선 반가웠다. 7개 부문에 4,532편이 응모하여 109편이 입상하였다는 통계를 보았다. 그 속에 '고향생각'이란 내 수필이 '특선'에 입상되었다는 사실은 나를 감격케 하기에 충분했다. 일단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의욕이 속구친다. 그동안 70의 중반에 접어드는 나이에 문학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면서 문예창작반을 들락거리고 있었지만 내심 자신이 서질 않던 차였다.

작년에 시 부문에 등단하였지만 부끄럼과 열등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문학활동에 온 몸을 불사르는 많은 문인들에 대한 예의로써 그동안 시작활동과 문학에 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었고, 문명만을 알리고자 하는 오만한 태도를 가지게 될 까하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동안 전북대학교평생교육원 문예창작과와 신아대학 문예창작과에서 무더진 감성을 촉촉하게 하고 문학에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정군수 시인님과 월천문학 동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신 문예대전 심사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푸르게 물들어가는 초록의 싱싱함이 온누리에 함께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 고향생각

골방에서 새어나오는 등잔 불빛이 바람에 출렁였다. 바람의 끝자락을 타고 포개지는 흐느낌, 그것은 아버지의 울음소리였다. 화려한 어느 봄날 초저녁 아버지는 형의 다리 뼈조각을 움켜쥐고 터져 나오는 오열을 삭히고 있었다. 며칠 전 골수염을 앓던 아홉 살 짜리 형의 오른쪽 다리를 수술한 것이다. 개나리도 목련꽃도 참 허망한 봄이었다.

일곱 살이 되든 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2학기가 시작되자 나타나기 시작한 오른쪽 다리의 통증은 어린 형을 괴롭혔다. 대대로 자식이 귀한, 그것도 위로 딸 셋을 낳고 애타게 기다렸던 장남이다. 금지옥엽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물론 일가친척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형에 대한 부모님의 우려와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다리의 통증은 점차 심해져 갔고 걸음조차 불편해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다. 3학년이 되자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파왔다. 전국의 유명한 한의원과 병원을 전전하였지만 병명조차 알 길이 없었고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검게 드리워졌다. 8개월 가까운 세월을 농사일도 팽개치고 아버지는 형의 치료에 전념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낙담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자식의 아픔을 가슴으로 삭히며 작두날 같은 하루 하루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그러던 중 먼 친척의 소개로 전주의 한 병원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골수염 진단을 받게 되었다. 골수염은 골수에 염증이 생겨 골수조직이 파괴되어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는 병이다. 그동안 병원을 전전하다 보니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만성에 이르러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하였던 모양이다.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고민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늘에 맡기고 수술대에 오를 수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천만다행으로 수술이 잘되어 절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되었지만 향후 보행에 지장을 줄 것 인지의 여부는 상당기간 경과를 지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나마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수술 3일 뒤 아버지는 굵어낸 형의 뺏조각을 싸들고 가족 친지들에게 경과를 알리기 위해 귀가하게 된 것이다. 안도와 자책의 눈물이 강물처럼 가슴을 흐르고 있었다.

형은 나보다 세 살이 더 많다. 위로는 누나 셋과 내 밑에 네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었다. 아버지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낡은 신문에 꼬깃꼬깃 접어온 것을 펴보이며 “이것이 너의 형 다리뼈다”하면서 흐느끼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분신과 같은 자식의 뼈 조각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고 흐르는 눈물은 강물을 이룰만큼 흐르고 또 흘렀다. 나는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느낄 수 있었다. 그 당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곳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잇을 수 없는 나의 고향, 그곳에서 나는 아주 큰 사건이자 강렬하고도 너무나 선명한 슬픈 기억을 갖게 되었다. 다행인 것은 그 후 형의 다리는 치료가 잘 되어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훗날 가족들과의 많은 추억을 쌓으며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평생동안 잊을 수가 없다.

그곳에서 나는 태어났고 그곳은 나의 고향이 되었으며 나의 인생을 성장 시킨 근원으로서 자리하게 된 것이다. 남향의 초가집은 아담하게 잘 정돈되어 햇빛도 잘 들었고, 대숲에선 세때들이 시도 때도없이 지껄여대는 전형적인 농가였다. 마루에 앉으면 동구밖이 멀리까지 훤히 내다보이는 명당 자리였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셨다. 마당 끝 돌담을 따라 단감나무 세 그루가 일렬 횡대로 가지런히 서있고 그 옆 화단에는 채송화, 봉숭아며 해바라기도 몇 그루 서 있었다. 대문 왼쪽 옆에 자리한 조그만 사랑채엔 아저씨뻘 되는 친척이 살고 있었는데 경갈하였다. 그 옆으로 여름이면 하얀 수국꽃 활짝피 드리워진 장독대가 있었고 분홍색 앞치마를 두루고 장독대를 닦아내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지는 집이다.

집 뒤에는 500여평 정도의 왕대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동무들과 함께 뛰놀던 기억이며 댓잎을 스치는 바람소리, 새소리가 너무나 생생하여 그곳에서 보냈던 어린시절의 아스라한 그리움이 가슴을 멍멍하게 한다. “그리라면 그리겠습니다 개울물에 흐르는 풀포기 하나 개울속에 빛나는 돌맹이 하나 그렇습니다 고향의 것이라면 무엇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지금도 똑똑하게 얼마든지 그리겠습니다” 전봉건의 시 ‘뼈저린 꿈에서만’에서 처럼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그리라면 그리고 말하라면 말할 수 있는 고향에서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리를 스쳐간다.

직경이 10~15cm 정도 되는 우람한 대나무들은 아이들이 타고 노는 데는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놀이기구가 부족했던 그 당시에는 참으로 대단했다. 대여섯 살에서 부터 열두어 살 정도의 동네 아이들은 특히 여름철이 되면 학교가 파하자 마자 그곳으로 달려왔다. 누가 가장 높이까지 올라가며 어느 정도 흔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마음대로 소리지르며 한 바탕 뛰어놀고 나면 속이 후련하였다.

집 뒤편의 넓은 왕대밭은 나는 물론 동네 아이들의 천혜의 놀이터였다. 대나무 숲엔 다양한 조류들이 들끓었다. 참새는 물론 삿갓새, 소쩍새, 까치, 제비, 굴뚝새, 황조롱이 등 많은 새들이 그들만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천국이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참새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새소리가 시끄러울 정도였다. 아침이면 잠이 덜 깬 참새를 잡으려고 동네 아저씨들 서너 명이 그물을 가지고 우리집 대밭을 뒤지기 일쑤였는데 살그머니 그물을 들이대면 놀란 참새들이 푸드득 날아갈 때 몇 마리가 그물에 걸린다. 여러 번 하다 보면 수십 마리를 잡게 되는데 식량이 부족했던 그 시절에 참새구이는 고소한 단백질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들창문을 열고 신기한 듯 내다보던 나에게 항상 참새 두 마리를 주고 갔다. 한쪽 발에 실을 묶어 먹이도 주고 손가락에 얹혀 놓고 놀다가 날려보냈던 유년의 행복한 추억은 백발이 된 지금까지 생생하고 그리운 기억으로 남아 나를 지탱해 주고있다

내가 다섯 살 되던 해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한강을 넘어 파죽지세로 남진하고 있었다. 온 나라는 전쟁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여기저기서 흥흥한 소식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우리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우리는 대밭 옆 한쪽 귀퉁이에 방공호를 팠고 가족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다. 북한군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면서 여러곳에 폭격을 하게 되었고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방공호에는 할머니와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은둔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나는 다 살았다.” “괜찮타” 하시면서 담장밖에 있는 밭에서 단수수며 옥수수를 갖다주셨다. 말려 보았지만 소용없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저공비행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당으로 뛰쳐나가 주렁주렁 매달린 단감나무를 장대로 후려쳐 치마에 담아 나르셨다. “죽으면 다 소용없다” “나는 괜 참혀”하시면서 단감을 따내던 할머니의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가히 필사적이었다. 먹을것이

절대 부족했던 그 시기에 단감은 끼니를 대신할 정도로 유용했다. 유난히도 살결이 하얗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은빛 머리칼이 너무도 선명하여 진한 그리움이 솟구친다.

일곱 살 때다. 하루는 설을 지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을 따라 동네 아이들과 자치기를 하다 보니 출출해진 나머지 고방을 뒤진 일이다. 그때는 설을 쇠고 남은 명절 음식을 고방 시렁에 올려놓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떡이며 전이며 한과 등 먹을 것이 많았다. 우리는 출입문을 따고 고방 안으로 들어갔고 지게를 갖다 놓고 그것을 타고 시렁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소쿠리 채 내리는 건 어려워 음식들을 가지고 간 바가지에 담기 시작했다. 바가지가 거의 채워갈 무렵 지게를 잡고있던 아이들이 잠시 헛눈을 파는 사이 지게가 미끄러졌고 위에 올라가 음식을 담던 형은 소쿠리와 함께 나뒹굴었다. 아쁠싸 여러 가지 전을 올려놓았던 소쿠리와 바가지에 담은 음식들이 순식간에 땅바닥에 널부러졌다. 다행이 다친 곳은 없었지만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겁이 났지만 어디서 나온 배짱인지 그 자리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전을 주워먹기 시작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발견되었고 크게 혼줄이 날 줄 알고 겁을 먹고 있던 우리에게 어머니는 웃음을 잃지 않고 다치지 않아 다행이다면서 푸짐한 음식 한 상을 차려주셨다. 그림고 아련한 추억이 아닐 수 없다.

초가집 뒤편을 드리웠던 무성한 왕대밭 숲 속에서 아람드리 큰 대나무를 타고 맨 꼭대기에 올라 기고만장해 하던 기억이며, 논두렁 밭두렁을 누비면서 메뚜기를 쫓던 일, 황소를 타다 모내기 논바닥에 내팽개쳐 허우적 거렸던 웃지 못할 일들이며, 참깨를 잡으려다 손가락을 물려 혼비백산 달아나던 천진난만 했던 그 시절의 그리움은 고향과 함께 아직까지 진한 향수로 남아있다. 내가 태어나고 어린시절을 보냈던 고향에서의 행복했던 추억들은 인생

의 마디마디 마다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며,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나를 밀어 올렸다. 변색한 일상에 묻혀 살다 보면 어느날 불현듯 코 흘리게 시절로 돌아가고픈 충동을 느끼는 것은 고향의 아련한 추억들이 가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입선



부산광역시  
예 명 옥



## 수상소감

부족한 작품을 선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생활 중에 이러한 소통공간이 있다는 것은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글은 많은 생각과 정서를 따뜻하게 해주고, 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있는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 즐겨 글을 씁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글의 세계를 탐색하고 조감도(鳥瞰圖)의 눈으로 바라보고 색다른 경험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회 공무원문예대전입상을 통해 멋진 경험과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구름이

새끼망고 못생긴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폴짝 내 가슴에 뛰어올라 안겼다. 소스라치게 놀라 나도 모르게 강아지를 밀쳐 현관 밖으로 내쫓았다. 그런데 강아지는 나를 반히 올려다보고 슬픈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깨고 보니 꿈이었다. 그런데 그 꿈이 몇 일 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얼마를 지났을까. 딸아이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아빠 친구 딸이 키우던 강아지인데,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서 일주일에 한번 씩 볼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강아지가 분리불안증에 우는 날이 많았단다. 부득이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던 중에 딸아子和 인연이 되었다.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자고 노래처럼 말했지만, 나의 반대로 키울 수가 없었다. 반대한 이유는 단 하나, 정들면 떼기도 힘들지만, 누가 하루 종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개고생을 시킬 것은 뻔했다. 어쨌든 나의 반대가 확고함을 알기에 아빠랑 들어서 받아서 키우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강아지는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눈 밑은 말라버린 갈색 옥수수수염처럼 자국이 선명했고 표정은 어둡고 기는 다 죽어서 짓는 것조차도 잊었는지 소리도 내지 않았다. 순간 꿈속의 그 강아지가 생각났다. 우리의 인연은 이미 예고했을까?

꿈속의 까만색은 타들어간 마음의 증표였다 말인가.

강아지이름은 구름이다. 왜 구름이냐고? 털이 구름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구름이를 처음 보는 순간, 너무 작고 여리고 귀여운 녀석이었다. 처음 보는 나를 경계하지도 않고 내가 조심스럽게 안았는데 품속에 꼭 들어와 꼬짝을 앓고 가만히 있었다. 어린 것이 벌써 분위기 파악을 한 건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을까,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지만, 안고 있는 동안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고, 잠시 어떤 이유로 헤어졌다 다시 만난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의 첫마디는 “너무 예쁘네, 구름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았겠구나!”

작은 몸으로 견뎌올 마음을 상처를 잘 치유해줘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어 힘껏 껴안았다. 이 아이와의 운명 같은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 같았다.

최근에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의 읽었다. 그 일부분을 인용하면, 한 남자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살인자였는데 경찰에 체포된 뒤, 가장 큰 걱정은 가족도 자신도 아닌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이 받을 큰 충격을 걱정했다. 도대체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선 무감각하면서 자신의 개가 겪을 충격에 대해서는 그토록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을까? 그 남자는 개가 인간보다 풍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래서 다른 인간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인격권을 개에게 부여했다는 것이다.

국내 반려견 인구 천만시대다. 언젠가부터 사회적 분위기는 반려견에 대한 예찬론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호불호(好不好)이긴 하지만, 점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를 안고 다니고, 사람에게나 부르는 호칭을 들으면서 매우 엷잖아 했었다. 그러나 구름이가 우리 집에 온 그날부터 사람들이 왜 강

아지를 가족의 숫자에 넣어서 가족처럼 대하는지 알 것 같았다. 최근 우리집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족의 안부보다 구름이의 하루가 더 궁금한 일상이 되었다. 이래저래 이 아이 마음의 상처가 빨리 아물길 바라는 마음이 우선이기도 하지만, 같이 웃고 즐거워하는 요즘이다 보니, 우리 집 행복지수는 최고의 종가를 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구름이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은 고정관념이었다. 오히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더 크고 깊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음을 실감한다.

구름이는 딸아이의 껌 딱지다. 잠시라도 보이지 않음 짧은 목을 길게 빼서 찾아다닌다. 어찌다 늦게 들어오는 날은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린다. 부스럭 소리만 들려도 현관으로 달려 나가는 의리로 푹푹 뭉친 귀여운 녀석이다. 가장 먼저 자기를 반겨주고 예뻐해 줬기에 그 소중한 첫 인연에 보답이라도 하듯 기억속의 서열 1위로 입력을 시켰을 것이다. 누가 가르쳤을까? 눈치는 백단이고 영리하기란 천재적이다. 구름이에게는 묘한 사랑이 있다. 말만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은 눈으로 피부로 반응한다. 오는 그날부터 배변 장소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매번 한 곳에서 해결하는 것을 보면 신통방통이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다림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다. 어느새 구름이는 우리 집 막둥이로 자리매김을 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준다. 그동안 반려견에 대한 나의 선입견은 완전긍정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말 못하는 개와도 관심을 기울이고 기다려주면 소통이 되고 아픔도 치유되는데, 하물며 인간과의 불통은 배려와 이해와 기다림의 부족임을 새삼 깨우친다.

구름이의 하루는 커피향기로 시작해서 커피향기로 마감을 한다. 딸아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함께 호흡하고 교감한다. 벌써 구름이는 손님들과 펜 층이 확보되어 카페의 마스코트가 되어 만인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개털처럼 몽실몽실 잘 지내고 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 반려견을 키우는 숫자만큼이나 버려지는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행여나 사랑하다 미워진다고 버리는 비양심적인 사랑놀이는 애시 당초 시작하지 않길 바라본다.

무술년 황금개띠 해에 복덩이로 들어온 구름이와의 소중한 인연이 봄 꽃망울 터트리듯 오랫동안 피길 소원한다.



# 입선



부산광역시 북구  
지규태

수필



## 수상소감

글 쓰는 재주도 없는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자신의 지난 일을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 같은 부끄러움에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쓰지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또무엇보다 오늘이란 나의 남겨진 인생에 있어 첫 번째 날이기에 서툰 용기를 얻었습니다. 부족한 글을 입선의 영예를 안겨주신데 대해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머니의 자부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그 흐린 날의 기억

아직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이다. 서둘러 집을 나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를 뵈러 서울 가는 길. 차 창밖에서 바라 본 조망 없는 겨울 풍경은 잎진 몸으로 추위를 견디는 플라타너스 가로수처럼 허전하기만 한데 겨울비는 씬 없이 내려앉아 세찬 바람과 함께 도시의 하얀 속살을 거침 없이 내보인다. 역에 도착하니 광장의 왕벚나무 아래에는 하릴없는 사람 몇이 축고 고단한 모습으로 담배를 깊이깊이 빨아대며 희멸건 연기를 허공에 뿌린다. 연기는 겨울비 물살과 함께 어둠속으로 빠르게 사라져 갔다. 소박한 풍경의 대합실에는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여기 저기 자리를 잡고 쉬고 있을 뿐,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진 듯 가장 고요하고 투명한 시간이 되었다.

가방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자판기 커피 한잔으로 깔깔해진 혀를 적신다. 혹시라도 열차를 놓칠세라 잠을 설친 탓인지 머리가 무겁고 온 몸이 자꾸 처진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나는 열차를 기다리는 이 시간을 좋아 한다. 대합실에 앉아있으면 왠지 모를 애잔한 그리움이 종종걸음으로 찾아오곤 했다. 철길처럼 이어지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또 내일에 대한 상념이랄까? 그럴 때면 어김없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애써 찾으려 했지만 답을 생각해 낸 적은 결코 없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매정하게 인정을 떼어내듯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한다. 비바람이 셀수록 꽃과 나무는 부

리에 힘을 싣고 생명의 움을 틔운다 하는데 삶의 고비 고비마다 참새의 일상 걸음을 걷는 우리는 너무 쉽게 지쳐버린다.

열차 도착시간이 가까워져 개찰이 시작되면 표정 없는 얼굴들의 분주해진 손놀림과 괜스레 바빠진 마음으로 내남없이 겨울바람 한 무리가 지나는 승강장으로 향한다. 그리고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의 모습은 신통방통하게 제각각의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 엇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아니 어쩌면 한 장 한 장 같은 듯 날날이 다르다고 할까? 연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도 많다. 또 기도하듯 손깎지를 끼고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응시하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비친 내 모습은 또 어떤 것일까? 궁금하기도 했다. 모든 것들이 적막에 스며있는 그 때, 한 흡과 흡 사이에서 여인의 악다구니에 바친 고함소리가 들려 온다. 여러 사람의 시선이 일거에 한곳으로 쏠린다. 누가 봐도 둘은 확실한 모녀지간이다. 얼핏 보기에는 나이가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인네가 족히 일흔 중반을 훌쩍 넘긴 듯한 연약한 노모를 향해 핏대를 세워 소리 치고 있다. 늙은 어머니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해서든 아니면 딸네 집에 머무르다 부라부라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라면 더 없이 좋겠지만 듣기에도 민망하고 떼물 찬 표현이다. 투박하고 심술궂은 생김새와 사나운 말씨, 제풀에 지친 듯 씩씩대며 거친 숨을 몰아 내 쉬는 딸을 어머니는 애써 등지고 앉아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있다.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움푹 패인 눈, 야윈 두 볼이 힘든 세월을 감내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별의 별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조금 가까운 주변만 살펴봐도 오로지 남을 위해 베풀고 피해도 주지 않고 사는 사람

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의 불행이 곧 자신의 행복인 마냥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내가 아는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인생을 사나 싶을 정도로 막 사는 사람도 있다. 지금은 누구도 그녀의 막돼먹은 행동에 대해 나무랄 수 없는 입장이다. 다만, 흥분한 나머지 말을 단숨에 쏟아내는 그녀가 진정을 되찾아 불편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다. 무슨 사연, 어떤 곡절이 저리 많아 추운 겨울날 꼭두새벽부터 무차별적인 언어 테러를 감행해 아무 죄 없는 우리마저 불쌍사나운 모습을 눈살을 찌푸리며 봐야하는지 모르겠다. 이 때 다행히 열차가 까만 어둠과 비를 헤치며 미끄러지듯 승강장에 정착했다. 딸은 간단한 작별인사도 없이 훌쩍 떠나버려 혼자 남겨진 어머니는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열차에 올랐다.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이끌어 좌석까지 친절하게 안내했다.

여명이 밝아올 시간인데 아직 하늘은 어두컴컴하고 열차는 행여나 시간을 어길세라 다시금 내달린다. 물금역을 지나니 빗줄기는 겨울비답지 않게 쏟아져 내려 차창 사이로 희뿌연 김이 서리고 자꾸만 흐르는 빗물은 웬지 야속하게 느껴졌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는 대각선 건너편으로 그녀가 보였다. 그녀에게는 눈물인지 빗방울인지 모를 물이 볼을 타고 흐른다. 구슬프고 안타깝기까지 한 마음이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산다는 것은 누구나 한번 있는 일이다. 다만 그 삶이 어떤 식으로든 빛이 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어쩌면 그녀는 싸늘한 바람결에 빛바랜 잎 하나 없는 저 겨울나무처럼 험난한 삶의 파도를 겨우 겨우 헤쳐 왔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슬픔과 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껴안고 있을 것인가. 춥고 고단한 삶이 따뜻하게 데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어머니의 눈물 맺힌 모습을 인생을 통틀어 딱 한번 봤다. 아니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내가 기억하지 못 할 뿐. 나는 태생적으로 살갑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붙임성도 없는 성격이다. 신 줄에 들어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 특히, 아버지를 일찍 여의신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을 꾸려오는 동안 단 한순간도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이 농사일 부터 가사도우미, 식당종업원, 공사판 막노동에 이르기까지 안 해본 일 없이 힘들게 살아오셨다. 그러다보니 우리 4남매는 객지로 뿔뿔이 흩어져 오순도순 정을 나누지도 못했고, 온 식구가 마주앉아 밥을 먹어본 기억도 없다. 시골에 혼자 남겨진 나는 어릴 적부터 자취생활을 하면서 철없이 많은 방황을 했다. 특히,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공부 보다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 놀기만 하는 문제아로 분류되어 반 친구들의 외면 속에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냈다. 특히, 나를 짓누르는 가난의 멍에는 주변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자꾸만 위축되게 만들었다. 결국 죽기보다 싫은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학업을 포기하고 도망치듯 고향을 등지고 객지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삶이란 원래 녹록할 수는 없는 일인지라 생계를 위해 선택한 공장의 시다일은 걸핏하면 철야작업에 일은 힘들고 이직자도 많은 현장이라서 몸은 점점 지쳐가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설 명절을 앞두고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 산소를 가는 길이었는데 고향에 다다를 무렵에 하얀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쓴 졸업생 한 무리가 우리가 탄 버스에 올랐다. 저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시레 내 초라한 모습과 비교 되어 더 울적하고 영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 때 어머니는 나를 보고 “니는 부럽지도 않나? 무단히 학교를 그만두셔서 졸업도 못하고, 어찌고 저찌고” 말씀 하시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나도 모르게 큰소리로 “대학도 못 보낼꺼면서 그놈의 졸업은 해서 뭐하게? 뒷바라지도 못 할꺼면 낳지나 말지.”하는 원망의 소리를 해댔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날도 오늘처럼 세찬 바람이 불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역시도 서러운 마음까지 더해져 한참동안 무심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다가 곁에서 슬쩍 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 맺혀 있었다. 가슴에 대못 박은 막말을 안 것은 새삼 뒤늦은 후회다. 아버지 산소에 들렀다가 버스를 타고 다시 내려오는 동안에도 나는 아무 말 안했다. 그러다가 설핏 잠이 들었나보다. 어디쯤 왔을까? 내 볼을 쓰다듬는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혼자말로 “내 새끼 미안해. 부모 잘못 만나 못 먹고 못 입혀서...너저들 고생만 시켜서.” 하시며 몇 번을 더 쓰다듬었다. 나는 눈을 뜨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애써 잠을 자는 척 해야만 했다. 그 후, 군에 입대할 때까지 몇 년 더 그 일을 계속했고, 지금의 직장을 얻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워오는 동안 그 날 일은 내색한번 하지 않고 가슴 깊은 곳 한구석에 혼자 묻어두며 살았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눈발이 조금씩 날리더니 병원 도착 할 때에는 드디어 성긴 싸락눈발이 모래를 흩뿌리듯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 앉아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를 알아보고는 활짝 웃으신다. 간병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아무리 말려도 벌써 며칠째 저렇게 기다리고 계셨단다. 다행히도 지난번 봤을 때 보다 얼굴에 살이 올라있고 건강도 좋아지셨다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어머니는 내손을 끌어 6인실 병실로 향했다. 같은 병실 환자분의 이름부터

개인사정까지 일일이 다 내게 얘기해주신다. 매번 뵈러 올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나는 처음 듣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맛장구를 쳐준다. 여러명이 함께 쓰는 공간이라 드르렁 거리는 병상의 코고는 소리가 요란하다. 창문을 흔드는 휘파람 소리 같은 무심한 바람소리가 문득 처량하게 느껴진다.

겨우 서너 시간 머무르다 떠나는 내 모습을 어머니는 항상 못보고 잠이 든다. 평생을 욕심 없이 그러나 솔하게 많은 날을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니 이제는 잠도 많이 주무실 때다. 나는 가만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 엄마. 덕분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고 이렇게나마 밥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동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 여한이 없어. 엄마 아들로 태어나게 해줘서 한없이 고마워요 엄마.”

그 옛날 어머니가 내 볼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 버린 엄마의 손을 쓰다듬는다. 창밖으로의 세상은 눈으로 뒤덮여 새하얀 달빛 정원으로 변해가고 있다.



# 입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 예 라



## 수상소감

넓은 서랍 속에 오랜 시간 접어두었던 문장들이 고개를 들고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준, 내 모든 근원이 되는 가족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 빠른 속도에 도태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위태로운 외출타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 또한 글쓰기의 힘이겠지요. 일기장에만 속삭이던 개인적인 서사가 사회적인 서사고 되고, 많은 이들이 함께 공감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설빔

세밑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딸아이의 설빔 원단을 사기 위해 광장시장을 찾았다. 겨울에 태어난 아기의 첫 생일을 앞두고 겸사겸사 설빔을 만들었지만 시간을 건너뛰듯 하루하루 자라는 아기에게 과거의 시간은 언제나 무색해지기 마련이다. 아기 백일 날 새벽 삼신상을 차려 놓고 조약돌처럼 반들반들한 아기의 두 발을 매만지며 ‘우리 아기 발 크게 해주세요.’ 하던 주문(呪文)대로, 아기의 두 발은 나날이 커갔다. 한 사이즈 크게 입느라 늘 접어 입던 옷소매도 돌아오는 계절에는 어느 샌가 짧아져 소매 끝단에는 자작나무 줄기처럼 새하얀 아기의 손목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이다.

검은 물감을 풀어 놓은 듯 흐린 날씨에 차분하게 가리앉은 종로의 골목을 지나자 형형색색 다채로운 한복들이 저마다 고운 자태를 내뽐고 있다. 다가올 봄날을 기다리는 아련한 희망이 겨우내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살며시 녹여 내렸다.

예부터 아이들이 입는 설빔은 오방색을 이용하여 밝고 화려한 원단으로 만들었다 한다. 삼라만상 고운 기운을 받아 아이들에게 밝고 화창한 미래가 열리길 바라는 우리네 숭고한 전통이다. 그러나 삼남매 중 막내인 나에게는 이런 전통에 관한 추억이 없다. 위로 두 살 터울인 언니가 있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선택에 따라 언니의 설빔을 고스란히 물려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 입는 새 옷'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와 다르게 어머니가 동네 포목점에서 언니의 설빔을 맞춰 올 때에나 입어볼 기회가 주어지곤 했다. 설상가상 심미적 디자인보다 기능적 편안함을 추구하는 어머니의 개인적인 취향 탓에 초등학교 입학 이후 우리 자매는 설빔을 챙겨 입을 기회마저 없었다. 모세기관지염으로 병원 신세를 지느라 그 흔한 돌 사진조차 찍지 못했던 나에게도 색종이로 장식한 종이왕관을 쓰며 웃고 있는 예닐곱 유치원 재롱 잔치날의 빛바랜 사진들이 어두운 기억 저편에서 유실되지 않은 설빔에 관한 유일한 기록인 셈이다.

저녁이 다가오자 상인들이 피워둔 군불 언저리로 삼삼오오 모여든 행객들이 손발을 녹이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나눴다. 따뜻한 봄날 결혼을 앞둔 누군가는 예식 때 입을 한복을 맞추었다 하고, 부러운 눈초리로 그의 이야기를 듣던 상인은 대학 졸업반인 아들의 진로 문제로 걱정이다. 젊은이들이 꿈을 꿀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서글픈 현실. '연애와 결혼, 출산'이라는 통과 의례가 개인의 삶에서 더 이상 자연적인 서사가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아기의 설빔 준비를 위해 광장시장을 방문한 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된 기분이었다. 이면에는 반전이 있게 마련인 삶의 비의(秘義)를 외면하고 싶은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말이다. 해질 녘 유리진열장에 반사된 네온사인이 그들의 얼굴에 음화(陰化)처럼 어른거렸다. 추운 겨울날 한 모금의 커피에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이 흡사 고희의 '감자먹는 사람들'이 연상되어, 짤랑 거리는 동전 소리조차 종교음악으로 승화될 것 같은 경건함에 나도 모르게 숙연해진다.

고희가 그린 '감자먹는 사람들(1885)'에는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만찬을 위해 전등 아래 옹기종기 모여든 농민들이 나온다. 농민들은 이제 막

땅에서 캐어온 흙 묻은 감자를 닦았다. 당시 화단에서는 탁하고 어두운 색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감자먹는 사람들의 손이 암시하는 노동의 정직성’에 대한 감탄을 고백한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들. 한 때 목사의 길을 꿈꾸던 고흐에게 그들의 만찬은 성찬(聖餐)의 전례였다. 굵게 마디진 투박한 손을 감싸는 희미한 불빛은 19세기 전 유럽을 강타하던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었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가난한 농민들에 대한 고흐의 연민이자 현사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가져온 문명사적 위기의식은 백여 년 전 한가로운 전원 생활에 자족하며 살던 예술가에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당시 교황 레오 13세는 산업혁명 결과 빈부격차 해소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사태(1891)’를 반포하였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사태’를 또 다시 맞이하고 있다.

‘미래는 과연 과거보다 진보하는가?’

시대의 화두로 던진 어느 소설가의 질문에 잠 못 이루던 밤. 옆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상념에 젖었다.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이란 희망의 근거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문명의 이기에 대한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린 오늘날 일본에서 소설까지 쓰는 AI가 등장했다는 뉴스기사에 소싯적 작가 지망생이었던 나는 무기력해진지 오래다. 인간의 ‘가장 나아 좀 지닌 것’이라고 믿었던

예술영역이 알고리즘의 결과물이라 폄하하던 AI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가난한 예술가들의 마지막 자존심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반문하며 스스로 자택질하던 밤, 그리고 그 후 계속 이어졌던 불면의 밤들이 단순한 허무주의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했다.

어지러운 상념들로 미명의 어둠 속을 방황하던 눈길이 한동안 손 떼 묻은 아기의 곰돌이 인형에 머물렀다. 생계라는 막중한 현실에 만삭의 몸을 이끌며 출근하느라 태교마저 사치로 느껴지던 시절. 그래도 어미라는 일말의 죄책감에 인터넷에서 재료를 구매해 내가 직접 만든 작품이었다. 어둠 속에서 웃고 있는 인형을 보자 바느질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욕망이 샘솟았다.

바느질은 고된 노동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가난한 홀어미가 샅바느질로 어린 자식들을 키웠다는 옛이야기가 모성애의 단골 레퍼토리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 증거를 통해 인류학자들이 밝혀냈듯이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인간의 ‘머리’가 아닌 인간의 ‘손’을 통해서였다. 인간은 자신의 두 손을 통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해가는 포문(胸門)을 열수 있었다.

설빔을 만들기 위해 늦은 밤 한 땀 한 땀씩 이어가는 손바느질은 나에게서 한 마디 한 마디 하느님께 전하는 기도가 된다. 선을 따라 수놓게 되는 바늘 한 땀은 색동저고리처럼 밝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신께 봉헌되는 묵주 한 알이다. 언제나 ‘새로운 사태’라고 명명되는 위협적인 현실에서 성찰의 시간이 허락된다. 생산요소의 하나로 물리적 동원력에 불과하다는 교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영성(靈性)에 관한 관점으로 노동을 직시하게 만든다.

자신이 던진 화두에 대해 소설가는 ‘인간이 스스로 나아지려 노력해야만 진보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해답을 찾았다. 나는 스스로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손’을 믿는다. 인간의 겸손한 손만이 겨우내 메마른 땅 위에 봄비가 내리듯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 못 이루던 밤 무기력에서 벗어나고자 만들었던 아기의 설빔. 이제는 무의미를 견디기 위함이 아닌 새해를 맞이하는 세시풍속의 전례가 되었지만 아기의 설빔을 만들며 나는 ‘희망’을 ‘희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해 가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이 우리를 맞이할 것인가. 문제는 희망을 배우는 일이다.”

- 에른스트 블로흐 「희망의 원리」 중



# 입선



대전글꽃중학교  
권민희



## 수상소감

어머니, 아버지  
그림고 또 그림습니다.

## 꽃 피는 봄이 오면

엄마는 딸을 여섯이나 낳았고 이미 충분히 노산(마흔 셋)이었다. 할머니는 쪽진 머리가 다 엉클어지고 아끼던 은비녀가 방바닥에 나뒹구는 줄도 모르고 세 시간이 넘게 엄마와 씨름하고 있다. 엄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프로답게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지독하게 추운 겨울, 오빠는 추위를 뚫고 위험을 무릅쓰며 얼음 배를 띄우고 강바닥을 저어가며 동네 개구쟁이들 앞에서 대장 노릇을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음 배와 씨름을 하고 있다. 큰언니가 산모퉁이에서 식구들을 큰소리로 불러 모은다.

“엄마가 또 딸을 낳았어. 빨리 와!”

산에서 잔가지를 모아 땀감을 구하던 아버지는 큰언니의

“아부지, 엄마가 또 딸을 낳았어요.”

라는 소리에 부아가 나서 지계를 내팽개치고, 그 길로 일주일 넘게 행방 불명이다. 할머니는 한숨을 위아래로 내리쉬어도 속이 뒤틀리고 머리가 아프셔서 ‘명랑<sup>2)</sup>’을 연거푸 쏟아 붓는다.

나는 아들을 바라고도 바라는 집안의 여덟째딸로 태어났다. 엄마는 첫 아이로 딸을 낳고 둘째로 아들을 낳았다. 그럼에도 할머니께서 믿으시는 용한 점쟁이 말에 따라 아들 하나를 더 낳으려고 애를, 애를 썼다. 그러나 셋

2) 두통약

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결국 여덟 번째에도 딸을 낳은 것이다.

점쟁이는 “손자가 일찍 단명할 수 있으니 아들은 꼭 둘을 낳아야 한다.”고 할머니 귀에 속삭였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일 거라며, 뒤태가 남다르다며, 설마 칠공주를 채우겠냐며, 부처님이 그렇게 야속한 분은 아니라며, ‘나’를 아들로 확신하셨단다. 그러나 엄마는 오빠를 낳을 때만 꾸던 ‘하늘 호수의 물고기’ 꿈처럼 범상치 않은 꿈이 아닌 평범한 태몽-집 앞 냇가에서 다슬기 잡는 꿈-꿈을 꾸시고는 대변에 내가 딸임을 직감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모아 몰래 나와서 이별을 꿈꾸며 병원에 가실 준비를 했다. 안타깝게도 병원에 가는 도중 엄마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가 갚지를 않는 바람에 병원 침대에 두 시간 누워 있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병원에 먼저 가서 누워있으면 병원비를 가지고 오겠단 친구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 그리고도 엄마는 언덕배기에서 시대극 주인공처럼 ‘낙태’의 꿈을 안고 두어 번 더 굴렀더라. 울 엄마는 이 눈물 없인 못들을 이야기를 내게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나는 질기게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을 고비를, 엄마 뱃속에서 여러 차례 넘기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동그랗고 매서운 큰 눈에 놀부처럼 터질 것 같은 욕심보 볼이 통통 부풀어 오른 모습이 인상적이다. 8남매의 막내딸인 나는 엄마의 손에서 곱게 크기보다는 언니들 손에서 험하게 자랐다. 언니들 말에 따르면 개울가에서 징검다리 건너다 포대기에서 털커덩 빠뜨리기도 했는데, 안 다치고 멀쩡히 살아난 불굴의 계집애란다. 고추밭 땡볕에서도 별 쥘게 익어가며 울며울며 잘 컸단다. 속눈썹이 유난히 길어 언니들이 눈썹 위에 성냥개비 올리기 시합을 하며 놀았단다. 서너 살 적의 기억은 거의 나

지 않지만 손님들이나 동네 어른들 앞에서 언니들이 둘러 준 보자기 치마를 입고, 엉덩이를 찔룩이며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언덕에 올라보면 지저귀는 즐거운 노랫소리…….”

하며 목청껏 열창한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육아에, 농사일에 지친 엄마와 아버지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던 모습도……. 큰언니가 구해다 주는 헌 동화책을 닳을 정도로 또 읽고 또 읽으며 할머니께 들려드린 기억도 난다.

아버지는 세상 가장 정직한 농부이다.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린 만큼 거두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다. 발바닥에 굳은살이 켜켜이 두텁게 쌓여, 어린 나에겐 아버지의 발바닥에 심각한 병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마치 딱딱한 생고무를 발바닥에 덧대고 있는 듯했다. 예닐곱 살 때 나는 푼돈을 모아 아버지의 발바닥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꼬박 한 시간을 걸어 장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 발가락 양말을 샀다. 날이 어둑해지도록 돌아오지 않는 막내딸 때문에 걱정하던 엄마, 아빠는 그 일을 두고두고 회자하셨다. 맨발로 밭고랑을, 질퍽한 논을 종횡무진하는 아버지의 발바닥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사무치게 그립고 또 그립게 한다. 나는 엄하고 과묵한 아버지를 좋아했다. 내가 태어났다고, 또 딸이라고, 일주일을 가출한 아버지라지만 나를 보면 ‘좋아라!’ 하는 눈빛을 느낄 수 있어서 마냥 아버지가 좋았다. 아버지가 감을 수확하러 가시면 산모기에 물러가며 굵적굵적 현혈을 있는 대로 해도, 아버지를 따라 산에 가고, 땀별에 목이 타들어가도 아버지가 토마토를 따면 찌그러진 양동이를 들고 요리조리 따라다녔다. 그 덕분에 아버지는 ‘나’ 라면 무조건 ‘OK’ 하시는 나의 광팬이 되셨다. 나는 오빠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 집은 밥을 먹을 때에도 귀남이인

오빠와 아빠, 할머니 밥상은 따로, 엄마와 일곱 딸의 우르르 밥상 따로 놓는 집이다. 오빠 밥상 위엔 언제나 계란 반찬이 있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짭조름한 계란말이, 고등어구이 반찬이……. 꿀각꿀각 침만 수십 번 삼키다가 아버지를 바라보면 아버지는, 누구도 모르게 내 밥 위에 계란말이를 슬쩍 올려 주신다. 엄마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손등을 찰싹 맞기도 하지만 그 계란말이는 세상 둘도 없는 꿀맛이었다.

생각이라는 걸 하는 시기인 예닐곱 살부터 나는 엄마에게 반항이란 걸 하기 시작한 것 같다. 모든 중심이 오빠에게 가 있는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고, 오로지 농사일만 하는 엄마가, 나에게 관심도 없어 보이는 엄마가 미워지기 시작한 것 같다. 가난한 형편의 우리 집에선 어린 나도 똥굴똥굴 놀려주지 않았다. 오빠를 제외한 모든 딸들에겐 제각각 임무가 있었다. 밥하기, 설거지하기, 방청소하기, 빨래하기, 소여물 주기, 마당 쓸기 등의 집안 일과 농사일 등.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내가 좋아하며 스스로 하는 일은 잘했지만 엄마나 언니들이 시키는 일은 어릴 때부터 뻘뻘 안하려고 했다. 그럴 때면 엄마의 ‘저, 저, 저 호랭이 물어갈 년!-울 엄마의 잇을 수 없는 창작 욕을 여지없이 들으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맞기 일쑤였다. 언니들은 잘못을 했을 때 화가 나신 엄마의 매를 피하기 위해 후다닥 도망을 쳤지만 나는 도끼눈을 뜨고 고스란히 매를 맞았다. 반항심으로 가득한 눈을 매 쉽게 번뜩이며…….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부모는 이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등 따박따박 따지며 엄마를 기가 차게 만들어 놓기 일쑤였다. 결국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6학년 때 두 번의 가출을 감행한다. 물론 겁은 많아서 동네 옹아<sup>3)</sup> 나무

---

3) 자두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담벼락에 기대어 꼬박 밤을 보내고 이른 새벽 집으로 들어가는 짧은 가출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에는 피아노가 미치도록 배우고 싶었다. 공부를 곧잘 하던 내가 콩나물 음표만 나오면 바보가 되는 기분이 들어서였던 것 같다. 아버지를 조르고 줄라 멜로디언을 샀을 때는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멜로디언 줄에서 침이 줄줄 새어나오도록 불고 또 불며 음악 책 속의 노래를 연주했다. 학교에서는 합주부에 들어가 공연을 하기도 했다. 결국 성에 안차 엄마를 몇날며칠 설득하고 협상한 끝에 드디어 ‘순피아노’ 학원에 입성했다. 바라고 바라던 피아노를 배우는 일은 나에게 꿈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일이었다. 두 달도 안 되어 바이엘 상하권을 해치우고 체르니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3개월 시작부터 갑자기 레슨비가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며 나의 피아노를 배우는 행복한 시간은 종료되고 말았다. 어려운 가정형편을 이유로, 엄마는 두 달만에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게 하셨다. 아직도 생생하다. 울며불며 더하게 해달라고 졸랐던 모습이, 순피아노 학원 담장 옆에서 피아노 치는 아이들을 훑쳐보던 어린 내 모습이!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나는 순피아노 학원 옆을 맴돌았다.

엄마는 한 달만에 다시 내게 누런 봉투를 내미셨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뼈들뼈들 말라가며 시위를 해대는 막내딸에게 주는 피아노 레슨비였다. 손톱 밑이 까맣게 열무를 키우고, 정수리가 놀리도록 열무 보따리를 이고 진 엄마의 마음을 들여다 볼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부모님은 그냥 천생 허리 굽혀 일하는 농사꾼이셨다. 새벽부터 씨를 뿌리고, 감을 따고, 열무를 내다 팔아야 팔남매를 먹여 살릴 수 있기에 손톱이 무더지고 등이 굽는 줄도 모르고 날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며 버티고 또 버티셨다. 그 땀 몰랐다. 아버지가 나에게 멜로디언을 사주기 위해, 엄마가 나를 피아노 학원에 보

내 주기 위해 정수리가 아프도록 열무를 이고지고 시장 바닥에 몇 시간을  
쭈그리고 계셨는지…….

고집이 세고, 하고 싶은 건 하고야마는 성격 탓에, 일찍 취업에 나선 언니  
들과 달리 오빠만 갈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욕심이 많은 딸  
덕분에 아버지는 저녁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차를 놓치곤 하는 딸을 위  
해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으셔야 했다. 깜깜한 밤 무서운 시골길, 산모퉁  
이를 돌아갈 때면 서걱서걱 들리는 섬뜩한 소리가 심장이 벌렁거리게 무서  
워 매번 아버지를 애처롭게 부르며 울먹였다. 아버지는 전화로 들려오는 내  
목소리에 꼬박 한 시간 밤길을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

아들을 귀히 여기는 집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건 부  
모님이 막내딸을 귀애해 주셨기 때문임을 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  
에 실패하며 잘난 자존심에 흠집이 났을 때도 부모님께서서는 세상 똑똑한 척  
혼자 다하는 딸을 끝까지 믿어 주셨다. 덕분(?)에 나는 종갓집에 시집을 갔  
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종갓집 종손에, 누나가 여섯 있는 칠남매  
중 막내이다. 나는 아들을 선호하는 집안의 불합리함에 그렇게 반항해 놓  
고는 시댁에서 종손 며느리로서 해마다 명절에, 제사에, 시제를 지내고, 아  
들을 낳기 위해 병원을 다니며 노력한 끝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고지  
식한 엄마가 되었다.

오늘 아침엔 온 세상 하얗게 눈이 내린다. 얼음 배를 띄우던 그날처  
럼…….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몇 번의 수술 끝에 겨우 깨어난 올 아버지가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민희야…….”하신 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올 엄마 정신 줄 놓고 나를 멍한 눈으로 “민희야…….” 부른 날  
도 눈이 그렇게 오더니…….

눈길을 달리며 오랜만에 노래를 부른다. 눈앞이 자꾸만 뿌옇게 되는 건

함박눈 때문이지 눈물 탓이 아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언덕에 올라보면 지저귀는 즐거운 노랫소리…….”

오늘은 내 생일(음력 1월 10일)이다. 그리고 아버지 기일이기도하다.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예뻐하셨는지 내 생일날을 제삿날로 삼고 돌아가셨다. 생일이라며 아버지를 보러 가지 않은 그날을 그토록 후회하게 하시려고……. 놀랍게도 엄마도 내 양력 생일(양력 2월 15일)에 돌아가셨다. 절대 잊지 말라는 엄명이다.

그래서 내가 더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울 엄마, 아빠에게 재롱을 떠는 것이다. 어릴 적 좋아했던, 아니 부모님이 더 좋아하셨던 이 노래를 부른다. 소복이 쌓인 눈을 한발 한발 밟으며 부모님 산소 앞에 섰다. 눈물을 참을 때면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부모님을 닮아, 나도 콧구멍을 벌렁거린다. 언니들과 산소 앞에서 서로 벌렁 코를 가리키며 한바탕 웃는다. 그리고 또 그립다. 힘줄 불거진 엄마의 손을, 딱딱한 생고무 아버지 발바닥을 어루만지고 싶다!

“꽃 피는 봄이 오면, 다시 올게요. 노오란 민들레, 붉은 진달래 필 때 다시 불러 드릴게요.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 입선



전)대구지방교정청  
이재기



## 수상소감

먼저 저의 작품을 선택해주신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에 퇴직을 한 후 매 달 받아보는 연금지를 통해 글쓰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작품도 투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글을 쓰면서 아버님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옛 생각이 많이 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작품집이 출간되면 가족들과 함께 읽으며 새록새록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  
아 한편으로 설레는 마음도 가득합니다.  
문학적 소질을 개발토록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아버지의 보물

“와~뒤라, 와~ 뒤”

오늘도 어김없이 집안창고로 들어가는 나를 한사코 말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제지하는 한 사람.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백수를 바라보는 연세에 자그마한 체구인데도 어디서 이런 장정 같은 힘이 나오시는지

오늘도 아버지의 고집에 이끌려 창고 밖으로 나오고 만다.

한 달에 서너 번 문안드리고 낡은 물건을 정리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와 옥신각신 하였고 결국 승자는 항상 아버지였다.

이후로는 아버지의 보물창고 경비가 더더욱 삼엄해졌고 아버지의 고집 덕분에 창고는 별 소득 없이 겨울이 다 지나도록 보존이 되어 먼지가 소복이 쌓인 고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셋노란 개나리가 피고 벚꽃비가 나리는 완전한 봄이 되자 더 이상은 창고를 케케묵은 먼지구렁이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오늘은 기필코 정리하리라 마음 먹고 고향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을 푹푹 해치우신 아버지는 춘곤증이 몰려오는지 서리 맞은 새하얀 속눈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느리게 움직인다. 머지않아 드르렁~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이때다 싶어 도둑고양이마냥 살금살금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목장갑을 끼고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곤히 주무시던 아버지는 언제 기척을 느끼셨는지 벌써 마당 앞으로 나와 불호령을 내리신다.

“놔~뒤!! 다 필요한 물건인데 왜 다 헤집어 놔나?”

아, 오늘도 날이 아닌 것 인가? 도대체 써먹지도 못하는 물건을 뒤 안에 뒹하러 그리 안고 계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헛헛한 마음으로 냉수 한 사발 들이켜며 마당에 앉아 있다 보니 개집 뒤로 낫익은 고물 하나가 눈에 띈다.

‘자 전 거’

비가 오나 눈이오나 모진 수 세월 속에 몇 번의 수리는 했었지만 끄떡없이 일어나 굴러가던 너도 이젠 기력을 잃은 모양이다 그 자리에 말없이 서 있게...

그렇게 보고 있자니 옛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아버지는 농부셨지만 손재주가 있어 나무로 만든 가재도구를 파는 목물점을 함께 운영하셨다.

시골이라 5일장을 다니시면서 물건을 파셨고 요즘처럼 차량이 흔치않은 시절이라 장날마다 이른 아침에 자전거에 짐을 가득 싣고 비포장 길인 신장로를 3~40리 길을 달려서 장터로 가셨다

장날은 해질 무렵에 파장이 되어 짐을 싸서 되돌아오시는데 그쯤 아버지는 단골인 친한 손님들과 국밥집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세상사는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다.

이쯤 얼큰하게 취한 상태로 짐을 꾸려서 집으로 오다가 강 나루터에서 배를 기다리는 동안 강변주막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또 한 잔 하실 때가 많았다.

한 번은 어느 늦봄에 막내 남동생을 낳으려고 어머니가 출산진통을 겪고 계시고 멀리 계신 외조모께서 출산을 도와주러 오셔서 나에게 누나와 함께 장에 가신 아버지 마중을 가보라 하셨다.

강가 나루터에서 날이 어둡도록 누나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도 노 젓는 소리가 들리면서 배가 가까워질 무렵 희미하게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자 우리는 “아버지 빨리 와요 엄마가 동생 낳으려고 해요”

라고 소리치자 아버지는 뱃전에 자전거를 앞세우시면서 “그래 다 왔다” 말 씀하시며 배에서 내리는 순간 취기에 몸을 가누지 못한 아버지는 자전거와 함께 강물에 빠지셨다.

함께 마중나간 누나와 함께 킁킁거리며 아버지를 끌어 올리려 애썼으나 물에 젖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을 머금은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나는 아버지를 부축하고 누나는 자전거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온 젖은 지폐를 빨랫줄에 널며 내일은 맛난 고깃국

을 먹을 수 있겠다며 누나와 키득거렸다.

대청마루에 누워 산들산들 봄바람에 말라가는 지폐를 쳐다보고 있는 사이 이내 안방에서 으앙~하고 우렁찬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아카시아 꽃향기와 함께 동생이 우리 집으로 온 날이었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는 차가 흔치 않아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집을 찾을 때 아버지는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낡은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한참이나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휴대폰도 없던 시절에 매번 마중 나오시다가 다치시면 어찌 하려고요 하고 걱정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 알았다 너들이나 조심해라”라고 말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그 자리에 나와 계신다.

우리가 가지고 온 물건과 딸아이를 먼저 태우고 집으로 향하곤 하셨다

지금도 고향집 안방 처마 밑엔 낡고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자전거는 묵묵히 자리하고 있다. 이젠 낡고 자전거 타기엔 힘든 연세시니 지나가는 고물상 장수에게 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버님은 “놔둬라 됐다 놔 둬”라고 말씀하신다.

오래된 물건에 본인 자신을 투영하신 것인지 아버지의 알 수 없는 아집에 자전거 버리기는 반 포기상태였다.

마음대로 갖다버리고 싶지만 지난 번 안 쓰는 밥통을 갖다 버렸다가 몇날 며

철을 밥통애기만 하시는 바람에 곤혹을 치렀던 적이 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가치 없는 물건으로 보이지만 아버님의 맘속엔 오랜 세월동안 아버지와 함께 가족을 위해 발이 되어준 자전거가 고맙고 귀중하게 여겨지시는 애지중지 여기고 계신걸 보니 아버지께겐 보물이나 다름없다.

철없는 자식은 아버지의 깊은 심정도 모르고 부끄럽게 말을 꺼낸 네 하며 속으로 후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운동을 갔다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수석을 정리하면 딱 맞는 깨끗한 책장을 발견하고 수석을 진열하면 너무 좋은데다 딸아이가 어릴 무렵 데리고 무거운 돌을 주우러 다녔던 추억을 곱씹으며 집으로 킁킁거리며 옮겨와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딸에게 말했다.

“이 돌들은 말이야 네가 어릴 때 업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힘들게 주어서 추억이 많은 기라.”라고 하자 딸은

“그냥 밖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이잖아요. 뭐하러 진열해요 집도 좁은데 더구나 고물 진열장이네요”라고 하며 분리수거장에서 책장을 주워온 것에 얼굴을 찌푸리며 반색하였다.

내 판은 젊은 시절 수석 수집을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힘들게 모은 돌을 진열하고 싶었는데 마침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상태가 양호한 책장이 버려져 있어 기분 좋게 집으로 옮겨 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딸에게 서운한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너무 서러웠다.

아버지도 내가 한 말을 듣고 난 후 이런 서러운 심정이었을까?

하루아침에도 급변하는 빠른 시대 속에 살면서 아버지는 낡은 자전거를 보며 몇 기억을 더듬어 시는 걸까? 아마도 그런 게지. 그 추억 속에는 자식들이 오롯이 타고 있는 것이겠지.

장에서 물건을 팔고 생선을 한 두릅씩 매달고 오시던 아버지, 자식들이 부모 뵈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째 말없이 자전거를 타고 사라지셨다가 밭에서 온갖 채소를 싣고 오시던 아버지, 손녀가 온다는 소식에 터미널에 끌고 나와 바구니에 태우고 방앗간에서 떡을 찾아 싣고 오시던 아버지.

아직 아버지는 그곳에 계신 것일까? 아직 아버지의 기억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머물러 있는 것 걸까?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아버지의 보물창고 속 소중한 추억들을.. 아버지는 소중한 추억이 떠나갈까 봐 그렇게도 쉽게 버리지 못하신 거겠지. 바라보기라도 하며 되새김 하시는 거겠지.

오래된 고물 자전거라도 아버지에게는 그때 그대로의 자전거인 것을.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형태가 변한다고 그 가치가 변할쏘냐?

# 입선

전부산을속도초등학교  
곽 선 희



## 수상소감

내가 가진 실력보다 넘치는 입선 소식에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자랑 먼저 했다.  
자랑이 앞선다는 건 내가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는 증거다.  
좋은 향기는 알리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관심을 기울여준다.  
앞으로 더 정진하여 좋은 작품으로 문예대전에 임하리라 다짐해본다.  
아직 부족한 작품을 심사해 입선으로 뽑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50년 만의 화해

며칠 전에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 화환 속에 파묻혀서는 돌아가신 분이 사진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계신데 딸들은 자신들의 서러움에 울고 있다. 지인 가족들이 천주교 신자이고 나도 신자라서 장례미사에 참석했다. 신부님이 고인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고인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써 한평생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힘겹게 가정을 지키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이제 본향으로 가신겁니다.”

그 때 오래 전에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떠올랐다. 나의 아버지도 힘겹게 가정을 지키셨나?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엄마 돌아가시고 전혀 소식 없이 지내던 아버지가 어느 해 여름방학 즈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딸의 이름을 팔아서 딸의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했다. 돈 한 푼 내지 않고, 돌아갈 가정은 이제 없었다. 엄마는 돌아가셨고 하나밖에 없는 딸은 입주 가정교사 고학생이었으니 그 책임이 당신에게 없다 말할 수 있나? 아르바이트로 모은 마지막 학기 등록금으로 아버지의 하숙비를 계산했다. 학교를 졸업해야 내게도 살 길이 열리는데, 내 사정을 잘 아는 지인에게 돈 별면 갚겠다고 약속하고 등록금을 빌려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 전에 아버지는 엄마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의 집에서 사셨다. 그래서 엄마는 홀로 병이 드셨고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외롭게 돌아가셨다.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핑계로 이 여자 저 여자 품을 기웃거리며 아기들을 낳았지만 아들을 얻지는 못하셨다. 그리고 딸들이 태어났지만 다

들 아기 때 죽고 말았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한창 공부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여자를 데려와 한 집에서 산적도 있었다. 엄마는 몸종처럼 여자의 온갖 시중을 다 들어주었다. 그녀도 딸을 낳았지만 금방 죽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많은 딸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았고 대를 이을 생각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그런 일 이후 엄마와 나를 힘들게 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50년을 살았다. 그 날 장례미사에서 내게 들려오는 말씀은

‘딸아, 너의 아버지도 가장으로 무거운 어깨 힘들게 살았다.’

맛아! 날 낳으시고 기르시고 힘들게 사셨지. 아버지 자신의 헛된 욕심 때문에 나를 힘들게 사셨다. 문득 어릴 때 나를 사랑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배위에 올려놓고 잠을 재우던 모습이며 술을 드시면서 잔에 남은 몇 방울을 입에 털어 넣어주시던 모습, 엄마가 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행복해 하시던 모습들이.

‘내가 뭐라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 한단 말인가?’

하느님은 이미 아버지를 용서하셨는데 생각하니 견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50년만의 회개였고 50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했다. 지인의 아버지는 천주교 묘지인 ‘하늘 공원’에 모셨다. 내 아버지는 화장하여 화장장 근처 산에 아무렇게나 뿌렸다. 아버지는 살았던 흔적조차 없다. 엄마도 마찬가지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로 살면서도 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했다. 아니 어찌면 모른체하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가장으로써 아버지로써 사는 것이 그리 힘드는 일인 줄 알지 못했다. 너무나 당연히 아버지의 노후는 가난하고 쓸쓸했다. 아무도 아버지를 반겨 주지 않아 혼자 고심한 것이 딸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는 거였다. 왜 그러셨냐고 묻는 나에게 그러셨다. “오랫동안 널 보지 않았더니 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라고 대답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울어버렸지만 절대로 아버지 앞에서 내 형편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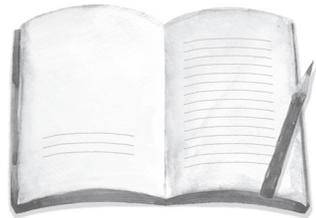
##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 말의 결과는 내 아버지에게서 그대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갈 곳도 머물 곳도 없어서 떠돌며 사셨다. 몇 년 후 직장이 생기면서 월급을 받고 내 방이 생기고 삶에 여유가 생겼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고학생인 내가 아버지와 지낼 방을 얻을 돈이 없었고 그렇게 아버지는 홀로 떠돌다 돌아가셨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는 다른 여자의 집에 살고 계셔서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시자 소식을 듣고 오셔서는 심하게 많이 우셨다. 그리고는 엄마가 입던 옷을 보파리에 싸 가지고 같이 사는 여자에게 주겠다고 가져 가셨다. 어느 여자가 죽은 본처가 입던 옷을 반길 거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주접을 떨었다. 주변에 좋지 않은 인상만 남기고 “넌 담에 데리러 올게.” 하시고는 떠난 뒤로 소식이 없었다. 엄마 초상 때 주변 이웃 분들이 저런 아버지를 가진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나 땀에 많이 울었다고 나중에 이모가 전해 주셨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용서를 청한다. 홀로 외롭게 떠돌게 해서 죄송했다고 빗을 내서라도 아버지를 모셔야 했는데, 내 미래는 어둡지 않았고 학교는 금방 졸업했다. 두 입에 설마 거미줄을 쳤을까? 왜 그 때는 그런 맘이 들지 않았는지 회한이 밀려온다. 미움과 원망이 앞서서 그 모든 걸 막아 버렸다. 몇 년 전 구청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던 기록을 찾았다고 후손을 찾고 있다면서 내가 독립유공자 자손이라고 명예롭게 살아라고 말해주고 갔다. 그 때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풀지는 않았다. 아버지 살아온 행적만 보면 우리 아버지는 인간쓰레기 같은 느낌을 준다. 그렇지만 내 아버지에게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여전히 난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때는, 내 아버지인데도, 몹쓸 딸년이다. 죽어서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용서를 빌어야 하나? 그 때 이모가 옆에 사셨는데도 이모도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살아 계실 적에 효도하라 학교에서 배웠다. 의지할 형

제도 하나 없는 내가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것 같았던 그 때 유일한 보호자인  
엄마를 잃은 무서운 현실 앞에서 난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하루하루 혼자  
살아남기도 벅찼다. 이런 변명이 아버지를 버려둔 딸이 할 변명은 아닌 것 같다.

“아버지, 당신은 아시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 선택을, 그리고 이제는 용  
서하실 거죠?”

아버지를 그리며 이 글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 시조



## 심사평

시조는 정형시이다. 때문에 형식과 내용 둘 다 잘 맞아야 한다. 시조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면에서는 시조 율격 안에서 활달하고 자유로워야 하고, 내용면에서는 현대감각이 잘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 현대시조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응모한 대분의 작품이 형식과 내용을 잘 갖추었고, 그러한 작품들 중에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작품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눈에 확 띄는, 탁월한 작품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심사기준은 쉽게 읽히면서 선명한 이미지와 메타포도 있고 현대감각이 떨어지지 않는 작품을 우선으로 했다. 심사결과 <아버지의 손수레>를 시조부문 최우수작인 금상으로 선정했다.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가 끌고 가는 손수레로 비유하며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족에 대한 애뜻함이 묻어나는 작품이며 공감과 절제미를 갖추었다. 은상을 받은 <결>이란 작품은 쇼-윈도에서 보는 나무의자의 결을 보며 내 삶과 연계해 본 작품이다. 나무의 푸른 생명력이 내게도 전이될 것 같다고 느낀 발상이 참신하다. 동상의 <따뜻한 얼음>은 시냇물이 버들치와 피라미 등이 추울까 봐 도통한 얼음장 얼음을 덮는다는 발상이 따뜻하다. <다랭이 마을을 읽다>에서는 다랭이 논배미를 일구시며 힘들게 사시다 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는 작품으로 현대감각이 잘 드러난다.

특선이나 입선에 든 작품들인 <가을 앞에서> <3월 목련> <세 밀 에> <허물벗기> <넥타이> <참두릅 편지> <궁터> 등의 작품도 모두 형식과 내용을 잘 갖추고 일정한 수준을 지닌 작품들이다.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좋은 시조 작품들을 보여주시리라 믿는다.

심사위원 : 김민정, 이종기



# 시조

**금상** 아버지의 손수레 \_ 강원도 태백시 남궁증

**은상** 결 \_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김견숙

**등상** 따뜻한 얼음 \_ (전)인천광역시 남동구 차용길  
다랭이 마을을 읽다 \_ 경남 남해군 김향숙

**특선** 가을 앞에서 \_ 국방부 이성배  
3월 목련 \_ (전)대구선원초등학교 이상윤  
세 밑 에 \_ (전)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최영기  
허물벗기 \_ 전남 순천중앙초등학교 강수화

**입선** 넥타이 \_ 제주지방법원 강용전  
참두릅 편지 \_ 경기도 오산시 손창완  
공터 \_ 경남 창원군 남지초등학교 임미연

# 금상



강원도 태백시  
남 궁 증



## 수상소감

오늘, 가슴속의 말을 하나 부러놓으며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拙稿를 選해주신 심사위원님, 자리를 마련해주신 인사혁신처 관계자 분들, 나를 아는 모든 분들께 말입니다.

항상 내 삶의 원천인 아내와 아이들, 굴곡진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합니다. 나의 글들이 누군가에게, 늘 따뜻하고 위안을 주는 작은 그릇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버지의 손수레

이가 빠진 상처마다 바람 찢는 손수레  
녹슨 뼈가 버거운지 헛바퀴만 게워낸다  
아버지 가시던 그날  
그러줘던 골육(骨肉)처럼

낮달에 베인 가슴 터벅터벅 끌고 가던  
두 바퀴 그 마음엔 가족사(史)가 달려있다  
눈물짐 오므려 안고  
등글어진 한평생!

부르르고 해진날도 깊고 가면 따스웁듯  
비어서 환한 적막 골목길에 세워둔 채  
아버지, 손 모은 창가  
웃음 서넛 마중 온다



# 은상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김 견 속



## 수상소감

'격렬비열도'라는 시조 한 편이 내 마음에 크게 들어있었던 그날 오후가 아니었다라면, 내가 시조를 공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상은 분명 내게 좀 더 공부하라는 공언의 자리다.

내게 시조 세계의 '퍼펙트'를 보여주신 이정환 선생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함께 시조를 공부했던 '비단시조'의 선생님들. 교육의 현장에서도 시상을 떠올리고, 마음을 나눌 분들이 있어서, 나는 작게나마 내 시조의 폭과 깊을 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께 이 상의 큰 영광을 돌리고 싶다.

## 결

가구점 쇼-윈도에서 지난 생명을 마주한다.

켜켜이 내려앉은

활엽의 시간 속에

잘려진 동심원들의 속내가 처연하다

굽이치는 나뭇결마다 흘렀던 생명수가

내 지닌 결을 따라 흐르고 이어질 듯 해

뜨거운 물푸레나무

저 의자에 앉고 싶다



# 동상



전)인천광역시 남동구  
차 용 길



## 수상소감

겨울 빙벽에 서서 공공 언 발을 비비며 울었던 때가 있었다. 그 칼끝처럼 시렸던 얼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한겨울 추위를 막아주는 두툼한 솜이불, 그 속에서 숨 쉬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 따뜻한 얼음

버들치 유명하는 하 맑은 시냇가에  
물방울 한 겹 두 겹 찬 공기로 엮어서  
도톰한 얼음장 이불 찬바람을 막는다

해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물속 나라  
돌 틈에 잠을 자는 피라미 추울까 봐  
두툼한 얼음장 이불 포근하게 덮는다



# 동상



경남 남해군  
김향숙



## 수상소감

의사가 없는 섬마을에서 일차보건의료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랭이 마을은 14년 동안 S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하며 매주 목요일마다 왕진을 다니던 지역입니다. 꽃비가 오나 갯바람이 불어도 사시사철 왕진가방을 둘러메고 찾던 곳입니다. 덜컹덜컹한 길 위에 흩날리는 흙먼지를 마시며 108계단 낭떠러지에 나이팅게일의 탐을 쌓아 올리던 내 젊은 날의 초상화입니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명소로 지정되어 도로가 포장되고 주민들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을 다닐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물을 길어와 국수를 삶아 설탕에 말아주시던 꼬부랑 할머니의 인정이었습니다.

천수답에 의지하며 농가월령가를 부르던 주민들의 억척스러움과 저의 아린 마음을 달래주던 바다의 운술을 붓으로 그려보고 싶어 시조를 배웠습니다. 그 덕에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 수상을 계기로 문학의 길로 가는 길이 즐거우리라 여기며 더욱 정진해보렵니다.

## 다랭이 마을을 읽다

꽃구름 놀다 떠난 논배미를 읽는다  
바다로 기울어진 등뼈를 추스르며  
풀꽃을 보듬어 안은 벼랑에 밀줄도 굵고.

동 튼다 까치 울면 부딪치던 쟁기소리  
허기를 끌어안은 아버지 베적삼에  
층층이 반원을 돌린 파도의 뼈, 하얗다.

얼결에 넘겨버린 책장 도로 뒤져 가면  
손 모아 별을 헤던 어머니의 시린 무릎,  
지워진 낙서사이로 눈물자국 보인다.



# 특선

국방부  
이성배



## 수상소감

흔들리지 않는다고 불혹이 아니라  
흔들릴 위험이 많아 불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흔들리면서 천천히 남은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 가을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아보아도  
바로서기 힘이 들어 자꾸만 흔들린다  
마음에 가래툫 서는 불혹(不惑)의 비탈길  
내리막이 오르막보다 힘이 드는  
긴 여름 보푸라기 말갱게 빗질하고  
청천(青天)에 가슴 비워도 줄지 않는 삶의 무게  
사람이 갈대 따라 온몸으로 흔들림은  
질마재 넘어오는 바람 탓이 아니다  
저 붉은 가을 앞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것



# 특선

전)대구선원초등학교  
이상윤



## 수상소감

세상사는 일치고 쉬운 것이 어디 있으랴만, 삶으로 글을 쓰는 일은 정말 어렵다.

## 3월 목련

조용히 시를 쓰는 3월 목련 앞에서  
물감처럼 번져오는 봄의 색 바라보네  
나무는 무언이지만 시가 말을 하네

저 나무 내 안에 모국어처럼 데려와  
물주고 거름 주며 중심에 두고 싶네  
순결의 꽃 한 송이도 몸으로 읽고 싶네

시가 익을 때마다 나무가 춤을 추네  
구슬처럼 구르는 순백의 향기들  
내일은 마음 하나도 나비처럼 오겠네



# 특선



전)호남관광광역경제발전위원회

최영기



## 수상소감

지난 연말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한해가 가버리는 아쉬움을 시조로 써본 것인데, 수상자 명단의 말석에서나마 저의 이름이 있어서 반갑군요.

다음 기회에는 말석 자리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 밀 에

지폐 한장	열없이	냄비에	넣고 나와
삼번 출구	포차에서	꼬치에	소주 한잔
짜르르	목울대 타고	세밀을	적셔 온다

메마른	회오들이	가슴속을	헤집고 나와
고해소를	서성이다	응어리로	얼어붙어
꿇은 눈	채찍 바람에	고드름이	되었다

한 해가	또 기울면	몇 해나	남았을까
부산행	경부선 열차	동대구쯤	지났을 듯
아내가	잠든 사이에	버킷 리스트	쓰고 있다



# 특선



전남 순천중앙초등학교  
강 수 화



## 수상소감

한 시절이 가고 있습니다. 문학의 주변인으로 지내고 있던 제가 처음으로 쓴 시조로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조를 처음 써보았는데 상을 받아서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갖지도 버리지도 못한 문학의 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상은 언제나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신춘문제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도 글과 만날 것 같습니다.

수상 할 때마다 저보다 더 행복해하는 제일 친한 친구 귀염이 신랑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빠가 항상 잘한다고 해서 진짜 내가 글을 여러 장르 공모할 수 있었어, 고마워~!

# 허물벗기

- 부제: 양파를 까며 -

눈물은 맵다하여 흘리는 게 아니었다  
투명한 속살을 한 꺼풀 벗길 때마다  
감추고 싶은 일들이 하나둘씩 맴돌아

잠시만 아주 잠시만 기다려 다시 올게  
청춘은 눈 녹듯이 흔적도 사라졌고  
사랑해 낫선 수화기 음성처럼 희석돼

입술의 주름들이 깊어지는 날이면  
모두들 잠든 시간 흐릿한 전등아래  
조용히 몸을 웅크린 도약하는 희망들

얼마나 벗겨야만 우리는 투명해질까  
허물을 벗겨내자 오래된 멍과 상처  
그래도 가슴 따듯한 사람들 이야기

# 입선



제주지방법원  
강 용 전



## 수상소감

유명한 목월 선생님도 '시에 입문해서 10년을 죽으라고 써야 겨우 시가 보인다!'고 하셨다 하는데 30여년이 넘게 죽어라고 손이 부르터지도록 붓방아를 찧어도 글이 안 보인다.

글 한 줄 쓰느라 밤을 새우는 게 다반사였던 생활에 대해 요즘 들어 부쩍 역겨운 핏빛 감정마저 치고 올라와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나를 여태껏 존재케 하는 메커니즘이라 생각하며 견디고 있다.

부족한 2%를 채우라는 뜻으로 못한 글을 뽑아 주신 거 같다.

아마 그 2%가 200%일 터이다.

변변찮은 글을 심사하시느라 몸살을 앓았을 것 같은 심사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곁에서 부족한 글을 다듬어 주는 고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넥타이

아침에  
조이는 건  
힘겨운  
네 짐이고

저녁에  
푸는 것은  
고단한  
네 삶이라

매었다  
풀었다하기를  
몇 번인지  
매듭만 서럽다.



# 입선



경기도 오산시  
손 창 완



## 수상소감

“3장 6구 45자 안팎의 비슷한 음수로써 채워지는 4음보격의 절제된 형식을” 시조(時調)가 우리나라 시(時)이라고 열변 토하는 선배님의 얘기 듣고 지천명되어 한번 배우고 도전하고 싶었다.

“입선을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문자메시지 받고 잠시 오묘한 기분이 들었다. 입선 그 이상을 바라고 있었는지 아닌지 하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 봤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싶어서 가슴속 깊이 마음을 움직이는 한편의 시조를 마음에 담아본다. 황폐화 되어가는 메마른 땅에 단비 같은 글을 쓰고 싶어서 늦게나마 꿈을 향해 함께 여행길에 오릅니다.

좋은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을 풍요롭게 해 주듯이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어를 쓸수 있도록 다시한번 마음으로 다짐 해봅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두릅 편지

어제는 비가 와서 벚꽃 환한 잎을 벌고  
오늘은 바람 불어 한 풍경이 지워졌다  
자욱이 흩어져 버린 꽃잎을 줍는 아내

꽃 한 잎 궁글리면 갱년이 손을 들고  
팬스레 눈물짓다 돌아선 그 뒷등에  
입힌 채 어느 봄날이 까무룩 졸고 있다

떠나보낸 시간들은 되불러도 바이없다  
여태도록 쥐고 있는 아내의 일기장에  
참두릅 쌀쌀한 글로 입맛 돌게 하고 싶다



# 입 선

경남 창원군 남지초등학교

임 미 연

## 공 터

까르르 웃음소리 퐁퐁 튀던 그 곳에는  
따가운 햇살가득 찌렁 쩍 매미소리  
그들도 더위에 지쳐 어디론가 숨었다.

까치발 시소는 먼 산만 바라보고  
키다리 늘임봉은 오늘따라 외로운데  
한 줄기 부는 바람에 소리치는 느티나무

애들아, 보인다. 가까이 잘 보여.  
흠쩍 자란 키만큼 큰 꿈을 담은  
또랑한 검은 눈동자 해맑은 아이들이



# 동시



## 심사평

동시는 4박자의 예술이다.

동시는 재밌어야하고 동심성이 듬뿍 담기고 간결하며 이미지가 선명하고 문학성이 풍부해야 좋은 작품이라고 말한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작품. 그것이 동시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동시는 어린이만이 읽는 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제21회 공무원문예대전에 응모한 동시를 읽고 동시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린이의 심성이 작품 속에 녹아들어야하고 그리고 시적으로 승화되어야 좋은 동시이다. 그런데 이번 응모 작품의 일부는 이미 동시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와 소재로 쓴 작품이 적지 않았다. 그런 작품은 독자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남북이산가족 문제, 물의 중요성과 더불어 지구환경, 우주과학, 해양문제, 그리고 소외된 이웃(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주제와 소재의 폭을 넓혔으면 한다.

금상으로 올린〈빈집〉은 구성이 탄탄하고 재미와 문학성도 두루 갖춘 작품이다. 나름 아름답게 메워지는 자연의 순리와 정서를 포용하고 있어, 가끔 과거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한 감동을 가슴 깊이 안겨 준다.

은상으로 올린 〈감기 걸린 우산〉은 내 가까이 있는 사물은 무심하게 대하기 쉬운데도 비오는 날 친구가 되어준 우산을 의인화한 작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데워준다. ‘우산이 끼슬끼슬하게 웃었다’ 는 끝 행이 읽는 이(독자)의 마음을 이끈다.

〈선 그리기 연습〉은 뭐든 하기 힘든 장애를 가진 제자를 끝까지 격려하여 간신히 그은 선 두 개로 기적의 개울을 만들어 주는 가혹한 정이 담긴 작품으로 읽는 사람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게 한다. 나와 지체장애 특수아 영수, 그리고 선생님의 모습이 선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동상으로 올린 〈방학식〉은 어쩔 동심을 이렇게 예쁘고 귀엽게 꼬집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3연 6행의 아주 짧은 작품인데도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어 시가 맛깔스럽다. ‘제발 길게 말하지 마요// 지금도/ 방학이/ 지나가고 있잖아요.’에서 보듯 깔끔하고 명쾌함의 미학을 본다.

〈보호색〉은 한 생명이 안전하게 성장하려면 보호가 필요하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는 작품이다. 꽃이 낳은 아기 복숭아를 눈에 띄지 않도록 같은 색깔로 보호해 주는 잎새의 아름답고 간절한 마음이 돋보인다.

〈참새〉는 명자나무와 참새의 이미지가 선명한 작품이다. 긴 겨울을 보내고 난 후,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나 재잘대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참새로 승화시킨 작품으로 조그만 참새처럼 귀엽다.

500편에 가까운 동시가 응모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동시문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함을 알 수 있었다. 입상한 분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이번에 선에 들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꽃 피우기를 바란다.

심사위원 : 오순택, 이복자



# 동시

**금상** 빈집 \_ 경북 상주 외서초등학교 문초록

**은상** 감기 걸린 우산 \_ 해양수산부 남해해양조사사무소 서정완  
선 그리기 연습 \_ 충북 음성 감곡초등학교 이태동

**동상** 방학식 \_ 경기도 화성 금곡초등학교 유영길  
보호색 \_ 전)강원영동병무지청 한영환  
참새 \_ 충북 제천 의립초등학교 윤은분

**특선** 바람도 그릴 수 있다면 \_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한경남  
보길도 \_ 전북 익산 이리고등학교교 이진호  
등대 \_ 국세청 서원식

**입선** 아픈 길 \_ 경기도 안산시 선부초등학교 장흥진  
웅크린 중앙선 \_ 광주 본촌초등학교 유백순  
반대로 \_ 울산광역시 북구 이선희  
거인 \_ 전)충북음성소방서 윤은경

# 금상



경북 상주 외서초등학교  
문 초 록



## 수상소감

내가 사는 상주시 낙서리는 작은 시골동네여서 빈집이 참 많다. 어린 두 자녀의 손을 잡고 골목을 걷다 빈집을 만나면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과거에 박제되어 있던 시간들이 하나하나 살을 붙이고 다가와 내 곁에서 가만히 숨을 쉬기 시작한다. 사람을 모두 떠나보낸 빈집을 우두커니 보고 있으면 문득 안방 문을 열고 야기 엮은 엄마가 나올 것만 같다. 부엌에서는 생선 굽는 냄새가 나고 마루에서는 팽이 돌리는 소리가, 건넌방에서는 옆드려 숙제하는 아이의 글씨 쓰는 소리가 사그락 사그락 들리는 듯 하다. 그리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집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것만 같다.

사람이 살면 막 지은 흙집이라도 무너지는 법이 없는데 사람이 떠나고 나면 제아무리 튼튼한 벽돌집이라도 금방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빈집을 보고 있으면 나는 자주 먹먹해진다. 그냥, 그래서, 빈집의 대문 앞에 선 나는 가끔 그 집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진다.

저기요, 거기 누구 없어요? 라고.....

정말 거기 아무도 없어요? 라고.....

동시의 세계를 열어주신 상주아동문학회 회원님들과 김수형 선생님, 언제나 믿고 응원해준 가족들, 모두 사랑합니다. 또한 동시창작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크나큰 용기를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빈집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집이 아니다, 하지 마세요  
방문 꼭 닫아 건 아기 고양이 세 마리가  
하나뿐인 엄마를  
기다리는 집이랍니다

마당 가득 들꽃이 흔들리고  
겨울 구들장에 불이 들지 않는다고  
이름조차 없다, 하지 마세요  
내 이름  
내서면 낙서리 60-3번지를 불러주는 편지가  
뜰 위에 놓일 때도 있으니깐요

쌍인 눈조차 쓸어주는 이 없으니  
봄조차 오지 않을 거라,  
염려 마세요.  
때가 되면 민들레 꽃씨 날아오르고  
벌들이 뽕뽕 꿀 차를 돌리고  
바람의 시계가 계절을 읽어주는  
그런 집이니깐요

더 많은 풀꽃이 뿌리 내리고  
더 많은 벌레가 잠을 자고  
더 많은 엄마들이 새끼를 품는  
자연의 집으로  
지금 나는 조용히  
리모델링 중이니깐요



# 은상

해양수산부 남해해양조사사무소

서정완



## 수상소감

아침에 문득 날아온 은상수상 문자 메시지.

고등학교때 써클에서 수줍게 굵적이던 글 이후 전혀 시나 하물며 일기도 써 본적이 없던 내게 뜻밖의 선물이 찾아왔네요.

공무원이지만 타 직렬과 다른 일년 중 6개월을 바다와 부대끼며 보내는 시간에 마치 특별한 경험 마냥 찾아온 문예대전.

그렇게 시작된 여정에 소소한 아이들과의 일상의 추억을 칠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시를 읽어주시고 큰 상으로 선물을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리고 아빠의 빈자리에도 항상 씩씩한 올 아들 영찬이 귀여운 딸 보민이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은선씨 항상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 감기 걸린 우산

나는 비오는 날에만

우산이랑 친구였다

아!

그럼 맑은 날에는

우산은 누구랑 놀지?

신발장에 가만히 서있는 우산은

꼭 무슨 생각에 빠진 것 같다

아마 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 아닐까?

우산은 비를 가장 잘 아는 박사니까

햇볕이 쨍쨍한데도

우산은 젖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엄마 몰래 베란다로 우산을 데려왔다

자! 어서 먹어

감기에 가장 좋은

반짝반짝 햇볕 알약이야!

우산이 까슬까슬하게 웃었다

# 은상



충북 음성 감곡초등학교  
이 태 동



## 수상소감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동시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약간의 고민과 관심을 갖다가 우연히 큰 상까지 받는 영광을 안았다. 몇 해 전 유난히 눈빛 맑은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선천성 안면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까지 앓고 있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해 한창 호기심이 많아질 때였지만 그에게는 학교생활 자체가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으리라.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선생님의 입모양이나 부모의 도움으로 미미한 수준의 의사전달만 가능한 정도였으니까.

어느 상쾌한 봄날 미술시간, 그는 뭔가 강한 도전의식과 정열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였다. 바로 선 굵기 연습...

우리는 함께 도화지에 희망을 색칠하고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선 굵기 연습은 곧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 주었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오늘따라 그 아이가 궁금해진다.

## 선 그리기 연습

영수는 안면 장애아  
뭐든지 하기 힘들다

영수에게 선 긋는 일은  
하느님이 개울 만드는 일과 같다

그렇지 그렇게  
한 번 더  
옳지 잘 하네  
선생님의 응원 속  
한참 만에 선이 두 줄,  
개울이 되었다

영수가 만든 개울  
선생님의 이마에도  
영수의 이마에도 땀이 흐른다  
시냇물이 되어 흐른다  
나는 영수가 그린 시냇물에 뛰어놀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 넣었다

---

\* 영수- 초등1학년 지체장애 특수아

# 동상

경기도 화성 금곡초등학교  
유 영 길



## 수상소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해와 공감의 폭이 저절로 넓어질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른의 시선이 아니라 아이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하고 반성해야겠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동안 만났던 여러 아이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학 작품을 사이에 두고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의 낱말 한 줄의 문장에서 함께 울림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학식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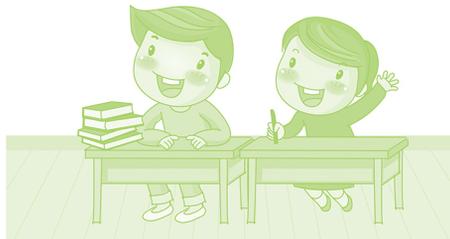
아,

제발 길게 말하지 마요

지금도

방학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 동상

전강원영동병무지청  
한영환



## 수상소감

푸른 바다가 있는 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경포 해변 파도는 발자국 지우는게 일이다. 갈매기 발자국도 초희의 시상 발자국도 쓸어 바다 깊이 저장했다. 지운 칠판엔 새로운 문장이 온다.

콘크리트 타설한 마을길에 강아지가 들국화 문양을 새겨 놓은 것처럼 고정 관념을 버리고 새롭게 나를 알고 만들어 가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좋은 글 쓰겠습니다. 졸작을 선정하여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병무청 직원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 보호색

복사꽃이

열매를 낳고

나비처럼

나풀나풀 날아 갔습니다

아기 복숭아는 무서워

얼굴이 파래요

파란 잎새는

꼭꼭

숨겨 주었어요



# 동상

충북 제천 의림초등학교

권기연



## 수상소감

창문만 열면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쥐똥나무의 진한 향기도 덤으로 들어오고요.

겨우내 명자나무에 터를 잡고 살던 참새들이 요즘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새끼를 기르기 위해 짝을 찾아 뿔뿔이 흩어진 모양입니다. 튼실한 새끼들을 길러내고 가을이 되면 또다시 명자나무로 모이겠지요.

명자나무에 살던 참새들처럼 자연의 품에서 동심을 잃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게 동심이란 큰 선물을 남겨두고 가신 그리운 엄마에게 이 시를 참새처럼 재잘재잘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 참새

따사한 햇살이  
명자나무 가지 끝에  
올망졸망  
참새를 달아놓았다.

매서운 바람이  
명자나무 가지 속에  
쏘옥쏘옥  
참새를 숨겨놓았다.

부드러운 봄별이  
명자나무 가지마다  
재잘재잘  
참새를 풀어놓았다.



# 특선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한 경 남



## 수상소감

기쁘고 설립니다. 해마다 공고문이 뜨면 출품을 해놓고 재주도 없으면서 무작정 기대하고 발표를 기다렸는데 올해 특선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진지한 사색과 고민을 더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 위원님과 공무원 문예대전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바람도 그릴 수 있다면

햇살이 사뿐이 앉아쉬는  
눈부신 가을오후  
새로 산 도화지에  
뜰 안 풍경을 그려봅니다.

이른 봄 심었던 조롱박이  
내 키만큼 높이 자라  
감나무 아래로 주렁주렁 매달렸고

오래된 담벼락 사이사이  
배불뚝이 호박도  
토실토실 살이 쪼어요.

할머니가 말려 놓으신  
붉은 고추들은 토방 가득 쌓여있고  
노오란 씨옥수수수수들은  
처마 끝에 매달리어 알알이 웃고 있지요.

잠자리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늘이 바다인양 마음껏 헤엄치고  
두 팔 활짝 펴준 너그러운 햇살이  
따사로운 가을을 물들여줍니다.

그러다가 문득  
“훽” 바람소리와 함께  
열린 대문 사이로  
불품없이 마른 낙엽이  
언뜻언뜻 고개를 내밀다가  
금세 사라져 버렸어요.

새로 산 도화지 속에  
뜰 안 친구들 다 그려 넣었는데  
이녀석 바람은  
도대체 그릴수가 없어요.

바람도 그릴 수 있다면.



# 특선



전북 익산 이리고등학교

이진호



## 수상소감

참 바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문들 가운데 '공무원문예대전'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시(詩)'가 아지랑이처럼 가슴 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숨을 돌리며 묵혀 두었던 시작노트에서 끄적거리다만 시를 다시금 꺼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무척 소중한 상입니다. 이 상이 아지랑이처럼 일던 시에 대한 열정에 봄비가 됩니다. 삶 가운데 작지만 소박한 꽃들을 피워 나가겠습니다.

## 보길도

바다가 타들어 가면  
보길도 행 마지막 배  
집을 향합니다.

씩씩한 섬 아낙  
집 향하는 배 위에서  
아이의 걸음마를  
가르치면

아이는  
푸른  
바다를  
걸습니다.

그 순간  
섬이고, 바다고, 사람이고  
모두다  
아이의 배경이 됩니다.

# 특선



국세청  
서원식



## 수상소감

먼저 특선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심사위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8년 7월이면 입사 20년차가 되어 그동안 업무에만 매진하다가 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겸 문예대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동시' 부분에서 입상하게 되어 기쁩니다.

남매 아빠로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항상 가져라' 라고 얘기만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술선수범하는 멋진 아빠가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생각을 항상 견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대

거센 바람

이겨낸 바다가

지쳐 잠이 든 밤이면

엄마 등대는

저 넓은 바다를 다 안는다

상처난 곳은 없는지

더 어루만져 줄 곳은 없는지

아침까지 뜬눈으로.



# 입선

경기도 안산시 선부초등학교  
장 흥 진



## 수상소감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개망초꽃을 한아름 꺾었다.  
우리 동네 곳곳에 흐드러지게 핀, 훈한 들꽃이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결혼식 놀이를 할 때, 꽃다발로 쓰던 꽃이기도 하다.  
꽃들이 시들까 봐 나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진다.  
쌀을 씻어 밥을 안쳐야 할 시간이지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꽃병을 찾는다.  
희고 노란 꽃빛깔이 고와 식탁에 올려놓으니 집안이 환하다.  
시도 그렇다.  
고단하고 바쁜 나날이지만 가끔씩 풀꽃 같은 시를 만나면 일상이 향기롭다.  
볼 때 마다 생기를 얻는다. 그리고 그런 시를 쓰고 싶다는 바람도 갖게 한다.

# 아픈 길

공사 중

팻말을 보고

육교가

병났다는 걸 알았다

넓은 등에

붕대처럼

두툼한 철판을 두르고

굴착기가 움직일 때 마다

끔끔거린다

쫓쫓쫓쫓

허리 아프신

우리 할머니

지팡이 짚고

먼 길 돌아가시며

천하장사도

아플 때가 있구나

# 입선

광주 본촌초등학교  
유 백 순



## 수상소감

교장 선생님께서 노란 국화꽃 화분을 정성껏 키워 교실로 보내주셨습니다. 교실에 가을 향기가 가득했죠. 교실에서만 보기 아까워서 복도 한 가운데 줄줄이 내어 놓았어요. 학생들은 국화꽃 화분을 중앙선 삼아 한 줄로 걸어 다녔죠. 개구쟁이 녀석들은 그 국화꽃을 푹푹 찢어 뛰어 넘어 다니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국화꽃 화분은 얼마나 가슴 조마조마할까 생각하며 시를 써 보았습니다. 국화꽃 화분을 보내주신 문두석 교장선생님께, 개구쟁이 제자인 승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 웅크린 중앙선

선생님은 교실에 있던  
노란 국화꽃 화분을  
복도 한가운데 줄줄이 내놓았어.

-이건 중앙선이다!

아이들은 거리의 차들처럼  
복도 한 쪽으로 줄을 맞춰  
화장실에 가고, 도서관도 갔지

선생님이 안 볼 때는  
폴짝 폴짝 폴~짝  
국화꽃 화분을 잘도 뛰어 넘었어

그럴 때마다  
국화꽃은 눈을 꼭 감고  
온 몸을 아주 작게 웅크렸단다.  
행여 아이들이 넘어지고 다칠까 봐.



# 입선



울산광역시 복구  
이 선 희



## 수상소감

충만한 봄기운에 취한 듯이 호기롭게 도전한 공무원문예대전에 뜻하지 않게 입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팍팍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나마 설렘 가득한 봄날의 여유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썼는데 필력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한 글임에도 좋게 봐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반대로

저만치 앞에 가는 여자애들 무리 속에서  
내 눈은 검은색 긴 생머리 너만 찾는다.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뒤에서 바지런히 쫓아왔지만  
콩닥콩닥하는 마음 소리 들켜버릴까  
팬스레 이마에 땀방울을 꼭 놓고 도망을 간다.

학예회 날  
꽃분홍 드레스를 받쳐 입은 널  
내 눈에 오래도록 담고 싶은데  
너는 뒤돌아볼 생각을 않고  
가지런히 빗어 올린 너의 머리만  
애꿎게 뒤에서 형클어트린다.

운동장 한 귀퉁이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네 쪽으로  
일부러 공을 차며 맴맴 돌아도

별빛 닮은 너의 고운 눈빛  
내게 내려줄 생각을 앓고  
같이 놀고 싶은 간지러운 마음 들켜버릴까  
괜히 모래성을 무너트리며 달음질친다.

이 세상 나만 아는 비밀 한 가지—  
내가 건넌 말에 네가 웃으면  
우리 엄마보다 우주보다 더 예뻐고  
내가 건 장난에 네가 영 하고 울음이라도 놓으면  
형아랑 싸웠을 때 받는 별보다 나는 더더 아팠다.  
선생님이 알아챌까 짝꿍에게 들통날까  
내 마음 꼭꼭 눌러 담아  
꽂꽂 숨겨두고 싶지만  
너에게만 들키고 싶은  
분홍빛 마음.



# 입선



전충북음성소방서  
윤인경



## 수상소감

※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늘 아이같아서 동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쓸수록 어릴적 내가 생각나 행복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면서 동시 쓰기가 재미있어졌습니다. 재미있는 일로 상을 받게 되니 더없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 거인

팔이 긴 6학년 형 둘이  
양쪽에서 긴 줄을 돌리고  
우리들은 줄을 넘어

쿵 쿵 쿵 쿵

땅지콩 지원이부터 팔에 집스한 서준이까지  
둘씩 짝이 되어 어깨동무 하고  
한명도 빠짐없이 줄을 넘어

쿵! 쿵! 쿵! 쿵!

운동장도 놀라게 하는  
우리는 거인이야



# 동화



## 심사평

동화는 우리 삶에 꿈과 기쁨을 안겨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문학이다. 공모전의 입상작 선정인 만큼, 어느 분야처럼 문학성과 참신(독창)성, 구성력, 표현력, 문장력에 기준을 두고 세심히 따지지만, 동화는 집중 시간이 길지 않은 어린이가 주 독자이므로 무엇보다 흥미를 끌며 감동이 있는 작품을 찾아내기로 했다.

솔직히 말하면 읽기 전, 공무원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타고난 문학적 소질이나 끼를 감추지 못한 분들이 막연한 향수나 취미로 썼을 거라 여겼다. 그런데 심사자의 선입견과 달리 동화문학에 대한 관심과 실력이 깊고 높음에 놀랐다. 소재가 다양하고 서사형태도 넉넉하여 탄탄한 작품이 많아 읽는 즐거움이 컸다. 동식물에 대한 애정과 생명 중시, 학교와 가정에서 벌어지는 자잘한 이야기 속에 사랑과 희생 등을 재미있게 드러낸 감동적인 작품들이었다. 동화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상의 에피소드를 풀어놓는 것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동화는 자칫 어린이가 쓰는 생활문 범주에서 조금 어른스러워 보일뿐 교훈을 담거나 훈계성 작품이 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다. 유쾌한 상상력으로 끝없는 환상세계를 그려낸 판타지 동화도 많았다. 생활동화보다 판타지동화는 착상이 어렵고 소재와 주제의 연결에 구성력이 필요한데, 많은 노력이 엿보였다.

소재도 신선하고, 주제와의 연결은 좋으나, 이해하기 어려워 읽힘성이 낮은 작품은 제외시켰다. 어른이 되짚어 읽어봐야 한다면 어린 독자에게 난해하여 흥미를 잃게 하기 때문이다. 시작은 좋은데 점점 힘이 부치는 아쉬운 결말, 결말이 희망이 없거나 캐릭터의 모호함으로 평이해진 작품도 걸어냈다. 동화라는 그릇에만 담았을 뿐, 어린 주인공 입을 빌어 설교와 교훈을 늘어놓은 작품도 제외시켰다. 좋은 소재이나 동화 작법의 이해 부족으로 구성이 어설피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작품도 있었다. 주 독자가 어린이임에도 어른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그대로 씀으로써, 거슬리는 작품도 탈락시켰다. 이는 부드러운 음식에 갑자기 딱딱하게 씹히는 것이 들어 있는 것 같은 이질감으로 어린이에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화적 분위기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강아지 포포를 만나는 방법〉은 반려동물인 애완견의 죽음을 맞이한 어린이가 화자이다. 어른들이야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당연한 귀결로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린이에게는 커다란 상실이며 슬픔이다. 충격에 싸인 아이를 걱정한 어른들은 앞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야겠다는 결론이나 내고, 이 다음에 저승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말로 넘어가는 게 고작이다. 그 바람에, 당장 만나 간식을 주고 싶은 아이는 죽는 방법을 찾아나서는 상황이 돼버린다. 죽는 방법을 여기저기 알아보던 어린 화자가 다행히 도서관 사서 언니의 도움으로 잘 극복하는데, 어린이 나름의 죽음에 대한 철학을 잘 풀어낸 작품이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풀어나가면서 슬프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어린이만의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충격이 오롯이 보이는 데서 작가의 탄탄한 실력이 돋보였다.

〈아기토끼 친칠라와 분홍삼각소라〉는 옛이야기 ‘토끼의 간’에서 모티프를 따온 판타지로 산이 있는 육지가 온갖 물고기와 바닷말 가득한 바다 속으로 자연스레 바뀌는 이야기가 재미있어 저학년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당근 밑에 숨겼다는 토끼의 간을 찾기 위해 당근을 하나하나 뽑음으로써 그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 바다로 바뀐 배경이 다시 산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판타지에서 놓치기 쉬운 개연성을 살려주는 장치로 이야기 전체가 전혀 작위적으로 보이지 않는 수준 높은 작품이다. 다만 잘 알려진 이야기의 패러디 수준에 그쳐 작가만의 창작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두 편 중, 재미만으로 그치는 것보다 어린이다운 철학으로 감동까지 준 〈강아지 포포를 만나는 방법〉을 금상으로 올려, 〈아기토끼 친칠라와 분홍삼각소라〉는 은상이 되었다.

〈내 옆에 너〉는 요즘 뉴스에도 뜬 소재로 이기주의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의 엄마는 아파트 품격이 떨어진다며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시위에 누구보다 앞장선다. 그런 엄마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주인공 역시 아빠와 단둘이 사는 피죄죄한 경호와 짝이 되자 몹시 실망한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고장 났는데, 키 크고 잘 생겨 누구나 짝이 되길 바랐던 현진이는 도망을 간다. 그때 아버지가 자전거 수리 가게를 하는 경호가 나타나 고쳐준다는 이야기로 어떻게 흘러갈지 처음부터 결말이 보이는 구성이긴 하지만 잘 짜인 작품이었다.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 역시 잘 하다가도 막상 경연에 나가면 얼어붙어 실력 발휘를 못 하는 어린이의 공포심에 대해 다룬 작품으로 많이 써 본 사람의 수준이 느껴졌다.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를 얻는 과정인 판타지와 현실세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것은 좋는데 베개를 바꿔치기해도 잘 이겨낸다는 설정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은 흔한 방법이란 점이 아쉽기는 했다.

끝으로 수상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단지 습작 양의 부족일 수 있기에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할 거라 믿으며 더 정진하라는 말을 전한다.

심사위원 : 김완기, 이봉



# 동화

**금상** 강아지 포포를 만나는 방법 \_ 대구광역시 윤인진

**은상** 아기토끼 친칠라와 분홍삼각소라 \_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동택

**동상** 내 옆에 너 \_ 대구 왕선초등학교 이재영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 \_ 경기도 남양주시 송의정

**특선** 몽당연필을 찾아라! \_ 강원도 화천초등학교 김은득  
산타할아버지의 선물 \_ 서울 송파경찰서 오상백  
겨울 나무 삽화 \_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지영

**입선** 마녀 호텔 \_ 법제처 노연우  
긴 꼬리 고양이 몽몽 \_ 서울구산초등학교 이영주  
민무늬 편지의 이야기 \_ 강원지방우정청 이재우  
작은 음악회 \_ 관세청 김해공항세관 이수진

# 금상



대구광역시  
문인건



## 수상소감

처음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문자를 다시 보기도 하고 수상작 명단을 계속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설레었던 마음이 아직도 설레이고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지만 크게 봐주신 분들과 저에게 용기를 준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강아지 포포를 만나는 방법

엄마는 포포가 곧 죽을거라고 했다. 엄마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포포는 작은 갈색 개로 학교에 다녀오던 나를 맞아주곤 했다.

“포포는 너무 늙었단다. 며칠간만이라도 포포를 더욱 사랑해주자.”

늦게 돌아온 아빠가 말했다. 포포는 침대 위 내 곁에서 잠들곤 했는데 힘이 없어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자기 집에서 헥헥 대고 있다.

“포포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래. 아빠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누구나 죽는다. 포포도 예외는 아니란다.”

아빠는 같이 슬퍼하는 표정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키우던 애완동물이 마중을 나온다고 하더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 지수가 나중에 크면 포포를 만날 수 있을거야.”

아빠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엄마는 그렇다고 말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분명 그렇고말고.”

나는 포포에게 다가가 가장 좋아하는 리본 모양 간식을 줬다. 포포는 꼬잉하더니 고개를 돌렸다. 포포에게 손을 갖다 대자 포포는 혀를 짧게 내밀어 내

손가락을 훑어줬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외할머니보다 힘이 없는 듯 했다. 나는 포포 옆에 이불을 놓고 포포를 보며 엎드렸다. 포포는 나를 보고 있었고 나도 포포를 봤다. 포포는 나랑 장난을 치고 싶어 했다. 할머니의 눈과 닮아 있었다.

\*

포포는 일주일 후 죽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었다. 나는 포포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엄마는 장례식 가게에 맡겼다고 했다. 엄마와 나는 포포를 데리러 갔다. 포포는 개집 모양의 나무 상자 밑에 있다고 엄마가 말해주었다. 도자기 그릇을 열어보자 하얀 가루가 나왔다. 엄마는 포포가 편안해지기 위해 화장을 했다고 했다.

나는 하얀 가루가 포포가 아닐 거라고 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아저씨도 엄마도 맞다, 아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일기장에 앞으로는 절대 울지 않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다고 썼지만 슬퍼져서 울 수 밖에 없었다. 엄마는 나를 혼내지 않았다.

\*\*

또 착한 어린이가 될 기회를 놓쳤다.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만 포포를 담은 가루를 집에 가지고 와버렸다. 뒤에 놓은 포포의 사진을 보자 눈물이 흘렀다. 나는 가끔 엄마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할 때마다 포포를 보러 갔다. 그때마다 포포가 보고 싶었다.

학교를 몇 번 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엄마는 벌써 포포의 사진을 치우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방에서 엄마의 전화를 들은 적이 있었다. 엄마는 이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수가 포포가 죽은 게 너무 슬픈 모양이야.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치우는 게 낫겠어. 그렇지? 앞으로 애완동물은 안기르는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그 후로 포포를 별로 보러 가지 않았다. 엄마가 포포의 사진과 하얀 가루를 치울 까봐 겁이 났다. 나는 엄마 대신 할머니에게 포포에 대해 말했다. 할머니는 나를 안아줬다.

“불쌍한 것. 걱정하지마라. 포포는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야. 포포는 할미가 만나서 지수가 잘 있다고 말해줄터니.”

“할머니도 죽어?”

“그럼. 할미도 죽지. 죽은 사람들은 모두 저승에 가서 만난단다. 포포도 그렇단다.”

할머니의 표정은 포포와 닮았다. 할머니도 죽는다면 나는 너무 슬플 것 같았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뛰어오던 포포가 자꾸만 생각났다. 맛있는 밥을 아무리 먹어봐도 똑같았다. 할머니와 엄마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죽은 사람들은 저승에 가서 포포를 만날 수 있다. 나는 포포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

“선생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왜 그런 걸 묻니 지수야?”

“포포가 죽었거든요. 죽으면 포포를 만날 수 있대요.”

선생님은 당분간 말이 없었다.

“하지만 지수가 죽는 건 아주 먼 일인데. 가만히 기다려도 포포를 만날 수

있단다. 하지만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야. 그때까지는 즐겁게 있다가 포포를 만나면 즐겁게 놀아주는 게 어떨까?”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포포를 꼭 봐야 해요! 포포를 위해 남겨둔 간식이 제 방 서랍에 얼마나 많은데요!”

뭐든지 다 아는 선생님도 포포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럼 포포를 만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나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했다.

“선생님. 포포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아세요?”

그림 학원 선생님이 왜 묻냐고 하자 나는 포포 이야기를 했다.

“그럼 우리 포포를 한번 그려볼까?”

“그럼 포포를 만날 수 있나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포포는 지수의 그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포포를 며칠 만에 그릴 수 있었다. 그림속의 포포는 내가 던진 공을 물고 나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림속의 포포는 진짜 포포와는 달랐다.

“선생님. 포포는 이것보다 더 갈색인데 그림 속 포포는 왜 이렇게 검은 거죠?”

“글쎄다. 여길 좀 더 밝게 칠해보는게 어떨까?”

“선생님. 포포는 이렇게 뛰어오지 않아요.”

“선생님. 포포의 귀는 좀 더 접혀 있어요.”

그때마다 선생님은 여길 고쳐보는게 어떨까 말했지만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도

포포를 똑같이 그리지 못했다.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했다.

“아저씨! 포포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 아세요?”

“지수구나! 왜 그런 걸 묻는 거니?”

경비 아저씨는 열쇠를 짤랑거리며 내게 말했다. 나는 또 포포 이야기를 해야 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건 어떨까?”

“포포 이야기를 싫어하세요! 전에는 엄청 좋아했는데…….”

“포포는 사실 살아 있는게 아닐까? 분명 기다리면 언젠가는 찾아 올 거라고 생각 한단다 아저씨는.”

“그럼 왜 지금은 포포를 못 보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더더욱 포포가 보고 싶어졌다.

나는 학교 컴퓨터 시간에 인터넷에서 죽는 방법을 검색해봤지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뜰 뿐이었다. 더 이상 물어볼 사람이 없었으므로 도서관에 가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근처 도서관에 가서 죽는 방법을 검색해봤다.

‘800만가지 죽는 방법’

이거다! 나는 어른들이 많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서 책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키 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나는 항상 문 앞의 의자에 앉아서 웃고 있는 언니가 생각났다. 그 언니라면 도와줄 것 같았다. 다행히 의자에 앉아 있던 언니는 책을 찾아다 주고는 상냥하게 왜 이 책을 보려고 하는지 물었다. 나는 포포 이야기를 해주었다.

“글세. 그럼 언니가 여기 있는 걸 읽어보고 찾으면 말해줄까?”

“네! 고맙습니다!”

언니는 자리로 돌아가서 사탕을 세 개나 주고는 앉아서 책을 읽었다. 나는 그 언니가 책을 읽는 것을 기다렸다.

언니는 곧 내게 다가왔다.

“이름이 뭐니?”

“지수요!”

“언니가 이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방법은 찾아 볼 수 없었어. 그런데 포포를 만날 수 있다고 누가 말해줬니?”

“엄마랑 아빠. 할머니가요!”

“그렇구나. 다른 방법은 찾지 못했니?”

“네! 포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어요. 할머니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언니가 포포를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는데 말해줄까?”

언니는 내게 엄마같이 웃으며 말했다.

“네! 제발 말해주세요!”

“좋아. 그럼 언니가 말해줄게.”

언니는 나를 의자에 앉혔다.

“언니도 포포 같은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단다. 지금은 하늘나라로 갔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 그래서 꿈에서라도 보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생각했어. 얼마 안돼서 강아지가 꿈에 나타났었어. 우리 둘은 신나게 뛰어 놀았지.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말이야. 우리 둘은 지쳐서 땅바닥에 누워 있었어. 그러자 강아지가 내게 말했다.”

“뭐라고요?”

“자기는 할 일이 있어서 어디론가 가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어. 지수가 학교에

가는 것처럼 말이야. 보고 싶을 때면 가끔 보러 오겠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있으라고 했어. 다음에 만나면 서로 웃는 낯으로 만나자고 했어. 그때부터 언니는 그 강아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기쁘고 행복한 생각이 났단다. 그게 자기도 기쁘다고 했어.”

“그럼 저도 포포를 계속 생각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언니는 믿어. 하지만 매일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포포를 생각하면 돼! 매일매일 생각하면 포포는 지수가 너무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매일 재밌고 기쁘게 보내야 돼! 포포가 왔을 때 포포가 슬퍼지지 않게 말이야.”

“고마워요! 언니의 강아지 이름은 뭐예요?”

“초코란다.”

“꿈에서 초코를 만나면 언니에게 말해드릴게요!”

나는 드디어 포포를 만나는 방법을 알아냈다. 나는 포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아주 가끔씩 포포를 생각했다. 그러곤 매일을 즐겁게 지냈다. 포포는 몇 밤 되지 않아 꿈에 나타났다. 초코와 함께였다.

나는 포포에게 간식을 주고 뛰어놀기도 했다. 포포는 나를 핥거나 멍! 하고 즐겁게 소리치기도 했다. 우리는 놀다 지쳐 바람을 쐬며 들판에 누워 있었다. 포포는 내가 즐겁게 지내는 걸 보니 자기도 행복하다고 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놀러오겠다고 말하며 예전과 같이 기운차게 짓었다. 초코도 짓었다.

나는 도서관 언니에게 초코를 만났다고 전해주기 위해 토요일에 엄마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갔다. 해가 반짝였다. 언니는 포포처럼 웃으며 나를 향해 인사했다.

“안녕! 지수야!”

“안녕 언니! 나 포포랑 초코를 만났어요!”

# 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 동 택



## 수상소감

당선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잠시 얼떨떨해 하다가 부리나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글쓰는 일을 저 자신보다 더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에게 당선소식을 전하게 되다니, 그래서 저보다 그 사람이 더 기뻐 생각을 하니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함께 기뻐해준 동장님과 사무장님, 그리고 장림1동 행정복지센터 동료직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미약한 재주를 알아봐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끝으로 부족하지만 한 저에게 늘 오래 참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아기토끼 친칠라와 분홍삼각소라

아침햇살이 눈부신 어느 여름 날, 숲속에 사는 아기토끼 친칠라는 아까부터 이리저리 깡충거리며 뛰어다닙니다. 조금 가다가 멈춰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좌우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다시 옆으로 몇 걸음 옮기고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어린 청설모가 아기토끼 친칠라에게 다가서며 물었어요.

“친칠라야! 너 뭐하고 있니?”

“췌-”

친칠라는 손을 입에 갖다 대며 청설모에게 조용히 하라고 눈짓을 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호기심이 생긴 청설모가 다시 아기토끼에게 물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래 바로 이 소리야! 저쪽이야!”

친칠라는 길쭉한 귀를 더 바짝 세우고, 소리 나는 쪽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응? 어디에?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야?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저기야, 바로 저기!”

친칠라는 재빨리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린 청설모도 뒤늦게 친칠라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 나도 같이가!”

친칠라가 멈춰 선 곳은 커다란 바위 앞이었어요. 그런데 친칠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리는 아까보다 더욱 크고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디지...?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친칠라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침햇살을 받은 분홍삼각소라가 바위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기토끼 친칠라는 소라도 소라지만 이렇게 분홍빛을 내면서 신비롭고 영롱한 소리를 내는 소라가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젯, 예쁘긴 뭐가 예쁘냐? 시끄럽기만 한데 뭘.”

어느 새 따라온 청설모가 귀를 막고 투덜거렸어요. 친칠라는 분홍삼각소라를 바위틈에서 꺼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청설모와 함께 킁킁거리며 분홍삼각소라를 꺼내려고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어요. 왜냐하면 분홍삼각소라가 바위틈에 너무 꽉 끼어있어서 조금만 힘을 주면 금세 부서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친칠라는 분홍삼각소라를 꺼내는 일을 잠시 멈추고 분홍삼각소라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그러자 친칠라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얼씩! 썩아아, 차르르르! 철씩! 쇠아아아아~’

이 소리는 옆집 부엉이 아저씨가 코를 고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조금 달랐어요. 사각거리는 소리가 어째 어린 청설모가 도토리를 먹는 소리인 것 같았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눈을 감고 들어보기로 했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끼끼- 끼룩끼룩’

처음 들어보는 새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건넌마을에 사는 원숭이네 가족 웃음소리 같기도 해요. 분홍삼각소라가 들려주는 소리는 정말 재밌고 신기하구나 생각하면서 아기토끼는 빙긋 웃으며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예요? 아기토끼 친칠라는 처음 보는 풍경에 깜짝 놀랐어요.

친칠라가 사는 숲이 온통 물로 가득 차 버린 게 아니겠어요? 다행히 물속에서도 친칠라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친칠라는 낯선 풍경에 자꾸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거렸어요.

“어...친칠라야? 이제 일어났나?”

이렇게 묻는 어린 청설모의 입술 사이로 공기방울이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청설모는 아까부터 깨어있었나 봅니다.

“이...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응, 나도 몰라. 일어나보니까 숲속이 바다처럼 변했더라구.”

아기토끼 친칠라는 나무들 사이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다.”

머리가뻘뻘한 문어도 보고, 별을 닮은 불가사리도 보았습니다. 아기토끼는 문어의 다리를 잡고 줄넘기도 해보고, 불가사리를 쿡쿡 찌러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어요. 벌써 밤이 되었구나하고 친칠라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기토끼 친칠라는 너무나 놀라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범고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범고래는 너무 커서 마치 큰 산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범고래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들이 길게 늘어졌어요. 청설모는 진작에 도망가고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친칠라에게 범고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넌 처음 보는 친구로구나. 이름이 뭐니?”

“나...나는 아기토끼 친...친칠라라고 해.”

겹에 질린 친칠라가 말을 더듬으면서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만나서 반가워. 난 범고래라고 해.”

“범...고래?”

“응. 내가 너무 커서 놀랬지?”

아기토끼 친칠라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며 천천히 범고래를 살펴 보았어요. 가만 보니 범고래는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고 부드러운 말투에다가 다정해 보였어요. 그래요. 범고래는 몸집만 컸지 순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범고래는 친칠라에게 등으로 올라오면 더 재미있고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아기토끼 친칠라는 얼른 고래의 등으로 올라갔어요. 말미잘 뒤에서 어린 청설모가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친칠라야, 놀라지마.”

범고래는 빙긋 웃으며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범고래의 등에서 분수처럼 물줄기가 솟구쳤어요. 친칠라는 솟구치는 물줄기를 타고 바다위로 올라왔어요.

“아~~호~~”

아기토끼 친칠라는 오랜만에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아, 상쾌해.”

고래물줄기 때문에 엉덩이가 조금 가렵기는 했지만 처음 보는 바다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숲과는 전혀 다른걸!”

푸른 바다는 밤에 보던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고, 바다물결은 부드럽게 넘실대며 춤을 추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새가 날아다니구요. ‘끼룩 끼룩 끼르르르’. 어디선가 들어본 소리에요. 맞아요. 이 소리는 분홍삼각소라가 들려준 소리였어요.

“고마워, 범고래야.”

아기토끼 친칠라는 범고래 등 위에서 한참을 놀다가 다시 바다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친칠라는 헤엄을 칠 줄 몰랐기 때문에 물로 가득찬 숲속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때였어요. 몸에 초록색 띠를 두른 근육질 몸매의 거북이가 친칠라를 잡으려고 재빨리 헤엄쳐 왔습니다.

“이놈! 토끼야, 거기 섰거라!”

친칠라는 깜짝 놀라 영문도 모른 채 도망쳐야했습니다. 하지만 헤엄을 쳐 본 일이 없는 친칠라는 너무 느렸습니다. 다급해진 친칠라는 허우적거리며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앞으로 가기는커녕 제자리만 맴돌고 있지 뭐예요. 아무래도 곧 근육맨 거북이에게 잡힐 것만 같아요.

“누...누가 좀 도와주세요! 으앙~~~”

아기토끼 친칠라는 무서워서 그만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바위틈에서 친칠라의 손을 힘차게 잡아당겼어요.

“싹-”

“어? 너는...!”

친칠라의 손을 잡은 건 다름 아닌 분홍삼각소라였어요!

“토끼녀석, 어디로 갔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이거 참! 어떡하지? 어서 빨리 용왕님께 데려가야 하는데. 큰일이군!”

근육맨 거북이는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 툭툭거리며 다른 곳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아기토끼 친칠라는 안도의 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휴~ 살았다. 죽을 뻔했네.”

“안녕, 친칠라야?”

“어? 그래 안녕. 아깐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에이, 뭘 그런걸 가지고 그래. 난 분홍삼각소라야”

“뭘? 분홍삼각소라?”

아기토끼는 바위틈에서 끼여 있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 니가 바로 그 분홍삼각소라였구나!”

“그래, 맞아.”

아기토끼 친칠라와 분홍삼각소라는 금세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숲에서는 친칠라의 걸음이 빨랐지만 물속에서는 반대로 느림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흐느적거리며 걷는 덕분에 친칠라는 분홍삼각소리와 같은 속도로 천천히 움직일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분홍삼각소리는 친칠라에게 근육맨 거북이가 왜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지 설명해주었어요.

“뭘? 용왕님의 병을 고치는데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고? 용왕님이 죽는 건 슬픈 일이지만 내 간을 주면 나는 죽게 될 텐데.”

아기토끼 친칠라는 시무룩해졌어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어요. 갑자기 엄마토끼가 보고 싶어졌거든요.

“괜찮아, 친칠라야.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정말?”

분홍삼각소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토끼 친칠라와 분홍삼각소리는 엄마토끼가 일구어 놓은 당근밭으로 갔습니다. 땅속에 박혀서 즐기만 솟아오른 당근이 마치 원래 바닷속에 있던 물풀 같았어요. 물살에 하늘거리는 당근줄기를 보자 친칠라는 갑자기 당근이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당근줄기를 잡고 힘껏 뽑으려는 순간 분홍삼각소리가 외쳤어요.

“안 돼! 아직 뽑으면 안 돼!”

“왜? 왜 뽑으면 안 되는 건데? 난 지금 당근이 먹고 싶단 말이야.”

아기토끼 친칠라는 잡고 있던 당근줄기를 손에서 놓으며 물었어요.

“당근을 뽑으면 숲속을 채운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할거야.”

“뭘? 당근을 뽑으면 바닷물이 빠진다고?”

친칠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럴 줄 알았나?”

어느새 당근밭을 쫓아 온 어린 청설모가 간죽거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근육맨 거북이가 소리쳤어요.

“드디어 찾았다! 토끼 네 이놈! 어서 간을 내놓거라!”

청설모는 깜짝 놀라 친칠라의 뒤로 숨었어요. 친칠라 역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근육맨 거북이를 향해 소리쳤어요.

“내 간은 여기 당근밭에다 묻었다! 찾을 수 있거든 한번 찾아보시지!”

“뭘? 밭에다 묻었다고?”

근육맨 거북이는 씨익 웃으며 손살같이 내려와 당근줄기를 뽑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당근줄기를 잡아당기자 ‘퐁’하는 소리와 함께 당근이 뽑혔어요.

퐁! 퐁! 퐁! 퐁!

당근이 뽑힌 자리에서는 화장실 배수구처럼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분홍삼각소라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물이 빠지는 것도 모르고 근육맨 거북이는 열심히 당근을 뽑으면서 친칠라의 간을 찾고 있어요.

“여기도 없고, 응? 여기도 없네? 도대체 어디 있는거야?”

근육맨 거북이가 당근을 뽑을 때마다 물이 빠지는 구멍도 점점 넓어졌어요. 커다란 구멍은 주변에 있는 바닷물뿐만 아니라 온갖 물고기들도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조심해! 나를 꼭 잡아!”

분홍삼각소라가 외쳤어요. 친칠라와 청설모는 분홍삼각소라를 꼭 붙잡았어요. 하마터면 친칠라와 청설모도 구멍속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어요. 그때 근육맨 거북이가 구멍속으로 빙글빙글 돌아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토끼 이 녀석, 잘도 나를 속였겠다.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거야! 으악!”

물살이 점점 거세졌어요. 친칠라와 청설모는 숲속의 물이 다 빠질 때까지 한참동안 분홍삼각소리를 부둥켜안고 있었습니다. 당근밭 구멍속으로 바다에 사는 친구들이 모두 들어갔어요. 불가사리, 오징어, 바닷가재, 해마, 말미잘, 해파리, 커다란 고래까지도 말이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지칠 때로 지친 아기토끼 친칠라와 어린 청설모가 감은 눈을 떴어요. 물이 다 빠진 숲은 샤워를 한 듯 말끔한 모습이에요. 친칠라와 청설모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하하~”

“헤헤헤~”

왜냐하면 둘은 분홍삼각소리가 아니라 바위를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위틈에 끼인 분홍삼각소리를 안아주듯이 한참을 그렇게 말이예요. 아기토끼 친칠라는 물에 젖은 채 바위틈에서 반짝거리는 분홍삼각소리에 다시 귀를 가까이 댔어요.

‘치얼썹! 썹아아아 차르르르~’

멀리서 분홍삼각소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친칠라야, 난 언제나 여기 있단다. 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오렴.”

아기토끼 친칠라는 얼굴에 미소를 지은 채 기분 좋은 얼굴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 동상



대구 왕선초등학교  
이재영



## 수상소감

지하철 옆자리의 꼬마가 나에게 싱긋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의 미소에 내 기분이 덩달아 즐거워졌습니다. 우리 옆에는 수많은 '너'가 있습니다.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다행히 글을 쓰는 동안 저는 내 옆에 있는 많은 너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툰 나의 글이 또 다른 너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너가 아이들이면 더 좋겠습니다.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한 늘 옆에서 힘이 되어준 문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글을 쓰라는 격려라 여기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동화 쓰기에 노력 하겠습니다.

## 내 옆에 너



호들갑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제가 나서죠. 우리 아파트의 품격이 걸린 일인데요. 호호호.”

베개를 끌어안고 돌아누웠지만 잠은 이미 도망가 버렸다. 지수는 찌르통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나갔다. 구수한 된장냄새가 지수를 식탁으로 끌어 당겼다.

“아침부터 웬 전화가 그렇게 요란스러워?”

아빠가 못마땅한 눈으로 엄마를 흘겨보았다.

“길 건너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잖아, 수준 떨어지게…. 어떻게든 막아야 해.”

엄마는 무김치를 입에 넣고 우걱우걱 씹었다. 무슨 일이라도 벌일 태세였다. 지수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물에 말아 겨우 한 공기 비운 지수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지수야, 같이 가.”

105동 앞에서 예은이가 뛰어왔다. 예은이는 지수의 팔짱을 끼며 조잘댔다.

“지수 넌 누구랑 짝이 되고 싶어? 우리 둘이 짝이 되면 좋을 텐데, 그치?”

오늘은 짝을 바꾸는 날이다. 누가 짝이 되면 좋을까? 둘은 교실에 들어갈 때까지 친구들 이야기를 했다. 예은이는 키 크고 잘생긴 현진이와 짝이 되고 싶은 눈치였다. 지수도 마찬가지였다. 수업시간에 현진이를 힐끗힐끗 훑쳐보았다.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이 번호 적힌 종이를 꺼내들었다.

“제비뽑기예요. 같은 번호끼리 짝이 되는 거랍니다.”

선생님이 접힌 종이를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아이들이 술렁거리며 하나씩 가져갔다. 지수도 한 장을 집어 들고 자리에 앉았다. 종이를 두 손으로 모아 입으로 후 불었다. 종이를 살며시 펴는데 손이 파르르 떨렸다. ‘6’이었다.

선생님이 번호를 부르면서 하나씩 짝이 정해졌다. 민서는 표정이 시큰둥하고 성우는 짝이 된 다솜이와 손짓을 주고받았다.

“음, 다음은 6번.”

경호와 현진이가 벌떡 일어났다. 일어나려던 지수는 다시 앉았다. 선생님이 다가가서 번호를 확인했다.

“현진이 너는 9번이야. 여기 표시가 있잖아. 뒤집어야지.”

아이들이 깔깔거렸다. 짝이 하필이면 경호라니.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상을 지었다.

“6번 없어요?”

지수는 종이를 다시 펴보았다. 분명히 ‘6’이었다. 지수는 쭈뼛거리며 일어섰다.

“저..., 9번인 줄 알았어요.”

다들 짝을 찾아 자리를 옮겼다. 예은이가 현진이 옆에 앉아 배시시 웃었다. 지수는 물건을 챙겨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경호가 옆자리에 털썩 앉아 반갑다며 손을 내밀었다. 뿌리치지 못해 지수는 손바닥만 갖다 댔다. 손톱 밑에 거뭇한 때가 끼어있었다. 눈썹을 덮은 턱벽머리에 얼룩 묻은 티셔츠까지, 경호는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다. 마치는 종소리와 함께 지수는 도망치듯 교실을 빠져나왔다.

“지수야, 경호는 어때? 현진이는....”

언제 왔는지 예은이가 지수 옆에 얼굴을 바짝 붙였다.

‘휴, 이제 한 달을 어떻게 지낸담.’

혼자 종알대는 예은이의 눈빛을 피해 지수는 앞만 보고 걸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가 시끄러웠다. 아주머니들이 ‘동지 아파트 결사반대’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었다. 맨 앞에 커다란 팻말을 든 엄마가 보였다. 지수는 종종걸음으로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오늘 짝 바꿨는데 경호가 짝이야.”

“경호라면 아빠랑 둘이 산다는, 그 꾀죄죄하게 생긴 아이?”

엄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래서 반대를 한다니까. 등지아파트 들어서봐. 그런 애들이 한둘이겠어?”

엄마는 더 열을 올리며 팻말을 흔들었다.

다음 날, 등교하니 아이들은 새 짝과 재잘거리고 있었다. 지수는 경호의 책상을 밀어 한 뼘쯤 띄어놓았다. 뒤늦게 온 경호가 옆에 앉아도 지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경호가 책상을 붙였다. 지수는 책상 사이를 다시 벌렸다. 둘은 짝이지만 짝이 아닌 것처럼 앉았다. 수업이 끝나도록 지수는 말 한 마디 붙이지 않았다. 경호가 몸이 아파 며칠 결석하기를 바랐다.

“지수야, 자전거 같이 탈래? 현진이랑 호수공원에 가는데.”

교문을 나설 때 예은이가 다가왔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수학학원에 가야하지만, 지수는 현진이가 온다는 말에 더 끌렸다. 세 시에 아파트 분수대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수는 현관 옆에 세워 둔 자전거를 꺼냈다. 여덟 살 생일에 아빠가 선물로 준 자전거인데, 먼지가 보양게 내려앉아 있었다. 물티슈로 자전거를 대충 닦았다. 잘 굴러갈까? 페달을 손으로 돌려보았다. 약간 덜그럭거렸지만 타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지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아래층에서 올라온 엘리베이터에서 마침 엄마가 내렸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있었다.

“내참,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차를 가지고 차별을 해.”

엄마는 다짜고짜로 투덜거렸다.

“엄마 왜 그래?”

“백화점에 주차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잖니. 1층 주차장은 텅텅 비었는데 고급차 전용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 이게 말이 돼?”

엄마의 푸념에 맞장구 칠 시간이 없었다. 지수는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올라 닫힘버튼을 눌렀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엄마가 소리쳤다.

“어디 가니? 학원 안 가고.”

현진이와 예은이는 벌써 분수대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이지수, 그 자전거 굴리는 가냐?”

현진이가 자전거를 타고 빙빙 돌며 비아냥거렸다. 현진이의 자전거는 스포츠 전용으로 꽤나 비싼 것 같았다. 지수는 슬며시 자전거를 몸으로 가렸다.

“현진아, 그만해. 자전거나 타자. 공원까지 시합이야, 출발.”

예은이가 분위기를 바꾸었다. 지수는 얼른 자전거에 올라탔다. 다리에 힘을 주었다. 아파트 옆 자전거도로를 따라 내달렸다. 셋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페달을 밟았다. 속도가 붙으면서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현진이는 두 손을 놓고 달렸다. 멋진 모습을 보고 예은이가 환호성을 질렀다.

‘티딕티딕’

페달에 뭔가 걸리는 것 같았다. 지수는 더 세게 페달을 밟았다.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페달이 헛돌기 시작했다. 중심이 흔들렸다. 재빨리 브레이크를 잡았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휘청거리던 자전거는 길가 잔디밭으로 넘어졌다. 예은이가 달려와 지수를 일으켰다.

“괜찮아? 안 다쳤어?”

“응, 괜찮아. 그보다 내 자전거…”

자전거 바퀴가 혼자 돌았다. 체인이 뒤엉킨 채 자전거는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다. 현진이가 자전거를 세웠다.

“납아빠진 자전거를 타고 오니 이렇잖아.”

현진이가 투덜댔다. 모두 자전거를 들여다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나 먼저 갈래. 넌 어떻게 할 거야?”

현진이가 툭툭거리며 예은이에게 눈짓을 했다. 예은이가 지수의 눈치를 보았다. 현진이는 예은이와 지수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자전거 위에 올랐다.

“나 혼자 공원 한 바퀴 돌 거야.”

“현진아, 우리만 놔두고 가면 어떡해.”

현진이는 못들은 척 가버렸다. 지수와 예은이는 오던 길로 자전거를 밀며 걸었다.

“현진이가 저렇게 의리 없는 아이였어?”

지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예은이도 기분이 안 좋은 듯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어디 갔다 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경호였다.

“김경호, 네가 웬일이야?”

“심부름 갔다 오는 길이야. 아버지가 수리한 자전거 갖다 주고 오라고 해서... 그런데 너희는 무슨 일이야?”

예은이가 지수의 자전거를 가리켰다.

“체인이 벗겨졌구나.”

경호가 자전거 옆에 쪼그려 앉았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지수는 자전거를 끌고 가려고 했다.

“잠깐이면 될 거야. 기다려봐.”

경호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꼬챙이 하나를 주워왔다. 경호는 체인을 꼬챙이로 걸어 톱니바퀴 위에 걸쳤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바퀴를 돌렸다. 체인이 걸리는 것 같다가 자꾸 빠졌다. 경호의 손에 기름때가 묻었다.

“이것 좀 잡아 줄래?”

경호가 바퀴를 눈으로 가리켰다. 지수는 손잡이를 잡고 예은이는 바퀴를 잡았다. 경호는 체인을 다시 걸었다. 그리고는 힘주어 바퀴를 돌렸다. 덜컹덜컹 소리에 이어 차르륵거리며 바퀴가 돌아갔다. 거짓말처럼 체인이 바퀴에 착 감겼다.

“이제 한 번 타 봐.”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경호가 자전거에서 물러났다. 지수는 경호의 눈치를 보며 자전거에 다리를 걸쳤다. 힘을 실어 페달을 밟았다.

“와, 간다, 가.”

예은이가 팔짱거리며 손뼉을 쳤다. 경호는 쑥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했다.

“네 자전거는 괜찮아?”

경호가 예은이의 자전거도 다가가 살폈다.

“이것도 손볼 곳이 많네. 우리 가게로 가자. 아버지가 새 것처럼 고쳐주실 거야.”

지수와 예은이는 경호 뒤를 따라갔다.

“경호, 너 대단하다. 언제 이런 걸 다 배웠어?”

경호가 눈을 반짝이며 당당하게 말했다.

“아버지 옆에서 배웠어. 난 무엇을 고치는 게 좋아. 세상의 고장 난 자전거는 내가 몽땅 고칠 거야.”

경호는 얼룩진 옷과 꺼메진 손이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았다. 경호를 따라가는 동안 지수의 눈앞에 현진이와 경호의 모습이 오락가락했다.

“아버지, 제 친구들 자전거 손 좀 봐주세요.”

자전거를 고치던 경호 아빠가 일어섰다. 반가운 표정이었다. 경호 아빠의 작업복에는 군데군데 기름이 묻어있었다.

“우리 경호 친구들이구나. 어디 내가 한 번 볼까?”

경호 아빠는 자전거를 이리저리 살폈다. 그리고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공구를 들었다. 멀쩡해보여도 자전거는 손볼 곳이 많았다. 지수 자전거는 체인의 길이를 조절하고 예은이 자전거는 손잡이와 안장을 바로잡았다. 험거운 곳을 조이고 삐걱거리는 곳에는 기름을 쳤다. 경호 아빠의 손을 거치자 자전거는 훨씬 부드러워졌다.

“어떠냐. 이제 잘 굴러가겠지?”

경호 아빠가 일어서서 자전거 안장을 툭툭 쳤다. 지수와 예은이는 경호 아빠의

숨씨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너희들이 사이 좋게 지내면 자전거 수리는 공짜다. 하하하.”

“우와! 고맙습니다.”

경호가 지수 자전거에 새소리가 나는 예쁜 벨을 달아주었다.

“내 짝한테 주는 선물이야.”

쑥스럽게 웃는 경호의 이가 하얗게 빛났다.

“경호는 자전거도 고쳐주는데 현진이 녀석은 혼자 도망가 버리고…. 현진이와 짝이 되고 싶은 내가 바보였어.”

아파트로 돌아오는 내내 예은이는 투덜거렸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집에 아무도 없었다.

“지수야, 밥 챙겨먹고 학교 가렴.”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지수는 밥을 먹는 등 마는 등하고 집을 나섰다. 관리사무소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잔걸음으로 지나치려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입주민 여러분, 임대아파트가 웬 말입니까? 동네 수준이 있지요. 우리 옆은 절대 안 됩니다.”

“웬소. 집값 내려가는 것 누가 책임집니까?”

“아이들 학교 수준 떨어지는 것은 어떡하나요.”

아주머니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이며 한 마디씩 거들었다. 구경할 시간이 없었다. 지수는 잔걸음으로 학교로 향했다.

먼저 온 경호가 자기 책상 앞에 앉아있었다. 의자에 앉은 지수는 책상을 경호 책상에 슬그머니 붙였다. 움짤 놀란 경호가 책상 사이를 띄웠다. 지수는 책상을 다시 붙였다. 눈이 마주쳤다. 멧쩍은 듯 경호가 씨익 웃었다. 지수는 경호 서랍에 사탕 한 알을 집어넣고는 살포시 미소를 지었다.

# 동상



경기도 남양주시  
송 의 정



## 수상소감

양화점에서 팔리지 않는 구두를 보며 슬퍼하는 노부부에게 요정이 나타나서 “커피에 적신 도넛은 맛있지!” 라는 노래를 부른다. 노부부는 금세 슬픔을 잊고 도넛 한 개를 커피에 적서 먹으며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 내 어릴 적 흐릿한 기억의 장면 속 노부부는 커피에 적신 도넛 하나로 요즘 유행하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정체성의 혼란을 넘어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일까? 나는 동화가 아주 좋다. 선명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

‘덜컹! 덜컹!’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흔든다. 일찍 잠을 청한 동수는 침대에서 계속 몸을 뒤척인다.

‘우르릉 쿵!’

‘짜아!’

천둥이 치더니 굵은 빗줄기가 땅바닥을 내리친다.

“한 겨울에 무슨 소나기람!”

“그러게요. 요즘 날씨는 계절이 없어요. 가뜩이나 대회 전날에는 잠도 못자는 애인데…….”

밖에서 걱정하는 부모님의 얘기를 듣고 동수는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했다.

‘제발 잠자게 해주세요. 천둥소리도 빗소리에도 깨지 않고 깊이 자게 해주세요.’

몸을 뒤척이면서 기도를 반복하는 동안 시간은 얼마나 지났을까. 햇살이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문화회관 대극장으로 차가 줄지어 들어갔다. 어머니는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동수의 손을 계속 주물러 주었다.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해. 선생님도 네가 제일 재능 있다고 하셨잖아.”

‘빵빵!’

뒤에 선 차량이 경적 소리를 내며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여기서 내릴게요.”

“혼자 갈수 있겠어?”

“네.”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 가면 손가락 마사지해서 근육 풀어 줘.”

“네.”

동수는 차에서 내려 경연장으로 뛰었다. 밤새도록 내린 비, 천둥소리, 짝  
막힌 도로 그리고 무거워진 몸까지. 어느 것 하나 오늘의 경연을 도와 줄 것  
같지 않았다.

대기실은 이미 대회 준비를 하는 학생들로 가득 찼다. 동수는 자리에 앉아  
배낭에서 핫 팩을 꺼내 얼어붙은 손을 녹였다.

“왔냐?”

기철이 동수의 등을 치면서 반갑게 인사했다.

“응. 컨디션은 어때?”

“나야 항상 좋지.”

기철은 환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수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파이팅!”

“잘해!”

친구들의 응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몸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했다. 무대로 가는 동안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검은 괴물이 흐릿하게 보였다.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시간은 지나가니까.”

동수는 다시 괴물에게 다가갔다. 실체가 선명히 드러나자 온 몸에 한기가 돌았다. 떨리는 팔을 뻗어 축축이 젖은 손을 대었다. 순간 검은 괴물의 마력에 놀려 정신을 잃었다.

“당분간 학원 보내지 마. 애가 잠을 못자잖아.”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연습을 안 해요.”

“저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해.”

“이정도 어려움도 극복 못하면 아무 것도 못 해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들렸다. 동수가 피아노 앞에서 쓰러진 후로 부모님은 자주 다녔다.

창밖으로 구름에 가려졌던 해가 서서히 고개를 내밀었다. 동수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거리로 나섰다. 하천변은 산책 하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아직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을 꼬집었다.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 들어가야겠다.’

자전거를 탄 남자들이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겨울바람을 가르고 지나갔다.

‘조금 더 걸어볼까?’

히늘이 금세 비를 퍼 부을 듯 먹구름을 몰고 왔다.

‘찌익!’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섰다. 차 앞에 강아지가 천진한 눈빛을 건네며 서있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내리더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자는 강아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한 다음 차를 타고 갔다.

‘도로에 있으면 위험할 텐데.’

동수는 강아지를 들어 인도에 놓았다. 그런데 강아지는 쭈르르 달려가더니 사고가 난 자리에 멈춰 섰다.

‘저 녀석이!’

다시 인도에 올려놓자 바지를 물어 끌었다.

‘집을 찾아달라는 건가?’

목에 주소가 적힌 인식표가 있었다. 낯선 지명이었다.

두 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주소지로 찾아갔다. 작고 허름한 벽돌집이었다.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목침을 만들고 있었다.

강아지는 동수의 품에서 빠져 나와 할아버지 곁으로 쭉르르 달려갔다.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본 척도 하지 않았다.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걱정 안 되셨어요?”

“돌아왔잖아!”

동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할아버지가 서운했지만 정중히 인사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거 가져가.”

할아버지는 목침을 내밀었다. 동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어서 받아. 너한테 필요한 거야.”

“저한테 필요한 거요?”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거든.”

“세상에 그런 베개가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는 대답은 않고 시큰둥한 얼굴로 다시 목침을 만들었다.

동수는 할아버지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목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아노에는 아침에 펼쳐 놓았던 악보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강아지 주인을 찾아주느라 연습을 못했군.’

경연 대회에 대한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라서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를 베었다. 목덜미로 전해지는 차가운 느낌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다.

‘길에서 해매는 강아지를 두고 왔으면 마음이 불안했을 거야. 연습은 못했지만 주인을 찾아주길 잘 했어.’

동수는 금세 마음이 편해지더니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일곱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 번도 깨지 않은 게 신기했다.

가벼운 몸으로 집을 나섰다. 학교로 가는 버스에 학생들이 줄 서서 타고 있었다. 동수도 뛰어가 버스를 탔다. 기철이 단어장을 들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다.

“시험 있어?”

“응. 경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학교 공부까지 하려니 힘들다. 그런데 너는

왜 연습실 안 나와?”

“오늘부터 갈 거야. 경연까지 시간은 아직 충분해.”

동수의 여유로운 모습에 기철은 고개를 가우똥거렸다.

‘삐익!’

동수가 대신 벨을 누르더니 단어장을 가방에 넣어 주었다.

“학교 다 왔어. 내려야지.”

연습실로 가기 전 동수는 친구들과 새로 생긴 분식집에 갔다. 탁자 옆에 놓인 메뉴판 종류가 다양해서 고민에 빠졌다.

“모듬떡볶이 3인분 모차렐라 치즈 없어 주세요.”

동수가 큰 소리로 주문했다. 서슴없이 메뉴를 결정하자 모두 어리둥절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들어 올리자 모차렐라 치즈가 먹음직스럽게 쫄아왔다.

“오늘 주문 성공이다.”

“메뉴판만 보면 우물쭈물 하던 녀석이 웬일이냐!”

친구들은 게 눈 감추듯 떡볶이를 먹으며 동수를 추켜세웠다.

학원에 온 동수를 보고 기철은 놀랐다.

“이제 괜찮아졌어?”

“그럼.”

“포기할까봐 맘 조렸는데. 경쟁 상대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 며칠 안 남았지만 열심히 해.”

“걱정 마. 이번에는 안 쓰러져.”

동수는 환히 웃으며 연습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연주가 시작되었다. 기철은 연습실 문 앞에 서서 동수의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완급을 조절하며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소리는 그동안의 공백을 무색하게 했다.

‘역시 재주 있는 녀석이야. 하지만 이번에도 대상은 내거다. 경연 때는 긴장해서 실력 발휘를 못 할 테니까.’

경연 날이 되었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동수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시를 가다듬었다. 기철은 손가락을 주무르며 뭉친 근육을 풀었다.

“차동수군!”

“네.”

동수는 큰 소리로 답하고 무대로 갔다.

그랜드 피아노의 검은 광택이 반짝거리며 무대를 밝혔다. 피아노 앞에서 관객석을 보았다.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부모님이 초조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다.

‘걱정 마세요. 잘 할 거예요.’

동수는 밝은 미소로 마음을 전했다.

호흡을 가다듬고 연주를 시작 했다. 건반 위를 가로지르는 손가락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공연 때마다 유독 날이 서있던 모습은 없었다. 자신이 내는 소리를 사랑하며 빠져 들어있는 모습이 한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천재가 나타났어.”

“피아노가 살아서 소리를 내는 것 같군.”

심사위원들의 찬사와 함께 동수는 경연에서 대상을 받았다.

동수는 황금빛 트로피를 침대 머리맡에 놓고 누웠다.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 덕분에 대상을 받을 수 있었어. 나는 평생 동안 이 베개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건가?’

동수는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이불장에서 숨 베개를 꺼내 베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면 달라질 모습이 불안했다.

‘어쩔 수 없구나.’

동수는 다시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를 베고 잠들었다.

다음날도 걱정은 없었다. 피곤에 지쳐 있던 검붉은 얼굴은 환해지고 표정도 점점 밝아졌다.

“너 갑자기 왜 성격이 변한거야?”

기철은 학원 휴게실에서 동수에게 다가가 물었다.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를 베거든.”

“그런 베개가 있어? 그럼 하루만 빌려 줄래?”

동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대신 꼭 하루만 쓰고 줘. 나는 아직 그 베개가 없으면 안 되거든.”

“그래. 하루만 베고 돌려줄게.”

기철은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를 빌려와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흔한 목침이었다.

“이건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베고 주무시는 목침하고 똑같잖아. 그럼 목침을 바꿔치기 해도 모르겠지.”

기철은 다음 날 학원으로 가서 할아버지의 목침을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라고 속이고 동수에게 주었다.

‘이제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는 영원히 내게 됐어.’

기철은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를 베고 편하게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교실에서 학생들은 시험에 대비해서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있었다. 기철은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했다.

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영어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제야 가방에서 펜을 꺼냈다. 시험지에 아는 단어가 없었다. 결국 답안지를 백지로 내었다.

‘어제 공부를 못 해서 그래. 단어 시험이야 못 볼 수도 있지.’

기철은 콧노래를 부르며 연습실로 갔다.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거리에는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런 날 연습실에서 피아노나 쳐야 되다니. 하루만 놀자.’

흐흐한 바람을 맞으며 기철은 한없이 거리를 걸었다.

다음날도 연습실에 가지 않았다. 새로 나온 게임을 삼십분만 하려다가 시간을 놓쳤다. 그리고 이런 시간은 한 달이 넘게 반복되었다.

“너 한 달 넘게 연습실에 안 갔다며?”

저녁 늦게 퇴근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침대에 기대어 게임을 하던 기철은 스마트폰을 급히 이불속에 넣었다.

“동수는 하루도 안 빠지고 연습에 매진하는데 넌 이래서 어떻게 대학을 갈 거야.”

“동수가요?”

“그래. 오늘 동수 엄마가 자랑하더라. 애가 피아노에 자신이 붙었다고.”

“그럴 리 없는데.”

“이렇게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야? 그렇게 지기 싫어하던 네가 왜 이렇게 됐어?”

기철은 그제야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를 가져온 것을 후회했다.

‘베개를 베고 잔 뒤로 내게 아무 걱정이 없어졌어. 적당한 걱정은 필요한 거야.’

그날 밤 기철은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를 베지 않고 잠들었다.

다음날 기철은 학원에 가서 동수가 연습을 마치고 나오자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를 돌려주었다.

“미안해. 내가 베개를 가져갔어.”

“뭐? 그럼 그동안 내가 베고 잤던 베개가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가 아니었던 말이야?

“응. 내가 할아버지 목침하고 바꿨거든.”

동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환히 웃었다.

“이제 됐어. 이제 된 거야.”

동수는 걱정이 없어지는 베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왜 버리는 거야?”

기철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필요 없으니까.”

동수는 배낭을 메더니 콧노래를 부르며 밖으로 나갔다. 기철도 서둘러 배낭을 메고 따라갔다.

“왜 필요 없는데?”

“걱정은 이제 무섭지 않으니까!



# 특선



강원도 화천초등학교  
김은득



## 수상소감

시린 아침 교실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만납니다. 저마다의 세계를 만들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벅찬 기쁨과 한편의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각자의 색과 빛깔을 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몽당연필을 쥐고 꿈꾸는 것들을 그려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썼습니다. 미약한 글을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이들과 함께 읽고 쓰기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세계의 전부가 되어주는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합니다.

## 몽당연필을 찾아라!

드르륵 교실 문이 열리고 빨간 스웨터에 검은 안경을 쓴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책상 위의 초록색 종을 치자 종이 개구리를 접고 있던 아이들이 후다닥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연필 꺼내야지 뭐하니? 어서 풀어!”

멍하니 운동장을 구경하던 도윤이는 얼굴이 빨개져 필통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연필은 없었습니다.

“연필이 사라졌어요.”

“없으면 없다고 해라, 왜 거짓말을 하니? 어서 예은이에게 빌려.”

도윤이는 억울하였지만 주눅이 옆자리의 예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꼭 돌려줘야해.”

예은이는 필통에서 꼭지지우개가 까맣게 닳은 몽당연필을 꺼내 주었습니다. 낡고 작아져 더 이상 쓰지 않는 연필이었습니다. 연필을 받은 도윤이는 선생님 몰래 책상 서랍에서 종이개구리를 꺼내 몽당연필로 엉덩이를 꼭 눌렀습니다. 어디로 떨어지 모르는 모습이 도윤이 마음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수학책 귀퉁이에 종이개구리를 그렸습니다. 세모 얼굴에 네모 몸통, 다리를 진하게 그리고 동그란 눈도 그려 넣었습니다. 개구리가 헤엄치도록 연잎과 연못을 그리고 소금쟁이도 그렸습니다. 연못가에는 커다란 날개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괴물도 그렸습니다. 불을 뿜을 수 있게 입을 길쭉하게 그리고 큰 콧구멍을 그려 넣었습니다. 발톱을 날카롭게 그리니 더욱 그럴듯하였습니다. 멋진 괴물을 만들었으니 이제 공격할 대상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다했어요. 다한 사람은 교탁에 내고 책 읽어도 돼요?”

예은이가 자랑하듯 말하였습니다.

‘옳거니, 그래 너다.’

도윤이는 사나운 괴물 앞에 예은이를 그렸습니다. 예은이가 책을 읽다 도윤이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도윤이는 손으로 책을 가렸습니다.

“선생님 도윤이 책에 낙서해요.”

“도윤아. 그만 좀해라. 언제까지 말썽만 피울 거니?”

도윤이는 예은이를 노려보며 수학책에 그린 사나운 괴물의 입에 커다란 불꽃을 그렸습니다.

국어시간이 되어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자 모두들 공책을 꺼내 따라 쓰기 시작 했습니다. 도윤이도 재빨리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칠판의 요약정리를 다 쓰지 못하면 점심시간에 남아 써야 합니다. 공책을 펴고 글씨를 쓰려는데 예은이에게 빌린 몽당연필이 없었습니다.

“연필은?”

눈치 빠른 예은이가 연필을 찾는 도윤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잃어버렸어? 어서 돌려줘.”

도윤이는 뻔히 잃어버린걸 알면서 돌려달라고 말하는 예은이가 알뜰게 보였습니다.

“야, 그거 다 낡은 몽당연필 가지고 그래? 너 연필 많잖아!”

“너 꼭 찾아, 안 찾아주면 선생님께 다 이를 거야.”

예은이가 선생님께 이른다고 말할 때 마다 도윤이는 예은이가 선생님의 친척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웃사촌쯤은 될 것 같았습니다.

‘몽당연필은 어디 간 걸까?’

다시 연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국어 책과 낡은 필통, 공책이 빨랫감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책들을 꺾꺾 눌러 보고 흔들어 보아도 몽당연필은 없었습니다. 도운이는 지난 시간 배웠던 수학책 속에 연필이 있을 것 같아 교실 뒤 사물함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수학책을 드라락 넘기다 도운이가 그린 ‘종이 개구리’가 보였습니다.

“너 나 찾고 있냐?”

수학 책에 그린 ‘종이 개구리’가 폴짝 뛰며 물었습니다. 도운이는 사물함에서 뛰쳐나온 개구리가 신기하였지만 지금은 칠판의 요약정리를 공책에 옮겨야 했습니다.

“너를 찾고 있던 게 아니야, 혹시 몽당연필이 어디 있는지 알아?”

“나를 그린 게 바로 몽당연필이잖아! 어서 따라와”

도운이는 종이 개구리를 따라 사물함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처럼 캄캄한 사물함 속을 한참 내달린 종이 개구리는 작은 구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운이도 작은 구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눈이 부셔 실눈을 뜨다 점점 눈을 크게 뜨니 새하얀 안개와 푸른빛이 땀도는 연못이 보였고 개구리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몽당연필은 어디에 있는 거야?”

도운이는 헤엄치는 종이 개구리에게 물었지만 종이 개구리는 아무 말 없이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반짝이는 연못위로 푸른 연잎과 새하얀 수련이 떠있었습니다. 소금쟁이들은 다리를 쭉 펴고 물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기다란 갈대와 아카시아나무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노란 부리에 빨간 주둥이를 한 쇠물닭이 머리를 아래위로 까닥이며 흔들고 다녔습니다.

도운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카시아나무 위로 올라가 뾰족한 가지 사이로

핀 새하얀 꽃봉오리에 입을 대고 달콤하게 빨아 먹었습니다. 아카시아나무 위에서 바라본 연못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못 가장자리는 동트는 아침처럼 조금씩 밝아지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반사된 연못의 푸른빛은 점차 선명해지고 뿌연 안개가 걷히며 초록색 나뭇잎이 반짝였습니다. 그 사이로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는 몽당연필이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아카시아나무에서 내려와 몽당연필에게 달려갔습니다.

“몽당연필!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

“도윤이구나, 여기서 네가 만든 세계를 그리고 있지.”

눈앞에 펼쳐진 연못은 도윤이가 몽당연필로 수학책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도윤아, 여기서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그릴 수 있어.”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도윤이는 몽당연필과 함께 마음껏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탐스러운 복숭아와 야생 딸기를 그려 배불리 먹고 모닥불을 피워 버들치와 모래무지를 노릇노릇 구워 먹었습니다. 하얀 아카시아 꽃잎에 초콜릿을 그려 달콤한 후식도 먹었습니다. 도윤이는 연못 주변을 달려 보고 싶었습니다. 푸른 갈기에 속눈썹이 긴 커다란 눈의 말을 그렸습니다. 갈기가 소용돌이치는 모습이 돌개바람 같아 돌개로 이름 붙이고 몽당연필과 함께 달려보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도윤이는 연못위에서 뱅글뱅글 도는 물뱀미를 보고 스케이트가 달린 오리발을 그려 물뱀미와 함께 춤추며 헤엄쳤습니다. 종종대는 개개비가 날아오르자 물뱀미는 물속으로 쏘르륵 숨어 버렸습니다. 물뱀미를 따라 잠수를 하자 물거미가 거미줄로 풍선껌처럼 커다란 공기주머니를 만들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도윤이는 무지개 행글라이더를 그려 개개비와 함께 하늘을 날아보았습니다. 도윤이는 상상하는 것을 눈앞에 펼쳐주는 몽당연필이 또 다른 자신처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몽당연필아 무슨 일이야?”

도운이는 흔적만 남을 뿐 잘 그려지지 않는 몽당연필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필통 안에 갇혀만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껏 그려보니 정말 신난다.”

몽당연필은 웃으며 말하였지만 어깨는 축 쳐져있었고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 작아져있었습니다. 도운이와 함께 그림을 그릴수록 몽당연필의 연필심이 점점 닳아 없어졌던 것입니다. 도운이는 몽당연필을 품에 안고 갈대숲으로 달렸습니다. 나무줄기를 주워 작은 움막을 만들고 바닥에는 갈땃잎을 두툼히 깔아 두어 몽당연필이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폭신한 갈땃잎 위에서 몽당연필과 도운이는 지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들 사이로 구름의 뒷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도운이는 몽당연필과의 추억을 가슴속에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번쩍이는 불꽃과 함께 연못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향하고 검은 재가 이리저리 날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연못이 불타있어.”

눈이 휘둥그레진 도운이가 물었습니다.

“불꽃이 이는 붉은 괴물 ‘올’이 나타났어.”

몽당연필은 도운이를 버드나무 숲에 숨기며 말했습니다. 불타는 괴물 올이 하늘을 날며 갈대숲에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몽당연필은 돌개를 불러 도운이와 함께 언덕위로 내달렸습니다.

“올이라니? 저 괴물은 누구야?”

“올’은 하늘을 나는 거대한 붉은 괴물이야 커다란 날개에 날카로운 이빨, 큰 발톱…….”

“설마 그럼 내가 수학책에 그린 그 괴물이 ‘올’이란 말이야?”

“그래, 율은 끝없이 불타고 있어. 그리고 자신을 차갑게 식혀 버릴 물을 가장 두려워 해. 우리가 만든 연못이 더 자라기 전에 없애려는 거야.”

불길은 점점 커졌고 도윤이는 연못에 괴물을 그린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개개비는 하늘로 날았고 소금쟁이들은 바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윤이는 우거진 오리나무 사이에서 사라져가는 연못을 바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못을 지켜야해!”

도윤이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 기다렸다가 망가진 것은 다시 그리자.”

“내가 그린 괴물 때문에 연못 친구들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몽당연필은 걱정스럽게 도윤이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율이 불을 뿜지 못하도록 하려면 율의 몸을 차갑게 식혀야해. 하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야.”

도윤이는 불길이 거세지는 연못을 보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율이 잠시 쉬는 것을 틈타 도윤이는 동굴에서 나와 연못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오리나무 아래에서 물맴이와 개개비, 쇠물닭, 물거미 같은 연못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들 지켜보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율은 막을 수 없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물맴이가 다리를 다쳐 한쪽으로는 뱅그르 돌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희들을 꼭 지켜 줄게”

“무슨 수로? 이제 몽당연필도 닳아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개개비가 이리저리 종종 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포기 할 수 없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을 거야. 물맴이는 연잎을 모아줘. 그리고 개개비는 날수 있는 친구들을 불러주고 물거미는 거미줄로 공기주머니를 많이 만들어줘.”

도윤이는 상처입고 겁먹은 연못 친구들에게 차분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연못에서 돌아온 도윤이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도윤이는 돌개와 함께 연못으로 내달렸고 도윤이를 발견한 올은 하늘로 솟구치더니 불을 뿜었습니다. 도윤이는 재빨리 연못가 오리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도윤이가 나뭇잎에 가려지자 올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이야!”

도윤이는 물뱀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물뱀이가 뱅그르르 돌며 연앞에 모아두었던 연못물을 개개비와 쇠물닭에게 전해주었고 개개비와 쇠물닭은 날아오르며 연못물을 올에게 부렸습니다. 하지만 올이 재빨리 피하는 바람에 올의 날개 끝에 닿을 뿐이었습니다. 올은 화가나 소리를 지르면서 하늘로 솟구쳤고 더 큰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화가 난 올이 큰 불꽃을 내뿜을 때마다 오래 숨을 들여 마셔야 했습니다. 도윤이는 올이 숨을 들여 마실 때 재빨리 돌개를 타고 연못물이 담긴 거미줄주머니를 올의 콧구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연못물이 담긴 거미줄주머니는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황급히 피하는 올의 날개로 몽당연필이 날아들었습니다. 몽당연필의 꼭지지우개로 올의 날개를 지우려고 한 것입니다. 꼭지지우개는 녹으면서 올의 날개에 상처를 냈고 올은 날아오르기 위해 날갯짓을 했지만 제대로 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와 연못친구들은 연못물이 담긴 연잎과 거미줄주머니를 올에게 던졌습니다. 올의 커다란 콧구멍에 연못물이 닿자 연기가 피어올랐고 올은 괴로워하며 차갑게 식어 갔습니다.

도윤이는 몽당연필에게 달려갔습니다. 몽당연필은 불길에 겁에 타고 꼭지지우개도 녹아 버렸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이야, 내가 욕심을 부려서.”

“아니야, 낡고 작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너와 함께 그럴

수 있어서 기뻐어.”

도윤이는 몽당연필을 조심히 가슴에 품고 연못 친구들과 함께 연못의 불을 켜줍니다. 꺼진 불 사이로 차갑게 식은 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목뒤에 그을린 상처가 있는 예은이가 있었습니다. 올이 예은이를 잡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이는 올에게 잡혀 괴롭힘을 당한 예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물과 산딸기를 가져다주고 상처를 돌봐주었습니다. 연못은 점차 회복 되었고 연못친구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몽당연필은 더 이상 그럴수도 지을 수도 없게 되었지만 도윤이와 소중한 연못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연못이 되살아나자 도윤이를 다시 교실로 데려다 줄 종이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몽당연필과 함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몽당연필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으니까요. 도윤이는 연못친구들과 인사하고 예은이와 함께 이리 저리 뛰는 종이개구릴 따라 작은 구멍으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밝은 빛 한가운데서 실눈을 뜨다가 점점 눈을 크게 뜨며 사물함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또각또각 칠판에 무엇인가 쓰고 있었고 친구들도 사각사각 연필로 쓰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조용히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칠판에 적힌 글씨를 공책에 열심히 따라 쓰고 있는 예은이 목뒤에 조그마한 상처가 보였습니다.

# 특선



서울 송파경찰서  
오 상 백



## 수상소감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비록 공무원이 되었지만 평소 글 쓰는 걸 좋아했고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상상력이란 벽돌로 쌓아 올린 동화책입니다. 그 속에서 동심을 잃어버린 어른들이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들일 뿐이겠지요. 관찰자가 되어 아이들의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떠오른 의문은 '어른들의 세상이 아이들의 세상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였습니다. 제가 동화를 쓰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이들의 편견 없는 동심과 순수한 눈망울을 오래오래 지켜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동화를 함께 읽는 어른들이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은 더 동화스럽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 산타할아버지의 선물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한나는 친구 규진이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나야! 너 아니? 민주가 그러는데 산타할아버지는 원래 없는 거래. 민주 아빠가 그러셨는데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빠가 선물을 살짝 갖다 놓은 거라고 다 말씀해 주셨대.”

“정말? 아냐! 아냐! 우리 아빠가 산타할아버지는 진짜로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 날 저녁 아빠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나는 아빠 손을 막무가내로 잡아끌고 거실에 있는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빠! 아빠! 진짜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알았죠?”

“뭘 물어 보려고? 그런데 아빠 옷부터 갈아입고 오면 안 될까?”

한나는 고개를 좌우로 힘껏 흔들더니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산타할아버지 사실은 없는 거야?”

“.....”

말문이 막혀 버린 아빠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때 받았던 선물들 다 아빠가 사 준거야?”

“아... 아냐! 산타할아버지가 주신 거지. 애는...”

아빠는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손으로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산타할아버지가 정말 계신 거야?”

“다... 당연하지. 그럼 아빠는 옷을 갈아입으러 가야해서 그만...”

아빠는 소파에서 도망치듯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엄마가 아빠를 따라 들어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짜 산타 노릇도 올해까지만 해야겠네요. 한나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나 되었으니 내년엔 사실대로 말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한나도 벌써 11살이니 산타할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걸 알만한 나이가 되긴 했지.”

“글쎄 말이예요. 세월 참 빠르죠? 그런데...”

엄마가 조금 망설이다가 아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택배회사 면접 본 건 어떻게 됐어요? 잘 될 것 같아요?”

“휴우, 그제 말이야.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라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면접관이 그러더군. 내가 빨리 직장을 다시 구해야 하는데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미안해 여보.”

3개월 전 아빠가 근무하던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을 내 보내는 바람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있는 아빠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말고 힘내요. 여보. 다 잘 될 거예요.”

엄마는 아빠의 두 손을 꼭 잡고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아빠를 위로해 줬습니다.

아빠가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식탁에는 이미 온 식구가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던 아빠가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한나를 불렀습니다.

“저기... 한나야”

“응?”

한나가 아빠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올해도 산타할아버지한테 크리스마스카드 썼니?”

“당연하지. 그래야 산타할아버지가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주시지.”

“그랬구나. 우리 한나가 올해는 무슨 선물을 받고 싶다고 적었을까?”

“비밀이야!”

한나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왜?”

“산타할아버지에게만 알려 드릴거야. 아빠가 왜 알아야 하는데?”

한나가 아빠 눈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어서 밥이나 먹자. 여보!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네. 하하하”

지금까지 매년 그랬던 것처럼 한나가 산타할아버지한테서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슬쩍 알아내서 미리 준비하려고 했던 아빠는 뜻밖의 한나 질문에 당황해서 판청을 부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

그날 밤 한나가 잠들자 아빠는 후레쉬를 들고 한나 방에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귀땀해 준대로 책상 위에서 한나가 산타할아버지께 쓴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한나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카드를 열던 아빠는 갑자기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자 화들짝 놀라며 후레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카드는 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는 음악카드였던 것입니다.

혹시나 한나가 깨지 않았을까 걱논질로 힐끔 봤지만 다행히 한나는 깨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한번 쓸어내린 아빠는 카드와 후레쉬를 집어 들고 까치발로 한나방에서 나왔습니다.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엄마와 아빠는 한나가 쓴 카드를 열어 보았습니다.

“산타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올해는 산타할아버지께서 테디베어를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꼭~ 테디베어를 주셔야 해요.^^”

한나가 산타할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알아낸 아빠는 다시 한나 방으로 돌아가서 원래 있던 자리에 카드를 살짝 두고 나와 방문을 닫았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자는 것 같았던 한나가 눈을 살짝 뜨더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한나는 잠시 동안 책상위에 있는 카드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거리더니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

크리스마스이브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일자리를 찾아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길거리 노점에서 파는 테디베어 인형과 한나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를 사서 집에 돌아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나가 테디베어를 볼 수 없도록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 두었습니다. 한나네 가족은 모두 모여 케이크를 먹으며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한나가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아빠는 예쁘게 포장한 테디베어를 한나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나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휴~ 이렇게 해서 올해 산타 노릇도 들키지 않고 잘 넘어 가는구나”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다니느라 피곤했던 아빠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거실에서 달가락 달가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아빠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세워둔 크리스마스트리 옆에 서 있는 시커멓고 커다란 그림자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아빠에게 큰 그림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셋...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군. 호호호호호~ 보다시피 난 산타라네.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 중이지.”

아빠는 산타할아버지의 눈을 보고 거짓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 산타할아버지가 진짜로 있었다니. 이럴 수가...”

“직접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겠지만 자네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내가 있다고 믿었었지. 그렇지 않았나? 호호호호호~”

“그럼 지금까지 해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우리 집에 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진 않았다네. 지금까지는 한나가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빠가 매년 사줬으니까 내가 올 필요가 없었지.”

“그럼 오늘 우리 집에 오신 이유가 혹시 제가 한나가 원하는 것과 다른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맞다네. 올해는 한나가 원하는 선물과 자네가 준비한 선물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지. 내가 아무리 루돌프가 끌어주는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루 저녁에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을 일일이 찾아가 선물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 그래서 이번처럼 어린이가 받고 싶어 하는 선물과 어머니나 아빠가 준비한 선물이 다를 경우에만 선물을 갖다 주는 것이라네. 그런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아서 내가 새벽부터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하룻밤 사이에 선물을 다 갖다 줄 수가 있거든.”

“그랬군요. 산타할아버지는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셨던 것이었군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제가 한나가 쓴 카드를 봤는데 거기엔 분명히 테디베어를 받고 싶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호호호호호~ 사실 한나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어 한 것은 테디베어가 아니라 바비인형이었다네.”

산타할아버지가 등에 맨 자루에서 바비인형을 꺼내 아빠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어리둥절해 하며 되물었습니다.

“한나와 규진이가 산타할아버지가 정말 있는지 알아보려고 장난을 친 것이야. 산타할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선물을 적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서로 바꿔서 자기 방 책상 위에 갖다 놓은 것이지.”

“네?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네. 지금 나는 규진이네 집에 들러서 규진이 아빠가 준비한 바비인형을 가져오는 길이라네. 이제 나는 자네가 준비한 테디베어를 규진이 방에 갖다 둘 것이야. 그래야 아이들이 계속 산타할아버지가 있다고 믿게 될 것 아닌가? 호호호호호~”

“아! 그렇게 된 것이었군요. 하하하”

아빠도 산타할아버지를 따라서 크게 웃었습니다.

“셋! 내가 비록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잠시 마법을 걸어두었지만 그렇게 너무 크게 웃으면 깰 수도 있다네. 자 그럼 난 이 테디베어를 규진이한테 갖다 주러 그만 가 봐야겠어. 아직 내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말이야.”

“참 한 가지만 여쭙 봐도 될까요?”

아빠가 머리를 긁적이며 주저하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사실은 자네가 어릴 때 한번 봤었지. 자네가 돈암동 산동네에 살 때였어. 그때도 자네 엄마가 준비한 선물이 자네가 원하던 선물과 달랐었거든.”

“제 질문을 듣기도 전에 마음을 읽으셨군요.”

눈시울이 붉어진 아빠가 산타할아버지에게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타할아버지는 급히 뒤로 한걸음 물러서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내 빨간 자켓을 다시 눈물자국으로 얼룩지게 할 셈인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알 필요 없네. 호오호오호오~”

“그런데 왜 저는 산타할아버지를 만난 기억이 전혀 없을까요.”

“자네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난 마법을 써서 사람들이 나를 만난 기억을 지워버리거든. 자네도 내가 떠나고 나면 오늘 밤에 나와 만난 사실을 다 잊게 될 것이라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자네와 한나 엄마는 한나 선물로 테디베어가 아닌 바비인형을 샀다고 기억하게 될 것이고 말이야.”

“산타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산타할아버지는 인자한 웃음을 머금은 채 아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발코니로 나가셨습니다. 발코니 밖에는 루돌프와 여덟 마리의 순록들이 끄는 썰매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가득 싣고서 산타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타할아버지는 조심조심 발코니 밖으로 발을 내밀어 썰매에 올라탄 후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잘 있게! 한나가 더 커서 나한테 더 이상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지 않게 될 때까지 내 대신 산타 노릇 잘 하시게나! 이 세상 아빠들은 다 산타클로스라네. 결국 나를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건 아버지니까 말이야. 호오호오호오~ 자 그럼 나는 가겠네. 참, 자네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깜빡할 뻔 했구먼. 자네가 어린 시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린 한 가지 약속을 했었다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군. 그럼 잘 있게나.”

그 약속이 뭔지 아빠가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산타할아버지는 루돌프와 순록들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산타할아버지께선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렇게 아이들의 꿈을 지켜 주셨던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아빠는 산타할아버지가 사라진 밤하늘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 선물을 받고 눈이 휘둥그레질 한나를 생각하며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

다음 날 아침 아빠와 엄마는 한껏 들뜬 한나 목소리에 잠을 깬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나와 보세요. 산타할아버지가 제가 바라던 바비인형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산타할아버지는 정말로 계셨던 거예요.”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빠는 그런 한나를 부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던 엄마가 편지 봉투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서며 들뜬 목소리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앞으로 편지가 왔어요. 보낸 사람이 택배회사인데 혹시 당신 취직했다는 합격통지서 아닐까요?”

“요즘엔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정중하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보낸다고 하더군. 아마도 불합격했다는 통지서일거야.”

아빠는 선뜻 엄마가 건네는 편지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서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난 왠지 합격통지서일 것 같아요. 내가 뜯어볼게요.”

아빠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눈길은 편지가 있었습니까. 발강게 달아 오른 얼굴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엄마는 갑자기 토끼처럼 펄쩍 뛰어 오르며 크게 외쳤습니다.

“여보! 당신 합격했데요.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래요. 축하해요. 여보!”

“정말? 정말 합격했다는 내용이야?”

빼앗듯 엄마 손에서 편지를 가로챈 아빠는 순식간에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틀림없는 합격통지서였습니다.

“맞네. 합격통지서네. 이걸 아빠가 받아본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인걸. 정말 잘 됐어. 하하하” 아빠는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와 한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

그날 밤 아버지는 꿈속에서 밤하늘을 훨훨 날아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조금씩 눈에 익숙해지자 아버지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성북구 돈암동 산동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는 발아래로 보이는 자그마한 낡은 집을 발견하고 조용히 내려섰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살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설렘으로 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창문을 통해 살며시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안에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었고 머리맡에는 양증맞은 작은 양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민수였고 일곱 살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홀로 힘들게 민수를 키워 오신 엄마가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누군가의 발이 방안으로 성큼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는 한 이 늦은 시간에 검은 털장화와 빨간 바지를 신고 방으로 들어설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산타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산타할아버지는 등에 맨 자루에서 멋진 스케이트 한 켤레를 꺼내더니 민수 머리맡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양말에서 뭔가를 꺼내서 들고 나가려다가 그만 실수로 민수의 발을 밟고 말았습니다.

“아야!”

비명을 지르며 민수가 깨어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산타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산타할아버지도 당황한 표정으로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셋! 엄마가 깐단다. 민수야, 놀라지 마렴. 나는 산타할아버지란다.”

“네?”

잠이 덜 깬 민수는 금방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일어나 앉아 산타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와 진짜 산타할아버지세요? 크리스마스엔 항상 이렇게 몰래 다녀가셨던 건가요?”

“아니란다. 작년까지는 네가 받고 싶은 선물을 엄마가 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올 필요가 없었지. 그런데 올해는 네가 받고 싶어 하는 스케이트 대신에 엄마가 병어리장갑을 준비하셨더구나. 엄마는 네가 스케이트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아셨지만 스케이트를 사 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 대신에 손수 뜨개질을 해서 만든 이 병어리장갑을 선물로 준비 하신 거란다. 그리고 한참동안 눈물을 흘리셨지.”

산타할아버지는 민수 머리맡에 있던 양말 속에서 꺼낸 병어리장갑을 민수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단다. 이 스케이트는 한 해 동안 엄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지낸 민수를 위해 산타할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이란다. 호오호오호오~”

“우와 감사합니다. 산타할아버지.”

민수는 그렇게 갖고 싶던 스케이트를 품에 꼭 안고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산타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동안 스케이트가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이제 신나게 친구들과 스케이트를 타러 갈 수 있겠네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병어리장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수는 산타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병어리장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수에겐 스케이트를 줬으니 대신 이 병어리장갑은 이걸 필요로 하는 다른 아이에게 선물로 줘야 한단다. 그렇게 해야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거든.”

잠시 동안 망설이는 표정으로 품에 안고 있는 스케이트를 내려다보던 민수는 뭔가 결심한 듯 스케이트를 산타할아버지에게 도로 내밀며 토박토박 말했습니다.

“산타할아버지, 그렇다면 저는 그냥 그 병어리장갑을 가질래요. 스케이트가 너무나 갖고 싶은 선물이긴 하지만 엄마가 손수 만들어 주신 그 병어리장갑이 제게는 더 소중한데요.”

산타할아버지는 민수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자한 미소를 가득 머금은 얼굴로 민수에게 병어리장갑을 돌려주고 스케이트를 받아 다시 자루 안에 넣었습니다.

“알겠다. 그 병어리장갑은 단순한 장갑이 아니라 스케이트를 사 주고 싶어도 사주지 못하는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성이 가득 깃든 선물이란다. 네가 비록 어린 나이지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너무도 기특하고 어른스럽구나. 가만 있자. 어차피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왔으니 이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하나 주긴 주어야겠는데 뭐가 좋을까...”

산타할아버지는 한동안 민수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호오 그렇군.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우린 다시 만나게 되겠구나. 그때 네가 가장 바라는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지. 그 약속이 오늘 밤 내가 민수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호오호오호오~”

“네. 산타할아버지”

어린 민수는 산타할아버지의 말씀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산타할아버지가 내민 새끼손가락에 작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위아래로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산타할아버지가 눈을 한번 찡긍하자 마법에 걸린 것처럼 민수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 밖에서 산타할아버지와 민수를 지켜보고 있던 아빠의 눈에도 그렇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자 집 뒷마당에서 썰매를 타고 막 출발하려는 산타할아버지가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썰매 옆에 내려서자 산타할아버지는 아빠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아빠를 꼭 안고 등을 토닥거리 주셨습니다. 산타할아버지의 빨간 자켓이 아빠의 눈물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

다음 날 아침 아빠는 기지개를 켜며 활기차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는 않았지만 몸과 마음은 날아갈 듯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새 직장인 택배회사에 처음 출근하는 날입니다. 현관을 나서며 아빠를 향해 엄마와 한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여보! 잘 다녀오세요.”

“아빠! 일찍 들어오셔야 해요.”

“그래, 여보, 한나야, 잘 다녀올게. 하하하”

한나네 가족은 아빠의 취직이라는 뜻하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나네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가득 채웠습니다.

# 특선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지영



## 수상소감

우리 큰 아이 유치원 보내고 혼자 끄적거린 내 생애 첫 동화.  
되읽어 보니 부끄럽습니다.  
작품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너무 서툴고 모자란 글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동화 속 금송처럼 내게 없는 것들을 갈급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 괜찮습니다.  
아침마다 도서관 창을 여는 일이 행복합니다.  
먼 데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나를 흔들여 깨워 준 사람들과  
교육원 도서사랑방 이용자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 겨울 나무 삼화

두둑두둑 빗소리가 숲을 깨웁니다. 목마른 밤을 지낸 나무들이 어깨를 들썩입니다.

“단비 마시고 몸조리 잘 해두게. 이 비 그치면 바람도 한결 차가워질테니.”

나는 바람을 어루만지며 가을이 올 것을 예고 합니다. 한 자리에서 오래 숨 붙이고 살다 보니 계절이 가고 오는 것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누렁 나무님은 늙지도 않으셔. 일기 예보가 딱 들어 맞거든.”

“피, 안 늙기는 ~ 이파리가 누리끼리하니, 원래 노안인데 뭐!”

“맞아! 내가 태어날때부터 저 키였는데 입때껏 그대로야. 등도 구부정하고.”

까마중나무와 명아주풀이 수군거립니다. 겨우 한해 살다 가는 어린 풀들이 내뱉는 말에도 나는 쉬이 상처를 받습니다.

소나무는 푸른 소나무끼리, 풀들은 한해·두해·여러해살이들이 열기설기 휘엿혀 마음을 트고 지냅니다. 저마다 가족이 있고 또래의 친구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 울창한 숲에 누런 소나무는 나 혼자 뿐이에요. 맞은 편에 군락을 이루고 사는 당단풍나무들을 보면 나의 굵은 어깨는 더욱 움츠려 들고 맙니다.

“너희들은 좋겠다. 곧 가을산의 주인공이 되잖아.”

단풍나무 얼굴이 불그죽죽해집니다. 한낮의 햇빛을 달여 먹고 선 단풍나무는 저기 먼 데 있는 병풍바위까지 밝혀 줄 기세입니다. 마치 등을 켜 놓은 것처럼 환해 보여요. 발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깔입니다. 화려한 나뭇잎은 명예로움의 상징이지요. 단풍나무처럼 선명한 색깔의 잎들이 풍성하게 부풀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디 우중충한 빛깔을 머금고 태어난 나는 날이 가물면 암담한 흙빛을 띠어요.

그나마 소나무 본연의 색을 느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이지요. 이상하게 비를 맞으면 제 몸에도 푸르딩딩한 색이 감돕니다. 물기가 마르면 다시 먼지 앉은 소나무색이 돼요. 빗갈이 밍상이면 도토리 나무처럼 매끈한 열매라도 맺든가. 내 몸에 봉긋하게 올라오는 솔방울은 얼마나 거칠고 투박한지 몰라요. 배고픈 산짐승도 그냥 지나친답니다. 참으로 볼품 없는 나무입니다. 마른 솔잎이라도 떨구어 볼 생각으로 빗속에서 온 몸을 뒤흔들어 봅니다.

이때, ‘투두덕’도토리 열매 떨어지는 소리에 청설모가 잦 걸음으로 달려 나옵니다.

“휘~ 이”

갑자기 내 팔이 닿기만 하면 다 쫓아버리고 싶은 심술이 발동하네요. 가을이 오면 뭐합니까? 가을 바람을 수십번 견디어 여기 서 있지만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습니다. 키는 자라지 않고 늙수그레한 잎은 시들어 갑니다. 나의 시간은 부서집니다. 흐르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부딪히며 다시는 쓸 수 없게 훼손돼 버립니다. 동지도 없고 내 편도 없는 싱거운 일상에 혼잣말만 늘어 갑니다.

‘제발 누군가 와라. 와라. 와라.’

차라리 누군가 나를 꺾어 주길 바라는 마음, 아무도 몰라주세요. 나처럼 등이 굽은 소나무를 반겨줄 사람 어디 없나요? 땀감으로 타들어 간다 해도 이 기나긴 애육살이를 벗어나고 싶어요. 지금 나를 베어내면 아마 내 몸에는 나이테가 없을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에는 마디가 없거든요. 가을, 겨울 계절 없이 밤낮 구분짓지 않으며 여드레, 아흐레, 보름 …… 끊고 흘치는 구간도 없이 하나의 시간이 덩이로 흐릅니다.

지워진 나이테만큼 간절한 열망이 짝 채워져 강도는 여느 소나무보다 더 단단할텐데….

나의 끝없는 푸념은 가을의 끝자락까지 이어집니다. 여전히 심심한 오후예요.

무슨 재미난 일 없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훅, 무언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저기요, 여기 좀 보세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가지를 한껏 흔들며 외쳤습니다.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노루가 돌아 봅니다.

“네, 맞아요. 반가워요. 노루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노루를 불러 세웠는데 나를 본 노루는 시큰둥합니다. “저를 아세요? 저는 누르스름한 나무님을 처음 뵈는데요…”

생경한 눈빛으로 되묻습니다.

“아~ 전에 본 노루랑 깃불이 닮으셔서요. 이 숲에 사는 생명들은 모두가 한 식구 아니겠어요? 하하하”

겸연쩍은 웃음으로 얼버무려 보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가시지 않습니다. 사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이 산에서 노루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고라니, 토끼, 다람쥐, 멧돼지까지 여기저기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종종 잠을 설쳤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들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노루에게 식구들 안부를 물었더니

“아직, 모르셨어요? 이 산 뒷자락에 전원 마을이 생겼잖아요. 산책로가 생기면서 갈참나무 도토리도 남아나질 않아요. 다람쥐나 사슴벌레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소나무 송진까지 끊어간다니깐요. 그 분이 아니예요. 밤새 마을에서 불빛이 흘러나와 숲을 비추니까 우리 같은 산짐승은 살 수가 없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듯 솔잎이 곤두섭니다. 뒷산에서 그 난리를 겪는 동안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요. 부르르 온몸이 떨립니다.

“저두 먹을 게 없어서 이냥떠러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소나무님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바빠서 그만!”

노루는 까만 눈망울에 푸른 숲을 담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숲속 친구들이

먹이를 찾느라고 그렇게들 바빴나 봅니다. 노루의 말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 숲은 한없이 축고 작아 보입니다. 여태 사람을 기다려왔는데 이제 그 기다림을 그만둬야 할까봐요. 내 가족을 찾아 주기는 커녕 지금 있는 친구들마저 빼앗아 갈지 모르잖아요.

희망을 잃은 내 마음처럼 숲에도 조용히 어둠이 내려 앉습니다. 당당한 기상을 뽐내던 전나무, 그늘을 늘려가던 신갈나무도 밤이 되자 온 줄기에 기운을 빼고 축 늘어져 잠이 듭니다.

“피리리 리잇~”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떨기나무 낮은 이파리 위에 앉은 풀종다리 소리입니다.

“톡”

이 소리는 망개나무 붉은 열매 떨어지는 소리지요. 내 속도 모르고 발밑으로 또르르 굴러와 간지럼을 피우네요.

“흐읍~”

저기 먼 데서부터 올라오는 은목서향을 소리내어 읽어 봅니다.

오늘밤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숲속 풍경이 유난히 정겹게 다가옵니다. 빛이 흔들여 깨우는 것으로 아침을 느끼고 저 작은 풀벌레들의 움직임으로 밤을 준비합니다. 시계도 달력도 필요 없는 이 공간. 흐르는 계절은 바람으로 충분하지요. 바람에 실린 온기도 시시각각 다르니까요.

곧 겨울이 오려나 봅니다. 내 엉덩이 밑으로 누군가 땅을 파고 들어오네요.

“힘없는 잔뿌리는 당지 마. 나도 봄이 될 때까지 너희들은 안 건드리마.”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하- 그래요. 누렁나무님도 한숨 길게 붙이시고 푸른 봄에 다시 뵙요.”

개구리 한 마리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인사를 받아 줍니다. 숲 마당을

누비던 생명들은 그렇게 하나둘 자취를 감춥니다.

이튿날은 기러기떼들의 황홀한 하늘춤을 봅니다. 키가 작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것이 겨울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나도 서서히 겨울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겨울에는 나무들도 입을 떼지 않으니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어야 합니다. 벌을 서는 것처럼 곤욕스럽지요. 이제부터 그 기나긴 벌 서기에 들어가려구요. 준비- 하나, 둘, 가만! -그런데 저건 또 무슨 소리지요?

“산세가 너무 험해요. 여긴 길이 없어요.”

사람 소리입니다.

“여기가 복숭아골 맞는데… 약도가 틀린가?”

같이 온 남자가 두리번거립니다. 길을 잘못 들어선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이름 없는 야산에 무슨 볼일이 있겠어?’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한 심통을 부립니다.

“그럼, 아까 그 길로 다시 내려가야 할까 봐요. 무서워요.”

잔뜩 움츠려든 여자의 말에 더욱 심술이 납니다. 도대체 숲이 무슨 해코지를 한다고 무서워합니까? 오히려 겁나는 건 우리들이지요.

“엇, 저것 봐! 소나무가 노오래요.”

“정말 오묘하네!”

뾰로통했던 나는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내가 오묘하다니요. 세상에 태어나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봐요. 그들은 카메라 렌즈를 길게 늘어 뽑아서 나를 찍어 갑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별경계 날을 샌 눈으로 먼 길을 내려다 봅니다.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솔잎을 하나씩 떨구며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기다리나 봅니다.

어느덧 해는 어슬렁 느티나무 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 보니

“앗, 차가워!”

은빛 가루가 솔잎에서 반짝입니다. 첫눈입니다. 어쩔 좋아요. 첫눈은 반가운 손님들을 데려 왔어요. 꿈이 아닌지,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 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카메라를 메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황금 소나무다!”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망개나무 가시가 내 곁을 두르고 있는데 겁 없이 다가옵니다. 절벽이라 위험한데도 바짝 다가서서 만져 봅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서 속줄기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보고 합성인 줄 알았는데 진짜 황금소나무네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갑시다.”

덩치 큰 보도부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섰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희귀품종인 황금소나무가 발견되었습니다. 높이 5m에 가슴둘레는 40cm이며 나이는 10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황금소나무는 라디오가 없던 시절에 솔잎의 색깔을 보고 날씨를 예측해 천기목이라 불렀습니다.”

들으셨나요? 내가 황금소나무랍니다. 세상에나. ‘쿵쿵’ 난생 처음 내 안에 심장 박동 소리를 듣습니다. 나에게도 심장이 있는 게 분명해요. 수맥을 타고 주르르 감동이 흐르는 걸 느낍니다. 이 병약하고 흐릿한 솔잎이 황금빛이었다니...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 가겠지요? 그럼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도 생기겠네요? 또 기름진 땅으로 뿌리를 옮기면 키가 쑥 자랄지도 몰라요. 더 높은 세상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거예요. 새들도 구름도 점점 가까워지겠지요. 나를 따돌리던 나무들도 이제 나를 함부로 부르지 못 할거예요.

하지만 벽찬 감동도 잠시, 나는 지금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황금소나무를 배양하겠다는 가지들 한쪽씩 꺾어 갔어요. 호기심에 솔잎과 솔방울도 한 움큼씩 털어 갔지요. 폭설이 내린 다음날에도 사람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만 좀 해요!”

발버둥 쳐도 소용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눈을 털어내는 손길은 거칠기만 하고 사람들 소음은 간절한 나의 애원을 삼켜 버립니다. 나는 그만 현기증이 납니다. 뿌리까지 흔들려 어지럽고 울렁거립니다.

“어허, 이러다 죽게 생겼는데.”

보다 못해 산 아랫마을 이장 할아버지가 내 가슴 높이에 철조망을 둘러 주셨습니다. 영양제가 담긴 수액병도 하나 걸어 줍니다. 스멀스멀 이상 야릇한 쓴맛이 뿌리로 스며 드네요.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을 간신히 견뎌내고 하룻밤 지내고 나니 겨우 앞이 보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더 괴롭습니다. 나 때문에 온 숲이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요.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무슨 일인가 고개를 내밀었다가 변을 당하고 나무들은 기자들 발길에 치여 생채기 투성이입니다. 카메라 기자가 밟고 올라섰던 물푸레나무는 가지 반쪽이 부러져 나갔고 약으로 쓰인다는 헛개나무는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훑고 지나간 자리마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승승 빈 자리에 눈이 쌓여 갑니다.

“친구들아, 미안해.”

이제 나의 목소리는 숲의 신음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왜 진작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솔잎, 줄기, 뿌리, 껍질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데 없는 소중한 몸이라는 것을 식막한 철조망을 두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 눈발 사이로 어제와 다른 시간이 흐릅니다.

# 입선



법제처  
노연우



## 수상소감

5살 딸 아이를 둔 아버로서 공무원 문예대전의 동화 부문에 입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 시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직접 지은 동화로 읽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디즈니 만화를 좋아하는 딸 아이와 함께 동화를 보다보면 '마녀는 왜 나쁘기만 한 것일까? 공주는 항상 선한 사람인가? 누가 선과 악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걸까?' 이런 의문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러한 의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내고자 동화를 써보았는데 작가란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공무원 업무에 창의력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새삼 느끼고 있는데, 이번 공무원 문예대전 입선이 저에게는 창의력 개발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보완해서 '마녀고델 2'를 훌륭히 만들어보겠습니다.

## 마녀 고델

옛날 멀고 먼 어느 나라에 인간들과 마녀들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녀들은 숲속의 깊은 동굴 속에서 살았고 인간들은 성안에서 살았습니다. 마녀들은 강력한 마법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고 날이 좋은 어느 날 귀여운 마녀가 태어났습니다. 마녀의 부모는 고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고 사랑스럽게 키웠습니다. 고델의 부모는 이 나라에서 마법을 제일 잘 쓰는 마녀와 마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 안의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채소와 곡식이 부족해져서 동물들이 병들고 배고픔에 시달려 죽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젊은 왕은 이 모든 게 마녀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마녀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화형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고델의 부모는 어린 고델에게 줄 사과를 찾기 위해 숲속에서 마을 쪽으로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앗, 마녀다. 저기 마녀가 있다! 왕이 마녀를 잡아오면 말과 곡식을 나눠준다고 했어, 잡아라!”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앗, 우린 나쁜 마녀가 아니야. 우린 너희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그만둬, 우리 고델에게 사과를 가지고 돌아가야 돼!” 고델의 부모는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델의 부모를 잡아서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은 나라의 곡식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병드는 것 때문에 땅에 떨어진 민심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고약한 마녀 같으니라고, 너희 마녀들이 이 나라에 저주를 걸어서 비가 오지 않고 사람들이 병들었다. 어서 저주를 풀지 않으면 감옥에

가둔 후 불에 태워서 죽게 할 것이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저희 마녀들은 그 동안 인간과 사이 좋게 지내고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에게 나쁜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사람들이 병이 든 것은 저희들이 저주를 걸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델의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마녀들이 이 저주를 풀지 않겠다면 이 나라의 모든 마녀들을 찾아서 없애 버릴 것이다.”

왕은 이야기를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고델의 부모를 화형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고델의 부모는 억울하다며 마지막으로 어린 고델을 한번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애원하였습니다. 왕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고델의 부모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시켜서 죽게 하였습니다. 고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동굴 속에서 부모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왕은 고델의 부모를 화형시킨 후 다른 마녀들이 자신에게 보복을 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녀사냥을 계속하였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이 나라의 모든 마녀들을 잡아서 화형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마녀들은 모두 인간들에게 잡아서 죽거나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녀들은 결국 모두 떠나고, 고델은 동굴 속에서 혼자 쓸쓸히 자라났습니다. 고델은 부모로부터 마법을 많이 익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델에게는 마법의 꽃이 있었습니다. 이 꽃은 고델의 부모가 마녀들의 마법을 모아서 만든 것이었는데 고델의 15번째 생일에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이 꽃이 있으면 고델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늙지 않고 마법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고델은 마법의 꽃을 ‘안나’라고 이름 지어주었습니다. ‘난 이제 부모도 없고, 함께 놀 친구도 없지만 안나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 마법의 꽃,

안나는 고텔의 유일한 친구이자 어두운 밤 하늘의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텔은 안나를 소중히 다루고 매일 아침마다 물을 주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꽃이 마치 고텔을 향해 웃고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고텔은 어느새 어른 마녀가 되었고, 숲속 밖의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고텔은 이제 안나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숲속 밖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숲속의 동물들과 어울리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왕은 이웃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법에 따르면 왕에게 자식이 없으면 왕의 자리를 가장 현명한 신하에게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왕은 본인이 과거 젊은 시절에 저지른 마녀 사냥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인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솔직하게 본인의 과거 마녀 사냥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예전에 마녀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마녀들을 모함하며 죽인 일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 나라의 지혜로운 현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풀고 왕비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아라. 이 저주를 풀 방법을 찾는 자에게 내 그 자의 원하는 소원은 모두 들어주리라.”

신하들은 이 나라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지혜로운 현자들을 찾아가 왕에게 걸린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현자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왕비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마녀 사냥으로 죽은 마녀들의 저주 때문이 맞습니다. 이 저주를 풀고 아이가 생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녀의 꽃을 가져와서 왕비의 침실에 두고 잠자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신하들은 그 현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마녀의 꽃만 찾으면 왕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마녀의 꽃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델은 안나를 들고 다니며 마법으로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주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하였습니다. 숲속을 지나가던 마차가 큰 돌에 부딪쳐 넘어진 것을 세워서 고쳐주기도 하고, 강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몰래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고델은 자신의 마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델은 자신의 부모님과 친구들, 다른 마녀들이 왜 숲속에서 사라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고델에게 왕이 마녀 사냥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내리치는 어느 날 밤 낡은 마차가 숲속을 지나가다가 늑대 무리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마차에 타고 있던 늙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고델은 그 소리를 듣고 안나를 들고 마법으로 늑대 무리와 싸우며 늙은 남자를 구해주었습니다. 늙은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늑대에게 물려 죽을 뻔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말만 하십시오.” 고델은 자신이 이 숲속에 유일하게 남은 마녀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 꽃의 도움으로 강력한 마법을 갖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늙은 남자는 사실 신하들에게 왕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던 바로 그 현자였습니다. 현자는 마녀의 꽃을 가져오기 위해 일부러 숲속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현자는 고델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성에서 왕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왕비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당신의 마법의 꽃이 있으면 이 나라의 근심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마법의 꽃을 잠시 빌려주면, 제가 당신의 부모님과 친구들 찾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다른 마녀들을 봤습니다. 왜 당신만 이 숲속에 있는 것인가요? 당신도 한번 성에 놀러오지 않겠습니까?” 고델은 부모님과 친구 마녀들이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고델은 현자를 믿고 안나를 가지고 성으로 향했습니다.

고델이 현자와 함께 성의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왕과 수백명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고델을 에워쌌습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악한 마녀가 아직도 남아있었구나! 너희 마녀들의 저주 때문에 이 나라가 위협에 빠졌었다. 어서 마법의 꽃을 내놓아라! 마녀를 잡아라!” 고델은 당황해서 안나를 들고 마법을 쓰려고 했지만, 마법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현자가 고델과 함께 오는 길에 몰래 비슷한 다른 꽃과 안나를 바꿔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고델은 외쳤습니다. “왕이여, 저는 숲속에 살면서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위협에 빠진 인간을 돕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은 어디에 있나요?” 왕은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마녀 같으니라고, 너희 마녀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해가 된다. 너희 마녀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 부모, 친구들과 같이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다시는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병사들은 고델을 칼로 찌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고델의 주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델은 살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사라지는 마법을 사용해서 성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자는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폐하, 제가 마녀를 속여서 마법의 꽃을 가져왔으니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왕은 음흉한 미소를 띄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너의 소원은 들어주겠다. 영원히 이 비밀을 지킨다면

말이다. 하지만 내가 비밀을 지킨다는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왕은 이미 마법의 꽃을 손에 넣었고, 마녀들이 사실은 이 나라에 저주를 걸지 않았다는 것을 현자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닐 것이 두려웠습니다. 왕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위대하고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현자를 지하 감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 현자는 왕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마법의 꽃을 가져왔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현자는 왕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간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꾀를 내었습니다. 현자는 감옥에서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녀의 꽃을 왕비의 침실에 두고 잠자리를 한다고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녀의 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여기서 풀어만 주신다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은 마녀의 꽃을 왕비의 침실에 두고 왕비와 잠을 잤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편지를 읽고 현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마녀의 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 어서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당장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자는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마녀의 꽃은 마녀 고텔이 사는 숲속 동굴에 오래 동안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성 안에서는 서식 환경이 맞지 않아서 마법의 꽃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녀 고텔이 살던 숲속 동굴 근처로 옮겨 놓았다가 49일 후가 지나고 다시 가져온다면 마녀의 꽃은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제가 그 곳을 알고 있으니 저를 병사들과 같이 그 곳으로 보내주면 다시 마녀의 꽃을 심어놓고 49일 후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왕은 병사들을 현자와 함께 숲속의 동굴로 보냈습니다.

고델은 인간들에 대한 배신감에 절망하고 동굴 속에서 실의에 빠져있었습니다. 현자가 마녀 고델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왕이 이런 사람인줄 몰랐습니다.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당신의 부모와 친구 마녀들이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모함하며 죽인 사람은 바로 그 왕입니다.”

고델은 그 동안 살아있다고 믿었던 부모와 친구들이 자신이 도와줬던 인간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고델이 물었습니다.

“너도 똑같은 인간인데 왜 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해주는 거냐?”

현자는 고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왕에게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왕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왕은 다시 저를 지하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준다면 제가 왕에게 복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지 왕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고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자는 고델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당신의 마법의 꽃을 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마법의 꽃을 동굴 밖의 절벽 근처 풀 속에 49일간 심은 후에 왕이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법의 꽃으로 왕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법의 꽃의 능력을 모두 아이의 머리카락으로 옮겨두십시오. 왕과 왕비는 그 아이를 무척 아끼고 사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몰래 밤에 당신이 성에 침입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숲속의 탑 속에 데려가서 당신의 아이로 키우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왕은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이고, 왕의 아이는 당신을 어머니로

생각하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제 말대로만 한다면 분명 완벽한 복수가 될 것입니다.” 고델은 혼란스러웠지만 부모와 친구들을 죽인 왕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현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델은 현자의 제안대로 마녀의 꽃을 동굴 밖의 절벽 근처 풀 속에 심어서 49일간 두었습니다. 왕은 49일 후 병사들을 모두 동원하여 마법의 꽃을 찾았습니다. 고델은 마녀의 꽃에 모든 마법을 쏟아서 왕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왕과 왕비는 예쁜 공주님을 낳았습니다. 고델은 현자의 말대로 마법의 꽃의 능력은 전부 공주의 머리카락에 옮겼습니다. 공주의 머리카락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발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너무 기뻐서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들뜬 어느 날 밤 고델은 성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공주를 데려가기로 마음 먹은 날이었습니다. 고델은 공주의 침실에 들어온 순간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거지? 이 아이를 내가 데려가도 되는 것일까? 복수를 한다고 죽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아니야, 이 아이는 내 부모를 죽인 이 나라 왕의 아이다. 현자의 말대로 왕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면 이 방법 뿐이다. 자기 밖에 모르는이기적인 왕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기분이 어떤지 느끼게 해주자.’ 고델은 결국 공주를 데리고 성을 빠져나와 숲속을 지나고 지나서 아무도 모르는 탑에 데리고 갔습니다.

고델은 처음에는 왕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공주를 데리고 왔지만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육아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기에게 어떻게 분유를 먹이는지,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동화책은 어떻게 읽어줘야 하는지, 아이와 놀이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잠은 어떻게 재워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고델은 생각했습니다. “내 처지가 이게 뭐지? 예휴, 지금

이게 복수하는 것인가?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이런 복수는 하지 않았을텐데...” 고델은 공주를 다시 성으로 데려다놓고 올 것인가를 몇 번이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공주가 고델에게 “엄마, 엄마!”하며 안기며 웃는 모습을 보고 지친 몸의 피로가 풀리고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생기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냐 이러면 안되, 이걸 복수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아이한테 마음을 주면 안되, 난 이 아이의 친 엄마가 아니야. 원수의 딸이야. 정신차리자’ 고델은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지만, 공주의 사랑스런 미소와 애교에 자신도 모르게 공주를 진짜 딸처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주의 머리카락에 옮겨놓은 마법의 힘 때문에 고델은 젊음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린 공주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열이 나고 이유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너무 아파서 울었고 잠도 거의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델은 아픈 공주를 정성껏 간호하며 숲속에서 약재를 가지고 와서 치료를 했지만 잘 낫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공주 옆에서 죽을 끓여서 먹이고 약재를 먹이고, 병 간호를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픈 공주는 몇 번이나 밤에 잠을 자다가 크게 울면서 깨곤 했는데, 고델은 이때마다 “우리 이쁜 아가, 어디가 그렇게 아프니.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울지마, 푹”하며 보살폈습니다. 고델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공주를 지극 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주는 해맑은 미소로 지쳐 잠든 고델을 안아주며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고델은 공주의 뽀뽀에 지친 몸의 피로가 금방 풀리며 공주를 계속 안아주었습니다. 고델에게 이제 공주는 정말 친딸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복수 따위는 어느새 머리에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공주 또한 고델을 친엄마로 생각하고 많이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고텔은 공주가 점점 크면서 자신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신은 마녀이고, 공주는 이 나라 왕의 딸인데 자신이 충분한 교육도 시켜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인간들이 사는 성 안에 몰래 변장하고 들어가서 많은 책을 사가지고 온 것도 공주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공주는 스스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소녀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탑 밖의 세상에 관해 물으면 고텔의 표정이 좋지 않고 말을 돌리는 것을 의아해했습니다. 공주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고텔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텔이 싫어하는 말을 잘 하지 않았고, 고텔이 불편해하는 것에 더 궁금증을 갖지 않으기로 했습니다. 고텔은 언제까지 공주를 이 탑에 가둬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공주가 크면 이 탑을 스스로 떠나게 될 것을 본능적으로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공주는 16세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고텔과 사소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고텔은 공주를, 공주는 고텔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 다정한 친구같은 모녀지간으로 지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탑 속을 환히 비추고 공주는 고텔을 기다리며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텔은 숲에서 사색을 하다가 큰 결정을 내린 듯 성 안에 들어가서 공주가 숲속의 어느 탑에 있다고 사람들에게 조용히 지나가듯 얘기하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공주가 탑에 있다는 소문에 현상금을 걸고 이 나라의 모든 남자들에게 공주를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공주를 탑에서 데리고 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왕은 너무 기뻐서 공주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너를 잃어버리고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그 못된 마녀에게 시달렸을 생각을 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공주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의 친 아با인가요? 저는 지금 혼란스럽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당신이 저를 낳아주셨을지는 몰라도 저를 그 동안 키워주신 분은 고델입니다. 제가 아플 때 고델이 저와 항상 함께 있었고, 저를 먹여 주고 밤에 잠 들기 전에 책 읽어주시고 키워주신 분이 바로 고델입니다. 당신은 왜 마녀라는 누명을 씌워서 저희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까?” 왕은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공주가 왕에게 반감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공주는 오히려 마녀 사냥을 했던 왕을 꾸짖고 고델에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공주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마녀에 대한 편견을 갖고 마녀 사냥을 했던 것은 당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동안 보아온 고델은 나쁜 마녀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랑스러운 엄마였습니다. 저는 고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왕은 충격에 빠졌지만 공주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델은 조용히 멀리서 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델은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주를 잘 키워주십시오. 공주를 탑 안에 가두고 살았지만 정작 탑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은 저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공주를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낳았지만 저의 딸이기도 합니다.” 왕은 눈물을 흘리며 공주와 고델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고델은 이제 젊음을 유지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너무 흥분했습니다. 훌륭하게 자라준 공주를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델은 떠났지만, 공주는 평생 고델을 그리워하며 훌륭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 입선



서울구산초등학교  
이 영 주



## 수상소감

삶의 여러 가지 갈등을 문학으로 극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문학이 가진 힘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 긴 꼬리 고양이 몽몽

## 1. 긴 꼬리 고양이 몽몽(夢夢)

“쫓쫓……. 망측하게 시리 고양이 꼬리가 저게 뭐야…….”

고양이들은 몽몽(夢夢)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몽몽이는 자신의 꼬리를 꾸미는 걸 좋아했습니다. 늘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녀서 ‘무지개 냥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꼬리를 하트모양으로 꼬거나 달팽이 모양으로 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꼬리 운동으로 근육을 키워 나뭇가지에 꼬리를 말아 박쥐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은 몽몽이가 지나가면 키득대고 웃으며 놀렸습니다.

“오늘은 무지개 하트 꼬리냐? 고양이 망신 다 시키고 다니네. 품위 없게 말이야!”

“꼬리에 힘준다고 절름발이 고양이인 줄 모를 줄 아니?”

고양이들은 비아냥 거렸습니다.

몽몽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 오른쪽 앞다리가 짧고 꼬리가 길었습니다.

건거나 펼 때도 우아한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양이들은 절뚝거리는 몽몽이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양이들은 아름다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고양이들은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일어나서 뒤늦은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아하게 털 관리에 한참 공을 들이고 우아한 포즈로 다시 잠을 잡니다. 윤기 있는 털 관리를 위해서 잠은 소중한니까요. 낮잠을

한참 자다가 깨어나 밥 먹고 놀다가 또 긴 잠을 잡니다. 노을이 지고 나서야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길고 긴 잠을 잡니다. 새벽에 깨서 놀다가 이내 또 긴 잠에 빠지는 게 고양이들의 일상입니다. 하루의 삼분의 이를 잠으로 보내고 하루 종일 거울을 보며 털 관리하며 꽃단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몽몽이는 잠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몽몽이는 모든 게 궁금했습니다. 하루 종일 꽃이나 나비나 이슬이나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궁금했습니다.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것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몽몽이는 하루의 대부분을 숲을 돌아다니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꼬리 근육 훈련을 하고 꼬리 꽃단장을 했습니다.

“우아하게 늘어져 자는 게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비법이야. 미묘는 잠꾸러기란 말도 모르니”

라며 한심한 듯 충고하는 고양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몽몽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 2. 날고 싶다

어느 날 몽몽이는 들판 위에서 밝고 따뜻한 햇살을 만나 함께 씨름을 하며 놀다가 하늘 위를 나는 새를 보았습니다.

하늘 위를 나는 새를 보자 가슴이 ‘땡~’ 뚫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와…….”

그 날 이후 매일 몽몽이는 하늘을 보는 게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몽몽이는 그때부터 꿈이 생겼습니다.

“날고 싶다. 저 새들처럼. 파란 하늘을 자유롭게”

## 3.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주위의 냉혹한 시선

꿈이 커질수록 바라보고만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매일 날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들처럼 하늘을 날 수 있을지 날마다 골똘히 생각하며 혼자말로 중얼중얼 거리는 몽몽이는 낮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먹는 것도 꽃단장도 잊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진 몽몽이를 보며 숲속 친구들은 드디어 몽몽이가 미쳤다고 수군댔습니다.

보통 고양이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지만 몽몽이는 날고 싶다는 꿈에 취해 있었습니다. 꿈에 취해 먹는 것도 꽃단장도 소홀히 한 몽몽이는 점점 더 마르고 털도 뺏뺏하고 윤기가 없어졌습니다.

새들에게 나는 방법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몽몽이가 다가가면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몽몽이는 혼자서 궁리하며 연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새들처럼 양팔을 열심히 저으면 되지 않을까?’

곧바로 몽몽이는 숲에서 높은 나무를 찾아냈습니다. 언덕 위 도토리 나무입니다.

도토리나무 제일 꼭대기 나뭇가지로 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발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양팔과 다리를 버리고 점프하며 팔다리를 새처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진 적은 처음이라 땅바닥에 불쌍사납게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턱이 까져 피가 났습니다.

몇날 며칠이고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곤두박질 치는 걸 반복하는 몽몽이를 보고 지나가던 고양이들은 깔깔대며 비웃었습니다.

“니가 하늘을 날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냐하하하하”

“바보짓 그만하고 잠이나 자. 지상 최고의 행복은 잠이야”

“털이 그게 뭐냐? 뺏뺏하게 시리. 털 관리나 좀 해. 고양이 체면 다 구기네!”

몽몽이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 그냥 못들은 척 했습니다.

일단은 나는 연습보다 착지 연습이 더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몽몽이는 조금 낮은 나뭇가지부터 차례 차례 떨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떨어지면서 다치지 않고 착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 점 높은 나뭇가지로 갔습니다. 높은 나뭇가지에서 떨어질 때는 조금 다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곧바로 떨어지면 속도가 붙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몽몽이는 높은 나뭇가지에서 떨어질 때는 공중에서 앞구르기하듯 회전하며 속도 조절을 해서 떨어지며 착지했습니다. 몽몽이는 드디어 도토리 나무 가장 높은 나뭇가지에서 떨어져도 안전하게 착지하는 회전술까지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몽몽이는 회전술을 연마하며 계획한 다음 단계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튼튼한 나뭇가지를 꼬리로 돌돌 말아 매달려서 그네처럼 왔다 갔다하며 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무척 어지럽고 무서웠지만 시원한 바람이 털 사이 사이를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참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꼬리를 풀고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풀고 열심히 팔을 휘저어봤자 땅으로 곤두박질쳐서 착지나 잘하면 다행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숲 속 친구들은 처음엔 몽몽이를 보며 수군대다가 나중엔 아예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제대로 걷거나 하시지! 짹짹 짹짹~!”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날겠다고 꼴값을 떠네!”

하지만 아무도 몽몽이의 날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 4. 시인을 꿈꾸는 작은 새 푸시킨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훈련을 하고 도토리 나무로 갔는데 나뭇가지 위에 작은 새 한마리가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몽몽이는 조용히 작은 새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저기……. 왜 우니?”

작은 새는 몽몽이를 보고 화들짝 놀라 날았습니다.

“아……. 해치지 않을게. 작은 새야……. 난 새들을 정말 좋아하거든…….”

몽몽이는 수줍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도망가려던 작은 새는 비쩍 마른 몽몽이를 보니 자신을 해칠 만큼 기운이 세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 다시 날아와 몽몽이 옆에 앉았습니다.

“나만 짝이 없어.”

작은 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짜?”

“모두 눈부시게 하얀 털을 가졌는데 나만 이렇게 커다랗고 보기 싫은 푸른 털이 점처럼 나 있어서 아무도 나하고 짝을 하려고 하지 않아”

“아 그렇구나. 커다란 점이 있었구나. 음…….솔직히 나도 절름발이 고양이라고 친구들이 놀려서 많이 속상했었어.”

“아…….그리고 보니…….근데 꼬리가 너무 멋져서 그딴 거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지? 나도 내 꼬리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하늘을 마음껏 나는 니가 훨씬 멋져!”

몽몽이와 작은 새는 나란히 앉아서 도란도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작은 새의 이름은 푸시킨이고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한 철 이 숲에서 머물다 먹을 거리가 떨어질 때쯤 다시 남쪽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잠깐만! 좋은 수가 생각났어”라며 몽몽이는 물감을 가져왔습니다.

몽몽이는 꼬리에 물감을 묻히더니 자유자재로 꼬리를 이리 저리 움직였습니다. 꼬리로 푸시킨에게 멋진 파란 하늘 무늬를 그려줬습니다. 매일 하늘을 보던 몽몽이는 하늘을 멋지게 그려냈습니다.

“와~너무 예쁘다!”

푸시킨은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더니 박수치며 기쁨에 겨워 한참을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너한테 하늘무늬가 참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몽몽이 마음에도 기쁨이 출렁였습니다.

## 5. 나는 법을 배우다

“와, 너무 고마워~ 나도 뭐라도 해주고 싶어.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음……. 혹시 나한테 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어?”

“나는 법이라고? 왜?”

“나……. 하늘을 나는 게 꿈이거든. 혼자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네.”

몽몽이는 수줍어하며 말했어요.

푸시킨은 다른 친구들처럼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몽몽이의 꿈을 들어줬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새를 좋아했구나. 나도 꿈이 있어. 난 시인이 되고 싶어. 시를 쓰고 시를 노래하는 일이 참 좋아. 하지만 친구들은 시를 써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는 둥 핀잔을 줘. 우리 같은 철새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이유는 그저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뿐이고.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괜히 걸 몇 만 들었다고 철 없는 새 취급이야. 하지만 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푸시킨도 수줍어하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멋지다! 시인이라니……. 근데 시가 뭐야?”

머리를 긁적이며 몽몽이가 물었습니다.

“하하하. 시는 노래야.

들어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데

내가 살던 곳에 나와 같은 이름의 시인이 쓴 시야.”

“흠. 흠.”

푸시킨은 목청을 가다듬고 가슴을 치켜세우고 우아하게 날개 짓을 하며 시를 노래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시가 끝나고 몽몽이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치 그 시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를 들으니 그 동안의 슬픔과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넌 정말 멋진 시인이 될 거야!”

“정말?”

“응!”

몽몽이는 처음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건 참 즐거운 거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함께 꿈을 이야기 할 친구를 만나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내가 나는 건 선수야. 나는 건 참 멋진 일이지! 내가 나는 걸 가르쳐 줄게. 나만 믿어! 자 그럼 여기 두 발로 서 봐”

몽몽이는 푸시킨이 시키는 대로 나뭇가지에 아슬 아슬하게 두 발로 섰습니다.

갑자기 푸시킨은 몽몽이 뒤로 날아가서 힘껏 밀었습니다.

몽몽이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우스꽝스런 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까악! 뭐하는 짓이야?”

“아, 미안. 난 그렇게 배웠거든. 깜짝 놀라 떨어질 때 저절로 날게 되던데…….”

“거짓말! 저절로 날게 되는 게 어디 있어?”

“아니야! 새들은 다 그렇게 나는 연습을 해!”

한참을 몽몽이를 요리 저리 살펴보던 푸시킨이 말했습니다.

“아! 알았다. 넌 날개가 없잖아”

“날개?”

“응, 이렇게 짝 펼쳐지는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어”

몽몽이는 푸시킨의 날개를 자세히 관찰 했습니다

“아! 날개가 있으면 되겠구나!”

몽몽이와 푸시킨은 함께 푸시킨의 날개를 요리조리 살펴보며 연구했습니다.

몽몽이는 날개 설계도를 열심히 그렸습니다.

나뭇잎과 잔 덩굴 가지들을 모아서 밤이 새도록 함께 날개를 만들다 푸시킨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푸시킨이 깨어나 보니 몽몽이는 완성시킨 날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꿈에 부푼 눈빛이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와~ 안 잔거야? 대단하다! 너”

“일어났어? 어서 날아보고 싶어”

몽몽이는 양 팔 겨드랑이에 날개를 메고 나무 가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음……. 마음의 준비 됐니?”

“응!”

“자. 하나 둘 셋! 날아!”

몽몽이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용감하게 뛰어내려 열심히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하지만 우스꽝스런 꼴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공들여 만든 날개도 모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몽몽이는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푸시킨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울음을 그친 몽몽이가 말했습니다.

“나뭇잎은 너무 약해. 너희 새들처럼 깃털 같은 걸로 만들어야겠어.”

몽몽이는 다시 의욕이 넘쳐서 떨어진 깃털이 없는지 숲을 살피며 이젠 땅만 보며 다녔습니다.

그런 몽몽이를 보며 푸시킨은 시를 썼습니다.

‘윤기 없는 뺨뺨한 털

습기 없는 마른 코

볼품없는 앙상한 몸매

초라하고 남루한 고양이 한 마리

하지만 그의 눈동자를 자세히 들여다 본 자는 알지

그 작은 눈동자에 누구보다 크고 담대한 아름다운 꿈이 어려 있음을’

## 6. 무지개 냥이 미용실

푸시킨은 다음 날 짝과 함께 도토리 나무로 왔습니다.

“몽몽님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혹시 나도 예쁘게 염색해 주실 수 있을까요?”

푸시킨의 짝이 예의바르게 물었습니다.

몽몽이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정성을 다해 푸시킨의 짝에게 무지개 무늬를 염색해 주었습니다.

푸시킨과 무지개새는 천생연분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푸시킨은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 몽몽이와 무지개새에게 시를 노래했습니다.

‘파란 하늘에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가 수놓이면

지난 아픔도 다가올 두려움도

모두 씻겨나가고  
말갈게 시작하는 마음이  
무지개를 넘어 내 가슴으로 들어 오네'  
푸시킨과 짝은 기뻐서 하늘을 한 바퀴 휘~ 돌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푸시킨과 무지개새를 따라 푸시킨의 친구들은 우루루루  
몽몽이에게 왔습니다.  
“우와 너무 멋져!”  
작은 새들은 푸시킨과 무지개새의 색다르고 아름다운 모습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푸시킨과 무지개새는 몽몽이를 소개했습니다.  
“내 친구 몽몽이야. 이 친구 작품이지!”  
“아, 미용사세요?”  
“네? 미용사는 아니고요.”  
“우리도 예쁘게 염색해주세요!”  
푸시킨의 친구들은 한 줄로 쪽 길게 줄을 섰습니다.  
몽몽이는 머리를 굽적이며 쓱쓰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푸시킨의 친구들에게 몽몽이는 정성을 다해 각자에게 어울릴 만한 무늬를  
고심해서 아름답게 염색해주었습니다. 꽃모양, 달팽이 모양, 체크 무늬 등.  
모두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몽몽이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알록 달록 각양 각색으로 염색한 작은 새들이 하늘을 나는 모습은 하늘위의  
꽃밭 같았습니다.  
한 마리도 똑같은 모양과 색깔이 없었습니다.  
작은 숲 속에 몽몽이는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어느날 꼬마 고양이와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긴 꼬리 고양이 미용실인가요?”

“어? 아니. 미용실은 아니고……. 어쨌든 내가 긴 꼬리 고양이 몽몽이야.”

“와! 찾았다! 저도 검색해주세요!”

“음……. 넌 뭘 좋아하니?”

“공룡이요!”

“아…….공룡이라…….”

몽몽이는 고민 끝에 공룡 모양으로 털을 깎은 다음 진짜 공룡같이 검색을 했습니다. 꼬마 고양이는 꼬마 공룡 같아 보였습니다.

꼬마 고양이는 기뻐서 폴짝폴짝 뛰고 데굴데굴 구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몽몽님처럼 멋진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꼬마 고양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몽몽이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미용사? 내가? 어쨌든 고맙다”

숲 속 친구들은 '긴 꼬리 고양이 미용실'을 매일 찾아왔습니다.

새, 다람쥐, 거북이, 달팽이, 토끼 등 점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고맙다고 자신의 깃털이나 털이나 먹물거리들을 놓고 갔습니다.

몽몽이는 손님들이 가고 나서 저녁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날기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숲 속 친구들 중 누구도 몽몽이의 꿈이 하늘을 나는 것이란 걸 모르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그 꿈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깃털 한 바구니가 모였을 때 몽몽이는 날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토리 나무에 '오늘은 쉽니다'라고 써 붙이고 꼬박 일주일 동안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날개가 완성되는 날 숲 속 친구들은 모두 도토리 나무 아래로 모였습니다.

숲 속 친구들은 이제 모두 몽몽이가 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했습니다.

푸시킨은 숲 속 친구들 앞에서 시를 낭송했습니다.

‘낯선 서러움도 시린 외로움도 묵묵히 견뎌낸

혼자만의 꿈은

이제 모두의 꿈이 되었네.

그가 울면 함께 울며

그가 웃으면 함께 웃으리’

몽몽이는 친구들이 도토리 나뭇가지에 올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용감하게 뛰어내리며 열심히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모두 숨을 멈추고 몽몽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중에서 짧은 시간 퍼덕거리며 머물렀지만 역시나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푸시킨과 숲 속 친구들은 자기 일처럼 무척 안타까워 했습니다.

몽몽이는 땅바닥에 떨어진 그대로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도토리 나무 위로 올라가 조용히 길고 긴 잠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위로조차 건넬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푸시킨은 도토리 나무에 조용히 시를 썼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쓰고 싶어

아름다운 것을 찾아 헤매다 드디어 찾았네

그것은 그대의 소망, 좌절, 열망

그리고 어찌면 체념이었네’

## 7. 함께 이룬 꿈

낙엽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푸시킨과 친구들이 우루루 함께 몽몽이를 찾아왔습니다.

푸시킨은 곧 남쪽으로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널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작지만 꼭 받아줘.”

새들은 갑자기 줄을 서기 시작하더니 커다란 고양이 모양으로 대열을 이루었습니다.

“자 올라와”

몽몽이는 아무말 없이 벽차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푸시킨의 말대로 했습니다.

새들은 몽몽이를 태우고 파아란 하늘이 검붉은 노을이 질 때까지 휘이~ 돌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알록달록 아름다운 고양이 꽃이 수 놓아진 듯 했습니다.

“와 고양이가 난다”

숲 속 친구들은 하늘을 나는 몽몽이를 보고 함께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 8. 이별과 새로운 꿈의 씨앗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년에 다시 올게! 친구야”

“푸시킨, 너의 시가 그리울 거야!”

“그래! 긴 여행을 하며 본 세상을 멋진 시로 들려 줄게. 너도 함께 가면 좋을텐데…….”

“응, 언젠가는 나도 날아서 너와 함께 여행 갈거야“

“뭐? 너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야?”

“음……. 고양이는 날 수 없어…….”

“응…….”

“하지만 나 몽몽이는 날 수 있어!”

“뭐?”

“이제부터 큰 새를 훈련 시킬거야! 큰 새를 타고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멋진 미용사가 되는 게 나의 새로운 꿈이야! 꿈이 꼭

하나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 하하하”

그리고 보니 도토리 나무에 간판이 걸려있습니다.

‘무지개 냥이 미용실’

“오오오오~~!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

푸시킨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가슴을 치켜세우고 지난번 보다 더 현란한 날갯짓을 하며 시를 읊었습니다.

“가슴속에 심겨진 작은 씨앗!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날을 뜨겁게 꿈꾸었네.

혹독한 추위도 메마른 날들도 견디고

드디어 거친 땅을 뚫고 자라난 여린 새싹은

햇살과 바람과 해와 별의 응원 속에

아름다고 강한 꽃으로 피어났네.

별이 날아와

가슴속에 또 하나의 씨앗을 떨구고 가네.

아…….

그의 가슴은 또 다시

아름다운 꽃을 소망하네.

그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꽃을 피워낼지 우리는 알지 못하리.”

“푸시킨, 넌 이미 꿈을 이루었어. 넌 최고의 시인이야!”

“안 그래도 요즘 자나 깨나 미친 듯이 시상이 떠올라

너와 무지개 새 덕분이야.

시는……. 사랑이야”

푸시킨의 볼이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몽몽이는 머리를 굽적이며 푸시킨에게 어젯밤 써놓은 도토리 나뭇잎 편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비뚤뚤한 글씨로 짧은 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찾았네  
나의 꿈을 사랑해주는 친구를 만났네  
-푸시킨의 친구 몽몽-”

다음날 숲 속 신문에는 몽몽이 인터뷰 기사가 ‘(특종)긴 꼬리 고양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전 꿈을 이루었어요. 꿈을 꼭 혼자 이루란 법은 없잖아요! 이제 저는 친구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작은 새들 처럼요…….”

그리고 멋진 미용사가 되는 게 새로운 꿈이에요! 벌써 조수도 생긴걸요!”  
기사 밑에는 공룡처럼 생긴 꼬마 고양이 조수의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 입선



강원지방우정청  
이재우



## 수상소감

초등학교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편지들은 지금도 저의 서랍 속 보물 1호입니다. 이따금 꺼내어 읽다 보면 그 때 그 시절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보낼 때도, 받을 때도,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른 후에 다시 읽어볼 때도 행복을 주는 편지가 다른 통신수단들에 밀려 차츰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루, 서랍 속 편지를 찾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부족한 글이지만, 잊고 있던 편지와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글을 읽어주신 독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민무늬 편지의 이야기

나는 오늘 작디작은 소녀 한 명을 올렸다.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사실 내 잘못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소년의 손에 들려 소녀에게 전달되었을 뿐이었다.

나는 정말로 소녀가 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소녀가 나를 너무 많이 좋아하면 어찌지 하는 걱정까지 했었다. 나를 건네받은 소녀의 표정을 봤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소녀는 나를 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표정을 한 채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으니까.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나를 살펴보던 소녀는 차츰 어두운 표정을 짓더니, 급기야는 굵은 눈물을 푹푹 떨어뜨리고 말았다. 나는 영문도 모르는 채 그저 소녀가 흘리는 눈물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휴지통에 버려지나? 버려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아무래도 나는 소녀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같았다.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마침내 ‘딸각’하고 무엇인가를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질 줄 알았는데, 어쩐지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탁’하고 문이 닫히자, 예상했던 휴지통의 퀴퀴한 냄새 대신 달콤한 초콜릿 향기가 콧속으로 들어왔다.

“애들아, 봐봐. 신입이 왔어. 굉장히 오랜만인데?”

“그런데 재는 어째 생긴 게 영 단순하다?”

“그 흔한 줄무늬조차도 없네, 어쩐.”

슬며시 눈을 뜨자 주변에는 나와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웅성대고 있었다. 꽃무늬가 그려진 아이에서부터 반짝이가 달린 아이까지. 그에 비하면 나는 그 흔하다는 줄무늬 하나 없는, 볼품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팬스레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들은 한참을 이리저리 눈짓 신호를 교환하더니, 꽃무늬 아이 하나를 내 쪽으로 밀어 보냈다.

“야! 민무늬! 너는 누가 보낸 건지 좀 보자.”

꽃무늬가 대뜸 나를 ‘민무늬’라 부르며 말을 걸었다.

“오~ 꽃님이~ 용감해.”

“꽃님아, 보는 김에 뭐라고 써져 있는 녀석인지도 봐봐.”

꽃님이라고 불리는 아이는 친구들의 응원에 한층 의기양양해졌다.

“들었지? 재들도 다 궁금하다고 하잖아.”

꽃님은 나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내 주변을 빙빙 돌며 나를 요리조리 살피보기 시작했다.

“안녕? 다은아, 나는 주환이야. 우리 반 친구들은 다들 네가 싫다고 하는데, 나는 네가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그럼 안녕.”

꽃님은 그동안 내가 볼 수 없었던, 내 몸에 쓰인 글씨들을 큰 소리로 퐁박퐁박 읽었다. 나는 그제야 소녀가 나를 보고 왜 울음을 터뜨렸는지 알게 되었다.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렇게 쓸 거면 편지는 왜 썼대?”

“그러게 말이야. 주환이라는 애, 진짜 웃긴다.”

“야, 애 좀 봐. 몸에 눈물 자국이 있어.”

“와... 다은이가 재 보다가 울었나 보다.”

“불쌍해라. 그런데도 여기에 들여보내주다니, 다은이는 성격도 좋아.”

“나였으면 그냥 확 휴지통에 버렸을 거야.”

“으악, 그건 너무 잔인해.”

한 발짝 뒤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와 꽃님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어느

틈엔가 나를 에워싸고 한 마디씩 던져댔다.

“야! 민무늬!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 여긴 다은이의 ‘보물서랍’이야! 다은이가 아끼는 물건이랑 편지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맞아. 우리는 그 중에서도 다은이가 제일 아끼는 편지들이야. 다은이랑 가장 친한 가림이랑 동균이가 써준 편지들이거든.”

“다은이가 무슨 생각으로 너를 여기에 넣어준 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다은이를 울린 너랑 친하게 지낼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꽃님이와 그 친구들은 나에게 단단히 으름장을 놓더니, 한 쪽 구석으로 우르르 사라져 버렸다. 나는 순식간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다.

“성격들 하고는… 애, 민무늬 편지야, 괜찮나?”

반짝이는 분홍색 표지에 작은 금색 자물쇠가 달려 있는 두꺼운 공책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내 이름은 케티야, 다은이의 일기장이지.”

“응, 안녕? 나는 아직 이름이 없단다. 민무늬라고 불러도 돼.”

“그건 너무 딱딱한데… 민무늬 편지를 줄여서 ‘민지’라고 하는 건 어떨까?”

“참 예쁜 이름인걸! 고마워. 방금 전까지는 정말 우울했는데, 덕분에 기분이 좀 나아졌어.”

“들어보니 네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편지들이 너무 하더라.”

케티가 내 편을 들며 다독여 주자, 계속해서 참고 참았던 서러움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케티에게 안겨서 꺾꺾대며 울다가 잠이 들었다. 보물서랍에서의 첫째 날은 그렇게 저물었다.

둘째 날은 퉁퉁 부은 눈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케티는 나를 서랍 속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다은이의 보물서랍에는 케티와 편지들 이외에도 여러 친구들이 살고 있었다. 작은 구슬들로 엮은 팔찌, 소라 껍데기, 반짝이는 공깃돌, 인형 그림이 그려진 반지….

이곳의 친구들 사이에는 서열이 있는데, 다은이가 얼마나 아끼는 물건인지가 서열을 정하는 기준이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새 식구가 들어오면 회의를 거쳐 순위를 정한다고 했다.

“민지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회의를 열어 순위를 다시 정해보자.”

회의의 의장인 케티가 말을 하자, 다른 친구들이 볼멘소리로 외쳤다.

“케티야, 회의를 거칠 필요도 없이 민지가 꼴찌 아니겠니?”

“그래, 재 몸에 눈물 자국 좀 봐. 다은이가 재를 소중히 할 리가 없어.”

“혹시 다은이가 휴지통에 버리려다가 실수로 서랍에 넣은 거 아냐?”

나는 친구들의 가시 돋친 말들을 들으며 한없이 작아만 졌다.

‘다은이는 왜 나를 여기에 넣은 걸까? 어쩌면 정말 실수였는지도 몰라. 다시 나를 본다면 그 때는 틀림없이 휴지통에 버려 버릴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되도록 다은이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서랍 구석으로 꼭꼭 숨어들었다. 나는 언제 어떻게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친구들의 따가운 눈총에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내가 서랍에 들어온 후로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지나도 편지들은 여전히 나에게 곁을 주지 않았다. 우연히 마주쳐도 본 척 만 척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가기 일쑤였다. 다른 친구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들 내 몸의 눈물 자국 때문에 나를 꺼리는 듯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일기장 ‘케티’와 소라껍데기 ‘바다 소리’가 내 편이 되어준 것이었다. 케티는 다은이의 보물 1호인데도 전혀 잘난 척 하지 않고 나를 챙겨준 상냥한 친구였고, 바다 소리는 서열은 높지 않았지만 보물서랍에서 오랫동안 지내서 서랍 속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박식한 친구였다.

이 중 특히 케티에게는 다른 친구들에게는 없는 특별함이 있었다. 케티는 웬만해선 서랍 밖으로 나가기 힘든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씩은 바깥을 다녀왔다. 케티가 나갔다 들어올 때면 친구들은 너나할

것 없이 케티에게 물려들어 새롭게 쓰인 일기가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고 싶어 했다.

“미안해, 나도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도 다은이가 자물쇠를 단단히 잠가서 열 수가 없어.”

그럴 때마다 케티는 작은 자물쇠를 흔들어 보이며 난처한 미소를 지었다. 케티가 잠기지 않은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는 다른 친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바다 소리야, 케티가 자물쇠를 안 잠그고 오는 날이 있긴 해? 어차피 잠긴 채 올 게 뻔한데, 재들은 왜 매번 케티를 곤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질문을 받은 바다 소리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아주 가끔 다은이가 잠그는 걸 깜빡하는 날이 있기는 해. 백 번에 한 번 쯤은 되겠다.”

“그럼 뭐가 좋은데?”

“다은이에게 요새 무슨 일이 있는지, 다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지. 믿지 너도 다음 ‘자물쇠가 열린 날’을 잘 노려봐. 다은이가 여기에 널 넣어준 이유가 적혀 있을지도 모르니까.”

“치... 그게 언제가 될 줄 알고, 그보다 나는 네가 해주는 다은이의 얘기가 더 듣고 싶어.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들려줄래?”

“그래. 내가 저번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다은이가 작년 2학기 때 반장을 했었다고.”

“아, 맞다. 그럼 그 이후 얘기를 해줄게. 다은이는 올해 열 살이 됐어. 너도 봐서 알겠지만, 얘가 또래보다 많이 작고, 말랐어. 그래도 2학년 때는 반장을 할 정도였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제법 인기는 있었나봐.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올해 1월쯤엔가? 다은이네 아빠가 갑자기 이 도시로 발령을 받으신 거야. 어쩔 수 있나. 다은이도 따라와야지. 친구도 없이 이 낯선

곳에서 겨울방학을 혼자 보낸 걸 생각하면, 참 딱해. 방학 내내 한 일이라고는 예전 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가림이랑 동균이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것 밖에 없어. 이 때 편지들의 서열이 확 올랐지. 그 전까지는 나랑 비슷했는데, 지금은 케티랑 비슷할 정도니까 엄청 오른 거야. 그런데 갑자기 서열이 올라서 그런가? 애들이 좀 건방져진 것 같기도 해. 그 전까지는 참 순하고 착했는데... 뭐 이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다 봄이 되어서 다은이가 새 학교로 전학을 갔거든? 다은이가 이 때 새 친구들을 사귄 생각에 얼마나 들떴었는지 몰라. 그런데 웬걸. 여기 아이들은 다 유치원 때부터 동창이라지 뭐야. 다은이가 친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한데, 뭔가 알 수 없는 벽 같은 게 느껴지나 봐. 다 같이 놀다가도 어느 틈엔가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비밀 얘기를 하고 그런데. 다은이만 빼놓고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저번 '자물쇠가 열린 날'에 케티를 읽어보니까 자기도 친구들한테 편지를 받고 싶다고 쓰여 있더라. 일기 쓰다가 울었는지 눈물 자국도 얼룩덜룩 하고... 안됐어, 정말."

"가림이랑 동균이는 이제 편지를 안 보내는 거야?"

"봄이 되고부터는 편지가 뜬해지더니 지금은 아예 끊겼어.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을 사귀어서 다은이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

"아... 그래서 내가 왔을 때 오랜만에 신입이 왔다고 한 거구나."

"네가 온 게 지난 가을이니까, 거의 반 년 만에 새 편지를 받은 거지."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편지를 받았는데 막상이 모양이 풀이었으니 올만도 했네."

"자책하지 마. 그게 뭐 네 잘못인가."

"주환이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걸까."

다은이의 사연을 들은 나는 다은이가 나를 보고 얼마나 크게 실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바다 소리가 네 탓이 아니라고 위로를 해주었지만, 다은이가 울던 모습이 잔상으로 남아 계속 떠올랐고,

죄책감은 작은 가시가 되어 가슴 속에 박혔다.

이 날 이후로 나는 점점 더 서랍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그동안은 다은이에게 버려질까봐 무서워서 몸을 숨겼었다면, 다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는 다은이를 볼 면목이 없어서 몸을 피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고 있었다. 살짝 열린 서랍 틈으로 창문 밖이 보였다. 밖에는 눈이 소록소록 내리고 있었다.

“와, 눈이다!”

서랍 밖에서 다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은이는 오랜만에 내리는 눈을 보고 무척이나 들떠있었다.

“신난다! 일기장에 오늘 눈이 왔다고 써놔야겠다.”

다은이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서랍을 열더니 케티를 데리고 갔다. 저녁 무렵에 다은이의 손에 들려서 나갔던 케티는 한밤중이 돼서야 돌아왔다. 언제나처럼 서랍 속 친구들은 케티의 옆으로 모여 들었다.

‘또 시작이네. 어차피 잠겨 있을 텐데.’

나는 시큰둥하게 아이들을 쳐다보다가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웠다. 그때였다.

“민지야! 민지야! 얼른 이리 와봐! 자물쇠가 열려 있어!”

바다 소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케티에게로 달려갔다. 케티의 주변은 이미 다른 친구들로 꽉 차 있었다. 그동안 궁금한 게 많았던 아이들은 케티에게 달려붙어서 페이지를 이리저리 넘겨가며 일기를 읽고 있었다.

“얘들아, 잠깐만. 미안하지만 민지가 온 날 일기부터 좀 보자.”

바다 소리가 나를 대신해서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봐봤자 달라지는 게 있겠어? 어차피 이상한 편지를 받아서 속상하다는 얘기뿐일 텐데.”

편지 무리 속에서 누군가가 나더러 들으라는 듯 뾰족이 날이 선 목소리로 종알거렸다. 바다 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끌어 나를 케티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덜 떨고만 있었다.

“민지야, 겁먹지 말고 잘 봐봐.”

바다 소리가 사시나무 떨 듯 떨리는 내 손을 꼭 잡아 주었다. 고개를 드니 그곳엔 걱정스레 나를 바라보는 케티의 눈동자가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케티는 다소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나는 크게 한 번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눈앞에 내가 온 날의 기록이 펼쳐졌다.

“10월 29일. 날씨 맑음. 나는 오늘 주환이에게 편지를 받았다. 그동안 주환이랑 예지랑 태민이가 나 몰래 지들끼리만 편지를 주고받는 걸 보고 속상하고 부러웠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그런데 집에 와서 편지를 보고 다시 속상해졌다. 반 친구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니... 주환이는 내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다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좋다는 말을 앞에 썼으니까 좋을 때가 더 많다는 거겠지? 속상하긴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받은 편지라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상한 기분이다. 서랍에 잘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주환이랑 더 친해지면 물어봐야겠다.”

옆에서 바다 소리가 다른 친구들도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일기를 읽어주었다.

“애들아, 들었지? 너네 그동안 민지가 다은이를 울게 했다고 은근히 따돌리고, 실수로 들어온 거 아니냐고 수군거리고 그랬지? 민지는 실수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다은이가 서랍에 넣어준 거야. 민지는 다은이를 속상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기쁘게 만들기도 한 소중한 편지라고! 이제 다시는 민지 무시하지 마!”

바다 소리가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친구들을 바라보며 외쳤다. 친구들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일기 내용에 어안이 병병해져 있었다. 나 역시 어리둥절하여 잠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민지야,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걱정 말고 두 다리 뻗고 자.”

옆에서 바다 소리가 조그맣게 속삭이며 내 등을 도닥여주었다. 바다 소리의 말에 정신이 든 나는 그만 주르륵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궁금함과 불안함, 서러움들이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렸다. 나는 비로소 ‘보물서랍’의 진정한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자물쇠가 열린 날’ 이후에도 내 서열에 변화는 없었다. 케티와 바다 소리까지 회의 때 몇 번이나 건의했지만, 항상 결과는 ‘그래도 꼴찌는 민지’였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건 아무래도 괜찮았다.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둘이나 있고, 불안함과 죄책감을 내려놓은 흥가분한 마음으로 서랍 속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쌀쌀맞던 친구들도 어느 정도 누그러진 태도로 나를 대했는데, 오다가다 만나면 짧게나마 인사를 나눌 정도는 되었으니 이만하면 장족의 발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 없이 다은이가 하루빨리 친구들과 가까워져서 행복해지기만을 빌고 또 빌었다.

서랍 속으로 들어오던 칼바람이 간질간질한 봄바람으로 바뀔 무렵, 오랜만에 새 식구가 들어왔다. 벚꽃 잎을 말려서 코팅한 예쁜 책갈피였다. 책갈피는 화사한 봄만큼이나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다. 그 아이는 스스로를 ‘소년이 만들어서 소녀에게 준 선물’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건네주던 소년도, 건네받은 소녀도 두 뺨이 진달래처럼 물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들은 나와 서랍 속 친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다은이에게도 천천히 봄이 오고 있었다.

책갈피를 필두로 하여 새 친구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그 중에는 다은이가 그토록 바랐던 편지들도 있었다. 주환이, 예지, 태민이가 써준 편지에는 ‘수업이 지루하다. 오늘은 학원에 가기 싫다.’같은 시시콜콜한 얘기 밖에 없었지만, 서랍을 열고 편지를 넣는 다은이의 얼굴은 항상 빛나고 있었다.

여름방학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다은이는 방학 맞이 대청소를 시작했다. 서랍 속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서랍의 칸을 나누어 편지는 편지끼리, 액세서리는 액세서리끼리 묶어서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평소 편지들과 떨어져 지내던 나는 다은이의 눈에 쉽게 떨 수밖에 없었다.

“이 편지는 왜 한 장만 따로 떨어져 있지?”

다은이는 고개를 가우똥거리리며 나를 번쩍 들어올렸다.

“안녕? 다은아, 나는 주환이야……? 맙소사, 이게 뭐야. 하하하.”

나를 읽어본 다은이는 한참을 깔깔대며 웃더니, 나를 다시 곱게 접어 책가방 속으로 집어넣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가방 안에 넣어진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만 껌뻍껌뻍하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친구네. 안녕? 나는 필통이야.”

“어? 아… 안녕?”

“너는 누구에게 가는 편지니?”

“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다은이가 예전에 주환이에게 받았던 편지야.”

“그래? 받았던 편지를 왜 가방에 넣어 학교에 가져가지?”

“그러게 말이야. 나도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뭘, 내일 학교에 가보면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필통은 나를 안심시켜 주려고 했지만, 나는 걱정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길었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다은이는 내가 들어있는 가방을 매고 학교로 향했다.

“야, 김주환! 나 좀 보자.”

“다은이~ 안녕? 무슨 일이야?”

“너 3학년 때 나한테 왜 그랬냐?”

“아침부터 무슨 말씀이신지?”

“너가 나한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다며.”

“뭘? 내가 언제?”

“이거 봐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었는데 기억도 못하고 너무하네.”

다은이는 비죽비죽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애써 화가 난 표정을 짓더니 나를 주환이에게 건네주었다.

“이 편지가 내가 쓴 거라고? 나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증거가 딱하니 있는데 어디서 발뺨이야. 됐고, 진짜 반 애들이 다 나를 싫다고 했었어?”

“너 전학 오고 잠깐 그랬지. 서울에서 왔다고 잘난 척 하는 것 같다고.”

“지금은 아니지?”

“당연하지. 너 지금은 반에서 완전 인기 많잖아.”

“여기 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다는 건 무슨 의미야?”

“어... 이진 진짜 모르겠다. 이 때 내가 왜 그랬지.”

주환이는 땀까지 뻘뻘 흘리며 다은이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다.

“어휴, 됐다, 됐어. 야, 이 편지는 다시 너한테 돌려줄게. 잘 간직해.”

“이걸 왜 나한테 주냐?”

“보고 반성 좀 하라고. 너, 예지랑 태민이한테도 이를 거야.”

여기까지 말을 마친 다은이는 ‘메롱’하며 헛바닥을 쏙 내밀더니 저만치 서 있는 친구들에게로 뛰어갔다.

“다은아, 야~ 좀 봐줘. 내가 잘못 했어~”

나를 손에 든 주환이가 다은이를 쫓아가며 외쳤다. 바람에 펄럭이는 내 몸 위로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졌다.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바람결에 실려 오는 다은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주환이의 서랍 속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케티나 바다 소리 같은 좋은 아이들이면 좋겠다고 나직이 증명거렸다.

# 입선

관세청 김해공항세관  
이 수 진



## 수상소감

미흡한 작품임에도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지만,  
정말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가지다가 크게 꾸고 있는 제 꿈에 날개를 달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소중한 결과가 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은 음악회

“동수야! 같이 가!”

지훈이는 교문을 나서는 동수를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동수야, 우리 저~기 공원에 안 가볼래? 거기 며칠 전부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는데, 볼만하데.”

“나 바빠, 오늘 엄마가 학습지 선생님 오신다고 마치자마자 바로 오라했던 말이야.”

“에이~ 그러지 말고 잠시만 갔다가 가자. 잠시만 보면 되잖아. 애들도 다들 그리로 몰려갔단 말이야.”

“안된다니까!”

동수는 지훈이의 팔을 뿌리치고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야! 김동수!”

“다녀왔습니다.”

“어, 동수 왔니? 손부터 씻어. 곧 선생님 오실거야.”

“엄마...”

“왜?”

“... 아니에요.”

동수는 자기 방으로 가서 가방을 벗고는 한참을 서서 침대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동수의 손에 늘 들려져 아름다운 소리를 내던 바이올린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동수는 다섯 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동수는 바이올린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했고, 그 시간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3학년이 되고난 후 영어 성적이 늘 좋지 않자, 엄마는 이제부터 바이올린을 그만 두고, 영어학습지를 하나 더 하자고 하셨습니다. 동수는 바이올린을 계속 연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바이올린 보다는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며 엄하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수야, 뭐하니? 선생님 오셨어.”

“네... 나가요...”

“동수야! 나 어제 그 할아버지 봤는데, 완~전 드러워. 너 안 가보길 잘했어.”

“더럽다고?”

“어. 얼마나 오래 안 씻었는지, 옷도 완전 더럽고, 머리카락도 허리까지 내려와. 수염도 엄청 길어. 그런데도 하모니카를 분다? 완전 옷겨. 낄낄낄.”

“하모니카를 분다고?”

“응. 하모니카는 뭐... 들어줄 만은 하던데, 아무튼 넌 절대 가지마. 눈 버려.”

동수는 하모니카라는 말에 엄마가 없애 버리신 바이올린이 생각나서 잠시 지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동수는 자기도 모르게 공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 길도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까 하다가 그냥 그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삐비비비~~~삐비삐비비~~~”

공원에 다다르자 어렴풋이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동수는 걸음을

빠르게 하여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지훈이가 설명해 주었던 모습의 할아버지 한 분이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아이들이 킁킁 거리며 놀리듯 모여 들어 있었고, 벤치에는 그 연주를 듣는 건지 그냥 계신 건지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동수의 눈에는 할아버지가 옆에 세워둔 나무판에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같이 연주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동수는 할아버지의 연주를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날까봐 망설였지만, 생각한 것과는 달리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동수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던 클래식을 연주하시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동요를 연주하시기도 하고, 또 어른들을 위해서인지 성인가요를 연주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동수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마냥 서 있었습니다.

어느덧, 주변은 어둑어둑해 졌고, 공원에는 할아버지와 동수,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주를 멈추셨습니다. 그제 서야 동수는 정신을 아차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치고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모임에 가야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주를 더 하고는 싶지만 배속에서 밥을 달라네. 어찌지?”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동수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가 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동수는 대답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벌써 여섯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동수는 혼이 날까봐 선뜻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수야, 안 들어가고 뭐해?”

“어... 엄마...”

시장에 다녀오시는 길이신지 손에는 장바구니를 든 엄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셨습니다.

“왜? 문이 안 열려?”

“아, 아니에요.”

동수는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잘 다녀왔어?”

“... 네...”

“얼른 씻어. 배고프지? 오늘 엄마가 우리 동수 좋아하는 불고기 반찬 만들어 줄게.”

엄마는 동수를 향해 웃으셨지만 동수는 그런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수는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돼...’

다음 날, 다시 하교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수는 교문을 나서며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어젯밤 동수는 할아버지의 하모니카 연주를 계속 듣고 싶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수는 태권도장에 가야하는 발걸음을 공원으로 향하게 하고 싶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더... 아니야! 어제 다짐했잖아, 이제 안 그런다고... 아니... 오늘 딱 하루만...’

“삐비비... 삐비비비비...”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할아버지의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동수는 깜짝 놀라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경로당 앞 조그마한 공터에서 연주를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제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발도 하였고, 면도도 하셔서 아주 깔끔한 모습이셨고, 옷도 멋지게 차려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지, 놀리기 위해 모여든 아이들 대신, 연주를 듣기 위해 모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몇몇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마저도 얌전히 앉아 그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주 파트너를 찾는다고 붙어 있던 입간판에는 대신 “작은 음악회”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또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연주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연주하시던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연주회를 허락해 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보잘 것 없는 실력이지만 이렇게 또 모여서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실은 제가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파트너를 구해서 합주도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애석하게도 파트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뒤에 있는 큰 박스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 플룻하나와 바이올린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합주를 해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순간, 공터는 쥐 죽은 듯 조용해 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그럴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을 살피느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

조용한 공터에 들린 조그마한 목소리는 다름 아닌 동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아! 넌 어제 그... 하하하 마지막까지 내 연주를 들어준 고마운 친구구나.

그래, 나와 합주를 해 줄 수 있겠니?”

모여든 시선이 부담이 된 동수는 순간, 후회를 했지만, 자신을 알아보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네! 바이올린을 켤 줄 알아요.”

“좋아! 이리로 나와 주겠니? 여러분, 모두 이 용감한 어린 연주자를 위해 박수 좀 보내 주세요.”

그 때까지 할아버지와 동수를 번갈아 쳐다보던 사람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저는 명랑초등학교 3학년 2반, 김동수입니다.”

동수의 씩씩한 자기소개에 사람들은 또 한 번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와 동수는 함께 따뜻한 이 봄날에 어울리는 ‘고향의 봄’을 연주하였습니다.

멋진 연주가 끝이 나자 공터에는 큰 박수와 함성이 쏟아 졌습니다. 동수는 벽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트려 버렸습니다.

동수가 영영 소리를 내어 울어대자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과 할아버지는 잠시 조용히 동수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회가 끝이 나고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동수라고 했지? 오늘 멋진 연주, 너무 고마웠다.”

할아버지는 동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동수는 소리 내어 온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멋진 연주를 해 준 대가로 할아버지가 맛있는 김밥을 좀 줄까?”

동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도 듣지 않으시고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수의

손을 잡고 벤치에 나란히 앉으셨습니다. 도시락을 여신 할아버지는 동수에게 젓가락도 건네셨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먹음직스러운 김밥이 가득 담겨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김밥 하나를 집으시고는 동수에게 내미셨습니다.

“자, 아~ 해봐라. 이 할아버지가 김밥 하나는 끝내주게 찐단다.”

동수는 김밥을 받아먹었습니다. 맛있는 냄새처럼 정말 맛있는 김밥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배우니?”

“... 배웠었어요...”

“그럼, 지금은 안 배우니?”

“... 네...”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동수를 쳐다보시기만 하셨습니다.

“바이올린을 계속 켜고 싶은데 못 켜게 되었구나?”

동수는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표정을 보니 알겠단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행복해 하던 네 표정과, 지금의 슬퍼하는 네 표정을 보니... 할아버지는 딱 알겠구나.”

“... 엄마가... 영어 공부가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하셔서...”

동수는 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수건을 꺼내셔서 동수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수야,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이란단다. 동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거야. 비록 지금은 마음 놓고 바이올린을 연주 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동수의 바이올린에 대한 사랑을 자신 있게 부모님께 보여 드린다면 부모님도 분명 동수의 마음과 꿈을 알아주실 거야. 당장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만 하고 있으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은 동수의

꿈도 함께 슬퍼하지 않겠니?”

동수는 울음을 그치고 할아버지의 온화하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동수의 연주는 너무 훌륭했다. 실력이 뛰어난지는 난 몰라. 난 바이올린을 켤 줄 모르거든. 하지만 바이올린을 사랑하는 동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전해지는, 너무나도 훌륭한 연주였어. 자, 이걸 받아라.”

할아버지는 낡은 카메라를 건네셨습니다.

“카메라네요?”

“그래. 이 카메라에는 오늘 너의 연주가 담겨 있단다. 이걸 가지고 돌아가거라. 대신, 필요할 때 이걸 사용하고, 꼭 돌려 줘야 한다. 난 어제 그 공원에 늘 있을 테니까.”

“... 할아버지...”

동수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씩씩하게 집으로 향하는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몇 걸음 걸어가던 동수는 뒤를 돌아보며 할아버지를 향해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늘 최고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발이랑 면도 꼭 하세요. 정말 멋지세요.”

그리고는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하얀 이를 드러내시며 웃어 보이셨습니다.

동수는 집 앞에서 또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동수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에 불끈 쥐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니?! 동수니?!”

예상대로 화가 많이 난 엄마가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김동수! 너 어디 갔다 오는 거니?! 도장에서 전화 왔었어, 너 안 왔다고! 어제 도서관도 안 갔었다며?!”

동수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니, 애가?!”

“엄마, 제가 다 잘못 했어요. 나중에 아빠 오시면 모두 다 말씀 드릴게요.”

엄마는 동수의 행동에 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 좋아. 대신 아빠 오실 때까지 네 방에서 꼼짝도 하지 마!”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시고, 거실에는 세 식구가 모였습니다.

“아빠, 엄마. 우선 이걸 한 번만 봐주세요.”

동수는 카메라에 담긴 자신과 할아버지의 합주 동영상을 틀어 부모님께 보여 드렸습니다. 말없이 영상을 보시던 부모님은 연주가 끝이 나자 카메라에서 눈을 떼시고 자리에 바로 앉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꺼내신 건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무대에서 연주하니 멋진데?”

하시고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바짝 긴장을 하여 굳어 있던 동수는 아빠의 따뜻한 반응에 얼굴이 환해 졌습니다.

“여보! 무대는 무슨 무대예요! 동수! 도서관도 안 가고, 도장에도 안 가고,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한 것이 다 바이올린 때문이니?!”

밝아졌던 동수의 얼굴이 다시 굳어지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에...”

“어허...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수 바이올린 연주하는 모습이 꼭 내 젊은 시절 모습 같다고 좋아하더니...”

“흠흠.. 아니 영어가...”

“엄마! 저 이번 시험에 영어 성적 목표점수 꼭 받아 올게요. 그럼 저 바이올린 다시 쉼 수 있게 해주세요. 대신, 학원 안 다니고 주말에만 연습할게요. 그리고...”

만약... 만약에 말이예요... 제 연주를 들으시고 제가 바이올린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빠 엄마에게 전해지면요, 저 바이올린 레슨 다시 받게 해주세요!”

눈을 크게 뜨고 주먹을 불끈 쥐고 또박또박 이야기 하는 동수의 말에 부모님은 놀라신 눈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시더니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 좋아! 대신, 목표점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알지?!”

엄마는 낯설지만 용기있는 동수의 모습에 차마 바이올린 금지라는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듯 했다.

“야호! 엄마 만세! 아빠 만세! 만세! 만세!”

동수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덩달아 아빠와 엄마도 웃으셨습니다.

“아빠, 엄마! 나 영어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동수야! 밥 먹어야지!”

“아차! 빨리 밥 먹어요, 어서요.”

“아이고 이 녀석, 그렇게 기쁘냐?”

“네!”

아빠는 동수의 볼을 살짝 꼬집으시며 같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주방으로 가신 후, 살짝 동수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나저나, 너 아까 말 잘하더라. 누가 가르쳐 줬니?”

“음... 비밀이에요.”

동수는 웃기만 하고 카메라를 집어서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 모습을 보시고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끝.

# 희곡



## ✎ 심사평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인생을 돌아보며 이를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해지게 된다. 문학은 '사람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아 성찰로,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문학에 대한 열정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작년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희곡 작품 수는 공무원문예대전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무척 반가운 일이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은 가족사, 사회 경제적 현상, 역사 의식 등을 비판적 시각에서 고루 다루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소외, 가족의 슬픔과 화해, 빈부격차와 각종 사회문제 비판, 소외된 역사 다시보기 등 다양한 주제 의식이 나타난 건 응모작들의 양적 증가만이 아닌 질적 향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희곡 장르의 독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작품이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희곡은 대사와 지문을 통해 작가의 의도가 전달되어야 하는 장르로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시의 언어처럼 은근하면서도 소설의 주제처럼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보편적 질문의 답을 가장 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희곡과 시나리오의 특성을 혼돈하거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모호하고 인물간의 극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끝이 좋으면 모두 좋다는 식의 하하호호식 결말 등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

금상으로 선정된 <집 보러 가도 될까요?>는 임신한 주인공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과거 자신을 버린 엄마를 만나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과거의 아픔과 화해하고 미래의 행복도 꿈꾼다는 내용이다. 희곡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면서 극적 암시와 반전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잘 드러냈다.

동상으로 선정된 <내 일이 찾아오면>은 정규직 전환을 꿈꾸는 주인공이 수년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노동조합 결성으로 해직돼 복직투쟁 중인 취객, 현재를 만족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하고자 하는 약혼자를 만나 손에 닿지 않은 신기루 같은 행복이 아닌 지금 현재의 행복을 쌓아가야 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결말에 보여지는 희망의 논리는 부족하지만 본선에 두 편의 작품이 선정된, 기본기가 탄탄한 작가의 작품이었다.

희곡은 오십의 나이에야 비로소 쓸 수 있다는 말은 희곡이 인생의 의미를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가의 뜻일 것이다. 희곡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길 바란다.

심사위원 : 채새미, 오태영



# 희곡

**금상** 집 보러 가도 될까요? \_ 헌법재판소 정은숙

**동상** 내 일이 찾아오면 \_ 광주지방교정청 김현중

**특선** 어느 날 우연히, 찜질방 \_ 전북 완주군 정선옥

**입선** 지옥고 \_ 전남 순천인안초등학교 선종수

# 금상



헌법재판소  
정은숙



## 수상소감

삶의 매 순간, 극적인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이며, '만약 당선을 하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미묘한 감정들로 충만하게 됩니다. 글에 정답은 없다고들 하지만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답을 맞힌 듯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집을 보러 갔다가 '만약'이라는 액자 속에 이야기를 그려본 것으로, 누구나 좌절하고 힘든 때가 있지만 희망과 위로가 되는 시간은 분명 존재하고 곧 만난다는 진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롯이 '내 글'을 쓸 수 있어서 행복했고, 행복을 꿈꾸고 찾아가는 과정들이 즐거웠습니다. 제 글이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늘 곁에서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내편인 남편, 세상을 보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어머니와 아버지, 믿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어머니·아버님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 보러 가도 될까요?

## 등장인물

희진(여, 55세, 집주인)  
소미(여, 35세, 집보러 온 여자)  
찬희(여, 50세, 공인중개사 사장)  
남편(남, 57세, 집주인 남편)

## 무대

서울의 한 중산층 고층집.  
무대 위 집 내부 보이고  
무대 집 가운데 안쪽에 출입문이 있고 문을 열면 바로 집과 이어지는 구조.  
무대 왼쪽에는 침실로 침대가 놓여있고  
무대 가운데 관객을 향해 소파가 놓여있다. 집안 곳곳에 가족사진이 있다.  
무대 오른쪽에는 부엌으로 식탁이 놓여 있고 선반에 그릇이 진열돼 있다.  
베란다는 관객석 쪽으로 나있는 구조

## [제1장]

암전 상태에서 들려오는 소미의 전화 목소리.

소미목소리 집 보러가도 될까요?

네, 금성동 다이아몬드 708동 3419호.

방은 3개 맞죠? 남향인가요? 베란다는 확장형인가요?

그럼, 지금 집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집 꼭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초인종 소리 들리면 무대 불이 켜지고

소파에 앉아있던 희진이 문을 연다

문을 열고 들어온 찬희와 소미

찬희 (호들갑스럽게)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희 집보러 왔어요~

희진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소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찬희 처음? 당연히 처음 뵙죠. 두 번 째일까봐~ 오호호~ 우리 젊은 사모  
님이 예의가 있네~ 오호호호~

희진 어? 낯이 익은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소미 아뇨. 처음 뵙니다만... 아무튼 반갑습니다.

희진 반갑...? 네, 저도 반갑네요. 어려 보이시는데 신혼집 보시는 건가  
요?

소미 네. 신혼집..

희진 그런데 혼자 집보러 오신 건가요?

소미 네. 남편이 없는...

희진 네? 뭐라고요?

소미 남편이 없... 지금 출장 중이라...

찬희 아유~ 사모님도 참, 요즘은 남편이 무슨 상관있어요~ 아내들이 보  
고 집이 마음에 들어야지. 안그래요?

희진 그렇군요. 우선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소미, 집 안으로 더 들어오며  
이리저리 둘러본다.

- 찬희        어머~ 거실 넓은 것 봐!  
              까~악! 저 TV는 스크린이네~ 거기에 소파는 이거 리클라이너죠?  
              정말 편한 소파~ 이거 비싼데 말야. 리모콘을 누르면 뒤로 넘어가  
              ~이것 봐~ 다리가 올려지고~
- 희진        이걸 아이 있으면 수유할 때 좋아요. 그래서 샀어요. 새댁도 나중  
              에 애 낳을 때 쓰세요~
- 찬희        한 번 앉아 봐도 되나요?
- 희진        네, 뭐 그러세요.

소파에 앉아서 리모콘으로 소파를 조정하는 찬희  
앉았다가 누웠다가 다시 일어선다.

- 찬희        어머 어머~ 집 좋죠? 예쁘죠? 오길 잘 했죠?
- 소미        네, 그렇네요.
- 찬희        이 집이 방송에도 한 번 나왔잖아요~ 그 때 집이 엄청 깔끔하고 예  
              쁘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이 집 내놓으면 연락 달라고 눈독 들이  
              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젊은 사모님이 가장 먼저 연락을 주  
              셨지 뭐야~ 오호호호~
- 희진        훗, 과찬이세요. 남들 사는데로 사는걸요.
- 찬희        과찬은요~ 젊은 사모님도 좋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안찬희 여사와 함께 하는 금성동 다이아몬드 708동  
              3419호 브리핑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  
              다! 잠시 앉아주세요~ 박수~

소미와 희진,  
소파에 앉아 떨떠름하게 박수 친다.

찬희      우선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뒤로는 공기 좋은 산이 있고, 그 옆으로는 넓은 공원이... 집 앞으로는 5분 거리에 지하철이 딱! 있는 요새로, 중심변화가까지는 불과 20분 내외로 주파할 수 있는 곳이죠! 맞죠? 사모님?

희진      네, 중심가가 가깝죠.

찬희      게다가 고급 브랜드 건물로 지어진 지 5년 갓 넘어서 새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맞죠? 사모님?

희진      네, 저희가 깨끗하게 사용했어요.

찬희      방은 3개고, 남향에 베란다는 확장형. 도시가스 사용에 관리비는 한 얼마 정도 나오죠? 사모님?

희진      네, 뒤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요.

찬희      공기정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시스템이라 미세먼지 걱정할 필요 없고 맞죠? 사모님?

희진      네, 그런 것 같네요.

찬희      수납공간이 여기저기 사방팔방 있어서 집이 지저분해질 걱정 필요 없고~ 맞죠? 사모님?

희진      네, 수납공간이 넉넉한 편이에요.

찬희      불박이장, 중문~ 이거 없는 집 많은데, 여긴 있어요! 맞죠? 사모님?

희진      네, 이건 저희가 따로 했어요.

찬희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단열이 잘되어 있어서 난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햇빛이 거실 이만큼까지 들어와서 겨울에도 훈훈해서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떨까요? 맞죠?

사모님?

희진 네, 그런 것 같아요.

찬희 게다가~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에는 베란다 쪽 문과 뒤쪽 문을 열어놓으면 맞바람 쳐서 북극 저리가라~ 라고 할 정도라는 데, 맞죠? 사모님?

희진 네, 여름에도 시원해요. 하하하~

소미 집을 안살 수 없겠는걸요?

지하철 요새에, 공기 좋은 산과 공원,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상 건물에 방3개, 남향, 확장형 거실에 저렴한 관리비, 수납넉넉하고 붙박이장, 중문까지 옵션 두둑~하고 단열이 잘되어 있어서 겨울 훈훈하고, 맞바람 쳐서 여름 시원하다는 말이죠?

찬희 젊은 처자가 푹푹하구먼!

거기에 삶의 질 높은 분들과 함께 고상하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맞죠? 사모님?

희진 하하하~ 그런가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찬희 이상으로 안찬희 여사와 함께한 금성동 다이아몬드 708동 3419호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미와 희진 박수 치고

소미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친절하 답변 감사드립니다.

희진 설명 잘하시네요. 저라도 혹하겠어요.

찬희 오호호~ 과찬의 말씀!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백문이 불여일견! 사모님, 집을 어디부터 볼까요?

소파에서 희진 일어나고

뒤따라 소미 일어난다

희진        거실 쪽 창밖 경치부터 보세요.

찬희        우리 사모님이 설명 잘 해주실 모양인가보네요~ 오호호호~

베란다(관객석) 쪽으로 가서

멀리 내다보는 희진, 소미, 찬희

희진        경치 어때요?

소미        아~ 좋네요.

희진        앞 동이 눈에 걸리지 않아서 옷을 편하게 입어도 되고, 자유로워요.

찬희        아이고~ 좋은데 진짜 높긴 하네요. 저기 사람이 개미만하게 보이  
네요. 오매오매~ 그리고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이네요. 오호호  
호~ 놀라니까 사투리 나오는 것 봐.

희진        그런가요? 살다보니 무감해졌나 봐요.

여기가 34층이라 모든 게 내 발아래 있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때  
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뿌듯하기도 한 그런 오묘한 느낌도 함  
께요.

소미        그런데 너무 높아서 바람에 휘청거리지는 않나요?

희진        그럴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바람이 시원할 때도 있어요. 지난 일  
들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싶을 때, 그 바람 맞으면 다 씻겨나가는  
기분이거든요.

또 어떤 때는 한 없이 우울할 때 따뜻한 바람이 내 몸을 감싸면서  
절 다독일 때도 있어요. 이런 매력 때문에 제가 여기 오래 살았나  
봐요. 문 한 번 열어볼까요?

## 문을 여는 희진

- 희진 (두 팔을 펼치고) 문을 열어 놓고 이 바람 한 번 맞아보세요.  
뿔속까지 깊이 후련할 거예요.
- 소미 뭐, 그렇게까지는 안해도....
- 찬희 (희진을 따라 두 팔 펼치고) 어머니~ 바람 맛 한 번 좋네요~ 오호호  
호~

## 소심하게 두 팔을 펼치는 소미

- 찬희 안한다고 하더니, 하나까 좋죠? 오호호~

## 소심하게 두 팔을 내리는 소미 어슬렁거리며 집안 곳곳에 있는 사진본다.

- 소미 저기 사진, 가족사진인거죠?  
엄마... 아빠... 가족사진!
- 희진 네, 가족.. 사진.
- 찬희 자식이 없으신가 봐요?
- 희진 네.
- 찬희 아유~ 속편하고 좋지 뭘 그래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어요.
- 희진 글썽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저는 아이를 안 갖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버렸... 잃어버렸거든요. 그 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이를 볼 때마다

그 때 악몽이 떠올라서 아이에 대해 거부반응까지 보였었는데..  
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훗...  
아무튼, 지금 만난 남편이 저를 많이 잡아주고, 다독여주고 물심양  
면 도와줬죠.

소미 아...!

찬희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 소파에 앉는 희진

희진 그런데 여기.. 새댁.. 아니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하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소미 소미요. 정소미.

희진 소미?

소미 옛날에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래요. 소미. 거꾸로 하면 미소. 언제  
나 웃음을 잃지 말라고 지어줬대요.

찬희 옛날에? 그럼 지금은 엄마가 없어요?

소미 아... 있어요. 있어요.

희진 소미... 씨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소미 저는... 음.. 1년 전? 뭐 딱히 결혼..

찬희 그럼 아이는 있어요?

소미 (배를 만지며) 지금 5개월째입니다.

희진 전혀 몰랐어요. 여기 소파에 좀 앉아요.

### 소파에 앉는 소미

소미 옆에 앉는 찬희

희진 태명은 뭐예요?  
소미 튼튼이요.  
희진 귀엽네요. 튼튼이.  
소미 튼튼하게만 자라달라는 마음에...

#### 소미 배를 만지는 희진

희진 튼튼아~ 엄마 아프게 하지 말고  
엄마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소미 어머나! 튼튼이가 알아듣나 봐요. 신호를 보내요.

#### 소미 배를 만지는 찬희

찬희 그래? 어디어디~ 꺾간해도 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다니까~  
안 그래요?  
희진 네, 그러네요.  
찬희 그런데 애 아빠나 부모님과 같이 오지~ 집 보러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소미 괜찮아요... 집 보는거 좋아해서요. 그리고 꼭 보고 싶었거든요.  
이 집..  
희진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찬희 근데 어쩌면 이렇게 티가 안 날까~  
소미 배가 별로 안 불렀죠?  
찬희 이런 배 모양은 100% 딸입니다. 내가 이런 건 점쟁이지! 태몽은  
뭐래요?

소미 호랑이 한 마리가 제 품 속으로 들어왔어요.

찬희 아들이네. 아들이야. 호랑이 꿈은 100% 아들이네요. 내가 이런 건 점쟁이지!

희진 하하~ 아까는 딸이라더니...

찬희 병원에서는 공주님이래요? 왕자님이래요?

소미 법적으로 27주 지나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아직 몰라요. 저는 딸이건 아들이건 상관없어요. 잘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싶어요.

찬희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작정 애 낳아서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책임지지 못하는데 왜 낳은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건지, 내가 답답해~ 한 쪽에서는 난임으로 힘들어하면서 아이 가지려고 몇 천만 원 들여서 고생하는데, 또 한 쪽에서는 원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을 아이를 무작정 버리는 세상이니 원. 안 그래요?

짧은 정적.

찬희 아니~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안 그래요?

소미 저는 잘 낳아서 잘 기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찬희 아니 내말은~ 뭐 그렇다는 거죠. 오호호~

짧은 정적.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미

소미        이제 그만 다른 곳 볼까요?  
희진        그럼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찬희        얼른 보러 갑시다!

암전

## [제2장]

무대 오른쪽 부역으로 이동  
부역 불 켜지고

희진        여기는 부역인데요. 별게 없네요.

부역 이곳저곳 둘러보는 찬희

소미        와~ 너무 멋져요!

찬희        여기는 최첨단 부역이네요. 인공지능 냉장고하며~ 안녕! 인공지능은 인사하면 받아주나요? 오호호~  
최고급 인덕션에, 이걸 유해가스가 없다면서요?  
둘이 뭐야, 셋이 함께 써도 넉넉한 넓은 작업대랑 개수대에 통담하나는 들어갈 만큼 큼직~한 오븐하며, 칙칙푹푹 밥맛 좋은 전기밥솥과 꿀이 떨어질 것만 같은 커피머신까지! 어머~ 향이 너무 좋다!  
거기에 로맨틱한 조명하며~ 기품 넘치는 그릇들과 식기들~  
(식탁 쪽으로 가는) 고풍스러운 식탁에 놓고 밥 먹으면~ 카!!

식탁에 밥이 이미 차려져 있네~  
이 모두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 집인걸요?  
소미 새댁 안 그래요? 어때요?

소미를 바라보면  
소미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고

소미        아! 네.. 그래요.

소미 배에서 또 꼬르륵 소리

소미        하.. 하... 모두가 바라는 그 집!  
              애는 왜 주책없이 집 보러 와서 반응을 보이냐.. 조용히 하자~ 엄  
              마 체면 좀 세워줘~

소미 배에서 또 꼬르륵 소리

찬희        에구머니나..! 아기가 배가 고프는 갑네~

소미        아.. 아니, 괜찮습니다.

된장 끓여 내오고  
수저 더 놓는 희진

희진        임산부가 너무 배고파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네요.  
              지금 같이 먹어요.

소미        아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소미 배에서 또 꼬르륵 소리

찬희 에이? 아닌 것 같은데?

희진 부담 갖지 말고 한 술 떠요. 안 그래도 나도 밥 혼자 먹기 싫었거든요.

소미 아니... 진짜 괜찮아요.

찬희 인덕이 많은 우리 사모님이 불쌍한 중생의 배고픔을 구제하시니 한 술 같이 뜹시다. 덕분에 나도 배 좀 채우게. 오호호~

희진 그래요. 같이 밥 먹어요.

소미 정말 괜찮....은데...

소미 배에서 또 꼬르륵 소리

희진, 소미의 어깨를 다독인다.

식탁에 앉아 밥 먹는 소미

찬희 어머니~ 이렇게 잘해서 드시네요~

소미 잘 먹겠습니다.

희진 편하게 먹어요.

소미 네...

찬희 근데 정말 맛있네요. 오호호~

희진 그래요? 입에 맞아서 다행이네요.

소미 맛.. 있어요. 꼭 엄마가 해준 음식 같아요.

예전에 엄마가 해준 밥은 어떤 음식일까...하고 상상 많이 했었거든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요.

희진 아...!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네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요.

찬희 이렇게 집보러 왔다가 밥 얻어먹기는 처음이네요. 오호호~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애기가 복덩이네요~ 복덩이야~

암전

### [제3장]

무대 왼쪽 안방으로 이동  
안방 불 켜지고

희진 자, 여긴 우리 안방인데, 안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창이 커서 창밖  
을 내다보기 좋아요. 햇빛도 잘 들고요.

찬희 아이고~ 깔끔하게도 정리하셨네요! 오호호호~  
창밖으로 새소리 들릴 것만 같은 창에... 어머머~ 저거는 럭셔리 침  
대네~ 저 이불은 보기만 해도 폭신거릴 것만 같아요.

소미 방이 참, 아늑하네요.

희진 늘 누군가를 생각하며 고민했던 방이죠.

소미 네?

희진 아, 아니에요.

이 방은 아침에 해가 뜰 때 눈부셔요. 방 커튼을 치지 않으면 눈이  
부셔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늘 암막커튼을 해  
놔어요. 예민해서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됐거든요.

찬희 저도 예민해서 우리 집에도 암막커튼이 있어요.

희진        소미씨도 아기 낳으면 암막커튼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아기 낳으면 예민해져서 잠을 잘 못잘 수도 있거든요.

침대 쪽으로 소미가 다가가면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리고 암전.

찬희        아이코! 갑자기 불이 나갔네.. 아무 것도 안보여요~  
다들 어디 계세요?

희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경비실에 전화 하고 올게요.

휴대전화 불빛으로 이동하는 희진

불이 빠르게 켜졌다가 빠르게 꺼지고 반복  
암전, 소미만 핀조명  
침대 위 이불에 얼굴을 부비는 소미

소미 목소리 아... 좋은 냄새.  
아... 엄마 냄새.  
엄마...  
엄마...  
엄마...

침대 옆드린 소미,  
이리저리 움직이는 핀조명 따라 '섬집아가' 노래 나오고

어린소미 목소리    엄마 이거 내가 만든 찰흙인형이야.

이건 엄마, 눈이랑 코랑, 입이랑 내가 엄마 보고 만든 거야~  
어때, 예쁘지?

엄마 목소리    그래, 예쁘네!

어린소미 목소리   그리고 이젠 아빠..

엄마 목소리    끼악~~~~~ 버려. 싫어, 버리라고!

어린소미 목소리   엄마 왜 그래?

엄마 목소리    더러워! 더러워~

어린소미 목소리   엄마 왜 그래~ 우앙~ 그래서 나 버린 거야?

엄마 목소리    난 널 인정할 수가 없었어.

너는 내가 원치 않는 더러운 아이거든.

그 미친 살인마 새끼가 날 유린했던 그날 밤을 영원히 또렷하게  
기억나게 하는 아이거든.

내가 왜 너 때문에 힘들어 해야 하는데? 너만 없으면 돼!

네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사라져버려! 사라져!

죽어버려! 죽어!

소미 목소리    아니야! 살려줘~ 내 잘못이 아니야.

살려줘~ 제발~

불이 켜지면

꽁꽁거리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소미

찬희가 소미를 말리고

희진, 소미를 안아준 후 토닥인다.

희진            괜찮아... 괜찮아... 네 탓이 아니야...

이제 괜찮아. 괜찮아..

## 눈을 뜨는 소미

- 희진      괜찮아요?
- 소미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서운 꿈을 꿴어요.
- 찬희      아이고~ 밥 잘 먹고 비명횡사 할 뻔 했네~  
            된 꿈을 그렇게 무섭게 꿴어요?  
            누가 죽인다고 했나봐~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깜짝 놀랐네~

##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미

- 소미      아.. 죄송합니다. 집보러 왔다가 폐만 시키고 가네요.
- 찬희      그래, 우리 집보러 왔지! 집보러 왔다 여러 가지 일이 생기네요. 그  
            렇죠?
- 희진      살다보면,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죠.
- 찬희      아무튼, 결론은 이렇게 좋은 집이 없어요. 놓치면 후회한다~ 이말  
            씀!!
- 소미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을 갑자기 왜 내놓으신 거예요?
- 희진      아, 말씀 안하셨나요?
- 찬희      이렇게 좋으신 사모님 네가 모두 이민 가신대요. 이제 해외로 아주  
            이민을 가시는 거라 집을 빨리 팔아야 하는데, 얼른 팔고 떠날 준  
            비 하시면 사모님도 좋고, 저도 좋고 서로 좋지 않겠어요? 안 그래  
            요? 오호호호호~
- 희진      네,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김에 얼른 정리하면 좋지요.
- 소미      언제... 떠나시는 건가요?
- 희진      이제 곧, 한 달 후면 떠나요.
- 소미      집이 안 팔려도, 떠나실 건가요?

희진        여기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먼저 떠날 예정입니다.  
 소미        이제 가시면 아예 안 돌아오실 예정인가요?  
 희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돌아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게 훌훌 털어버렸는데, 다시 되새김질하며 돌아오면 아픈  
               미련만 남지 않을까요?  
 소미        그렇군요. 아픈... 미련... 이군요.  
 찬희        그래서 이 집 살거죠? 안사면 이상하죠. 안 그래요?

현관 벨소리가 들린다

희진        누구지?  
 남편        여보, 나야.  
 희진        어머, 벌써 남편이 집에 왔나 봐요.

현관문으로 남편이 들어온다.

남편        집에 누가 오셨네?  
 희진        응, 집 보러 오신 분들이야.  
 남편        집은 잘 보여드렸어?  
 희진        응.  
 찬희        사모님이 집을 잘 보여주셔서 집 잘 보고 있었어요.  
 남편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찬희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요~  
 소미        궁금한 점...? 모든 여쭙 봐도 되나요?  
 남편        네, 물론이죠.  
 소미        저... 그럼 하나 여쭙볼게요.

이 집에서, 가족들과, 아내분과 사시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남편 네?!

일동 어색한 침묵.

남편 하하~ 신선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네요. 이 집에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요? 매일 매일이 행복하죠. 당신도 그렇지 않아?

희진 그래요?

희진에게 다가가

희진 어깨를 감싸며 안는 남편

남편 아무래도 가장 행복했던 적은 이 집에 이사 온 날이죠. 아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고 다짐하고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집을 만났고, 우리는 마음에 너무 들어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 후에는 우리만의 집을 어떻게 꾸밀까...하고 엄청 고심했었습니다. 그러다 찾은 우리만의 베스트 인테리어가 탄생했습니다.

모두 다 아내 덕에 멋진 집이 만들어지고 가꿔졌죠. 다 아내 작품입니다. 아내의 손길이 닿으면서 아내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서 다시 떠나는 거지만요.

아마 이 집에 이사 오시면 저희보다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멋진 인테리어로 훌륭한 집이 탄생하겠죠?

천희 그럼요~ 그럼요~ 오호호~ 요즘 젊은 분들은 집을 꾸미는 솜씨가 남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오호호~

소미        몸이 좋지 않다고요?

남편        아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사 가는 건데, 못 들으셨나 보군요.

희진        여보~ 쓸데없는 소리를...

찬희        오매~ 그랬군요. 몸조리 잘하세요~

남편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소미        그럼 사모님은요?

희진        전 과거의 행복보다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충실히 살고 싶어요. 지난 과거의 행복보다는 지금 이 순간, 매일 매일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소미 씨도 힘든 지난날은 잊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미래만 꿈꾸세요.

              좋은 집 구하셨으면 좋겠네요.

소미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 곳에 가셔셔도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 베풀어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파 위에 낫던 가방을 드는 찬희

찬희        몸도 안 좋으시다고 하니 이제는 저희 가봐야겠네요. 집 잘 봤습니다.

소미        집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몸 건강히 이민 잘 떠나시기 바랍니다.

소파 위에 낫던 쇼핑백에서  
찰흙 인형을 꺼내 희진에게 주는 소미

소미        그리고 이걸... 집 보여주시고 식사까지 대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희진 어머니! 뭘 이런 걸 다... 괜찮은데..

찬희 으미~ 예쁜거~ 사모님 똑 닮았네~ 나는 뭐 없나?

소미 제 성의니까 받아주세요.

희진 고마워요. 그리고... 모진 말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행복을 꿈꾸는 것도 중요하니까...

소미 그럼 이만. 집 잘 봤습니다.

희진 그래요...

남편 조심히 가세요!

출입문으로 나오는 소미와 찬희  
찰흙인형 보는 희진  
암전

## [제4장]

암전상태로  
공항 방송소리만 들린다.  
'JES편 비행기가 10시 29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탑승객들은 속히 탑승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이륙소리 들리고  
  
무대 불이 켜지면  
집에 들어온 소미 집 안 곳곳 둘러본다.

소파, 침대 등 모두 그대로 있다.

찬희 목소리 새댁~ 집 구했나?

집주인이 새댁이 마음에 들었나봐~

새댁한테 잠시 집을 빌려주겠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가전이며 가구도 필요하면 그대로 써도 된대요.

내가 공인중개업을 20년 해오면서 이렇게 좋은 분은 처음인거 있죠?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

그런데,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나 봐요. 그 사모님 몸 아프다고 했잖아~ 근데 이야기 수소문 해보니까 알고 보니 암 말기여서 정리하는 거였다는 소문이 있네~ 다시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네~ 글썸~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는 모양인가봐, 안 그래?

(목소리 점점 작아지며) 아무튼 계약 마무리하러 다시 올 거죠? 우리 그 때 만났던 거기서 봐요~

소파 위에 다른 모양의 찰흙인형 보이고

그 옆에 편지 꺼내 읽는 소미

희진 목소리 사랑하는 내 딸 소미에게.

네가 우리 집을 보러 온 그 날, 설렘과 두려움으로 뒤섞인 복잡한 미묘한 감정이 들었어.

다 완쾌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

하지만 네가 더 없이 잘 자라주어서 엄마는 행복했단다.

소미야... 너를 내 딸이라고 인정하기까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못난 엄마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하는

이 못난 죄인인 엄마를 용서해주겠니...  
네가 만들어 준 찰흙인형은  
내 마지막 날까지 간직하고 있을게.  
이건 내가 너를 위해 만든 찰흙인형이란다.  
기쁘게 받아주면 좋겠어.  
네가 소미여서 반갑고, 마지막에 보고 갈 수 있어서 고마워.  
튼튼이 잘 키우고 못난 엄마 잊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소파에 앉은 소미  
찰흙인형을 어루만진다.

소미        엄마, 난 다 이해해.  
              그곳에서 가서는 아프지 말고 잘 살아야 해!  
              행복하게! 내 엄마여서 고마워...

암전

# 동상



광주지방교정청  
김현중



## 수상소감

“죽어라 노력해도 평범하게 살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TV채널을 돌리다가 한 청년이 유명인사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유명인사는 냉소적인 태도의 청년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꿈에 다가 갈 것이다’하는 식의 뜬 구름 잡는 답을 내 놓았다.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평범한 삶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지는 않았다. 희곡 ‘내 일이 찾아오면’은 TV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보게 된 한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지만 끝내 적절한 답을 찾지 못 하고 희곡은 마무리가 되었다. 희곡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대답이 곧대(미성숙한 어른)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한다. 좀 더 다듬고 다듬어 세상에 내놓아야 했었는데 부족함이 많은 희곡 ‘내 일이 찾아오면’에게 멋진 장식을 걸어준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그녀 황선옥님, 예쁜 공주 김은빈양, 멋진 왕자 김선유군 사랑합니다.

# 내 일이 찾아오면

## 장소(무대)

무대는 도심지에 있는 작은 호수공원이다. 무대 중앙에는 공원 벤치가 놓여있다. 벤치 옆에는 쓰레기통이 놓여 있고 가로등과 나무를 설치하여 공원 느낌을 준다. 가로등에 불이 켜져 있어 저녁을 알려주고 붉게 물든 나뭇잎은 깊은 가을을 알려준다. 무대 앞 객석이 호수로 표현되어 진다.

## 등장인물

석준

희진

공시생

노인

취객

어두운 무대가 밝아 오면 무대의 오른쪽에서 석준이 등장한다. 초조한 표정으로 기도하듯이 양손에 휴대폰을 쥐고 천천히 걷는다. 무대중앙에서 멈춰 휴대폰에 애원하는 눈빛을 보낸다.

석준     제발~!

하늘을 보며 다시 천천히 걷는 석준은 무대 왼쪽에서 걸음을 멈춘다. 휴대폰을 천천히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린다.

석준      하느님 제발. 제발 이번 소원 한번만 들어주시면 앞으로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게요.

석준은 마주잡은 손을 떼고 왼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을 떨리는 오른손으로  
누르려고 하다 멈춘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천천히 하늘을 쳐다본다.

석준      (단호하게)제 부탁 거절하시면 죽어 버릴 거예요. (애원하듯이)하느님  
앞으로 진짜, 정말 착하게 살게요. 다시는 하느님 귀찮게도 안 할게요.  
그러니 제~발~!

석준은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누른다.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댈다.

(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는 주식회사  
미래행복전자 2017년도 정규직 전환 합격자 안내입니다. 귀하의  
응시번호 8자리를 누르시고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소리)와 동시에 뿔테 안경을 쓴 공시생이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하여 공원벤치에  
앉는다. 외투를 벗어 공원벤치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 외투 옆에  
놓는다. 하늘을 본다.

공시생     (하늘을 향해 점점 큰소리로)왜? 왜~? 왜~~? 나만 괴롭혀.

공시생의 목소리에 놀란 석준은 공시생을 본다. 공시생은 석준을 보지  
않는다. 석준은 공시생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젓고 주머니를 뒤져 응시표를

꺼내 응시번호를 확인한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번호를 누른다. 공시생은 뒷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신발위에 놓고 안경을 벗어 신발 옆에 둔다. 석준은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댄다.

(소리) 귀하의 사원번호는 56061288입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눌러 주십시오.

(소리)와 동시에 공시생이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가 무대 앞에서 서서 양팔을 벌리고 눈을 감는다. 공시생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석준은 휴대폰의 번호를 누른다.

(소리) 사원번호 56061288번 홍석준님은 2017년도 정규직 전환...

공시생과 벤치에 남겨둔 신발을 번갈아 보던 석준은 음성 메시지를 다 듣지 못하고 다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담고 공시생에게 뛰어가 팔을 붙잡는다.

석준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죽어요.

공시생 뇌~! 방해하지 마.

공시생은 자신의 팔을 붙잡은 석준을 끌고 무대 끝으로 더 걸어간다. 석준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힘을 써보지만 쉽지 않다.

석준 아저씨 이러다 저까지 빠지겠어요. 제발 진정 좀 하세요.

공시생 왜 남의 인생을 간섭하고 지랄이야.

석준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공시생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석준 자기 인생에 대해 예의는 지켜야죠.

공시생 이게 나에 대한 배려야.

석준 어떻게 쉽게 삶을 포기해요?

공시생 포기가 아니야. 이걸 도전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

석준 인생을 끝내는 게 도전은 아니죠.

공시생 네가 내 인생을 알아?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살았는지 알아?

석준 (공시생의 팔을 잡아끌며 벤치로 가려고 힘을 쓴다) 일단 저기 앉아요. 앉아서 얘기해요.

공시생 계속 반복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아? 이제 지쳤다. (한숨, 석준을 천천히 보며) 쉬고 싶다.

석준은 공시생의 팔을 붙잡아 벤치 쪽으로 끈다. 공시생은 더 이상 힘을 쓰지 않는다. 석준은 간신히 벤치에 앉힌다.

석준 쉬고 싶으면 여기 의자에 앉아서 쉬어야지 왜 호수에 빠지려고 해요? 일단 이 신발부터 신으세요.

석준은 공시생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안경을 건넨다.

공시생 (안경을 쓰며)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

석준 아저씨 제발 진정 좀 하세요.

공시생 나 좀 제발 내버려두라니까.

석준 아저씨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 건데요?

공시생 (석준을 쳐다보며 망설이다)이루지 못 한 내 꿈.

석준 아저씨 꿈이 뭔데요?

공시생 평범하게 사는 거.

석준 예? 평범하게 사는 거요?

공시생 온전한 직장 잡아서 남들처럼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사는 거.

석준 누구나 그런 삶을 꿈꾸며 조금씩 다가가는 거죠! 아저씨처럼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아요.

공시생 희망이 있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거야. 대학 졸업하고 12년을 발버둥 쳤는데 얻은 게 없어. 아무것도….

석준 (놀래며)12년 동안요? 무슨 일을 준비하셨는데요?

공시생 정규직 직장인.

석준 (힘이 빠진다) 예?

공시생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계약직, 공기업 인턴으로 몇 군데 돌아다니다 나이만 먹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공무원 준비 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졌어. (사이)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떨어졌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해.

석준 다음에 기회가 또 있잖아요.

공시생 다음은 없어. 합격은 나한테는 찾아오지 않는 행운 같은 거야.

석준 운은 아니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공시생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 봤고, 최종면접에서도 떨어져 봤어. 합격은 노력이 아니라 운이 결정 하는 거야. 나한테는 찾아오지 않는 행운.

석준 하긴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공시생 죽어라 노력해도 떨어지는 사람 많아. 수만 개의 종이 중에 합격이란 글자가 적힌 종이는 몇 개 없는… 확률이 너무나 낮은 제비뽑기지. (헛웃음) 난 다음에도 불합격을 뽑을 것 같아.

석준 근데 아저씨! 뭐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아저씨가 꿈꾸는 삶에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공시생 (헛웃음)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면서 그러는 거야?

석준 예? 무슨 말씀이세요?

공시생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 평범하게 사는 게 사치스런 꿈이 되어버린 세상이야.

석준 (당황한다)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정규직 직장인을 꿈꾸고 있거든요.

공시생 어? 너도 백수였어?

석준 아니요. 저 사실 비정규직인데 이번에 정규직 전환 면접을 봤거든요. 결과는 아직 확... 아니 안 나왔어요.

공시생 (씹쓸하게 웃다가 한숨) 어디 회사 다녀?

석준 미래행복전자요.

공시생 좋은 회사에 다니네.

석준 회사가 좋으면 뭐해요. 저는 비정규직인데요. 비정규직만 6년째예요. (한숨)저도 지금 심난해요.

공시생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는 세상이 웃긴 거지.

석준 맞아요.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한번이라도 받아 보고 싶네요. 저도 아저씨처럼 평범한 삶을 위해서 이번에 정규직이 꼭 되고 싶어요.

공시생 젠장! 죽어라 노력해도 평범하게 살기 힘든 세상이 이상한거야? 평범하게 못 사는 우리가 이상한거야?

석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욕심이 되어버린 세상인 것 같아요.

공시생 그러게~! 평범한 삶이라는 게 너무 어렵네. (일어서며)생각하면 머리만 아프다. 이제 가야겠다.

석준 어디 가지게요?

공시생 평범한 삶을 위해 다시 노력해 봐야지. 짧은 친구! 살려줘서 고마워.

공시생은 일어나서 외투를 입고 유서봉투를 뒷주머니에 담는다. 석준은 공시생의 뒷주머니에서 유서를 꺼내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석준      아저씨!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죠?  
 공시생    아냐. 배고프다.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석준      정말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죠?  
 공시생    아니라니까.  
 석준      과거의 상처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치료가 가능한 거래요. 마음  
             추스르시고 다시 도전하세요.  
 공시생    걱정마라.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 호수로 뛰어  
             내리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붙잡아 줬다. 한 번 더 정신 차려 봐야지.

공시생이 무대 왼쪽으로 퇴장하는데 석준은 공시생에게 다가간다.

석준      그래요. 아저씨! 다음에는 합격이란 종이를 뽑을 거예요.  
 공시생    쉰 소리 그만하고 너도 정규직 꼭 돼라.  
 석준      그럼요. 꼭 될 거예요.  
 공시생    그래. 우리 둘 다 평범하게 살아 보자. 간다.  
 석준      네. 조심히 가세요.  
 공시생    알았어. 근데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석준      공원 입구까지만 아저씨 따라갈게요.  
 공시남    나 다른 생각 안 한다니까?  
 석준      아니에요. 공원 입구에서 뭐 좀 사올게 있어서요.

공시생과 석준이 퇴장하면 무대 오른쪽에서 가방을 메고 보온병을 든 희진이 시계를 보며 등장한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벤치에 앉는다. 할머니가 폐지를 실은 유모차를 끌고 무대 왼쪽에서 등장하여 쓰레기통 옆에 놓인 종이 박스를 정리 하다가 주변에 버려진 담배꽂초들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린다.

노인 이 잡것들은 손목아지가 빠풀어 졌당께. 쓰레기통에 안 버릴거면  
꽂초까지 씹어 묵든가. 이것이 뉘 지랄이여.

노인은 벤치에 앉아 있는 희진을 보더니 담배꽂초를 들고 희진에게 다가간다.

노인 아가씨! 이거 아가씨가 핀 것이 아녀?

희진 네? 저 담배 안 피는데요.

노인 머시 아니여? (꽂초를 보이며)여기 봐. 립스틱 묻은 거 보이재. 색깔도  
똑같구만. 어디서 오리발이여.

희진 (일어나며)저 정말 아니예요.

노인 여기 아가씨 말고 누가 있어? 증거가 요로코롬 있는디 인자는  
자백해야재. 자백하믄 정상참작 몰러?

희진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저 아니예요.

노인 나가 이 방법까지는 안 쓸라고 했는디. 거시기 뭐시냐? 범죄 직후에  
범죄흔적이 가장 많이 남는 법이여. 아가씨 하~ 해봐.

노인은 희진에게 다가가 희진의 입에 자신의 코를 가까이 댄다.

노인 뭐슬 망설여? 하~ 해보랑께.

희진 하~.

노인 더 시게. 하~~~.

희진 하~~~~~.

노인 (코를 킁킁대너니)위메~! 위짜쓰까. 나가 헛다리를 짚어 부렀네이. (  
웃으며)위짜쓰까잉.

희진 할머니! 제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 드렸잖아요.

노인      그라재. 요로코롬 이쁜 아가씨가 담배를 필리 없재. (눈치를 보다가)  
             거시기 얼굴이 겁나게 좋네이. (손벽을 치며)맞네. 선상님이네. 선상님  
             맞지라.

희진      아니에요.

노인      아니여? 이런 관상은 관운이 들어 있는 관상인디. 그람 뭐 하신당가?

희진      그냥 조그만 회사 다녀요.

노인은 희진을 끌고 벤치에 앉는다.

노인      앉아봐. 앉아서 얘기해. 이 얼굴에는 관운이 들어 있당께. 그라지 말고  
             공무원시험 봐 보는 것은 어때?

희진      공무원시험을요?

노인      얼굴에 관운이 보인다. 지금부터 준비해 보랑께.

희진      싫어요. 저는 지금도 만족하고 살아요. 월급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크게 불편한 것은 없어요.

노인      뭐시여! 불편한 것이 없다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많을 것인디~.

희진      작은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줄이면서 사는 거죠!

노인      틀린 말은 아니다...

희진      남들 해외여행갈 때 가까운 곳에 놀러 가고, 남들 명품가방 살 때  
             중국산 가방 메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노인      워디 말처럼 쉽당가?

희진      소중한 사람과 가까운 곳에 놀러가서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오면 되고  
             (자신의 가방을 들어서 흔들며 보이며)중국산 가방도 튼튼해서 물건  
             담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노인      요새사람이 아니구만! 착혀도 너무 착혀. (다시 희진의 눈치를 살피다  
             보온물병을 보며)그란디 저 보온통은 뭐당가?

희진 이거요? 커피인데 할머니 한잔 드릴까요?

노인 주믄 좋재.

희진은 가방에서 컵을 꺼내 보온물병에 들어있는 커피를 따라 노인에게 건넨다.

노인 위메~! 미안스럽구마. (한모금한다)아따~! 따뜻하네이. 뭘 커피디  
요라고 맛있당가?

희진 제가 집에서 가져왔어요. 할머니 입에 맞아요?

노인 나가 평생 먹었던 커피 중에 질로 맛있구만.(커피를 마신다) 거시기  
여자한테 관재수가 있는디 그것을 안 타믄 그 관재수가 남편한테  
간당께. 나가 그렸당께. (커피를 마신다) 아따. 좋다.

희진 (생각을 하다가)할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셨어요.

노인 (자랑하듯이)경찰이였어. 나한테 관운이 있다고 점쟁이들이 그랬는디  
아랫마을 사는 영식이 오빠...(멈칫하다) 아니 그 썩을 놈이 나 좋다고  
쫓아 덩기든마 경찰섬에 붙어 부렸당께. 아가씨 남자친구는 뭐허?

희진 그냥 회사 다녀요.

노인 그러~! 결혼할 사람이재?

희진 그럼요.

노인 됐어, 됐구만. 남자친구한테 관재수가 옮겨가서 좋은 일이 있을 거여.

희진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경찰이셨으면서 폐지를  
줍고...(말을 잘못 꺼냈다)아~! 운동 삼아서 하시는 거죠? 운동(어색한 웃음)

노인 아니어. 묵고 살라고 그래.

희진 예?

노인 경찰 월급이 박봉이긴 혀도 자숙들하고 오순도순 묵고 살만은 했는디  
(열을 올린다)거지 발바닥 같은 영감탱이가 자식들 위해서 서울에서  
살자고 혀서 서울에 발령받아 왔는디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였어?

- 희진      아니 왜요?
- 노인      순천에서 집 팔고 올라왔는데 집 판 돈으로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실  
전세방밖에 못 구하는 거여.
- 희진      서울 집값이 비싸긴 하죠. 그래서요.
- 노인      그냥저냥 살았는데 (다시 열을 올린다)호랑이가 잡아가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영감탱이가 빔을 내서 아파트를 30년 할부로 사는 거여.  
영감탱이 남은 공직생활은 아파트 빔 값는데 다 쓰고 지금도 그 빔  
값느라고 연금은 손도 못 대고 생활비 보텔라고 폐지를 줍고 다닌당께.
- 희진      그래도 할아버지 덕택에 아파트 한 채는 생겼잖아요.
- 노인      집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시 있다고? 육시탈 놈의 영감탱이 때문에  
평생 아파트 한 채를 위해서 산 것이재. 그러도 나가 집 때문에 깨달은  
것이 있구만.
- 희진      그게 뭇데요?
- 노인      영감탱이 월급의 절반이 대출금으로 나강께 말이 공무원 월급이지  
실지로는 찌꺼한 공장 사원 월급만도 못 했당께. 그러도 새끼들 잘  
갈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데 취직해서 결혼해서 잘 산당께.
- 희진      많이 힘드셨겠네요.
- 노인      아가씨 말대로 욕심 안 부리고 애끼고 산께 가능한것이재. 행복이  
꼭 돈이 아니드라고. 빔이 많아진께 영감탱이가 미안해서 그런지  
집에도 잘하고 애들한테 관심도 많이 보이고 그랬당께. 몸은 힘들어도  
우리집은 딴 집보다 화목하게 지냈어. 가만있어보소. 나가 뭇 얘기를  
할라고 했는디 이쪽으로 왔당가?
- 희진      깨달으신게 있다면서...
- 노인      이잉~. 그것이 뭐시냐문. 나가 사는 집의 평수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여.

희진 돈이 없어도 가족들과 서로 의지하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면 된다는 애긴가요?

노인 맞아. 그것이야. 행복이 별거간디? 온가족이 통닭 한 마리 시켜 놓고 웃으면서 묵으믄 그것이 행복이랑께.

희진 할머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노인 나가 봉께. 아가씨는 행복하게 살 것 같네.

희진 네?

노인 아까 아가씨가 얘기 했잖어. 작은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줄이면서 산다고 그랬잖어. 그렇게만 살어. 인자 가야쓰것구만(일어선다)

희진 (일어서며)가시게요?

노인 그래야재. 일하러 가야재. (웃으며)부지런히 움직여서 우리 손지들 로보트 사줘야재. 크리스마스 선물로 즐라고….

희진 할머니 손자들은 좋겠네요. 조심히 가세요.

노인은 남은 폐지를 유모차에 마저 싣는다.

노인 아가씨! 명심혀!

희진 뭘요?

노인 절~대 집사지 마러.

희진 (웃으며)알았어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노인은 폐지를 가득 실은 유머차를 힘들게 끌고 무대 오른쪽으로 간다. 희진은 자신의 가방과 보온병을 챙겨 노인에게 다가간다.

희진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 괜찮어. 나 혼자 끌고 갈 수 있당께.

희진 저기 큰 도로까지만 끌어 드릴게요.  
노인 아따 괜찮다. 그러믄 큰 도로까지만 끌어 줄랑가.  
희진 네. 할머니.

희진이 끌고가는 유모차를 밀어주는 노인, 무대 오른쪽으로 퇴장한다. 석준이 무대 왼쪽에서 빠른 걸음으로 등장하여 벤치 앞에서 주변을 두리번 거린다.

석준 (시계를 보며) 오늘은 늦으려나.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피던 석준은 응시표와 휴대폰을 꺼내서 바라본다.

석준 (응시표와 휴대폰을 보며) 하느님! 제발!

휴대폰의 번호를 누르는 석준. 무대 오른쪽에서 '단결·투쟁'이 적힌 빨간조끼를 입은 취객이 술에 취해 파업가를 흥얼거리며 걸어온다.

취객 흠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서자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려다. 동지의 약속. 해골 두 쪽 나도 지킨다. 노조 깃발아래 뭉친 우리. 구사대 폭력 물리친 우리...

취객이 걸어오다가 휴대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석준과 부딪친다. 취객은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말투다.

석준 아~ 죄송합니다.

취객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초저녁에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제가 이상한 놈이죠. 죄송합니다.

취객이 고개를 깊숙이 숙여 사과를 하고 석준의 얼굴을 쳐다본다.

취객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저기~! 너 석준이 아니니?

석준 누구...

취객 나야. 승호. 몇 년 전에 미래행복전자.

석준 승호형?

취객 그래 임마. 나 이승호다.

석준 형 반가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취객 나 원래 이런 놈 아닌데 미안하다. 미안해.

석준 (취객의 빨간 조끼를 보며)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취객 (조끼를 만지며)아~ 이거. 그렇게 됐어. 너 지금도 거기 다니니?

석준 네. 아직 다니고 있어요.

취객 정규직 됐어?

석준 아니요.

취객 너 아직도 기대하고 있어?

석준 그게...

취객 정신 차려라. 1년에 정규직 몇 명이나 시켜주니? 기껏해야 한두명이잖아. 그게 다~~ 너희들 순한 일꾼으로 길들이려고 그러는 거야. 정신 차려~.

석준 그래도 몇 명씩은 정규직 되잖아요. 형! 제 동기 현우 알죠? 현우 작년에 정규직 됐어요?

취객 기다리면 네 차례 온다던? 형도 거기서 7년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계약연장 불가였잖아.

석준 알아요. 형.

취객 더 늦기 전에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길을 찾아봐. 형 봐라. 예전에 나도 미래행복에서 잘 나갔잖아.

석준 형 그때 인정도 많이 받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취객 그러면 뭐하냐고~ 흐흐흐. 석준아! 나 그때 잘 나갔지? 진짜 잘 나갔는데... 씨부릴.

석준 형 잘 나간 거 모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형!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취객 그때 잘 나갔는데... 그 회사 나오고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 들어갔지. 회사는 작지만 회사의 성장과 함께하자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2년도 안 지나서 깨져버렸어.

석준 아니 왜요?

취객 회사는 성장했는데 직원의 복지수준이 그대로인거야,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한번 내 보려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더니 회사에서 바로 쫓라 버리네. 흐흐흐.

석준 작은 회사들은 성장하면 이익금이 재투자로 들어가니까 직원들한테 거의 신경 안 쓴다고 하더니...

취객 복직투쟁하며 몇 개월은 실업급여로 버텼는데 다시 취직하려니까 이력서 제출하는 곳 마다 다 거절이네. 이 바닥 소문 빠르더라.

석준 부당하고 무효 소송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취객 했지~. 1심과 2심에서 부당하고 소송 승소했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석준 오늘 패소요? 오늘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취객 그래. 인권변호사 도움 받아 여기까지 오며 큰 희망을 품었는데 에휴~ 허망하게 오늘 깨져버렸네.

석준 1,2심 승소하면 대법에서는 거의 승소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취객 그러게. (깊은 한숨)아마도 세상은 내편이 아닌가 보다.

석준 언젠는 우리 편 들어 준 적 있나요? 그래서 한잔 하셨어요?

취객 오늘 같은 날 술을 안마시면 술에 대한 배신이야. 씨부랄! 내일 당당하게 출근하려고 했는데 갈 곳이 사라져 버렸네.(사이) 석준아~!

석준 네. 형 말씀하세요.

취객 형이 그래도 그때 잘 나갔지? 잘 나간거야. 잘 나갔을 거야... 에휴~.

석준 그래요. 형. 잘 나가셨어요. 복직하는 거 이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취객 변호사 말이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단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젠 없데.

석준 뭐라고 드릴 말이 없네요. 기운내세요. 형은 실력 있으니까 더 좋은 직장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취객 어디로 가야 하니?(헛웃음을 짓다가 우는 소리) 무엇을 해야 하니? 40년을 넘게 살아온 내게 너무 가혹한 질문이다.

석준 형!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형수님을 위해서라도 이젠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셔야죠.

취객 (석준을 쳐다보더니 눈을 천천히 깜박인다)나, 이혼했다.

석준 예? 형수님하고 잘 지내셨잖아요.

취객 나 노동운동 시작할 때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했어. 내가 가진 것 전부 가압류 시켜버리고...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해서, 그걸 보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내의 이혼요구를 받아드릴 수밖에 없더라.

석준 그래도 그렇지. 노동운동이 무슨 손해를 끼쳤다고 손해가압류래요?

취객 그러게. 힘이 없는 게 죄지. 복직하면 재결합하자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석준아~! 다시 기회가 있겠지?

석준 그럼요 형! 다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취객 불쌍한 내 마누라를 위해 다시 기회를 찾아야 하겠지?

석준 그럼요. 형수님과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죠.

취객 (석준을 한참 쳐다보더니 눈을 천천히 깜박인다)몰랐구나. 나 애들 없어.

석준 그..그래요. 결혼한 지 꽤 되셨잖아요.

취객 그렇게 됐어. 비정규직 때는 정규직 되면 애기 낳자 생각했고 작은 회사 들어가서는 돈이라도 조금 모아 아파트 전세라도 옮겨서 애기 낳자 생각했는데 결국 이 꼴이네.

석준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형수님하고 재결합해서 다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죠.

취객 석준아! 난 왜 맨 날 이렇지? 난 왜 늘 불행하지? 난 왜 늘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냐구~?

석준 형! 시간을 되돌아보면 행복했던 순간도 많이 있었잖아요.

취객 (큰소리로)그럼 뭐하냐고오~. 지금은 이 모양 요 꼴인데. (두 손을 보며) 모든 걸 잃어 텅 빈 두 손. 가진 게 없다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다. 석준아! 가진 게 없다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이지?

석준 그럼요.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취객 석준아. 부탁하나 하자.

석준 부탁이 뭔데요. 말씀하세요.

취객 석준아. 인생 너무 욕심 부리지마라. 현실에 만족을 찾으면서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석준 네. 항상 최선을 다 할게요.

취객 석준아. 그 말이 아니고. 나처럼 인생 늦어지지 말라는 얘기가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일찍 결혼하고 애기도 빨리 낳고 인생을 너무 계산하지 말어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가야. 가야겠다. 가야지.

석준 어디 가지게요?

취객 들어가야지. 오늘까지만 방황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지. 석준아. 너 전화번호 그대로지?

석준 네. 예전 그대로예요.

취객      내가아~ 꼬옥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테니까. 그때 보자.  
석준      그래요. 형. 다시 날개 짓을 해 보세요.  
취객      나를 붙잡고 있는 중력의 힘이 너무 커서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력을 이겨보려고, 날아 보려고 노력해 봐야겠다. 고맙다 석준아.  
다음에 꼭 연락할게.

취객이 비틀거리며 무대 왼쪽으로 걸어간다.

석준      네. 형 다음에는 꼭 좋은 일로 연락하세요. 힘내요 형.

취객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든다.

취객      (퇴장하며 큰소리로)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노래)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나의 사람들과 이 세상을 가고 싶어.  
모든 일들이 힘들었지. 그건 연습 일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나는 문제없어’라는 노래를 부르며 석준을 몇 번 돌아보고 손을 흔들며 퇴장하는  
취객. 취객이 사라질 때 까지 바라보던 석준은 벤치쪽으로 천천히 걸어온다.

석준      남의 일 같지 않네.

석준은 핸드폰과 응시표를 꺼내 심호흡을 크게 하고 번호를 누른다.

(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는 주식회사  
미래행복전자 2017년도 정규직 전환 합격자 안내입니다. 귀하의

응시번호 8자리를 누르고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석준은 응시표 번호를 확인하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번호를 누른다.

(소리) 귀하의 응시번호는 56061288입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눌러 주십시오.

다시 번호를 누르는 석준.

(소리) 응시번호 56061288번 홍석준님은 2017년도 정규직 전환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다시 듣고 싶으면...

핸드폰을 들었던 손을 힘없이 내려놓고 천천히 벤치에 앉는 석준.

석준 1년을 다시 기다렸는데... (깊은 한숨) 오늘만큼은 결코 허망함을 느끼지 않으려 했는데... 밝은 날이 찾아온다고 믿었던 오늘이 더 짙은 안개에 덮여 버렸다. 나의 꿈이 잘 못 된 거야? 평범한 행복이 그렇게 어려운 거냐구? 언제까지 내일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석준은 외투를 벗어 공원벤치 위에 올려 놓고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간다. 희진은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한다. 무대 끝 객석 앞에 선 석준은 양팔을 벌리고 눈을 감는다. 희진은 석준 옆으로 다가와 눈을 감고 있는 석준을 쳐다보며 석준과 같은 모습으로 양팔을 벌리고 눈을 감는다.

석준 다음 세상에서는 새가 되어 높이, 멀리 날아 보고 싶다.

희진 나두.

석준은 놀라서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있는 희진을 보며 당황한다.

석준 언..언제왔어?  
희진 방금.  
석준 마..많이... 늦었네.  
희진 일이 좀 있었어. 눈 감아.  
석준 보여?  
희진 빨리 눈 감으라니까.  
석준 알았어.

석준이 다시 팔을 벌리며 눈을 감는다. 두 사람 많이 없이 몇 초의 시간이 흐른다.

희진 석준아! 느껴져?  
석준 뭐가?  
희진 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게 느껴지냐구?  
석준 어. 느껴져.  
희진 난 이 느낌이 좋아. 바람이 지친 내 마음을 쓸어 주는 것 같고 힘내라고 속삭여 주는 거 같아.  
석준 그래. 나도 이 느낌이 좋다.  
희진 석준아!  
석준 어.  
희진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 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거야. 마음이 아프면 지금 몽땅 치료받고 다 잊어버려.  
석준 나 아픈 곳도 없는데... 바람이 좋다. (사이)너무... 좋다.  
희진 (눈을 뜬다)나두. 우리 여행갈까?  
석준 어디로?

희진 우리 일요일에 가까운 관악산이라도 갈래?  
석준 그게 무슨 여행이냐? 소풍도 아니고... 관악산 지겨워.  
희진 나도 멀리 가고 싶다. 일주일에 하루 겨우 쉬는데 어딜 가?  
석준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쉬지도 못 하게 하고...

희진이 손을 펴서 손가락 끝으로 석준의 입술에 갖다 대고 떴다.

희진 그런 얘기 많기로 했잖아.  
석준 (눈을 뜬다. 입술을 만지며)무슨 보보를 기습적으로 하나?  
희진 (웃음)내가 주는 선물.  
석준 선물이 너무 약하지 않아?  
희진 아무 느낌 없었어?  
석준 그래. 아무 느낌 없었어.  
희진 나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작아서 느낌이 없는 거 아냐?  
석준 억지다. 마트 시식코너에서도 맛을 느낄 만큼의 양을 주는데 0.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뭘 느껴?  
희진 너 막말한다. 내 보보가 시식이니?

희진이 화내는 척하며 벤치에 앉는다. 석준도 희진을 따라 옆에 앉는다.

석준 아니. 그건 아니구. (희진의 눈치를 살핀다)야 왜 그래.  
희진 됐어. (외투를 주며) 춥다. 옷이나 입어라.  
석준 (옷을 입으며)미안해. (사이)미안하다니까?  
희진 잘못 했지? 그럼 이번 일요일에 관악산에 가는 거다.  
석준 알았어. 갈게. 지겹지도 않니? 맨 날 관악산.  
희진 좋잖아. 돈 안 들이고 바람 쐬고. 도시락은 내가 준비할게.(웃음)

석준      오늘 많이 바꿨어?  
희진      퇴근하려고 하는데 상무님이 결산서를 마무리하래잖아. 대충 끝내고  
            도망쳐 왔지. 히~!  
석준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직원이 몇 명이라고 상무라니.  
희진      그러게. 사장, 이사, 상무, 부장 빼면 나만 남는데. 나는 과장정도는  
            불러줘야 되는 거 아냐?  
석준      과장님!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희진      그래 홍사원. 내가 홍사원을 위해 선물 하나를 주지.

희진이 가방에서 종이컵 2개를 꺼내 보온병에 든 커피를 따른다.

석준      커피 사오지 말라더니 직접 가져왔네.  
희진      (커피를 건네며)내가 타준 커피가 맛있더라.  
석준      (커피를 받으며)날씨도 추워지는데 카페에서 만나자니까.  
희진      난 여기가 좋아. 카페는 답답해. 바람도 불어 주고 좋잖아.  
석준      에이~. 뭐가 좋냐? 춥기만 하네. 카페에서 편하게 앉아서 마시는 게  
            낫지.  
희진      돈을 왜 쓸데없는 곳에 써? 난 여기가 좋아.  
석준      다음에는 카페에서 만나. 나 커피정도는 사 줄 수 있다.(커피를 마신다)  
            커피는 맛있네.  
희진      거봐. 내 커피가 더 맛있잖아. (커피를 마신다)이번에 관악산 가면 단풍  
            예쁘겠다. 도시락으로 뭐 준비할까? 뭐 먹고 싶어?  
석준      네가 싸준 김밥(웃음) 우리 산에 간지도 오래됐네. (사이) 희진아?  
희진      어!  
석준      우리 첫 산행 생각나?  
희진      주왕산.

석준 2학년 때 동아리방 달력에 있는 주왕산 사진을 보고 가보고 싶다고  
네가….

희진 네가 먼저 가자고 했거든

석준 시간은 기억은 조작한다니까. 네가 먼저 가자고 했잖아.

희진 (목소리가 커지며)네가 가자고 했거든. 네가 달력 보면서 정말  
멋지다고, 가고 싶다고, 함께 가자고 나를 꼬셨잖아.

석준 알았어. 내가 가자고 했어. 했어. 됐지.

희진 그래(웃음) 내 첫 산행. 정말 아름다웠는데.

석준 그래. 정말 아름다웠지. 주왕산도, 너도…

희진 그땐 내가 좀 예뻐는데(웃다가 웃음을 멈추며) 그때, 산에 내려와서  
막걸리 마시며 했던 말 기억나?

석준 무슨 말?

희진 네가 그랬잖아. 고민이 없어서 고민 없는 너를 고민해 본다고 그랬잖아.  
그땐 그 말이 멋져 보였는데.

석준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어.

희진 아냐. 멋졌어(웃음). 과거라는 시간에 다시 머물고 싶다.

석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난 1학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할래.

희진 정말 공부만 하려고?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젊음이 불쌍하지 않아?

석준 일찍 성공해서 30대에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면 되잖아.

희진 야! 어떻게 20대의 추억과 30대의 추억을 비교할 수 있지? 20대의  
느낌이 30대에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추억 속에 내가 사라져도  
괜찮아?

석준 아니. 나 때문에 너도 고생하고… 시집도 못 가고… 그냥 미안해서  
그런다.

희진 알면 됐다. (사이)우리 지리산종주 했던 거 기억나?

석준 그럼 기억하지. 어떻게 잊니?

희진      노고단의 노란 원추리 꽃. 벽소령에서 바라본 밤하늘. 제석봉의 고목들,  
천왕봉 일출과 운해…. 아직도 너무 생생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

석준      (얇은 미소)지리산 능선에 그런 추억이 숨어 있지. 그땐 세상 모든 게 내  
것처럼 자신 있었는데….

희진      그때, 종주할 때, 세석평전을 향해 가는 길이 정말 힘들었잖아. 긴  
계단을 겨우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네가 그랬잖아. (석준을 흉내  
낸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지금보다 훨씬 힘들지 모르지만 너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 줄 테니까 나를 지켜봐줘’(웃음) 그러면서 네가  
고백했잖아.

석준      에이 그렇게 느끼하게 얘기는 안 했다.

희진      완전 오글거리게 느끼했거든.

석준      그것만 기억해. 하나의 추억이 더 있잖아.

희진      뭐?

석준      칠선봉 소나무 밑에서… 너 똥 썼잖아.

희진      야~! 이게 죽으려고….

희진이 석준의 옆구리를 꼬집는다.

석준      아야~! 아야~! 놔! 놔! 잘못 했어. 잘못 했다니까

희진      그 얘기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지. 3킬로를 더 걸어가야 산장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었잖아.(세계 꼬집는다)

석준      알았어. 알았다니까. 다시는 너 똥 쓴 얘기 안 할게.

희진      하지 말라니까.(더 세계 꼬집는다)

석준      미안해. 미안해. 안 할게. 정말 다시는 안 할게.

희진이 석준의 옆구리를 꼬집던 손을 놓는다. 석준은 아픈 옆구리를 만진다.

석준 아~ 아프다. 정말 아프다.

희진 남자가 그걸 못 참니?

석준 옆구리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 그때 스물일곱 이었는데 벌써 서른둘이 됐네. 지금쯤 우리의 목적지 도착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데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희진 갑자기 심각해지냐?

석준 희진아!

희진 어?

석준 안 물어봐~?

희진 뭘?

석준 오늘 합격자 발표 날인데...

희진 하나도 안 궁금하다. (사이)석준아 나는 솔직히 정규직 합격했다는 얘기보다는 결혼하자는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

석준 아직 준비가...

희진 준비가 뭐가 필요해? 지금 우리는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더 큰 행복을 위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도 몰라.

석준 뭐가 행복하냐? 비정규직에 당장 신희집도 마련할 수 없지.

희진 지리산 종주 끝내고 내려오면서 네가 뭐라고 했어? 정상에서의 기쁨은 종주의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석준 산에 오른 것 하고 우리 결혼생활이 같을 수 없잖아.

희진 뭐가 달라. 우리는 지금 행복이라는 정상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씩 오르고 있는 거야. 언젠가는 정상에 도착할거라고.

석준 내가 비정규직인데도 괜찮아?

희진 어 괜찮아.

석준 내가 당장 집을 마련하지 못 해도 괜찮아?

희진 괜찮다니까. 지금 우리가 7부 능선을 오르고 있는지 5부 능선을 오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로 손 꼭 붙잡고 오르면 되는 거잖아.

석준 원룸에서 출발할 수 있겠어?

희진 아니. 그렇게는 못 하겠어.

석준 거봐. 너도 원룸에서는 멈치하잖아.

희진 그게 아니고. 너네 집으로 들어가서 예쁜 며느리로 귀여움 독차지 하면서 출발할거다.

석준 우리 엄마 생각보다 무섭다. 시어머니 노릇 톡톡히 할 텐데.

희진 이 며느리는 그 또한 행복을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감내하겠나이다.

석준 너 정말 괜찮겠어?

희진 서방님. 소녀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나이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약속했던 청혼을 하시지요.

석준 무슨 약속?

희진 야! 청혼할 때 산 정상에 올라가서 소리친다고 했잖아. 이번 주에 관악산 정상에서 청혼해라. (일어서서) 의자가 산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연습한번 해봐.

석준 사람들도 지나가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

희진 일요일에 관악산은 사람이 없냐? 나 마음 변하기 전에 지금 연습해라. 자! 의자에 올라가.

석준은 망설이다가 일어나서 벤치에 올라가 희진을 향해 선다.

희진 손을 흔들어야지.

두손을 번쩍 들고 희진을 향해 천천히 흔든다.

희진 더 세게 흔들어야지.

석준은 희진을 향해 속도를 높여 양팔을 힘껏 흔든다.

- 희진     이제 약속된 대사를 해야지.  
석준     (작은 목소리) 희진아 사랑해.  
희진     (웃으며) 더 크게 해야지.  
석준     (두 손을 흔들며 큰소리로) 희진아! 사랑해! 희진아! 고마워! 희진아!  
          나와 결혼해줘!  
희진     (벤치에 올라가 석준이를 말리며) 야! 조용히 좀 해. 정말로 크게 하면  
          어떡해.  
석준     희진아! 내 곁에서 항상 웃어줘서 고마워.  
희진     너두 힘들면서 늘 웃어 주잖아. 나두 고마워. 눈 감아봐.  
석준     왜?  
희진     눈 감아 보라니까.

석준은 눈을 감는다. 석준에게 키스를 하듯 천천히 다가가는 희진은 석준의 얼굴 가까이에서 와서 석준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도망친다. 석준이 눈을 뜨고 희진을 붙잡으려 한다.

- 석준     야! 신희진! 또 손으로 한거야?  
희진     (도망치며) 아니야! 내 입술이야.  
석준     (희진을 따라가며) 핸드크림 냄새 다 나거든.  
희진     (웃음) 알고 있었어.

희진이 도망치다가 벤치에 올라서고 석준도 벤치에 올라가 희진을 붙잡고 희진에게 키스를 하려고 천천히 다가간다.

천천히 압전. 막.

# 특선



전북 완주군  
정 선 옥



## 수상소감

현대의 삶은 삭막하고 차갑고 이기적이다. 다른 사람과 섞이려 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상에서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 한다. 자신만이 혼자인 것처럼 느끼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자기 방어적으로 과잉행동을 하고 이야기를 독식하려 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유약하고 병이 있는 현대인들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에 따뜻한 찜질방과 위로와 용서의 사연이 있는 귀신사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금 꿈을 찾고 꿈을 꾸게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 어느 날 우연히, 찜질방

## 시놉시스

짜가지 No는 서른다섯 노처녀로 직장에 다니다 잘리고 남자친구에게 차이고 가진 것도 없고 어느 추운 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우연히 숲속 찜질방을 가게 된다.

찜질방에는 무엇이든 아는 공박사, 갑질하는 갑질 Yellow, 간섭쟁이 수다스런 허당 Orange, 달관한 수염의 천도사가 있다.

짜가지 No는 찜질방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가 갑질하는 Yellow의 자리 뒷세에 밀리며 한쪽 자리로 옮겨가고 허당 아줌마의 온갖 수다에 넘어간다. 급기야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에 어울리게 되는데 허당 아줌마는 팔자 좋은 아줌마로 돈이 많지만 자신이 안 아픈 데가 없다면서 곁이 말짱하다고 속까지 멀쩡한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병을 하소연한다. 이때 천도사가 신통력이 있다고 하자 자신만 낮게 해주면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고 한다. 천도사는 화석으로 안마를 해주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며 또한 말로도 위로를 준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다 구들장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 키작은 땅콩할매를 만난다. 땅콩할매는 찜질방에서 일하는 할머니로 숲속 찜질방에서 먹고 자며 지낸다. 그런데 그 할머니와 짜가지 No는 시골에서 한 동네에 살았던 사이다. 짜가지는 땅콩할매니가 왜 이곳에 있냐며 놀란다. 이때 허당이 땅콩할매에게 자식이 있냐고 묻고 할머니는 울며 밖으로 나간다. 사연인 즉, 할머니에게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주 추웠던 3년 전 겨울에 서울에서 자살로 죽었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그 후로 추운 것이 무서워 찜질방에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땅콩할매의 사연을 듣고 위로를

준다. 이때 천도사가 찹질방 입구에 있는 귀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옛날에 두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큰아들네 집에서 일만 하다 두들겨 맞아 죽었고 다시 아들네 집에 귀염을 받고자 개로 태어났는데 다시 부엌에서 밥을 먹다가 두들겨 맞아 죽어 아들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 에미다”라는 말을 한 뒤로 두 아들이 잘못을 크게 뉘우쳐 죽은 개를 안고 명당을 찾았는데 그것이 지금의 귀신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구자를 써서 구신사였는데 그것이 귀신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그 불효막심한 아들이라고 지금은 회계를 하며 살고 있다고 말한다.

천도사는 땅콩할매에게 자신이 할매의 아들이 되겠다고 말하며 안마를 해준다. 땅콩할매는 그 따뜻한 위로에 오열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싸가지 No도 잠시지만 자신이 죽음에 대해 떠올렸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을 한다. 갑질 Yellow는 갑질하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 모두 뺏기는 세상에서 방어만 하고 살아왔지만 갑질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이 과정에서 깨닫는다. 허당 Orange는 수다스러움이 자신이 부족한 것에 대한 외로움 때문이었는데 위로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우연스러운 찹질방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찹질방을 통해 함께 수다스럽게 어울리면서 따뜻함이 주는 위로가 큰 것을 깨닫고, 찹질방을 나와 별을 보고 자신들의 소원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귀신사 종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을 스스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며 막이 내린다.

## 작가 의도

현대의 삶은 삭막하고 차갑고 이기적이다. 다른 사람과 섞이려 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상에서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 한다. 그리고 자신만이 혼자인 것처럼 느끼는 세상이다.

자신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자기방어적으로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고 갑질을 하고 이야기를 독식하려 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유약하고 병이 있는 현대인들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자살하고 싶은 젊은 여인 싸가지 No는 젊은 나이에 이것저것 이를 것이 많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자신이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절망적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연히 찜질방을 찾게 되었는데 따뜻한 것이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크다.

찜질방에서 만난 갑질하는 Yellow와 수다쟁이 허당 Orange는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약한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의 사주를 봐주는 천도사라는 사람은 실제 자신의 삶을 잘못 살아온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사람이다. 공도사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이곳저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으나 실제로는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고학력자들의 설 자리가 없는 세상의 반영이기도 하다.

특히 귀신사라는 실제 절의 스토리를 이야기 속에 녹여서 땅콩할매의 슬픈 삶에 위로가 되고자 하였다.

찜질방의 따뜻함과 귀신사의 위로와 용서를 바탕으로 다시금 꿈을 찾고 꿈을 꾸게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 차례

- 여는마당    숲가마 찜질방은 따뜻한 세상
- 제1장       갑질 세상, 차가운 세상
- 제2장       차가움 녹이는 허당 Orange
- 제3장       땅콩할매의 슬픈 사연
- 제4장       귀신사와 불효자 천도사
- 제5장       귀신사 종소리에 별이 되는 사람들

닫는마당 어느 날 우연히 짬질방에 가게 된다면

### 등장인물

갑질 Yellow

싸가지 No

허당 Orange

천도사

공박사(알 수 없는 Black)

땅콩할매

### 여는마당 솥가마 짬질방은 따뜻한 세상

무대 한쪽에 ‘전통솥가마짬질방’이라는 간판이 있고 다른 한쪽 구석에 ‘귀신사’ 팻말이 있다. 무대 중앙에는 둥근 원형의 황토짬질방에 사람들이 양머리 수건을 쓰고 짬질방 옷을 입고 앉아서 수군거리다 음악 나오면 뛰어 나오며 구들장송을 부른다.

### no. 1 구들장 찬가

합창      추운 겨울, 뜨끈뜨끈한 구들장 세상을 알아요?  
            구들장에 누워 보면 세상 모든 슬픔들 녹아버려요  
            슬픔은 차가워요 슬픔은 얼음과 같아요  
            슬픔은 마음을 열리죠 마음을 감기 듣게 하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마음이 슬퍼요  
            슬픔은 마음을 열리죠 마음을 감기 듣게 하지요

구들장에 누워 보면 세상 모든 슬픔 녹아요 외로움이 녹아요  
찜질방을 아세요 뜨끈뜨끈 군밤 같은 찜질방  
찜질방을 아세요 뜨끈뜨끈 호빵 같은 찜질방

허당 Orange 하핫, 이런 게 찜질방의 매력이지  
갑질 Yellow 그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찜질방 멤버 아니겠어?  
허당 Orange 자아, 우리 이제 찜질을 시작해 볼까?  
갑질 Yellow 좋아, 우리 같이 들어가자.

어두워진다.

## 제1장 갑질 세상, 차가운 세상

찜질방에 남자 둘, 여자 하나가 수건을 머리에 쓰고 땀 흘리는 포즈를 취하며 있다. 이때 문은 없지만 아가씨 하나가 문이 있는 것처럼 문을 밀고 살짝 들어온다. 조심스럽게 안을 살피며 들어온다.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로 들어가 앉는다.

싸가지 No (뜨거운 열기에 놀라며 혼잣말) 아이, 뜨거워. 이렇게 뜨거운데 사람들이 많네. 사람들이 모두 조용하니까 나도 조용히 앉아 있어야지.

이때 양머리 아줌마 하나가 들어온다. 싸가지 노를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포즈를 취한다.

- 갑질 Yellow    아가씨, 거기는 내 자리니까 비켜주세요.(비키라는 손짓을 한다)
- 싸가지 No      (당돌한 목소리) 여기에 아줌마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여기에 앉고 싶어요. 제가 왜 비켜야 하는데요? 빈자리라서  
제가 앉은 거예요. 아주머니는 옆 자리가 비었으니 거기 앉으시면  
되겠네요.
- 갑질 Yellow    어허, 이 아가씨가 여기 룰을 잘 모르시네. 거기! 그 딱 가운데  
자리는 바로 내 자리라고. 내 자리! 여기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라구.
- 싸가지 No      아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 공박사          그럼, 그런 법은 없지. 하지만 이곳에선 갑질 Yellow 씨를 이길  
사람이 없으니 아가씨가 그냥 양보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냥  
양보해.
- 천도사          아가씨, 그냥 옆자리로 앉는 것이 명에 좋아. 안 그러면 명을  
재촉하게 될 걸.
- 싸가지 No      아니,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에 있어요?

## no.2      갑질 세상, 차가운 세상

- 싸가지 No      갑질 세상의 끝은 어디에 있을까?  
세상은 참으로 냉혹하네  
갑질 세상에서 갑은 언제나 왕처럼 군림하지  
을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갑질이 얼마나 마음을 작게 만드는지  
갑질을 당하면 난 어느샌가 먼지보다 작아지지  
어느샌가 보잘것없는 발바닥 인생이 되지

갑질 세상, 차가운 세상 난 살고 싶지 않네

싸가지 No 그래서 내가, 세상의 갑질을 피해 찹질방으로 도망 왔는데 이곳에도 갑질이 있다니, 아, 내가 편하게 있을 자리, 내 한 뼉의 편한 자리를 찾는 것은 진정 어려운 일일까?

싸가지는 한숨을 쉬며 구석 자리로 옮겨 앉는다. 갑질 가운데 앉는다. 이때 오렌지색 양머리를 한 아줌마가 하나 들어온다.

허당 Orange 아이, 따뜻해. 역시 찹질방은 이 느낌이야. 모피를 아무리 입어도 이런 느낌이 없단 말이야. 속까지 따뜻하게 녹이는 이런 느낌. 바로 찹질방이지. 하핫, 나는야 찹질방 여사님.(약간 오버하는 포즈)

갑질 Yellow 아이, 시끄러. 그냥 앉으시지 그래.

허당 Orange 호호, 미안해요. 따뜻하니 기분이 좋아서 말이죠.

허당 오렌지는 앉으려다 갑질 옐로우를 보더니 이리저리 살피다가 이는 사람을 발견한 듯 갑자기 호들갑스럽게 말을 건다.

허당 Orange 어땀, 너 혹시 말자 아니니? 고별여고 3학년 5반 박말자! 맞지? 하핫, 맞네. 맞아.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갑질 Yellow (난감해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며 조용히 하라며) 아, 너로구나. 미숙이. (귓속말로) 애애, 나 이름 바꿨어. 촌스런 말자가 뭐니? 난 지금은 우아한 예은이야. 예은이.(허당의 입을 막는다.)

허당 Orange (갑질의 손을 치우며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하핫, 이름이 뭐가 중요하니? 아, 반갑다. 반가워. 넌 더 이뻐졌구나.

- 갑질 Yellow 호호, 내가 원래 한미모하잖니.
- 허당 Orange 그러게. 네가 한미모하는 바람에 내 남자친구도 뺏어 갔잖니?  
그래, 그 남자친구랑은 잘 사니?
- 갑질 Yellow 그게 언제 적 이야기라고 그러니? 다, 지난 과거야. 과거.  
난 지금은 편하게 사는 돌싱이지. 돌싱!
- 허당 Orange 돌싱? 넌 역시 언제나 능력쟁이야.
- 갑질 Yellow 그나저나 너무 덥지 않니? 우리 잠깐 나가자. 저기 모닥불을 쪼면서  
이야기 좀 하면 좋겠어. 거기 아가씨? 너무 덥지 않아? 우리 같이  
나가자.
- 싸가지 No (쌀쌀맞게) 아니, 전 여기 좋아요. 먼저 나가세요. (터운 듯 손으로  
부채질하며 혼잣말) 덥긴 덥네.
- 갑질 Yellow 뭐얼, 이미 얼굴이 빨갛고 땀에 폭 절었는데. 이만 나가자, 나가.  
저기 남정네들도 같이 나갑시다.

갑질은 싸가지를 이끌고 나가자고 하며 일어서고 모두 일어나자 어두워진다.

## 제2장 차기움 녹이는 허당 Orange

모닥불 주위로 사람들 하나둘 앉는다. 공박사는 모닥불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불길을 세운다. 모닥불 불빛은 조명을 이용해 만들면 좋다.

- 갑질 Yellow 자아, 자아. 어서 모여 봅시다. 뜨끈뜨끈, 좋다, 좋아.
- 싸가지 No (짜증스럽게 혼잣말) 혼자 있고 싶은데 이곳도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건가? 갑질 아줌마나 허당 아줌마는 수다스럽고, 저  
수상스런 남자들은 뭘까? 아, 짜증나. 더군다나 어깨도 아프고

피곤하고...

싸가지 노가 자신의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스트레칭을 연신 해대자 갑질 아줌마가 당장 옆으로 바짝 다가와 앉는다.

갑질 Yellow 아이고, 아가씨. 어깨가 아프시구나. 아픈 어깨는 부황이 제일이야. 내가 부황 떠줄까? 그거 하면 아픈 데가 싸악 나아 버려.

싸가지 No (거절의 손짓을 하며) 괜찮아요. (혼잣말) 흥, 아까 뭐라 할 때는 언제고 웬 친절이람?

갑질 Yellow 하핫, 어이, 싸가지. 다 들려. 아까는 미안해. 내가 말이지, 여기 아니면 갑질할 데가 있어야 말이지.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뭐라 들고... 밖에서는 젊은 여자한테 서방 뺏겼다고 괘시 받으니 내가 어디 나설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 찜질방에서만 내 자리 뺏기지 말아야지, 하는 거야. 이쁜 싸가지가 이해해.

허당 Orange 네 남편을 젊은 것이 뺏어 갔구나. 어떻게 하나? 그래도 네가 더 이쁘니까 이쁜 네가 이해해라.

갑질 Yellow 친구인 네가 좋긴 좋다.

허당 Orange 그런데 이런 부황을 하면 뭐가 좋아지니?

갑자기 공박사 앞으로 끼어들며 말을 하려고 한다.

갑질 Yellow 하핫, 역시 뭔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 공박사님이 출현하지. 여기 공박사로 말할 것 같으면, 예또.. 그러니까..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정확히 아무도 없으나!

허당 Orange 없으나?

- 갑질 Yellow    공박사가 모르는 것은 없다는 말씀. 그리고!
- 허당 Orange    그리고?
- 갑질 Yellow    아줌마들하고 수다 떠는 게 인생의 낙이라나 뭐라나!
- 허당 Orange    하하, 알았어, 알았어. 어디 공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
- 공박사        (박사님 인상의 안경을 쓰고 있으며, 이야기를 할 때면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한다. 목소리는 빠르다.) 부항이라는 것은 피부에 압력을 줌으로써 몸 안의 노폐물과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피를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체내 독소 배출 효과에 아주 좋아요.
- 갑질 Yellow    우리 공박사는 역시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 내가 공박사를 좋아하지
- 공박사        부항을 한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거나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어 체내 장기기관들이 좋아지는 효능을 보여주는 거죠.
- 허당 Orange    와, 정말 놀라운 공박사네.
- 공박사        (눈치 없이 계속 빠른 말투로) 습식 부항과 건식 부항을 설명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기구만 사용하는 것이 건식 부항이고 피를 빼주는 것이 습식부항이지요.
- 갑질 Yellow    아이, 머리 아파. 공박사는 그것이 문제야. 늘. 너무 길어. 설명이. 딱 1절만 하라니까.
- 공박사        (천도사를 가리키며) 근데 뭐니뭐니 해도 우리 천도사의 안마가 제일이긴 해요. 손으로 하는 안마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죠.
- 천도사        (화석이라는 돌맹이를 들고 앞으로 나서며) 내가 안마를 해주면 모든 병이 다 낫지.
- 허당 Orange    정말? 다 나아?

천도사        이것이 바로 화석이라는 것인데. 화석 알아?  
공박사        화석은 화산이 폭발했을 때 생긴 것으로, 이것이 조금만 압이 더  
                  해지면 다이아몬드인거지.  
천도사        이게 그 화석인데, 이 돌에는 정기가 있어 이 돌로 주무르면 아픈  
                  데가 다 낫지. 자, 싸가지 아가씨 어깨 좀 대봐요.  
갑질 Yellow    대봐. 대봐. 낫는다잖아.  
싸가지 No     (어이없어 하며) 아니, 괜찮아요. (짜증스런 혼잣말) 이 무슨  
                  참견이람?

허당이 갑자기 천도사 앞으로 가서 등을 내민다.

허당 Orange    정말? 그럼 나 좀 낫게 해줘요. 나만 낫게 해주면 내가 뭐든 다  
                  해주겠어.  
갑질 Yellow    왜 멀쩡해 보이는데 어디가 아픈 거야?  
허당 Orange    내가 어디 안 아픈 데가 있는 줄 아니?  
천도사        이쪽으로 오세요. 이 돌이 만병통치약이에요.  
허당 Orange    (등을 더 들이밀며) 제발 나 좀 낫게 해줘봐. 난 안 아픈 데가 없어.  
                  동맥경화지, 당뇨병이지. 팔다리 삭신 안 아픈 데가 없다니까.  
갑질 Yellow    아파서 어떻게 하나? 그런데 안 아파 보이는데?  
허당 Orange    내가 겉으로만 그래. 아파 보여야 하는데, 안 아파 보이니까 그게  
                  문제야. 그리고 또 문제는 내 아들이 한의사라는 거야. 의사들은  
                  가족들한테는 다들 엉터리거든.  
갑질 Yellow    네 아들이 한의사야? 그럼 아픈 데 있으면 아들한테 가보면 되겠다.  
허당 Orange    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 의사가 가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없는  
                  병도 만들어 말쑥한 사람도 환자를 만드는데... 가족들에게는

웬만하면 괜찮다고 한다니까. 아, 글썄 나도 온몸이 다 아픈데 쉬면 낫는다고 하는 거야... 나는 늘 쉬는 것이 일인데.

갑질 Yellow 그럼 텃발을 한번 해보지 그러니?

허당 Orange 그래, 텃발이 좋긴 하지. 당장 텃발을 사서 텃발을 일켰지. 재밌더라. 그런데 텃발을 가꿀 때는 몸이 안 아픈 거야. 그래, 이거다, 라고 했는데 밤에 집에 오면 다시 발일 했다고 온몸이 아픈 걸 어떡해.

갑질 Yellow 팔자가 좋아서 아픈 거는 답이 없어. 답이.

천도사는 허당의 어깨를 화석으로 문지르며 정성으로 안마한다.

허당 Orange 아이구, 시원해. 몸이 다 낫는 것 같아. 천도사. 내가 얼마 주면 되겠어? 나만 낫게 해주면 내가 차라도 사줄게.

공박사 아이고, 큰일 날 말씀. 우리 천도사는 그런 거 절대 안 받아요.

갑질 Yellow 천도사는 돈을 벌려고 하면 한참 벌 텐데 아깝다, 아까워. 다 좋은 데 왜 돈을 안 받는 거야.

공박사 우리 천도사는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해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철학자 출신이니까 병 낫게 해주는 것은 천도사의 운명이야.

천도사 공박사의 말은 과장이고... 이곳 찜질방에 오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서 오는 사람도 많지만 마음이 얼음장 같이 차가워서 금방 죽고 싶은 사람들이 간혹 오기도 해.

갑질 Yellow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

천도사 그럴 때는 내가 그 마음에 훈기를 좀 주지. 사람은 마음이 얼음장 같이 차가워지면 죽을 수도 있거든.

싸가지 No (일어서서 먼 곳을 바라보며 혼잣말)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금방 죽고 싶은 사람? 바로 나네. 내 마음도 혼기를 얻을 수 있을까?  
아, 내 마음은 이렇게 차가운데... 나처럼 차가운 사람들이 또 있는  
걸까?

허당 Orange    그래, 그거야. 내가 맨날 아파서 죽겠단니까. 근데 아들이  
한의사라고 맨날 용든 약을 먹이니까 감기가 안 걸리는 거야.  
감기가 안 걸리니까 어디 아픈 데라고는 하나도 없고. 안 보이게  
아프니 이 심정을 대체 누가 아냐 말이야? 천도사, 제발 부탁이니  
아픈 몸 좀 낫게 해줘.

천도사         아픈 것도 내 운명이려니 하고 갖고 살아. 허당 아줌마는 낫지  
못해. 팔자가 너무 좋아서 생긴 병이니 허당이 아프지 않으면 다른  
일이 안 풀릴 테니 가족들에게 허당 덕분에 잘 사는 줄이나 알라고  
해.

허당 Orange    맞아. 맞아. 내가 그렇단니까. 역시 우리천도사가 신통력이 있기는  
있구나. 이제 그만 됐어. 저 어깨 아픈 싸가지 아가씨도 좀 해줘야  
하는데.(손으로 천도사를 밀어내며 혼자 서 있는 싸가지에게  
다가간다.)

갑질 Yellow    아이, 이제 모닥불도 쪼갰고 구들장에 좀 가보면 어떨까요?

공박사         좋지, 구들장에 지저야 제대로 찜질방이지. 자아, 갑시다.

허당 Orange    (싸가지의 손을 이끌며) 같이 가, 아가씨.

싸가지가 허당의 손에 이끌려 나가자 나머지도 일어나며 어두워진다.

### 제3장         땅콩할매의 슬픈 사연

구들장은 찜질방과 같은 곳이지만 구들장이라고 팻말을 하나 세워서  
구들장임을 표현한다. 구들에 사람들이 다시 열을 지어 앉는다.

- 허당 Orange (천도사 옆으로 이끌며) 싸가지, 옆으로 와서 앉아. 괜찮아. 아파 죽겠을 때는 그냥 맡겨보는 것도 방법이야.
- 싸가지 No 흥, 괜찮다니까 그래요. 상관하지 마세요.
- 갑질 Yellow 호호, 싸가지. 맘에 든다. 일관성 있어. 그게 원래 살기 힘들면 가시가 돋는 법이야. 싸가지가 저렇게 가시를 세우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 싸가지 No 그렇게 남의 일 상관하니까 아줌마라고 하는 거예요.
- 갑질 Yellow 그럼 당연하지. 그게 아줌마 매력이지. 나도 사실은 여기 빼놓고는 한 마디도 못해. 갑질이 내 소원이야. 하하. 내 갑질은 아주 짧게. 잠깐이야.
- 허당 Orange 학교 다닐 때 갑질은 잘난 척 다 하더니 많이 죽었네. 하하. 그게 좋아.
- 갑질 Yellow 나도 싸가지처럼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가시가 있기 때문이야. 가시를 버리면 세상이 얼마나 느긋해진다고.
- 허당 Orange 우리 말자가 속 깊은 소리를 하네.
- 갑질 Yellow 그러니까 싸가지, 옆으로 와서 등을 돌려봐.

갑질은 싸가지를 옆으로 이끌며 천도사가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싸가지는 얼결에 마사지를 받게 되고, 처음엔 거절할 듯이 거절하지만 점점 누그러진다.

- 싸가지 No 아, 따뜻하고 좋아. 모든 것이 다 녹아드는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맡겨도 되는 걸까?(거부하려다가 그대로 마사지를 받는다.)
- 갑질 Yellow 싸가지가 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역시 천도사 손은 약손이야.
- 땅콩할매 (들어오며) 음료 주문 받아요.

갑질 Yellow (손짓을 하며 가까이 오라 한다.) 땅콩할매, 어서 와. 그렇잖아도 시원한 커피라도 마시려 했지

허당 Orange 땅콩할매?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주문을 받아봐. 오늘은 내가 다 살 테니까 한번 시켜봐.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삼겹살이라도 어때?

갑질 Yellow 역시 허당은 인심도 후해. 이런 거 보면 참 좋다니까.

땅콩할매 뭐로 준비할까요? 커피, 오미자, 식혜, 매실... 어떤 거?

허당 Orange 골고루 갖다 주세요. 여기 사람들 모두 1인당 하나씩.

땅콩할매 잠시 지들려요. 곧 갖고 올팅게.(나간다.)

땅콩할매 나가고 허당은 싸가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허당 Orange 그래, 어깨가 아프구만. 직장 다니는 거야?

싸가지 No (대답 안하려고 머뭇거리다가) 예... 직장 다녔는데 지금은... 잠시 그만 됐어요.

갑질 Yellow 아, 그러니까 잘린 거구만.

싸가지 No 아, 아니에요. 그런 건.(작은 목소리)

허당 Orange 그럼, 애인은 있어?

싸가지 No 사실 지난주에 남자친구랑도 헤어졌어요. 저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내 친구랑 결혼했어요. 아, 믿을 사람도 없고... 제가 갈 곳이 없네요.

갑질 Yellow 괜찮아, 괜찮아. 세상에 남아도는 게 남자들이야. 이쁜 나도 배신당했지만 널리고 널린 게 남자들이니까, 안 되면 여사친이라도 좋아. 여자사람친구라고. 여자인 친구가 얼마나 좋은데.

허당이 싸가지를 쓰다듬는다.

- 허당 Orange 천도사,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해봐. 우리 싸가지가 마음이 출대잖아.
- 천도사 속 쓰리고 마음 추운 것은 시간이 흘러야 해요. 봄은 언제나 우리들 곁에 있고 추울 때는 잠시 멀리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벌써 땅 속에서 보리들이 자라는 것처럼 봄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 허당 Orange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간드러지게 한 대목 뺏으려다 그만 둔다)
- 갑질 Yellow 봄이 왔다고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봄이 와야 세상이 봄인 거지. 어쨌든 따뜻하게 하고 있으면 봄이 저절로 성큼 온다니까. 마음이 추울 때는 이렇게 뜨끈한 구들장이 제일이야.
- 허당 Orange 맞아. 우리가 옛날에 밖에서 친구들과 싸워서 눈물 흘리며 들어와도 뜨끈한 아랫목에 발을 담그면, 엄마가 손을 잡아서 아랫목에 손을 넣고 주물러 주면 세상 근심이 모두 녹잖아. 여기 찹질방이 그런 곳이야. 봄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지는 거야.
- 싸가지 No 아랫목... 엄마... 아, 엄마...(몰래 눈물을 훔친다.)
- 허당 Orange (싸가지를 토닥이며) 그래... 좀 울고 나면 괜찮아져. 세상이 그런 거지.
- 땅콩할멈 (음료를 가져와 살짝 놓으며) 잘 잡좌요. 시원하니 좋아.
- 허당 Orange (일어서며 나가려는 땅콩할멈 손을 잡고 앉히며) 땅콩할멈, 잠시 여기 쉬었다 나가. 밖에 나가면 심심하잖아. 뭐 찾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리 들어와 찾을 거야. 찹질방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 급하니까 여기에 좀 있어도 돼.
- 땅콩할멈 (손을 물리치며) 아니, 그냥 나가서 쉴라요.

싸가지 노는 고개 들어 땅콩할멈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선다.

- 싸가지 No 할머니, 저 싸가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어디론가 가셨다고 걱정하셨어요.
- 땅콩할멈 (싸가지를 알아보고 당황해 하며)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직장 잘 다닌다고 엄마가 칭찬해 쌓드만.
- 싸가지 No 예, 제가 요즘 직장을 그만 뒀어요.
- 허당 Orange 아, 그러니까 땅콩할멈이랑 싸가지 노랑 같은 동네였구만. 그래 할멈은 자식이 있수?
- 땅콩할멈 자식?(다음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이며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간다.)
- 허당 Orange 싸가지, 땅콩할멈이 왜 울면서 나가?
- 싸가지 No 에구, 왜 자식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 허당 Orange 내가 뭘 알았나? 왜? 자식이 문제 있어?
- 싸가지 No 땅콩할머니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좀 망나니인 거예요.
- 갑질 Yellow 망나니? 속계나 썩었겠구먼.
- 싸가지 No 할머니는 아저씨가 일찍 돌아가시고 늦둥이 아들을 금이야 옥이야 키웠는데 아들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서울에 가서 직장을 다녔는데 허구헌날 술만 마시고 사기를 당해서 툭하면 할머니에게 와서 돈 내놓으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들 욕했어요.
- 허당 Orange 아니, 그런 놈이 있어? 어머니가 지를 키워준 것만 해도 어딘데, 어머니를 그렇게 홀대하다니, 그런 나쁜 놈들은 감옥소에서 다 잡아가야 한다니까.
- 싸가지 No 그런 말 땅콩할머니에게 하면 할머니가 속상해 해요. 사실 원래는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아들이 추운 겨울에 혼자

자살한 거예요. 그것도 그 겨울 가장 추운 날에. 그래서 할머니는 추운 것을 가장 무서워했어요.

갑질 Yellow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먼.

싸가지 No 그런 할머니가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아마도 추위가 무서워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사실 몸이 추우니까 절망적이 되어서 이곳에 온 것이거든요.

공박사 따뜻한 것이 위로가 되지.

### no.3 따뜻한 것의 위로가 필요해

싸가지 No 추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연이 있다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계절은 왜 겨울이 많을까  
추운 날에 이별을 해본 사람은 알지  
그것의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합창 따뜻한 것들은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하네  
우리들은 쓸쓸할 때 따뜻한 것을 떠올리지  
군고구마, 찌빵, 목도리, 아랫목  
따뜻한 것의 위로가 필요한 날엔  
군고구마, 찌빵, 목도리, 아랫목

싸가지 No 추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연이 있다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계절은 왜 겨울이 많을까  
추운 날에 이별을 해본 사람은  
군고구마, 찌빵, 목도리, 아랫목의 목메인 슬픔을 안다네

따뜻한 위로 따뜻한 위로  
 우리 함께 따뜻한 것들을 떠올려 본다네  
 우린 사랑하는 너를 떠올릴 때 가장 따뜻하다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가장 따뜻하다네

#### 제4장 귀신사와 불효자 천도사

- 천도사 땅콩할때가 이곳에 왜 온 줄 알아? 바로 옆에 있는 귀신사 때문이지.
- 갑질 Yellow 귀신사요? 맞아요. 여기 들어올 때면 귀신사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귀신 나올 것만 같아요.
- 공박사 귀신사란, 그 귀신사가 아니요. 돌아갈 귀, 믿을 신. 믿음에 귀의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요.
- 천도사 아, 그건 공박사가 다를 모르는 말이요. 들어 보시오. 귀신사 사연을.
- 허당 Orange 귀신사 사연이란 것도 있어? 신기하네. 나는 귀신이 사는 절인가 했지.
- 천도사 옛날에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지. 그런데 그 아들들이 모두 불효를 하는 거야.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네 집에 살았지. 먼저 큰아들네 집에 가서 사는데 이 큰아들이 망나니라 어머니는 큰아들네 집에서 일만 하다 두들겨 맞아 죽었다네.
- 허당 Orange 아니, 그런 몫쓸 놈이 있어?
- 갑질 Yellow 저런, 저런. 죽일 놈이 있나?
- 천도사 어머니는 억울해서 이번엔 강아지로 태어나서 귀염을 좀 받으려고

했지. 그런데 부엌에서 밥을 먹다 이번에 작은 아들한테 맞아 죽었네.

허당 Orange 아이구, 이를 어찌.

천도사 이 어머니가 죽고 보니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두 아들의 꿈에 나타나서는 내가 네 에미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지. 그때서야 아들들은 자신의 불효를 뉘우치고 죽은 개가 자기네 어머니인 것을 안 거지.

허당 Orange 잘못을 뉘우치긴 한 거네. 그 어머니 불쌍해서 어찌.

천도사 두 아들은 반성하고 개를 껴안고 명당자리를 찾았는데 지금의 귀신사 터가 그 자리라네.

갑질 Yellow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면.

공박사 귀신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전엔 개구자를 써서 구신사라고 했다가 다음에 귀신사가 되었다고 하지.

허당 Orange 진짜 우리 공박사는 끼어들기 대장이기도 하지만 진짜 모르는 게 없어. 박사여, 박사.

천도사 그런데 그 불효자가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신사 옆 찜질방에 살면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 오시면 이렇게 안마를 해주는 거야.

허당 Orange 에이, 그때 그 시절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사람이요?

공박사 어허, 이분이 바로 도사 아닌가요. 천도사. 시공을 초월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이 사람이 저기 흑석골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관을 했던 분이요. 어디 유명한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국회의원 아버지 묘자리도 봐준 사람이라니까.

갑질 Yellow 우리 천도사가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

땅콩할매가 다시 들어오자 사람들은 모두 일어선다.

- 싸가지 No 할머니, 여기로 오세요. 좀 앉으세요.(땅콩할매 손을 잡아 가운데로 이끈다)
- 천도사 (땅콩할매 곁으로 앉으며) 할매,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그동안 고생했지? 그만 고생해도 돼. 할매, 내가 미안해.
- 땅콩할매 (어려워 하며) 아이고, 천도사님... 뭐 이렇게 미안하게.
- 천도사 어때요? 내 손이 아들 손처럼 좋지요?
- 땅콩할매 (큰소리로 울면서) 엉엉, 내 아들도 이렇게 안마를 잘해줬지. 근디 시상이 얼마나 심들었으면 지가 지 목심을 끊었겠어? 그것도 제일 추운 날 가버렸당게
- 천도사 할매, 슬퍼하지 마. 지 명이 그만큼이니까 죽은 거지. 어쩔 수 없어.
- 땅콩할매 땅을 팔아달라고 했는디... 내가 조금 빨리 팔아줘 버렸을 것인디. 잘못했어. 내 아들 목심하고 머시 더 중허졌어? 엉엉, 내 아들이 그러닝게 시상을 떠버렸당게. 엉엉...

천도사는 땅콩할매의 뒷등을 다독인다. 옆에서 싸가지도 땅콩할매의 손을 주물러 준다. 땅콩할매도 싸가지의 손을 쓰다듬는다.

- 땅콩할매 그려, 넌 왜 이곳에 온겨? 무슨 일 있어?
- 싸가지 No 아니에요. 그냥 마음도 춥고 날도 추워서 잠시 쉬러 왔어요.
- 갑질 Yellow 뭐어, 아까 보니까 아주 죽을 걱정하고 들어온 사람처럼 죽을 상이더만.
- 싸가지 No 사실은, 세상 그만 살고 싶었어요. 직장도 맘대로 안 되고, 애인도 헤어지고 친구들은 모두 시집도 가고 애기엄마도 되고 그런데 난

-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요즘 세상이 어디 살기에 만만해야죠.
- 천도사 어허, 바닥을 기어도 이승이 좋은 법이요. 그리고 사는 것은 모두 위대한 것이라 하지 않소. 힘들어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이라오.
- 싸가지 No 그래도 세상이 희망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 천도사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겨울 중에서 가장 추운 날도 살았는데?
- 공박사 아, 그래. 2018년 겨울, 가장 추운 날은 1월 26일. 영하18도.
- 허당 Orange 하하, 우리 공박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타난다니까. 요즘처럼 무엇이든 잘 까먹는 세상에선 공박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을 거야.
- 갑질 Yellow 왜,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잖아. 뭐든 지식인에게 물어봐. 답을 다 해줘.
- 허당 Orange 하하, 그런데 나는 스마트폰 찾다가 머리가 더 아파. 그냥 모르고 사는 것이 제일 팔자 좋아.
- 천도사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진실이 숨어 있는 법. 가장 춥다는 겨울의 혹한기에도 꽃은 준비를 하고 봄은 천천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 걸어오고 성큼 다가오는 법.
- 갑질 Yellow 우리의 가슴에 꽃이 모두 졌다고 할 때도 세상은 언제나 새로운 봄을 마련하고 새로운 꽃봉오리를 준비하지.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는 꽃봉오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때. 그럴 땐 뜨끈한 구들장을 찾아 봐. 마음이 뜨끈뜨끈하게 녹아내릴 때 꽃봉오리가 피어 봄이 온다니까.
- 싸가지 No 맞아요. 세상이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사실,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땅콩할머니를 보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끈들이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 땅콩할매 아이고, 이 몹쓸 것야. 절대 그런 생각허믄 안 된다. 우리 아들도

내가 뜨끈한 아랫목에 앉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이런  
사단은 안 났을 터디. 서울이 문제여. 구들장 없는 시상.

싸까지 No

할머니, 그래도 힘내세요.

땅콩할매

모진 목숨이 붙어 있어 그러지. 난 아들이 없으니 이것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천도사

(땅콩할매 손을 잡고 진짜 아들인 것처럼) 엄마, 내가 있잖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할매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라  
생각하든 세상에 아들이 어디 하나들이요? 내가 할매 아들 혈계.  
나는 어머니 돌아가시게 한 천하불효막심한 놈이니 할매에게라도  
내가 갚아야지.

#### no.4

#### 마음의 구들장

싸까지 No

인생을 살다보면 회오리바람에 휩싸일 때 있지.  
차가운 인생 찬바람 부는 세상  
한 세상 살아내는 일이  
많은 것들 견뎌내는 거라 말하지만  
그 많은 것들 견뎌내는 일이 우리에게겐  
어렵고 견디기 힘든 일이라네  
춡고 어둡고 외로운 날이면 더 힘들지

합창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있을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마음의 구들장이 필요해  
마음의 구들장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의 구들장과 같아

마음의 구들장이 필요한 날, 몸이라도 따뜻하게 하고픈 날  
내 마음에 가깝게 다가온, 사람 사는 동네 마음의 구들장

허당 Orange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어? 사실 나는 가진 것 많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니 이렇게 시끄럽게 수다나 하면서 살지. 이것은 모두  
마음의 구들장을 찾고 싶은 탓이야.

천도사 허당 아줌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우리는 마음 열린 사람이  
좋은 거지.

싸가지 No 맞아요. 사실 허당 아줌마나 갑질 아줌마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다정하게 들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원래 싸가지가  
없거든요.

갑질 Yellow 싸가지가 없긴 없드만.

싸가지 No 그런데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따뜻해지고 느슨해지고  
이완돼서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천도사 허허, 이것이 바로 찹질방의 매력이겠지.

허당 Orange 자, 우리 더운데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면 어때요? 오늘 같은 날은  
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추운 날은 별이 더 잘 보이는  
법이지.

공박사 날이 추우면 공기가 맑아져 별이 더 선명하지. 세상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주는 것 같아요. 춥지만 별을 더 가깝게  
해주잖아요.

싸가지 No 우리들 가슴에 추운 날, 별들이, 희망이 더 가까운 것은 그만큼  
절실한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기 때문인가 봐요. 우리 어서 별을  
보러 가요.

천도사 지금 바깥으로 나가면 귀신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라서 종이 울릴 거야. 그 종소리를 듣는 것도

## 제5장 귀신사 종소리에 별이 되는 사람들

사람들 짐질방 바깥으로 모두 나온다. 조명으로 별이 쏟아질 듯한 밤을 표현한다. 눈이 덮인 풍경이 살짝 보이도록 한다. 사람들은 별을 바라보며 선다.

갑질 Yellow (별을 바라보며)아, 시원하다.

허당 Orange 이렇게 추운 날, 시원하다니... 사람들은 웃겨.

갑질 Yellow 그러게.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춤대도 따뜻하게 무장한 사람들한테는 안 되는 걸까?

허당 Orange 그럴까? 정말 시원하다. 별도 쏟아지고...

싸가지 No 아, 별이 쏟아져요. 저렇게 많은 별이 하늘에 있다니 놀라워요.

천도사 이곳에서 별을 보면 별들이 말을 거는 것 같아. 내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돌아가시게 하던 시절에, 나는 별들을 볼 수 없었지. 세상에 거칠 것이 없었고 세상에 나만 홀로 별인 듯이 하늘을 본 적이 없었지.

허당 Orange 싸가지 없는 것은 우리 아가씨가 아니고 천도사였구먼.

천도사 나는 예전에 날아다닐 때, 다른 사람의 주머니도 좀 많이 털었죠.

갑질 Yellow 이건 뭐 나쁜 일은 빼먹지 않고 다 했네.

천도사 그래서 별을 받았고 지금은 귀신사 아래서 회계하며 이렇게 천도사로 살고 있지요. 어머니께서 꿈에서 나타나 ‘내가네 에미다’ 라고 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싸가지 No 천도사님 이야기를 듣고 땅콩할머니 이야기를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란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갑질 Yellow 나는 싸가지에게 괜히 갑질을 한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해. 물론 어린 시절에 우리 허당 친구를 왕따시키고 괴롭혔던 일도 물론 미안하네. 하핫, 미안하이.

허당 Orange 처음부터 갑질쟁이, 친구야. 그래도 네 이름이 말자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갑질 Yellow 너, 그러면 내가 다시 갑질한다.

허당 Orange 아니야, 농담이야.

일동 하핫...

천도사 하늘의 별들이 쏟아져요. 우리 소원 하나씩 빌어볼까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갑질 Yellow 그나저나 우리 공박사는 또 어디로 갔지? 공박사는 하여튼 가끔 알 수 없는 Black이라니까. 있는지 없는지,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타나고, 또 나타났다 또 사라지니. 그것도 언제나 말도 없이 그러니 대체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헛갈려.

천도사 공박사는 세상의 부름을 받지 못한 존재감 없는 박사야. 제대로 된 세상을 만나면 언젠가 빛을 볼 거야. 공박사가 꿈을 이루는 세상이 곧 오겠지?

싸가지 No 저도 이곳에서 제 존재감을 찾았는데 공박사님도 곧 존재감을 찾으실 거예요.

갑질 Yellow 사람들에게 봄은 항상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슬픔에 잠겨 있거나 희망을 잃을 때면 진실은 멀리 있고 위로도 멀리 있기 마련이야.

허당 Orange 하지만 우리들 세상 진실을 멀지 않아. 위로도 멀리 있는 것은 아니야.

천도사      밤하늘 별들이 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위로도 사랑도 보이지는 않지만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공도사      (갑자기 나타나며)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면 만날 수 있는 별처럼 손 내밀어 마음을 열면 만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진실은 멀지 않아. 위로도 멀지 않아. 나도 물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지. 세상이 날 찾지 않는다고? No, No... 아니야. 내가 세상을 찾아갈 거야. 내가 필요한 세상을. 그것이 인생.

## 닫는 마당    어느 날 우연히 짐질방에 가게 된다면

귀신사 종소리가 울린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모습이 된다.

천도사      자, 모두 기도해 볼까?

## no.5      귀신사 종소리

합창      귀신사 종소리가 들리는 밤에는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기도를 해봐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응원해요  
진실은 멀지 않아요 위로도 멀지 않아요  
봄은 언제나 새롭게 피어나는 계절  
우리들의 꿈은 늘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기도를 해봐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응원해요  
당신은 정말 멋지고 귀한 사람이예요  
어느 날 우연히 짐질방에 가게 된다면  
어느 날 우연히 귀신사에 가게 된다면

귀신사 종소리 크게 울리며 어두워진다. 끝.

# 입선



전남 순천인안초등학교  
선종수



## 수상소감

희곡을 정말 오랜만에 써 보았습니다.

늘 희곡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막상 컴퓨터 앞에 앉아 희곡을 쓰려고 하면 그 생각들이 제대로 작품으로 제대로 써지지 않아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번에는 희곡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중해서 한 편을 완성해서 세상에 내어 놓았습니다. '끝이 시작이다.'는 말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희곡작품을 통해 세상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아픈 상처들을 계속 보듬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옥고

## 등장인물

창식(20대 후반/남)

김양(30대 초반/여)

분양팀장(50대 초반/남)

부동산 공인중개사(40대 중반/여)

반지하방 집주인/옥탑방 집주인/복부인(50대 초반/여)

남편 (50대 초반/남)

고시원 총무 (30대 초반/남)

## 무대

강남 리버파크모델하우스,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조명이 밝아지면 강남리버파크 모델하우스가 보인다. 넓은 거실이 보이고 왼쪽에는 큰방 오른쪽에는 작은방이 두 개 있고 무대 뒤편에는 아일랜드 식탁과 부엌이 있다. 왼쪽방은 지하방, 오른쪽 첫 번째 방은 옥탑방, 오른쪽 두 번째 방은 고시원과 겸용으로 공간을 사용한다. ‘강남리버파크 당신이 원하는 강남! 한강을 바라보며 차 한잔의 여유를!’이라는 걸개 그림이 뒤쪽 배경으로 걸려있다.

강남 리버파크 모델하우스에 불이 들어온다.

창식 (관객석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저희집 강남리버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33평으로 보시다시피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왼쪽이 부부 욕실을 겸한 큰방, 오른쪽에 방 2개가 있는 4-bay 구조입니다. 또한 남향으로 하루 내내 햇살이 따사롭게 불고 앞뒤 베란다 문을 열면 통풍이 정말 잘 되고, 뒤쪽에는 산이 있어 사계절 내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유유히 한강이 흐르고 있고, 집에서 5분 거리에 지하철이 있어서 교통도 편리합니다. 특화된 공간 설계로 훨씬 기존 아파트 보다 넓어 보이고 드레스룸과 알파룸은 생활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넉넉한 수납공간은 덤입니다. 어때요 저희 집 멋지지 않나요?

창식 (관객들이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자) 아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 집에 사시나 보네요? 강남리버파크는 평당 분양가가 5천이나 넘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다른 일반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마감재도 고급으로 쓰고, 단열재를 다른 아파트 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써서 겨울철 단골인 결로를 방지해 준다니까요. 어때요 저희 집 멋지지 않나요?

관객들 (마지못해 이구동성으로) 네

이때 한쪽에서 듣고 있던 팀장이 등장한다.

팀장 (창식이 흥내를 내면서) 어때요 저희 집 멋지지 않나요? 멋있기는 개뿔. 모델하우스가 멋있으면 얼마나 멋있다고. 그리고 이 모델하

우스가 왜 너희 집이냐? 이 모텔하우스를 내가 전세라도 냈냐?

팀장 야 일이나 제대로 해라. 이번에 우리아파트 분양 완판만 하면 알바비 두둑하게 챙겨줄게. 안내책자에 나온 우리 아파트에 관한 정보 줄줄이 외우고, 고객 응대 확실하게 해야 돼. 알았지? 혹시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정보는 절대 고객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주위를 살피며 창식의 귀를 당기며) 뭘 지하철역에서 내려 15분을 걸어서 가야 하지만(뛰는 시늉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열심히 뛰어 가면 5분인 거리의 초역세권을 줄여서 강 지하철 초역세권이야 알았지? 지하철에서 내려서 15분 동안 땀흘려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면 안돼.

창식 (팀장과 같이 뛰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5분 초역세권 명심하겠습니다.

팀장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한강을 보려면 (고개를 쪽 내밀고 오른쪽을 바라 보면서) 고개를 쪽 내밀고 왼쪽으로 30도 이상 틀어야 하지만 그냥 한강 조망권... 아니 좀 더 좋게 (쇼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흉내를 내면서) 우리 분양 캐치 프레이즈처럼 한강을 바라보는 여유 오케이? 절대 한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고개를 내밀고 봐야 된다는 이상한 소리해서는 안 되는거 알지.

창식 (팀장처럼 쇼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 흉내를 내면서) 한강을 바라보는 여유, 한강 조망권 명심하겠습니다.

팀장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산에 공동묘지가 보이는데 공동묘지가 보인다고 절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공동묘지에 공자도 꺼내지 말고. 대신에 (마치 숲에 있는 것처럼 두 손을 펼치고 숨을 깊이 들이 마시며) ‘숲을 품은 숲세권’이라는 말과 함께 사시사철 청정공기

를 마실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돼.

창식 (팀장을 따라 두 손을 펼치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며) 숲을 품은 숲세권 명심하겠습니다.

팀장 명심해 우리는 100% 분양만 하고 떠나면 끝나. 지하철이 멀든, 한강이 보이지 않든, 뒷산에 공동묘지가 있든 우리는 상관없단 말이 지.

창식 (주눅든 목소리로) 네 팀장님. 지하철 초역세권, 한강을 바라보는 여유, 숲을 품은 숲세권 잘 명심하겠습니다.

팀장 퇴장한다.

장소가 반지하방으로 바뀐다. 모텔하우스 왼쪽 방이 반지하방이다. 반지하방 전면에는 쇠로 된 방범창이 있다. 방 안에는 간단한 부엌이 있다. 어두운 조명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창식

창식 이제 공무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열심히 하자 아자 아자

집주인이 등장한다.

집주인 (문을 열면서) 학생, 밀린 월세 언제 줄 거야. 보증금 다 까 먹은지가 언젠데. 벌써 세 달째 월세가 밀렸어.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 봐 줘. 이번 달 말까지 월세 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 받을 테니 그렇게 알아.

창식 (사정을 하는 목소리로) 아주머니 제가 이번 달 말에 공무원 시험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 한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간절한 목소리로) 네 이번 한번만 사정 좀 봐주세요.

집주인 (통명한 목소리로) 아 봐준 것도 한 두 번이지 벌써 몇 번째야. 나는 뭐 흠 파서 이집 지은 줄 알아. 처음에 서글서글해서 보증금도 깎아 주었더니만 이제 보니 참 못쓰겠네.

창식 (집주인에게 다시 사정을 하며) 아주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집에 손 벌릴 처지도 안 되고, 계속 알바를 했는데 모아 놓은 돈도 다 써버리고 달리 손 벌릴 곳도 없어요. 네 아주머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안돼. 학생 말고도 이 지하방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널려 있어. 내가 뭐 아쉬워서 사정을 봐줘. 안 그래도 학생 이 방에 들어올 때 도배장판 새로 하고 보일러도 새로 고치고 나름 돈 많이 들어갔어. 사정을 봐 주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어떻게 요새 같은 세상에 세 달이나 월세를 안주고 버려. 참 벼룩도 낮짝이 있지. 두말하면 잔소리니 이번 달 말까지 월세 내지 못할 거면 당장 방 빼. 보증금 사정사정해서 깎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집주인 퇴장한다. 창식한테 단독 조명이 비친다.

창식 (지하방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아 대학 합격하고 부모님이 농사지 으면서 없는 돈 끌어서 마련해 주신 반지하방이었는데, 길가에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 눈치도 많이 보았어도 정이 들었는데. 장마 때는 곰팡이가 금방 피어나고, 겨울에는 결로 때문에 늘 습한 곳에서 길가의 먼지를 다 맡아가면서 그래도 나름 버텨보겠다고 1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될지 막막하네.

모델하우스로 배경이 바뀐다.

팀장 (냄새를 맡으며) 어 이상하다. 왜 자꾸 언제부턴가 모텔하우스에서 김치 냄새가 나지.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내 코는 못 속이는데. 누가 모텔하우스에서 라면 끓여 먹었나? 창식아 혹시 네가 나 몰래 라면 끓여 먹었나?

창식 (시치미를 툭 떼며) 아뇨. 라면이라뇨? 모텔하우스에서 라면을 어떻게 끓여 먹어요? 그리고 고객들 오시면 바로 냄새가 날텐데 모텔하우스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께 실례죠.

팀장 그래 고객들에게 실례될 행동을 창식이 니가 할 리가 없지. 그럼 이 김치 냄새는 어디서 나는 거야? 김양아 방향제 좀 빨리 뿌려 이 김치 냄새 좀 빼라. 고객분들 오시면 큰일난다. 모텔하우스에 김치냄새라니. 얼른 얼른.

김양 (마지못해) 알았어요. (창식을 노려보며) 페브리지 뿌릴게요.

팀장 나 분양관련 팀장급 회의 갔다 올테니 고객들 오면 응대 잘하고 알았지?

김양, 창식 네

팀장이 황급히 나간다.

김양 (짜증이 난 목소리로) 모텔하우스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어떡해요?

창식 (미안한 듯)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괜스레 소리 들으셔서.

김양 저번에는 된장국 끓여 먹는다고 된장 냄새 나가지고 팀장한테 왕창 깨진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기가 뭐 살림하는 가정집이 아니잖아요. 창식씨 여기는 모텔하우스예요. 모텔하우스. 집 없어서 숨어 지내면 조용히 티 만나게 지내야지요. '나 여기서 살고 있네' 하고 라

면 끓여 김치 냄새 풀풀 풍기고, 된장국 끓여 된장냄새 풀풀 풍기고  
광고하면 어떡해요.

창식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국이 정말 먹고 싶어서요. 우리 엄마가 된장국 하나는 기가 막  
히게 잘 끓이시거든요. 집에서 담근 구수한 된장에 멸치 다시 내 가  
지고 파와 두부를 넣어서 된장국 끓이면 밥 한 그릇은 푹딱 해치웠  
거든요.

김양 (냉소적인 목소리로) 그렇게 엄마 된장국이 먹고 싶으면 요 근처 식  
당에서 사먹으면 되잖아요. 세상에 모텔하우스에서 된장국 끓여 먹  
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잘못된 창식씨가 하고 제가 팀장님께 욕  
을 얻어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

창식 죄송합니다. 다시는 팀장님 눈에 안 띄게 조심하겠습니다.

김양 그리고 모텔하우스에서 김치를 먹었으면 뒤처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창식씨가 다 하는데 왜 허구헌날 저만 팀장한  
테 혼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양 (창식을 노려보며) 언제까지 모텔하우스에서 먹고 자고 할거예요?

창식 (고개를 떨구면서) 집이 구해지는 데로 나가야죠.

김양 (통명한 목소리로) 이번 달 말이면 모텔하우스도 폐관이라고 하던  
데요. 다 부서버린다고. 그 전까지 꼭 방 구해서 나가야 할 것 같은  
데요. 정 돈이 없으면 하다 못해 옥탑방이나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돈 없으면 없는 데로 형편에 맞추어 살줄도  
알아야지요.

창식 (갑자기 화가 난다는 듯이 큰 목소리로) 옥탑방에도 살아보고 고시  
원에서도 살아 봤다구요. 돈이 없는 걸 어떡해요 돈이

김양 (어이없다는 듯이) 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죠? 방귀핀 사람이 성

낸다더니 참 별꼴이네요. 모텔하우스에서 먹고 자는 것도 쉬쉬해 주었는데, 이제 화까지 내고 참 어이가 없네요.

복부인이 모텔하우스에 들어온다. 밍크코트에 명품백과 명품시계를 차고 있다. 화장이 진하고 향수도 진하다.

복부인 (창식을 바라보며) 여기 발레파킹 해 주나요?

창식 네 당연히 해 드려야죠. 키 저한테 주시죠.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복부인 (차 키를 건네주며) 조심히 주차해 주세요. 저번에 갈비집 알바에게 차키를 맡겼더니만 주차하다 차를 긁어서 수리비가 천만원이나 나왔거든요. 암튼 내 차 조심해서 주차시켜 주세요.

창식 (갑자기 손을 벌벌 떨면서) 네 조심히 주차하겠습니다.

창식 주차하러 나간다.

김양 (고객을 친절히 응대하면서) 차 무얼로 드릴까요?

복부인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김양 네. 그럼 아메리카노 탈 동안에 모텔하우스 천천히 둘러 보세요.

창식 복부인 차 주차를 마치고 들어온다.

복부인 강남 리버파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좀 해 주세요.

창식 (마치 수학공식을 줄줄 외우듯이) 저희 강남리버파크는 강남에서 5천만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분양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모텔하우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급 마감재를 쓰

고, 단열 통풍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차한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사시사철 뒤에 있는 숲에서 맑은 공기가 불어와서 공기청정기가 따로 필요없습니다. 4-Bay구조로 3개의 방 모두 전면 남향으로 배치 되어 있고, 알파룸과 유럽풍의 실내나 거실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 일부 한강조망 동 호수에서 잔여세대 남아 있습니다. 사모님의 높은 안목을 믿습니다. 저희는 아무나 저희 강남리버파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사모님처럼 지적 교양이 넘치면서 저희 강남리버파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만 모시고자 합니다.

북부인 (우쭈대면서) 내가 좀 교양이 있긴 하지.(모델하우스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강남리버파크 평당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창식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 사모님 평당 분양가 5천이면 강남에서 거저지요 거저. 사모님 강남불패 모르시나요? 왜 사람들이 다들 강남으로만 강남으로만 모이는데요. 다 강남에 투자가치가 그만큼 있어서 강남으로 모이는 겁니다. 앞으로 강남은 지금보다 오르면 올랐지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푹푹한 한 채라고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현 정부가 온갖 규제로 대출을 옥죄는 상태에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 건 아파트는 저희 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라고 다 똑같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파트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잘 짓어서 내로나 하는 건설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1군 건설사입니다. 사모님 강남리버파크 한 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웃돈 더 얹혀서 파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썸 규제 들어가기 전에 한 채 해 놓으시죠?

북부인 (망설이면서) 글썸, 오다보니 지하철역도 꽤 먼 것 같던데

창식 (예상했다는 듯이) 지하철역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관객석을 향

해) 지하철입구에서 열심히 뛰어가다보면 5분이면 충분히 도착한 다니까요. (고객을 향해서) 네 사모님이 오늘 처음 오셔서 아마 더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역세권중에 초역세권 강남리버파크에 살면 지하철이 따라옵니다.

복부인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아닌데 내가 이 동네에서 나서 자라서 아는데 절대 5분 만에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인데. 참 이상하네요. 그리고 한강뷰가 확실하나요? 요새 앞동이나 다른 아파트에 가려 한강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광고한 회사들이 많아서 믿을 수가 없네요.

창식 (역시 예상했다는 듯이) 네, 사모님 한강뷰 확실합니다. 한강뷰가 아니면 어떻게 한강을 바라보고 우아한 차를 마시겠습니까? 제가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살아봐서 아는 데요 한강을 보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서울의 기적은 한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날마다 한강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복부인 아 그래요? 한강이 보이는 곳이면 꽤 비싸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았겠네요.

창식 네 정말 비싸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습니다. 잠시 회상에 잠기며...

배경이 한강이 보이는 옥탑방으로 바뀐다. 오른쪽 첫 번째 방인 옥탑방이 된다. 옥탑방 안에는 텐트가 놓여져 있다. 공인중개사 등장한다.

공인중개사 (객석을 가르키며) 자 봐 한강이 보인다니깐. 한강이 보이는 옥탑방 정말 좋잖아. 아이고 요즘말로 뷰 하나는 끝내 주내. 끝내 줘. (객석으로 창식을 끌어 당기면서) 자 보라니깐 저기 저기 한강 보이잖아. 아 한강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넉넉해진다니깐.

창식 (시큰둥한 목소리로) 한강이 보이긴 하네요. 눈을 크게 뜨고 아주 멀리 보면, 한강이 언제부터 이렇게 작은 개천이었나요?

공인중개사 (겸연쩍한 목소리로) 아 그래도 한강이 보인다는 게 중요하지. 한강이 뭐 꼭 집 앞에 붙어 있어야 하나?

창식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한강이 멀리서나마 보여서 좋네요. 그 전에 살던 반지하방은 창문을 열면 사람들의 구두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행여나 누가 볼세라 하루 내내 커튼을 치고 살았는데. 여기에 살면 한강을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서 좋긴 하겠네요.

공인중개사 (다행이라는 듯이) 그렇지. 여기 옥탑방은 한강뷰야 한강뷰. 요즘 서울에서도 이렇게 한강 보이는 옥탑방은 손에 꼽아. 한강뷰를 품은 옥탑방 아 좋다 좋아.

창식 (마지못해) 중개사님이 좀 싸게 좀 주시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급하게 반지하방에서 쫓겨나서 가진 돈이 얼마 없거든요.

공인중개사 알았어. 걱정마 내가 되도록 싸게 살 수 있도록 힘써 볼게.

공인중개사 퇴장한다.

다시 무대 모델하우스로 바뀐다.

북부인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아봤다니 믿을만 하겠네요. 근데 숲세권이 맞나요? 웬지 아파트 예정부지 뒤쪽에 산이 약간 음산한 기분이 드는 게 분위기가 이상하던데

창식 (예상 답변을 줄줄 외우면서) 네 숲세권 맞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그렇지 봄 되면 화사한 봄꽃과 진달래와 개나리들이 뒷산을 수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신록이 푸르고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다

울 것입니다. 겨울이면 설경이 끝내 줄 것입니다.

복부인 (약간 주저하는 표정을 보인다) 그래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긴 한데  
창식 (고객을 안심시키며) 지하철역은 초역세권으로 5분이면 됩니다. 또  
한 한강을 바라보며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실 수 있구요, 공사현장  
인근 뒷산은 숲세권으로 숲에서 사계절 내내 피톤치드와 맑은 공기  
가 흘러 나옵니다. 한강을 보면서 커피 한잔을 즐길 여유가 있으신  
사모님은 강남리버파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복부인 (우쭈대며) 아 그래요. 한강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여유를  
내가 좀 즐길 줄 알지. 지금 집이 너무 낡고 좁아서 옮기긴 해야 하  
는데 막상 옮길 때가 마땅치 않네요. 남편과 상의해봐서 다시 모델  
하우스에 들릴게요.

복부인이 나간다.

창식 (고객이 나간 쪽으로 90도로 인사를 하며 큰 목소리로) 네 사모님  
꼭 들려주십시오. 사모님이 강남리버파크의 주인입니다. 사모님 기  
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 저 퇴근할게요. 모델하우스 문 잘 잠그세요.

창식 네 내일 봐요.

김양이 퇴장한다.

창식이 모델하우스 거실 한쪽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 놓고 라면을 끓이고  
있다.

창식     아 그래도 여기는 모텔하우스라고 해도 정말 따뜻해서 좋네. 외풍도 없고,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근처 공원에 가서 씻어야 하지만 그래도 미니 침대도 있고 옷장도 있고 이 정도면 좋지 뭐.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서) 아 이렇게 식탁이 있으면 분위기도 내고 좋겠네. (쇼파에 앉아보며) 이렇게 푹신푹신한 쿠션이 있는 쇼파에서 조용하게 한강을 보면서 차 한잔을 하면 정말 좋긴 하겠다.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아 양문형 냉장고 좋다 좋아. 집이 커야 이런 큰 냉장고를 놓고 살지. 이 양문형 냉장고 하다면 사계절 걱정 없겠네. 어떻게 이 모텔하우스는 외풍이 하나도 없지? 모텔하우스는 보통 날림으로 지어서 외풍이 있을만 한데. 아 외풍하니 한강보이는 옥탑방 생각나네.

무대 다시 옥탑방으로 바뀐다.

창식     (언 손과 발을 녹이며) 아 춥다 추워. (온도계를 바라보며) 실내 온도가 영하 5도라니 참 할 말이 없네. 눅눅하고 곰팡이가 쓸어도 반지하방이 좋긴 좋았지. 지하방이라 전기세는 많이 들어도 난방비는 많이 들지 않았는데. 아 꼭 이 방에 오면 혹한기 훈련에 참가하는 것 같다니깐. 겨울에 혹한기 훈련할 때 텐트치고 자면 발끝까지 전해져 오는 그 한기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모르지 몰라 겨울철 추위가 얼마나 지독한지. 밤은 깊어가는데 전투화는 발끝에서부터 얼어붙고, 보급때 받은 방한양말을 두 겹 세 겹 신어 봐도 그놈의 겨울 한기는 양말을 뚫고 내 몸을 포위했지. 아 춥다 추워.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하는 기분이네.

집주인 등장한다.

집주인 (문을 두드리며) 학생 방에 있나?

창식 (텐트에서 나오면서) 네 들어오세요.

집주인 (가스비 영수증을 주면서) 이번달에는 가스비가 제법 나왔네.

창식 (가스비 영수증을 받으며) 네 최대한 아껴써 쓴다고 썼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집주인 그래 공과금 밀리지 말고, 월세도 밀리지 말고, 학생같이 어려운 형편일 때 한번 공과금을 밀리게 되면 그때는 끝장이야 끝장. 월세에 전기세에 수도세에 가스비까지 한꺼번에 밀리기 시작하면 도저히 감당을 못하거든. 명심해 아껴쓰고.

창식 네 알겠습니다.

집주인 나간다.

창식 (가스비영수증을 바라보면 깜짝 놀란다) 20만원이 넘게 나왔네. 아끼고 또 아끼고 살았는데 (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방에 텐트까지 치고 살았는데, (관객들에게 푸념을 늘어 놓으며) 반지하방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겨우 짐만 챙겨서 나와서 방을 구하려 여러 군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기웃거려 봤는데도 가진 돈이 없으니 도저히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 없더라구요. 참 서울이라는 곳은 돈 없으면 살수가 없나 봐요. 보증금 5천은 기본이고, 월세는 턱없이 비싸고, 조금 싼데다 싫어 가보면 창고 같은 방이고. 이 방도 겨우 구하긴 했어요. 부동산중개사님 말이 한강이 보이는 옥탑방 끝내주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왜 옥탑방고양이라는 드라마 보지 않았냐고

얼마나 낭만이 있는지 아냐고. (혼잣말로) 옥탑방 고양이 맞다 김래원과 정다빈이 주연해던 그 오래된 드라마. 참 낭만이 넘치긴 했지. 드라마에 옥탑방이 나오기 전까지는 옥탑방이 그렇게 근사한 데 인 줄은 몰랐지. 사랑이 넘치고 청춘 남녀의 피끓는 로맨스가 아름답게 비출 것만 같았던 근사한 옥탑방에 대한 로망.

창식 관객들을 바라보면서 말을 한다.

창식      맞아요. 옥탑방에 대한 로망이 순간 떠올랐지요. 이번에도 집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옥탑방에 대한 로망을 꿈꾸며 옥탑방에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제 로망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가을에 이사를 와서 겨울을 처음 맞았는데 아 저는 그렇게 추운 방은 처음 봤어요. 얼마나 추우면 방안에 고드름과 살얼음이 얼겠습니까? 제가 텐트를 친 이유도 이중 삼중으로 쳐들어오는 그놈의 추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인데요. (내복을 보여주며) 아무리 이중 삼중으로 옷을 입고 자도 냉골인 방에서 추위를 이기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보일러를 조금 틀었는데도 그 다음달에 30만원 넘게 난방비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따뜻한 방에서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난방을 하루 종일 틀어도 실내온도가 10도를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저는 가끔 드라마에서 겨울에도 덥다고 반팔 입고 나온 연예인을 보면 화가 나서 죽을 것만 같아요. 누구는 이렇게 추운 냉골 방에서 있는 옷 없는 옷 다 껴 입고 텐트까지 치고 난리를 치는데 누구는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고 덥다고 반팔을 입고. 참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옥탑방로망은 옥탑방폭망으로 바뀌었네요. 옥탑방고양이의 로망은 다 조명발

이었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참 제가 순진했나 보네요. 한강뷰가 뭐라고. 한강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옥탑방 주제에 한강이 다 뭘니까?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데 여름이라는 또 다른 복병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해 여름에 뼈저리게 느꼈네요. 그해 여름은 근 10년 만에 찾아오는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렸습니다. 옥탑방은 햇볕을 직접 받아서 밤에도 열이 안 떨어져서 저녁에 들어가도 사우나처럼 덥습니다. 아 사우나 원래 저 사우나 좋아합니다. 사우나에서 쪽 땀을 빼면 피로도 풀리고 참 좋지요. 하지만 여름 더위는 사우나랑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구요? 사우나는 더우면 냉탕에 들어가서 열기를 빼면 그만이지만 옥탑방은 그게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달 수도 없고.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달겠더라고요. 저 원래 더위와 추위에 무지 약하답니다. 열대야와 불볕더위가 계속되면 방에 못 들어가고 하는 수 없이 새벽을 기다리면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서울하늘은 왜 그리도 아름다운지.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행복하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는 것 같지만 다들 여유가 넘쳐 보이는데, 저 혼자만 찌는 듯한 더위에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네요. 커피값이 아까워 커피숍에도 가지 못합니다. 새벽이 되어 방안에 열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 그때 들어가서 잠을 청해도 등에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옵니다. 옥탑방은 아프리카와 시베리아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다시 모델하우스로 장소가 바뀐다.

창식 (몸서리를 치며) 아 그때 그 옥탑방 정말 끔찍했지. 옥프카와 옥베

리아 으 정말 몸서리가 나네. 몸서리가 나. 얼마나 춥고 더웠으면 바퀴벌레 한 마리 살지 않고 말야. 아 라면 불겠네 (김치에 라면을 먹으면서) 그래도 춥고 배고플때는 이 라면하고 김치가 최고지, 가만 소주 한잔 할까?(배낭을 뒤져 소주를 꺼낸다.) 한강이 멀리서 실개천으로 흐르는 옥탑방에서의 생활이 참 힘들긴 했지. (모델하우스를 바라 보면서) 아 이런데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지하철이 바로 앞에 있고, 공동묘지지만 뒤에 산이 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봐야 하지만 한강도 보이고, 평당 분양가가 5천이면 33평 16억 5천만원...내가 이번 알바비로 최저시급 7530원을 받으니 한 달에 이거 저고 떼고 나면 고작 100만원 저금을 하면. 아 일 년에 천이백 만원 십년이면 1억 2천 아 내가 100년을 꼬박 저축을 해도 못 모으는 돈 이구나. 아 나는 언제나 이런 곳에서 살아보나. (약간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빌어먹을 세상. 대학 졸업 후에 공무원 시험도 보고 회사에 취직하려고 수없이 입사지원서 내 보았지만 오라는 데는 없고, 이렇게 알바만 하고 있네. 처음 우리 어머니 서울로 대학 붙었다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 했는데. 그때 까지 나도 순진했지. 그냥 지방 국립대 장학생으로 입학 했으면 우리 부모님 고생 안 시켜드렸을 텐데. 서울로 학교를 와서 우리 부모님 등골이 흰 것이 아니라 매번 등록금 낼 때마다 등골을 빼서 우리 부모님 이제 허리도 제대로 펴지지 못하네. 염병할 세상. 누구는 16억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방 한 칸 없어서 이렇게 모델하우스에 몰래 숨어 살고, 참 불공평하네 불공평해. 학자금 대출은 또 언제 갚지? 결혼은? 누가 집도 직장도 없는 나같은 놈한테 시집을 올려고 할까? 연애도 결혼도 나한테는 남의 나라 일이네.

무대 조명 꺼진다. 창식의 코고는 소리가 들린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복부인이 남편과 같이 모텔하우스로 들어온다. 들어온 후에 모텔하우스를 둘러본다. 큰 방, 작은방, 거실 욕실 할 것 없이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복부인      여보 이 집 어때요?

남편        내가 보기에는 조금 집이 좁은 것 같은데. 구조도 뭐 그리 잘 빠진 것도 아니고.

복부인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물론 평당 분양가가 비싼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요. 요새 대출도 꼭 막혀서 현금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면 어디 아파트 사겠어요?

남편        그래 그렇긴 하지

창식        (옆에서 부부를 보고 있다가 반가운 듯이 친근한 목소리로) 아 사모님 오셨군요. 오늘은 사부님도 같이 오셨네요. 역시 사모님은 아파트 보시는 안목이 있으시네요. 저희가 사모님을 위해서 강남리버파크 로얄층 한 채 남겨 놓았습니다. 계속 찾으시는 분이 계신데 사모님 지금 안 잡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놓으시면 무조건 1-2억은 시세차익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남편        (미심쩍다는 듯이) 아무리 강남이라고 해도 평당 5천은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창식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며) 사부님 옆에 분양한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5천 5백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분양한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6천이었었습니다. 평당 분양가 5천이면 강남에서는 거저입니다.

저저. 오라 강남으로 가라 세계로 강남은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강남집값만 못 잡아서 먹어서 안달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강남이 그만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돈 있는 부자들이 모두 강남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요즘 은행에 현금 맡겨도 이자가 쥐꼬리보다 더 작습니다. 1-2억의 시세차익을 보장할 수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부인 (옆에서 창식을 거들며) 그래요 여보 우리 이번에 계약을 합시다.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 해도 강남은 지금까지 불패였잖아요. 아마 지금 사 놓으면 초역세권에 숲세권이니 아마 웃돈을 제법 받고 팔기도 쉬울 것 같아요.

창식 네 사모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강남불패의 공식만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강남불패!! 강남불패!!

복부인 (남편을 부추기며) 우리 이 집으로 합시다. 고시원 같이 좁은 집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넓은 집에서 남들 보란 듯이 평평거리면 살아 보자구요. 한강 보면서 우아하게 커피도 마시고, 좋잖아요.

창식 (부부를 부추기면서) 아 고시원같이 좁은 집에서 사셨군요. 사실 뭐 고시원은 고시공부나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잠깐 지내다 가는 곳이지 오래살만한 곳은 아니죠. 고시원처럼 좁은 공간에서 사셨다니 정말 불편하셨겠네요.

남편 에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사는 집이 고시원보다는 넓고 좋았지. 어디 우리집을 고시원에다 비교해 당신도 참.

창식 (마음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관객들에게 내 뱉는다) 고시원이 어디가 어때서요? 고시원에도 사람이 산다구요 사람이~

무대 조명이 꺼진다. 무대가 고시원으로 바뀐다. 총무와 창식 등장한다.

- 창식 광고 보고 방 보러 왔습니다.
- 총무 네 어서오세요. 얼마짜리 방을 보실 건가요? 일단 기본은 20만원인데, 20만원은 L자형 구조에 창문이 없고 좁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은 자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고 그건 일자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만원은 공간도 넓고 작은 욕실과 화장실도 딸려 있습니다. 공부하기에는 아무래도 40만원짜리 방이 딱이죠? 얼마 짜리로 보여드릴까요?
- 창식 20만원짜리 방을 보여주세요.
- 총무 네 따라오세요.

총무와 창식은 기다란 복도에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복도를 지나서 L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간다.

- 총무 (불을 켜면서) 여기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불을 항상 켜 놓으셔야 합니다.
- 창식 (방을 둘러보면서) 책상과 침대가 붙어 있네요. 그럼 샤워랑 화장실은 어디에서 해결을 합니까?
- 총무 네 각 층에 보면 공동샤워시설과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창식 (벽을 두드려보면서) 혹시 방음은 잘 됩니까?
- 총무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이거다 샌드위치 판넬로 날림으로 지은거예요. 방음은 애초에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 맞다. 방음이 잘 안되니 기본적인 생리현상도 조금이 하셔야 해요. 옆방에 사람이 있을때는 방귀도 잘못 끼면 욱먹습니다.

창식 (놀란 표정으로) 방귀도 마음대로 끼지 못합니까?

총무 당연하지요. 방귀 소리도 귀에 거슬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시험철이 다가오면 다들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로도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암튼 절대 정숙해야 합니다.

창식 광고지에 밥과 반찬은 기본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엌은 어딘가요?

총무 네 식당은 고시원 1층에 있고, 밥은 항상 해 놓는데 반찬은 중국산 신김치입니다. 밥은 항상 넉넉하게 해 놓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드시면 되구요.

창식 그런데 여러명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방이 너무 좁지 않나요?

총무 (이상하다는 듯 창식을 쳐다보며) 여러명이라도 시간대를 잘 맞추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들어오실 건가요?

창식 (어두운 표정으로) 네 들어가야죠. 가진 돈이 없는데 이 곳이라도 감지덕지죠.

총무 네 고시원비는 선불입니다. 그리고 매달 고시원비는 17일에 주시는데 혹시라도 한달을 못 채우고 나갈 때에는 하루에 만원씩 계산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총무 퇴장한다.

창식 (관객들을 바라보면서 푸념하듯이) 고시원에서 생활한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창문 없는 고시원 방을 소개하면서) 여기가 제가 살던 고시원방입니다. 참 넓죠?? 제 방에는 보시다시피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으니 우선 답답하더라구요. (벽에 그려진 창문을 가리키며) 그래서 벽에 창문을 그려서 붙여 놓고 답답할 때마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창문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 창문에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나아지더라구요. 특히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날이면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또한 <남으로 창을 내겠소> 라는 시를 구해서 한쪽 방에 붙여 놓았는데 시를 읽을 때마다 정말 내 마음에 창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하방과 옥탑방은 그래도 나름 창문이라도 있었는데, 창문이 없는 고시원에 오니 지하방과 옥탑방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발만 뻗으면 그만입니다. 지하방과 옥탑방을 거쳐오면서 살림살이를 많이 버린다고 버렸는데 그 작은 살림살이도 제대로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고시원에 와서 옷도 많이 버리고 그나마 있던 살림살이도 많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귀도 제대로 끼지 못해서 방귀 끼고 싶을 때는 고시원 밖에 나와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밥먹는 것도 어찌나 불편한지. 냉장고에 제 이름을 써서 반찬을 사서 넣어 놓으면 누가 암체같이 반찬을 가져 가는지, 맛있는 반찬을 반찬 가게에서 사서 넣어두면 하루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행여나 식당에 누가 밥이라도 먹고 있으면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밥은 군대밥 저리 가라고, 김치는 너무 삭아서 식초를 뿌려 놓은 것 같고. 하루 내내 빛이 들어오지 않아 마음도 많이 우울했습니다. 빛도 없고 바람도 없는 고시원 한 평도 안 되는 그 방은 저를 가두는 감옥 과도 같았습니다. 감옥에서 늘 탈출을 꿈꾸어 왔던 빠삐용이 부럽더라고요. 빠삐용은 탈출을 했잖아요. 저는 고시원을 탈출하고 싶어도 그 놈의 돈이 없어서 차마 고시원을 떠나 살 용기가 안나더라고요. 농사짓는 부모님께 매번 손벌리기도 그렇고, 지하방이나 옥탑방에 갈 보증금도 이미 바닥이 났고, 그나

마 근근히 하는 알바는 돈이 안 되고, 참 여러모로 힘들던 차에 광고지 보고 고시원에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피 땀흘려 가며 고시원에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피끓는 청년들이, 개미굴과도 작은 방 한 칸에서 큰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배경이 모텔하우스로 바뀐다.

남편        그래 그럼 여보 우리 계약합시다.

복부인     그래요 여보 우리도 이제 한강을 보면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한강라이프를 꿈꾸어봐요.

창식        정말 탁월하신 선택을 하신 겁니다. 계약서는 이쪽에서 직원과 작성하시죠

김양        네 사장님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남편과 복부인 그리고 김양은 퇴장한다. 팀장 등장한다.

팀장        창식이 고생했어.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까지만 모텔하우스 운영하고 내일은 모텔하우스를 철거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오늘 남은 시간에 모텔하우스에 있는 회사 관련된 장부랑 물품이나 비품 다 챙겨 놓고, 뒷정리 차질 없이 하고, 알바비하고 계약 인센티브는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이 될 거야. 나 먼저 퇴근할테니 뒷정리 차질 없이 잘 하고

창식        (힘없는 목소리로) 네 팀장님 내일 뵈겠습니다.

팀장 퇴장한다.

혼자 모텔하우스에 남은 창식

창식 (다시 관객들을 향해 넋두리를 늘어 놓는다.) 이제 저 어디로 가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다 전전했는데 이젠 갈 곳이 없네요. 그나마 모텔하우스라도 있어서 얼마 동안은 돈 걱정 안하고 지냈는데, 제가 이렇게 좋은 집에 언제 살아 보겠어요. 모텔하우스에서 잠시 동안 산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이제 곧 강추위가 찾아 올텐데. 참 큰일이긴 하네요. 모텔하우스 알바를 구한 것도 다 모텔하우스에서 얼마동안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아파트가 분양 되어서 팔릴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네요. 처음 분양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이 모텔하우스를 본 첫날이 생각나네요. 넓고 고급스런 마감재에 큼지막한 방에 깨끗하게 정돈된 가구 아 제가 지냈던 지옥고와는 판 세상이 있더라구요. 저도 비록 목을 빼서 쪽 내밀어야 보이는 하지만 강남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차를 마시고 싶어요. 지하철역을 뛰어가서 5분이지만, 지하철역 근처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공동묘지라 음산하지만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앞으로 이런 지옥고의 생활에서 결코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강남 집값 아 강남을 벗어나서 다른 곳을 알아보라구요. 다른 곳도 천정부지로 아파트가격이 올라 최소한 3억 이상은 있어야 이런 아파트를 사는데 제가 한 달에 받는 알바비로는 어렵도 없지요. 사실 이 알바도 계속 구해진다는 보장도 없구요. 아 3년 동안 공무원시험에 매진했는데 매번 떨어지고, 이제 부모님께 전화도 못 드

리겠네요. 남들은 군대갔다와서 번듯하게 취직해서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만 사는데 저는 지옥고를 전전하며 허구헌날 이렇게 술이나 퍼 마시며 살아야 하는지. 제가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할까요? 아니면 이 사회를 원망할까요? 원망도 여러 번 해 보았지만 다 부질없더라고요. 친구들도 시험에 연거푸 낙방하니 다 떠나가고, 제 주위에는 사람이 없네요. 지옥고를 이제 그만 탈출해서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만, 돈이 없네요 그놈의 돈이.(절규하면서) 저는 이 지옥과도 같은 지옥고에서 더 이상 살기를 싫습니다. 아 몸서리가 나고 징글징글한 지옥고, 벗어나고 싶네요. 하지만 벗어나려고 해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또 다른 지옥입니다. 지옥.

무대 조명 꺼진다.

이어서 뉴스가 나온다.

앵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강남에 있는 한 고급 모텔하우스에서 20대 후반의 알바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숨진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알바생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모텔하우스에서 임시로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이 없어서 숙식을 임시로 해결하면서 이사 갈 집을 알아 봤는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마땅히 이사 갈 집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 다른 타살 흔적이 없고 가방에서 유서가 나온 걸로 보아 신병을 비관한 자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어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늘어만 가는 청년층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청년임대주택을 늘리기로 당정청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이나 지하철역 주변을 활용해서 청년임대주택으로 향후 5년간 약 8만호를 지어서 주변보다 싼 임대료로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은 보증금은 국가가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10만원 내외로 책정해서 청년층들의 주거부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막이 내린다.



발간등록번호

11-1760000-000009-10

공무원  
문예  
대전 수상작품집



인사혁신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www.mpm.go.kr](http://www.mpm.go.kr)